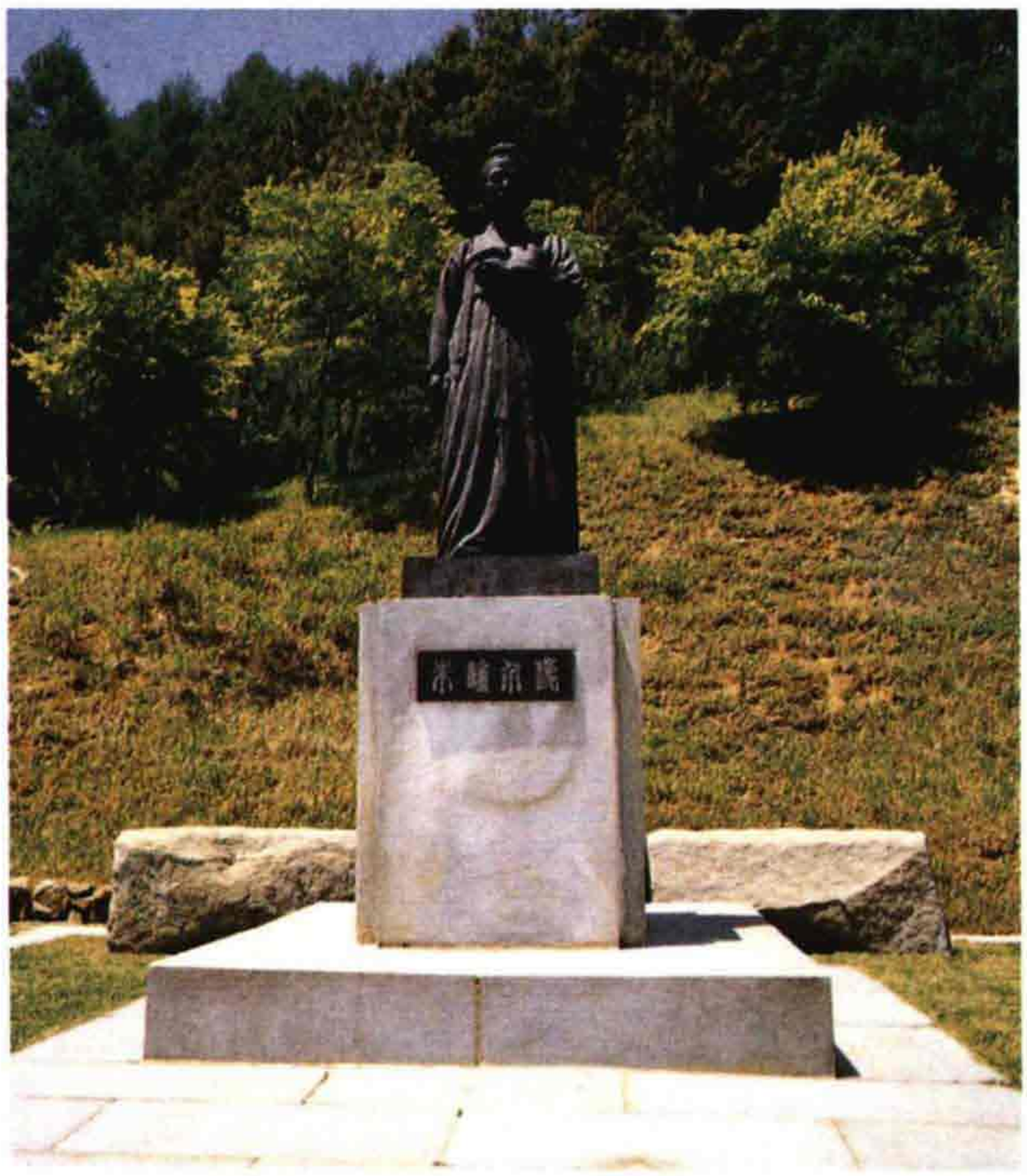
논 개 실 기

(論介實記)

장 수 문 화 원

논개 영정 (의암사 봉안)



주논개 동상(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논개 생가(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촌(궐촌) 옆동산에 있는 논개조부 주용일묘

주촌마을과 입구에 복원한 논개정여

진주성 전경

촉성루 원경(진주성 내)

의암(진주성 밖 남강가)

진주성과 남강

의암사 원경(장수군 장수읍)

의암사(장수군 장수읍)

주논개 영정(의암사내)

의기사 전경(진주성내)

의기사 지수문

의기사 현판

의기사기(의기사)

기생 산홍의 시(의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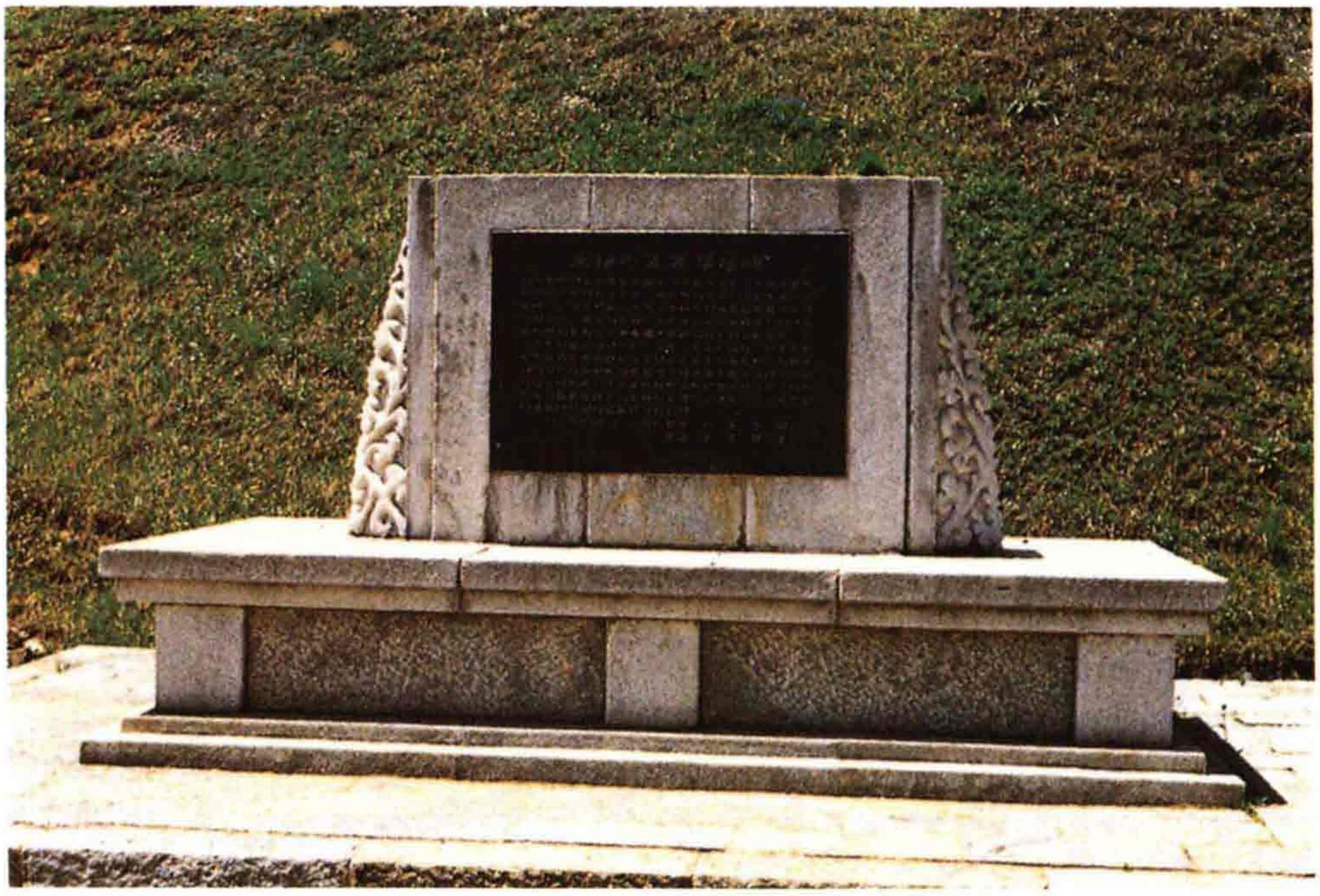
의기 논개 정문 전경(진주성 촉석루 남쪽 의암 윗편)

의기 논개지문 현판

의암사적비(의기논개정문 내)

논개생장향수명비(장수군 장수읍 의암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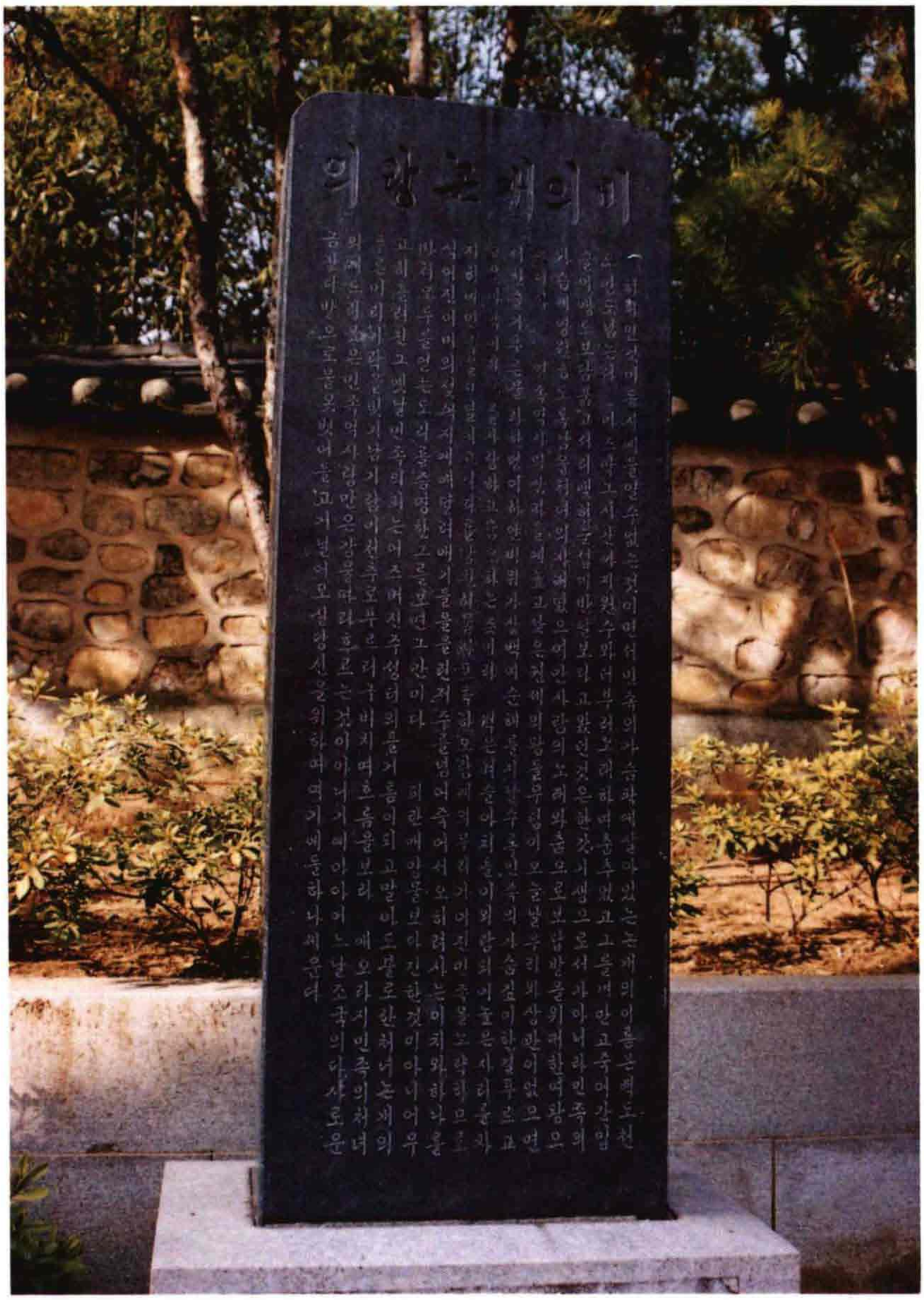
논개생가지 사적불망비(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주논개 생가 사적비(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주논개 생가지 사적 불망비각

의암 주논개 유허비



의랑 논개의 비(진주성내)

논개 성장 과정(의암사 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무고판결 받는 논개 모녀(의암사 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진주성 싸움(의암사 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진주 남강 순사(의암사 논개 기념관 내 기록화)

의암사 논개 기념관

변영로 논개 시비(진주성내)

삼장사 기실비(진주성내)

발 간 사

장수문화원장
김 진 영

오랜 세월이 흘러간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록(記錄)이나 구전설화(口傳說話)가 산재(散在)한다 하더라도 필사(筆寫)나 구비전숭(口碑傳承) 과정에서 탈자 오기 와전으로 인해 진실을 구명(究明)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문학적 상승 효과를 거양키 위한 소설(小說)이나 야록(野錄)들은 설사 올바른 기록이라 하더라도 사실(史實)로서 인증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장수군민(長水郡民)의 정신적 지주로 숭앙받는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는 400여년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분이다. 2차(二次) 진주성(晋州城) 싸움 당시(1593. 6. 癸巳年) 왜장(倭將)을 끌어 안고 남강(南江)에 투신 순절한 사실과 그의 죽음이 출열(忠烈)의 표상(表象)임을 최초로 채록한 분이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다. 그는 1621년 필사본(筆寫本)으로 된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남겼다. 이 《어우야담》에 주논개는 기녀(妓女) 신분으로 거사의 과정과 행위가 만고 충열(萬古忠烈)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주논개에 관한 시구(詩句) · 야록(野錄) · 비문(碑文) 등의 형식을 취한 많은 기록과 설화가 전하지만 이 《어우야담》의 내용을 벗어나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주논개의 가계(家系) · 신분(身分) · 생장지(生長地)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200여년이 흘렀다. 1800년대에 이르러 주논개의 생장지가 장수(長水)라는 것과 장수현감(長水縣監) 최경회(崔慶會)와의 관계, 임진왜란 때 진주성으로 가게 된 연유, 신분 등이 간략하게 밝혀진《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호남읍지(湖南邑誌)》·《동감강목(東鑑綱目)》 등의 문헌이 세상에 나오면서 1846년 정주석(鄭胄錫) 장수현감이 장수에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를 세워 이 곳 장수가 논개의 생장지라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논개의 가계 · 신분 · 충생지 등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지 못하고 고로상전(古老相傳) 2백년이라는 구비 전승에 의해 여러 설화가 전해지면서 이설(異說)도 생기고 궁금증도 남게 되었다.

8.15광복이 된 뒤 논개에 관한 사적 규명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 되어 1954년 진주 의기사(義妓祠) 경내에 세위진 비문에 논개의 성씨(姓氏)가 주(朱)씨라 기록되었다. 이 때 장수에도 의암사(義巖祠)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논개의 관향이 신안(新安)이라 명명하고, 1955년 사당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당시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의 친필 현판 '의암사(義巖祠)'를 걸게 되었다. 1960년에는 장계면 주천 마을 입구에 '의암주논개낭생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를 세웠는데 이 비문에서 논개의 가계 · 생일 · 신분 · 생장지 · 순절시 사망한 왜장명 등이 밝혀져 논개 사적 정립을 진일보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400여년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 논개의 사적을 좀더 정확하게 정립코자 노력하였지만생장지와 거사지를 중심으로 채록 전승된 야담이나 구전 설화에 이설(異說)이 많고, 세인(世人)의 무관심으로 잊혀졌거나 희미해진 부분이 있느지라 그것들을 들추어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에서는 그 일환(一環)으로 1996년 11월 '논개의 생애(生涯)와 충절 정신(忠節精神)'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論文集)을 발간한 바 있으며, 또한《이애미 논개》라는 소설 형식의 전기를 발간하였다. 특히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논개에 관한 많은 새로운 문헌과 기록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400여년이 지나는 동안 논개의 사적을 구명할 수 있는 고문헌(古文獻) · 금석문(金石文)을 수집하여 이를 한글로 번역하고, 최근에 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집대성(集大成)하여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편집 논개 사적을 좀더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논개실기(論介實記)》를 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논개실기》 간행을 위해 자료 수집과 번역 등 실로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신 오병무(吳炳武) 교수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내고장 향토 문화(鄕土文化) 창달(暢達)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두(金祥斗) 군수님과 정희택(鄭喜澤) 군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내고장의 문화 유산(文化遺産)을 계발(啓發)하고 보존 전승하는 일에 신명(神命)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간 사

장수군수
김 상 두

우리 고장은 옛부터 2덕(二德) · 3절(三節) 5의(五義) 등 선비 문화의 발상지(發祥地)로 알려져 왔으며, 또한 조국을 수호(守護)했던 충의(忠義)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2덕이란 고려 말 문신(文臣) 백장(白莊) 선생과 조선초 청백리(淸白吏) 황희(黃喜) 정승을 가리키며, 3절이란 임진왜란 때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자 왜장(倭將)을 껴안고 남강물에 투신 순국하신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님과 목숨을 걸고 장수향교(長水鄕校)를 지킨 충복(忠僕) 정경손(丁敬孫)과 자기의 책무를 통감(痛感) 장수현감을 따라 순절한 무명(無名) 충리(忠吏) 백씨(白氏)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의란 구한말(舊韓末) 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신 문태서(文泰瑞) · 전수용(全垂鏞) · 박춘실(朴春實) 세분 의병장과 기미독립 만세 33인 가운데 한 분인 백용성(白龍城) 선사 그리고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항거 하신 정인승(鄭寅承) 박사를 가리킵니다. 이 분들은 모두 이 곳 장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00년대로 향하는 세기 말(世紀末)에 놓여 있으나 아직까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주논개(朱論介)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6년 장수문화원에서는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정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이 고장 출신 고두영(高斗永) 시인께서 《이애미 논개》라는 저서를 발간 잊혀져 가는 의암 주논개의 사적을 재조명하여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주논개에 관한 역사적 사실(歷史的事實)과 고문헌(古文獻)들을 집대성(集大成)하여 《논개실기(論介實記)》라는 한권의 책자로 종합(綜合) 정리(整理) 발간(發刊)하게 되어 우리 장수군민(長水郡民)들로서는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의 정신(精神)이며, 시대(時代) 속에 살아 움직이는 혼(魂)입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료(史料)들을 발굴(發掘)하고 새로운 시각(視覺)으로 접근하여 지역 정신의 맥(脈)을 바로 찾는 일은 지역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조상(祖上)의 역사를 다시 평가(評價)하고 음미(吟味)함으로서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위상(位相)을 점검(點檢)하는 좋은 계기(契機)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논개실기》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地方化時代)의 시대적 사명(時代的使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논개에 관한 올바른 역사(歷史)를 인식(認識)케 하고 나아가 애국(愛國) 충절(忠節) 정신(精神)을 기리는 정신적 지주(精神的支柱)로 삼고, 또한 장수사(長水史)의 자리를 분명히 하여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학사 일정(學事日程)에도 짧은 기간 내에 현지 조사(現地調査)와 집필(執筆)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본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오병무(吳炳武) 교수를 비롯한 집필진(執筆陣) 여러분과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 간 사

장수군의회 의장
정 희 택

어떤 지역(地域), 어느 고장을 가더라도 그 고장을 대표(代表)하는 얼과 문화 유산(文化遺産), 특색(特色)있는 산물(産物)들이 그들 나름대로 긍지(矜持)를 갖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수인(長水人)들도 타지역(他地域)에 비하여 결코 부럽지 않는 유산(遺産)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깨를 펴고 자랑하고, 듣는 이에게 애착(愛着)을 느끼게 하는 유서(由緖)깊은 고장으로서의 면모(面貌)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自負)합니다.

그 으뜸이 되는 자랑이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국난(國難)의 시기(時期)에 왜장(倭將)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남강(南江) 절벽(絶壁)으로 유인(誘引)해 그를 껴안고 몸을 던지므로써 살신보국(殺身保國)을 실천(實踐)하신 논개(論介)님의 숭고(崇高)한 정신(精神)이라 할 것입니다.

역사(歷史)에 그 전례(前例)를 찾아 보기 힘든 충의(忠義)의 열사(烈士)가 우리 고장 장수(長水)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시대(時代)를 살아가는 장수인(長水人)에게 더 없는 자부심(自負心)입니다.

그동안 논개님에 대한 사적(史蹟) 연구(硏究)와 자료(資料)를 수집(蒐集)하여 혹은 책(冊)으로써 혹은 보존 유물(保存遺物)로써 나름대로 발간(發刊)되고 보강(補强)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논개실기(論介實記)》는 산재(散在)되어 있는 사료(史料)를 총망라(總網羅)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으로 그 뜻이 새롭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논개실기》가 훌륭하신 논개님의 업적(業績)을 기리고 향후(向後)에도 이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연구되고 보완(補完)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귀중(貴重)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期待)합니다.

끝으로 《논개실기》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성원(聲援)과 편찬(編纂)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진영(金鎭泳) 장수문화원장(長水文化院長)과 오병무(吳炳武) 교수를 비롯한 편집위원(編輯委員)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충심(衷心)으로 깊은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서(序)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差別)이 있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태어난 뒤 그 사회(社會)의 제도(制度)에 따라 신분(身分)을 구별하기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신분이 미천(微賤)하든 존귀(尊貴)하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있다. 우리 나라 역사적(歷史的)인 인물(人物) 가운데에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불분명(不分明)한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논개(論介)이다. 논개는 역사적으로 실존(實存)했던 인물로 우리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業績)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父母)와 출생지와 성장지 곧 그녀의 생애(生涯)에 관한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후세인(後世人)들에게 많은 논란(論難)거리를 제공(提供)케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생애(生涯)에 대한 최초의 기록(記錄)으로는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서(著書) 《어우야담(於于野談)》이다. 그런데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歷史的) 한 사건(事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헌 설화(文獻說話)에 지나지 않는다.[1]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논개의 생애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提起)된다고 하겠다. 즉 논개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출생과 이름, 출생지(出生地)와 성장지(成長地), 신분(身分) 등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장(主張)한 바 이설(異說)들이 많이 있으며, 이 이설들 때문에 야기(惹起)되었던 또다른 이설들이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논개의 생애(生涯)에 관하여 일관(一貫)되

게 기록(記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본서(本書)는 논개의 생애에 관한 새로운 사실(事實)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言及)한 점을 감안(勘案)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의 생애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이 한 권(卷)의 책자(冊子)에 묶어 이를 근거로 검토(檢討)해 보고, 논개의 생애를 정립(定立)하는데 일관되고 타당성(妥當性) 있는 자료(資料)를 거기서 찾아 보려는 것이 본서를 간행(刊行)하는 목적(目的)이다.

본서를 간행하는데는 리명길, 〈의기 논개(義妓論介)의 사적 고찰(史蹟考察)〉《진주문화 14집》과 부산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간,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본서가 간행되기 전 작고하신 이강오(李康五) 교수님께서는 본서의 내용 중 일부분을 불편하신 몸으로 번역과 수정을 도맡아 주셨다. 한편 전북도민일보(全北道民日報) 백남혁 주필께서는 본서가 간행되기까지 많은 조언(助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다.

1997년 12월　　일

편저자

목차(目次)

발간사 ……김진영(장수문화원장) ……25

축간사 ……김상두(장수군수) ……29

축간사 ……정희택(장수군의회 의장) ……31

서(序) ……33

총론(總論) : 논개(論介)에 관한 각종(各種) 문헌(文獻)과
그에 나타난 논개의 생애(生涯) ……39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장수 지역(長水地域) ……127

진주성(晋州城) 싸움과 최경회(崔慶會) 그리고 논개(論介) ……167

문헌(文獻)의 논개(論介)에 관한 기록들 ……201

논개(論介)에 관한 시문(詩文) ……321

자료편(資料編)

전과우의병(全羅右義兵)과 최경회(崔慶會)

일가(一家)의 의병운동(義兵運動) ……355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 문학적 이해 ……390

논개에 관한 구비전설(口碑傳說) ……412

부록(원문) ……457

총 론(總論)

오병무(吳炳武)
(順天大學校 敎授, 哲學博士)

논개(論介)에 관한 각종(各種) 문헌(文獻)과 그에 나타난 논개의 생애(生涯)

오병무(吳炳武)
(順天大學校 敎授, 哲學博士)

〔I〕

1900년 이전까지 간행(刊行)되었거나 필사본(筆寫本)으로 이루어진 문헌들과 그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서문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논개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어우야담(於于野談)》이다.[1]《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류(種類)가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 《어우야담》은 현재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어우야담》필사본은 '장

1) 유몽인(柳夢寅)의《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 서기 1621년 당시 여러 지방의 민간(民間)에 흩어져 구전(口傳)되던 것을 채록(採錄)하여 만든 것이다. 이《어우야담)》권일(卷一) 인륜편(人倫篇) 효열(孝烈) 조(條)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야담(野談)과 설화(說話) 형식(形式)으로 기술(記述)하였다.

서각본(藏書閣本)' '연세대본(延世大本)' '천리대본(天理大本)' '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이 《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1621)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2]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 《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계사년(癸巳年)[3]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

---

2) 유몽인은 명종(明宗) 14년(1559)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이자 당(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於于堂) · 간재(艮齋) · 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홍양(興陽)이다. 그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門人)으로 선조(宣祖) 15년(1582) 진사(進士)가 된 뒤 15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성품이 경박(輕薄)하여 스승의 책망을 받고 절교(絶交)를 당하자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대북파(大北派)와 교유하면서 중북(中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우계 성혼이 죽자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써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폐모론(廢母論) 때 이이첨과 대립, 이에 가담치 않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응시(柳應時)의 고변(告變)으로 기자헌(奇自獻) · 유경종(柳敬宗)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양주(楊州)의 서산(西山)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李元翼) · 김상헌(金尙憲) 등의 문초에 모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은 '상부사(孀婦詞)'에서 인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아들 약(瀹)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조선 중기의 설화문학(說話文學)의 대가였으며 전서 · 예서 · 해서 · 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정조 때에 이르러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추증되었고 홍양의 운곡사(雲谷祠)와 완주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어우야담(於于野談)》 · 《어우집(於于集)》이 전해오고 있다.

3)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 그녀를 꾀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로다.(論介者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觀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賞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 부분 '논개(論介)는' 부터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까지는 논개(論介)의 순국(殉國)에 관한 내용이고, 뒷 부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부터 '참의로 애ㄷ은 일이로다.' 까지는 논개의 순국(殉國) 사실에 관한 어우당 유몽인 나름의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평가(評價)라 하겠다. 우선 앞의 기록에서 '논개(論介)' 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에게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관기로서 논개는 진주성(晋州城)이 함락(陷落)되어 많은 군사(軍士)와 백성들이 죽게 되자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怨讐)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장(丹粧)한 뒤 남강(南江) 가의 바위에 앉아 왜적(倭賊)의 장수를 유인(誘引)하여 끌어안고 함께 남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관기(官妓)란 원래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라 하여 정열(貞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몽인 볼 때 논개는 관기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정열(貞烈)이 있었고 충(忠)을 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관기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일반 사서임(士庶人)들이나 양반(兩班)의 부녀자(婦女子)들이 행할 수 있는 충과 열을 궁행(躬行)하였다는 것이다. '충(忠)' 이란 원래 '충성(忠誠)'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교(儒敎)의 덕목(德目)의 하나로 임금에 대하여 신하(臣下)와 백성이 자신의 본분(本分)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충(忠)' 이라는 문자는 '중(中)' 과 '심(心)' 이 합(合)해져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형태가 나타내듯이 인간의 내면적(內面的) 양심(良心)이라 할 수 있는 성실(成實)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마음에 의하여 남을 이해(理解)하려는 것이 '서(恕)' 라 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하여 거짓이 없이 말(言語)로 행하려는 것이 곧 '신(信)'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몽인이 앞의 글에서 논개가 궁행하였다고 평가한 '충' 이란 정치적(政治的) 개념(槪念)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道德的) 개념으로서의 대의(大義)를 위한 자발적(自發的)이고 실천적(實踐的) 헌신(獻身)으로 본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열(烈)' 이란 원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싸운 여자(女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논개의 순국에 관한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그것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조 선조(宣祖) 25년 서기 1592년 10월 5일 하시바(羽柴藤元郎 : 실은 長谷川藤五郎)를 대장으로 한 3만명의 왜적(倭賊)은 영남 지방(嶺南地方)의 요새지(要塞地)인 진주성(晋州城)을 공격해왔다. 그 때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은 성문(城門)을 굳게 닫고 성 안에 있는 아군(我軍)의 사기(士氣)를 고무(鼓舞)하는 등 왜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滿盤)의 태세(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진주성에 다달은 왜적들은 성 근처에 있던 큰 대나무(竹)를 베어다 비루(飛樓)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 성 안에 있는 아군에게 총(銃)을 쏘아댔다. 성 안에서는 왜적의 총에 대항하여 화약(火藥)을 장치(藏置)한 대기전(大岐箭)을 쏘아 비루를 파괴하는 등 왜적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이 때 성 밖 한편에서는 의병장(義兵將) 곽재우(郭再祐)가 의병을 이끌고 왜적의 후방(後方)을 공략(攻掠)하면서 성 안에 있는 아군을 응원(應援)하였다. 이에 왜적은 11일 밤 최후의 결전(決戰)을 결의한 뒤 성벽(城壁)을 기어올랐다. 이에 아군은 마른 갈대에 화약을 싸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적에게 던지고, 한편으로는 끓는 물과 돌을 왜적에게 던져 왜적의 공세를 분쇄(粉碎)하였다. 이에 왜적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진주 목사 김시민은 성루(城樓)에 올라 많은 왜적을 사살(射殺)하였지만 왜적으로부터 부상을 당하여 몇 달 후에 순국(殉國)하였다.

이러는 상황 아래에서 중국 명(明) 나라와 일본(日本)이 화의(和議)를 진행(進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남 일대(一帶)를 본거지(本據地)로 하고 있던 왜군은 지난 김시민에 의한 패전(敗戰)을 복수(復)하고 지리상(地理上)의 요충지(要衝地)인 진주성을 확보키 위해 선조 26년 서기 1593년 6월 가또오(加藤清正) · 고니시(小西行長) · 구로다(黑田長政) 등이 이끄는 대군(大軍)을 동원(動員) 진주성을 총공격해왔다. 이 때 아군은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 ·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 권율(權慄) 등이 의령(宜寧)에 도착했으나 왜적의 기세(氣勢)에 눌려 후퇴(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직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만이 양산숙(梁山璹) ·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 충청 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 의병장(義兵將) 고종후(高從厚) · 사천 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과 함께 진주성에 들어가 앞서 들어와 있던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합세하고 뒤이어 의병장 강희열(姜熙悅) · 이해(李海)가 성안을 들어왔다. 이 때의 성 안에는 수천명에 지나지 않은 아군과 6 · 7만명의 백성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투력은 태부족이었다. 성 밖에 중국 명 나라와 우리 아군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이들은 방관(傍觀)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

6월 20일 왜적의 선봉(先鋒)은 약 5만명으로 진주성을 포위(包圍)한 채 치열한 접전(接戰)을 하였다. 이 때 김준민(金俊民) · 장윤 · 황진 등이 전사(戰死)하였다. 그동안 귀갑차(龜甲車)를 이용하여 공격하던 왜적이 29일 마침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이 왜적을 피해 도망하니 군사는 흩어지고 말았다. 이 때 김천일 · 양산숙 · 최경회 · 오빈(吳玭) 등 수십명은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순국(殉國)하고 강희열 · 이잠(李潛) 등은 적진으로 돌격(突擊)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4]

그 다음의 기록으로는 논개가 임진왜란 당시 순국(殉國)한 진주성(晋州城) 촉석루(矗石樓) 아래 남강변(南江邊) 바위에 새겨진 '의암(義巖)'이라는 전서(篆書) 두 글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져 새겨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 가운데 '어우선생년보(於于先生年譜)'를 보면 이 '의암'이라는 글씨는 정대융(鄭大隆)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대융이란 임진왜란 때 함경도(咸鏡道)에서 의병(義兵)을 이르킨 의병장(義兵將) 정문부(鄭文孚)[5]

---

4) 유홍열(柳洪烈) 감수,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 (교육도서, 1989, 서울), p.1372. 참조.

의 차자(次子)인데 그는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에 뛰어났다고 한다. 《진양현속지(晋陽縣續誌)》 권2(卷二), 인물조(人物條)를 보면 정대융은 아버지 정문부가 초(楚) 회왕(懷王)에 대해 지은 시(詩)로 인조(仁祖) 2년(1624) 1월 이괄(李适)의 난(亂)에 연루되어 무고(誣告)로 죽게 되자 형 정대영과 함께 진주(晋州)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면 '의암(義巖)' 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仁祖) 2년(1624) 1월 이후가 된다.

한편 현재 촉석루(矗石樓)에 걸려있는 〈의암기(義巖記)〉를 보면 이 '의암(義巖)' 이라 각자(刻字)한 동기(動機)가 소상(昭詳)하게 밝혀져 있다. 즉

> …논개(論介)는 짐짓 미소까지 지으면서 맞아들인 뒤 그 왜인(倭人)을 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을 정표했다고 한다. 의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말한 '개우석(介于石)' 이 아니며 위시(衛詩)에서 말하는 '불가전(不可轉)' 이 아니리오.[6]

라는 기록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의암' 이라 새겨져 있는 바위는 논개가 왜인(倭人)을 안고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논개의 의열

---

5) 정문부는 명종(明宗) 20년(1565) 부사(府使) 신(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자허(子虛)이고, 호는 농포(農圃)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선조 21년(1588)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뒤 곧이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한 뒤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회령(會寧)의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 적에게 투항하자 그는 산 속으로 숨었다가 민관(民官)을 수습하여 의병 대장(義兵大將)이 되어 경성(鏡城)을 수복하고 회령으로 진격하여 두 왕자(王子)를 왜적(倭賊)에게 넘겨준 반란군과 국경인의 숙부(叔父) 세필(世弼)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이듬해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되었다가 그 뒤 길주목사(吉州牧使)가 되었다. 인조(仁祖) 2년(1624) 그는 자신이 지은 초회왕(楚懷王)에 관한 시(詩)가 이괄(李适)의 난과 연루가 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뒤에 함북(咸北) 지방민들의 송원(訟寃)에 의해 신원(伸寃)되었다. 그의 저서로 《농포집(農圃集)》이 전해 오고 있다.

6) 현재 진주(晋州)에 있는 촉석루(矗石樓)의 현판(懸板) 가운데 '의암기(義巖記)' 와 오두인(吳斗寅), 《양곡집(陽谷集)》 권삼(卷三), 〈의암기(義巖記)〉 참조.

(義烈)을 정표(情表)하기 위해 후세(後世) 사람들이 새기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의암'은 논개와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와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호(號)를 '의암'이라 부르게 된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의암이 공식적(公式的)으로 세상에 알지게 된 것은논개가 순국한지 32년 뒤의 일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 기록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후세에 알려 주게 된 직접적인 사료(史料)가 되는 최초의 금석문(金石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암기〉는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 당시 간관(諫官) 오두인(吳斗寅)이 쓴 것이다. 〈의암기〉는 《양곡집(陽谷集)》에 기록되어 있다. 《양곡집(陽谷集)》은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7]의 저술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 서기 1746년 아들 태주(泰周)[8]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縡)[9]가 간행하

---

7) 오두인은 인조(仁祖) 2년(1624) 상(翔)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부 숙(翻)에게로 입양(入養)되었다. 그의 자는 원징(元徵)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인조 26년(1648)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한 뒤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 · 장령(掌令) · 헌납(獻納)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다음 해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 청(淸) 나라에 다녀왔다. 숙종(肅宗) 5년(1679)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 나라에 다녀와 다음 해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682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 판서를 역임하다 숙종 15년(1689) 형조 판서로 재직 중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西人)들이 정치에서 실각(失脚)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削職) 당하였다.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폐위(廢位)되자 이세화(李世華) ·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국문(鞫問)을 받았으며 의주(義州)로 유배(流配) 도중 숙종 15년(1689) 파주(坡州)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곧 복관(復官)되었으며 뒤에 그에게 영의정(領議政)이 추증되었다. 파주의 풍계사(豊溪祠) · 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 · 양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 · 의성(義城)의 충열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 《양곡집(陽谷集)》이 전해 오고 있다.

8) 오태주는 현종(顯宗) 9년(1668) 두인(斗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도장(道長)이고, 호는 취몽헌(醉夢軒)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그는 현종의 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결혼하였으며 숙종 5년(1679) 해창위(海昌尉)에 봉해졌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隸書)에 능통하였다. 그는 1689년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아들을 세자(世子, 景宗)로 책봉(冊封)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한 때 삭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예에만 열중하였다. 그는 숙종 42년(1716) 죽었다.

였다.이 오두인의 문집인《양곡집》권삼(卷三)에도 〈의암기(義巖記)〉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1651)에 쓰여진 것이다. 〈의암기(義巖記)〉의 내용을 살펴 보면

진양성(晋陽城) 촉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서 솟아 있다. 뭍에서 그 바위로 건너 가려면 한 걸음 밖에 않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10] 왜적(倭賊)이 침입(侵入)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 논개(論介)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盟誓)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듯 우뚝 서 있었다. 여러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倭將)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뭍으로 논개를 꾀

---

9) 이재는 숙종 6년(1680) 진사(進士) 만창(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庵) · 한천(寒泉)이며, 본관은 우봉(牛峯)이다. 그는 숙종 28년(1702) 알설문과(謁聖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찬집청 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단종실록(端宗實錄)》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봉교(奉敎)로 있으면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듬해 홍문관(弘文館) · 헌납(獻納) · 북평사(北評事)를 역임타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는 노론(老論)의 일원(一員)으로《가례원류(家禮源流)》시비가 일어났을 때 서런(少論)을 통박하기도 하였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중부(仲父) 만성(晩成)이 옥사(獄死)하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인제(麟蹄)로 들어가 성리학(性理學) 연구에 전념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중추적 인물로 등장하였다. '심성론(心性論)' 에 있어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의 호론(湖論)을 반박 당시 낙론(洛論)의 대표적 학자가 되었다. 그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조광조(趙光祖) · 이이(李珥)를 사숙(私塾)했으며《율곡전서(栗谷全書)》를 산정(刪定)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화(書畵)에도 능통하였다. 영조(英祖) 22년(1746) 그는 죽었다. 용인(龍仁)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배향되었다. 그의 저서로는《도암집(陶庵集)》이 전해 오고 있다. 그 밖에 많은 편저가 전해지고 있다.

10) 여기서 '계사년(癸巳年)' 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어 내려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情表)하였다고 한다.

의(義)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 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 ,《詩經》)에서 이른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晋州)의 한 창기(娼妓)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義)를 좇차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大丈夫)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함으로써 당시 여염(閭閻)집 부인(婦人)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恩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感動)하여 분발(奮發)케 한 것이리라. 마치 남국(南國) 부인네들이 문왕(文王)의 인정(仁政)에 감화(感化)되어 강한(江漢) 땅의 풍속(風俗)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前省略〉義哉巖也. 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 衛詩所謂不可轉者耶. 彼以南州之一娼妓 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 辦此烈烈如大丈夫事業 以愧夫當日之髯婦 苟非我國家深仁厚澤 能使人感發者 有若南國婦人 化文王之政 變江漢之俗 則何以得此乎.)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11]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11) 여기서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는 이종인(李宗仁)을 가리키며, '김창의(金倡義)'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을 가리킨다. 이종인의 자는 인언(仁彦)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귀침(龜琛)의 아들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뒤에 무예(武藝)를 익혀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 선조 16년(1583) 군관(軍官)이 되어 이제신(李濟臣)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는데 종군(從軍)하였으며, 북방(北方) 수비(守備)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부임하여 진주성(晋州城)이 왜적에게 포위(包圍)되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황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끝까지 방어(防禦)하였으나 함락당하게 되자 적병(賊兵)을 양팔에 한명씩 끼고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뒤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추증하였으며 진주의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 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 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져!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前省略〉噫.癸巳于今甲子纔一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辨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晋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

위의 내용은 아마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인용하여 거기다가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좀더 상고(詳考)하여 보완(補完)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해부사 이모(李宗仁)' 역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양팔에 왜적 한명씩을 끼고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숙국하였는데 그 투신처(投身處)가 바로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강에 투신하였던 '의암(義巖)'이라는 기록이다. 이같은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없는 것으로 새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해 부사 이종인은 이 때 이미 그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으로부터 인정되어 순국한 그에게 포상(褒賞)이 이루어졌고 충민사(忠愍祠)에 그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었다. 오두인이 바로 이 점을 착안(着眼)하여 이 글을 썼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場所)에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도 한 사람(이종인)은 포상이 되고 사당에 위패까지 봉안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논개)은 미천(微賤)한 관기(官妓)라 하여 그녀의 행적(行蹟)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포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발로(發露)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져!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뺄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고 반문(反問)한 것이리라.

그런데 위의 인용문 끝 부분 즉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晋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진양(진주)에 왔다고 한 '신묘년(辛卯年)'은 효종(孝宗) 2년 서기 1651년인데 이 때는 진주성이 함락된지 58년이 지난 뒤이다. '의암기'를 쓴 오두인은 162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주성이 함락되었던 그 때(癸巳年, 1593년 6월 29일)를 목격(目擊)하지도 않았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신묘년 이 때는 그의 나이 불과 27세였다. 오두인이 진양에 이르

렀던 신묘년 10월 24일 진주 사람들이 강변에 제단을 설치하고 진주성이 함락될 당시 순국한 의혼(義魂)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날이 바로 성이 함락된 날로 착각(錯覺)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주성이 함락된 것은 계사년(癸巳年) 서기 1593년 6월 29일 한 여름이었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 사람들이 진주성이 함락되었던 그 날이 한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물(祭物)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 때가 농번기(農繁期)였기에 추수(秋收)가 끝나고 농한기(農閑期)가 시작되는 10월 24일로 정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오두인이 진양성에 도착하여 진주의 주민들이 순국한 의혼(義魂)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마 이 날이 진주성이 함락된 날이 아니었던가 착각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진주 지역의 지방관들이 논개의 순절에 관한 내용을 소(疏)나 계(啓)로 올린 것이 있다.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12]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13] 등

12) 김시민은 명종(明宗) 9년(1554) 지평(持平) 충갑(忠甲)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면오(勉吾)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선조 11년(1578)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이 되었을 때 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건의한 바 채택되지 않자 관직을 그만 두었다. 1591년 진주 판관(晋州判官)이 되었으며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죽은 목사(牧使)를 대신하여 진주성의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무기(武器)를 갖추어 목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사천(泗川) · 고성(固城) · 진해(鎭海) 등지에서 적을 격파하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올라 금산(錦山)에서 다시 적을 격파하였다. 이해 10월 적의 대군이 진주성(晋州城)을 포위하자 불과 3천 8백의 병력으로 7일간의 공방전을 벌려 3만여의 사상자를 내게 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이마에 적탄을 맞은 채 죽었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추록되고 상락군(上洛君)이 봉해졌으며 뒤에 영의정 ·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이 추증되었다.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13) 최경회는 중종 27년(1532) 천부(天符)의 아들로 능주(綾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선우(善遇)이고, 호는 삼계(三溪) · 일휴당(日休堂)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명종 16년(1561) 진사시에 합격하고 선조 즉위(1567) 식년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영해군수(寧海郡守) · 장수현감(長水縣監) 등을 역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전라우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순조(純祖) 31년(1831)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회 등을 창렬사(彰烈祠)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前後)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 소계(疏啓),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충렬실록》의 편찬과 간행 년도가 순조 31년(1831)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그 이전의 것들이다. 여기서는 논개에 관한 부분만 살펴 보고자 한다.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14]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촉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 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촉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도(全羅右道)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금산(錦山) · 무주(茂朱) · 창원(昌原) · 성주(星州) 등지에서 왜적을 격퇴 전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이듬해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에 승진하였으며 이 해 6월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참가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9주야(晝夜)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뒤에 좌찬성(左贊成)이 추증되었으며 능주의 포충사(褒忠祠) · 진주의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14) 비변사장(備邊司狀)이란 비변사에 올린 장계(狀啓)를 말한다. 비변사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로 일명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 라고도 하였다. 비변사가 정규(正規)의 관청(官廳)이 되어 독자적(獨自的)인 합의 기관(合議機關)이 된 것은 명종(明宗) 9년(1554)이다. 비변사의 권한(權限)이 강화(强化)된 것은 임진(壬辰) · 정유왜란(丁酉倭亂) 이후인데 변경(邊境)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一般行政)도 모두 이 곳에서 의논(議論)하여 결정(決定)하게 되었다.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이란 호를 새기었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哀惜)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낱낱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

위의 글은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별장(前晋州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長文)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勸諭)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것이다. 이를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

漢)이 인용(引用)하여 경종 2년 2월(1722)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를 올린 바 있다. 이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어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參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방도(方道)를 통하여 찾아보았으나 그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어우야담》의 내용 가운데에서 논개의 순국 사실을 찾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야담고기' 란 곧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진한은 《어우야담》의 내용과 '의암' 이라 새겨진 전각(篆刻)을 대조(對照)해 보고 비교(比較)도 해 보았다는 것이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우야담》에 실려 있는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니 허람(虛覽)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논개가 비록 처음에는 창기(娼妓)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마침내에는 의(義)를 위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정(朝廷)의 아무런 조처(措處)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없어질 우려(憂慮)가 있으니 조정으로부터 마땅한 포이지례(褒異之禮)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최진한의 주장이다.

이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논개의 포양(褒揚)을 경종(景宗)에게 계

문(啓聞)[15]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종은 마침내 예조(禮曹)로 하여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변사에서는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다음과 같은 관문(關門)[16]을 보내개 되었다.

>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정(朝廷)에서 미력(微力)하나마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신(確信)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그녀의 순국 사실을 논의(論議)하기 어려운 까닭에 더 조사(調査)하여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의 관문을 보냈던 것이다.

위의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최진한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정을 출자하고 정식(鄭栻, 1683-1746)이 비문을 짓게 되었는데 이 때 건립하게 된 비(碑)가 곧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문에는《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實錄)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

---

15) '계문(啓聞)'이란 관찰사(觀察使)나 어사(御使)가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말함.

16)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대로 비에 옮겨 새긴다.' 고 되어 있으며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글을 새겼던 것이다.

> 유독 가파른 그 바위 위에 그녀 홀로 우뚝 서 있도다. 그녀가 그 바위 아니었다면 어찌 죽을 곧을 얻었겠으며, 바위인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의롭단 소리를 듣겠는가? 이 남강가의 높다란 바위에는 만고(萬古)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를 건립한 우병사(右兵使) 최진한(崔鎭漢)은 그 뒤 다시 비변사(備邊司)에 신보(申報)[17]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서적(書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 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 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

17) '신보(申報)' 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擧)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때도 논개의 사적(事蹟)에 관한 기록이 관청(官廳)의 문적(文籍) 가운데에는 찾아 볼 길이 전혀 없었지만 '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비문이 곧 논개의 의거(義擧)를 증빙(證憑)할만한 충분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암(義巖)'이라 바위에 새겨져 있는 두 글자는 논개가 순국한 뒤 영남(嶺南) 사람들에 의해 '의암'[18]이라는 말만이 전해 오게 되었는데 몇몇 선비들이 논개의 의거 사실을 애석(哀惜)하게 여겨 새겨놓은 것이라 한다. 그 뒤 논개가 순국한지 백여년이 지나 자손(子孫)도 없고 족속(族屬)도 없어 그녀의 사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염려(念慮)한 나머지 의암 위에다 비석 하나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19]

그 비문의 내용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의암'이라 새겨진 바위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보는 바이고, 《어우야담》은 옛 사람들의 공의(公議)에 따른 것이니 논개의 의거(義擧)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이 두 가지 내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논개의 의거 사실을 인정 포이지전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위의 최진한(崔鎭漢)의 신보(申報)를 받아 본 비변사(備邊司)에서는 다시 최진한

---

18) 그동안 사람들은 이 바위의 이름을 '부암(浮巖 ; 뜬 바위)' 또는 '위암(危巖 : 위험한 바위)'이라 하였으나 논개가 이 바위 위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은 뒤부터는 '의암(義巖 : 의로운 바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 정식(鄭栻)의 문집(文集)인 《명암집(明庵集)》 부록(附錄) '가장(家狀)'을 보면, '壬辰之亂妓論介殉節於矗石巖上 公惜其峙沒 搜訪各蹟呈官 樹碑以旌褒之'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나무로 비(碑)를 세워 논개의 순국을 정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를 세운 연대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에게 다음과 같은 재관문(再關文)을 보낸다.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에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20]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21]을 보이도록 하라.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그동안 조정(朝廷)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최진한의 신보(申報)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해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을 베풀도록 조치(措置)하라는 것이다.

이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은 비변사에 다음과 같은 연보(連報)[22]를 한다.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査問)하였더니 지방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23]합니다.

---

20) '급복(給復)' 이란 세금(稅金)과 부역(負役)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을 말함. '복(復)' 은 '제(除)' 와 같은 의미이다.

21) '포이지전(褒異之典)' 이란 공적(功績)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特典)하는 일을 가리킨다.

22) '연보(連報)' 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함.

23) '첩보(牒報)' 란 서면(書面)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첩정(牒呈)' 과 같은 의미이다.

고. 이 연보(連報)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稱號)가 관기에서 '의기(義妓)'로 바꾸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의 관문이 경상우병사의 관할지로 보냈는지 아니면 논개가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논개의 자손이나 족속을 찾아본 즉 아무도 없었기에 급복의 특전을 베풀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이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 뒤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청증직소(請贈職疏)'를 하였는데 그 내용 가운데 논개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晋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촉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礎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로(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도리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慨)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

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24]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낀 바위에는 '의(義)' 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情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 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종 년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않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휼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아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25]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논개에게 증직(贈職)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請願)하는 소장(疏章)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

---

24) 여기서 '야담(野談)' 이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을 말한다.
25) '외월(猥越)' 은 '와람(猥濫)' 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짓이 분수(分數)를 넘음.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妄覺)한 채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英祖) 16년(1740) 마침내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 가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正祖)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繡)이 작성한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의 내용 가운데

> 영조(英祖) 16년(1740)에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 서기 1740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官妓)' 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 로서의 정포를 윤허(允許)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집약하여 〈의기전(義妓傳)〉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1739)에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의기전〉에는 다음과 같은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 만력(萬曆) 계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倭賊)들이 진주성(晋州城)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

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웠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되어 다라나고 무너져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無知)하고 한결같이 천(賤)한 창기(娼妓)가 사직(社稷)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년의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던가? 나는 이경(李璥)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招請)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晋陽城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酋長喜而來 遂嫣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潰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了無讖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

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恢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欲招李璥白士霖輩而告之)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암 위에서 논개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그동안 논개의 순국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춤을 추었다.' 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具體化)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性品)을 적게나마 파악(把握)해 볼 수 있다.

한편 윗 글에서 보면 당시의 선비들의 생활상(生活相)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당시의 선비들은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여 선비들은 평소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 충신과 열사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면서도 사변이 일어나니 결연치 못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한두 예가 아니라 한다.

그런데 논개는 무지(無知)하고 미천한 창기(娼妓)였지만 "사직을 걱정하고 강상을 부지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설픈 선비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녀는 의리(義理)를 배우지도 않았고 평소에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도 않았지만 국

가(國家)와 백성의 안위(安危)가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있을 때 사직(社稷)[26]을 걱정하였고 강상(綱常)[27]을 부지(扶持)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高貴)한 삶과 죽음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그녀의 "기묘하고 비밀스런 계책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왜적의 우두머리 곧 장수(將帥)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의 수백년의 근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논개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에 의한 순국은 당시 왜적의 침략을 당해 패잔의 상처와 쓰라린 고통(苦痛)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조선(朝鮮)의 백성들과 군사(軍士)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 수백년동안 유지(維持)되어온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는데 한 계기(契機)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개의 순국 결과에 대하여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던가? 참으로 논개의 순국은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나야 할 것이 아닌가?' 고 박태무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 정려)' 이 창건(創建)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 거리에 있다.(上聞之 命

---

26) '사직(社稷)' 이란 원래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사(祭祀)를 말하였으나 뒤에 의미가 바뀌어 국가(國家)로 쓰이게 되었다. '사(社)' 는 토지(土地)의 정령(精靈), '직(稷)' 은 곡신(穀神)으로 구별하나 합하여 토지의 신이라 보기도 하며 왕조(王朝)의 시조(始祖)를 제사지내는데서 비롯되었다.

27) '강상(綱常)' 이란 '삼강(三綱)' 과 '오상(五常)' 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 · 도덕(道德)이다. 삼강은 군신(君臣) · 부자(父子) · 부부(夫婦)의 도리요, 오상은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을 가리킨다.

立義妓之閭 閭在義巖北數十步許)

그 뒤 진주성 경내에 의기사(義妓祠)가 창건되었는데, 정약용(丁若鏞)[28]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1780)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 1726-1791)가 보수(補修)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외삼촌(外三寸)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

28)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晋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 · 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 · 삼미(三眉) · 여유당(與猶堂) · 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敎) 교명(敎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해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檗)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 · 신유박해(辛酉迫害) ·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충신(忠臣)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29]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촉석루 위에 써 붙인다.(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

29)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恚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皦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觖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30]

위의 글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갖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논개(論介)'라는 말이 없고 '기(妓) 의낭(義娘)'이라 표현하고 있다. '기(妓)'는 기생(妓生)을 가리키며 '의낭(義娘)'은 '의로운 낭자(娘子)'를 가리킨다. '낭자'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 곧 처녀를 말한다. 만약 '기(妓) 의낭(義娘)'이 '논개'를 가리킨다면 이 때의 논개는 혼인(婚姻)을 하지 않은 처녀 기생(處女妓生)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앞에서는 '기(妓) 의낭(義娘)'이라 기록해 놓고 뒤에서는 그녀를 '현부인(賢婦人)'이라 기록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1800년대에 들어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 만들어졌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卽位年) 서기 1800년에 간

30)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 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 를 보면 논개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장수(長水) 사람으로 공(公)[31]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陷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賊將) 두 명을 유인(誘引) 마주 대한 채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나서 자신도 죽었다. 뒷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놓기를 '의암(義巖)' 이라 하였으며 비(碑)를 세웠다.(妓論介長水人公所眄也. 隨入晋州及城陷盛其塗澤誘賊將二人 對舞南江危巖上 兩手 挼二賊墜江而死 後人鐫其巖曰義巖立碑)

위의 기록은 《호남절의록》,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 의 뒷 부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데 이는 최경회(崔慶會)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진주(晋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 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경회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다.

그런데 《호남절의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수단 유사(收單有司)' 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 집안을 방문(訪問) 조사(調査)케 한 뒤 그 조사된 내용을 참고로 하였던 것이다. 《호남절의록》,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 의 뒷 부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내용은 논개의 후손이나 아니면 족속이 말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최경회의 후손에 의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최경회의

31) 여기서 '공(公)' 이란 최경회(崔慶會)를 가리킨다.

후손들이 어떤 근거(根據)를 가지고 수단 유사에게 최경회가 논개를 좋아하였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분명히 최경회의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경회가 논개를 사랑하게 된 시기(時期)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였는지 아니면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였던 때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한 기지 새로운 사실은 적장(賊將)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적장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해오는 바 논개가 적장 한 명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떠밀어 남강에 빠져 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개의 순국에 관한 기록에는 논개가 춤을 추다 왜장을 양팔로 껴안고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기록에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먼저 물에 떠밀어 빠져 죽게 한 뒤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뒤 이 《호남절의록》을 바탕으로 하여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로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倭將)은 논개와 더불어 촉석루에서 큰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술에) 취하자 끌어안고 루(樓)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곳에 비(碑)를 세우고 고을(진주) 관청(官廳) 스스로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장수(長水) 본현(本縣)에 정려(旌閭)가 있다.(論介長水官妓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論介 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

倭將之大醉 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위의 기록에서 보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는 달리 논개조(論介條)를 따로 분리(分離)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 라 하였으며, 진주 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이다' 고 하여 그녀가 곧 '장수 사람이다.' 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장수 태생이다.' 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뒷날 편집 간행되는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인용문에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제기(提起)되는데 즉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 라는 기록이다. 그 정려가 장수 본현 어디에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져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되기 전까지 이 곳 장수 지역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금석문(金石文)이 세워졌다는 문헌적 기록이나 세워진 금석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남삼강록》의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 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거나 수단 유사(收單有司)의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는 철종(哲宗) 12년(1861) 간행되었는데 이는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보다 2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실기의 창의서록(倡義敍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위의 기록과 《호남삼강록》의 논개조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쥔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시첩(侍妾)이던 논개(論介) 역시 왜적(倭賊)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長水)의 기녀(妓女)였다.

논개가 생장했다고 전해지는 장수(長水)에 처음으로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가 세워졌다.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는 헌종(憲宗) 12년 서기 1846년 논개의 출생지(出生地)를 기념(記念)하기 위해 장수현(長水縣)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槪)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갖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 하노라.

위의 비문이 세워지게 된 년대는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된 7년 뒤의 일이다. 그리고 이 비문은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이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의 내용과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던 이야기를 근거(根據)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논개의 인격(人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이긴 하지만 짐

작(斟酌)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잇다고 하겠다. 즉 위의 글에서 보면, 당시 정주석은 장수 군수로 부임한 뒤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논개가 국난(國難)을 당하여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절개(節槪)를 굽히지도 않은 것은 열사(烈士)들에게도 어려운 일' 이지만 한갖 여자의 몸으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여 행동으로 옮겨 순국하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순국한 논개의 충열에 대하여 삼가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그녀를 공경(恭敬)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나머지 정주석은 논개가 순국할 당시를 회고(回顧)해 보았는데 그녀의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라 감탄(感歎)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述懷)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주석은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스스로 원(願)하였기에 삼가 글로 그 내용을 적어 후세(後世)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주석의 말에서 논개의 타고난 성품(性品)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난(國難)' 이란 선조(宣祖) 25년(1592) 발발(勃發)했던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그 뒤 논개의 순절에 관한 기록이 《호남읍지(湖南邑誌)》에 게재(揭載)된다. 《호남읍지(湖南邑誌)》는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년(1872)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에는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의기(義妓) 논개(論介)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晋州兵使)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

위 내용에서 논개는 의(義)로운 기생 곧 의기(義妓)로 표현되어 있다. 논개가 다른 기록에서 처럼 '관기' 라든가 '진주 기생' 이라든가 '장수 기생'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이 다만 '의기' 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이 장수(長水)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이다.' 고 밝히고 있다. 곧 그녀의 고향이 '장수의 임현내면 풍천' 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들은 그녀의 고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장수 사람이다.' 는 정도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면(面)과 마을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는 내용 역시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경회가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좋아했다.' 는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즉 '장수 현감' 이라는 직명(職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최경회가 진주 병사(晋州兵使)가 되어 진주성(晋州城)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도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논개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하겠다. 즉 논개가 진주성으로 간 것은 최경회가 진주 병사가 되어 진주성으로 가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은 최경회의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영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작자와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청구야담(靑邱野談)》에 논개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청구야담》의 작자(作者)와 만들어진 년대(年代)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推測)하건대 조선 말기(末期)로 보인다.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필사본(筆寫本)이다. 그 결구(結構)와 수법(手法)이 묘하여 언어(言語) · 풍속(風俗) · 관습(慣習)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청구야담(靑邱野談)》가운데 '진양성의기사생(晋陽城義妓捨生)' 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논개(論介)는 진양(晋陽) 땅의 기생(妓生)이다. 임진년(壬辰年) 왜적(倭賊)이 진양성(晋陽城)을 공격(攻擊)할 때 상락군(上洛君) 김시민(金時敏)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지키며 여러 번 싸워 여러 번 패퇴(敗退)시켜 왜적 수만명을 죽였다. 적들은 결국 호남(湖南)을 넘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6월(六月) 왜장(倭將)청정(淸正)이 풍신수길(豊臣水吉)의 명을 받고 진양성에서의 치욕(恥辱)을 씻고자 십만(十萬) 병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包圍)하였다. 이 때 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최경회(崔慶會)와 충청(忠淸兵使) 황진(黃進)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 여러 공(公)들이 들어와 성을 지켰다. 유독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는 '이 성은 왜적이 힘을 다해 싸울려는 곳이오, 호남과 영남(嶺南)의 요충(要衝)과 관문(關門)이 되는 곳으로서 고단한 병력으로 강적(强賊)을 대항(對抗)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고 하여 끝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공들이 촉석루에 모여 생사(生死)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히 일을 의논하였다. 왜군에서는 아래에 명을 내리기를 '작년(昨年)에 패퇴한 보답을 오늘에야 할 것이다. 이 성을 함멸(陷滅)시키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고 했다.

그리하여 (왜적은) 백방(百方)으로 공격을 했는데 10일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 안 6만의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고 여러 공들은 모두 남강에 이르러 죽었다.이 때 논개는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왜장 가운데 가장 걸출(傑出)하게 생긴 자를 찾아 만나고 거짓으로 교태(嬌態)를 부리니 왜장이 기뻐했다. 그가 그녀를 겁탈(劫奪)코자 했으나 그녀는 허락치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왜장을 유인(誘引)하여 강 가의 바위 위로 걸어나오게 했다. 그 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이 바위는 강 가에 우뚝 솟아 있어 삼면

(三面)이 모두 깊은 못이었다. 그래서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왜군의 진영(陣營)에서는 크게 놀랐다.

난이 평정(平靜)된 뒤 논개를 기려 '의기(義妓)'라 하고 강 가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祭)를 지내고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이라 이름하여 '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는 여덟 글자를 새겨 두었다. 그 바위를 또한 '낙화암(落花巖)'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기녀가 강에 가라앉은 것을 낙화(落花)에 비유(比喩)한 것이라 한다.(論介者晋陽妓也. 壬辰倭攻晋陽城 上洛君金時敏孀嬰城自守 屢戰屢敗之殺倭數萬 賊終不敢窺湖南而歸 翌年癸巳六月倭酋淸正承秀吉之旨 必欲雪晋陽之恥 率兵十萬來圍 時本道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 倡義使金千鎰 金海府使李宗仁 復讐將高從厚 泗川縣監張潤諸公入守之 獨紅衣將軍郭再祐曰 此城倭賊必爭之地也. 爲湖嶺要衝關隘(阨)之所 而孤軍遇强賊 必敗乃已云. 而終不入城 諸公會矗石樓 誓同生死慷慨論事 倭下令曰 昨年敗衄之報 政在今日 不滅此城 誓不旋踵 百道攻城第十餘日城陷 城中六萬人 同日殲之 諸公皆赴南江而死 時論介凝粧盛飾 往見倭將之最傑驁者 假意獻媚 倭將悅之 欲劫之 妓不從 以婉辭誘引倭將 步出江邊巖石上與之對舞 此巖挿在江岸三面皆深潭也. 遂抱倭將之腰 墜入江中 倭陣大驚 亂平後 旌論介曰義妓 立祠江上祭之 名其石曰義妓巖 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字 其巖亦名落花巖 盖以妓之沈江 譬之落花云.)

위의 내용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분은 '논개(論介)는…'에서부터 '…맹세한다고 했다.'까지, 그리고 둘째 부분은 '그리하여 (왜적은)…'부터 '…크게 놀랐다.'까지, 셋째 부분은 '난이 평정(平靜)된 뒤…'부터 '…비유(比喩)한 것이라 한다.'까지이다. 첫째 부분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기 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부분은 논개가 순국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부분은 작자가 논개의 순국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녀의 공(功)을 추모(追慕)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의 글의 전체적 흐름으로 보아 작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앞의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순국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熟知)하고 있었으며, 그 숙지하고 있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에다가 자신이 또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좀 더 구체적(具體的)이면서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유몽인의 《어우야담》 가운데에는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의 이야기가 없으나 이 글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진주성이 함락되어 성 안에 있던 6만여 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새로 언급되고 있다. 또 논개가 왜(倭)를 끌어 안고 강물에 함께 죽었다고 《어우야담》에는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왜적의 장수(倭將)'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Ⅱ〕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역사(歷史)란 것은 변화(變化)라는 것을 무시(無視)하고서는 존재(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自然)·인간(人間)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항상 갱신(更新)하고 발전(發展)하며 또 붕괴(崩壞)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단(不斷)한 변화는 단순히 양적(量的) 변화와 같은 직선적(直線的)인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과정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과거(過去)의 반복(反復)도 아니라 하겠다. 역사의 변화는 낡은 질적(質的) 상태(狀態)에서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 그리고 단순(單純)한 것에서 복잡(複雜)한 것에로 옮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서술(敍述)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계(自然界)의 현상(現象)은 직접적(直接的)으로 인식(認識)할 수 있지만 역사적 과거는 인간의 정신(精神)의 활동(活動)으로 재생(再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의 글은, 옛 문헌(文獻)과 그동안 발간된 책자 그리고 논문 등을 총망라(總網羅)하여 그 가운데에서 논개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 전개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것이다. 논개의 성씨(姓氏)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헌적(文獻的) 기록(記錄)에서는 언급(言及)된 곳이 전혀 없고 단지 구전(口傳)으로만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때부터 논개의 성씨에 대한 논의(論議)가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여러 이설(異說)이 있게 되었다. 즉 구전(口傳)에 의하면 논개의 성씨가 '주씨(朱氏)'라는 설, '주씨(周氏)'라는 설, '노씨(盧氏)'라는 설, '송씨(宋氏)'라는 설, 노씨(魯氏)라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논개의 성씨에 대하여 논의(論議)되거나 문헌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15 해방 이후로 보인다. 논개가 순국(殉國)한지 361년이 지난 1954년 논개가 순

국했던 현지 경남(慶南) 진주(晋州)에 그동안 조직되어 있던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 에서 촉석루(矗石樓) 서편(西便) 의기사(義妓祠) 입구 오른쪽에다 논개에 관한 비석(碑石)을 세웠는데 그 비문(碑文)에

(앞 부분 생략) 의낭(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이하 생략)

라 하여 논개의 성씨가 '주(朱)' 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위 비석의 내용이 논개의 성씨가 '주(朱)' 라 밝힌 최초(最初)의 금석문(金石文)으로 추측(推測)된다. 위 비석의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진주 지역 사람들에 의해 논개의 성씨를 '주(朱)' 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 비석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구전으로만 논개의 성씨는 '주(朱, 또는 周)' 라 알려져 있었다.

앞의 비석이 세워지던 같은 해 1954년 3월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 가 조직(組織)되면서 논개의 성씨를 '주(朱)' 로 표기(表記)하여 공식적(公式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같은 장수 사람들에 의해 1954년 10월 19일 '의암사' 신축 공사(新築工事)가 시작되면서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成會)' 가 발족(發足)되었는데, 이 때도 '주논개(朱論介)' 라 하여 논개의 성씨를 '주(朱)' 로 표기하고 있다.

1960년 12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 가 세워졌는데 이 비명(碑名)과 비문(碑文)에서 논개의 성씨를 '주(朱)' 라 하고, 본관(本貫)을 '신안(新安)' 이라 표기(表記)하고 있다. 이 비문의 내용 가운데 논개의 성씨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이하 생략)

위의 내용 가운데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이라 한 대목은 '의암의 부친(父親) 이름은 달문(達文)이고, 그의 본관(本貫)은 신안(新安)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곧 '논개의 성씨는 주씨(朱氏)이고, 본관은 신안(新安)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성씨가 '신안 주씨(新安朱氏)' 라는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역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를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韓國日報)에 연재(連載)되었던 정한숙(鄭漢淑)의 장편 소설(長篇小說)[32] 《논개(論介)》를 보면,

> (앞 부분 생략) 논개도 진주(晋州) 바닥 태생(胎生)이 아니라 야사(野史)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녀의 성은 주(朱)씨 혹은 주(周)라고 전한다. 어느 주가이건 그녀의 성이 주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33]

는 내용이 있다. 물론 위의 내용은 소설의 한 부분이고, 소설이란 허구(虛構)라는 점을 감안(勘案)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한숙은 야사(野史)에 근거하여 논개의 성이 '주(朱)' 혹은 '주(周)' 라고 하면서도 '朱' 자인지 아니면 '周' 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글로 '주' 라 씀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다. 다만 그가 근거하였다는 '야사(野史)' 가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아무튼 이 정한숙의 소설을 통하여 논개의 성씨가 분명 '주' 가였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개 성이 '주' 씨라는 설과는 달리 '노(盧)' 씨라는 이설(異說)

---

32) 한국일보(韓國日報)에 연재(連載)되었던 정한숙(鄭漢淑)의 《논개(論介)》는 1993년 서울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單行本)으로 출간(出刊)하였다.

33)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청아출판사, 1993, 서울), p. 10. 내용 참조.

이 있다.[34] 논개의 성이 '노(盧)' 씨라는 설은 논개의 이름이 본래 '노운개(盧雲介)' 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래 '노운개(盧雲介)' 라는 이름이 뒷날 잘못하여 '논개(論介)' 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노운개' 라는 이름이 옳다면 그녀의 성씨는 곧 '노(盧)'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노운개' 라는 이름은 옛 문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35] 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논개' 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그녀의 출생에 관한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그녀의 출생 년월일시가 4갑술(四甲戌)이라는 점에서 '戌(술)' 이 12지 가운데 11번째에 해당하는 '개(犬)' 를 나타내는데 전설(傳說)에 의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출생 년월일시인 4갑술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개를 낳은 것' 이 되어 '낳은 개' 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낳은 개' 가 뒷날 이 지역 방언(方言)으로 '놓은 개' 가 되었고, 이를 다시 한자(漢字) 표기로 '盧雲介(노운개)' 가 되었으며, 뒷날 이 '노운개' 가 잘못 전해져 '논개' 가 되었다가 다시 이 '논개' 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論介(논개)' 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만일 이와 같은 추측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녀의 성씨가 '노(盧)' 라는 것은 아전인수식(我田引水式) 설명이자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녀의 성이 '송씨(宋氏)' 라는 이설(異說)이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주씨(朱氏)' 의 잘못 인쇄(印刷)라 보았다.[36] 이같은 논개의 성이 '송씨(宋氏)' 라는 설도 근거가 전혀 없다. 장수 지역이나 진주 지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그녀의

---

34)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鄕土文化硏究所),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 11. 내용 참조.

35) 고종(高宗) 5년(1868) 진주목사(晋州牧使) 정현석(鄭顯奭)이 의기사(義妓祠)를 중건하고 실시한 의암별제(義巖別祭)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 그가 지은 '교방가요(敎坊歌謠)' 내용 가운데 '長水妓 魯隱介(中略) 魯隱介俗稱論介.' 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보면 '노운개(盧雲介)' 가 아닌 '노은개(魯隱介)' 라는 표현이 있다.

36) 강대민(姜大敏), 〈논개(論介)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慶星大學校 鄕土文化硏究所, 1996, 부산) p. 11.

성이 '송씨' 라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옛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뒤 1970년 전북일보(全北日報)에 게재(揭載)되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가운데 논개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글[37]이 있다.

>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敎學)을 폈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위의 글에서도 논개는 아버지 주달문(朱達文)과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의미하는 바, '논개의 성은 주씨(朱氏)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논개의 성이 주씨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된다. 1975년 장수향교(長水鄕校)에서 간행한 《벽계승람(碧溪勝覽)》 7(七) 절의편(節義篇)에서도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부인(夫人)' 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논개의 성이 '주씨' 라는 것을 암시(暗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내용 역시 어떤 근거에서 논개의 성을 '주씨' 라 하였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장수군(長水郡)에서 1982년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 가운데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라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앞부분 생략) 부인의 성(姓)은 주씨(朱氏)이며, 관향(貫鄕)은 신안(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이하 생략)

위의 내용 가운데 '부인' 이란 의암 논개를 가리킨데 논개의 성은 곧 '주씨' 이고,

---

37)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은 전북일보(全北日報)에서 1970년 특별 기획으로 게재(揭載)한 것인데 당시 이 글은 백남혁(白南赫)이 집필(執筆)하였다.

본관(本貫)은 '신안(新安)'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개의 선조(先祖)는 중국(中國) 남송대(南宋代) 성리철학자(性理哲學者) 주문공(朱文公) 희(熹)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이 쓰여진 다음해인 1983년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鄕運動本部)에서 간행한《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 가운데 '주논개(朱論介)' [38]라는 부분을 보면,

> 진주(晋州) 남강(南江) 의암(義巖) 위에서 왜장(倭將)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고 산화(散華)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民族魂)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영혼(靈魂)이 있었으니 그의 성(姓)은 주씨(朱氏)요 이름은 논개(論介)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위의 두 내용 가운데 성씨에 관한 기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즉 논개의 성이 '주씨(朱氏)' 이고 본관은 '신안(新安)' 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들 역시 이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기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상에서 살펴 본 바, 물론 근거는 희박(稀薄)하지만 논개의 성씨에 관한 한 '신안 주씨(新安朱氏)' 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異意)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뒤에 건립되는 비석마다 비문에 새기기를 논개의 성을 '주씨(朱氏)' 로, 본관을 '신안(新安)' 으로 새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982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와 1987년에 세워진 '주논개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 가 그러하며, 1996년에 건립된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 가 그렇다. 최근에 간행된《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과《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에도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 로 기록하고 있음

---

38) 최진성(崔辰聖), 〈주논개(朱論介) -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全北愛鄕運動本部, 1983, 全州)

을 볼 수 있다.[39]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증(檢證)되어야 할 숙제(宿題)라 하겠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 를 보면,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이하 생략)

라 하여 여기서 '의암(義巖)' 이 논개의 호(號)라는 직접적(直接的)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개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호칭(呼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의암' 을 논개의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1954년 3월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 가 조직(組織)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뒤 장수 사람들에 의해 1954년 10월 19일 '의암사' 신축 공사(新築工事)가 시작되었고, 아울러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成會)' 가 발족(發足)되었는데 이 때부터는 아에 '논개' 라는 이름 대신 '의암' 을 그녀를 상징(象徵)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논개가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순국했던 진주 남강가 바위(巖石)를 '의암(義巖)' 이라 불렀다는데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의암' 이라는 호칭이 마치 조정(朝廷)에서 논개에게 내린 호(號)처럼 이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2년 세워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에는 아에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이고, 호(號)는 의암(義巖)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고 기술(記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조 어느 조정에서도 논개에게 '의암' 이라는 호를 내려주었다는 기록

---

39)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222. '논개(論介)' 조(條) 참조., 유홍열(柳洪烈) 감수(監修), 《신개정증보판(新改訂增補版)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教育圖書, 1988, 서울), p. 356. '논개(論介)' 조(條) 참조.

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1990년 장수군지편찬위원회(長水郡誌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 《장수군지(長水郡誌)》에서는 "논개의 성씨는 주씨이며, 관향(貫鄕)은 신안(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라고 하여 그녀가 순국한 뒤 예문관에서 '의암'이라는 호를 내려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고찰한 바 논개의 성씨가 '신안 주씨(新安朱氏)'라 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異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계(家系)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논개의 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기록으로는 장수군(長水郡)에서 1982년 간행한 《삼절(三節)의 고장》이라 생각된다. 《삼절(三節)의 고장》,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라는 제목 아래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논개의 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앞부분 생략)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後裔)로 고려(高麗) 예부상서(禮部尙書) 인장(印長), 이조(李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丞旨) 공(緟)으로 세계(世系)를 거쳐 7대조(七代祖)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官職)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爀)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의 가계는 중국 남송대(南宋代) 유학자(儒學者)로 우리나라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주자(朱子, 名 熹, 號 晦庵)를 그 시조(始祖)로 하

고, 고려(高麗) 때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한 '인장(印長)'을 중시조(中始祖)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표(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논개의 가계도(家系圖)

중국(中國) 고려(高麗) 조선(朝鮮)

선계(先系) 주희(朱熹) - 인장(印長) - 승천(勝遷) - 공(緟) -

7대조(七代祖) 6대조(六代祖)

무현(武賢) -응표(應杓)-

조부(祖父) 부(父)

혁(爀)- 달문(達文) -〈논개(論介)〉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의 논개의 가계에 관한 부분을[40] 보면,

(앞 부분 생략) 그의 선대(先代)는 중국(中國) 송(宋) 나라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손(後孫)이 된다. 고려 시대(高麗時代)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인 인장(印長)이 가문(家門)을 빛냈으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는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丞政院) 우승지(右丞旨)를 엮임한 공(緟)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通德郞)을 증직(贈職)받고 벼슬길에 오르지

40) 최진성(崔辰聖), 〈주논개(朱論介)〉(-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 참조.

못하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조부(祖父)의 휘(諱)는 혁(爀)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後進) 교육에 힘썼다. 부친(父親)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學問)과 덕(德)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 유지(生計維持)를 하였다.(이하 생략)

라 하여 앞에서 살펴 본 바 《삼절(三節)의 고장》의 그것과 거의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논개의 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이 지역에 전해 오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985년 장수번영회(長水繁榮會)에서 그동안 장수 지역에 흩어져 전해 오는 논개에 관한 기록과 이야기들을 조사하여 간행한 《의암 주논개 사적 조사 보고서(義巖朱論介事蹟調査報告書)》(필사본) 가운데 '의암 부인(義巖夫人)의 가계(家系)'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앞 부분 생략) 부인(夫人)의 가계(家系)를 살펴 보면 중국(中國) 송(宋)나라 시대(時代) 성리학자(性理學者)인 주자(朱子)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고려조(高麗朝)에 와서 예부상서(禮部尙書) 휘(諱) 인장(引長), 조선조(朝鮮朝)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승천(勝遷),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 휘(諱) 공(緟)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부인(夫人)의 7대조(七代祖)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이며, 6대조(六代祖) 증통덕랑(贈通德郎)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

上面) 방지리(芳池里)에 이주(移住)하였고, 조부(祖父) 혁(爀)이 당시 장수(長水) 임내면(任內面) 주촌리(朱村里)에 거주(居住)하였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 후예(後裔)가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부인(夫人)이라 전(傳)한다.

위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본 바 내용과 큰 차이(差異)가 없다. 다만 위 내용은 장수 지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와 문헌적 기록들을 정리(整理)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다.[41] 이상의 내용들은 뒷날 논개의 가계를 기록하는데 하나의 근거 자료(根據資料)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42]

그러나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는 '신안 주씨(新安朱氏)'가 보이지 않고 다만 '전주 주씨(全州朱氏)'와 '능성 주씨(綾城朱氏)'와 '웅천 주씨(熊川朱氏)'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백씨통보(百氏通譜)》에는 '무원 주씨(婺源朱氏)'가 보이는데

---

41) 이 보고서의 조사 경위(調査經緯)를 밝힌 것을 보면, '1984년 10월 4일 장수번영회(長水繁榮會)로부터 의암(義巖) 사적(事蹟)을 조사(調査)하라는 지시(指示)에 의(依)하여 동(同) 사적 조사에 임(臨)하였으나 천성(天性)이 타고나고(태어나면서) 우둔하며 견문지식(見聞知識)이 부족(不足)하며 4백년(四百年) 후(後)에 나서 4백년 전(前)의 일을 추적(追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구전(口傳)과 야사(野史)로 기(其) 내용(內容)들은 일맥상통(一脈相通)치 못하고 들은 귀와 생각하는 마음대로 기록(記錄)한 것이 너무 분명하여 근거(根據)를 찾을 줄기가 없으니 더욱 한스런 일이었다.

조사 기록한 내용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첫째 향리(鄕里)에 구전(口傳)되는 전설(傳說), 둘째 촉석루(矗石樓) 경내(境內)에 있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旌門)과 동문내(同門內)에 있는 사적비명(事蹟碑銘)과 장수(長水) 의암사(義巖祠) 경내에 있는 수명비(竪名碑), 셋째 장수지(長水誌) 전북지(全北誌) 호남지(湖南誌)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동감강목(東鑑岡目) 월강사록(月岡祠錄) 대동기문(大東奇聞) 문인(文人)의 시(詩) 등으로 구별(區別) 조사 기록하였다.

동 기록은 듣는 그대로 비명(碑名) 등 각 사적에 문장(文章) 구성 및 기록 방법의 모순(矛盾)은 있으리라 믿으나 사적(事蹟) 사실(事實)의 모순은 없을 것으로 확신(確信)하면서 조사 기록이 잘못된 점은 보는 이가 언제고 충고(忠告)하여 주시면서 더 상세(詳細)한 근거(根據)가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상기(上記) 사적을 조사 보고한다.' 고 되어 있다.

42)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1996, 부산)가 그 좋은 실예(實例)라 하겠다.

여기서 '무원 주씨'는 '신안 주씨'와 같다. 그것은 '신안(新安)'과 '무원(婺源)'이 다같이 중국(中國) 안휘성(安徽省) 휘주부(徽州府) 관할 현(縣)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신안 주씨'는 중국 사람으로 고려 때 귀화(歸化)한 주잠(朱潛)을 시조(始祖)로 한다.[43] 그런데 문제(問題)는 1902년에 간행된 《신안 주씨 세보(新安朱氏世譜)》(壬寅譜)를 살펴 보면, 앞의 '논개의 가계'에서 보이는 논개의 부친 주달문(朱達文)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논개의 부친 주달문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조 중종(中宗) 년간으로부터 선조(宣祖) 년간에는 《신안 주씨 세보(新安朱氏世譜)》가 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안 주씨 세보》에 주달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것은 《신안 주씨 세보》가 간행된 것은 1902년으로 이 때는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이 죽은지 이미 300여년이 지난 뒤의 일로 주달문에게는 대(代)를 이어 갈 아들이나 후손(後孫)도 없었고, 《신안 주씨 세보》를 편찬할 때 논개의 가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논개의 가계는 논개의 순국과 함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신안 주씨 세보》를 편찬할 때 논개의 가계에 관한 참고(參考)할만한 자료도 없었고, 그녀의 가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누락(漏落)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논개의 가계에 대한 이설(異說)이 있다. 1996년 부산(釜山)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鄕土文化硏究所)에서 간행한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를 보면,

---

43)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1205. '주요 성씨 시조 일람표(主要姓氏始祖一覽表)'를 참조. 여기서 보면 주씨(朱氏)에는 '신안(新安, 始祖 본래 중국 사람으로 고려에 歸化한 潛)'·'능성(綾城, 始祖 餘慶, 高麗·始祖 績德, 高麗)·나주(羅州, 始祖 仲紹, 高麗)·압해(押海, 始祖 玄進, 본래 羅州 사람)·웅천(熊川, 始祖 大翊·始祖 善林, 朝鮮)·전주(全州, 始祖 仁, 高麗) 등 6개의 본관(本貫)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 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의 서당(書堂) 훈장(訓長)이었다. 논개의 모친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서 그의 선조는 팔도병사(八道兵使)로 황석산성(黃石山城) 싸움에 공적을 남긴 박명박 장군이다.

용일에게는 달문(達文)과 달무(達武)의 두 형제가 있었다. 달문은 아버지의 높은 학문(學問)과 도덕(道德)을 배워 문장과 덕행(德行)이 주위에 널리 알려졌다. 용일의 학식과 덕망은 산등성이를 넘어 대곡리 사람들에까지 소문이 나서 결국은 경상도 금당리에서 대곡리로 초빙(招聘)되어 이사(移徙)까지 하게 되었다.(이하 생략)[44]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에서 보면, 논개의 조부(祖父)가 '주용일(朱溶一)' 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용일에게는 '달문(達文)' 과 '달무(達武)' 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삼절의 고장》이나 《전북인물지》(上卷)에서 논개의 조부를 '주혁(朱爀)' 이라고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주용일' 과 '주혁' 은 동일인물(同一人物)로 일인이명(一人異名)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인물인지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의 조부가 '주용일'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근거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복원되어 있는 논개의 생가(生家) 뒤쪽 산등성이에 묘(墓) 1기(基)가 있다. 이 묘의 봉분(封墳) 앞에는 오래 전에 놓은 것으로 보이는 상석(床石)이 있으며, 상석 전면(前面)에는 선명(鮮明)치는 못하지만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 라 음각(陰刻)되어 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묘를 쓰고 논개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묘가 바로 논개의 할아버지

---

44) 김무조(金戊祚), 〈통과의례(通過儀禮)로 본 논개(論介)의 생애(生涯)〉《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慶星大學校 鄕土文化硏究所, 1996, 부산) p.48. 참조.

묘라 믿고 있다. 이는 전해 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 묘는 현재 경남(慶南) 함양군(咸陽郡) 서상면(西上面) 금당리(金塘里) 방지(芳池) 마을에 살고 있는 주규상의 15대조 방조(傍祖)의 묘라 한다.[45]

이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 가 곧 논개의 할아버지 묘가 아니었던가 생각한 나머지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 이라 했다."고 기록하게 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주규상은 이 마을에서 20여대를 계속 살아온 '신안 주씨' 의 후손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규상의 가계와 논개의 가계와는 전혀 무관(無關)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전해 오고 있는 이야기에 그 묘가 '논개의 할아버지 묘' 라고 한 내용과 주규상의 가계를 연관(聯關)지어 생각해 본다면 논개의 할아버지가 '주용일' 이라는 것이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주용일' 이 곧 논개의 할아버지라는 주장은 아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과정(過程)을 거쳐 검증(檢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전북일보에 게재(揭載)되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라 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살펴 본 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지묘(朱溶一之墓)' 란 누구의 묘일까?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언급한대로라면 논개의 할아버지 묘는 이미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논개에 관한 글을 쓴 필자가 잘못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논개에 관한 글을 쓴 필자는 논개의 할아버지를 '주혁(朱爀)' 이라 보았기에 그와 같이 기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45) 현재 장수문화원(長水文化院) 김진영(金鎭泳) 원장(院長) 증언(證言)에 의거한 것임.

〔Ⅲ〕

1650년 이전의 논개에 관한 문헌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출생(出生)과 성장(成長)에 관한 언급(言及)이 전혀 없다. 1651년 논개가 순국한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 재상간심관(災傷看審官)인 오두인(吳斗寅)이 쓴 〈의암기(義巖記)〉(《양곡집(陽谷集)》)를 위시하여 명암(明庵) 정식(鄭栻, 1664-1719)의 〈의암비기(義巖碑記)〉, 서계(西溪) 박태무(朴泰茂 : 1677-1756)의 〈의암전(義巖傳)〉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의 〈의암사기(義巖祠記)〉 등에서 보면, 그녀의 순국사실과 역사적 인식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신분(身分)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든간에 그 사람의 출생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논개 역시 그녀 자신의 출생이 있었고 삶이 있었을 것이다.

논개의 출생에 대하여 최초의 기록(記錄)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논개는 그녀의 부모가 명산(名山)에 기도(祈禱)를 한 뒤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절(三節)의 고장》을 보면,

주달문은 일찌기 안의현 서하면(西下面) 봉절리 밀양 박씨 집 규수(閨秀)에게 장가 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 오던 가운데 남아(男兒)를 얻으니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15세에 괴질(怪疾)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주씨 가문(朱氏家門)의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를 얻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女兒)를 분만(分娩)한 부인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

이다.[46]

논개의 아버지에게는 일찌기 '대룡(大龍)'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가 되어 괴질(怪疾)로 요절(夭折)하여 후사(後嗣)가 없게 되자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대(代)를 잇을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는데 그 기원(祈願)의 보람으로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胎氣)가 있게 되었고, 뒷날 분만(分娩)하니 여아(女兒)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여아가 곧 '논개'였다는 것이다.

1990년 장수군지편찬위원회(長水郡誌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장수군지(長水郡誌)》에서도 앞의 내용을 여과(濾過)없이 그대로 인용 게재(揭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버지 달문(達文)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의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남아(男兒)를 출산하여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후사(後嗣)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다.

고 한 내용을 보면 앞의《삼절의 고장》에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에서는

---

46) 장수군청(長水郡廳),《삼절(三節)의 고장》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 내용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즉

> 달문에게는 일찍 '대룡'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15세에 괴질로 요절하고 사십중년까지 부인에게 태기가 없었다. 부부는 아들을 잃은 실의를 딛고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덕유산(德裕山) 영각사로 들어가 삼년동안 치성(致誠)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無男獨女) 논개이다.[47]

고 하여 앞에서 인용한 내용의 "명산(名山)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빌었으며"라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 있다. 위의 내용에서는 '명산 장안산'이 아니고 '덕유산(德裕山) 영각사로 들어가 3년동안' 치성(致誠)을 드려 낳은 아이가 무남독녀 논개였다는 것이다.아무튼 위 두 내용 가운데 어느 내용이 맞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논개의 부모는 명산을 찾아가 천지신명에게 기원하여 여아를 낳게 되었다든가 또는 사찰(寺刹)을 찾아가 치성(致誠)을 드려 여아를 낳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후사(後嗣)를 얻기 위해 기원을 하여 논개를 낳았다는 것은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으로 보는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1960년 건립한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의 비문에 의하면

>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本鄕)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부급從事)하야

47)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1996, 부산), pp. 48-49. 내용 참조.

소거(小居) 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야 주촌(朱村)이라 하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야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는 내용이 있다. 이는 논개의 출생에 관한 최초의 글이다. 즉 논개는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 의 4갑술(四甲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기록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조선조 선조(宣祖) 7년(甲戌年) 9월(甲戌月) 3일(甲戌日) 밤 술시(甲戌時)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주달문이 사주(四柱)를 기록해 놓고 보니 4갑술(四甲戌)이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뒷날 논개의 출생에 관한 근거 자료이자 '논개(論介)' 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일보(全北日報社)에 게재했던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가운데 논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 (앞 부분 생략)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敎學)을 폈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 은 '개' 이고, 또 '낳았다.' 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 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 는 '개를 놓았다.' 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 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이하 생략)

라 하였다. 여기서 보면 논개는 조선조 선조(宣祖) 때 선비 '주달문(朱達文)' 과 '밀

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 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 는 조선 선조(宣祖) 7년 서기 1574년 9월 3일 술시(戌時)를 가리킨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 본 바이지만 논개의 아버지는 '주달문' 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 라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의 4갑술을 등에 업고 논개가 태어났다는 데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의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비문의 내용을 근거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은 논개의 사주(四柱)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 에 대하여 논개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豫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 (앞 부분 생략) 달문이 서당에서 이 소식을 아우인 달무에게 듣고 우선 사주(四柱)를 짚어 봤다.몇 번인가 손가락을 꼽아 괘사(卦辭)를 풀어 보면서 '괴이(怪異)한 사주(四柱)로구나.' 하고 혼자말로 되씹으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을 분만한 부인 박씨는 몹시 실망하고 잇었다. 달문은 실망하고 있는 부인을 위로(慰勞)하면서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났으니 4갑술(四甲戌)의 특이(特異)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名聲)이 높을 것이니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한스러울 뿐이요.'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48]

---

48)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鄕運動本部),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1983, 전주) '논개(論介)' 조 내용 참조.

위 내용을 보면, 논개의 아버지 달문은 아우 달무로부터 아내가 딸을 분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딸의 사주를 살펴 보니 괴이(怪異)하기는 하였지만 특이(特異)한 사주로 장차 큰 일을 성취(成就)하여 명성(名聲)을 떨칠 인물(人物)이 될 것이라 예언(豫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딸을 낳았기에 실망(失望)하는 아내를 태어난 딸의 사주를 통해 위로(慰勞)까지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 뒤 장수군(長水郡)에서 간행한《삼절(三節)의 고장》'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라는 글에서도 '명문의 고향' 의 내용과 유사(類似)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 (앞부분 생략)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爀)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분명 '명문의 고향' 을 그대로 인용(引用)하여 기술(記述)한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앞 부분 생략) 논개의 탄생일은 1574년 9월 3일 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주(四柱)로 따지면 사갑술(四甲戌)이 된다. 곧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이다. '술(戌)' 은 지지(地支)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四柱)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

며 '당신이 개를 낳았군요.' 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구요?' 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부부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4갑술생(四甲戌生)이 있으니 영조(英祖)가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 라고 했다.[49]

위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내용들을 재구성(再構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 내용의 뒷 부분 곧 "부부는 이 기이한 사주를 놓고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4갑술생(四甲戌生)이 있으니 영조(英祖)가 아닌가. 달문은 아내를 위로하려고 한 나라의 임금을 비유(比喩)한 것이다.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 라고 했다."고 한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앞 부분의 내용과 시제(時制)가 맞지 않는다.

만일 위 뒷 부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주달문과 밀양 박씨 부부는 조선조가 태조(太祖)로부터 시작하여 순종(純宗)에 이르기까지 500년 지속(持續)하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되며, 또한 뒤에 즉위(卽位)할 영조(英祖)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영조의 사주(四柱)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위 내용대로 한다면 주달문과 밀양 박씨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 중기(中期) 명종(明宗) 년간(年間)으로부터 선조(宣祖) 년간에 이르는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내용의 뒷 부분은 이 글 필자(筆者)의 착각(錯覺)에 의한 것이거나 견강부회한데서 온 시제의 오류(誤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는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 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대하여는 여러 글들

---

49)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鄕土文化硏究所),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1996, 부산) p. 49. 참조.

이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展開)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의 '4갑술' 이라는 사주에 의해 그녀의 이름을 '논개(論介)' 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 의 비문 가운데

> (앞 부분 생략)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야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즉석에서 '産(논)' '狗(개)' 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 라 명명하였다.(이하 생략)

고 한 내용이 있다. 곧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사주 '사갑술' 에서 비롯된 것으로 "'産(논)' '狗(개)' 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 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이 '논개' 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밝혀주는 첫 내용이다.

그 뒤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앞 부분 생략) 공교롭게도 갑술년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 은 '개' 이고, 또 '낳았다.' 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 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 는 '개를 놓았다.' 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 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 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이하 생략)

위의 내용은 '논개(論介)'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의암주논개 낭생장지사적불망비'에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고 한 것보다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논개라는 이름은 그녀의 사주 4갑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술(戌)'은 '개'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의 뒷 부분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고 한 말에서 '논개'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녀의 '4갑술'이라는 사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남독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곧 그녀를 위한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즉,

> (앞 부분 생략)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 지어 주고 자라면서 아동 교육(兒童敎育)의 여가(餘暇)를 타서 한문(漢文)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智慧)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놀라게 하였다.[50](이하 생략)

---

50) 장수군(長水郡), 《삼절(三節)의 고장》(1982, 전주), 제1장 고장을 빛낸 인물, '충절(忠節)의 여신(女神)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삼강(三綱)을 실천(實踐)한 여인, 내용 참조.

그런데 앞의 내용에서는 "'술(戌)'은 '개' 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라 하였는데 위의 내용에서는 "4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 지어 주고"라 하여 설명(說明)하는데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다고 하겠으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위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설도 있다.

> (앞 부분 생략) (四甲戌의) '술(戌)'은 지지(地支)로서는 제11위에 해당하며, 띠로는 개띠가 된다. 그래서 달문은 딸을 낳았기에 사주(四柱)를 보고서 내심으로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모를 바라보며 '당신이 개를 낳았군요.'라고 하였다. 부인이 놀라 '개를 낳았다구요?' 하자 달문이는 사주를 따져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중간 부분 생략) 그래서 작명(作名)하기를 '논개(論介)'라고 했다.[51] (이하 생략)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라는 이름이 그녀의 사주(四柱) '4갑술(四甲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글들에서 일치(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진주(晋州)에 머물렀던 기간(期間)이 짧았고, 진주성의 함락(陷落)과 동시에 나라의 원수(怨讐)이자 남편의 원수인 왜장을 죽이려 한 계획을 누구에게도 상의(相議)하거나 알리지 않은 상태(狀態)에서 단독 결행(單獨決行)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身分)이 전혀 노출(露出)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관하여 알려지지 못한 채 그동안

---

51)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 49. 내용 참조.

문헌의 기록들에서 언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 이라는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논개가 순국한지 207년이 지나 순조(純祖) 8년(1800) 간행된《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기생 논개는 장수 사람인데 최경회가 좋아하였다.(妓論介長水人 公(崔慶會)所眄也.)(이하 생략)

위의 내용은 희미하긴 하지만 논개가 '장수(長水)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였다.' 는 것을 알게 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즉 이 내용은 논개가 '장수(長水)' 에서 출생(出生)하였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 그녀가 '장수에서 살았다.' 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 간행된 뒤 39년이 지나 헌종(憲宗) 5년(1839) 호남지역에서 간행된《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권 1(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였다.(중략) 본현(本縣) 장수(長水)에 정려(旌閭)가 세워져 있다.(論介長水官妓(中略) 旌閭於本縣長水.)

위의 기록으로 보면, 논개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 라는 것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로 있었는데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최경회가 진주성(晋州城)으로 갈 때 그녀도 그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으며, 성이 왜적에 의해 함락(陷落)된 뒤 왜장들이 베푸는 촉석루 큰 잔치에 그녀가 참석하여 왜장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왜장을 끌어안고 촉석루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곳 진주(晋州)에 비석을 세우고 관(官)

에서는 매년 제사(祭祀)를 올렸으며, 본현(本縣) 장수에 정려(旌閭)를 세우게 되었던 것[52]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두 기록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간행된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과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에서도 논개의 출생지를 '장수(長水)' 라고 기록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53]

그러나 위의 《호남삼강록》의 기록대로라면 그녀가 반드시 '장수에서 태어났다' 고 말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그녀가 장수에서 관기(官妓)로서 머물렀던 관계로 이 곳(本縣) 장수에 정려(旌閭)를 세우게 되었다고 이해(理解)하는 것이 더 타당(妥當)하리라 생각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위의 기록이 곧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났다.' 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며, 굳이 이해한다면 장수현(長水縣)에 소속(所屬)되었던 기생(妓生)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기록으로서 논개의 출생지 또는 성장지가 '장수' 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논리적(論理的) 비약(飛躍)이라고 하겠으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疑心)이 가는 것은 '본현 장수에 정려가 세워져 있다.' 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완전히 날조(捏造)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때까지 이 지역 어느 곳에도 논개의 정려가 세워져 있었다는 기록도 없으려니와 실제 논개의 정려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 간행된 뒤 7년이 지나 헌종(憲宗) 12년(1846)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장수현 옥(獄)거리(현 장수읍 장수리 277번지)에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 를 세웠다. 그 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2)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권 1(卷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論介長水官妓 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倭將與論介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 抱而同投樓下而死 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53)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편(編), 《한국인명대사전(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서울), p. 222. '논개(論介)' 조(條) 참조., 유홍열(柳洪烈) 감수(監修), 《신개정증보판(新改訂增補版) 국사대사전(國史大事典)》(敎育圖書, 1988, 서울), p. 356. '논개(論介)' 조(條) 참조.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槪)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하여 죽음 보기를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름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한가. 산에 영(靈)스러운 풀이 있고 물에는 맛좋은 샘이 있으니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해서 사람들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눈 육순(六旬)의 보잘 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한다.(疾風板蕩 不拘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 節源於天性 布人之耳目者乎. 熄余六旬腐儒 終无成己之功 每於如斯人豊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恨无 今於義妓竪名傳 後以生平走下風 願謹以書記識.〈後略〉)

그런데 위 수명비의 내용에는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다. 하지만 비석의 이름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에서 보여주듯이 이 곳 장수가 곧 '촉석루에서 순절(殉節)한 의기(義妓) 논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그것을 밝히고자 이 비석(碑石)를 세운다.'는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비문(碑文)의 내용에서는 그녀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는 하나 이 비석은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관한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 논개의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바로 이

곳 장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비명(碑名)이나 비문에서 논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故鄕)이 장수라는 주장(主張)에 대한 어떤 근거(根據)를 제시(提示)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추정(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 비석이 세워지게 된 배경(背景)에는 앞에서 살펴 본《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나《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의 내용에서 밝힌 논개에 관한 언급을 좀더 구체화(具體化)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호남절의록》이나《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에 관한 내용을 현지(現地) 주민(住民)들로서 현지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기념물(記念物)이나 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곳 장수 주민들의 자존심(自尊心) 내지는 자긍심(自矜心)을 촉발(觸發)케 한데서이다.

둘째로 이 곳 장수 지역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최경회 현감의 사랑을 받다가 임진왜란으로 진주병사가 되어 진주로 떠나는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 진주성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촉석루 아래 바위 위에서 적장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설(傳說)로 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전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오지 않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호남절의록》이나《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에 관한 기록도 없었을 것이고, 생장향수명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곳 장수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개에 관한 숱한 이야기가 사람 사람을 통하여 여러 형태(形態)로 전해왔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當然)한 사실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논개가 순국한 뒤 279년이 지난 고종(高宗) 9년(1872) 간행된《호남읍지(湖南邑誌)》가운데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 절의편(節義篇), '의기논개(義妓論介)' 조(條)에는

> 의기(義妓)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으

로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義妓論介一任縣內面楓川人 忠毅崔公慶會本縣時所眄也., 崔公以晋州兵使 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앞의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이나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즉 《호남삼강록》이나 《호남절의록》에서는 그저 막연(漠然)하게 '논개는 장수 사람이다.' 아니면 '논개는 장수 괸기였다.' 는 표현만 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라 그 지명(地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위의 기록이 어떤 근거(根據)를 가지고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논개가 본현(장수) 임현내면 풍천 사람' 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이다. 위의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란 기록은 뒷날 논개의 태어난 곳과 성장지가 '장수현 임현내면 풍천' 이라는 것을 확정짓게 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의 내용에서 논개가 최경회를 왜 따라 진주로 갔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논개를 좋아하였으며, 최경회가 진주병사로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진주로 따라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것은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어떤 사연(事緣)이 있어 논개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장수 장수 현감 최경회는 임현내면 풍천에 살고 있던 논개를 사랑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그가 진주병사로 진주에 가게 되었을 때 논개도 그를 따라 함께 진주로 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는 진주로 갔던 논개가 어떤 이유(理由)로 기생(妓生)이 되어 뒷날 의(義)로운 기생으로 추앙(推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지 '의기

(義妓) 논개' 라고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논개가 기생으로서 왜적의 승전연회(勝戰宴會)에 참석하였다가 만취(滿醉)한 왜적(倭賊)의 적장(賊將)을 촉석루(矗石樓) 아래 바위 위에서 끌어안고 함께 남강(南江)으로 투신(投身)하므로서 국가(國家)의 원수(怨讐)이자 나라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는데서 '의기' 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 짐작할 수는 있다.

그 뒤 일제 식민지 시대(日帝植民地時代)로 접어들면서 일제에 의해 한민족 말살정책(韓民族抹殺政策)에 의해 우리 나라 역사(歷史)의 왜곡(歪曲)과 말살로 논개의 사적(事蹟)에 관한 논의(論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1922년 장지연(張志淵)이 쓴 《일사유사(逸士遺事)》에서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재모(才貌)가 절륜(節倫)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저자 장지연은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개가 '장수 관기' 라는 기록이나 '논개는 장수 사람' 이라 한 내용과 《호남읍지》의 '장수현 임현내면 풍천 사람' 이라 한 내용에 근거하여 '논개가 진주기생' 이라고 한 《어우야담》을 비롯한 다른 문헌적 기록들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8.15 해방(解放) 후 소설가(小說家)들에 의해 논개를 소재(素材)로 한 소설(小說)이 많이 간행(刊行)되었는데, 여기서 논개의 출생과 출생지 그리고 그녀의 생애 등에 많은 이설(異說)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설가 정비석(鄭飛石)은 자신의 소설 《명기열전(名妓列傳)》 제14화 '진주기논개(晋州妓論介)' 에서 논개의 출생지를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월강리(月岡里) 풍천 부락(楓川部落, 속칭 朱村)' 이라 하였고, 같은 소설가 박종화(朴鍾和)는 자신의 소설 《논개와 계월향》에서 '장수면(長水面) 연사루(戀思樓)' 라 하였으며, 같은 소설가 전병순(田炳淳)은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삭촌' 이라 하였다.

이처럼 몇몇 소설가들이 논개의 출생지에 관해 이설(異說)을 보여왔다.[54] 물론 소설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짐작은 된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문학의 장르가 하나의 허구(虛構, fiction)라는 점에서 믿을만한 것은 못된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들 소설가들의 소설 속에 나타난 바 논개의 출생지에 관한 서로 다른 설로 많은 혼란(混亂)을 가져오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논개가 순국한지 361년이 지나 1954년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에서 진주 촉석루 서편(西便)에 있는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에 논개에 관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

> 의랑(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
>
> 장수군 장수면 큰 길가에 있는 논개 비각(碑閣)은 장수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美日戰爭)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乙酉年) 팔월(八月)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논개의 출생지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라 밝히고 있는데 논개가 순국한 진주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출생지를 밝힌 최초의 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비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장수 현지를 방문 논개의 출생지를 탐방(探訪)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논개의 출생지를 탐방하던 가운데 1846년 장수현감(長水縣監) 정주

---

54) 논개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살펴 보면, 가) 박종화(朴鍾和), 《논개(論介)》(단편), 1946년 6월부터 7월 사이 〈신세대〉 연재하였다가 1949년 9월 종로서원에서 간행한 《해방문학선집》(단편집) 1에 수록됨., 나)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장편),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하였다가 1993년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다) 전병순(田炳淳), 《논개(論介)》(장편), 1979년 동화출판공사에서 《민족문학대계》 14권으로 간행하였다., 라) 정비석(鄭飛石), 〈진주기(晋州妓) 논개(論介)〉(열전), 1974년 4월 2일부터 79년 2월말까지 〈조선일보〉 '명기열전(名妓列傳)' 제 14화로 연재., 마) 김성한(金聲翰), 《임진왜란(壬辰倭亂)》(대하장편),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으로 1990년 행림출판사에서 전7권을 간행하였는데 제6권 가운데 '불타는 진주성'에서 논개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석(鄭冑錫)이 장수에다 세웠던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를 장수면 길가에서 발견하였고, 이 비의 수난(受難)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헌적 기록에서 논개를 '진주의 기생' 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녀의 출생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誤解)의 소지(所持)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장수 지역 사람들에게 자긍심(自矜心)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해 장수 지역 사람들에 의해 장수에 '의암사건립추진발기회(義巖祠建立推進發起會)' 를 소집(召集)된 것이나 '의암사신축공사(義巖祠新築工事)' 가 시작되었던 것이나 '장수의암사적보존기성회(長水義巖事蹟保存期成會)' 가 발족(發足)되었던 것을 상기(想起)해 본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에 이르러서는 논개의 출생과 생장지로 알려진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비석은 뒷날 이 마을이 논개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해 준 하나의 금석문(金石文)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에서 논개의 출생지에 관한 기록을 보면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웅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전 한 가날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쌈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짤름한 교실(敎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논개의 출생지가 바로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웅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전 한 가날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라 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출생지를 하나의 영상(映像)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 역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이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1960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또 위 글에서 보면,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는 지금 온데 간데가 없고, 그 곳에는 조그마한 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을 뿐이라 한다. 즉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쌈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짤름한 교실(敎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고 한 대목을 보면 필자가 직접 이 지역을 탐방하여 논개의 생가(生家)터를 확인한 흔적(痕迹)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어떤 근거에서 이 곳이 논개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장수향교(長水鄕校)에서 간행한《벽계승람(碧溪勝覽)》을 보면,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

> 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현감(縣監) 최경회(崔慶會)의 시종(侍從)을 들다가(이하 생략)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논개의 출생지는 앞의 '명문의 고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 이 글 가운데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라 한 내용의 근거는 아마 앞에서 살펴 본 1960년에 세워진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와 '명문의 고향'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글이 쓰여질 때에는 이미 앞의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에서 출생하였다.'는 몇 가지의 문헌적 기록과 금석문이 있었기에 특별(特別)히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뒤로부터 1982년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가 논개의 생가터에 세워지게 되었고, 1987년에 이르러서는 '주논개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가 같은 논개의 생가터에 세워지게 되었다. 1996년 6월에는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가 주촌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1982년 장수군에서 발간한 《삼절의 고장》과 1983년 전북애향운동본부(全北愛鄕運動本部)에서 간행한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와 1996년 부산(釜山) 경성대학교(慶星大學校) 향토문화연구소(鄕土文化硏究所)에서 간행한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 가운데에서 논개의 태어난 곳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삼절의 고장》(앞부분 생략)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郞)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남)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祖父) 휘(諱) 혁(爀)이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學堂)을 차리고 훈장(訓長)이 되었으며 부친

(父親)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生業)으로 하였는데(이하 생략)

《전북인물지》(앞 부분 생략) 조부(祖父)의 휘(諱)는 혁(爀)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後進) 교육에 힘썼다. 부친(父親)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받아 높은 학문(學問)과 덕(德)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유지(生計維持)를 하였다.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앞 부분 생략) 논개의 조부는 통헌대부(通憲大夫) 주용일(朱溶一)로서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에 살았는데 이 마을은 주씨(朱氏)들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주촌(朱村) 마을' 이라 했다. 논개의 부친은 달문(達文)으로 주촌의 서당(書堂) 훈장(訓長)이었다.

위의 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의 6대조 통덕랑(通德郎)이 증직(贈職)된 주응표(朱應杓)가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거주(居住)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인가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주(移住)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조부(祖父)까지 계속하여 살다가 조부(諱 爀, 또는 溶一)께서 이 곳 장수현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으로 이사(移徙)를 한 뒤 서당(書堂) 훈장(訓長)을 하다가 죽었고, 그 아들 달문(達文)이 아버지의 가업(家業, 書堂 訓長)을 계승 생업(生業)으로 하고 살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촌(朱村)' 이라는 마을은 주문달의 아버지(爀 또는 溶一)가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서 이 곳으로 이사오기 전부터 이미 '주촌(朱村)' 마을은 형성되어 있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있게 된다. 곧 1960년 세워진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 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이다.

>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本鄕)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 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부급從事)하야 소거(小居) 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야 주촌(朱村)이라 하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의 아버지 주달문이 이 곳 즉 '본향(本鄕) 계내면(溪內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가운데에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짓고, 산수의 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다 보니 사방(四方)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여 모여들기 시작 몇 해를 지내는 사이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달문 선생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선생(朱先生)의 촌(마을)' 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뒷날 '주촌(朱村)' 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 논개의 할아버지 주혁(아니면 주용일)이 이 곳 주촌으로 이사를 왔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고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는 곧 '전북 장수군 장계면(계내면) 대곡리 주촌 마을' 로 대부분의 문헌적 기록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호남읍지》의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 이라 한 기록의 지명(地名) '임현내면 풍천' 과 앞의 기록에서 살펴 본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이라는 지명이 어떤 관계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옛 '임현내면 풍천'이 지금의 어느 지역 어떤 마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옛 '임현내면 풍천'이 어떻게 바뀌어 지금의 '대곡리 주촌'이 되었는지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17년 발간된《신구대조(新舊對照)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名稱一覽)》을 보면, 계내면 대곡리에는 '주촌(朱村)'이라는 마을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문헌의 기록[55]에 의하면 당시 대곡리에는 '대곡(大谷)'·'동촌(東村)'·'궐촌(蕨村)'이라는 세 마을이 소속(所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풍천(楓川)' 마을은 당시 계내면 월강리(月岡里)에 소속한 마을로 나타나 있다.

---

55) 월지유칠(越智唯七),《신구대조(新舊對照)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名稱一覽)》(中央市場, 大正 六年〈1917〉, 朝鮮 京城府), p. 347.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부분. 내용 참조.

〔Ⅳ〕

논개의 신분(身分)에 관한 문제는 논개가 본래부터 기생(妓生)이었는가 아니면 양가(良家)의 여자로 남편과 국가의 원수(怨讐)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가장(假裝)한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던 다음해인 선조(宣祖) 26년(1593, 癸巳) 진주성(晋州城)이 함락(陷落)된 직후 조정(朝廷)에서는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을 진주에 파견(派遣)하여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作成)토록 하여 그들 가족에게 부역(負役)을 면(免)해주고 미태(米太)를 지급토록 한 바 있다.[56]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은 무군사 관원이 되어 세자(世子)를 따라 삼남(三南)으로 내려간 일이 있으며, 다음 해인 선조 27년(1594) 갑오(甲午)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가 되었는데 이 때 진주성에 들려 논개의 순국 사실을 채록(採錄)한 바 있다. 이 때 유몽인 자신이 손수 채록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인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수록(收錄)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논개에 관한 사적을 문헌적 기록으로 후세인(後世人)들에게 알게 한 최초의 내용이다. 그 이후 모든 문헌적 기록들은 이 《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우야담》 가운데 논개의 사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論介晋州官妓也.)"라는 기록이 있다. 유몽인이 논개의 사적을 채록할 당시 '논개가 관기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

56) 《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卷四十六), 26년(二十六年) 12월(十二월) 병자(丙子) 조(條), '日記曰 世子以晋州錦山陣亡人成冊 下于侍講院 命招其家屬 皆給免役牒及米太.'

가지고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어우야담》의 논개에 관한 기록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논개는 '관기(官妓)' '의기(義妓)' '의낭(義娘)' 등으로 필자(筆者)에 따라 다소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기생(妓生)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 뒤 1900년초까지는 논개를 하나의 기생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헌적 기록들에서이다. 그런데 구한말(舊韓末) 우국지사(憂國之士)이자 언론인(言論人)이었던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쓴《일사유사(逸士遺事)》(1922년 간행)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재모(才貌)가 절륜(節倫)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依支)할데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기적(妓籍)에 들게 되었다. 현감(縣監) 황진(黃晋)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계사년(癸巳年)에 황공(黃公)이 순난(殉難)하자 논개도 물에 빠져 죽기를 결심(決心)하였다. 몸 단장(丹粧)을 곱게 하고 홀로 촉석(矗石) 위에 서 있으니 왜장(倭將) 모(某)가 보고 몹시 기뻐하여 꾀어내려 하거늘 술에 취했을 때 논개가 갑자기 그의 허리를 껴안고 바위 아래로 떨어져 함께 죽었다. 이러한 까닭에 그 바위를 의암(義巖)이름하였고, 바위 위에 비를 세워 이를 정표하였으며, 진주 사람들이 촉석루(矗石樓) 서쪽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매년 6월 29일이면 반드시 이를 제사하니, 이 날이 계사순의일(癸巳殉義日)이기 때문이다.[57]

57) 장지연(張志淵),《일사유사(逸士遺事)》권(卷) 1.(1922, 서울), '論介는 本長水縣良家女니 才貌絶倫ᄒᆞ고 幼失父母ᄒᆞ고 家貧無依ᄒᆞ야 遂落籍爲妓라가 爲縣監黃進의 所愛러니 及晋陽之役에 黃公이 殉難이라. 論介欲赴水死ᄒᆞ야 獨凝粧艶服으로 立巖石上이러니 日將某ㅣ 見而悅之ᄒᆞ야 將誘而引之러니 酒 에 論介忽抱其腰ᄒᆞ고 投巖下俱死故로 名其巖曰義巖이라ᄒᆞ고 立碑巖上而旌之ᄒᆞ고 州人이 又立祠于矗石樓西ᄒᆞ야 每歲六月二十九日에 必祭之ᄒᆞ니 盖癸巳殉義日也러라.'

위의 내용은 그동안의 논개의 사적에 관한 문헌적 기록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음미(吟味)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라는 대목과 또다른 하나는 '현감(縣監) 황진(黃晋)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라는 대목에서 이다.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良家) 여자로' 라는 대목은 논개가 순국 당시 비록 기생이었다고는 하지만 '논개의 본래 신분(身分)은 장수현에 살았던 양가 출신' 이었다는 의미(意味)를 갖는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는 본래 장수현에서 살았던 양가의 여자로 어떤 사연(事緣)이 있어 기생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暗示)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장지연은 논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依支)할데가 없었다.' 는데서 찾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狀況)에서 논개는 할 수 없이 '기적(妓籍)에 들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장지연은 그동안 막연히 '논개는 관기(官妓)였다.' 든가 '논개는 기생(妓生)이었다.' 는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의 내용을 한 단계(段階) 높여 논개가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놓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기생(妓生)이란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에 높고 낮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개는 양가의 여자' 란 말의 의미는 '논개가 당시 천민(賤民) 신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논개는 원래 양가의 딸로 태어나 어엿한 소녀(少女)로 자랄 수 있었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논개의 출신 성분이 양가였던 가장(假裝)해서 기생이 되었든지간에 진주 촉석루 의암 위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순국할 당시에는 기생의 신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疑心)할 여지(餘地)가 없다고 생각된다.

논개가 원래 양가의 딸로 태어나 어엿한 소녀(少女)로 자랄 수 있었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일사유사》의 내용은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는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의암주논개낭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事蹟不忘碑)' 와《벽계승람(碧溪勝覽)》의 내용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고 할 것이다.[58] 그렇다면 논개는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이 된다. 즉 그녀가 기생이 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개를 사랑하였다는 최경회(崔慶會)의 후손(後孫)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더욱 확실해진다고 할 것이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기생 논개는 장수인인데 최경회(崔慶會)가 좋아하였으며,' 라는 내용과《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의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회가 사랑하였다.'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쥔 채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공(公)의 시첩(侍妾)이던 논개 역시 왜적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의 기녀(妓女)이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논개는 장수의 기녀(妓女)로 있다가 최경회의 사랑을 받아 마침내 시첩(侍妾)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59] 그리고 논개는 처음부터 기녀였다

---

58)《벽계승람(碧溪勝覽)》을 보면,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관비속공(官婢贖供)' 이란 곧 관청(官廳)에 제공(提供)해야 할 것 대신 관비(官婢)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가 무엇인가를 관청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대신 관청의 비(婢)가 되었다는 것이다.

59) 여기서 논개가 최경회의 시첩(侍妾)으로 되어 있으나《일휴당실기》를 한글로 번역한《해주최씨일휴당집육의록(海州崔氏日休堂六義錄)》, p. 81.에는 '시첩' 을 '부실(副室)' 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나온 기록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면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의암 주논개 사적 조사 보고서(義巖朱論介事蹟調查報告書)》와는 다소 의미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즉 이 보고서에 의하면,

> (앞 부분 생략)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인(夫人)에게는 달무(達武)라는 숙부(叔父)가 있었는데 숙부는 천성(天性)이 어질지 못하고 주색(酒色) 방탕아(放蕩兒)였다고 한다. 인근 김풍헌(金風憲)이 살았는데 풍헌에게는 백질불구(白疾不具)의 아들이 있었다. 숙부 달무는 의암 부인을 김풍헌의 불구의 자식의 믿며느리로 팔았다. 그 내용을 탐문(探聞)한 의암 모녀는 안의현(安義縣) 서하면(西下面) 봉정 마을 외가(外家)로 피신(避身)하였다.
>
> 김풍헌은 이 사실을 알고 장수 현청(長水縣廳)에 제소(提訴)하여 포리(捕吏)들의 손에 두 모녀는 포박(捕縛)되었다. 1588년 8월에 장수현(長水縣) 관아(官衙) 뜰에서 심판(審判)을 받았다. 사실 심문(事實審問) 끝에 최경회(崔慶會) 현감은 무죄(無罪)를 인정하고 두 모녀를 석방(釋放)하였으며, 오히려 의지(依持)할 곳 없는 모녀의 딱한 사정에 모녀를 관아에 살도록 주선하였다.(이하 생략)

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일휴당실기》의 그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논개사적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논개가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는 있지만 그 근거 자료가 되려면 최소한 위의 내용을 입증(立證)할만한 유물(遺物)이나 문헌(文獻)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유물이나 문헌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 한갖 전해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현감(縣監) 황진(黃晋)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라는 대목에서,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이다. 논개가 '사랑을 받고 있

다가' 라 표현한 말에는 논개는 '기생으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 는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논개가 기생으로 있으면서 황진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암암리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뒷날 정한숙(鄭漢淑)과 같은 소설가는 이를 소재(素材)로 삼아 《논개(論介)》라는 장편 소설(長篇小說)을 저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60]

그동안의 문헌적 기록에는 대부분 '현감 최경회(崔慶會)' 가 그녀를 사랑한 것으로 되어 있다.[61] 앞에서도 살펴 본 바이지만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최경회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최경회의 《일휴당실기》를 편찬(編纂)할 때 논개를 '최경회의 시첩(侍妾)' 으로 기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뒤부터는 아에 논개를 최경회의 '부실(副室)' 이니 '측실(側室)' 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910년에 들어와 장지연은 난데없이 '현감 황진이 논개를 사랑하였다.' 고 표현한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장지연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장지연의 표현으로 논개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혼란(混亂)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다행히도 황진이 논개를 사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오류(誤謬)라는 것이 밝혀져 그동안의 혼란이 풀리긴 하였다.[62]

---

60)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장편)(청아출판사, 1993, 1993), 1969년 9월 30일부터 1973년 9월 30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하였다가 1993년 청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61) 이같은 표현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호남절의록》에서 이며, 그 뒤 《호남삼강록》에서 이다. 그러나 이 두 문헌에서 최경회가 논개를 사랑하였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근거는 밝혀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황진(黃晋)' 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 2차 지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충청병사의 이름은 '황진(黃進)' 이다.

62)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부산, 1996), p. 65. 내용 참조.

〔V〕

이상에서 그동안 여러 문헌과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던 논개(論介)의 성씨 · 본관 ·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지 · 성장지 · 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立證)할만한 근거 자료(根據資料)를 가지고 논의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確認)되었다. 논개에 관하여 언급(言及)한 최초(最初)의 문헌(文獻)이자 논개의 실존(實存)을 기록(記錄)으로 알려주었던 것은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의 저술(著述)인 《어우야담(於于野談)》인데 이 역시 어떤 확실(確實)한 근거 자료에 의해 저술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어우야담》이 편찬되기 전 유몽인은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당시 경상도 일대를 순시(巡視)한 바 있었는데 그 때 진주(晋州) 지역에 들려 그동안 항간(巷間)에 떠돌던 논개의 순국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蒐集)하였다가 뒤에 그 수집된 내용을 정리(整理)하여 《어우야담》에 수록(收錄)하였던 것이다. 《어우야담》이 필사본(筆寫本)으로 편찬된 것은 논개가 순국(殉國, 1593)한지 28년이 지난 1621년이다.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논개에 관한 내용들은 대개 《어우야담》에 수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그동안 민간(民間)에 구전(口傳)되어오던 논개에 관한 내용을 수집(蒐集) 확대(擴大)하거나 재해석(再解釋)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 앞에서 살펴 본,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 논의 되었던 논개의 성씨 · 본관 ·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지 · 성장지 · 신분에 관하여 그녀의 가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程度) 타당성(妥當性)이 있다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나 이의(異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검토(檢討)해 보기로 한다. 최근에 이르러 논개의 가계(家系)에 관한한 어떤 근거(根據)가 있든 없든 간에 논개의 성씨는 '신안 주씨(新安朱氏)', '그녀의 아버지는 주달문(朱達文)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密陽朴氏)이

다.' 라는 내용으로 정립(定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개의 생년월일에 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앞 부분 생략) 배호길은 논개가 선조 7년(1574)인 갑술년의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사주가 사갑술이므로 술 戌이라서 '논개' 라 명명했다는 것이다.[63] 정비석도 논개가 갑술년 9월 3일 갑술시생 곧 사주가 사갑술이며[64], 전병순도 정비석과 같이 보고 있다.

하지만 논개란 이름과 꼭 같은 이름이 그녀가 살았던 당시의 문적에 나타날 분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이름은 허다하게 많다. 그 한 예로서《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살펴 보면, '論介 礪山郡人 良人曹忠良之女也.' 고 한 것은 의기 논개와 동일한 이름이다. 이 밖에 양개(良女) 덕개(德介, 淸州人), 양녀 옥개, 양녀 인개, 양녀 석을배, 양녀 구토개, 양녀 홍개, 양녀 금개와 사비(私婢) 막개(莫介), 사비 춘개, 사지 막개, 사비 건이개, 사비 수령 및 신분이 명시되지 않은 충신 자근개, 옥개 등 논개와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65]

(앞 부분 생략) 1861년에 간행되었던《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에서는 1577년에서 1579년까지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재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호남읍지》제5책 〈무장읍지(茂長邑誌)〉 관안조

---

63) 배호길, 〈진주 촉석루와 주논개〉《한양(漢陽)》, 1965년 3월호. 내용 참조.

64) 정비석,《명기열전(名妓列傳)》, 제14화 진주기논개(晋州妓論介)(한국출판공사, 1982) 내용 참조.

65)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6-7. 내용 참조.

(官案條)의 1579년 3월 장수에서 무장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경회의 장수 부임은 1579년 이전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그런데 현전하는 구전을 체계화한 배호길은 1590년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부실로 맞아들였으며, 1591년 경상우병사가 되자 진주로 함께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논개의 나이, 논개와 최경회를 연결시켜 주는 송사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경회의 장수 현감 재임 시기를 맞추고 있다. 그 후 《장수군지》를 비롯한 지역사는 1589년을 최경회 장수 현감 부임을 정설화하고 있다.

최경회와 관련을 가지고 연구된 기존의 논문[66]에서는 최경회가 장수 현감 시절 논개와 인연을 맺는 것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다. 그것은 논개의 출생연도를 대부분 1574년으로 인정한 위에 최경회의 장수 부임과 연결시킬 때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최경회의 장수 부임 시기는 1579년 장수에서 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한 1579년 이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157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논개의 나이는 너무 어려서 논개와 최경회와의 관계가 맺어지기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필자 또한 최경회의 장수 현감 부임은 1579년 경으로 보이며 1589년 부임 설은 수긍하기 힘들다.[67]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사갑술)과 최경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논개의 출생년월일인 사갑술설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개의 출생년월일이 사갑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

66) 리명길, 〈의기 논개의 사적 고찰〉《진주문화(晋州文化)》 제14집,(1992, 진주)., 유승주(柳承宙), 〈진주성(晋州城)의 의기(義妓) 논개고(論介考)〉《한국사학논총(韓國史學論叢)》, (1987), p. 909.

67)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논개(論介) 사적(事蹟)의 역사적(歷史的) 의미(意味)》(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부산), pp. 204-205.

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고찰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갑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논개'라는 이름과 최경회와 논개의 관계에 관하여도 좀더 고찰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개의 출생지와 성장지에 관해서는 지금의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군(長水郡) 장계면(長溪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이었다는 내용으로 정립(定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부언(附言)해 둘 것은 '주촌(朱村)'이라는 지명(地名)과 '풍천(楓川)'이라는 지명이 동일한 마을에 대하여 그렇게 불렀던 서로 다른 이름인가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지명이 서로 다른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 번더 깊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논개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현재 '주혁(朱爀)'과 '주용일(朱溶一)'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일인동명(一人同名)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끝으로 그녀의 신분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분명 처음에는 양가 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한 뒤 무슨 사연으로 말미암아 기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바 '관기'·'의기'·'기생'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촉석루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 물에 뛰어들어 순국할 때는 분명 기생의 신분이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68]이 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보면,

---

68) 정약용은 영조(英祖) 28년(1762) 진주 목사(晋州牧使) 재원(載遠)의 아들로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教) 교명(教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해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檗)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량(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忠臣(충신)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69]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촉석루 위에 써 붙인다.(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娘者引倭酋 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 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 皦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眇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恚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觖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70]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서 정약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를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갖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

---

69)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70)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節烈)' 과 '충의(忠義)' 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정약용의 위의 글에서 논개의 신분이 무엇이었던가는 중요시 되지 않는다. '논개가 한갖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 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 과 '충의(忠義)' 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큰 의의(意義)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약용의 바로 이 말처럼 논개의 신분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장수 지역(長水地域)

오병무 역
(순천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임진록(壬辰錄)[1]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 선조 25년, 1592) 여름 4월 한꺼번에 왜적(倭賊)이 많이 쳐들어왔다. 이보다 10년 전 율곡(栗谷) 이이(李珥 : 1536-1584)[2] 선생과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 1538-1609)[3],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 : 1540-1603)[4],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 1542-1607)[5] 등 제공(諸公)이 함께 경연(經筵)[6]에 들어갔다. 율곡이 아뢰어 말하기를 '국가(國家)의 형세가 부진함이 오래되었사오니 앞으로 닥쳐올 화(禍)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10만명을 양

---

1) 이 기록은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의 저서 《은봉야사별록(隱峯野史別錄)》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조(仁祖) 5년(1627) 저술된 것인데 현종(顯宗) 4년(1663) 흥양향교(興陽鄕校)에서 간행되었다. 그 뒤 일본 사람 와다나베(渡邊)가 일본에서 번각(飜刻)하였다. 그 내용은 임진록(壬辰錄), 노량기사(露梁記事), 진주서사(晋州敍事) 3편으로 되어 있다. 임진왜란의 진행을 알려주는 야서(野史)이다.

2) 그의 아명은 현룡(見龍)이고, 자는 숙헌(叔獻)이며, 호는 율곡(栗谷)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강릉(江陵)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大學者)로 성리철학(性理哲學)에 정통하였다. 그는 성리철학에서 '이통기국(理通氣局)'과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 이 주장이 주자(朱子)의 뜻과 어긋난다면 주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저작인 〈동호문답(東湖問答)〉, 〈성학집요(聖學輯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시무육조소(時務六條疏)〉 등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시무(時務)를 논한 명저로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유학자(儒學者)의 이상인 요순 시대(堯舜時代)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밖에 정치적 부패의 타개와 백성의 구제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그는 부패의 시정책(施政策) 7개항을 제시 하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은 임진왜란을 예언한 유명한 사실이다.

3) 그의 자는 여수(汝受)이고, 호는 아계(鵝溪) 또는 종남수옹(終南睡翁)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선조 25년(壬辰, 1592) 양사(兩司)로부터 나라를 그르치고 왜적(倭賊)을 들어오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彈劾)을 받아 파면(罷免) 강원도(江原道)에 귀양갔다가 다시 영돈영부사(領敦寧府使)로 복직 선조 33년 영의정이 되었다가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피봉되었다.

4) 그의 자는 숙부(肅夫)이고, 호는 동강(東岡)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동인(東人)으로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추방 회령(會寧)으로 귀양갔다가 임진왜란 때 석방되어 '비어기무(備禦機務)' 7조를 건의하였다.

병(養兵)하시옵소서. 도성(都城)에 2만명, 각 도(道)에 1만명씩 양성하여 위급한 일에 대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맡은 직무를 게을리 하면서 세월만 보내어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습관이 든다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변이 일어나 시정(市井)의 백성을 이끌고 싸우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오니 그러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좌우에서 (율곡의 말을) 찬양(讚揚)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서애는 '일에 임하여 쓸데없이 모의(謀議)하기를 좋아한다.' 는 말로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경연에서 물러 나와 서애가 율곡에게 말하기를 '지금과 같이 태평무사(太平無事)한 때는 경연의 자리에서 성학(聖學 : 儒敎의 學)으로 우선(于先)을 삼아 힘써 권해야 하며 군대(軍隊)의 일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공(公)은 어떠한 소견이 있기에 우리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서 이와 같이 아뢰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율곡은 '속된 선비가 어떻게 시무(時務)를 알리요.' 하고는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는데 아계가 '이현(而見 : 유성룡의 자)이 틀렸습니다. 숙헌(叔獻 : 이이의 자)이 어찌 소견(所見)이 없겠습니까?' 라 하였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잠잠하였다. 율곡이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찌 한 마디씩 하여 그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라 하자 동강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이 감히 논할 바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을 옛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던가요?' 라 하였다. 이에 아계가 '숙부(肅夫 : 김우옹의 자)는 근신(謹愼)한 군자(君子)라 할 만합니다.' 라

---

5) 그의 자는 이현(而見)이고, 호는 서애(西厓)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좌의정에 재직 중 일본이 군사를 명 나라로 들여보내겠다고 기록한 국서를 보냈는데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는 이를 묵살하자고 했으나 그는 이 사실을 중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대로 실시하였으므로 명나라가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게 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을 모시고 송도(松都)에 이르러 영의정이 되었으나 신잡(申磼)의 말에 의해 그날로 사퇴하고, 평양에서 소동을 일으킨 난민들을 진정시킨 뒤 조정에서 북행(北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홀로 의주(義州)로 행할 것을 주장 뒷 날 명 나라의 구원의 길을 열게 하였다.

6) 임금이 학문(學問)을 닦기 위하여 신하(臣下)들 가운데에서 학식(學識)과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을 궁중(宮中)에 불러 경전(經典)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講論)케 하던 일.

말하고 서로 더불어 웃으면서 그 자리를 파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계미년(癸未年 : 선조 16년, 1583)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의 난리[7]가 있었다. 조정의 대신(大臣)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병조판서(兵曹判書)인 율곡이 계책을 세워 겨우 일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거의 깨달은 바가 있었을 터이지만 오히려 뉘우칠지를 모르고 도리어 '나라의 권력을 제멋대로 처리하고 윗 사람에게 교만(驕慢)하게 구니 그 뜻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등의 말로 율곡을 헐뜯어 율곡으로 하여금 조정(朝廷)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갑신년(甲申年 : 선조 17년, 1584) 정월 율곡이 세상을 떠났다. 율곡의 후임자는 오직 편당(偏黨)의 비위를 맞추는데 힘썼고, 또한 역적(逆賊)의 술수(術數)에 빠져서 녹둔(鹿屯)[8]의 둔전(屯田)[9]과 해서(海西)의 갈대밭(蘆田)으로 백성들을 옮기고 옥비(玉非)의 자손을 추쇄(推刷)하는 일 등으로 능사(能事)를 삼았기 때문에 8도(八道)의 인심이 크게 이반(離叛)하고 원성(怨聲)이 극에 달하여 하늘에 호소할 정도였다.[10] 서남 연해의 포인(鮑人)[11]들은 고을 수령에게 침탈을 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강진(康津)의 사회동(沙火同)처럼 도망한 사람들이 여기 저기에 있어도 조정에서는 근심거리로 여기지를 않았다.

---

7) 니탕개(尼蕩介)의 난을 가리킴.

8) 두만강(豆滿江) 어귀에 있었던 섬의 하나로 지금은 토사(土砂)가 밀려서 연해주 쪽으로 연결되었다.

9)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兵士)들의 군량(軍糧)을 자급하기 위해 반급(頒給)했던 토지를 가리킴.

10) 일찍이 함경도(咸慶道) 6진(六鎭) 개척 때 공사 천인(公私賤人)으로 6진에 들어가면 천인을 면해주었다. 그런데 6진에 들어가 천인을 면하게 된 사람이 뒤에 이 곳에서 도망간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선조 16년 쇄환령(刷還令)을 반포하고 도망간 사람을 색출하여 역졸(驛卒)에 속하도록 하였다. 옥비(玉非)는 원래 경원(慶源)의 관비(官婢)였는데 6진에 들어갔다가 속량(贖良)된 뒤 경상도로 도망하여 양가(良家)의 첩이 되었다. 그녀가 양가의 첩이 되어 낳은 후손의 수가 100여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사족(士族)과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쇄환령이 시행되자 나라 안이 매우 소란하게 되었으며, 8도의 인심이 크게 이반되었던 것이다.

11) 날가죽을 가지고 무두질 하던 장인(匠人)을 가리킨다.

5년 뒤 정해년(丁亥年 : 선조 20년, 1587) 봄 3월, 왜적의 배 16척이 영남의 바깥 바다로부터 곧바로 흥양(興陽)의 손죽도(巽竹島)[12]에 이르렀으나 각 진(鎭)과 여러 고을의 수군(水軍)들은 서로 마주 보이는 곳에 진(陣)을 치고는 두려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직 녹도(鹿島) 만호(萬戶)[13] 이대원(李大源 : 1566-1587)만이 나아가 싸우다 왜적에게 포위되었다.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전세가 곤궁하게 되자 깃발을 들어 원군(援軍)을 불렀으나 여러 장수들이 아무도 구출해주지 않았다. 이대원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배가 물에 빠져 녹도의 수졸(水卒)인 손대남(孫大男)만이 겨우 살아났다. 그 날 밤 왜적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습과 그림자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에 조정과 재야(在野)에서 크게 놀라 곧바로 방어사(防禦使)와 좌우조방장(左右助防將)을 출정시켰다.

한편 평수길(平秀吉)[14]은 (자기의 나라 일본의)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위세(威勢)를 타 조선(朝鮮)의 길을 얻어 (중국의) 명(明)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사화동(沙火同)을 길잡이로 삼아 약간의 배를 보내 조선 병력의 강약(强弱)을 시험했던 것이다. 이 때 보성군수(寶城郡守) 유춘발(柳春發)이 왜적과 대진(對陣)하고 있었다. 유춘발은 갑짜기 미친병을 핑계삼아 밤에는 음식을 먹었지만 낮에는 전폐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거짓으로 미친 척하는 것을 알았는데 감사가 이 소문을 듣고 그 진위(眞僞)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군(本郡)에 연락하여 말하기를 '군수 유춘발은 비변사(備邊司)에서 계(啓)를 올려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옮겨 가도록 하였으니 조사(朝辭)[15]를 생략하고 급히 부임하라.' 고 하였다. 이에 유춘발이 밤낮으로 달려 영광으로 가거늘 감사가 비로소 그가 거짓으로 미친 척하는 것임을 알았다. 감사는 즉시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유춘발은 잡

---

12) 지금의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에 속했던 섬의 하나. 원문의 '損竹島' 는 '巽竹島' 의 오기임.

13) 조선 시대 각 도의 진(鎭)에 있던 종4품(從四品)의 무관직명(武官職名)

14) 풍신수길(豊臣秀吉 : 1536-1598)을 가리키는데, 그는 무장(武將)이자 정치가였다.

15) 새로운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궁중에 들어가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일.

혀 문초(問招)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여러 장수들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꾀를 쓰던 모습들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 9월, 풍신수길이 사신을 보내 화친(和親)을 하자고 요구하였다.

무자년(戊子年 : 선조 21년, 1588) 봄, 풍신수길은 또 대마도(對馬島)의 왜인 귤강광(橘康光)을 보내 화친을 요구하였다.

기축년(己丑年 : 선조 22년, 1589) 봄, 풍신수길은 사신을 보내 통신사(通信使)를 청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해마다 왜구(倭寇)들이 노략질 하는 것을 문책(問責)하자 풍신수길은 즉시 사화동 및 적왜(賊倭) 신삼보라(信三甫羅), 긴시요라(緊時要羅), 망고시라(望古時羅), 등을 붙잡아 승(僧) 현소(玄蘇), 평의지(平義智)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압송하여 조선에 바치도록 하고, 말하기를 '전일에 조선을 침범한 것은 모두 이들이 한 짓으로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라 하였다. 풍신수길은 또 지난해 붙들려 갔던 공태원(孔太元) 등 백여명을 돌려보내 조선을 속이고 꾀어 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얼굴빛을 바꾸어 서로 축하하고 남쪽 변방에서는 이로부터 근심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통신사 파견 문제를 상의하였다. 임금은 2품 이상의 대신에게 그 가부를 의논토록 명하였는데 오직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 이산보(李山甫 : 1539-1594)[16]만이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였고,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 1533-1601)[17]는 명 나라에 알린 뒤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16) 그의 자는 중거(仲擧)이고, 호는 명곡(鳴谷)이며, 본관은 한산이다. 임진왜란 때 대사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명 나라 응원군이 서울에 이르렀으나 군량이 떨어졌는데 왕명으로 도검찰사가 되어 3남(三南)에 내려가 군량을 거두어 위기를 모면케 하였다.

17) 그의 자는 자앙(子仰)이고, 호는 오음(梧陰)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임진왜란 때 임금을 모시고 서행(西行) 개성에 이르러 어영대장을 거쳐 우의장이 되었고, 평양에 이르러서는 좌의정이 되어 군국의 정무를 지체없이 처리하였다. 왜적이 평양에 육박하자 여러 신하들이 함흥(咸興)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그는 영변(寧邊)의 방어에 함흥보다 낫다고 하여 끝내 자신의 듯을 관철시켰다. 뒤에 함흥이 함락되고 두 왕자(王子)가 포박되자 그제야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서애는 황윤길(黃允吉 : 1536-?)[18]로 상사(上使)를 삼고 김성일(金誠一 : 1538-1593)[19]로 부사를, 허성(許筬 : 1548-1612)[20]으로 서장관(書狀官)[21]을 삼아 일본에 파견하여 사례의 듯을 표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해 경인년(庚寅年 : 선조 23년, 1590) 봄, 황윤길, 김성일, 허성 등이 부산(釜山)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석달만에 일본의 국도(國都)에 들어갔다. 국도에 들어간 지 다섯달만에 비로소 풍신수길을 만나 국서(國書)를 전하고 나올을 머문 뒤 국도를 떠났다. 국도를 나선 지 스무날 만에 답서(答書)가 왔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장차 단번에 바다를 건너 곧바로 명 나라에 들어가 우리 나라(일본)의 풍속을 4백여주에 바구어 놓고 일본 제도(日本帝都)의 정치와 교화를 억만년 동안 베풀고자 하는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 귀국(조선)은 먼저 달려와 우리 나라에 입조(入朝)[22]하라! 원대한 계획이 있으면 가까운 근심은 없을 것인저. 먼 나라와 바다에 있는 소도(小島) 가운데 늦게 입조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대명(大明)에 들어가는 날에 사졸을 이끌고 나의 군영으로 우러러 보면서 온다면 이웃간의 동맹이 더욱 두터워질 것

---

18) 그의 자는 길재(吉哉)이고, 호는 우송당(友松堂)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선조 23년(1590) 통신정사(通信正使)로 일본의 사신 겐소(玄蘇)와 함께 일본에 다녀올 때 쯔시마(對馬島)의 소오(宗義智)로부터 처음으로부터 조총(鳥銃) 두 정을 선물(膳物) 받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장차 병화(兵禍)가 있을 것을 보고하였으나 조정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19) 그의 자는 사순(士純)이고, 호는 학봉(鶴峰)이며, 본관은 의성이다. 선조 24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정사 황윤길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보고하였다. 경상의병사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는 지난번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와 보고했던 내용 때문에 임금의 대노를 사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유성룡의 변호로 용서되어 초유사(招諭使)로 종군 죽산(竹山), 함양(咸陽) 등지에 격문(檄文)을 돌려 김면(金沔), 정인홍(鄭仁弘), 곽재우(郭再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순직하였다.

20) 그의 자는 공언(功彦)이고, 호는 악록(岳麓)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그는 일본 통신사 서장관이 되어 일본에서 귀국하여 일본의 도요도미(豊臣秀吉)가 반드시 침구할 것을 정, 부사보다도 확실하게 말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조좌랑으로 강원도소모어사(江原道召募御使)를 자청 이천(伊川) 분조(分朝)의 강관을 겸하고, 군병 모집에 힘썼다.

21)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일행을 따라 보내던 임시 벼슬로 기록관(記錄官)이다. 정사(正使), 부사(副使)와 함께 '삼사(三使)'라 불렀다.

22) 속국이나 외국의 사신들이 찾아와 군주(君主)를 알현(謁見)하는 것.

이다.' 고 하였다.

이 글에 '각하(閣下)', '방물(方物)', '입조(入朝)' 등의 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황윤길 등이 현소에게 이 글을 주고 여섯 글자를 고쳐달라고 청하니 현소가 즉시 계를 올렸다. 그리하여 '각하', '방물'의 넉자는 고쳤지만 '입조' 두 글자는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 조(朝)자는 다만 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대명(大明)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 하였다. 황윤길과 허성은 그 말을 믿었지만 김성일만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현소와 더불어 왕복 논란(論難)을 하였으나 끝내 현소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듬해 신묘년(辛卯年 : 선조 24년, 1591), 황윤길 등이 왜(倭)의 사신(使臣) 현소, 평의지, 평조신(平調信) 등과 함께 돌아왔다. 그런데 현소와 의지는 조령(鳥嶺)을 거치고, 조신은 죽령(竹嶺)을 거쳐서 오는 등 두 길로 나누어서 서울로 들어왔다. 황윤길과 허성 및 상하 대소 일행들은 모두 왜적이 대거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지만 김성일만은 '왜적이 절대 쳐들어올 까닭이 없다. 평추(平酋 : 풍신수길을 지칭하는 말)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 하였다. 묘당(廟堂 : 朝廷)에서는 김성일이 통신사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여겨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주고, 나라를 방비(防備)하는 모든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에 황윤길이 (일본에) 데리고 갔던 군관(軍官) 황진(黃進 : ?-1593)이 분노(憤怒)를 참지 못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팔둑을 걷어부치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황윤길과 허성의 어리석고 용렬(庸劣)함으로도 적(賊)의 형편을 잘 알았거늘 하물며 김성일과 같은 교활(狡猾)함으로 어찌 모를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평추의) 서계(書啓) 가운데 상국(上國)을 범하는 버릇없는 말(不道之語)이 많이 있는데 한 마디도 (사과하고 고친다는 말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일이죄를 얻을까 두려워 하여 교묘하게 이와 같은 말을 하니 차라리 몰랐다는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 심보가 어처구니 없다.' 하고, 소(疏)를 올려 성일을 참수(斬首)하라고 청하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여 그만 두었다.

대개 김성일이 일본에 머무를 때 황윤길, 허성 등과 함께 '국분사피욕(國分寺被

辱)'[23], '답객난론(答客難論)'[24], '관광론(觀光論)'[25], '배정하당상(拜庭下堂上)'[26], '부관청악(副官請樂)'[27], '입도출도(入都出都)'[28], '왜인예단지(倭人禮單志)'[29] 등 일곱 가지의 글을 논하고 왕복 논란하였다. 그가 현소에게 담한 앞 뒤의 글들은 '각하', '방물', '입조' 여섯 글자에 대해서 힘써 논쟁을 하였고 선위사(宣慰使)와 대마도주(對馬島主)에 대한 두 통의 답서에서는 대명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극언(極言)하였는데 말이 몹시 간절하였다. 김성일이 유능(有能)한 사신(使臣)이라는 명성(名聲)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위사와 대마도주에 대한 두 통의 답서는 진짜 답서가 아니라 바로 본따서 지은 것(擬作)이었다. 눈이 있는 사람치고 김성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거늘 당시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들은 부질없이 편당(偏黨)만을 알 뿐 선위(宣慰), 대마(對馬) 두 글이 본떠 지은 것임을 따지지 않고 큰 소리로 과장(誇張)하여 도리어 유능한 사신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식자(識者)들은 모두 '문인(文人)과 여러 명사(名士)들이 도리어 일개 무부(武夫)인 황진만도 못하다.' 고 여겨 서로 함께 침을 ㅂ으면서 꾸짖었다.

4월, 중봉(重峯 : 趙憲의 號, 1544-1592)이 옥천(沃川)으로부터 아들 완도(完堵)를 보내 평안감사 권징(權徵 : 1538-1598)과 연안부사(延安府使) 신각(申恪 : ?-1592)에게 (城에) 해자(垓字)를 파고 성곽(城郭)을 보완하여 닥쳐올 전쟁에 미리 대비하라는 편지를 전했다. 권공은 이 편지를 보고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황해도, 평안도에 어찌 적이 쳐들어 올 까닭이 있겠는가? 그대의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요망(妖妄)하다고 지목한다. 돌아가서 그대 아버지께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말도록 말씀드려라.' 고 하였다. 그러나 신공은 중봉의 말을 수긍(首肯)하여 성지

---

23) 일본 국분사에서 욕을 당하였는 내용의 글인 듯하다.
24) 손님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는 글에 대한 답한 내용인 듯하다.
25) 일본의 문물 제도를 둘러 보고 논한 글인 듯하다.
26) 뜰(庭) 아래와 당(堂) 위에서 절을 하는 경우에 대한 글인 듯하다.
27) 부관(副官)이 음악(音樂)을 청(請)하였다는 글인 듯하다.
28) 도성(都城)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의례(儀禮)에 관한 내용인 듯하다.
29) 왜인들의 예법을 실어 놓은 책에 관한 내용인 듯하다.

(城池)와 병기(兵器)를 크게 수리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왜적이 쳐들어올 것인가를 의심하여 통신사가 돌아오기 전에 각도에 여러 조방장들을 나누어 파견 미리 방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통신사가 돌아오고 나서는 김성일의 말만 믿고 여러 방비하는 일들을 모조리 그만 두어버렸다. 하루는 임금(선조)이 대신들 및 비변사의 여러 재신들과 함께 명 나라에 변고(變故)를 알려야 할 것인가의 여부(與否)를 논의하였다. 서애의 대답은 전과 같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임금은 마침내 알리자고 결정을 하고 황정욱(黃廷彧 : 1532-1607)으로 하여금 주본(奏本)[30]의 초(草)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거기에는 왜적의 실정(實情)이 자세히 실려 있었다. 서애는 이것을 꺼려하여 통신사를 보냈다는 항목을 삭제(削除)하고 모가 나지 않게 하라고 하절사(賀節使) 김응남(金應南 : 1546-1598)에게 부쳐서 (명 나라) 예부(禮部)에 보고하고자 힘껏 청하였다. 김응남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큰 일을 순부(順付)[31]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으며, 또한 통신사를 보냈던 항목을 주본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 하였다. 서애가 대답하기를 '일본과 통신한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로서 비록 명 나라에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義)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끝내는 별도로 주문(奏聞)을 갖추어 보고해야 될 것이다.' 라 하였다. 이어서 한응인(韓應寅 : 1554-1614)을 사신으로 보내 별도로 명 나라에 알리도록 하였다.

뒷 날 명 나라 남변(南邊)의 장리(將吏)가 우리 나라와 왜(倭)가 통하였다고 보고하자 명 나라 조정의 대신들이 우리 나라에 죄를 물으려 하였다. 이것은 조중봉이 일찍이 예견(豫見)하였던 것과 일일이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먼저 명 나라에 알렸기 때문에 명 나라 조정에서 크게 칭찬하여 장려(奬勵)하고 은(銀)과 비단을 내려 주문(奏聞)을 주장했던 여러 신하와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

30) 중국 명(明) 나라에 올리는 문서(文書)를 가리키는데, 보통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함.

31) 특사(特使)를 보내 병부(兵部)에 보고치 않고 정례적인 하절사(賀節使)를 통해 예부(禮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함.

하였다. 이 때 해원부원군 윤두수는 홍원(洪原)에 귀양가 있었는데 임금은 그가 명나라에 알릴 것을 청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날로 풀어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다시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일단 가까운 해주(海州)로 옮기돌고 하였다. 이에 서애와 해원(海原 : 윤두수를 가리킴) 등 제공(諸公)이 모두 은과 비단을 얻었다. 대개 명 나라에 알리자는 한 가지의 일은 전적으로 조중봉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서애와 해원은 한 마디 사양(辭讓)하는 말도 없이 도리어 자득(自得)한 것처럼 하엿다. 대신들의 염치(廉恥) 없음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음 해 임진년(壬辰年 : 선조 25년, 1592) 여름 4월, 풍신수길이 대거 쳐들어왔다. 13일 바다를 건너 부산(釜山)을 함락시키고, 다음 날 아침에 진군(進軍)하여 동래(東萊)를 함락시켰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 1551-1592)이 죽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쳐다보면서 허둥지둥할 뿐 얼굴에 인색(人色)이 없음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조중봉의 예언은 거의 탄복(歎服)할 만하였다. 그러나 서애는 그에 대하여 한 마디도 언급함이 없었고, 오직 '숙헌(叔獻 : 이이의 자)은 참 성인(聖人)이다. 우리들은 당연히 만고(萬古)의 죄인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평시(平時)에 숙헌이 10만 양병(養兵)을 청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사정(事情)에 어두운 것이라고 여겨 막았으나 오늘에 이르러 크게 후회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힘을 어찌할 수 없구나.' 고 말할 뿐이었다. 임금은 윤두수를 생각하여 특별히 불러 들이고 날마다 두 세 번 씩 그가 도착하였는가를 물었다. 이 때 신립(申砬)과 이일(李鎰 : 1538-1601)이 부득이 시정(市井)의 활을 잡을 줄도 모르는 젊은이들 수천명을 모집하여 남쪽으로 달려 내려갔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김성일의 잘못 때문에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성일로 하여금 즉시 영남으로 내려가 왜적을 막도록 하라!' 고 하였다. 성일이 황공하여 그 날로 길을 떠났다. 임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뒤 며칠만에 금부도사(禁府都事) 이통(李通 : 1556-1620)으로 하여금 성일을 잡아다가 임금 앞에

끓리도록 하였다. 이 때 성일은 호서(湖西)로부터 전주(全州), 남원(南原), 운봉(雲峰)을 거쳐 빙돌아 경상우도(慶尙右道)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통은 서울로부터 곧바로 영남 지방으로 내려갔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왜적은 싸움에 이긴 기세를 몰아 계속 휘몰아붙쳤다. 모든 고을이 바람을 맞은 듯 무너지고 한 곳에서도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왜적들이 상주(尙州)까지 이르렀는데 이일의 군대는 흩어져 달아났다. 왜적들은 아군(我軍)이 조령(鳥嶺)을 가로 막을까 두려워 했다.

현소가 편지를 보내 우리 편을 유혹해 말하기를 '이덕형(李德馨 : 1561-1613)을 보내면 서로 화친(和親)하고 물러갈 것을 약속한다.' 고 하였다. 이에 조정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덕형을 보냈으나 영남 계계에 이르기도 전에 신립이 싸움에 져 죽었다. 덕형은 마침내 허둥지둥 돌아왔다. 이 때 유언비어(流言蜚語)가 들끓었는데 어떤 사람은 '임금이 탄 세 대의 수레가 영동(嶺東)으로부터 이미 도성(都城)에 들어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정여립(鄭汝立 : ?-1589)이 임금이 되고 길삼봉(吉三峯)이 정승이 되었다.' 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이덕형이 임금이 되었다.' 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삶은 '정여립과 길삼봉이 일본에 들어가서 왜적을 청하여 왔다.' 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정과 민간의 인심이 몹시 어수선 하였다. 임금은 이것이 역적(逆賊)의 소행이라고 의심 서쪽으로 피난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대궐 안으로부터 백금(白金)과 미투리(繩鞋) 등 여러 물건들을 사들이자 서울 장안이 더욱 야단법석이었으며,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 도성이 거의 비게 되었다. 이에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 유홍(兪泓 : 1524-1594)은 인군(人君)께서는 위급함과 곤란함을 당했으면 이를 진정시키는데 힘 써야 할 것이요, 신하와 백성보다 앞서서 흔들리시면 안된다는 글을 올려 극언(極言)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마땅히 경(卿)의 말을 들을 것이로다.' 하였다.

얼마 않되어 충주(忠州)에서 패전(敗戰)했다는 소식이 이르렀다. 29일, 윤두수가 해주로부터 한양(漢陽)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임금은 서울을 버리고 떠났다. 윤두

수는 어가(御駕 :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뒤따라 동파관(東坡館)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윤두수를 불러들여 '경의 형제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생사(生死)를 함께 하라!' 말하고 패낭(佩囊)을 풀어 윤두수에게 내넣다.(주었다.)

이보다 수년 전, 장안에 '경기감사(京畿監司)가 직령(直領)으로 우장(雨裝)을 삼을 것이니 큰 달(음력으로 30일이 드는 달)의 그믐 날일 것이다.' 라는 노래가 떠돌았다. 땔감 나무를 하는 아이나 짐승을 기르는 아이들도 서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그 듯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피난 길을 떠나던 날 비가 내려 경기감사의 직령으로 임금의 몸을 덮었으며, 30일이 그믐으로 곧 큰 달의 마지막 날이었다.

5월 초 하루, 임금은 송경(松京 : 지금의 開城)에 머물면서 즉시 정철(鄭澈 : 1536-1593)을 (귀양에서) 풀어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성지(聖旨)를 내려 말하기를 '경이 본디 충효대절(忠孝大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평양(平壤)으로 달려 와 유홍, 이항복(李恒福 : 1556-1618) 등과 함께 왕자(王子)를 보호하라.' 고 하였다. 이 날 임금께서는 성 안팎에 살고 있는 노이들을 불러 들이라고 명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어루만지면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인심을 잃었기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너희들은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해보라!' 하였다. 이에 여러 노인들이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이 시대(時代)의 운수(運數)로 생긴 탓입니다. 성상(聖上)께서 어찌 인심을 잃을 일을 하셨겠습니까? 다만 정철은 맑은 명망(名望)과 곧은 절개(節槪)를 지닌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니 청컨대 속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하였다.

초 이튿날, 임금은 송경에 머물렀다. 이 날 나졸(邏卒 : 巡邏를 도는 兵士를 가리킴)이 곧바로 임금 앞에 나와 크게 흐느끼면서 와뢰기를 '이덕형이 임금이 되었다.' 고 하였다. 임금께서 얼굴빛을 달리하고 한참 지나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덕형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라 하였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덕형이 도착했다. 관리가 '이덕형이 문밖에 와 있습니다.' 고 급히 고하자 임금은 크게 놀라 여러 대신 및

이덕형과 함께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초 사흗날, 왜적은 동대문(東大門)으로부터 도성(都城)에 들어왔다. 이 날 임금은 평양으로 진주(進駐)하였다. 사관(史官) 김선여(金善餘)는 사초(史草)를 불사른 뒤 밤을 타 달아났다. 그 나머지 관료(官僚)들도 역시 계속하여 도주했으니 이로써 그 때의 상황(狀況)을 알만할 것이다.

이 때 왜적들은 병졸을 나누어 진을 쳤다. 단후수(但後守), 포후수(浦後守), 하원대마수(何遠對馬守)는 소공주동(小公主洞)에 진을 쳤고, 석전치부소포삼성(石田治部少捕三成)은 명례방동(明禮坊洞)에 진을 쳤으며, 대곡형부소보길강(大谷刑部少浦吉絳)은 묵사동(墨寺洞)에 진을 쳤다. 증전우위문위길성(增田右衛門尉吉盛)은 주자동(鑄字洞)에 진을 쳤고, 전야단마수(前野但馬守)는 호현방동(好賢坊洞)에 진을 쳤으며, 비전국우시재상(備前國羽柴宰相)과 풍전가수리(風前家守利)는 정사룡(鄭士龍)의 집에 진을 쳤다. 부천기이수(富川紀伊守), 대우희다좌경량(大宇喜多左京亮), 화방조병위(花房助兵衛), 강원병고수(江原兵庫守), 명석소부두(明石掃部頭)는 정릉동(貞陵洞)에 진을 쳤으며, 장반기이수(長盤紀伊守)는 서학동(西學洞)에 진을 쳤다. 명석우근조(明石右近助)는 수각동(水閣洞)에 진을 쳤으며, 화방지마조(花坊志摩助)는 계림군(桂林君)의 집에 진을 쳤고, 부가천현번윤(富家川玄蕃允)은 고은장동(古隱墻洞)에 진을 쳤다. 흑전감해유(黑田勘解由)는 부산(釜山)에, 흑전갑비수(黑田甲斐守)와 생구아락두(生駒雅樂頭)는 경상도에, 모리요원(毛利耀元)은 전라도에, 목촌상육수(木村常陸守)와 봉수하아파수(蜂須賀阿波守)는 충청도에, 부민전소초(富民田少梢)와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은 황해도에, 삼석정수(森昔政守)는 강원도에, 가등주계두(加藤主計頭)는 함경도에, 소서섭진수평행장(小西攝津守平行長)과 평의지(平義智)와 평조신(平調信)과 현소 등은 평안도에 있었다.

이 때 전라감사(全羅監司) 이광(李洸 : 1541-1607)[32]은 정병(精兵) 7만명을 거느리고 금강(錦江)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잘못 전해진 말을 듣고 마침내 각 진에 명령을 전하여 말하기를 '이미 미칠 수 없다. 진(陣)을 파하라.' 하였

다. 이에 여러 군대가 일시에 흩어져서 돌아갔다. 그들은 서로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새 임금이 즉위(卽位)해서 감사 역시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고 하였다. 그 때 광주목사(光州牧使) 권율(權慄 : 1537-1599)은 판치(板峙)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러 군대들이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에 명령하기를 '각 진이 비록 파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대는 동요(動搖)해서는 안된다. 만일 한 명이라도 달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영장(領將) 이하를 모두 참하겠노라.' 고 하였다.

그리고 전에 만호였던 참모관 박대수(朴大壽)와 함께 말을 타고 금강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이광을 꾸짖었다. 태인(泰仁)에 사는 무인(武人) 백광언(白光彦)[33]은 이 때 상중(喪中 : 草土)이었는데 이런 변고(變故)를 듣고 긴 칼을 차고 달려와 이광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파월(播越)[34]을 하시면 신하된 사람은 앞장서서 어려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옳거늘 공은 길거리에 떠도는 말을 듣고서 대세(大勢)가 이미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여 각 진으로 하여금 병(兵)을 파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에서 입니까? 만일 그것이 참말이라 하더라도 공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칼을 뽑아들자 이광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다. 곧 (그는) 여러 군대에 돌아와 다시 집결하도록 명했지만 군대가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권율과 백광언 등은 함께 전주(全州)로 내려와 다시 (군대를) 일으킬 계획을 짰다.

이 때 장성(長城)에서 살고 있던 전왕자사부(前王子師傅) 정운용(鄭雲龍)[35], 광

---

32) 그의 자는 사무(士武)이고, 호는 우계(雨溪)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전라도관찰사로 충청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과 경상도관찰사 김수(金睟) 등과 함께 용인(龍仁)에서 왜적과 싸웠으나 참패하였다. 이 해 용인 패전의 책임을 물어 백의종군(白衣從軍)케 된 뒤 의금부에 갇혔다가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1594년에 풀려났다.

33) 그의 호는 풍암(楓巖)이고, 본관은 해미(海美)이다. 1589년 북청판관(北靑判官)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공주(公州)에서 군대를 해산하려는 이광(李洸)을 꾸짖어 그와 함께 용인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다.

34) 궁궐을 버리고 피난하면서 방랑하는 모습.

주에 살고 있던 진사(進士) 박종정(朴宗挺)[36]과 생원(生員) 유사경(柳思敬) 등이 이광이 싸움을 피하고 신하의 임무를 배반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는 소(疏)를 지어 무인(武人) 박희수(朴希壽)[37]로 하여금 행조(行朝)[38]에 전하도록 하였다. 이 때 윤두수는 좌의정(左義政)이었는데 그는 바로 박종정의 처종형(妻從兄)이었다. 두수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본도(本道) 감사가 만일 행조로부터 임명을 받고 부임해 온다면 열흘 달포 사이에는 (본도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의 수령 가운데 오직 광주목사 권율만이 담력(膽力)과 지략(智略)이 있으며, 이 밖에는 견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 때 인심이 궤란(潰亂)하여 안팎이 수선스럽고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모두 국사(國事)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였으며, 곳곳에서 지방의 도적떼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조중봉이 호우(湖右)에서 병사를 일으키고, 김건재(金健齋 : 千鎰, 1539-1593)가 호서(湖西)에서 병사를 일으켰으며, 이순신(李舜臣 : 1545-1598)과 정운(鄭運 : 1543-1592)[39]이 수군(水軍 : 舟師)으로 한산도(閑山島)에서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5월 21일, 중봉이 호남(湖南)과 영남(嶺南) 지방으로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義兵)을 모집하니 지원자가 구름처럼 모였다. 그런데 순찰사와 여러 고을의 수령은 그

---

35) 그의 자는 경우(慶遇)이고, 호는 하곡(霞谷)이며,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장성(長城) 출신으로 기대승(奇大升)의 문인이다. 정여립(鄭汝立)에 절교문(絶交文)을 보냈는데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정여립이 죽고 그 절교문을 임금께서 읽어 본 뒤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었다. 고창현감(高敞縣監)을 역임하였다.

36) 그의 자는 응선(應善)이고, 호는 난계(蘭溪)이다. 임진왜란 때 향병(鄕兵)을 규합한 공으로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에 기용되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을 피하다가 영암에서 왜적에 의해 피살되었다.

37) 그의 자는 덕로(德老)이고 호는 회헌(悔軒)이며,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임진왜란 때 공경명(高敬命) 등과 함께 의병에 참여 큰 공을 세웠다.

38) 난리 가운데 피난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임시 조정(朝廷)을 말함.

39) 그의 자는 창진(昌辰)이고, 본관은 하동이며 영암(靈巖) 출신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만호(萬戶)로서 이순신(李舜臣)의 선봉이 되어 큰 전과를 올렸으며, 부산포(釜山浦) 앞 바다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것이 관군(官軍)에 불리하다고 하여 여러 방법으로 저지하였다. 이에 중봉이 공주(公州)로 순찰사를 찾아가서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힘써 말하자 순찰사는 마지 못해 힘써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며칠 사이에 지원자가 천명에 가까워졌다. 안종도(安宗道)의 아들 세헌(世獻)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본래 고약하여 행실이 좋지 않았다. 난리가 나자 처음에는 우리 나라 사람을 많이 죽이고, 머리를 깎아 왜놈의 흉내를 내어 공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중봉이 그 죄를 소리 높여 주창하자 세헌은 중봉을 원망하고 이내 순찰사에게 말하기를 '공은 한 도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조금의 공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아무개는 방축(放逐)[40]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분기(奮起)하여 공이 싸움을 회피한 죄를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공께서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라 하였다. 순찰사는 그의 말을 그럴 듯하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여러 고을에 글을 보내 의병에 지원한 사람의 부모와 처자식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또한 청양현감(靑陽縣監) 임순(任純)을 시켜 병졸 100여 사람을 데리고 의병들을 겁주게 하였으며. 공주 감옥(監獄)에다 (의병들을) 가두라고 하였으나 임순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중봉이 순찰사에게 글을 보내 크게 꾸짖었다. 그리고 중봉은 호우(湖右)로 가서 관군에 적(籍)을 두지 않은 사람 1,600여명을 모집했다.

8월 초 하루, 중봉은 곧바로 청주(淸州)를 공격 서문(西門) 밖 가까이까지 진격(進擊)했다. 중봉은 승장(僧將) 영규(靈圭 : ?-1592)[41]와 합세하여 종일토록 힘껏 싸워 왜적의 형편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아군이 장차 성을 오르려고 하는데 갑짜기 서북쪽으로부터 소나기가 몰려왔다. 천지가 어두컴컴해지고 병사들은 추위에 떨었다. 이에 중봉이 탄식하면서 '옛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더니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징을 울려 조금 후퇴토록 하였다. 그 날 밤, 왜적들은 모두

---

40) 벼슬을 삭탈(削奪) 당하고 시골로 내쫓기는 형벌.

41) 그의 호는 기허(騎虛)이고, 속성은 박(朴)이며, 보관은 밀양(密陽)이다. 그는 휴정(休靜 대사의 고제(高弟)로 무예에 뛰어났다. 임진왜란 때 승병(僧兵) 5백여명을 규합하여 의병장 조헌(趙憲)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다.

숨어서 도망갔다. 한 여인이 적(賊) 가운데로부터 와서 고하기를 '왜적의 무리들이 이쪽 군대의 상태를 바라보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면서 이 의병(義兵)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직전에도 조금도 꺾이는 기세가 없으니 함께 싸워서는 않되겠다고 하면서 이에 화톳불을 피우고 깃발을 세워 병졸이 있는 것처럼 가장 시체를 모두 태워 버린 뒤 이미 진영을 버리고 밤새 도망갔습니다.' 고 하였다. 이에 중봉은 방어사 이옥(李沃)에게 곡식(穀食) 수만 섬을 나누어 어려운 백성을 구원하고, 소와 말 수백 마리를 각 마을에 나눠주어 농사를 짓는데 대비하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이옥은 자기가 전공(戰功)이 없음을 부끄러워 한 나머지 이에 말하기를 '이미 순찰사와 의논하였는데 머무를 수 없다고 결정이 났다. 따라서 그 곡식을 그대로 두었다가 왜적이 다시 점거했을 때 밑천을 삼도록 할 수는 없다.' 하고 그 곡식을 모두 불사르고 가 버렸다. 중봉이 돌아와 보니 군중(軍中)에는 겨우 거친 쌀 몇 섬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어찌할 계책이 없었다.

마침내 여러 군사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겨울을 날 옷을 준비해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모여 임금께 충성을 다하자고 결의하였다. 중봉이 온양(溫陽)에 도착하니 순찰사는 중봉이 행조에 들어가 자기가 의병을 방해했던 사실을 모두 폭로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중봉의 막하 병사인 장덕익(張德益) 등으로 하여금 중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공과 사이가 좋았었으나 지금은 소인들이 나와 공 사이에 틈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도 역시 깨닫고 이제는 뉘우치고 있다. 또한 서원(西原 : 지금의 淸州) 싸움에서 이미 공과 함께 생사(生死)를 할 것을 맹세하노니 원컨대 고인(故人 : 옛 친구, 중봉)은 이 조그만 혐의를 풀고 큰 공을 이룰 것을 기약하자. 이제 듣자하니 금산(錦山)의 왜적이 뽐내어 싸움에서 패한 사람들을 불러다 죄를 들추어 꾸짖는 뒤에 다시 더욱 창궐(猖獗)하여 장차 침략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충청과 전라도의 형세가 이러하면 국가는 다시 중흥(中興)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이며, 공을 다르는 사졸들도 반드시 속으로 살펴 보고 흔들릴 것이니 어찌 안심하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함께 금산의 왜적(倭賊)을 치는 것만 못할 것이니 뒤에 힘을 합쳐 상감(上監)의 환난(患難)을 구하는 것 역시 늦지 않을 것이다.'

장수와 병졸들도 번갈아 아뢰고 간(諫)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두 분 장군께서 서로 화합하여야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순찰사와 서로 틈이 벌어져 있으면 일이 장차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구역이 모두 적에게 점거되고 단지 충청도와 전라도만이 그래도 완전하니 먼저 금산(錦山)의 왜적을 섬멸(殲滅)한 뒤에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올바른 계책일 것입니다.' 라 하였다. 중봉도 이러한 계책에 수긍하여 이에 공주로 돌아왔다. 그러나 또 순찰사와 의논이 합치하지 않았다. 대개 순찰사는 단지 중봉의 북행(北行)을 막고자 한 것 뿐이었지 사실 중봉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던 것이다. 장수와 병졸들 가운데 집에 돌아가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은 모두 순찰사에게 붙잡혀 갇혔다. 그리하여 겨우 700의사(義士)만이 중봉을 따라 사생(死生)을 함께 하기를 바랬을 뿐이다. 중봉은 처음에 왜적을 격파하고 즉시 행조에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였다. 안세헌은 또 순찰사에게 '이제 듣자하니 조아무개가 올린 소 가운데 훌륭하신 공을 크게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이 소가 조정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중죄(重罪)를 얻을 것입니다.' 라 귀띔을 해주었다. 순찰사가 이에 자기의 심복 한종(韓從)을 보내 수군(水軍)을 검사하고 독려한다는 핑계로 선비들이 배에 타는 것을 금하여 막았다. 소를 가지고 가던 유생(儒生) 전승업(全承業)은 그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는 소본(疏本)에 실지 순찰사와 관계되는 말이 없음을 보여주자 곧 배에 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선비 김지남(金止男) 등이 소장(疏章)은 순찰사가 병사를 끼고 자기만을 지키면서 의병을 방해했던 죄를 정직하게 논척(論斥)했기 때문에 결국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역시 여러 방면으로 방해하고 막음이 이와 같았으니 군중에는 분통이 터져 한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후기(後記)』

나는 일찍이 생각해 보았다. 정해(丁亥) 신묘(辛卯) 수년 동안 선생께서 대궐 앞에 엎드려 아뢴 글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왜와 통신하지 말고 왜의 사신을 참하여 명 나라에 보내자는 것, 유구(琉球) 및 남양(南洋)의 여러 나라에 격문을 보내자는 것, 원씨(源氏)의 구신민(舊臣民)에게 유시(諭示)하여 이해(利害)로 깨우치고 충의로 격려(激勵)하면 왜노(倭奴)가 반드시 안으로부터 서로 갈라지고 여러 나라가 반드시 함께 분질(憤疾)할 것이라는 것, 명 나라 군사가 수군을 갖추어 동남으로 늘어서 연결하여 여러 방면에서 휘협하자는 것 등이었다. 그렇게 하면 풍신수길은 나라를 세운지 얼마 안되어 좌우로 앞 일을 헤어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감히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 바 상병(上兵)은 계략을 자랑하여 싸우지 않고도 남의 군대를 굴복시킨다는 것이다. 가령 침략해 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꺼번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을 터이니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큰 재앙(滔天之禍)은 결코 이렇게 극렬한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아! 당시 조정에 가득찬 경상(卿相)이 빈천한 선비만도 못하여 한 가지 생각이라도 여기에 이른 것이 없었으며, 일이 나기에 앞서 말하되 꼭 들어맞는 분은 오직 선생 한 사람 뿐이었다. 변고가 일어난 뒤 조정에서는 서로 바라보며 허둥지둥대고 놀라서 얼굴에는 사람의 기색이 없었으며, 8도의 곤수(閫帥)[42]들과 각 진의 여러 장수들은 산과 바다로 도망가 부끄러운 얼굴로 욕되게 살기를 탐냈다. 오직 권율, 이정암(李廷 : 1541-1600), 이순신, 김시민(金時敏 : 1544-1592) 등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성을 보전하거나 혹은 몽충(蒙衝)[43]으로써 왜적을 물리쳤다. 모두 주인(我軍)으로 객(客)을 대하되 제 몸을 죽을 곳에 내버려 두고 함 때 요행을 만나 겨우

---

42)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대한 옛 칭호.

43) 좁고 긴 병선(兵船)을 가리킨다. 쇠가죽으로 선체(船體)를 싸서 화살과 돌을 방어하며, 적의 배와 부딪쳐 파괴하는데 이용되었다.

성공했던 것이다. 무릇 외로운 군대로서 도움도 없이 살 곳을 남겨두고(予之生地)[44] 피곤한 병사를 이끌고 호랑이굴(왜적의 소굴)을 공략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먼지를 한 번에 쓸어 없애는 것 또한 오직 중봉 선생 한 분 뿐일 것이다.

적을 헤아려 승리로 이끌어 내는 것은 옛 사람도 어렵게 여겼는데 선생은 그것을 해내셨다. 한 때의 문무명인(文武名人)으로 평소 재주와 명망을 등에 엎고 선생을 비웃고 모욕하던 사람들은 그 뒤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즉 지난 날 선생을 일러 인재(人才)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토정(土亭 : 李之菡, 1517-1578)은 일찍이 중봉 선생을 적절하게 쓰일 재목이라 하였다. 토정의 앞선 생각은 상정(常情)을 뛰어넘어선 것이라 할 만하니 참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분이라 하겠다.

또 생각해 보건대 중봉 선생이 왜의 사신을 목베자고 청했을 때 조정에서 과감히 그 방책을 받아들인 나머지 마침내 풍신수길이 한꺼번에 쳐들어 와서 임진년(壬辰年)의 변란(變亂)을 일으켰다면 무릇 평소에 선생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모두 팔뚝을 걷어부치고 큰 소리로 '나라가 미친 놈에 의해 잘못되어 왜적을 격노(激怒) 쳐들어 오게 하였다.' 고 하면서 반드시 먼저 선생을 잡아다 죽이고 머리를 상자에 넣어 보내 왜적을 달래자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선생의 높은 식견(識見)과 장렬(壯烈)함이 어떻게 드러나겠으며, 국가의 화곤지전(華袞之典)[45]이 장차 어떻게 베풀어지겠으며, 뒷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생을 이와 같이 기꺼이 흠모(欽慕)하겠는가?

생각건대 하늘이 반드시 선생으로 하여금 살아서는 시대(時代)에 용납(容納)되지 못하게 하고 죽어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도록 하여 천하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이러한 인물이 있어서 우리 동방(東方)을 붙들어 세워서 만고 강상(萬古綱常)이 버티어 끝이 없도록 함을 알게 하려는 것인가 보다. 슬프다! 옛부터 성현은 고요(皐陶 : 중국 舜 임금의 신하), 이윤(伊尹 : 중국 殷 나라의 名宰相), 여상(呂

---

44) 모두 의롭게 싸웠기 때문에 도망할 수 있었어도 도망하지 않았다는 의미.
45)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융숭(隆崇)한 특전(特典)

商 : 중국 周 나라 名宰相) 이후로 상하 수 천년 동안 한 사람도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선생의 일을 오늘의 한(恨)이라 하기에 뷰족하기도 하겠다. 그러나 저 옛 날의 이른 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음(不容於世)' 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세상에 드러나서 비중있게 대우받다가 끝에 가서 여러 소인들의 모함을 받은 것이었다. 중봉 선생의 경우는 벼슬길에 오른 이래 26년 동안 하루도 조정(朝廷)에서 편안한 적이 없었으며, 그럴듯한 말로 죄를 꾸며 선생을 모함(謀陷)하는 것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혹은 전야(田野)로 쫓아내거나 혹은 영외(嶺外)로 귀양을 보내기도 하여 반드시 선생을 죽이고야 말려고 하였다.

선생께서 사절(死節)한 뒤에도 지껄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아서 선생이 사절한 것은 명예(名譽)를 낚는 것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뒤에는 그 말을 바꾸어 '조아무개는 일개 충신에 불과하다. 그의 학문은 공소(空疎)하여 취할 만한 것이 없다.' 고 하기도 하였다. 슬프다! 우주가 생긴 이래로 명예를 낚으려고 죽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무릇 이름을 낚는다는 것은 소리(小利)를 버리는 것으로써 대리(大利)를 취하는 것이다. 이제 선생의 죽음에 부자의 고혈(膏血)이 초야를 물들였으며, 세 고아(孤兒)가 외롭게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서 떠돌아 다녔으니 인간의 화(禍)의 가혹(苛酷)함이 처참하다고 하겠다. 선생의 죽음에 어더한 이로움이 있었기에 이름을 낚았다고 말하는가. 성인은 죽어서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설령 선생께서 이름을 위하여 죽었다 하더라도 삼대(三代 : 夏 殷 周) 이후로는 오히려 이름을 좋아하지 않을까 것정스러운 것이다. 하물며 선생은 삼대 이상의 인물로서 물고기와 곰발바닥의 취하고 버리는 판단으로 다만 '내 마음의 편안함' 을 구함으로써 '나의 하늘' 을 온전히 하였을 뿐이니 처음부터 이름을 취하지 않은 것이리라. 또 세상에서 이른 바 학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행동(一言一行)을 예법에 알맞게 하며, 충효대절(忠孝大節)이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학행지사(學行之士)가 될 수 없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에 종사하여 단지 입과 귀만을 도우며, 소리 높여 성명(性命)을 말하고 말은 잘하나 행

동이 어긋나는 것을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일소(一笑)에 부치기도 부족하니 참으로 이른 바 그네들의 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려고 하다가는 자기의 역량(力量)도 모른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다. 아 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도(道)는 속인(俗人)과 더불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다.

내가 일찍이 선생께서 정해년(丁亥年 : 선조 20년, 1587)에 올리신 소문(疏文)을 보니 그 가운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 우주가 생긴 이래 천신(賤臣 : 중봉 자신)보다도 더 군수(群少)들에게 미움을 심하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참으로 슬펐고 그 정은 참으로 애통했다. 나는 항상 소를 읽다가 이 말에 이르게 되면 책을 덮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뒷 사람들도 이에 느끼는 바 있어 나처럼 비통(悲痛)해 할 것인지. 이제 편말(篇末)에 분필(憤筆)로 쓰노라.

《쇄미록(鎖尾錄)》에 나타난 임진왜란 때의 장수 지역

1.

관청에 소속된 사람들도 역시 멀리 피할 계획으로 우선 관계없는 물건을 관청 안 땅에 묻고, 그 뒤 의복은 현사(縣司)의 판(板) 밑에 묻었다. 그런데 한달이 되어 관청 안에 묻었던 물건을 파내보니 절반은 모두 젖어서 혹은 썩고 망가져 쓸 수가 없이 되었다. 또 현사의 물건을 보았더니 그것은 흙이 말라 있는 것이 옛날과 같았다. 관청 속은 땅이 낮아 습기(濕氣)가 있기 때문이다.(쇄미록 제1, 임진남행일기)

2.

이 달 16일, 주형(主兄 : 長水縣監 李贇)이 의병을 거느리고 진안(鎭安)에 이르렀는데 7-8명이 도망해 돌아왔다. 이에 그 부모와 처자와 이웃 일가를 가두었더니 도로 나타난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비단 이 고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의 군사도 도망해 흩어진 사람이 몹시 많았다. 남원 군사(南原軍士)는 삼례(參禮)에 진(陣)을 쳤는데 일시에 흩어져 갔고, 순창 군사(淳昌軍士)들도 도중에서 배반하고 한 진을 이루니 딴 고을의 도망하던 군사들도 모두 그 진으로 몰려 들어와서 군기(軍器)와 군량(軍糧)을 약탈하여 심지어 장성현감(長城縣監) 백수종(白守宗)도 역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겨우 피해서 면했다고 한다. 그러한 인심은 움직임을 다시 불의(不義)의 일을 일으키려하여 흉적(凶賊)의 괴수(怪獸) 숙질(叔姪)을 순창군수(淳昌郡守)가 유인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고 활쏘는 군사를 매복(埋伏)시켰다가 도중에서 쏘아 죽이자 나머지 무리는 모두 흩어졌다고 한다. 비록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니 원통한 일인다. 그 뒤 흩어졌던 군사들이 차츰 모여들어서 방어하면서 큰 길을 거쳐 바로 올라 가는데 이들은 모두 이 달 20일 본도를 떠났

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남행일록)

3.

6월 13일 전 수사(前水使) 이계정(李繼鄭)을 기복(起服)시켜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아 이 현(縣 : 長水縣)의 동쪽 육십현(六十峴 : 六十嶺)에 와서 지키게 하였다. 이 재는 곧 안음(安陰) 땅과 경계이기 때문에 적이 이 곳을 넘어 침범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전에 복병장(伏兵將) 전 첨사(前僉使) 남응길(南應吉)이 와서 막았는데 그가 지탱하지 못할까 두려워 계급이 높은 무관(武官)이 와서 돕게 하였다. 군관(軍官)이 16명, 이 현(장수)의 군사 및 임실(任實)과 진안(鎭安) 군사를 모두 합치면 1천여명이었는데 세 곳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여 적의 공격을 막게 하였다.(尾錄 제1, 壬辰南行錄)

4.

왜적이 먼저 용담(龍潭)에 글을 보냈는데 그 글 뜻은 알 수가 없다. 대개 관찰사(觀察使)와 안무사(按撫使)라 칭하였는데 이는 거주민(居住民)들을 어루만지고 무마한다는 이름이나 실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하려는 것이었다. 왜적은 이미 용담과 무주(茂朱)를 함락시켰다. 오늘이나 내일 이 현(장수현)에 도착할 것이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관청 물건은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초1일)

5.

현(長水)의 호장(戶長) 이옥성(李玉成)이 종 다섯명을 거느리고 아속(衙屬)을 호위할 일로 산 가운데로 찾아 왔으나 곧 명하여 고개를 넘는 곳에 복병으로 돌려 보냈다. 대체로 왜적의 척후병이 보이면 곧 달려와 보고하여 창황한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함이요, 만일 왜적이 현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 고개를 넘어 숲 속에 깊이 숨을 계

획에서다.

이 막(幕)은 사찰(寺刹)에서 10리쯤 되고 수목(樹木)이 하늘에 닿아 햇빛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삼복(三伏) 중이라도 모두 솜옷을 입고 그 더운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해가 저물면 모기가 모여들어서 이것을 견디기가어렵다. 천리 타향에서 난리를 만나 늙은 어머님과 처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몸은 또 편안함을 얻지 못하여 깊은 산 궁벽(窮僻)한 골짜기 인적이 이르지 않는곳으로 도망하여 들어왔으니 어려운 고초가 이를데 없다. 나무에 기대어 깊이 생각하니 우리 늙으신 어머니와 우리 처자, 우리 아우, 누이는 어느 곳 어느 산 어느 골짜기 속 어느 물가에서 무슨 밥을 먹고 무슨 죽을 마시고 있는가. 배를 주리지나 않는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지나 않은가.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셔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초1일)

6.

또 금산(錦山)으로부터 무주(茂州)와 용담(龍潭)을 거쳐 진안(鎭安)과 장수(長水)에 이르면 그 사이 산 길이 좁은 곳의 구부러진 요해처(要害處)가 몹시 많으니, 만일 수백명 사수(射手)를 험한 곳에 매복케 하고, 고개 숲에 거짓 군사를 많이 두면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반드시 경솔히 나오지는 못했을 것인데 여러 장수가 한 사람도 왜적을 막을 계책(計策)을 세우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 먼저 스스로 도망가 숨으니 통분(痛憤)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금산의 활쏘는 군인 두 명은 군사가 패퇴하여 흩어진 때부터 길 밑의 풀 사이에 엎드려 있다가 맨 뒤에 말을 타고 오는 왜적 두 명을 쏘아 죽이고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달려 와서 순찰사(巡察使)에게 바치자 순찰사가 후하게 상(賞)을 주었다고 한다. 저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왜적을 여러 왜적 속에서 쏘아 죽이고 말을 빼앗아 돌아왔으니 만일 수삼명의 용맹(勇猛)스런 장수가 각각 그마음을 가다듬고 각각 2-3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해처에 매복하여 소리를 같이 하며 활을 쏘았으면 왜적이 반

드시 달아나 곳마다 먼져 무너져서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하게 하니 그 경솔히 업신여기고 짓쳐 나오는 것은 진실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니 원통하고 원통하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초2일)

7.

관청에 비축(備蓄)한 군량 및 잡곡(雜穀)을 모두 군민(郡民)에게 나누어 주고, 민가(民家)의 곡식이 있는 곳은 또한 모두 불태웠다. 이는 왜적들이 양식을 보고 오래 머무를까 걱정에서였다. 동면(東面) 무녀(巫女)의 집에 곡식이 매우 많이 저장되어 있어 또한 불을 놓게 하니 창고와 집을 태우는 불이 2주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초4일)

8.

그저께 왜적은 이미 진안(鎭安)에 들어가서 근처 산림(山林)을 불태웠으며, 관청 사람들과 마을 사람 다수를 붙들어갔다고 한다. 어제 왜적의 말탄 놈 4명과 보병 10명이 현(장수)의 경계에 와 엿보는 것을 이 고을에서 망을 보던 사람이 '왜적이 왔다.' 고 소리치자 왜적은 포를 세 번 쏘고 도로 진안을 향해 갔다고 한다.

조방장 및 보성(寶城)과 남평(南平) 두 고을의 태수(太守)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 현으로 와서 자고 이른 아침에 주형(장수현감)과 함께 현의 경계 10여리 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한다. 그 뒤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다만 이 현의 모든 군사가 도망해서 주형은 군사가 없이 홀로 나갔다 하니 이것이 민망스럽고 걱정된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8일)

9.

초 9일, 골짜기 속 시냇가에서 잤다. 이른 아침에 종 주질동(注叱同)과 중 능인

(能引)을 왜적의 소식을 탐문하라고 봉수(燧燧)가 있는 곳으로 정해 보냈더니 저녁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왜적이 범해 오는 곳은 없으나 다만 어제 현 경계에 있는 덕안원(德安院) 원주(院主)의 집에 와서 (집을) 불태우고 도로 진안으로 갔다고 한다.

이 날 소나기가 여러번 와서 종일토록 갓모와 도롱이를 쓰고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녁을 보내노라니 그 괴로움은 형언하기가 어렵다. 전 날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두려웠던 사람이랴. 왜적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 포를 쏘면 숲 속에 숨어 엎드렸던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개나 말이 반드시 놀라 움직여 어린 아이가 울거나 개가 짓고 말이 울면 그 소리를 찾아 잡으로 온다고 하기 때문이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9일)

10.

들으니 왜적이 산을 뒤질 때에는 의례 2-3명을 시켜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기(旗)를 들고 소리를 내면 혹 10명이나 혹 15, 6명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지러이 숲을 쳐서 마치 사냥꾼이 꿩을 쫓듯이 하다가 만일 사람의 소리가 없으면 그대로 지나치고, 만일 소리가 있으면 끝내 찾아낸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12일)

11.

또 어제 무주 사람으로 왜적에 붙잡혀갔던 사람이 숨어서 이 현 장계남면(長溪南面)으로 왔는데 행동이 황당하므로 마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물었더니 말하기를 '19일 왜적이 나에게 장수(長水) 땅의 복병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숨어들어가서 동정(動靜)을 탐지해다가 보고하면 즉시 군사를 내어 바로 그 곳으로 향하겠다고 하였다.' 고 한다. 이에 보성, 남평, 구례 세 고을 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장계북면(長溪北面) 송고개에 매복하도록 즉시 떠나 보냈다. 이에 주형(장수현감)도 역시 본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즉시 천잠면(天蠶面) 웅연천(熊淵川)으로 달려가 복병을 했다고 한다.

또 진안의 왜적은 지난 17일 모두 금산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군사는 이를알지 못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을까 두려워 그들의 동정을 가서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그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성과 남평 및 진안 태수가 달려 들어가니 과연 한 사람도 없고 냇가에 천여 칸의 막사를 친 것이 창문이 모두 찢어져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7월 21일)

12.

이 현(장수)의 복병소(伏兵所)에서 사로잡은 아이를 문초하였는데 그 아이는 무주 사람으로 이 곳의 허실(虛實)을 엿보았다고 한다. 즉시 (그 아이의) 머리를 베어 효시(梟示)하였다고 한다. 그 아이의 말에 금산과 무주에 주둔하는 왜적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밤에 갔다 낮에 돌아와 그치지 않고 돌아다녔으나 사실은 금산에 겨우 3동(同), 무주에 1동만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7일 왜적 27명이 용담(龍潭) 큰 길로부터 이 현의 경계에 도착했다가 복병과 망을 보는 사람들의 서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물러가 산간에 머물러 자면서 사람을 시켜 진친 호실을 탐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주형(장수현감)이 어제 천잠(天蠶) 앞에 진을 쳤던 곳으로 돌아와 왜적들이 진격(進擊)하는 형세를 가로막았다.

금산과 무주 두 고을에 주둔(駐屯)하고 있는 왜적은 3백여명에 지나지 않은데 한 도(道)의 여러 장수가 두려워 하고 겁을 내 움추리고 사방의 경계만 지키면서 아무도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왜적으로 하여금 두 고을 사이를 횡행(橫行)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인가(人家)를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면서 오래 머무르며 가지 않고 제 맘대로 흉한 일을 하게 하니 미워하고 탄식(歎息)한들 무엇하랴.(쇄미록 제1, 임진 7월 29일)

13.

저녁에 주형(主兄 ; 장수현감 이윤)의 글을 보니 순창(淳昌)에서 활을 쏘던 군사

천여명이 직접 무주(茂朱)의 사정을 탐지코자 떠났다고 하는데, 왜적이 촌가(村家)에 불을 놓고 약탈(掠奪)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도중에서 만나 앞에서 한 사람을 쏘니 즉시 자빠져 머리를 베므로 나머지 왜적들이 모여들어 포위했다고 한다. 이 때 우리 군사 한 명이 산으로 올라가 입으로 호각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여러 고을 군사가 공격해 온다.' 고 하자 왜적들은 이 말을 듣고 달아났다고 한다. 활을 쏘는 군사 9명이 이긴 기세를 타고 (왜적들을) 쫓아 가면서 화살을 쏘니 맞는 자가 수십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가운데 왜적 한 명이 즉사하므로 장차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 여러 왜적들이 와서 구해 가지고 업고 갔기 때문에 베지 못하였다고 한다. 만약 입으로 호각 소리를 낸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 사람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5일)

14.

또 들으니 진안(鎭安) 땅 중대사(中臺寺)에 왜적이 들어가 약탈할 때 법당(法堂)의 주불(主佛)을 장목(丈木)을 들어 탁자 아래로 내리쳐 배와 등이 부서짐에 거두어 갔다고 하니 부처(佛陀)에게 영험(靈驗)이 없다는 것을 알만 하다. 자기 몸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중생이 (衆生의) 목숨을 (어떻게) 건진단 말인가. 절간의 중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말하기를 '난리를 치른 뒤 날마다 상서(祥瑞)로운 기운(氣運)으로 빛을 내뿜는다.' 고 한다니 더욱 가소롭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초6일)

15.

그저께 이 곳(장수현) 여러 장수들이 용담(龍潭) 송현(松峴)으로부터 진병하는데 보성군수(寶城郡守)가 군사를 독려(督勵)해 먼저 나가다가 도중에서 왜적의 복병(伏兵)을 만나 여러 장수는 모두 무너져 퇴병(退兵)했고, 보성군수와 남평현감(南平

縣監)만이 홀로 왜적의 뒤를 쫓으니 여러 왜적들이 몰래 나오자 보성군수는 도로 달려나왔고, 남평현감은 말에서 떨어져 왜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니 놀랍고 탄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여러 장수와 약속하지 않고 먼저 혼자서 경솔히 나가다가 왜적에게 패한 바 되어 도리어 왜적의 세력을 도와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보성군수의 경솔함을 허물하고 남평현감이 죽음을 당한 것을 애석(哀惜)해 하였다. 우리 군사도 또한 사상자가 많을 것인데 그동안의 사정은 아직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남평현감의 성명(姓名)은 한순(韓純)으로서 주형(장수현감 이윤)의 말을 빌어 타고 갔었는데 그 때 싸움에 홀로 이 말을 타고 달려 갔다가 죽음을 당한 뒤에는 그 말이 달려서 본진(本陣)으로 돌아온 것을 이 현(長水)의 도훈도(都訓導)가 정탐(偵探)하러 마침 그 곳으로 갔다가끌고 왔다 하나 가련한 일이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11일)

16.

이호연(李浩然) 등은 전 날 무주(茂朱)로 비밀리에 들어가서 왜적의 형세를 정탐(偵探)하다가 틈을 보아 활을 쏘려 하였는데 마침 왜적의 무리 수십명이 풀을 베려고 소와 말을 끌고 나온 것을 만났다. 이에 그들이 풀을 베어 가지고 돌아갈 때 지나는 길에 마름쇠를 많이 깔아 놓고 길가 풀 속에 비밀히 엎드려 있으면서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봉우리에 올라가 왜적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입으로 새소리를 내어 신호(信號)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신호 소리를 듣고 일시에 모두 일어나 먼저 말타고 달려가는 자를 쏘니 화살 두 개를 맞고 땅에 떨어졌다. 이에 현(長水)의 정병(正兵) 백응희(白應希)가 먼저 들어가 머리를 베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앞으로 나갔다 물러섰다 하면서 활을 쏘니 왜적은 마름쇠를 밟은 자가 많았고 또 화살에 맞은 자도 많아 자빠지면서 저희들의 소굴로 달려 돌아갔는데 화살에 맞지 않은 자는 불과 2-3명 뿐이었다. 화살에 맞은 자는 비록 살아 돌아갔어도 한 사람이 두 세 개의 화살을 맞았으니 반드시 죽는자가 많을 것이다. 소 두필, 말 두필을 빼앗아 왔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쾌하다. 순창(淳昌) 사람들도 또한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11일)

17.

그러나 금산과 무주의 왜적이 아직도 두 고을을 점령하고 있어서 한 도의 병력으로는 오래도록 토벌(討伐)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서울로부터 도망해 오던 왜적이 들어가서 합세한다면 쉽게 무너지고 살기만을 구하는 군사들이 궁한 왜적들과 충돌했을 때 어찌 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겠는가. 깊이 두려운 것은 호남 한 도(道)도 또한 도탄(塗炭) 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들으니 전 담양부사 최경희(崔慶會)도 또한 의병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용성(龍城 : 南原)에 주둔하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와서 모이면 여러 장수가 들어가 토벌한다고 하니 만일 그렇다면 매우 가망이 있다고 하였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13일)

18.

아침에 주형(장수현감 이윤)과 순창군수(淳昌郡守 : 金禮國)는 무주 경계에 있는 각치(角峙)의 복병한 곳으로 가서 소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인 다음 다시 의병 여러 군사와 약속하고 활쏘는 군사를 정밀히 뽑아 요긴한 길에 매복하도록 했다. 한 식경쯤 지나자 각치에서 정타하던 군사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왜적이 무수히 나와 각각 붉은 기와 흰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이에 즉시 여러 곳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일시에 각(角)을 불게 하니 왜적들이 곧 물러가 한 곳에 모여 입고 있던 흰옷을 벗어버리고 혹은 푸른 옷도 입고 혹은 붉은 옷도 입고혹은 광대의 옷도 입고 바야흐로 짓쳐 나올 계획을 세웠다. 우리 군사가 여기 저기 봉우리에서 각을 불면서 소리치고 함께 나가니 왜적들은 물러가 돌아가려 하였다. 이 때 전날 순창과 장수 두 고을로 돌려 보냈던 정병이 왜적의 돌아가는 길에 먼저 마름쇠를 깔아 놓고 흩어져 매복하고 왜적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일시에 활을 쏘고 또한 화포(火砲)도 쏘아 나가고 물러가면서 싸우니 화살에 맞아 죽은 자

(왜적)가 심히 많고 탔던 말과 환도를 버리고 당황하여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어지러이 마름쇠를 밟아 피가 흘러 길에 가득했다. 순창 사람은 두 명의 목을 베고 그 말 세필과 환도 세 자루를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왜적의 머리 하나는 이 현(장수) 사람이 바야흐로 베려하다가 순창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한다. 조금은 쾌하다.

이 날 아침 두 군수가 거느리고 가지 않았던들 각지의 복병이 반드시 굳게 지키지 못하고 물로났을 것이니 (왜적이) 안성창(安城倉)을 반드시 와서 불태웠을 것이다.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다. 이호연이 그나오는 왜적의 수를 세어 보니 기병과 보병을 모두 합해 57명이었다고 하였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22일)

19.

손덕남(孫德男)의 집에 머물러 있어 주형(장수현감)과 같이 잤다. 주형은 홀로 있어 무료하다고 나를 만류했기 때문이다. 또 우도의병장 최경회와 부장 고득뢰(高得賚) 및 종사관과 군관 상하 250명이 현에 들어왔는데 군사는 셀 수가 없었다. 또 이호현이활 쏘는 군사 50 명을 거느리고 다시 무주 요긴한 곳으로 들어가 매복하고 적이 나오기를 기다려 쏘아 죽일 계획을 한다.

또 들으니 어제 무주의 적과 서로 싸우다가 끝나고 돌아온 뒤에 남원 사람이 낙상하여 산 위에 숨어 엎드려서 엿보니, 적의 상하지 않은 자 몇 명이 저들의 소굴로 달려들어가 군사 수백 명을 청해가지고 와서 싸움터를 보더니 길 위에 있는 적의 시체 11구를 실어가고, 상처를 입은 자를 부축해 간 자도 또한 많다고 했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23일)

20.

그대로 손덕남의 집에 머물렀다. 아침에 비가 와서 주형(장수현감)은 진을 친 곳으로 가지 않았다. 또 조방장의 배리(陪吏)가 보낸 사사 통문(私私通文)을 보니, 전날 고의병장(高義兵將 : 敬命) 때에 한 중이 의병장으로 들어오고자 하여 물 긷고 밥

짓는 것을 책임으로 맡았었는데 싸움에 나가는 날에 이르러서는 왜적과 서로 내통(內通)해서 대장을 살해(殺害)하도록 지시 그 때문에 크게 패했다고 한다. 또 용담과 금산 두 고을에 도망해 숨어 있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중이 왜저과 내통하여 왜적의 무리를 인도(引導)해다가 여러 산을 수색하여 인민(人民)을 살해하고 재물을 노략질했다고 한다. 보성군수가 9일 동안 싸울 때 그 군(郡)의 선비가 차고 있던 인신(印信)을 살해하고 빼앗으려고 계획했으나 그 흉악함이 왜적보다 더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겨 그 고기를 먹고자 했다. 그런데 보성군수가 우연히 그를 사로잡아 문초했더니 전후의 일이 모두 탄로되어 방어사(郭嶸)에게 붙잡아 보냈다고 한다. 이 중의 말이 금산의 왜적은 대개 먹을 것이 없어 날벼를 베어 먹고 연명(延命)한다고 한다. 이 중의 이름은 성택(性澤)이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적 30명을 죽여도 이 중 하나 죽인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통쾌한 일이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26일)

21.

들으니 27일 금산 전투(錦山戰鬪)에 해남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왜적이 먼저 들어오자 여러 군사가 일시에 활을 쏘았으나 왜적은 이를 거리끼지 않고 일제히 진입(進入)하여 삼(麻)을 치듯이 어지러이 치니 여러 진이 서로 구원(救援)하지 못하고 모두 무너졌다. 변응정과 어득준(魚得浚)과 전 봉사(前奉事) 황환(黃環)과 의병장 소행진(蘇行進)과 전 봉사 최호(崔湖) 등 다섯 장수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으니 놀랍고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변공은 곧 나(吳希文)의 인친(姻親)으로 지난 봄 장흥부(長興府)에서 만났으며, 또 영암(靈巖) 임매(林妹 : 오희문의 누이로 영암 林克愼의 妻)의 집에 있을 때 또 한번 글을 보내고 물건도 주었는데 지금 그죽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슬프다.

또 전 날 무주(茂朱)로 들여 보냈던 현리(縣吏 : 장수현) 이호연(李浩然)과 순창 사람 김경석(金景碩) 등이 지난 밤 순창의 중 사묵(士默) 등 9명으로 하여금 밤을

타 비밀히 들어가서 왜적의 소굴에 불을 놓기로 계획하였으나 흉적들이 거처하고 있는 관사(官舍)에 목책(木柵)을 마련하고 목판(木板) 네 모퉁이에 높게 망대(望臺)를 만들어 놓아 밤새도록 순경(巡警)하기 때문에 넘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목책밖에 있는 관청 및 사사로운 집 세 곳에 왜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어 불의에 불을 질렀더니 왜적이 무리가 놀라고 당황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책(木柵)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활을 쏘고 (목을) 베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날이 밝자 이호연과 김경석 그리고 의병 김홍정(金弘鼎)과 김수부(金壽富)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먼저 말탄 사람 7명으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달려 나가 용맹함을 보여 왜적을 유인하였는데 왜적의 선봉 100여명이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또 수백여명이 냇가로 건너와 깃대를 세우고 진을 쳤다. 이 때 여러 군사들이 혹은 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혹은 포를 쏘고 어지러이 활을 쏘면서 나가고 물러나며 싸우니 탄환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몹시 많았고 화살에 맞는 사람도 몇인지 그 수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왜적들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갈 무렵 의병 김홍정과 정종남(鄭終男) 두 사람이 말을달려 뛰어 들어가 활을 어지러이 쏘다가 왜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정종남의 말 앞에 왜병 세명이 숨어 엎드렸다가 한꺼번에 탄환을 쏘므로 오른쪽 어깨에 맞았으나 곧 돌아서서 총을 쏜 왜병을 활로 쏘아 바로 가슴을 맞히니 칼을 던지고 쓰러져 죽으므로 여러 왜병들이 끌고 가 숨어 버렸다고 한다. 이에 정종남이 용맹하게 말을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8월 29일)

22.

그대로 손덕남의 집에 머물렀다. 별로 왜적의 소식이 없다. 또 우의병장 최경회는 이 고을에 들어온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직도 왜적이 있는 경계에 나가서 진을 치지 않고 날마다 군관(軍官)과 함께 활만 쏘고 녹각목(鹿角木)을 많이 가져다가 관가 앞뒤에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오직 왜적이 침범해 올까 두려워하고 오래 머무를 계획

만 하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금산과 무주 두 고을은 이 고을(장수현)과의 거리가 이틀 일정(日程)으로서 그 사이의 요해처(要害處)에 관군(官軍)을 매복한 것이 4,5곳이나 되는데 먼 곳에 머물러 있어 오직 양식만 허비할 뿐 나가 공격하려 하지 않으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이름이 의병(義兵)이면서도 죄를 짓고 달아난 자들이 모두 와서 모여 있으면서 그 법(法)을 면하려 하고, 심지어 좌수사(左水使)의 군사로 수전(水戰)을 하기 싫어 몸을 의병에 의탁해 붙어있는 자도 또한 많다. 물러나 편안한 곳에 앉아 날마다 관청 곡식만 먹고 있으니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되었다고 하겠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 쓰고 있는 물건을 모두 관가(官家)에서 얻어 가고 있으니 이처럼 쇠잔한 고을에서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또 내일 좌도의병장(左道義兵將) 임계영(任啓英)이 용성(龍城 : 南原)으로부터 온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장과 부장의 그 이하는 모두 주는 음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쇄미록 제1, 임진 9월 초1일)

23.

좌의장(左義將) 임계영(任啓英)이 군사를 거느리고 또한 어제 (장수)현으로 들어왔다. 우의장(右義將) 최경회(崔慶會)는 그 때 객관(客館)에 있으면서 노각책(鹿角柵)을 많이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형세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향교(鄕校)로 들어가 (잠을) 자고 지금은 동면(東面) (어느) 민가(民家)로 옮겼다. 몇 명 되지않은 아전들이 좌우로 쏘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니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따라다니긴 하였으나 매로 때리므로 관인(官人)들이 모두 달아나고자 하였다. (이에) 호장(戶長) 이옥성(李玉成)이 자세히 타일러서 아직 머물러 일을 한다고 하였다.

이 우의장 최(崔)라는 사람은 쇠잔한 고을(장수현)에서 물자(物資)를 조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관(官)에서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조금만 자기 뜻과 같지 않으면 자주 엄한 매를 때려 아래 아전들이 고달프고 괴로워 거

의 견디지를 못한다고 한다.(쇄미록 제1, 임진 9월 6일)

24.

또 이언홍(李彦弘)의 보고(報告)를 보니 이 달 초6일 금산(錦山)의 왜적 백여명이 홍백기(紅白旗)를 세우고 무주현(茂朱縣)으로 들어오자 두 고을(무주현과 장수현)의 정병(精兵) 및 의병과 남원(南原)과 진안(鎭安)에서 모집된 군사 등이 유현(杻峴)과 소탄(召灘)에 매복(埋伏)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적들은 미시(未時 :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도로 금산으로 향하여 소탄을 건너려 하였다. 이 때 (매복하고 있던) 의병 30여명이 먼저 왜적들을 쫓아 잠시 뒤에 접전(接戰)을 시작 양쪽에서 포를 쏘고 활을 쏘아 화살에 맞아 상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 때 여러 고을의 정병들이 계속하여 나가 금산 가정자원(柯亭子院)까지 쫓아가니 왜적의 무리 가운데 죽은 자를 끌고 달아났기 때문에 머리를 베지 못하였으며, 우리 군사는 별로 상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 초7일 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의병 군관(義兵軍官) 김홍정(金洪鼎)과 강희열(姜熙悅) 등이 장의현(張義賢)과 약속 무주에 있는 왜적들을 유인(誘引)하여 오랫동안 싸웠는데 두 고을 정병 및 여러 고을에서 모집된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드니 왜적들은 이미 물러갔다. 그런데 그 관사(官舍) 가까운 00에 흩어져 있던 복병 가운데 여인 수십명이 왜적의 복장(服裝)을 하고 집 모퉁이로 올라가 우리 군사가 지쳐 있는 것을 바라보니 복병하고 있던 왜적과 진중(陣中)에 있던 왜적들이 일시에 모두 일어나 어지럽게 탄환을 쏘아댔다. (이에) 우리 군사도 혹 활을 쏘고 혹 물러서기도 하였다. 이 때 의병 군관 송위룡(宋渭龍)이 앞으로 오는 왜적 한 명을 쏘아 맞추고 말을 달려 산으로 올라갔다. 순창(淳昌) 사람 김경석(金景碩)과 김대복(金大福) 등이 단신(單身)으로 왜적을 만나게 되니 피할 겨를도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힘껏 활을 쏘았다.

그 가운데 한 왜적이 붉은 옷에 금관(金冠)을 쓰고 단지 환도(環刀)만 찬 채 준마

(駿馬)를 탔는데 왜적 30여명이 뛰를 따라 옹호하여 오고 있었으나 빨리 오지도 않고 부채를 부치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서로의 거리가 5-6보밖에 되지 않아 자세히 그의 면목을 보니 수염이 길고, 또 많았으며, 얼굴이 살찌고 희어서 조금도 왜적의 기상이 없었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 생각되었다.김경석이 처음에 쏘았던 것이 맞지 않았다. 두 번째 쏘아 말안장을 맞혀 꿰뚫다. (이에) 왜적들이 일시에 달려와 (그를) 구원하여 방패를 세우고 옹호하여 도로 들어갔다. 김대복이 황금빛 광대복을 입은 선봉(先鋒)의 가슴을 맞추니 여러 왜적들이 기운이 꺾여 자신들의 소굴로 물러나 들어갔다. 이 이틀동안 접전에서 우리 군사들은 두 사람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먼저번 네 차례의 교전(交戰)에서 왜적의 무리들을 많이 죽였고, 우리 군사는 한 명도 상한 사람이 없었다. 이번 싸움에는 영(令)을 어기고 경솔히 나가서 두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25.

주형(장수현감 이윤)이 어제 진(陣)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탄환에 맞아 죽은 사람은 순창의 배패(陪牌) 조여관(趙汝寬)과 광주(光州)의 의병 김영두(金永斗)로 (왜적이) 머리를 모두 베어가고 단지 그 시체만 남겼다.' 고 하였다. 참혹한 일이다.(쇄미록 제1 임진 9월 9일)

26.

주형(장수현감)과 순창군수(金禮國)는 각각 새로운 수(戍)자리로 돌아가고 나 또한 돌아오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현(장수)의 관사로 들어가 잤다. 우의장(최경회) 및 승의병(僧義兵) 등이 돌아가서 진안에 진을 치려고 객사(客舍)의 앞 뒤 뜰 아래에 와서 보는데 사람과 말에 깨끗치 못한 물건이 가득하였다. 담 밖에는 엄하게 녹각책을 설치하고, 담 안에는 방패를 벌려 세웠는데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마지않는다. 관

진주성(晋州城) 싸움과
최경회(崔慶會) 그리고 논개(論介)

오 병 무
이 강 오 편역

진주서사(晋州敍事)[1]

만력(萬曆) 21년 계사년(癸巳年 : 1593) 6월 왜적이 진주를 함락하니 성을 지키던 여러 장수들이 모두 죽었다. 이에 앞서 임진년(壬辰年 : 1592) 여름 왜적들이 수륙(水陸)으로 길을 나누어 호남(湖南)을 노략질할 것을 도모(圖謀)하였으나 한 길은 한산도(閑山島)에 이르러 이순신(李舜臣)에게 패한 바 되었고, 다른 한 길은 진주성에 이르러 판관(判官) 김시민(金時敏)에게 막힌 바 되어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왜적이 항상 분하고 한스럽게 여겼다.

올해 봄 명(明) 나라 장수가 왜적과 함께 계속 화친(和親)코자 하니 서울 밖의 여러 왜적들이 모두 영남(嶺南)에 함께 모여 병세를 크게 떨쳤다.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 : 가토오 기요마사)이 풍신수길(豊臣秀吉 :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주를 다시 치고 이어 호남을 공격할 것을 청하니 풍신수길이 이를 허락하였다.

6월 14일 가등청정이 여러 왜장을 합하니 병이 수십만이 드디어 동래(東萊)로부터 출발하여 바로 진주를 향하니 이 때 총병(摠兵) 유정(劉綎)[2]과 유격(遊擊) 오유충(吳惟忠)[3]은 대구(大邱)에, 참장(參將) 낙상지(絡尙志)[4]와 유격 송대빈(宋大斌)[5]

---

1) 안방준(安邦俊)의 글로 진주성이 함락된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2)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용감하고 용력이 있었다. 그는 항상 120근이나 되는 강철도(鋼鐵刀)를 말 위에서 휘두르며 비호같이 활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를 '유대도(劉大刀)'라 불렀다.

3)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임진년(1592) 12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와 울산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4)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용력이 비범하였으며, 무예에 뛰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낙천근(駱千斤)'이라 불렀다. 임진왜란 때 이여송의 부장으로 병력 3천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전투에 참가 큰 공을 세웠으며, 그 뒤 남원(南原)에 주둔하여 많은 왜적을 격퇴하였다.

5)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때 마병(馬兵) 2천을 거느리고 이여송을 따라 조선(朝鮮에 와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뒤에 남원에 주둔하다가 선조 27년 귀국하였다.

은 남원(南原)에, 유격 왕필적(王必迪)[6]은 상주(尙州)에 있었다. 유격 심유경(沈惟敬)[7]이 왜적의 우두머리 평행장(平行將 : 小西行長, 고니시 유키나가)과 있었고,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8]은 서울에 있었다.

유정이 글을 가등청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일본이 우리 속국(屬國)을 해치고 병사들이 연달아 화(禍)를 입으니 황제께서 크게 노여워하여 특별히 절월(節鉞)[9]을 내리니 사나운 신하를 나누어 보내어 헤아려 장경(長鯨)[10]을 다 죽여 동해(東海)를 영원히 맑게 할 것을 도모케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심유경이 오가며 강론(講論)하니 일본이 마음을 기울여 갑옷을 풀고 예(款)을 바치며 화맹(和盟)을 구하기를 다하고 무리를 이끌어 귀국(歸國)하고 또 부산으로부터 소서비탄수구대부(小西飛彈守久大夫)[11]를 보내 머리를 조아려 천조(天朝 : 명 나라)의 명을 기다리며, 일념으로 정성을 다하니 칭찬할만 하다. 이 때문에 천조가 보낸 군사 100만이 압록강(鴨綠江) 머리에 이르러 멈추었고, 대장(大將) 이모(李某 : 李如松)가 2십만 병사를 이끌고 서울에 주둔하고, 총병 곽모(郭某 : 郭夢徵)와 총병 이모(李某 : 李時孳)가 병사 2만을 거느려 요동에 주둔하고 있다. 부총병 오모(吳某 : 吳惟忠)와 다른 여러 장군이 병사를 거느려 평양(平壤)과 개성(開城)에 나누어 포지하고 있는 것이 또 십여만인

---

6)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때 제1차 동정군(東征軍)으로 조선에 와서 평양성전투에 참가하였다. 계사년(癸巳年) 8월 제1차 동정군이 귀환한 뒤에도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에 계속 주둔하였다.

7)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때 왜적과 조선의 강화(講和)에 노력하였다.

8) 송응창은 중국 명(明) 나라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派兵)된 명군(明軍)을 총지휘(總指揮)하였다. 그의 이 때 직명(職名)이 '경략방해비침군무(經略防海備侵軍務)' 였으므로 흔히 약칭하여 '경략(經略)' 이라 부른다.

9) 천자(天子)가 적(敵)을 치러 가는 장군(將軍)에게 주는 부절(符節)과 도끼.

10) 대단히 탐욕(貪慾)이 많은 악인(惡人)을 빗대어 하는 말.

11) 일본의 소서여안(小西如安)을 가리킴. 그의 초명은 내등비탄수(內藤飛彈守)였다. 단파구산(丹波龜山)의 6만호의 성주(城主)였고, 장군 족리의소(足利義昭)의 막료(幕僚)였다. 의소가 몰락하자 소서행장 밑으로 가서 보호를 받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봉사(請封使)로 명 나라 북경(北京)에 파견되어 16개조의 문답(問答)으로 명 나라에서 일본에 책봉사(冊封使)를 파견케 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정유재란(丁酉再亂) 이후 필리핀의 마닐라로 망명하여 의술(醫術) 등 한문(漢文)과 학서(學書)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이다. 모두 이리 저리 살펴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번의 싸움으로 문득 약의(約義)를 잊을까 두려워 하니 우리 당당한 천조의 하늘을 뒤덮을 만한 도량이라 하겠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너희들이 돌아갈 뜻을 결정치 않고 다시 진주성을 공격하고자 하며 갑자기 앞의 약속을 배신했다 하고 옛날의 분통함을 덜겠다 하니 무릇 조선팔도(朝鮮八道)의 사녀(士女)가 씀바귀 독(毒)에 걸려 뼈를 베고 들에 누웠고 목을 맨 것은 장대에 가득하니 처참함이 극에 이르렀다. 대체 무슨 원수를 갚겠단 말인가? 하물며 진양(晋陽)은 함 점의 성이니 어찌 조그만 미움으로 뜻을 펴 감히 중국의 큰 믿음을 져버리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이를) 염려(念慮)하여 마음을 고쳐 먹고 병사를 철수해서 동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은 병을 일으켜 외국에서 서로 믿음을 져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다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흩어진 병(兵)을 모아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미복선(烏尾福船)·누선(樓船)·백조(柏槽)·용조(龍槽)·사선(沙船)·창선(艙船)·동교소소(銅鉸小艄)·팔나호(八喇唬) 등의 배를 내어 백만의 무장한 병사를 실어 이끌고 해안에서 너희의 돌아가는 길을 막고 너희의 식량 보급을 끊어 싸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장차 너희가 죽기에 이르러 한편의 갑옷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관백(關伯 : 豊臣秀吉)과 네가 본래 비견(比肩)되었으나 너희들이 조롱(鳥籠) 속에 갇힌 바 되어 모두 부림을 당하게 되었다. 관백이 이미 천조를 사모하며 납공(納貢)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진주를 향하며 다시 포위한단 말인가? 지금 진퇴의 사이에 이해에 관련된 것이 적지 않으니 여러번 생각하고 살펴 때 늦은 후회는 없게 하라고 하였으나 왜적이 듣지 않았다.

심유경이 역설하여 행장(소서행장)으로 하여금 (진주성 침공을) 그치게 하고자 하였으나 행장이 이르기를 '금일의 거사(擧事 : 진주성을 공격하려는 계획)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오직 가등청정이 이 의견을 힘써 주장하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일러 보았으나 스스로 먼저 성을 비워 그의 마음을 쾌하게 해주는 길밖에 없다.' 고 하였다. 심유경이 돌아와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 1534-1602)[12]과 순찰사

한효순(韓孝純 : 1543-1621)[13]에게 말하기를 '진주의 일이 급하니 노장군들께서 힘써 진주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저 사람(가등청정)은 지난 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분함으로 뜻을 품어 다시 쳐들어 온 것이니 지금 다른 계책이 있을 수 없소. 다만 여러 장군에게 행장이 말한 바처럼 하라고 명을 내리는 것이 가할 것이오.' 하였다.

이 때 관군과 의병이 모두 함안(咸安) 등지에 있었는데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 1537-1593)[14]이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길 '왜적이 꾀하는 바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다만 진주를 공격한다는 말을 어찌 믿겠는가? 무릇 진주는 호남과 대단히 가깝다. 다시 말해 입술과 치아(齒牙)와 같다. 만약 진주를 버리고 가면 왜적이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곧 화가 반드시 호남에 미칠 것이니 힘을 합쳐 성을 지킴으로써 기세(氣勢)를 막는 것만 같지 못하오.' 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이 듣지를 않았다.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薲 : 1537-1603)과 홍의(紅衣) 의병장 곽재우(郭再佑 : 1552-1602)[15]가 단성(丹城)을 거쳐 산음(山陰)으로 들어가고 좌의병장 임계영(任

---

12) 그의 자는 응순(應順)이고, 호는 주은(酒隱)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왜란 때 순검사(巡檢使)가 되고, 이어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로서 임진강 방어전을 맡았다. 다음해 명 나라 구원병이 오자 명 나라 장수들의 자문에 응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병조판서로 유도대장(留都大將)을 겸하기도 하였다.

13)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 본관은 청주이다. 임진왜란 때 영해싸움에서 왜적을 격파한 뒤 경상좌도관찰사에 특진 순찰사를 겸임하면서 군량미 조달에 큰 공을 세웠다.

14)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義兵)을 일으켜 조정(朝廷)으로부터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왜적이 2차 진주성을 공격할 때 진주성에 들어가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象乾)과 함께 남강에 투신(投身) 순절(殉節)하였다.

15) 그의 자는 계수(季綏)이고,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며,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의령(宜寧)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불리며 왜적을 ㅋ,게 무찔렀다.조방장, 성주목사(星州牧使)를 거쳐 1597년 정유재란 때 경상도방어사가 되어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켰다.

16) 그의 자는 홍보(弘甫)이고, 호는 삼도(三島)이며,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성(寶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전라좌도의병장(全羅左道義兵將)이 되었다. 최경회와 함께 장수, 거창, 합천, 성산, 개령 등지에서 왜적을 무찔렀다. 2차 진주성전투에서 군량과 무기를 조달하다가 왜적이 이미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1528-1597)[16]은 사천(泗川)으로부터 바로 호남으로 돌아가고 수령과 여러 장수들이 역시 뿔뿔히 흩어져 가 버렸다.

오로지 창의사 김천일과 우의병장(右義兵將) 최경회(崔慶會 : 1532-1593), 충청병사 황진(黃進 : 1550-1593)[17], 거제현령(巨濟縣令) 김준민(金俊民), 해미현감(海美縣監) 정명세(鄭名世), 좌의병부장(左義兵副將)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 1552-1593), 복수의병장(復讐義兵將) 고종후(高從厚 : 1554-1593)와 그의 부장 오유(吳宥), 웅의병장(熊義兵將) 이계연(李繼璉), 비의병장(飛義兵將) 민여운(閔汝雲 : ?-1593)[18], 표의병부장(彪義兵副將) 강희보(姜希輔) 등이 각기 병사를 거느리고 모였었다.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쯤 여러 장수 막하 선비로 쓸만한 자가 없어 성을 나갈 것을 허락하니 (나간 자가) 무릇 수십인이었다. 오직 김천일 막하의 아들 상건(象乾)과 좌랑(佐郎) 양산숙(梁山璹 : 1561-1593), 최경회 막하의 진사 문홍헌(文弘獻), 고종후 막하의 정자(正字) 오빈(吳玭), 내금위(內禁衛) 김인혼(金麟渾), 참봉(參奉) 고경원(高敬元) 등 5-6인 만이 가지 않았다. 그 때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 : ?-1593)[19]이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 보호할 방책(方策)을 의논하는데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 : ?-1593)[20]이 따르지 않자 이종인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이르기를

---

17) 그의 자는 명보(明甫)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통신사 황윤길을 따라 일본에 다녀와 동복현감(同福縣監)에 임명되어 장차 왜(倭)의 화(禍)에 대비 무예 훈련(武藝訓練)에 열중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을 따라 용인전투에 참여했으나 패전였다. 그 뒤 여러 곳에서 왜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으며, 특히 2차 진주성전투에 참여 왜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18) 그의 자는 용종(龍從)이고,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인(泰仁)에서 정윤근(鄭允謹)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스스로 비의장(飛義將)이라 하였다. 함안(咸安) 등지에서 왜적을 맞아 싸워 큰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9) 자는 인언(仁彦), 본관은 전주이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癸巳年)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으면서 진주성 싸움에 참가 성을 방어키 위해 끝까지 용전(勇戰)하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 왜적 두 명을 양쪽 팔에 끼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지금 의병 여러 장수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으니 가볍게 성을 버리는 자는 목을 베겠다.' 하니 서예원이 겁많은 사람이라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다.

18일,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 : 1550-1598)[21]와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22] 등이 와서 말하기를 '적은 수로 많은 왜적의 무리를 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 하고 곧 돌아서 운봉(雲峰)에 진을 쳤다. 이 때 분의병장(奮義兵將) 강희열(姜希悅)[23]이 원수의 명으로 조방장을 겸하고 여러 읍의 병사들을 모아 구례(求禮) 석주잔도(石柱殘道)를 지키다 (진주의 일을) 듣고 분연히 말하기를 '관군도 피할 것을 꾀함은 불가한데 하물며 의병이랴?' 하고 마침내 말을 달려 왔다. 적개의병장(敵愾義兵將) 변사정(邊士貞 : 1529-1596)[24]이 사세(事勢)가 다급함을 듣고 그 부장 이잠(李潛 : ?-1593)을 보내니 함께 하던 모든 부장들이 말하기를 '많은 왜적이 장차 이르려 하니 살펴 도망치는 자가 많다. 우리들만이 왜 사지(死地)에 홀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였으나 이잠은 듣지 않고 마침내 병사를 재촉하여 나아갔다. 때에 마침 선거이와 홍계남 등이 성 밖으로 나감에 성 가운데의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킬 뜻이 없었으나 강희열 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면서 기운을 떨치고자 아니한

---

20) 임진왜란 때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있다가 패주, 1차 진주성(晋州城) 싸움 이후 진주목사(晋州牧使)가 되었으나 이듬해 왜적이 재차 진주성을 공격해오자 성을 버리고 숲 속에 숨어있다가 살해 당하였다.

21) 임진왜란 때 전라병사(全羅兵使)를 엮임 여러 싸움에 참가하여 많은 공을 세웠는데, 1593년 2월 행주산성(幸州山城) 싸움에 참가하였다. 1598년 울산(蔚山) 싸움에 참가 명 나라 장수 양호(楊鎬)를 도와 싸우다 전사하였다.

22) 그의 본관은 언양이고, 수원 출신이다. 그는 언수(彦秀)의 서자(庶子)로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따라 안성(安城)에서 이병의 일으켜 왜적과 싸우다가 아버지게서 전사하자 자신이 의병을 지휘 여러 곳에서 승리하였다. 그 공으로 경기도조방장(京畿道助防將)이 되고, 수원판관을 거쳐 이듬해 충청도조방장으로 진주, 구례, 경주 등지의 싸움에 참여하였다.

23) 그의 자는 사현(士賢)이고, 호는 석탄(石灘)이며, 찰방 근(瑾)의 손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계사년(癸巳年) 조방장으로 구례(口禮)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진주성이 포위되었을 때 진주성으로 들어가 형 희보(希輔)가 왜적과 싸우다 먼저 죽고 그도 결국 전사하였다.

24) 그의 자는 중간(仲幹)이고, 호는 도탄(桃灘)이며, 본관은 장연(長淵)이다.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남원(南原)에서 의병 2천여명을 모집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재외운량장(在外運糧將)으로 산음(山陰)에서 식량 수백석을 진주성으로 운반하였다.

사람이 없었다. 그 때 김천일 군사 5백, 최경회 군사 6백, 황진 군사 7백, 고종후 군사 4백, 장윤과 이잠의 군사 각 3백, 이계연과 민여운과 강희보와 강희열 등의 군사 각기 2백여명 그리고 여러 수령의 병사 및 본 고을(진주)의 민병(民兵)과 피난 사녀(士女)가 무릇 6-7만인이었다.

이빈이 고종후에게 영(令)을 내려 선거이와 홍계남 등과 병사를 합쳐 밖에서 을원을 하라 하고 성 가운데의 장사 또한 많이 그렇게 할 것을 권하였으나 고종후가 모두 이에 따르지 않고 성을 나누어 지켰다. 성 남쪽은 촉석(矗石)으로 가장 험한 지역이어서 왜적이 범하기 어려우나 오직 동서북 삼면(三面)이 왜적의 침입을 받을까 가이 염려스러운 곳이므로 의병으로 하여금 그 곳을 지키게 하였다. 황진과 이종인과 장윤이 각기 수십인을 거느리고 왜적의 움직임을 쫓아 (방어에) 취약(脆弱)한 곳을 찾아다니며 구원(救援)하였다. 막하의 여러 장수들이 직접 먹을 것을 들고 성을 돌면서 군사들을 먹이며 약속이 이미 정해졌다 하니 성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죽음으로써 맹세하였다.

19일, 명(明) 나라 장수와 상주목사(尙州牧使) 정기룡(鄭起龍 : 1562-1622)이 와서 성지(城池)를 살피며 말하기를 '남쪽에는 큰 강이 있고, 북쪽에는 깊은 연못이 있으니 실로 하늘이 만든 땅이오. 또 유총병이 밖에서 응원을 하고자 대구로부터 병사를 움직여 선봉이 이미 함양(咸陽)에 도착했고, 우리들을 먼저 보내 뜻을 알리게 하였소.' 라 하였다.

20일, 아침 심유경이 보낸 첩문(帖文)이 왔다. 그 대략은 '지난번 와서 말한 바와 같이 성을 비워 병사를 피하라.' 는 것이었다. 이 날 오유(吳宥)와 이잠(李潛 : ?-1593)과 본 고을의 무사(武士) 정국상(鄭國祥) 등이 성을 나와 왜적을 살피니 왜적의 선봉이 이미 고을의 경계에 들어섰다. 두 장수가 (왜적을 보고) 말을 채찍질 하여 달려갔다. 정국상 등이 돌아와 보고 하기를 '두 장수가 왜적을 보고 쫓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필시 도망한 것입니다.' 고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두 장수가 각기 왜적 몇 사람의 목을 베어 돌아왔는데 성 가운데에서 북을 치고 혹 어떤 사람은 칼을 뽑

아 춤을 추기도 하였다. 명 나라 장수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한 성(城)의 사람들이 모두 의사(義士)구나. 나는 마땅히 일이 급함을 고하여 원병(援兵)을 청해야 하겠다.' 하고 즉시 정기룡과 함께 돌아갔다.

처음 김천일이 함안으로부터 와서 양산숙과 홍함(洪涵) 등을 보내 원병을 청하는 글을 유정(劉綎)에게 보내니 이는 고종후가 지은 것으로 말이 격렬(激烈)하였다. 이어서 양산숙의 말도 그 기운이 강개(慷慨)하여 남을 감동시켰다. 유정은 (청원의 글을) 읽기도 마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얼굴 표정을 고쳤다. 그러나 마침내 병사를 보낼 뜻이 없었다. 홍함이 돌아오는 길에 양산숙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양산숙이 울면서 말하기를 '위급함을 만나 구차히 피하고 주장(主將)만을 홀로 사지에 남겨두는 것은 의(義)가 아니다.' 하고 마침내 홀로 말을 타고 성에 들어오니 모든 군사가 놀랬다.

21일, 진시(辰時) 왜적의 기병 수십이 동북 산 위에 출몰하여 (성 안을) 내려다보다 돌아갔다.사시(巳時) 또 수백여 기병이 북쪽 산에 올라 진을 벌리고 병세(兵勢)를 뽐냈다.조금후 대군이 계속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왜적이 이내 물러갔다. 조금 뒤 대군(大軍)이 계속하여 도착 성을 세겹으로 에워싸면서 총은 한방도 쏘지 않았다. 개경원부터 마현(馬峴)까지 큰 진을 무릇 세 곳에 설치하고 그 나머지 적은 진은 별을 뿌려놓은 듯 퍼져 있으니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22일, 왜적이 성 아래 최약한 부분으로 나왔다. 아침부터 포시(哺時 : 오후 3시부터 4시까지)까지 철환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이를 막으니 왜적이 곧 물러갔다. 강희보가 말하기를 '왜적의 기세가 이와 같으니 관군에게 죽음을 각오한 용사를 보내 구원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막하에 있던 임우화(林遇華)에게 명하여 성을 내려가 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5리도 못가 왜적에게 잡힌 바 되었다. 이 뒤로부터 왜적들은 올 때마다 임우화를 묶어 열(列) 앞에 세워 그를 보였다. 이 날 밤 왜적이 또 동쪽 문을 치고 들어와 큰 함성(喊聲)이 천지를 흔들었는데 황진 등이 혈전을 벌려 (왜적이) 이에 물러갔다. 서예원이 정신이 없이 어찌

할 줄을 몰랐다. 김천일과 최경회가 의논하여 장윤(1552-1593)[25]으로 하여금 임시로 고을의 일을 맡도록 하니 성 안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기가 배에 달했다.

하루는 왜적이 서북쪽으로부터 큰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오니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성이 거의 몰락하게 되었다. 이 때 황진이 칼을 뽑아 큰 소리로 '오늘 나는 내 죽을 곳을 얻었다.' 고 외치니 이에 여러 장수들이 다시 모여 활을 어지러이 쏘아 왜적이 다시 물러갔다. 왜적이 또 동문 바깥에 여러 길 높이의 산을 만들어 성을 내려다 보며 공격하니 황진 역시 높은 언덕을 만들고 스스로 돌을 짊어져 나르니 남녀 모두 감동하여 일을 도와 하룻 밤만에 (언덕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마침내 큰 대포로 왜적의 소굴을 깨뜨리니 왜적이 이에 물러갔다. 왜적이 또 나무 궤(櫃)를 만들어 짐승 가죽으로 싸고 이를 짊어지고 와 성을 부수려 하였는데 황진이 큰 돌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어지러이 활과 포를 쏘니 왜적이 곧 물러갔다. 왜적이 또 동문밖에 2개의 큰 나무를 세워 그 위에 판옥을 걸쳐 성 가운데로 불화살을 쏘니 집들이 연이어 불에 타 오르는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황진이 역시 판옥을 설치하였는데 반나절만에 완성 마침내 큰 대포를 쏘아 왜적의 소굴을 적중시키니 왜적이 이에 물러갔다. 이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성의 한쪽이 무너져 왜적이 큰 소리로 외치며 어지러이 들어오니 김준민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고, 왜적이 다시 물러갔다.

왜적이 성 안으로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만민(萬民)이 성에 들어가 있어 한 때 모두 도살(屠殺) 당하게 될 것이니 가히 참혹한 일이다. 장수 한 사람을 붙잡아 보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 가운데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강화(講和)를 원하면 갓을 벗어 세 번 흔들라.' 하였다. 글의 끝에는 '6월 26일 우시비전 재상 풍신수가(羽柴備前 宰相 豊臣秀家) 재배(再拜)' 라 되어 있었다. 성에

---

25) 자는 명보(明甫)이고,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좌의병부장(左義兵副將)이 되어 성산, 개령 등지에서 큰 전과(戰果)를 올렸다. 다음 해 진주성 싸움에서 충청도병마절도사 황진(黃進)과 함께 성을 방어하다 황진이 전사하자 싸움을 지휘 여러 차례 공방전(攻防戰) 끝에 전사하였다.

서 그에 대해 답하길 '우리는 굳게 싸우다 죽을 뿐이다. 하물며 명 나라 군사 30만이 추격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남음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왜적이 옷을 벗어 어깨를 들어내 두드리며 말하기를 '명군(明軍)은 이미 다 물러가 버렸다.' 하고 마침내 동서 양문밖에 5개의 언덕을 쌓고 대나무를 엮어 책(柵)을 만들어 총을 쏘니 강희보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또 황진 등이 불화살을 쏴 책(柵)을 무너뜨리니 왜적이 이에 물러갔다. 왜적이 또 궤를 짜 사륜차(四輪車) 위에 싣고, 정예 수십명이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이(사륜차)를 밀고 나와 철추(鐵錐)로 성을 뚫고자 하니 황진 등이 나무 묶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던지니 궤 속에 있던 왜적이 거의 다 죽었다.

28일, 서예원이 순찰(巡察)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왜적이 몰래 들어와 성을 뚫고자 하였다. 황진 등이 그것을 알고 죽기로 싸우니 왜적의 우두머리 가운데 1명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비롯하여 (왜적의) 죽은 자가 수천이었다. 황진이 성에서 (왜적을) 내려보며 '오늘의 싸움에서 왜적의 시체가 해자(垓字)에 가득 차니 가히 대첩(大捷)이라 하겠구나.' 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왜적 가운데 한명이 (황진을) 올려다보며 총을 쏘아 황진이 왼쪽 이마를 맞고 죽었다. 이종인이 삼밭을 파 (황진의) 시체를 묻었다. 때에 황진, 장윤, 이종인, 김준민, 오유, 이잠, 강희보, 강희열 등 모두 힘써 싸웠다고 할만 하나 황진의 충렬과 지용(智勇)이 여러 장수 가운데 최고였다.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는 바가 컸고, 그의 죽음에 미쳐 술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29일, 서예원에게 황진을 대신하여 순성장(巡城將)이 되게 하였다. 서예원이 갓을 벗고 말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일을 행하니 최경회가 화를 내며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만 두고 즉시 장윤으로 하여금 대신케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윤 역시 왜적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 때 동문 쪽 성이 비로 말미암아 무너져내렸다. 왜적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몰려 (성으로) 올라 오니 이종인과 그의 친병(親兵)들이 활과 화살을 버리고 짧은 병기(兵器)를 가지고 맞서 싸워 왜적이 것의 다 죽어 물러갔다.

왜적의 정예부대가 또 서북쪽 문에서 칼을 휘두르며 (성으로) 뛰어 올라 이르니 서예원이 먼저 도망가고 여러 장수들이 무너지며 촉석(矗石)으로 몰리었다. 왜적이 마침내 이에 (성 안으로) 난입하여 들어오자 김상건(金象乾)과 양산숙(梁山璹)이 김천일을 부축하고, 문홍헌은 최경회를 붙들고, 오빈(吳玭 : ?-1593)과 김인흔(金麟渾)과 고경원(高敬元)은 고종후(高從厚)를 부축하여 북쪽을 향해 재배(再拜)하고 남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양산숙은 의리(義理)가 홀로 살 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저들과) 함께 죽었다. 이종인과 강희열과 오유와 이잠 등 십여명은 칼을 뽑아 왜적을 쳐죽이며 힘을 다해 싸우다 최후를 맞았고, 이종인은 싸우다 남강에 이르러 좌우 겨드랑이에 각기 한 사람씩의 왜적을 끼고 물에 뛰어들며 큰 소리로 외치기를 '김해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 고 하였다.

7월 초2일, 왜적이 호남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선봉장은 육모리(六毛里)와 녹가말(鹿加末)[26] 등으로 1군은 하동(河東)에 이르고, 1군은 석주(石柱)[27]에 이르렀다. 왜적 장수 가운데 하나가 가등청정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성을 공격한 10여일동안 정예군이 심하게 상하였으므로 이로써 호남에 대한 뜻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니 병사를 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가등청정이 옳게 여겨 곧 명령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 날 밤 임우화(林遇華)가 하동에서 도망갔다. 임우화는 서적(書籍)에 밝고 담력(膽力)과 지략(智略)을 겸하고 있어 군중에 있을 때 여러 장수들이 그를 중히 여겨 모든 일을 그에게 묻고는 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595) 내가(安邦俊) 광양현(光陽縣)에서 임우화를 만나 당시의 일에 대해 물어보니 임우화의 진술(陳述)이 한치의 착오도 없었다.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다가 소리내어 울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를 심히 의롭다 여겨 다음에 서로 만날 것을 약속했는데 수년이 안되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창의사 김천일의 둘째 아들 상곤이 상을 떨치고 일어나 진주성으로 달려왔다. 왜

---

26) 어느 장수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27) 석주잔도(石柱棧道)를 가리키는데 '석주관(石柱關)' 이라고도 한다.

적이 물러간 다음 날 성에 들어가 공(김천일)의 시신(屍身)을 찾았으나 10여일동안 찾지못하다가 촉석 아래에 눌러 있는 침보를 보고 돌을 들어내어 빼내니 안쪽에 칠언장시(七言長詩) 17운(韻)이 있었다. 이는 공이 심유경에게 화의(和議)를 배척하고자 지어 준 것이었다. 이 일이 알려지니 임금께서 크게 애통해 하자 승정원(承政院)이 계(啓)하기를 '김천일은 앞장서 창의하여 2년이나 활쏘기를 다해 그 공이 심히 큽니다. 지금 또 절의(節義)로써 죽었으니 먼저 포증(褒贈)하여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발(奮發)토록 하십시오.' 하니 임금께서 '옳다.' 하여 마침내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의금부판사(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 義禁府判事)를 추증하였다.

슬프다. 정해년(丁亥年 : 1587) 봄, 녹도만호 이대원(李大源)이 죽었는데 공(公 : 김천일)이 임금에게 상소(上訴)를 올렸다. 무자년(戊子年 : 1588) 여름, 왜장(倭將) 풍신수길(豊臣秀吉)이 화(和)를 구하는 소를 올리자 공은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에게 글을 써 보내어 방어의 책략과 화의를 허락하는 잘못을 극언하였다. 임진년에 이르러 창의하여 마침내 왜적을 치다 죽으니 그가 주화론(主和論)을 보는 시각은 왜적을 불러 나라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죄라고 여긴 즉, 같은 하늘을 이고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서애의 《징비록(徵毖錄)》[28]에는 진주성의 함몰(陷沒)은 오로지 김창의사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고, 또 죽음에 임하여 통곡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고 하였는데 서애의 뜻이 어떠한데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가려보고자 한다.

지난 2백여년 동안 백성들은 병사(兵事)를 몰랐는데 변이 창졸 간에 일어나자 상하(上下)가 어찌할 줄 몰라하여 왜적 보기를 승냥이나 들개 보듯이 하였는데 공이 창의함으로부터 의로운 무리들이 왜적을 향해 싸우다 죽기 시작했다. 의로운 소리가 하늘에 가득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투어 떨쳐 일어나, 사대부(士大夫)로서

---

28)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의 임진왜란에 관한 수기(手記)로 16권 7책, 목판본이다. 우리나라 국보(國寶) 제13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1592년-1598년까지의 기사인데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저술한 것으로 임진왜란 뒤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치달아 오고, 선비들은 지팡이를 끼고 두루마기를 찢으면서 치달아 오고, 관군은 의병이 자기들에 앞설 것을 겁내고 무부(武夫)는 문사(文士)가 그 공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여 용기를 내어 성에 오르는 자들이 곳곳에서 봉기(蜂起)하였으나, 역적(逆賊)들의 화(禍)[29]가 넘쳐나 인심이 무너지고 사유(四維)[30]를 펴지 못하여 선비의 기운이 움츠려 들었다.

변이 일어나자 갑자기 모든 시선이 외면하고 병졸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어찌 장수들이 우리를 구속(拘束)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노예(奴隷)된 자들은 '사족(士族)이 어찌 나보고 천(賤)하다 하겠는가?' 하고 노복(奴僕)들은 '주인이 어찌 나를 부릴 수 있겠는가?' 하니 자식된 사람으로서 그 아지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우로서 그 형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흩어져 토옥(統屬)됨이 없으니 어찌 왜적과서로 다름이 있다고 하겠는가? 공이 윤리(倫理)와 기강(紀綱)을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죽은데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부자(父子)와 군신(君臣)과 상하(上下)의 직분을 하루라도 잊을 수 없고, 또한 난리로 말미암아 (윤리와 기강을) 폐함도 불가함을 알았다. 무뢰한 무리들이 서로 경계하여 살피고, 불량한 사람들은 점점 무리를 이룸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니, 여러 장수들이 (이들을) 장부(帳簿)에 올려 부대를 이루고 열읍(列邑)은 (윤리와 기강의) 중함을 빌려 백성들을 다스렸다.

대가(大駕 : 임금이 탄 가마)가 서쪽으로 옮겨가고, 나라의 맥(脈)이 가운데서 끊어져 영호남의 소식이 행조(行朝)에 알려지지 않았고, 행조의 명령이 막혀 영호남에 전해지지 않으니 마치 사람이 배가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기맥(氣脈)이 막혀 통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공이 강화도(江華島)에 주둔하면서부터 수륙(水陸)으로 이어지게 되니 하삼도(下三道)의 주현(州縣)이 비로소 임금이 계신 곳을 알게 되고, 배

---

29) 이 무렵 일어났던 사건으로는 정여립(鄭汝立)의 모역 사건(1589) · 호남 군병의 난(1592. 5., 옥과현 및 순창현의 군병들이 담양부와 순창군을 습격) · 국경인의 난(1592.7., 회령의 土官 鞠景仁이 왕자 임해군 등을 붙잡아 왜적에게 넘겨준 사건) · 송유진(宋儒眞)의 난(1596) · 이몽학(李夢鶴)의 난(1596.7.) 등이 있다.

30) 예(禮) · 의(義) · 염(廉) · 치(恥)를 가리킨다.

를 통해 소식들이 행재소(行在所)에 도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며, 명령이 하삼도에 통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삼보(三輔 : 三道)의 유민(流民)들이 역적의 뜻을 버리고 임금에게 순종(順從)할 것을 취하게 한 것은 공이었고, 두 서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입을 열어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공이며, 10세(十世)의 임금과 왕비(王妃)의 묘(墓)가 파해쳐짐을 면하게 한 것도 공이니 졸지에 흩어졌던 남은 병사들이 씩씩하게 오랑캐를 쫓아 영해(領海)로 내려와 고단한 몸으로 왜적의 길을 막아 호남을 온전하게 하였다. 서로 8일 밤낮을 의지하며 지키니 왜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왜적의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비록 불행하게도 지키지 못하였으니 올빼미나 돼지처럼 돌진(突進)하는 선봉을 꺾고 사그라들게하여 호남을 몇 걸음도 넘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일등(一等)의 공(功)은 김공을 빼면 누가 있는가?

옛날 송(宋) 나라 때 사마공(司馬公 : 중국의 역사가 司馬光을 가리킨 듯)이 장순(張巡 : 중국 唐 나라 사람, '安祿山의 난'을 토벌)을 논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내려준 것을 이르러 재주(才)라 하고, 사람이 따라서 이룬 것을 의로움(義)이라 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크게 이룬 것을 공로(功勞)라 한다. 날카롭고 해박(該博)하며 주먹이 민첩하고 날쎈 것은 재주가 아니다. 저자거리의 수천 사람을 몰아 오랑캐 100만을 꺾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게 하고, 지켜서 함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히 재주라 할만하다. 무리들을 죽게 하고 고아(孤兒)를 남게 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군신(君臣)이 큰 직분을 밝히고 천하의 대의(大義)를 알려 죽어서도 변하지 않음을 지킬 때 가히 의로움이라 할 수 있다.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이 많은 것과 포로(捕虜)로 잡고, 목벤 사람이 많은 것이 공로는 아니다. 천하의 목구멍을 눌러 천하의 대사(大事)를 만전하게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이미 기울었서도 바로 세우고 이미 망한 것을 존속(存續)할 수 있게 함을 이르러 공로(功勞)라 한다.' 하였으니 공의 재주와 의로움과 공로가 사마공의 말에 딱 들어맞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논은 공이 강도(江都 : 강화도)를 지키러 간 것을 꾀하러 간 것으로 보니 한심스럽다.

아! 아! 공이 홀로 의병을 일으킨 처음에 호남 일도는 바야흐로 (싸움에서 비껴

난)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 공이 난을 피하는 계책(計策)을 세웠다면 도리어 여유(餘裕) 있는 곳에서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필 외로운 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난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는가? 공이 진주성에서 죽은 것을 쓸데없이 사람 목숨을 죽인 것이었다 하니 한심스럽다. 이 성을 쌓고 연못을 팠던 것은 장차 (이 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려고 한 것인가? 하물며 공이 진주를 지키지 않았던들 왜적의 선봉이 꺾이지 아니하여 곧 호남의 50여 성이 물고기 살처럼 되어 폐해(弊害)가 진주성보다 훨씬 심하였을 것이다. 한 도(道)의 사람 목숨의 많고 적음이 어찌 한 성의 백성 목숨과 같겠는가? 금세(今世)에 성인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처럼 할뜯으니 그 나머지는 어찌 말하겠는가?

명 나라 장수이자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도독(都督) 이여백(李如柏)이 공을 처음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진정한 충의지사(忠義志士)구나.' 라 하고 접대(接待)하여 모시기를 극진히 하고 형군문(刑軍門)의 호(鎬)가 패문(牌文)을 본국에 올려 말하기를 '김천일과 조헌(趙憲)의 충성스러운 혼백(魂魄)은 늠름히 아직 있습니다.' 한 바 공이 명절(名節)은 우리 나라 사람들만이 우러른 바 아니고 중국 사람의 염모(艶慕)하는 것도 이와 같았다. 무릇 내가 들으니 진양(晋陽 : 晋州)의 포위가 거의 10일 동안이었는데 안에서는 성을 견고히 지켰으나 바깥의 지원(支援)이 이르지 못해 힘을 다한 연후에 함몰되었으나 굴하지 않았으니 이 싸움에 왜적이 많이 죽어 강(바다)을 건너지 못하고, 서족으로 길을 막아 호남으로의 길을 막은 공로가 있는데 어찌 순원(巡遠 : 張巡과 許遠)의 짝이 아니겠는가?

슬프다. 여러 장수들로서 죽음으로 의리(義理)를 지킨 것이 명백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충신열전(忠臣列傳) 및 제공 기사(諸公記事)에 빠져 있는 것이 많으니 무능한 사람이 참된 사람과 섞여 있다는 허물을 면하지 못하였다. 내가 이 때 나이 약관(弱冠)을 넘어 의병의 진(陣)에 출입해서 비교적 상세히 아는 까닭에 병신년(丙申年 : 1596) 간에 조잡하게 그 일의 전말(顚末)을 기록하여 영구히 없어지지 않기를 도모했으나 말이 아둔하고 문장(文章)이 거칠어 뜻이 통하지 않았는데 근래 《오성

일기(鰲城日記)》를 얻어 서로 더하고 고증(考證)한 즉 내가 기록한 것과 대략 서로 부합(附合)하니 그 문장을 다시 다듬고 윤색(潤色)을 가해 이름하여 《진주서사(晋州敍事)》라 하였다. 무릇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폐언(廢言)이라 하지 말고,[31] 만약 들은 바 있거든 첨가(添加)하여 증보(增補)함으로서 정충장절(精忠壯節)[32]이 멸망해서 전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 이 사람의 구구(區區)한 소원이다.

---

31)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하여 그 사람이 한 말까지 무조건 버리지는 말라는 뜻
32) 자기를 돌보지 않는 순수한 충의(忠義)와 장엄한 절의(節義)

백사기사(白沙記事)*

계사년(癸巳年 : 1593, 선조 26) 6월 15일 왜적 장수(將帥) 가등청정(加藤清正 : 가도오 기요마사)[33]이 여러 병력을 합하여 30만이라 과장(誇張)을 하나 혹자는 7-8만이라 한다. 동래(東萊)와 부산(釜山)에서 출발하여 수륙(水陸)으로 함께 전진하여 바로 진주(晋州)로 향했다. 그 때 유총병(劉摠兵) 정(綎)[34]과 오 유격(吳遊擊) 유충(惟忠)[35]은 대구(大邱)에 있고, 낙 참장(駱參將) 상지(尙志)[36]와 송 유격(宋遊擊) 대빈(大斌)[37]은 남원(南原)에 있고, 왕 유격(王遊擊) 필적(必迪)[38]은 상주(尙州)에 있고, 심 유격(沈遊擊) 유경(惟敬)[84]은 바야흐로 평행장(平行長 : 고니시 유끼나가)의 왜영(倭營)에 있으면서 왜적과 더불어 강화(講和)를 논하고 있었는데 송 경략(宋經略) 응창(應昌)은 서울에 있었다.

글을 유경에 보내 책망하기를 '네가 이미 왜적으로 하여금 바다로 내려가게 하고 왕자(王子)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말하였는데, 왜적이 아직도 여기에 주둔하고 있으

---

*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2차 진주성 싸움에 대하여 자신이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33) 일본 미장국(尾張國)의 평민인 가등청충(加藤清忠)의 이들이다. 풍신수길 밑에서 여러 차례 무공(武功)을 세워 비후(肥後)의 반극(半國) 25만석의 영주(領主)로서 구마모토성(熊本城)을 다스렸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 2번대의 지휘관으로 함경도 지방의 공략을 담당하였다.

34) 중국 명(明) 나라 장수(將帥)로 도독(都督) 현(顯)의 아들이다.

35) 중국 명 나라의 장수로 호는 운봉(雲峰)이다. 임진년(壬辰年 : 1592) 12월 압록강을 건너 울산전투(蔚山戰鬪) 등에 참가하였다.

36) 중국 명 나라의 장수로 절강인(浙江人)이다. 그느이 호는 운곡(雲谷)이다. 임진왜란 때 참장(參將)으로 병력 3천명을 거느리고 이여송(李如松)의 부장을 맡아 평양전투에 참가 큰 공을 세웠다.

37) 중국 명 나라의 장수로 호는 양허(養虛)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유격장으로 마병(馬兵) 2천을 거느리고 각지에서 큰 공을 세웠다.

38) 중국 명 나라의 장수이다. 그는 부총병으로 평양성전투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39) 중국 명 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의 강화(講和)를 성사시켰다.

며 노략질을 마지않으니 너는 반드시 도로 왜적의 군영(軍營)에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장차 글을 병부(兵部)에 보내 엄히 추궁하여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니 유경은 글을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에 전하여 말하기를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려는 계획은 그들이 지난 해에 여기서 피해를 많이 입어 심히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물며 귀국(貴國)의 군대가 여러 차례 일본의 병력을 죽여 그들 장령(將領)이 관백(關伯)에게 알리니 관백이 너희들은 진주를 공격하고 성지(城池)를 쳐부수어 전일의 원한을 씻어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소서행장(小西行長 : 고니시 유끼나가)은 본부(本府)를 보고 말하되, 진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라. (가등의 군이) 성이 비어있음을 보면 곧 철수하여 동(東 : 일본)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하였다.' 고 하였다.

유경이 왜적의 군영을부터 돌아왔는데 따라갔던 통사(通使) 이유열(李愉悅)이 말하기를 '가등청정이 이 일을 힘써 주장하여 풍신수길(豊臣秀吉)에게 말하고 기필코 진주성을 함락하고야 말겠다고 했다.' 고 하였다. 행장을 힘써 이를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 까닭에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 : 우끼다 희데이에)와 소사행장과 석전삼성(石田三成 : 이시다 미즈나리)과 대곡길계(大谷吉繼 : 오따니 요시쓰구) 등은 (이 싸움에 함께) 가지 않고 종의지(宗義智 : 소오 요시토시)만이 갔으나 도중에 역시 중지하고 가지 않았다. 행장이 유격(遊擊)을 양산(梁山)으로 보내면서 손을 잡고 이별하며 말하기를 '내가 청정을 힘껏 말렸으나 듣지를 않는다. 그러나 진주에만 그칠 뿐 다른 곳은 걱정없을 것이다.,' 고 하였다.

김명원과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 : 1543-1621)[40]이 심유경을 보고 '진주 사태가 급하니 힘껏 구하여 줄 것을 바란다.' 고 말하였다. 유경이 말하기를 '행장과 더불어 종일토록 간절히 말하니 행장의 뜻도 역시 그러하지만 다만 그 형세가 이미

---

40) 그의 자는 면숙(勉叔)이고, 호는 월탄(月灘)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임진왜란 때 영해 전투에서 왜군을 격파하여 경상좌도관찰사에 특진 순찰사를 겸임하였다. 군량미 조달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뜻을 돌릴 수 없었으니 어찌 하리오. 다른 계책(計策)은 없고 다만 진주의 여러 장수가 성을 비우고 잠간 피하였으면 한데 내말을 듣지 않으니 어지하겠습니까?' 라 하였다.

때에 변보(邊報)가 매우 급하게 되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군사 3백을 거느리고 달려 14일 진주에 들어오고,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이 군사 7백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군사 5백을,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가 군사 4백을, 의병장(義兵將) 장윤(張潤)이 군사 3백을, 의병장 이계연(李繼璉)이 군사 1백을, 의병장 변사정(卞士貞)이 그의 부장(副將) 이잠(李潛)으로 하여금 군사 3백을, 의병장 민여운(閔汝雲)이 군사 2백을 각각 거느리고 먼저 와 모였으며, 본주 목사(本州牧使) 서예원(徐禮元)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 등은 바야흐로 성 수비를 의논하였다.

19일 전라병사(全羅兵使) 선거이(宣居怡 : 1550-1598)[41] 및 홍계남(洪季男) 등도 와 모여 '왜적의 수는 많고 우리의 수는 적으니 물러가 내면(內面)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고 하자 김천일이 항거하여 중지하였다. 이에 선거이와 홍계남 등은 성을 나가 운봉(雲峰)에 진(陣)을 쳤다.

21일 적 2백여 기가 동북(東北) 산 위에 출몰하였다.

22일 진시(辰時 :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왜적 5백여기가 북산(北山)에 올라 진을 치며, 병력을 과시하였으나 성 가운데에서는 병력을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았다. 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큰 무리가 계속해 이르러 군을 이기(二起)로 나누어 일기(一起)는 개경원(開慶院) 산 허리에 진을 치고, 일기는 향교 앞 길에 진을 쳤다. 첫 번 교전(交戰)에 성 가운데에서 2십여명의 왜적을 쏘아 죽이니 왜적이 물러갔다. 날이 어두어지자 다시 (왜적이) 돌진해 와 오랫동안 크게 싸웠다. 한참

41) 그의 자는 사신(思愼)이고, 호는 친친재(親親齋)이며, 본관은 보성(寶城)이다. 1591년 전라도수군절도사를 역임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병사가 되어 여러 전투에 참가 많은 공을 세웠다. 1593년 2월 행주산성전투에 참가하였고, 1598년 율산전투에 참가하여 명 나라 장수 양호(楊鎬)를 도와 싸우다 전사하였다.

뒤 이경(二更)에 이르러 퇴각했다가 삼경(三更)에 이르러 다시 돌진해와 오경(五更)에 이르러 비로소 물러갔다. 이에 앞서 성 가운데에서는 적장(敵將)이 이른다는 소문을 듣고 촉석(矗石)과 남강(南江)이 가장 험하니 왜적이 반드시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서북쪽은 위험하니 호(濠)를 파 그 밑에다 물을 저장하고, 다만 동편 한쪽은 왜적의 침범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왜적은 호를 터버리고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흙을 져다 메워 대로(大路)를 만들었다.

23일 세 번 싸워 세 번 물러났고, 또 밤에 네 번 싸워 네 번 물러났다. 왜적들이 밤을 타 한꺼번에 큰 소리를 지르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으나 성 가운데서는 마구 쏘아 죽은 사람이 그 수를 기록할 수 없었다.

24일 왜적이 군사 5-6천을 증가시켜 마현(馬峴)에 진을 치고, 또 병 5백을 더하여 동편에 진을 쳤다.

25일 왜적이 동문밖에 흙을 메워 산을 만들고, 인하여 흙집을 지어 성 가운데를 굽어보며 탄환을 비처럼 퍼부으니 충청병사 황진(黃進) 역시 성 안에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밤새도록 의관(衣冠)을 벗고 친이 흙을 져나르니 성 가운데 남녀가 감격하여 울며 힘을 다해 하루 밤에 마쳤다. 이 날 또 세 번 싸워 격퇴하고 밤에는 네 번 싸워 격퇴하였다.

26일 왜적이 나무로 궤작을 만들어 생피(生皮)로 싸 각각 스스로 이고 지고서 탄환과 화살을 방어하며 진격하여 성을 무너뜨리니 성 가운데에서는 큰 돌을 굴러 내리며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다. 왜적이 곧 물러났으나 또 두 큰 나무를 동문밖에 걸치고 위에다 판잣집을 설치하고 많은 불을 성 안에 던지니 초옥(草屋)이 한꺼번에 연소(燃燒)되어 연기와 불길이 하늘에 치솟자 목사 서예원(徐禮元)은 무섭고 겁이 나서 쓰러졌다. 김천일이 의병장 장윤으로 가목사(假牧使)를 삼았다.

이 때 하늘이 큰 비를 내리니 궁시(弓矢)는 풀어지고 병력은 이미 피곤해졌다. 왜적이 글을 성 가운데로 던져 이르기를 '대국의 병사도 역시 항복을 하였거늘 너희 나라가 감히 항거할 터인가?' 하였다. 성 가운데에서 답하되 '우리는 참으로 죽기로

싸울 뿐이다. 하물며 명 나라 군사 30만이 지금 곧 추격해 오니 너희를 다 죽이고 남기지 않으리라.' 하였다. 왜적이 넓적 다리를 걷고 두드리며 말하기를 '명 나라 군사는 이미 다 물러갔다.' 고 하였다. 이 날 세 번 싸워 세 번 물리치고 네 번 싸워 네 번 물리쳤다.

27일 왜적이 다섯 개 언덕을 동서 양문밖에 쌓고 대나무를 엮어 책(柵)을 만들어 성 가운데를 내려다보며 탐환을 비처럼 퍼부어 성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이 3백명이 넘었다. 또 나무 궤짝을 만들고 사륜거(四輪車)를 만들어 왜적 수십명이 각각 철갑(鐵甲)을 입고 궤짝을 끼고 전진하며, 철추(鐵錐)로 성을 허물었다. 이 때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이 힘으로는 군중에서 으뜸이었는데 연거퍼 다섯명의 왜적을 죽이니 나머지는 다 도망하여 달아났다. 성 가운데 사람들이 불꾸러미에 기름을 부어 던지니 궤짝 안의 왜적이 다 타 죽었다. 초경(初更)에 왜적이 다시 북문을 침범하자 이종인은 구 부하와 함께 힘껏 싸워 물리쳤다.

28일 날이 밝자 이종인이 돌아와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날 밤 서예원이 경계를 잘못하여 왜적이 몰래 성을 파 성이 장차 무너지게 되었다. 이종인 크게 노하여 책망하였으나 왜적은 성 밑에까지 박두하여 왔다. 성 가운데 사람들이 자못 죽기로 힘껏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왜적의 추장(酋長) 하나가 탄환을 맞고 죽으니 왜적이 그 시체를 끌고 갔다. 황진이 성 밑을 굽어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싸움에서 왜적을 천여명 넘게 죽였다.' 고 하였다. 그 때 한 왜적이 몰래 성 밑에 엎어져 있다가 쳐다보고 쏜 것이 판자를 맞고 튀어 (황진의) 왼쪽 이마를 맞추었다. 그 때에 황진과 장윤이 가장 명망이 높고 힘껏 싸워 여러 장수의 우두머리였으므로 온 성 (사람)이 믿고 의지하였는데 황진이 이제 탄환을 맞아 죽자 성 가운데가 흉흉하였다.

29일 서예원으로 황진을 대신하여 성을 순시케 하니 서예원은 겁이 나서 전립(戰笠)을 벗고 말을 타고 울며 갔다. 병사 최경회(崔慶會)가 서예원이 군중을 경동(警動)시킨다 하여 장차 베어 죽이려다 중지하고, 장윤으로 대신케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장윤 역시 (왜적의) 탄환을 맞고 죽었다. 얼마 뒤 동문의 성장(城子)가 비로 말미

암아 퇴락되자 왜적이 개미떼처럼 붙어 올라왔다. 이종인이 천병과 함께 궁시(弓矢)를 버리고 창도(槍刀)로 (왜적과) 서로 육박전(肉薄戰)을 하여 죽은 사람이 산처럼 쌓이므로 왜적이 물러갔다.

또 서북 문에서 (왜적이)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니 창의사의 군사도 흩어져 모두 촉석루(矗石樓)로 모였다. 왜적이 성에 올라 칼을 휘두르며 날뛰니 서예원은 먼저 도망하고 여러 군사도 흩어졌으며, 이종인은 탄환을 맞고 죽었다. 좌우(左右)가 김천일을 붙잡아 일으키며 물러나 피할 것을 권유(勸諭)하였으나 김천일은 굳게 앉아 움직이도 않은 채 돌아보며 '나는 마땅히 여기서 죽으리라.' 하고, 드디어 그의 아들 상건(象乾)과 서로 안고 강에 빠져 죽었다.

왜적이 본성을 도륙(屠戮)하여 평지를 만들었으니 성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이 6만이 넘었다. 뒤에 감사(監司) 김륵(金)이 사근찰방(沙斤察訪) 김정(金瀞)으로 하여금 살펴 보게 한즉 성 가운데에 쌓인 시체는 천이 넘었고, 촉석루(矗石樓)로부터 남강 북쪽 언덕에 이르기까지 시체가 서로 베개하고 쌓여 있었으며, 청주강(菁州江)으로부터 무봉(武峯)에 이르는 5리(五里) 사이에 죽은 사람이 강을 메웠다고 하였다.

최경회(崔慶會)의 창의(倡義)

1.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의 자(字)는 선우(善遇)이고, 능성현(綾城縣 : 지금의 全南 和順 綾州)에 살았으며, 문과(文科)에 등제하였다. 임진년(壬辰年)에 모친상을 당하여 집에 머물고 있었다. 고초토(高招討 : 高敬命을 가리킴)가 패하여 죽음에 여러 장사들이 다시 이 때 공(최경회)을 맹주(盟主)로 추대하였다. 때에 진보(眞寶) 현감이었던 임계영(任啓英)이 의병을 일으켜 좌도 제군(左道諸軍)을 거느려 좌의병(左義兵)이라 하고, 공은 우도 제군(右道諸軍)을 거느려 우의병(右義兵)이라 하였다. 이에 함께 군을 통솔하여 영남에 들어갔다. 공이 처리하는 일은 정민(精敏)하고 호령은 엄명(嚴明)하여 사람들이 모두 공을 믿고 따르는 바 되었다. 계사년(癸巳年 : 1593) 병사를 이끌고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갔다. 왜적에 의해 성(城 : 晋州城)이 함락되자 막하사(幕下士) 문홍헌(文弘獻) 등과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좌찬성이 증직(贈職)되고, 자손들에게 벼슬이 주어졌다. 왜적이 물러간 뒤 향인(鄕人)들이 사우(祠宇)를 세워 충렬사(忠烈祠)라 하였으며, 사액(賜額)과 정려(旌閭)를 받았다.(호남의록)

2.

이 때 선생은 모친상(母親喪)에 처해 있어 기력(氣力)이 시훼(柴毁)하였기에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싸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먼저 조카 지평(持平) 홍재(弘載)로 하여금 향병(鄕兵) 500명을 거느리고 금산(錦山) 전투에 나가도록 하였다. 고공(高公 : 高敬命)께서 이미 패하였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막하(幕下)의 장수 문홍헌(文弘獻) 등이 흩어져 도망한 군사를 수습하고 와서 공

에게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선생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양친께서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 한 몸을 나라에 바쳐야 하겠다. 경(經)을 버리고 변례(變 禮)로 효도(孝道)를 옮겨 (국가에) 충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길일 것이다.' 고 하였다.

마침내 그 해 7월 궤연(筵)에 곡(哭)하고 검은 상복(喪服) 차림으로 단(壇)에 올라 우의병(右義兵)이라 부르고 백형(伯兄) 진사(進士) 경운(慶雲)과 중형(仲兄) 장악정(掌樂正) 경장(慶長)과 함께 청(廳)을 마련 의병의 모집 병력(兵力)을 키우는데 도와 주었다. 행재(行在)에 알리고 열읍(列邑)에 격문(檄文)을 보내었는데 멀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호응해오니 군사들의 사기(士氣)가 드높만 갔다. 한달만에 병력이 5,000명에 이르렀고 군량(軍糧) 역시 6-700섬이 되었다.

(선생은) 드디어 단상에 올라가 무리들과 맹세하고, 전부장(前部將)을 판관(判官) 송대창(宋大昌)으로, 좌부장(左部將)을 군수(郡守) 고득뢰(高得賚)로, 후부장(後部將)을 현감 허일(許鎰)로, 우부장(右部將)을 결력(經歷) 권극평(權克平)으로 하였다. 그리고 아들과 조카를 보좌관으로 삼고, 진사(進士) 문홍헌을 참모로 삼았으며, 골(鶻)자로 표지(標識)를 삼아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이라 부르게 하였다. 크게 노문(路聞)을 발하고 즉시 경기도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그 때 본도9本道) 감사(監司) 권율(權慄)이 관문(關文)을 보내와 의병을 이끌고 금산(錦山)과 무주(茂朱)로 가 왜적을 막도록 하였다.(일휴당집 임진년 7월 26일 14張)

3.

8월 마침내 장수(長水)에다 진을 치고 정예병(精銳兵) 5백명을 뽑아 여러 장수와 함께 전주(全州) 등지에 있는 왜적을 치게 되었는데 과연 무주(茂朱)에 있는 주둔하고 있던 왜적과 마주치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 볏짚을 묶어 말에다 싣고 사람은 그 뒤에 앉아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게 하였다. 때에 밤은 깊고 짙은 안개가 하늘에 가득찼는데 왜적들이 크게 놀라 혹은 조총(鳥銃)을 쏘기도 하고 혹은 강한 활을 쉬지

않고 쏘아댔다. (왜적의) 탄환과 화살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곧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 용감한 병사 백여명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조랑말을 타고 칼과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공격하게 하였다.

왜적들은 이미 탄환과 화살이 떨어져 방어할 방법이 없어 대패하고 후퇴하여 소굴로 기어들어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바다를 건너 온 뒤 골자(字) 부대가 가장 두렵구나.' 하였다. 하루는 척후병(斥候兵)이 보고하기를 '금산(錦山)의 성 안에 새가 날고 까치가 지저귈 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고 하자 기병(騎兵)을 보내 살펴 보게 하였더니 (과연 적들은) 우물을 메우고 부엌 아궁이 막고 후퇴하고 없었는데 여기 저기 말을 먹였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얼마 뒤 (왜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무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어제 밤 금산에 있던 왜적이 깃발을 거두고 무기를 이끌고 무주로 와 무주에 있던 왜적과 함께 도망쳤다.' 하였다. 그 뒤 금산에 있던 적들이 모두 대군을 일으켜 곧바로 전주로 향하였다.

선생은 여러 대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곳 지형이 길은 좁고 산이 험악하므로 왜적들은 반드시 장사진(長蛇陳)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고는 '우리의 여러 대장들은 이렇게 하라.' 고 일러 주었다. 장수 한 사람에게 '그대는 사기(蛇旗)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형세를 보아 지휘하여 왜적의 중간을 치라. 이것이 도한 병가(兵家)의 일책(一策)이다.' 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듣고 물러갔는데 과연 정오(正午)무렵 많은 왜적이 한꺼번에 이르렀다. 의군(義軍)이 갑자기 일어나 산꼭대기에서는 북과 나팔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화살과 돌들을 비처럼 쏟아 부었다.

우리 아군(我軍)은 높은 지대(地帶)를 찾이하고 있고, 왜적들은 아래에 있어 서로 맞설 수가 없었다. 왜적의 진이 가운데서 끊어지고 복병(伏兵)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앞 뒤에서 (왜적을) 찍어대니 왜적들은 앞 뒤가 서로 연결될 수 없어 도망치려는 자들이 서로를 짓밟아 왜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승승장구하여 날마다 습격하니 금산의 왜적들은 패하여 도망가고 말았다. 즉시 날랜 기병을 보내 왜적의 뒤를 쫓았

는데 (왜적의) 선봉은 이미 우지치(牛旨峙)를 넘어가고 있었다. 또 요충지(要衝地)마다 군사를 잠복시켰는데 적장 하나가 군사 수십명을 이끌고 왔다. (그 적장은 몸에다) 수은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황금 투구를 썼으며, 등에는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를 짊어지고 손에는 한자 여덟치되는 언월도(偃月刀)를 들고는 백마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다. 공이 2백보 남짓 떨어진 곳에서 강한 활을 당겨 쏘니 그의 턱에 정통으로 맞았다. 공은 용기를 뽐내며 전진하여 그 그림과 칼을 빼앗았는데 그 그림은 바로 공민왕(恭愍王)이 그린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명품이었다. 칼은 왜적들이 자웅신검(雌雄神劍)이라 자랑하는 칼 가운데 하나였다. 이 뒤부터 군성(軍聲)이 크게 높아져 앞을 가로 막을 자가 없게 되었다.(일휴당집 임진년 8월 15일 15장)

4.

9월 22일 좌우의병장(左右義兵將)이 무주(茂州)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남원(南原)으로 와 진을 쳤다. 최장군은 객사(客舍)의 서쪽에다 진을 치고 임병(任兵 : 任啓英의 兵士)은 광한루(廣寒樓)에다 진을 쳤다.

10월 2일 경상우순찰사(慶尙右巡察使)가 첨정(僉正) 조종도(趙宗道)를 보내 전라좌우의병 및 장수에게 원군을 요청하니 우의병장 최경회의 군사는 남원을 출발하여 운봉(雲峰)을 거쳐 함양(咸陽)과 산음(山陰)으로 향하였다.(일휴당집 임진년 9월 22일 19장)

5.

진주성을 지킬 때 공이 관군(官軍) 및 여러 의병 제장들과 함안(咸安) 등지에서 입성(入城)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심유경(沈惟敬)의 말을 듣건대 진실로 먼저 성을 비워 왜적의 에봉(銳鋒)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하니 공이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의 뜻대로 한다면 왜적이 영남(嶺南)을 침범하면 호남(湖

南)으로 피하고, 왜적이 호남으로 침범하면 호서(湖西)로 피하면서 한결같이 성을 비워주고 그 예봉을 피해야 하겠는가?' 하였다.(일휴당집 계사년 6월 27장)

6.

진사(進士) 문홍헌(文弘獻)의 자는 여징(汝徵)이며, 능성(綾城)에서 살았다. 효(孝)와 우애(友愛)의 행이 있었으며, 믿음과 의리가 있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때에 호남의 사류(士類)들이 각 당(黨)으로 분립하여 서로를 배척하였는데 오직 여징만이 화평(和平)을 논하였다. 이에 경향(京鄕)에서 남쪽의 인물에 대해 말이 미치게 되면 반드시 여징을 으뜸으로 쳤다. 임진년의 변이 일어나자 동지 약간명과 더불어 고경명(高敬命)군에 종사(從事)하였으나 금산(錦山)에서 패하자 또 병사 최경회를 맹주로 추대하고 여징을 막하의 참모가 되었다. 군의 모든 일을 여징이 처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계사년(癸巳年 : 1593, 선조 26) 6월 의병 제장들이 함안(咸安)으로부터 진주성에 들어가고자 하였는데 병사 최경회가 여징에게 말하기를 '군(軍)의 무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무익(無益)하니 본도(本道)로 바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함만 못하다.' 고 하였다. 여징이 '이미 함께 의(義)를 행하기로 하였는데 홀로 살지 않겠다.' 라 하며, 드디어 성으로 들어갔다. 성이 함락되자 최병사와 함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적이 물러나자 본현의 선비들이 재차 삼차 소를 올려 정문(旌門)을 세워줄 것을 청하였으나 감사(監司)와 수령(首領)이 예사로운 일로 밀쳐 둠으로서 마침내 포전(褒典)을 입지 못하였다.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사람으로서 원통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뒤에 여러 사람들이 사사로이 중론(衆論)을 모아 최병사(崔兵使 : 崔慶會) 사우에 함께 배향하였다.(호남의록)

7.

도광(道光) 13년 계사(癸巳) 3월 임신(壬申) 삭(朔) 11일 임오(壬午) 국왕(國王)

께서 신하 (臣下) 안광찬(安光贊)을 보내 돌아가신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의 영혼(靈魂)에 제사(祭祀)하도록 유시(諭示)하심

오직 영령(英靈)께서는

선조(宣祖) 임금 때 신하가 있었더니 그를 '충의(忠毅)'라 하였더라. 집안 대대로 마당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와 의(義)로움을 전해 내렸기에 재주가 문무(文武)에 두루 능하였도다. 이러한 쓸모 있는 재능(才能)을 안고 있으면서도 감취두고 자랑하지 않더니 늦게야 조정(朝廷)에서 벼슬길에 올라 주(州)와 군(郡)에 나가 한가로이 살았도다.

운(運)이 나빠 불행(不幸)한 재앙(災殃)을 만났음에 섬 나라 오랑캐들이 꿈틀거리며 법석을 부렸다. 남쪽 지방이 오랫동안 시끄러우니 팔도강산(八道江山)이 놀라 들썩거렸고, 임금님 타신 수레(御駕)가 서쪽으로 피하실 때 쳐다보며 눈물을 훔쳤도다.

검은 띠를 두르고 단상(壇上)에 올라 의병(義兵)을 모아 권율(權慄) 장군을 따르니 용맹스러움이 육분(育賁)[42]과도 같이 죽고 살기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좌우로 짓밟고 쳐부수니 금산성(錦山城)의 도적(盜賊)들이 먼저 도망가도다. 화살 한 발로 적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리고 칼도 빼앗았네. 작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과 싸워 향하는 곳마다 풀을 베듯 쓰러뜨렸다.

갑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우뚝하게 울타리 노릇을 하였으니 경이 저들의 업신여김과 행패를 막지 않았더라면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땅이 그 모두 사로집힌 물고기 꼴이었으리라.

오직 계사년(癸巳年)에 이르러선 전에 한번 패하였기로 이번엔 흙먼지를 말아 일으킬 기세(氣勢)로써 힘을 모아 다시 쳐들어 오므로 돼지 발굽처럼 더욱 사납고 살모사(殺母蛇)가 무는 형세(形勢)를 꺾지 못해 거듭 고립(孤立)된 성이 달무리처럼 에워싸여 위험이 한가닥 머리털 거리만큼 바싹 닥쳐온 듯하여 저 겁내는 자들은 탄

42) 중국 춘추(春秋) 전국(戰國) 시대의 용맹한 장수

식(歎息)을 하여도 경(卿)은 간(肝)이 커서 쇳덩이 같았도다.

하늘이 실제로 도우지 못해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꾀를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니 우리 세 선비(三壯士)도 같았더라.

조정에선 길이 은혜를 내렸고 하늘도 장차 경(卿)의 공덕(功德)을 찬양(讚揚)하여 신(神)께 명복(冥福)을 빌어 줄 것이로다. 의암(義巖)[43]이 거기 있고, 아리따운 낭자(娘子)[44]가 또한 거기서 삶을 불사르기를 기다리며 있었던가. 죽은 이의 넋이 이지러지지 않은 한 물결도 마르지 않으리라.

그 때의 그 해가 거듭 돌아왔음에 솟구치는 느낌이 새삼스레 생생하여 관아(官衙)에 시켜 재터(墠)에 술을 부어 올리게 하였으니 혼령(魂靈)께서 흠양(歆饗)하옵소서.

維道光十三年 歲次癸巳三月壬申朔 十一日壬午 國王 遣臣右兵使 安光贊 論祭于故忠毅公崔 慶會之靈

惟靈

奧昔島夷	大肆陸梁	列郡奔裂	八路搶攘
河北無士	中朝發嘆	有一堂堂	倡義登壇
000000	手彎虛發	壘必先壓	馬蹴旋起
而步而闕	會師于晋	糾合義旋	睢陽一城
爲江淮障	巡遠之守	以激諸將	巡我睥睨
援拘而撾	鑿濠儲水	飛砲燒車	同甘同苦
士激忘饑	出奇制勝	莫測端倪	志決身殲
匪謀不藏	大夫死耳	爲國之光	嗚呼忠烈
古郭與方	孤軍嬰城	如溫太眞	抗議立殣
若顔常山	風聲永樹	功績可紀	星霜屢換

43) 진주 촉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에 있는 바위키는데 논개(論介)가 이 바위 위에서 왜적의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으로 빠져 죽었다.

44) 논개(論介)를 가리키는 듯하다.

歲甲重屆　　晋水東流　　招英靈些　　風馬夕降
雲慘月黑　　飶香牲膴　　庶歆斯酌

8.

찾은 인장(印章)에 대해 임금께서 명(銘)하다

지난 백여년의 일을 추억(追憶)하건대 다행히 남강(南江)에서 얻은 인장(印章)이 전서체(篆書體)의 글자가 매우 뚜렷하도다. 촉석루에서 죽어간 의로운 열사(烈士)들을 상상(像想)하니 슬픔 뿐이다. 명(命)하노니 영남(嶺南) 땅을 다스리는 장군(將軍)의 직장(職場)에 보관하여 만년토록 전하리로다.

어제득인명(御製得印銘)

追憶往歲 百有餘年 幸得南江 篆猶宛然 矗石義烈 想像愴焉 命藏嶺滾 垂萬歲傳

9.

인장(印章)에 대해 임금께서 명(銘)하신 비문(碑文)

임진왜란 때 성이 무너지던 날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 공이 안고 강에 뛰어들었던 것인데 빠져서 묻혀버린 지 156년째(1747)인 금상(今上 : 英祖) 정묘년(丁卯年) 봄 비로소 강 가운데서 칼에 얽힌 채 얻었으니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때 병사가 받들어 조정에 올렸더니 임금께서 가르침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이 인장(印章)이 몇 해 동안 물에 잠겼다가 금년 봄에 얻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이상스럽기도 하고 또 귀중(貴重)한 것이기도 하다. 충신의 열렬한 기운(氣運)이 황홀(恍惚)하게

어른어른 인장에 광채(光彩)를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 다시금 오늘에 이 인장을 본 것이라 충신의 뼈는 오히려 강 속에 장사(葬事) 지냈어도 이제 이 인장을 보니 충신(忠臣)의 손으로 바치는 듯하므로 더욱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노라. 인장 위에 새겨진 연호(年號)가 황조(皇朝) 만력(萬曆)이라 되어 있으니 아득히 지나간 세월의 기억이 떠오른 듯하다. 지금의 우리 나라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황명(皇命)이 두 번 다시 만들어낸 은혜로운 일이니 특별히 그 일을 글로 지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절(禮節)과 관습을 삼으려는 생각으로 친히 인장을 얻은 명을 지으리라.' 하시고, 명령을 내려 제사를 올리게 하셨다. 아! 슬프도다.

임금께서 지으신 이 글을 마땅히 아래 돌에 새겨 전(傳)하노라.

병사(兵使) 백득우(白得雨) 공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남쪽으로 왔을 때 인장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워 탄식하였다. 일을 할 경비로 쓸 재물(財物)을 모으고, 공사에 힘써 온지가 20여년이나 되어도 아직 급하지 않은 일로 여겼던 것을 오늘에야 공사를 다 마치게 되었으니 임금께서 쓰신 글귀가 돌의 표면에 반들반들 빛나며 우리의 성왕(聖王)께서 영원토록 전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도 이에 더욱 빛이 찬란하니 무릇 공(최경회)의 의로움을 사모했던 깊은 뜻을 가히 볼 것이로다. 무릇 사실을 기록하는 글을 감히 사양(辭讓)치 못하고 삼가 그 시작과 끝의 경과를 서술하는 바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4정미(四丁未) 4월 일 중건(重建)

印章碑文

龍蛇之變 城陷之日 兵使崔公慶會 抱而投江 埋沒百五十六年 今上丁卯春 始得於江中 延劍捧 實非偶然 其時 兵使奉進于朝 下敎曰 此印幾年沈水 今春得來 可異又可貴

也. 忠臣烈烈之氣 恍若留帶印面 右印復見於今日 忠骨猶葬於江中 今覽此印 若忠臣之手獻 尤有追慕者 印上年號乃是 皇朝萬曆也. 遙憶往歲 顧令靑邱 寔 皇命再造之恩典特敍其事 以寓匪風下泉之思 親製得印銘 仍命致祭 噫

御銘之下 宜有鐫石之傳

兵使白公得雨 受節南下 撫印興慨 二十餘年 未遑之事 克擧於今日 而宸章煌於石面我聖上爲傳 萬歲之盛意於斯益彰 夫公慕義之深 亦可見矣. 夫記事之文 義不敢辭 謹敍其顚末焉.

崇禎紀元後四丁未 四月 日 重建

문헌(文獻)의 논개(論介)에 관한 기록들

오병무 편역
(순천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논개에 관한 고문헌(古文獻)의 기록

1.《어우야담(於于野談)》[1]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2]에 창의

---

1)《어우야담(於于野談)》은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본(筆寫本)이다. 한글본과 한문본(漢文本) 두 종류(種類)가 있는데 한글본의 역자(譯者)와 연대(年代)는 불분명하다. 이《어우야담》은 현재《대동야승(大東野乘)》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어우야담》필사본은 '장서각본(藏書閣本)'·'연세대본(延世大本)'·'천리대본(天理大本)'·'언해본(諺解本)'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들 필사본은 문장상(文章上) 글자에 다소 다른 곳이 있다. 이《어우야담(於于野談)》은 광해군(光海君) 13년(1621) 어우당(於于堂) 류몽인(柳夢寅)*이 민간(民間)에 흩어져 있는 야담(野談)과 설화(說話)를 모아 저술한 것이다.

한편 류몽인의 문집《어우집(於于集)》이 있는데 이는 6권 5책으로 이 역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이 류몽인의《어우야담(於于野談)》권수(卷首) 인륜편(人倫篇) 효열조(孝烈條)에 논개(論介)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논개의 사적(事蹟)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것이다.

유몽인은 명종(明宗) 14년(1559)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이자 당(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이고, 호는 어우당(於于堂)·간재(艮齋)·묵호자(默好子)이며, 본관은 홍양(興陽)이다. 그는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門人)으로 선조(宣祖) 15년(1582) 진사(進士)가 된 뒤 158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성품이 경박(輕薄)하여 스승의 책망을 받고 절교(絶交)를 당하자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대북파(大北派)와 교유하면서 중북(中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우계 성혼이 죽자 스승을 모독하는 글을 써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폐모론(廢母論) 때 이이첨과 대립, 이에 가담치 않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유응시(柳應時)의 고변(告變)으로 기자헌(奇自獻)·유경종(柳敬宗) 등이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과 내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체포하려 하자 양주(楊州)의 서산(西山)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이원익(李元翼)·김상헌(金尙憲) 등의 문초에 모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지은 '상부사(孀婦詞)'에서 인조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였으나 아들 약(瀹)과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조선 중기의 설화문학(說話文學)의 대가였으며 전서·예서·해서·초서에 모두 뛰어났다. 정조 때에 이르러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추증되었고 홍양의 운곡사(雲谷祠)와 완주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배향되었다. 저서로《어우야담(於于野談)》·《어우집(於于集)》이 전해오고 있다.

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그 때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꾀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로다.

論介者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賞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

---

2)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2.〈의암기(義巖記)〉[3]

진양성(晋陽城) 촉석루(矗石樓) 아래 남강(南江) 가에는 가파른 바위 하나가 깊은 강물 속에 솟아 있다. 물에서 그 바위로 건너 가려면 한 걸음 밖에 않되지만 그 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깊은 강물 속에 빠질 수 있는 곳이다. 계사년(癸巳年)[4]에 왜적(倭賊)이 침입(侵入)해 오자 창의(倡義)를 해 싸웠으나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지만 관기(官妓) 논개(論介)만은 왜적을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讐)로 여겨 순국(殉國)키로 맹세(盟誓)하고 몸단장을 곱게 한 뒤 이 바위 위에 날아갈듯 우뚝 서 있었다. 여

---

3) 이 〈의암기(義巖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양곡집》은 《양곡집(陽谷集)》은 양곡(陽谷) 오두인(吳斗寅)의 저술로 4권 2책으로 되어 있는 인쇄본이다. 영조(英祖) 22년(1746) 아들 태주(泰周)와 사위 도암(陶巖) 이재(李縡)가 간행하였다.이 오두인의 문집인 《양곡집》 권삼(卷三)에 〈의암기(義巖記)〉가 있다. 이 〈의암기〉는 진주성이 함락된 지 58년이 지난 효종(孝宗) 2년(1651) 쓰여진 것이다.

오두인은 인조(仁祖) 2년(1624) 상(翔)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숙부 숙(翩)에게로 입양(入養)되었다. 그의 자는 원징(元徵)이고, 호는 양곡(陽谷)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인조 26년(1648)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한 뒤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 · 장령(掌令) · 헌납(獻納)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다가 다음 해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 청(淸) 나라에 다녀왔다. 숙종(肅宗) 5년(1679)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 나라에 다녀와 다음 해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682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 판서를 역임하다 숙종 15년(1689) 형조 판서로 재직 중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西人)들이 정치에서 실각(失脚)하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세번이나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 삭직(削職) 당하였다.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폐위(廢位)되자 이세화(李世華) · 박태보(朴泰輔)와 함께 이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국문(鞫問)을 받았으며 의주(義州)로 유배(流配) 도중 숙종 15년(1689) 파주(坡州)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곧 복관(復官)되었으며 뒤에 그에게 영의정(領議政)이 추증되었다. 파주의 풍계사(豊溪祠) · 광주(光州)의 의열사(義烈祠) · 양성의 덕봉서원(德峰書院) · 의성(義城)의 충열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4)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1593)을 가리킨다.

러 왜병(倭兵)들은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위태로운 지세(地勢)를 겁내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왜장(倭將) 한 명이 뛰어 건너가 뭍으로 논개를 꾀어 내려하였다. 논개는 짐짓 미소를 지으면서 왜장을 맞아들인 뒤 그를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후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旌表)하였다고 한다.

의(義)롭도다! 이 바위여! 이 어찌 《주역(周易)》에서 이른 바 '개우석(介于石)'이 아니며 위시(衛詩 , 《詩經》)에서 이른 바 '불가전(不可轉)'이 아니리오. 그녀는 남쪽 고을 진주(晋州)의 한 창기(娼妓)로서 마침내 스스로 의(義)를 좇차 죽을 곳을 얻어 이처럼 대장부(大丈夫)의 열렬한 사업(事業)처럼 처리(處理)함으로써 당시 여염(閭閻)집 부인(婦人)들을 부끄럽게 하였구려. 이는 참으로 이 나라의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恩澤)이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感動)하여 분발(奮發)케 한 것이리라. 마치 남국(南國) 부인네들이 문왕(文王)의 인정(仁政)에 감화(感化)되어 강한(江漢) 땅의 풍속(風俗)을 바꾸게 한 것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가 김창의(金倡義)[5]와 함께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몇 명의 왜적을 두 팔에 끼고 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죽었다.' 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의열(義烈)이 많다는 말인가.

---

5) 여기서 '김해부사(金海府使) 이모(李某)'는 이종인(李宗仁)을 가리키며, '김창의(金倡義)'는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을 가리킨다. 이종인의 자는 인언(仁彦)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귀침(龜琛)의 아들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門人)이다. 뒤에 무예(武藝)를 익혀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 선조 16년(1583) 군관(軍官)이 되어 이제신(李濟臣)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는데 종군(從軍)하였으며, 북방(北方) 수비(守備)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부임하여 진주성(晋州城)이 왜적에게 포위(包圍)되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황진(黃進) 등과 함께 성을 끝까지 방어(防禦)하였으나 함락당하게 되자 적병(賊兵)을 양팔에 한명씩 끼고 남강(南江)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뒤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추증하였으며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에 배향되었다.

아! 계사년에서 지금의 갑자년(甲子年)까지 일주년(一週年)이 지났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의(義)를 위해 죽어간 곳을 아직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별(分別)치 못하고 있으니. '예의(禮義)의 나라' 라고 하면서 문헌(文獻)으로 증명(證明)할 수 없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閒心)한 일일진져!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피차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 다 확연(確然)하여 한 사람도 빼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 바위에 그들의 의열(義烈)을 함께 일컬어준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내가 신묘년(辛卯年) 10월 24일 진양(晋陽)에 다다르니 이 날이 마침 성이 함락되었던 날이었다. 진주 사람들은 의례적(儀禮的)으로 이 날 강변(江邊)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의혼(義魂)들에게 잔(盞)을 드린다고 한다. 내가 이에 더욱 감동(感動)된 바 있어 마침내 촉석루에다 '의암기(義巖記)라 글을 써 놓게 되었다.

晋陽之城 矗石之下 南江之濱有一峭巖直入波心 四面皆水也. 自陸而入 僅容一步而於其上也. 若差跬步 便是不測處 在昔萬曆癸巳 黑齒之入寇也. 倡義使金千鎰 率敢死卒千餘人 入據晋陽城 以抗賊鋒 及其力竭城陷之日 城中之人 擧皆授首求活 而時有官妓論介者 誓不與賊俱生 視死如歸 凝粧靚服 飄然特立乎此巖之上 衆倭望見而悅之 懼其危而莫敢近 忽有一倭 挺身直進 將倭以出 妓乃佯笑而迎之 遂抱持其倭 投江以死 故後之人 哀而義之 遂刻義巖二字 以旌其義云.

義哉巖也. 庸詎非大易所謂介于石 衛詩所謂不可轉者耶. 彼以南州之一娼妓 乃能從容取義得其死所 辦此烈烈如大丈夫事業 以愧夫當日之髯婦 苟非我國家深仁厚澤 能使人感發者 有若南國婦人 化文王之政 變江漢之俗 則何以得此乎.

或云 金海府使李姓人 與金倡義 共守此城 事去之後 以左右手挾數倭 投死于此巖下云. 又何義烈之多至此也.

噫. 癸巳于今甲子纔一周 而以如彼堂堂死義之所 尙未能辨其彼此 是何禮義之邦而文獻之不足徵耶 殊可欠也. 然而均是死於義 則彼亦一義也. 此亦一義也. 俱可謂確乎

其不可拔者 何傷竝稱其義於此巖也.

余以辛卯首冬之旣望越八日戊辰 行到晋陽 適値昔年陷城之日 州之人 例於是日 設祭江邊 以酹義魂云. 余於此 尤有所感 遂書于矗石樓 以爲義巖記.

3. 《명암집(明庵集)》[6]

임진(壬辰)의 난(亂)에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촉석(矗石) 바위 위에서 순절하였다. 공(公)께서는 이 일이 가리워져 없어지게 된 것이 아쉬워서 여러 방면으로 사적(事蹟)을 찾아 관(官)에 재출하였다. 나무 비(木碑)를 만들어 세워서 공적(功績)을 포상(褒賞)하였다.

壬辰之亂 妓論介殉節於矗石巖上 公惜其翳歿 搜訪各蹟呈官 樹碑以旌褒之

---

6) 정식(鄭栻), 《명암집(明庵集)》 권6(卷六), 부록(附錄) '가장(家狀)'

4. 소계문(疏啓文)[7]

1)양사우수개선보비변사장(兩祠宇修改先報備邊司狀)

진주(晋州) 사람 전별장(前別將) 윤상보(尹商輔) 등 수십여명이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운 글 가운데 말하기를, 촉석루(矗石樓) 아래의 남강(南江)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 있으니 곧 의암(義巖)이다. 이 바위에 '의(義)' 자 호(號)가 붙은 것이 왜란(倭亂) 직후이고 보면, 그 어찌 천만년을 두고 불멸(不滅)할 대의(大義)가 아니겠는가? 진주성(晋州城)이 함락되던 날 수신(首臣) 수령(守令) 및 제장(諸將) 등이 혈전(血戰)을 치루던 수삼십원이 모두 항절사의(抗節死義)한 뒤 오직 한 기생(妓生) 논개(論介)가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일 계획을 품었던 것이다.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가의 촉석 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 성 위의 왜적 중 한 추장(酋長)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즉시 논개가 앉은 곳으로 내려

---

7) 논개에 관한 소계문(疏啓文)은 특히 《충렬실록(忠烈實錄)》에 많이 들어 있다. 《충렬실록》은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임진왜란 때 전사(戰死)한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시민(金時敏)과 우병사(右兵使) 최경회(崔慶會) 등 27명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순조(純祖) 31년(1831) 정덕선(鄭德善) 등이 편찬 간행하였다. 김시민을 충민사(忠敏祠), 최경회 등을 창렬사(彰烈祠)에 배향(配享)하게 된 전후(前後)의 사실(事實)과 포상문(褒賞文)을 실은 다음 수성기(守城記), 함성기(陷城記), 소계(疏啓),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을 기록하였다. 이 《충렬실록》의 편찬과 간행 년도가 순조 31년(1831)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그 이전의 것들이다.

이 내용은 《충렬실록》 권이(卷二), 〈비변사장(備邊司狀)〉에 있는 것이다. 비변사장(備邊司狀)이란 비변사에 올린 장계(狀啓)를 말한다. 비변사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로 일명 '비국(備局)' 또는 '주사(籌司)' 라고도 하였다. 비변사가 정규(正規)의 관청(官廳)이 되어 독자적(獨自的)인 합의 기관(合議機關)이 된 것은 명종(明宗) 9년(1554)이다. 비변사의 권한(權限)이 강화(强化)된 것은 임진(壬辰) · 정유왜란(丁酉倭亂) 이후인데 변경(邊境)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행정(一般行政)도 모두 이 곳에서 의논(議論)하여 결정(決定)하게 되었다.

이 글은 당시 진주 사인(士人)들이 전진주(前晋州) 별장(別將) 윤상보(尹商輔)에게 장문(長文)을 우병영(右兵營)에 올리도록 권유(勸諭)하였는데 그 때 그 권유를 받아드려 윤상보가 쓴 것이다.

갔다. 논개가 짐짓 맞아들이는 기색을 보이자 왜장이 즐거워 머뭇거리는 사이에 논개가 갑자기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 바위는 강 안에서 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을 만한 곳이며, 그 밑은 깊은 물이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니 왜장이 비록 용력(勇力)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급작히 추락(墜落) 당하는 그 화(禍)를 면할 수 있겠는가? 논개의 이처럼 자기 몸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고 절의(節義)를 산과 같이 무겁게 지킴은 가히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빛을 다투어도 남음이 있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름하여 '의암(義巖)'이라 하였고, 사군자(士君子)들이 또한 전자(篆字)로 의암(義巖)이란 호(號)를 새겼으니 그 바위가 삭아 없어지기 전에는 당당한 '절의(節義)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는가?

당초에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당시에 전몰(戰歿)한 제신(諸臣)들에게는 사당(祠堂)을 세워 사액(賜額)하였기에 오늘날 유감이 없지만, 논개에 대해서는 1백여 년간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지 못한 터라 내내 제자(諸子)들이 마음 속에 애석(哀惜)해 하면서 그녀의 의열(義烈)에 감동되어 왔음이 이에 더할 수 없었다. 이러한 뜻을 묘당(廟堂)에 낱낱이 품달(稟達)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림이 어떻겠는가?

올린 소장(疏章)의 사건을 고증(考證)할만한 옛 기록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고, 사실(事實)을 취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最近)에 야담(野談 : 於于野談)의 옛 기록 가운데에서 비로소 근인(根因)을 볼 수가 있었다. 곧 이르기를 '논개(論介)는 진주(晋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8]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晋州城)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왜적(倭賊)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陷落)되자 군사(軍士)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그 때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하고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에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倭)놈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接近)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놈 하나만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微笑)를 띠고 그를 맞이하였다. 왜놈은 그녀를 꾀려고 하였는데 논개는 마침내 왜놈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기(官妓)로서 왜적(倭賊)을 만나 욕(辱)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루 다 기록할 수는 없으며 논개(論介)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름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관기는 모두 음탕(淫蕩)한 창녀(娼女)들이라고 해서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도 또한 덕화(德化)를 입은 인물(人物)이라고 하겠거니와 끝내 나라를 등지고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애달픈 일이로다.' 라 하였다.

又有晋州人前別將尹商輔等數十餘人 枚擧等狀中 有曰 矗石之下 南江之上 有天下傷心處 乃義巖也. 巖之義號 昔自龍蛇倭變後 始有其名 則豈名非千萬古不朽之大義哉. 何者當失守城陷之日 帥臣及守令諸將血戰數三十員 擧皆抗節死義之後 惟餘一妓論介者 遽生爲國殲賊之計 盛服而獨坐於江岸矗石之上 或琴或歌 城上倭賊中一酋將 見而美之 卽下論介所坐處 論介乍示逢迎之氣色 其倭喜心放立之際 論介忽抱其倭 投落江中其巖乃江岸之別立 而上可容兩人之盤旋 其下則乃萬丈波心 而死出不意 則其倭雖或勇力之賊 烏得免造次投落之禍乎. 論介之視身如毛 立節如山 可與日月爭光有餘耳. 後人名其石曰義巖 士君子又以篆刻義巖之號 此巖未爛之前 則堂堂節義之稱 何獨泯於覆載之問乎. 唐薛仁杲之降將旁仙地復叛 有王氏女 取仙地所佩刀 斬仙地 詔封崇義夫人 則惟此論介爲公除害之義烈 安有肯落於王女之後哉. 當時戰亡諸臣 則祠之額之 今無

---

8) 여기서 '계사년(癸巳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해 즉 선조(宣祖) 26년 서기 1593년을 가리킨다.

後憾 而至於論介 則百餘年來 猶未能上徹天聽 前後識者之心惜義憾 當復如何 幸以此意 枚稟廟堂 以待處分何如

事呈狀 第未見可考之舊錄 無以取實 近於野談古記中 始見根因 則有曰論介者晋州官妓也. 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帥 入據於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巔上 其下萬丈直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官妓之倭遇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忠已而矣. 倚歟哀哉云云.

2)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9]

… 그러나 상고(詳考)할 만한 옛 기록을 찾지 못해 실상(實相)을 알 수 없었는데 근래 야담고기(野談古記)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 근인(根因)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의암(義巖)이란 전각(篆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야기(野記)에 실려 있는 것을 또한 지금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고 허람(虛覽)된 전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창기(娼妓)였지만 뒤에는 마침내 의(義)를 위해 죽었으니 격권(激勸)할 것을 헤어려야 하겠으며 끝내 완전히 민멸(泯滅)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마땅히 포이지례(褒異之禮)를 참작(參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義巖篆刻所見明白 而野記留傳 又爲現閱則可謂實跡 而似非虛濫之傳說 初雖娼妓末乃死得其義 則揆以激勸 終不可爲 全然泯滅之歸 合有參酌褒異之禮 幷只以此辭緣先爲稟報于備邊司

---

9) 이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는 앞의 내용에 이어 다시 경상우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이 인용(引用)하여 경종 2년(1722) 2월 비변사에 올린 것이다.

3) 관문(關門)[10]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난중(亂中)에 자기 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왜적(倭賊)과 함께 죽은 것이 과연 세상에 널리 전해진 말과 같다면 가상(嘉尙)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백(明白)하게 의거(依據)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으니 포미(褒美)의 중전(重典)을 가벼히 의론키가 어렵다. 만약 의거할 문적이 있거든 본영(本營)이 본사(本司)에 논보(論報)한 뒤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다.

官妓論介 則臨亂 忘身與賊俱死 果如流傳之說 則有足可尙 旣無明白可據之文籍 則褒美重典 有難輕議 如有可據文籍 令本營論報本司後施行宜當

4) 신보(申報)[11]

관기(官妓) 논개(論介)의 사적(事籍)은 고금(古今)의 관청 문적(官廳文籍) 가운데에서는 의거(依據)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으나, 의암(義巖)이란 이름이 논개가 순국(殉國)한 뒤부터 영남(嶺南) 사람들이 명명(命名)한 것이었고, 이름이 드러나자 선비들이 '의암'이란 두 글자를 새겼던 것이니, 백여 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논개는 자손(子孫)이 없는데다 족속(族屬)도 적어 그 당당한 미명(美名)을 후대(後代)에 전할 계제가 없기에 공사간에 힘을 합쳐 조그마한 비(碑)를 의암 위에 세우고 서명(署名)을 새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타까움을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문(碑文)의 사연(事緣)은 곧 옛날에

---

10) 이 내용은 비변사에서 경상우병사 최진한에게 내린 관문(關門)이다. '관문(關文)'이란 상급(上級)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보내던 공문(公文)을 가리킴.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11) 우병사(右兵使) 최진한(崔鎭漢)이 그 뒤 비변사(備邊司)에 보낸 신보(申報)의 내용이다. '신보(申報)'란 하급자(下級者)가 상관(上官)에게 보고(報告)하는 것을 말함.

류몽인이 지은 야담(野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비에 새겼으니 어찌 사림(士林) 이하 천만인이 공지(公知)하는 바 실적(實跡)이 아니겠습니까? '의(義)' 자가 새겨진 돌은 만인이 익혀 보는 바이며, 야담(野談)의 글은 고인(古人)의 공의(公議)이니 의거(義擧)한 문적(文籍)이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비문(碑文)도 한 벌 인출해서 감봉해 올리니 참작면통(參酌面通)하고 행하시어 영남(嶺南) 사람들이 백여 년을 두고 감정(感情)을 품게 한 폐단(弊端)을 풀도록 하십시오.

官妓論介事蹟 古今官籍中 無一可據之形止 盖其義巖之名 一自論介死義之後 嶺人名之以義巖 聞聲之 識者刻之 以義巖二字 百餘年感惜之物情 前後一同 旣無子孫 又少族屬 堂堂美名前後無階 公私幷力 才竪尺碑於義巖之上 序以名之 俾不至泯滅之歎 碑文辭緣則乃昔年柳夢寅 所作之野談云. 而因其談說劇之於此 則豈不士林以下千萬人所其知 共知之實蹟 刻義之石 萬目之所覩 而野談之文 古人之公意 則可據一節 無出於此碑文印出一度 亦爲監封上送 參商變通行下 以答嶺俗過百年抱憾之幣

5) 재관문(再關文)[12]

관기(官妓) 논개(論介)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순국(殉國)함으로써 의암(義巖)이란 칭호가 지금에까지 전해 내려왔다니 관기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절(奇節)이 있는 것은 역시 가상하다고 하겠다. 자손(子孫)을 심방(尋訪)한 뒤 특별히 급복(給復)[13]하여 포이지전(褒異之典)[14]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

12) 최진한(崔鎭漢)의 신보(申報)를 본 비변사(備邊司)에서 다시 최진한에게 보낸 재관문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조정(朝廷)에서는 논개의 순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곧 최진한의 신보(申報)로 말미암아 논개의 순국 사실이 당시 조정(朝廷)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내용에 의거하여 논개의 순국에 관해 논의한 바 그녀의 자손을 찾아 그들에게 급복(給復)과 포이지전(褒異之典)을 베풀도록 조치(措置)하라는 것이다.

官妓論介 抱賊投江 視死如歸 義巖之稱 只今傳說 官妓中 有此奇節 亦足可尙 尋訪子孫別爲給復 以示褒異之典 有不可已

6) 연보(連報)[15]

의기 논개의 자손(子孫) 유무(有無)를 관문(關文)을 띄워 사문(査問)하였더니 지방관(地方官)들이 회보(回報)하기를 '논개 자손의 유무를 경내(境內) 방방곡곡(坊坊曲曲)을 헤매면서 고노인(古老人)들을 찾아 물어 보았지만 원래 자손이 없었다고 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복(給復)의 특전(特典)을 배풀 곳이 없으므로 그 사유를 첩보(牒報)[16]합니다.

義妓論介子孫有無 發關查問地方官 回報內論介子孫有無 境內坊曲古老人處祥加訪問元無子孫云. 則給復一節 元無可施之地 緣由牒報

7) '청증직소(請贈職疏)' [17]

또한 신(臣)이 일찍이 열람(閱覽)해 보았는데, 류몽인은 문장가(文章家)로 이름난 사람인데다 《어우야담(於于野談)》 가운데에 논개(論介)의 순국(殉國) 사실(事

13) '급복(給復)' 이란 세금(稅金)과 부역(負役)을 면제(免除)해 주는 것을 말함. '복(復)' 은 '제(除)' 와 같은 의미이다.

14) '포이지전(褒異之典)' 이란 공적(功績)을 특별히 찬양하여 특전(特典)하는 일을 가리킨다.

15) 이 내용은 재관문(再關文)을 받은 최진한이 비변사에 보낸 연보(連報)이다. '연보(連報)' 란 이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보(連報)에 의하면 논개에 관한 칭호(稱號)가 관기에서 '의기(義妓)' 로 바꾸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의기 논개의 자손을 찾기 위해 해당 관청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토록 하였으나 논개는 원래 자손이 없었고 그녀와 관계가 있는 족속도 없다는 것이었다.

16) '첩보(牒報)' 란 서면(書面)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첩정(牒呈)' 과 같은 의미이다.

實)을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책을 덮고 그녀의 이적(異蹟)을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는데 우병사(右兵使)로 진주(晋州)에 부임(赴任)한 뒤에야 과연 촉석루 아래 남강 위의 초석(礎石)에 '의암(義巖)'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고노(古老)에게 물었더니 그 바위가 곧 논개의 살신(殺身) 섬적(殲賊)한 곳이었고 그 곳의 전설(傳說)도 자못 옛 기록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은 그 바위를 보고 그 전설을 도리켜보면서 의담(義膽)이 스스로 격동(激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난중(亂中)에 절개(節慨)를 굽히고 몸을 판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누구인들 일개 창기(娼妓)로서 사군자(士君子)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리라고 여겼겠습니까? 옛날 설인과(薛仁果)의 항장(降將) 방선지(旁仙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선지에게 약취(掠取) 당해 있던 왕씨(王氏)란 여인이 그 자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자 천자(天子)가 그녀를 숭의부인(崇義夫人)에 봉(封)했는데 오직 이 논개의 나라를 위해 왜적을 제거한 의열(義烈)이 어찌 왕씨녀보다 뒤진다고 할 수가 있으리오?

아! 야담(野談)[18]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분명하게 실려 있고 이끼낀 바위에는 '의(義)' 자가 삭아 없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도 유독 그녀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정표(情表)함이 없으니 이는 천신(天神)만이 탄식(歎息)하고 애석(哀惜)해 하는 바가 아니라 실로 영남(嶺南)의 사민(士民)들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미천한데다가 직위(職位)가 낮고 말에 무게가 없어서 전일(前日, 경

17) 최진한이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가 되어 임금에게 보낸 '청증직소(請贈職疏)'이다. 논개에게 증직(贈職)해 줄 것을 임금에게 직접 청원(請願)하는 소장(疏章)의 일부이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개에게 정표하는 상장을 내려 줄 것을 당시 비변사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妄覺)한 채 마침내에는 임금에게 직접 논개의 순국 사실에 관한 내용과 그녀에게 증직할 것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英祖) 16년(1740) 논개에게 '의기(義妓)의 정포(旌褒)'가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여기서 '야담(野談)'이란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말한다.

종 년간)에 두 번이나 계청(啓請)하였지만 모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전하(殿下)를 번거롭고 어지럽게 해서는 않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소관(所關) 업무(業務)도 복잡하고 군사(軍士)를 휼양(恤養)하여야 하고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할 방도(方道)에도 겨를이 없아옵니다. 실로 이러한 일이야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니고 신의 직분에 관계되는 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외월(猥越)[19]됨을 피치 않고 망령(妄靈)되이 논함은 저 제신들과 한 기생(妓生)이 순국한 후 원한(怨恨)을 품고 있는데도 이미 자손들의 애소(哀訴)함이 없어서 끝내는 전하께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하지 않고 진청(陳請)하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이 못났다고 하여 신의 말까지 폐하지 마시고 특별히 21명의 신하에게 골고루 증직(贈職)의 특전을 베푸시고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상장을 내리시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且臣嘗閱柳夢寅所著野談一冊 有曰 論介者晋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據晋州以抗倭 及城陷軍散人民俱死 而論介凝粧靚復 立於矗石下峭巖之前 其下萬丈直入波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而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遂抱其倭 直投于潭 彼官妓 淫娼也.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從賊 無他忠而已 猗歟哀哉云. 夢寅以文章名 爲此傳頗詳密 臣每讀至此 未嘗不掩卷而嗟異之 及到晋營 矗石之下南江之上 果有峭石 而義巖二字大刻其上 臣訪於古老 則乃是論介投身殲賊之處 而其所傳說 頗與古記無異 臣見其巖而聞其說 不覺義膽之自激也. 噫 當時之亂 屈節賣身者 不知幾何人哉. 而孰謂一娼妓能辦士君子所難乎昔者薛人 杲之降將旁仙地之復叛也. 有王氏女取仙地所佩刀 因刺仙地而斃之 詔封崇義夫人 以旌其義 夫論介之所成就 詎下於王氏之後哉. 嗚呼! 野記一篇芳名昭載 蒼巖半面義字不爛而泯沒至今 獨無旌義 此不但賤臣之所歎惜 實是南士之共咨嗟者也. 如臣愚賤 地卑言微 前

19) '외월(猥越)'은 '와람(猥濫)'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짓이 분수(分數)를 넘음.

日再啓 俱未得行 則事不當更爲煩瀆 而且臣所管事務蝟劇 凡於恤軍賑飢之方 尙未自遑 則誠知此等事 不急於目前非關於分內 而猶且不避猥越 妄者論列者 哀彼諸臣一妓之取義抱寃 而旣無子孫之呼吁(?) 終絶天聽之登澈 故不容泯默而止. 玆敢冒昧而陳伏願殿下 勿以人廢言 特於二十一諸臣 均施贈職之典 官妓論介 亦加旌表之章 用慰抑鬱之魂 以爲激勸之方 不勝幸甚 臣無任激切析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8) 영조(英祖)의 비답(批答)

경(卿)이 상소(上疏)로써 위로 보낸 것에 관한 것이다. (그) 소장(疏章)들을 모두 갖추어 살펴 보았더니 당초의 것과 구별이 되니 반드시 까닭이 많을 것이다. 의암이란 것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 야담(野談)의 기록을 어떻게 신빙(信憑)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백여년전의 일을 가볍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경이 충렬(忠烈)을 포상코자 하는 뜻은 가상(嘉尙)하지만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유지(有旨)하였노라.

卿以上疏上送矣. 省疏具悉 當初區別 必有委折. 義巖雖存 野談所記 何可憑信. 且百餘年之事 似難輕擧 而卿之慾 褒忠烈之意嘉矣. 其令廟堂稟處事有旨

9)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20]

영조(英祖) 병신(丙申, 16년, 1740) 본영(本營) 남덕하(南德夏)가 또다시 21명의 신하(臣下)에 대한 증직(贈職)과 의기(義妓)의 정포(旌褒)를 계청(啓請)하여 마

20) 정조(正祖) 22년(1798)에 이르러 우병사 안숙(安樕)이 작성한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논개에게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이 내려진 것은 영조 16년 서기 1740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논개에 대한 '관기(官妓)'라는 표현이 아닌 '의기(義妓)'로서의 정포를 윤허(允許)받았던 것이다.

침내 윤허(允許)를 받게 되었다.

英祖丙申 本營兵使南公德夏 又啓請二十一臣贈職及義妓旌褒之典 竟得蒙允.

4. 〈의기전(義妓傳)〉[21]

만력(萬曆) 계사(癸巳) 6월 그믐에 왜적(倭賊)들이 진주성(晋州城)을 함락시켰다.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論介)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의암(義巖)에 올라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 적의 우두머리가 좋아하며 다가오니 마침내 웃으며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춤을 추웠다. 춤이 어느 정도 이르자 적을 끌어안고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모든 적들이 크게 놀라 그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적들은 장수가 죽자 크게 혼란되어 다라나고 무너져 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선비들은 독서(讀書)를 통해 의리(義理)를 배우고 익혀서 평소 담론(談論)을 할 때마다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될 것을 자부(自負)하지 않은 때가 없건만 하

---

21) 〈의기전(義妓傳)〉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 字 春卿, 號 西溪, 本貫 泰安)가 영조(英祖) 16년(1739)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文集) 《서계집(西溪集)》에 들어 있다. 이 내용에서 의암 위에서 논개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그동안 논개의 순국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춤을 추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좀더 구체화(具體化) 내지는 사실화(事實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자 다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는데 논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구나. 허나 그냥 죽는 것은 아무 보탬이 없으니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의 성품(性品)을 적게나마 파악(把握)해 볼 수 있다.

루 아침에 사변(事變)을 만나서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서 배회(徘徊)하며 결연(決然)치 못해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사람이 종종 있다. 저 무지(無知)하고 한결같이 천(賤)한 창기(娼妓)가 사직(社稷)을 걱정하고 강상(綱常)을 부지(扶持)하였다. 미소(微笑)를 머금은 채 강가에 임(臨)하여 죽음을 귀가(歸家)하는 것처럼 애석(哀惜)해 하는 뜻도 돌아봄도 없이 맞이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묘(奇妙)하고 비밀스런 계책(計策)은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서 나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패잔(敗殘)하여 상처(傷處)만 남은데에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남방(南方)의 수백년의 근기(根基)를 회복(回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앞 옛 역사(歷史)에 일찌기 있었던가? 나는 이경(李璥)과 백사림(白士霖)의 무리들을 초청(招請)하여 이를 일러주고자 한다.

萬曆癸巳六月晦日賊陷晋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國事至此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登義巖彈琴而歌酋長喜而來 遂嫣然而迎與之舞 舞將半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已無及矣. 賊喪其帥大亂奔潰城復全. 嗟乎. 士讀書講明義理平居談論莫不自許以忠臣烈士. 而及一朝遇事變未免徘徊 於死生之間不能決然於能魚之分 卒爲天下後世笑者種種焉. 彼無知一賤娼之能憂社稷扶綱常. 含笑臨江視死如歸了無讖毫顧惜之意. 而又其奇謨秘策出於人意慮不到 殲賊魁於乘勝方張之際 振士氣於敗衄殘傷之餘 損一縷而爲南方數百年 恢復根基者. 此果前古史所嘗有者乎. 吾欲招李璥白士霖輩而告之

임금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기(義妓)의 정려(旌閭)를 세우라 명(命)하였는데 정려는 의암(義巖)의 북쪽 수십보(數十步) 거리에 있다.(上聞之 命立義妓之閭 閭在義巖北數十步許)[22]

5. 의기사기(義妓祠記)[23]

부인(婦人)들의 천성(天性)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아래로는 간혹 울분을 참지

---

22) 이 〈의기전〉은 진주에 '의기사(정려)'가 창건(創建)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기전〉의 끝 부분의 내용이다.

23) 이 의기사기(義妓祠記)는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것이다. 그는 광주(廣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이나 처음의 자는 귀농(歸農)이었으며,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이라 하였고, 천주교(天主敎) 교명(敎名)을 요안이라 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그는 이승훈(李承薰)의 처남(妻男)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웠으며 영조 52년(1776) 서울로 올라가 다음 해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읽고 민생(民生)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에 뜻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이벽(李檗)으로부터 서학(西學)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뒤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쳤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신유박해(辛酉迫害)·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 등과 연루 이 곳 저 곳으로 유배(流配)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유배지의 다산(茶山) 기슭에 있던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학(經書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순조(純祖) 18년(18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上疏)에 의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헌종(憲宗) 2년(1836) 죽었다.

정약용(丁若鏞)이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를 지은 것은 1780년 이후로 추정된다. 의기사(義妓祠)가 건립된 해는 1739년으로 그 뒤 정조(正祖) 4년 서기 1780년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홍화보(洪和輔, 1726-1791)가 보수(補修)하였다. 홍화보가 의기사를 보수하고 정약용에게 그 기(記)를 짓도록 하였다. 홍화보는 정약용의 장인(丈人)이다. 이 글은 논개의 순국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순국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인들이란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죽는 것을 두고 '절열(節烈)'이라 하지만 그같은 행위는 자신의 한 몸을 스스로 죽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논개는 한갓 자신 한 몸을 죽는데 그치지 않고 왜추(倭酋)를 끌어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논개는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인 '충(忠)'을 지켰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개의 순국은 '절열(節烈)'과 '충의(忠義)'가 동시에 그대로 지켜졌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논개(論介)'라는 말이 없고 '기(妓) 의낭(義娘)'이라 표현하고 있다. '기(妓)'는 기생(妓生)을 가리키며 '의낭(義娘)'은 '의로운 낭자(娘子)'를 가리킨다. '낭자'란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 곧 처녀를 말한다. 만약 '기(妓) 의낭(義娘)'이 '논개'를 가리킨다면 이 때의 논개는 혼인(婚姻)을 하지 않은 처녀 기생(處女妓生)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밝혀 둘 것은 앞에서는 '기(妓) 의낭(義娘)'이라 기록해 놓고 뒤에서는 그녀를 '현부인(賢婦人)'이라 기록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못해 죽는 여인도 있고, 위로는 의리상(義理上)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여인도 있는데 이들을 절(節)이니 열(烈)이니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숨만을 끊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기(娼妓)같은 여인들이란 어려서부터 음탕(淫蕩)하고 지조(志操)없는 여인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성품이 허랑(許良)하여 그 마음 속에는 남자이면 모두 지아비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부부간(夫婦間)의 도리(道理)도 모를진대, 하물며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알 여인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전장(戰場)에서 미녀(美女)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기 그지 없었지만, 일찍이 사절(死節)한 여인이 있었단 말은 듣지 못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왜적이 진주성을 함락했을 때 기(妓) 의랑(義娘)은 왜추(倭酋)를 유인(誘引)해 강 가운데의 바위에 마주서서 춤추다가 춤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왜추를 안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사우(祠宇)로다! 이 어찌 열렬한 현부인(賢婦人)이 아니냐? 지금 그 한 왜추를 죽인 것만으로 삼사(三司)의 치욕(恥辱)을 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성이 함락될 무렵 인근 읍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았고, 조정(朝廷)에서는 전공(戰功)을 시기(猜忌)하고 패배(敗北)를 달갑게 여겨 금탕(金湯)의 견고함을 궁구(窮寇)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였으니, 忠臣(충신) 지사(志士)들의 분개함이 이 싸움에서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 연약하고 어린 여인이 마침내 적추(賊酋)를 죽여 나라에 보답할 수 있었다면 군신간의 의리가 천지간에 밝혀졌으니 한 성의 패배쯤은 근심할 것 없었다. 이 어찌 장쾌하지 않은가?

사우(祠宇)가 오래된 데다 수리(修理)하지 않아 비바람이 배어드는 지라, 지금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24]이 이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고 나

현재의 의기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1983. 7. 20.지정)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1824년 관찰사 이지연(李止淵)이 창건(創建)하였는데 6.25동란으로 소실(燒失)된 것을 1960년 사단법인 진주고적보존회(晋州古蹟保存會)에서 재건(再建)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와가(木造瓦家)로 맞배지붕이다. 김은호(金殷鎬)가 그린 논개(論介)의 초상화를 봉안하였다.

24) 여기서 '절도사(節度使) 홍공(洪公)'이란 '홍화보(洪和輔)'를 가리킨다.

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케 하였다. 스스로도 시(詩) 28언(二十八言)을 지어 촉석루 위에 써 붙인다.

婦人之性輕死 然其下者或不耐忿毒幽而死 其上者義不忍汚辱其身而死 及其死概謂之節烈 然皆自殺其軀而止 至若娼妓之屬 自幼導之以風流 淫蕩之物遷移轉變之情 故其性亦爲之流而不滯其心 以爲人盡夫也. 於夫婦尙然 矧有能微知君臣之義者哉. 故自古兵革之場 繼掠其美女者何限而未嘗聞死節者. 昔倭寇之陷晋州也. 有妓娘者引倭酋對舞於江中之石 舞方合抱之投淵而死 此其祠也. 嗟乎 豈不烈烈賢婦人哉. 今夫一酋之殲 不足以雪三司之恥. 雖然城之方陷也. 隣藩擁兵而不救朝廷 忌功而樂敗 使金湯之固失之窮寇之手 忠臣志士之憤歎恚恨 未有甚於斯役者矣. 而 小一女子 乃能殲賊酋以報國 則君臣之義 曖然於天壤之間 而一城之敗 不足恤也. 豈不快哉. 祠久不葺風雨漏落 今節度使洪公 爲之補其破缺 新其丹碧 令余記其事 自爲詩二十八首 題之矗石樓上.[25]

* 부기(附記) 의기사(義妓祠) 택지평(擇地評)

높은 나무 가지 위에 단정히 혈(穴)이 맺혀 있으니 가을 매미가 깊은 숲 속에서 노는 것 같고, 앞으로는 팔공산(八公山)이 가로 놓여 목성(木星)으로 보이며, 뒤로는 마산(馬山)이 뻗혀 있도다. 목(木) · 화(火)가 상생(相生)하니 형세가 바르고 곧아 선조(先祖)들이 돌보아 줄 형국(形局)이다. 촉석루(矗石樓) 앞이 넓게 펼쳐 있고, 저 멀리 산세(山勢)는 솟구치고 가라앉아 안전(安全)하도다. 산이 흐르다 머문 자리에는 구비마다 생기(生氣)가 약동(躍動)하도다. 산은 안으로 정기(精氣)를 함

25) 이 글이 쓰여진 년대(年代)에 대하여 여러 추측이 있다. 지금 진주의 의기사(義妓祠)에 걸려 있는 '의기사기(義妓祠記)'에는 순조(純祖) 2년(1802) 임술년(壬戌年)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이 글이 1780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18세 때이다. 순조 2년 1802년에 쓰여진 것이라 한다면 정약용의 나이 40살에 쓰여진 것이 된다.

축하여 이 사당(祠堂) 자리에 응결(凝結)되었구나. 사당 자리는 네모로 반듯한데, 혈이 이 곳에 맺혔도다.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는 첩첩히 둘러 있고, 바깥 산 안 물이 구비구비 둘러 있어 옥(玉)같이 맑은 물을 감싸며 흘러 가니 가히 이 곳이 명당(明堂)임을 알겠도다. 생기가 왕성하여 명당에 잠겼으니 이 곳이 학당지수(學堂之水)가 아닌가. 가히 귀인(貴人)의 사당임을 쉬이 알겠다.

동남간(東南間)에 뫼가 높아 여자(女子)가 부귀(富貴)하여 이 곳에 모셔진 분 크게 발복(發福)하겠도다. 서북간(西北間)에 뫼 풍만하니 크게 번창(繁昌)하고 부(富)하게 되겠도다. 동쪽의 산이 크게 살아 올랐으니 자손(子孫)이 크게 번창하겠도다. 서남간(西南間) 뫼에 기가 모아졌으니 식복(食福)이 연연(年年)하여 천년 만년 명당이 되어 향화(香花)가 끊이지 않겠도다.

高樹頂上 穴星端靖 秋蟬噪林 可知 前有八公 後有馬山 木火相生 廉正發祖 樓下開帳 起福連疊 忽大忽小 穿帳過峽 曲曲活動 心中出脉到頭一節 尖圍方正 穴星特起 龍砂虎砂 重重環抱 外山外水 層層護衛 水如玉帶 可知大地 生旺之勢 墓庫停蓄 學堂之水 貴人之祠 可知 忽出巽山 女發女貴 乾山豊滿 大昌大富 震山大肥 多子多孫 坤山聚氣 食福年年 好好明堂 千萬香花.

6.《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26]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장수(長水) 사람으로 공(公)[27]이 사랑하였다. 공을 따라

---

26)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5권 5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純祖) 즉위년(卽位年, 1800)에 간행되었다. 이 《호남절의록》 권지일하(卷之一下, 33面), 임진의적(壬辰義蹟), 충의공최일휴당사실조(忠毅公崔日休堂事實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논개가 순국한 뒤

진주성으로 들어갔으나 성이 함락(陷落)되매 자기 몸을 잘 꾸며 적장(賊將) 두 명을 유인(誘引) 마주 대한 채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두 손으로 적장을 쳐 강물로 빠뜨리고나서 자신도 죽었다. 뒷 사람들은 그 바위에 새겨놓기를 '의암(義巖)' 이라 하였으며 비(碑)를 세웠다.

妓論介長水人公所眄也. 隨入晋州及城陷盛其塗澤誘賊將二人 對舞南江危巖上 兩手挼二賊墜江而死 後人鐫其巖曰義巖立碑

7.《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28]

논개(論介)는 장수(長水)의 관기(官妓)로 진주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 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최경회(崔慶會)와 논개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한 가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논개에 관한 기록들이 대부분 진주(晋州)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는 논개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위 기록에서 최초로 논개가 '장수(長水) 사람' 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경회가 그녀를 사랑하였다는 기록도 이것이 처음의 기록이다.

여기서 또 한 기지 새로운 사실은 적장(賊將)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적장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해오는 바 논개가 적장 한 명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나 여기서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떠밀어 남강에 빠져 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논개의 순국에 관한 기록에는 논개가 춤을 추다 왜장을 양팔로 껴안고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기록에는 적장 두 명을 두 손으로 먼저 물에 떠밀어 빠져 죽게 한 뒤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27) 여기서 '공(公)' 이란 최경회(崔慶會)를 가리킨다.

28)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은 9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종(憲宗) 5년(1839) 간행되었다. 이 《호남삼강록》은 《호남절의록》보다 39년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호남삼강록》 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논개조(論介條)의 내용이다. 논개가 순국한 뒤 207년만에 그녀의 출생지가 '장수(長水)' 라고 희미하게나마 밝혀지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의 내용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는 달리 '논개조(論介條)' 를 따로 분리(分離)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왜장(倭將)은 논개와 더불어 촉석루에서 큰 연회(宴會)를 베풀었는데 논개는 왜장을 따뜻하게 돌보다가 그가 크게 (술에) 취하자 끌어안고 루(樓) 아래로 함께 몸을 던져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곳에 비(碑)를 세우고 고을(진주) 관청(官廳) 스스로 매년 치제(致祭)를 한다. 장수(長水) 본현(本縣)에 정려(旌閭)가 있다.

論介長水官妓 晋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 壬辰城陷後 倭將與論介大宴于矗石樓 論介乘其倭將之大醉抱而同投樓下 而死因立碑於其州 自官每年致祭 旌閭於本縣長水

＊ 부기(附記)

崔慶會海州人號三溪受學於奇高峯大升門文科壬辰收散亡卒進至長水擊賊破之轉向晋州開寧屯賊聞風賁潰拜慶尙右兵使與金健齋入晋州累戰累却及其城陷登南譙樓北向四拜赴水而死 贈吏判旌閭享彰烈祠 賜額綾州褒忠晋州官奴得印於南江淺灘卽公殉節時抱而投江者也馳 啓封進 英廟朝親製銘序親製祭文致祭于彰烈褒忠祠 謚忠毅綾州 [29]

논개가 '장수(長水)의 관기(官妓)' 라 하였으며, 진주 병사(晋州兵使) 최경회(崔慶會)가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논개가 장수의 관기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그녀가 '장수의 관기이다' 고 하여 그녀가 곧 '장수 사람이다.' 라든가 아니면 '그녀가 장수 태생이다.' 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뒷날 편집 간행되는 최경회의《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제기(提起)되는데 즉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 라는 기록이다. 그 정려가 장수 본현 어디에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져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되기 전까지 이 곳 장수 지역에 논개에 관한 어떤 금석문(金石文)이 세워졌다는 문헌적 기록이나 세워진 금석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호남삼강록》의 '장수의 본현에 정려가 있다.' 라는 기록은 오기(誤記)이거나 수단유사(收單有司)의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9) 이 내용은, 참고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권지일(卷之一), 충신몽포편(忠臣蒙褒篇), 최경회조(崔慶會條)를 여기에 부기(附記)한 것이다. 최경회의《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는 철종(哲宗) 12년(1861) 간행되었는데 이는《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보다 22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다. 실기의 창의서록(倡義敍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위의

8. 《호남읍지(湖南邑誌)》[30]

의기(義妓) 논개(論介)는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이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晋州兵使)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였을 때 그녀가 따라갔다.

9. 《진주목읍지(晋州牧邑誌)》[31]

의암(義巖)은 촉석루(矗石樓) 아래에 있다. 임진왜란 때 얼굴이 아름다운 한 기생

기록과 《호남삼강록》의 논개조에 영향을 받은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함께 인(印)을 쥔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시첩(侍妾)이던 논개(論介) 역시 왜적(倭賊)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논개는 장수(長水)의 기녀(妓女)였다.'

30) 《호남읍지(湖南邑誌)》는 1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종(高宗) 9년(1872) 간행되었다. 이 《호남읍지》 가운데 장수현조(長水縣條), 절의편(節義篇)에는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녀의 고향이 장수(長水)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이다.'고 밝히고 있다. 곧 그녀의 고향이 '장수의 임현내면 풍천'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기록들은 그녀의 고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장수 사람이다.'는 정도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면(面)과 마을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논개는 의(義)로운 기생 곧 의기(義妓)로 표현되어 있다. 논개가 다른 기록에서 처럼 '관기'라든가 '진주 기생'이라든가 '장수 기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이 다만 '의기'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는 내용 역시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최경회가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장수 현감으로 있으면서 논개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즉 '장수 현감'이라는 직명(職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최경회가 진주 병사(晋州兵使)가 되어 진주성(晋州城)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도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말 역시 논개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라 하겠다.

(妓生)이 있었다. 왜적이 기뻐하니 기생이 바위 위로 달려가서 서니 왜적이 뒤쫓아 왔다. 기생이 '너의 장수를 데리고 오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고 하니 왜적이 과연 데리고 와서 욕(辱) 보이고자 하였다. 이에 기생이 적장(賊將)을 안고 물에 던져 죽으니 뒷 사람들이 이를 의롭게 여기어 의암(義巖)이라는 두 글자를 그 돌에 새겼으며, 기생의 이름은 논개(論介)이다.

義巖 在矗石樓下 壬辰倭亂 一妓有姿色 倭見而悅之 妓走立巖上 賊追執之 妓曰率汝將來 吾當從之 賊果來欲汚之 妓抱賊將 投水而死 後人義之刻 義巖二字于其石 妓名論介

10.《청구야담(靑邱野談)》[32]

'진양성의기사생(晋陽城義妓捨生)'

논개(論介)는 진양(晋陽) 땅의 기생(妓生)이다. 임진년(壬辰年) 왜적(倭賊)이 진양성(晋陽城)을 공격(攻擊)할 때 상락군(上洛君) 김시민(金時敏)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지키며 여러 번 싸워 여러 번 패퇴(敗退)시켜 왜적 수만명을 죽였다. 적들은 결국 호남(湖南)을 넘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해 계사년(癸巳年) 6월(六月) 왜장(倭將)청정(淸正)이 풍신수길(豊臣水吉)의 명을 받고 진양성에서의 치욕(恥辱)을

---

31)《진주목읍지(晋州牧邑誌)》, 고적(古跡), 의암조(義巖條)

32)《청구야담(靑邱野談)》의 작자(作者)와 만들어진 년대(年代)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推測)하건대 조선·말기(末期)로 보인다.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필사본(筆寫本)이다. 그 결구(結構)와 수법(手法)이 묘하여 언어(言語) · 풍속(風俗) · 관습(慣習)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청구야담(靑邱野談)》가운데 '진양성의기사생(晋陽城義妓捨生)' 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에 관한 기록이 있다.

씻고자 십만(十萬) 병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包圍)하였다. 이 때 경상도병사(慶尙道兵使) 최경회(崔慶會)와 충청(忠淸兵使) 황진(黃進)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과 김해부사(金海府使) 이종인(李宗仁)과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와 사천현감(泗川縣監) 장윤(張潤) 등 여러 공(公)들이 들어와 성을 지켰다. 유독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는 '이 성은 왜적이 힘을 다해 싸울려는 곳이오, 호남과 영남(嶺南)의 요충(要衝)과 관문(關門)이 되는 곳으로서 고단한 병력으로 강적(强賊)을 대항(對抗)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고 하여 끝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공들이 촉석루에 모여 생사(生死)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고 비분강개(悲憤慷慨)히 일을 의논하였다. 왜군에서는 아래에 명을 내리기를 '작년(昨年)에 패퇴한 보답을 오늘에야 할 것이다. 이 성을 함멸(陷滅)시키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고 했다.

그리하여 (왜적은) 백방(百方)으로 공격을 했는데 10일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 안 6만의 사람이 같은 날에 죽었고 여러 공들은 모두 남강에 이르러 죽었다. 이 때 논개는 화장(化粧)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왜장 가운데 가장 걸출(傑出)하게 생긴 자를 찾아 만나고 거짓으로 교태(嬌態)를 부리니 왜장이 기뻐했다. 그가 그녀를 겁탈(劫奪)코자 했으나 그녀는 허락치 않고 부드러운 말로 왜장을 유인(誘引)하여 강 가의 바위 위로 걸어나오게 했다. 그 곳에서 함께 춤을 추었는데 이 바위는 강 가에 우뚝 솟아 있어 삼면(三面)이 모두 깊은 못이었다. 그래서 왜장의 허리를 안고 강물로 떨어져 들어갔다. 왜군의 진영(陣營)에서는 크게 놀랐다.

난이 평정(平靜)된 뒤 논개를 기려 '의기(義妓)' 라 하고 강 가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祭)를 지내고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 이라 이름하여 '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 이라는 여덟 글자를 새겨 두었다. 그 바위를 또한 '낙화암(落花巖)' 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기녀가 강에 가라앉은 것을 낙화(落花)에 비유(比喩)한 것이라 한다.

論介者晋陽妓也. 壬辰倭攻晋陽城 上洛君金時敏嬰城自守 屢戰屢敗之殺倭數萬 賊終不敢窺湖南而歸 翌年癸巳六月倭酋淸正承秀吉之旨 必欲雪晋陽之恥 率兵十萬來圍時本道兵使崔慶會 忠淸兵使黃進 倡義使金千鎰 金海府使李宗仁 復讐將高從厚 泗川縣監張潤諸公入守之 獨紅衣將軍郭再祐曰 此城倭賊必爭之地也. 爲湖嶺要衝關隘(阨)之所 而孤軍遇强賊 必敗乃已云. 而終不入城 諸公會矗石樓 誓同生死慷慨論事 倭下令曰 昨年敗衄之報 政在今日 不滅此城 誓不旋踵 百道攻城第十餘日城陷 城中六萬人 同日殲之 諸公皆赴南江而死 時論介凝粧盛飾 往見倭將之最傑驁者 假意獻媚 倭將悅之欲劫之 妓不從 以婉辭誘引倭將 步出江邊巖石上 與之對舞 此巖插在江岸三面皆深潭也. 遂抱倭將之腰 墜入江中 倭陣大驚 亂平後 旌論介曰義妓 立祠江上祭之 名其石曰義妓巖 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字 其巖亦名落花巖 盖以妓之沈江 譬之落花云.

11.《동감강목(東鑑綱目)》[33]

왜적(倭賊)에게 진주(晋州)가 함락되자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죽다.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목사(牧使) 장윤(張潤)과 더불어 진주성에 들어와 지키니 한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의지(依支)하더라. 친히 흙과 돌을 짊어지고 기회(機會)를 따라 대응(對應) 변화하더라. 적이 올려다 보고 탄환(彈丸)을 쏘아 황진의 이마를 뚫어 죽였다. 최경회의 첩(妾) 논개(論介)는 왜장(倭將)을 꾀어 남강(南江) 가운데의 암석(巖石) 위에 놀다가 왜장을 안고 물에 떨어져 죽었다.

---

33)《동감강목(東鑑綱目)》은 조선 말기 동방의 석학(碩學)이라 존경받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 1836~1906)의 유고이다. 이 내용은《동감강목(東鑑綱目)》제4책(第四冊) 제18하(第十八下) 계사장(癸巳章)에 기록되어 있다.

倭陷晋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 死之 忠淸兵使黃進 牧使張潤 共入守晋州 一城倚之爲重 親負土石 隨機應變 賊仰防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誘倭將 溺南江中巖石上 抱倭將墮水而死

12. 《대동기문(大東奇聞)》[34]

논개는 진주 기생이다. 임진왜란 때 판관(判官) 김시민(金時敏)이 수천명의 잔군(殘軍)으로 수십만명의 대적(大敵)을 물리쳐 성 안이 보호되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과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거느린 병사가 거의 6만명에 달했으니 전에 비해 10배였다. 사람들이 모두 성의 지키는데 염려없다고 하되 논개는 유독 염려하거늘 김천일이 그 이유를 묻자 '전 날에는 병사가 비록 적었으나 장상(將相)들이 서로 사랑하여 호령(號令)이 한결 같았으니 이것이 승리한 일이오, 지금은 비록 병사는 많으나 군사들이 통솔이 되지 않고 장수는 병법(兵法)을 모르니 이 때문에 걱정이요.' 라 하였다. 그러자 천일은 요망스런 말이라 하여 그녀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좌우에서 말려 그쳤다. 성이 함락됨에 이르러 군사와 주민과 장교들이 모두 살육(殺戮)을 당하였다. 논개는 화혀한 옷으로 갈아 입고 이쁘게 단장(丹粧)하고 촉석루 아래 초암(峭巖) 위에 서 있었는데 적장(敵將)이 (그녀를) 보고 희롱(戱弄)코자 하니 논개가 그의 호리를 끌어안고 (몸을) 담수(潭水)에 던져 죽었다. 뒷 사람들이 그 바위의 이름을 일컬어 의기암(義妓巖)이라 하고, (촉

34) 이 책은 1926년 간행되었는데, 강효석(姜斅錫)이 편집한 것으로 기존의 각종 필기 야담류(野談類)의 책들을 두루 참고하여 조선 왕조별(王朝別)로 특기할만한 기담(奇談)들을 모아 엮은 한문(漢文)의 단편(短篇) 이야기 책이다. 이 글은 《대동기문(大東奇聞)》 권2(卷二), 선조조(宣祖朝) 53. '논개포장어초암(論介抱將於峭巖)' 의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서예원(徐禮元)과 김천일(金千鎰)이 진주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 하겠다. 진주성이 함락된 것은 2차 진주성 전투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癸巳年, 1593)의 일이다.

석의) 누(樓) 아래에다 사당(祠堂)을 세우고 매년 봄과 가을에 기녀(妓女)들이 많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論介는 晋州妓也라. 壬辰亂에 判官 金時敏이 以數千殘軍으로 能退數十萬大敵하야 城中이 得保러니 丁酉再亂에 牧使 徐禮元과 倡義使 金千鎰 所領兵이 幾至六萬하니 比前爲十倍라. 人皆謂守成無慮호되 論介獨憂어늘 千鎰이 問其由한되 對曰前則兵雖小나 將相이 相愛하야 號令이 出一하니 此爲得勝之本이오, 今雖兵多나 軍無統率하고 將不知兵하니 是以爲憂로라. 千鎰이 以爲妖言이라 하야 欲斬한되 左右勸解得止하다. 及城陷에 軍民將校盡被殺戮이라. 論介凝粧盛服하고 立於矗石樓下 峭巖之顚하니 敵將이 見而狎之어늘 論介抱其腰하고 投死潭水하니 後人이 名其巖曰義妓巖이라 하고 立祠樓傍하고 每年春秋에 群妓會集而祀之하더라.〈靑邱野談〉

13.《일사유사(逸士遺事)》[35]

논개는 본래 장수현(長水縣)의 양가 여자(良家女子)로 재모(才貌)가 절윤(絶倫)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은 가난하여 의지할데거 없었으므로 마침내 기적(妓籍)에 들게 되었다. 현감(縣監) 황진(黃進)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계사년(癸巳年) 황공(黃公)이 순난(殉難)하자 논개도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하였다. 진양성(晋陽城 : 진주성) 전투에서 황공이 순절(殉節)하였다. 논개는 가의로 가서 죽고자 하여 혼자 화장에 옷을 차려 입고 바위 위에 서 있자니 일본군 장수 모(某)가 보고 기뻐하며 꾀어 데려가려고 하는데 술이 취해 있어 논개가 갑자기 허리를 안고 바위 아래로 몸

35) 이《일사유사(逸士遺事)》는 장지연(張志淵)이 지은 것으로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 아닌 '양가 여자(良家女子)' 라 하였으며, 현감 최경회(崔慶會)가 아닌 현감 황진(黃進)이 논개를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을 던져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의암(義巖)'이라 하고, 바위 가에 비석을 세워 표시해 두었다. 고을 사람들은 또 촉석루(矗石樓) 서쪽에 사당(祠堂)을 세워 매년 6월 29일 반드시 제사를 올리니 이 일은 계사년(癸巳年) 의리(義理)로 순절한 날이다.

論介난 本長水縣 良家女니 才貌絶倫하고 幼失父母하고 家貧無依하야 遂落籍爲妓라가 爲縣監黃進의 所愛러니 及晋陽之役에 黃公이 殉難이라. 論介欲赴水死하야 獨凝粧艶服으로 立巖石上이러니 日將某ㅣ 見而悅之하야 將誘而引之러니 酒 에 論介忽抱其腰하고 投巖下俱死故로 名其巖曰義巖이라 하고, 立碑巖上而旌之하고, 州人이 又立祠于矗石樓西하야 每歲六月二十九日에 必祭之하니 盖癸巳殉義日也러라.

14. 《장수읍지(長水邑誌)》[36]

1)

의기(義妓)로써 그것을 이은 논개(論介)는 이 곳(長水)에서 생장(生長)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구름에 따라 비가 내리듯이 진양(晋陽)으로 가서 (왜적을) 붇들고 강 가운데로 빠지니 미인(美人 : 논개)의 혼령(魂靈)이 오고 가는 정처도 없이 가득하다. 그녀의 곧은 마음과 외로운 절개(節槪)는 가히 여자 가운데 군자(君子)라 일컬을 만하다.

…繼之以義妓論介生長玆鄕 當龍蛇之運雲隨雨于晋陽 負沉于江中香魂磅 往來無定其貞心孤節 可謂女中君子矣.… [37]

---

36) 이 《장수읍지(長水邑誌)》는 이 곳 장수 지방 유림(儒林)들에 의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 편집하여 1925년에 간행되었다.

2)

최공(崔公)이 진주병사(晋州兵使)로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였을 때 논개(論介)는 공(公)을 따라 갔더라. 성(城 : 진주성)이 함락함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하고 적장(賊將)을 꾀어 남강(南江)의 위태로운 바위에서 춤을 추다가 같이 물에 떨어져 죽었다. 뒷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의기암(義妓巖)이라 이르더라. 강 위에 사당(祠堂)을 세워 제사(祭祀) 지내노라.

崔公以晋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及城陷 盛粧 誘賊將對舞於 南江危巖之上 因以同墮江 而死後人 其巖曰義妓巖 立祠江上而祭之.[38]

---

37) 이 내용은《장수읍지》서문(序文) 가운데 들어 있다.

38) 이 내용은《장수읍지(長水邑誌)》건권(乾卷) 절의장(節義章)에 기록되어 있다.

논개에 관한 최근의 기록들

1.《벽계승람(碧溪勝覽)》[39]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 부인(婦人)

논개는 본군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출생으로서 자람에 따라 관비속공(官婢贖供)이 되어 현감(縣監) 최경회(崔慶會)의 시종(侍從)을 들다가 최경회가 진주(晋州)로 부임(赴任)할 때 데리고 가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게 되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촉석루상(矗石樓上)에 올라 자축연(自祝宴)을 열고 명기(名妓)를 구하였는데 당시 조국(祖國)의 패전(敗戰)을 통분(痛憤)하고 있던 논개는 연약(軟弱)한 여자의 몸으로 단연(斷然) 보복(報復)을 결의하고 자진(自進) 연석(宴席)에 참석하여 갖은 수단(手段)으로 애염(愛艶)을 다하며 적장(賊將)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손을 잡고 장시간(長時間) 의암(義巖)에서 용무(溶舞)하는 척 하다가 섬섬옥수(纖纖玉手)로 적장의 허리를 껴안은 채 남강(南江)에 투신(投身) 순사(殉死)하였다. 끝으로 한말(韓末)의 문장가(文章家)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한시(漢詩)와 수주(樹洲) 변영로(卞榮魯)의 시(詩) '논개(論介)'를 소개하여 의랑(義娘)의 충절(忠節)을 재음미(再吟味)해 보고자 한다.

---

39) 향토 역사(鄕土歷史)의 기록인 군지(郡誌)가 장수(長水)에도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전에 모필(毛筆)로 역기(歷記)한 단권(單卷)의 책이 그 효시(嚆矢)가 되어 이 귀중한 고전(古典)을 되살리고 계승키 위해 장수향교(長水鄕校)에서 1975년 간행한 것이다. 논개에 관한 기록은《벽계승람(碧溪勝覽)》7(七) 절의편(節義篇)에 있다.《벽계승람》의 논개에 관한 내용에는 논개의 출생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缺如)되어 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홀러라.

2.《삼절(三節)의 고장》

충절의 여신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40]

삼강(三綱)을 실천한 여인

동양에서 태어난 인류 최대의 성인(聖人) 공부자(孔夫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가르쳐 '신체를 죽여서라도 인의를 이룩함' 이 사람이 취하여야 할 도리라 하였으며, 그의 도(道)를 가장 충실하게 후세에 전달하여 아성(亞聖)의 칭호로서 존경받는 맹자(孟子)께서는 사생이취의(捨生而取義)를 주장하였으니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리를 취하여야 한다.' 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세상이 우러러 보는 선비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평범한 백성까지도 성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없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겠으나 알면서

---

40) 장수군(長水郡),《삼절(三節)의 고장》(장수군, 1982, 전주), pp.41-48.

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행실이라 할 것이다. 충(忠) 효(孝) 열(烈), 이 세 가지를 인간의 삼원(三元)이라 하였으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행(操行)을 갖추었다면 삼덕(三德)을 갖추었다고 일렀다. 이와 같은 수양이 되었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신상의 편안함을 꾀하는 범인(凡人)의 처사에 비교해 보면 그 얼마나 의연하며, 또한 얼마나 고상함인가. 의암 주논개 부인은 삼덕을 갖추고 삼강을 실천하였으며, '살신성인' 하였으며, '사생이취의' 하고,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 순절하면서 국난(國難)을 구하고 국치(國恥)를 설욕하였으며, 왜구(倭寇)의 칼날 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夫君)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 (崔慶會) 장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져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랴.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자라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군과 같이 순절한 여인 , 우리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일화를 딴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1592년(宣祖 25) 임지왜란이 일어남에 백성들은 조정의 무력함과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와 군대에 대한 원망에 가득차 있었으며, 누구도 국난을 구하는 전쟁터에 달려가 왜적과 싸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의암 주논개 부인은 순절한 후 전국에서 의병(義兵)을 초모(招募)하는 격문에 연약한 아녀자도 대의를 판별하고 적의 장수를 꾀어 그 허리를 안고 남강에 순절하여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고 지아비의 원수를 갚았다. 항차 피끓는 장부가 국난을 당하여 수수방관하면 장차 무엇으로서 적을 무찌를 것인가 하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니 국민의 애국심을 분기 시킬 수 있었으며, 곳곳에서 칼과 창을 들고 왜적 소탕의 성전에 참여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음으로 조논개 부인의 죽음은 실로 임진왜란 종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의암 주논개 부인은 애국애족하는 민족의 갈 길을 가르치고 영구불멸의 영혼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니 참다운 한국 여성의 상징일 할 것이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

부인의 성은 주(朱)씨이며, 관향은 신안(新安)이고, 의암(義巖)은 예문관(藝文館)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로 고려 예부상서(禮部尙書) 인장(印長), 이조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승천(勝遷),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공(恭)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7대조 금교찰방(金郊察訪) 휘(諱)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휘(諱) 응표(應杓)에 이르러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에 들어왔다. 조부 휘(諱) 혁(爀)이 장수현(長水縣) 임내면(任內面) 주촌(朱村)에 와서 학당을 차리고 훈장이 되었으며, 부친 달문(達文)이 대를 이어 훈장을 생업으로 하였는데 어머니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1574년(宣祖 7) 9월 3일 밤 논개가 출생함에 달문의 아우 달무(達武)가 서당에 달려와 이 사실을 전하였다. 달문는 몇 번인가 손가락을 헤아려 보더니 '굉한 사주로구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집으로 돌아왔다.

주달문은 일찍이 안의현(安義縣) 서하면 봉절리 밀양 박씨 집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하게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남아를 얻의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나이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후사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朱氏家門)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 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뻐하였으나 여아를 분만한 부인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이다. 주달문은 부인을 위로하여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갑술(甲戌)년 갑술(甲戌)월 갑술(甲戌)일 갑술(甲戌)시에 태어나 사갑술의 특이한 사주를 타서 장차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이 높을 것이나 우리들 나이 늙어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한스러울 뿐이요.' 라고 말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사갑술의 뜻을 새겨, 경상도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 라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 이름지어 주고, 자라면서 아동 교육의 여가를 틈타 한문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놀라게 하여다.

논개 나이 10여세가 되니 천성의 아름다운 자태와 고상한 기풍을 갖추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서당에서 수학하는 학동들의 짖궂은 희롱이 있었음에도 항시 묵묵히 말이 없던 논개는 어느 때인가시(詩) 한 귀가 적힌 쪽지를 학동들에게 주었다. 거기는 아래와 같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꽃이 높은 가지에 있으니 사람이 꺽지 못하고, 풀섶이 무성하니 개 다니기 어려웁다.)(花 高人不折草盛狗難行)

논개 자신은 높은 곳에 요요히 피어 있는 꽃에 비유되었으며 학동을은 풀밭을 헤치고 다니는 강아지에 비유하였으니 어찌 창피하지 않을 것이가.

이후로 갓 피어나는 아름다운 소녀 논개에게 희롱을 걸어보는 학동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철부지 나이의 어린 논개는 남달리 늙은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 새벽에 문안에서부터 밤의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살핌을 소홀히 한적이 없으며, 부모의 식사 때 시좌(侍坐)하여 끝날 때까지 수저를 든적이 없었다. 산딸기 하나, 산나물 한 포기가 아버지의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이 어린 논개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1587년(宣祖 20) 겨울내 병석에 누웠던 아버지 주달문은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어린 논개 소녀는 약손가락을 깨물어 선혈을 아버지의 입에 흘렸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주씨 일문(朱氏一門)의 불행은 주달문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숙부 주달무의 농간으로 수모겪어

주색 잡기와 행패를 일삼고 다니던 논개의 숙부 주달무(朱達武)는 당시 지방의 토호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 형의 유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체하며 자기의 행락의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며,간교한 김풍헌은 주달무를 이용하여 백치 불구(白痴不具)인 자식의 민며느리로 논개를 사올 것을 계획하였으니 두 사람의 흥정은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전상토(洞前上土) 서마지기(三斗落)의 문서와 엽전 300량, 당백포(唐白布) 세 필에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四柱單子)를 얻어 가지고 돌아간 주달무는 그 돈을 탕진할 때까지 주촌 마을에 돌아가지도 않았다.

끝내 김풍헌의 재촉과 추궁에 못이긴 주달무는 형수 박씨 부인 앞에 김풍헌 아들의 사주단자를 내던지고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김풍헌은 황도길일(黃道吉日)을 택하여 혼일자(婚日字)을 통고하게되었으니 박씨 부인과 논개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이 없었다. 모녀간에 상의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에 있는 박씨 부인의 친정으로 도피하여 화를 면하려 하였다. 가마와 시종들을 주촌 마을에 보냈으나 허탕치게 된 김풍헌은 장수현감(長水縣監)에게 소장(訴狀)을 제출하여 도망간 박씨 부인과 논개를 연행하여 사문하게 도;었다.

1588년(宣祖 21) 8월 장수읍 관아(官衙) 소선루(笑仙樓) 앞 뜰에는 박씨 부인과 논개가 부복하고 있으며, 김풍헌과 여러 증인을 상대로 현감(縣監) 최경회(崔慶會)는 사건을 심하고 있었다. 심문이 끝나고 판결에서 김풍헌에게 '무고한 사람을 무고(誣告)해서는 안된다.' 고 엄하게 꾸짖으며, 주논개 모녀에게는 무죄 방면의 영을 내렸다. 현감의 부인 나주 김씨(羅州金氏)는 내아(內衙)에서 이 송사(訟事)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방면된 논개 모녀를 내아로 초치하여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 병약해서 자리에만 누워있는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최 현감의 승낙을 얻어 박씨 부인과 주논개의 내아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주논개는 병석의 김씨 부인의 간호와 최 현감의 시중에 지성을 다했으며, 자색과 부덕이 겸비하여 성실하고 영리한 논개를 측실(側室)로 맞이 들일 것을 최 현감에게 권유하였으니 노년에 숙질(宿疾)로 고생하던 박씨 부인도 최 현감의 은혜에 보답하고 뛰어난 인품을 보아서라도 현감의 측실이 되어야 한다고 부탁하며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때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어머니 박씨 부인도 별세했다는 소식이 오

고 죽으면서까지도 측실로 최 현감을 모시라는 유언을 남기고 현감 부인 김씨마저 이승을 떠나고 말았으니 필연적으로 최 현감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591년(宣祖 24)의 봄, 논개는 최 현감의 측실이 됨으로써 비로소 부부의 정이 깊어졌을 것이며, 무장현감으로 전근되는 최경회를 따라갔으나 부임한지 반년도 못되어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생하였다. 최경회 현감은관군을 이끌고 전라감사 이광(李洸)이 영도하는 전라도구원군(全羅道救援軍)에 편입되어 수원의 독성(禿城)까지 진격하였으나 유능한 장재들인 황진(黃進) 최경회(崔慶會) 정담(鄭湛)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광 감사는 왜군의 예봉에 궤멸하고 말았다. 나주목사(羅州牧使) 권율(權慄)과 전기 세 수령(三守令)이 인솔하는 소수의 병력만이 무사하게 귀향하였으며, 뒤이어 조정에서는 권율 목사의 장재(將材)를 인정하여 호남도원수(湖南都元帥)를 제수하였으며, 권율 도원수는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을 진산(珍山) 이치(梨峙)에 김제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을 용담(龍潭)에, 의무장현감(茂長縣監) 최경회(崔慶會)를 장수에 배치함으로써 최경회는 장수군 계내면 월강리(月岡里)에 장대를 설치하고 장대 앞 넓은 들을 조련장(調練場)으로 이용하여 의병 조련에 힘썼고, 무장에서 부군을 따라온 논개는 민며느리 사건의 속죄를 구실삼아 풍천에 가대를 마련해 주는 김풍헌의 덕으로 안주할 수 있었으며, 군무의 여가를 타서 최 현감과 같이 신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조련을 마친 의병장(義兵將) 최경회는 적상산성(赤裳山城)으로 본부를 옮기고 무주, 금산, 지례, 진양, 개령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하였으며,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성일(金誠一)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1593년(宣祖 26) 4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의 요직에 오르면서 진주(晋州) 주둔의 명을 받고 장수 의병을 거느리고 진주성에 입성했다.(忠毅公 日休堂事實記, 月岡祠創建本事)

왜병에 붙잡혔으나 황진 장군이 구출

한편 논개 부인은 의병 몇 사람의 호위를 받으면서 풍천 마을에서 말안장에 올라

(논개 말탄 바위 있음) 200리 진주길을 떠났는데, 산청군(山淸郡) 오부면(梧釜面)을 지나다 왜적의 척후병에 걸려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왜병들은 경상우병사의 측실임을 알고서 재를 넘어 왜군의 본거지인 창원(昌原) 근방으로 포로를 호송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진주성의 중요성을 알고서, 섬진강을 지키던 방어사(防禦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를 진주성에 입성케 하였으며, 왜적을 추격하여 상주(尙州) 적암(赤巖)까지 진출한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도 진주성에 합류하게 명령하였으니 황진 장군은 부하를 거느리고 오부면을 지나면서 부상한 병졸로부터 주논개 부인을 왜적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서 추격하여 함안현(咸安縣) 양곡(陽谷)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여 무사히 진주성에 입성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러 장수들과 수인사를 마친 황진 장군은 입성 도중 왜적을 만나 섬멸하고 귀중한 전리품을 얻었으나 도리상 경상우병사 관내이기 때문에 최병사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제의하자 최 장군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싸운 사람이 차지해야 한다고 서로 양보하여 해결이 안되자 김천일 장군이 중재에 나서 전리품을 가져오게 한 바 교자 한 채가 운반되었고 교자문을 열어보니 왜병에게서 구출한 논개 부인이어서 최 병사는 백배 사죄하고 논개 부인을 인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鄭飛石著, 小說 論介)

그러나 논개 부인이 진주성에 입성한 후 2개월도 안되어 운명의 결전의 날은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 침략에 나섰던 가등청정(加藤淸正)은 그 때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던 진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용장 모곤촌육조(毛谷村六助)를 공성장(攻城將)으로 임명하고 20만 병력을 주어 철통같이 진주성을 에워싸고 주야로 쉴새없는 공격을 퍼부었으니 이 때가 1593년 6월 18일이었으며, 남쪽에서 몰려든 검은 구름은 천지를 어둡게 하면서 놋낮같은 빗줄기를 퍼붓기 시작하였고, 지루한 장마로 변하고 말았다. 논개 부인은 낭자군(娘子軍)을 조직하여 치마폭에 돌멩이를 나르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적병에게 퍼붓는 전쟁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장마비에 못견딘 성첩의 동남각이 무너진 것이 6월 28일,

황진 장군의 영웅적인 싸움으로 적을 막으면서 성첩이 보수되었으나 불행하게 일대의 명장 황진 장군은 적의 조총탄이 이마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으며, 6월 29일 밤 다시 서남방의 성첩 20여 장(丈)이 무너지면서 왜적이 개미떼처럼 넘어 들어와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田炳淳著 義娘論介) 이조 말엽에 동방 석학(東方碩學)이라 존경받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 1836~1906) 선생의 유고 동감강목(東鑑綱目) 제4책(第四冊) 제18하(第十八下) 계사장(癸巳章)에 쓰여진 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倭陷晋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 死之 忠淸兵使黃進 牧使張潤 共入守晋州 一城倚之爲重 親負土石 隨機應變 賊仰防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誘倭將 溺南江中巖石上 抱倭將墮水而死(왜적에게 진주가 함락되자 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복수장 고종 후 죽다. 충청병사 황진 목사 장윤과 더불어 진주성에 들어와 지키니 한 성이 모두 의지 하더라. 친히 흙과 돌을 짊어지고 기회를 따라 변화하더라. 적이 올려다 보고 탄환을 쏘아 황진의 이마를 뚫어 죽였다. 최경회의 첩 논개는 왜장을 꾀어 남강 중의 암석 위에 놀다 가 왜장을 안고 물에 떨어져 죽었다.

왜장 껴안고 남강물에 투신 순절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이종인 장윤 등은 남장대(南將臺 : 矗石樓)에 모여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서 최경회 장군의 임종시(臨終詩)를 읊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물에 떨어져 순절하고 말았다. 민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논개 부인은 남편 최 장군의 부음을 듣고서 더욱 슬퍼하였다.

성을 함락시킨 왜병들은 살육과 약탈을 일삼다가 7월 7일 촉석루에서 승전연을 베풀고자 기생을 소집하는 방(榜)을 거리에 붙었으니 이를 본 논개 부인은 이것이 하늘이 주신 설욕의 기회라 생각하고 진주의 수안 기생(首案妓生)을 불러 자신의 계

획을 말하고 기안(妓案)에 논개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으니 바로 이 때부터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칠석날은 왔고 공성에 참가했던 왜장들이 촉석루에 모여 들 때, 논개 부인은 어여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운명의 연석에 참석하였다.

장수지(長水誌) 건권(乾卷) 절의장(節義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崔公以晋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及城陷 盛粧 誘賊將對舞於 南江危巖之上 因以同墮江 而死後人 其巖曰義妓巖 立祠江上而祭之(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하였을 때 논개는 공을 따라 갔더라. 성이 함락함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하고 적장을 꾀어 남강의 위태로 운 바위에서 춤을 추다가 같이 물에 떨어져 죽었다. 뒷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의기암이라이르더라. 강 위에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노라.)(全北誌, 湖南誌, 三綱錄)

논개 부인은 진주 기생들의 협조를 얻어 공성의 주장(主將)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승전에 도취하여 방자하고 교만한 게야무라에게 홍몽대취 하도록 술을 권한 뒤 추파를 던져 연석에서 빠져나와 남강 기슭에 있는 위태로운 바위까지 유인하는데 성공하였다.춤을 추며 애교로써 포옹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강물 속으로 밀며 같이 떨어졌으니 10여일간을 쉴새없이 내린 장마비는 남강을 노도와 같이 흐르게 하였으며, 홍수에 휘말린 논개 부인과 게야무라는 껴안은 채 한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으니 19살 꽃다운 청춘의 최후가 어찌 비참하지 않으랴. 그 후 장수군민은 논개 부인의 충절을 추모하여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를 세웠으며, 당시의 현감 정주석(鄭胄錫)은 글을 지어 아래와 같이 찬양하였다.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

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乎 節源於天性 布人耳目者乎 愧余六旬腐儒 無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豊功義烈 艶服起敬 尋常感慨 今於義妓竪名傳後 以生平趨

走下風之願 謹以書記識

崇禎紀元後四丙午季秋上

知縣西原 鄭冑錫 謹識

子幼學 基永 謹書

碑有司 密城 朴吉仁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어지러울 때 구차하게 살지 않음이 쉽지 않고 열사로도 어려운 바 라 일개여자가 대의를 판별하고 죽는 것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았으나 어찌 그 리 빛나며 매울쏘냐.

당일을 상상해 보면 위엄과 늠늠한 기개가 사무쳐 해와 별같이 빛나도다. 어찌 그리 장 할소냐. 산에는 성스러운 버섯이 있고 물에는 맛좋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군자도 가상하다. 일컬으니 항차 사람의 이름에 있어서랴. 절의는 그 근원이 천성에 있으니 어찌 사람의 이목에 베풀고자 하였을까부냐.

나는 육순의 썩은 선비로서 종내 자기 스스로의 공을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노라.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다 공이 많은 좋은 입은 사람을 공경하느니 그 감개가 심상치 아 니하다.

지금 여기에 의기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함으로써 평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뒤 쫓아 갈 것을 지체 낮은 사람들의 바람이라 삼가 글로써 기록하여 남기나이다.

숭정기원후 사병오 구월 상순

지현서원 정주석 삼가 지음

아들 유학 기영 삼가 글씨 씀

비유사 밀성 박길인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수 의병들은 성이 함락되면서 야음을 틈타 성을 탈출한 1천여명이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던 중 최병사와 제장의 죽음과 논개 부인의 장렬한 설욕의 순절을 탐지하고 시체라도 고향땅으로 같이 돌아가려는 충정에서 하류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논개 부인이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고서 떠내려온 시체는 물론 최경회 장군의 시체 가지도 발견하여 올리게 되었고, 장장 150리 길을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 문중(朱氏門中)과 장사 지낼 것을 타협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으므로 삼남대로(三南大路)변 양지 바른 언덕에 최경회 장군을 윗쪽에, 주논개 부인은 아래쪽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이 무덤은 기록으로 혹은 전설로서 후세에 남겨져 오다 1975년 오치황(吳致滉), 유기열(劉淇烈)이 고증에 따라 발견하므로써 문화공보부에 보고됐고, 드디어 세상에 알려제게 되었으니 그가 간지 3백82년이 되는 때였다. 실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민몰(泯沒)한지 않음이 여기 증명되었으며, 충효열을 다한 의암 주논개 부인은 유덕은 억천만년을 길이 빛날 것이다.

석학 문장의 논개 흠모 시작(詩作) 남겨

이조 말엽의 문장가이며 시인인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아래와 같은 시를 후세에 남기고 한일합방을 항의하여 자결하였다.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鄕産

矗石丹靑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신내 나루에 물까지 향기롭구나

내 얼굴 깨끗이 씻고 의랑에게 절하니

가날픈 체질로서 어찌 사람 죽일 위엄 생겼을까?

남편도 벌써 군대의 행열에 서니

장계 늙은이들 우리 고장에서 태어났다 자랑하네

촉석루 화려한 단청은 나라의 슬픔을 제사 지내고

돌이켜 생각하니 선조 시절 인물도 많았지만

천만년 역사에 제일 빛나는 휘황한 인물되었네.

현대시(現代詩)의 거장 수주(樹洲) 변영로(卞榮魯)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진주(晋州) 남강(南江) 기슭에 있는 정문 속에 있는 송비(頌碑)에는 아래와 같은 송시(頌詩)가 있다.

獨峭其巖
特立其女
女非斯巖
焉得死所
巖非斯女
焉得義聲
一江孤巖
萬古芳名

그 바위 홀로 솟아있고
그 여자 우뚝 서 있네.
여자 이 바위 아니었으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을까?
바위 이 여자 아니었으면
어찌 의롭다는 소리 얻었을까?
한 강 외로히 선 바위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그 후 조정에서나 유림들의 발의로 진주에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을 예조(禮曹)에서 사액(賜額)하였으며, 의랑사(義娘祠)를 촉석루(矗石樓) 옆에 세워 매년

음 6월 29일 제장(諸將)과 함께 제사 지내며, 생장향인 장수에는 의암사(義巖祠)를 세워 영정을 모셨는데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이 친필로 사액(賜額)하였고, 매년 9월 9일에 대제를 모시고 있다. 또한 장수읍에 생장향수명비(生長鄕竪名碑)가 있고, 장수군 계내면 주촌국민학교의 생장 유허(生長遺墟)에는 동상이 서있고, 동 부락 노변에는 추모비각(追慕碑閣)이 있어 비장하게 최후를 마친 의암 주논개 부인의 유덕을 숭모하며, '살신성인' 하고 '사생이취의' 하는 희생 정신을 이어 받고 있는 것이다.

19세의 일생을 홍모와 같이 져버린 의암 주논개 부인의 삶은 짧았으나, 그의 정신과 방명은 억천만년을 통하여 한국 사람의 뇌리에 되새겨 질 것이며, 이 고장 장수 고을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3. 《장수군지(長水郡誌)》

충절(忠節)의 표상(表象)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41]

1846년(憲宗 12년 丙午) 전라도 장수읍의 호비정 거리에는 장수의 경사가 생겨 주민 수천명이 모여 의암 주논개의 수며이(竪名碑) 낙성식을 축하하였다.

당시의 현감(縣監) 정주석(鄭胄錫)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진주 남강에서 왜적의 공성장(攻城將)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의 허리를 안고 물에 떨어져 순절(殉節)한 주논개(朱論介)와 장수향교(長水鄕校)를 불태우려 침입한 왜적을 꾸짖어 감동시켜 향교의 원형을 완전히 보존케한 충복(忠僕) 정경손(丁敬孫)과 숙종(肅宗) 4년 무오(戊午) 3월 22일 현감 조시 종면(趙宗冕)을 수행하여 민정을 시찰하다가 천

---

41) 장수군(長水郡), 《長水郡誌》(장수군, 남원, 1997), pp.1259-1270. 이 군지는 1990년 10월 10일 발간되었던 것을 1997년 개정 증보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내용은 1997년 개정 증보판에 제 8 편 인물, 제 1 장 장수삼절(長水三節), 제 1 절을 전재(全載)한 것이다.

천면(天川面) 장척애(長尺崖)에서 꿩이 갑작스레 날아가는 소리에 놀라 뛰는 말과 함께 깊은 소(沼)에 빠진 현감의 뒤를 따라 순직(殉職)한 순의리(殉義吏) 등 3명을 당시 조정의 예조(禮曹)에서 삼강(三綱)을 지켜 국민의 모범이 되는 충신 효자 열녀를 모아 저술하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추천하는 장계를 올려 이 세 사람이 모두 삼강행실도에 게재됨으로써 장수현에서는 이 세 분을 장수 삼절(長水三節)로 추앙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삼아 후세 사람들의 표상이 되게 하였다.

정주석(鄭胄錫) 현감이 부임하기 약 45년전 최수형(崔壽亨)이란 현감이 부임하여 장척애에 순의리(殉義吏)의 타루비(墮淚碑)를 세웠으나 의암 주논개와 충복 정경손의 비석은 이 때까지 세우지 못하여 군민이 모두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주석 현감이 부임하여 두 분의 충절에 대한 포양(褒揚)하는 차원에서 호비정거리에 의암 주논개의 비각(碑閣)을 세우고, 향교 앞에 정경손의 비각을 세우는 거사를 시작한 반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준공,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자 군민들은 구름같이 몰려와 이 성사를 구경하였다.

현감 정주석 선생은 비석에 명문장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도록 하여 현재까지 전하여 온다.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 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乎 節源於天性 布人耳目者乎 愧余 六旬腐儒 無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豊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慨 今於義妓竪名傳後 以生平趨

走下風之願 謹以書記識

崇禎紀元後四丙午季秋上

知縣西原 鄭胄錫 謹識

子幼學 基永 謹書

碑有司 密城 朴吉仁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어지러울 때 구차하게 살지 않음이 쉽지 않고 열사로도 어려운 바 라 일개여자가 대의를 판별하고 죽는 것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았으나 어찌 그 리 빛나며 매울쏘냐.

당일을 상상해 보면 위엄과 늠늠한 기개가 사무쳐 해와 별같이 빛나도다. 어찌 그리 장 할소냐. 산에는 성스러운 버섯이 있고 물에는 맛좋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군자도 가상하다. 일컬으니 항차 사람의 이름에 있어서랴. 절의는 그 근원이 천성에 있으니 어찌 사람의 이목에 베풀고자 하였을까부냐.

나는 육순의 썩은 선비로서 종내 자기 스스로의 공을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노라.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다 공이 많은 좋은 입은 사람을 공경하느니 그 감개가 심상치 아 니하다.

지금 여기에 의기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함으로써 평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뒤 좇아 갈 것을 지체 낮은 사람들의 바람이라 삼가 글로써 기록하여 남기나이다.

숭정기원후 사병오 구월 상순

지현서원 정주석 삼가 지음

아들 유학 기영 삼가 글씨 씀

비유사 밀성 박길인

주논개의 생장향인 장수읍에 이 수명비각이 건립됨으로 더욱 세상에 알려졌으며 오래도록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던 주논개의 충절과 위대한 순국 정신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사갑술(四甲戌)의 여아 탄생

부인의 성씨는 주(朱)씨이며 관향은 신안(新安)이며 의암(義巖)은 국가에서 내려진 사호(賜號)이다. 동양 성리학(東洋性理學)의 시조라 이르는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예로 고려 때 이부상서(吏部尙書)의 벼슬에 올랐던 인장(印長), 이조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 승천(勝遷),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 공(恭)으로 세계(世系)를 이어 7대손인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러 관직이 끊어졌으며, 6대조 증직(贈職) 통덕랑(通德郎) 응표(應杓)에 이르러 경상도(慶尙道)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리(芳池里)에 들어와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이 신안 주씨(新安朱氏)의 집성촌(集姓村)이 되었다. 부인의 조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용일(溶一)이 전라도(全羅道)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주촌(朱村) 마을에 들어와 학당을 차리고 아동들을 훈육하는 훈장이 되었다. 아버지 달문(達文)은 부친의 대를 이어 훈장으로 가업을 삼고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장성하여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의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규수에게 장가들어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아를 출산하여 대룡(大龍)이라 이름지어 귀하게 길렀으나 나이 15세에 괴질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후사가 없는 주달문 부부는 명산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주씨 가문에 대를 이어갈 자손을 점지해 줄 것을 천지신명에게 빌었으며 그 보람이 있어 박씨 부인의 나이 40 중년에 태기를 느껴 무척 기뻤하였다.

1574년(宣祖 7년 甲戌) 9월 3일 박씨 부인은 산기를 느껴 분만 준비를 하였으며, 밤 술시(戌時)에 여아를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아동을 가르치던 주달문에게 여아의 출생을 전달한 사람은 주달문의 아우 주달무(朱武)였다. 주달문는 몇 손가락을 꼽아 보고서 '매우 기이한 일이로다. 기이한 일이다.'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다. 산모는 여아를 출산하고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남편 주달문은 실의에 빠져 있는 부인을 위로하여 '비록 여아를 분만하였으나 아이의 사주가 아주 기이하오. 갑술(甲戌)년 갑술(甲戌)월 갑술(甲戌)일 갑술(甲

戌)시에 태어나 사갑술(四甲戌)의 특이한 사주를 타고 났소. 장차 큰일을 성취할 것이며, 높은 명성을 얻을 것이나 우리 부부 나이 늙어 대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한스러울 뿐이요.' 라고 위로하였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에게 사갑술의 뜻을 새겨, 개해, 개달, 개날, 개시라면 개를 낳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경상도 방언(方言)으로 '개를 놓다(개를 낳다)' 라는 뜻이 담긴 논개(論介)라는 이름을 주었다. 자라면서 아동 교육의 여가를 틈타 한문과 예도(禮道)를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이 어린 논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이해하는 비범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 주달문을 기쁘게 하며 놀라게 하여다.

논개 나이 10여세가 되니 천성이 아름다움과 고상한 기풍을 갖추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서당에서 수학하는 학동들의 짓궂은 장난과 희롱이 그치지 않았다. 항시 묵묵히 말이 없던 논개는 어느날 시 한 귀가 적힌 쪽지를 학동들에게 넘겨 주었다. 거기는 아래와 같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花高人不折草盛狗難行(꽃이 높은 가지에 있으니 사람이 꺽지 못하고, 풀섶이 무성하니 개 다니기 어려웁다.)

논개 소녀는 자신은 높은 가지에 요요히 피어 있는 꽃에 비유하고 학동을은 풀섶을 헤치고 다니는 개에 비유하였으니 학동들은 무척 창피를 당한 셈이다.

이후로 갓 피어나는 아름다운 소녀는 남달리 늙은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 새벽에 문안부터 밤의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저를 든적이 없으며 산딸기 한 알, 산나물 한 포기라도 아버지 어머님의 식탁에 올려 부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논개 소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그러나 1587년 겨울내 병석에 누웠던 아버지 주달문은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때 어린 논개 소녀는 약손가락을 깨물어 선혈을 아버지의 입에 흘렸으나 소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주달문의 장사가 끝나고서 주씨 일문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숙부 주달무의 간계에 빠져

주색 잡기와 행패를 일삼고 다니던 논개 소녀의 숙부 주달무는 당시 지방의 토호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 형의 유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체하며 자신의 행락의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간교한 김풍헌은 주달무의 방탕함을 이용하여 백치 불구(白痴不具)인 자식의 민며느리로 논개를 사올 것을 계획하였으니 두 사람의 흥정은 쉽게 성립되었을 것이다. 김풍헌은 행락 자금이 필요한 주달무를 설복시켜 동내 앞 상답(上畓) 세 마지기(三斗落)의 문서와 엽전 300냥, 당백포(唐白布) 세 필에다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四柱單子)를 얻어 가지고 돌아간 주달무는 그 돈을 주색 잡기에 탕진할 때까지 주촌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김풍헌의 추궁과 재촉에 못이긴 주달무는 마침내 박씨 부인 앞에 나타나 김풍헌의 아들 사주단자를 내던지고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김풍헌은 황도길일을 택하여 혼례일(婚禮日)을 정하고 박씨부인에게 전달하게 되자 박씨 부인과 논개 소녀는 혼비백산의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모녀간은 우선 발 등에 떨어진 불을 피하기 위하여 박씨 부인의 친정인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로 피신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었다.

가마와 시종들을 주촌 마을에 보내서 민며느리로 샀다고 생각하는 논개 소녀를 데리러 갔으나 허탕치고 돌아오자 김풍헌은 노발대발하여 소장(訴狀)을 만들어 장수 현감에게 제출하고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588년(宣祖 21) 8월 장수읍 관아(官衙) 소선루(笑仙樓) 앞 뜰에는 안의현에서 포졸에게 잡혀온 박씨 부인과 논개 소녀가 부복하고 있으며, 김풍헌과 여러 증인이 현감 최경회(崔慶會)의 사건 심문을 받고 있었다. 심리가 끝나고 판결에서 최경회 현감은 김풍헌에게 '무고한 사람을 무고(誣告)해서 괴롭히는 처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않된다.' 는 엄명을 내리고서 박씨 부인과 논개 소녀를 무죄 방면의 영을 내렸다.

현감의 부인 나주 김씨(羅州金氏)는 내아(內衙)에서 이 송사(訟事)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면된 논개 소녀의 모녀를 내아에 불러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모녀를 내아에 머물면서 병약하여 자리에만 누워있는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모녀는 최현감의 현명한 판결로 무죄 방면된 은혜를 보답하고 우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최경회 현감의 승낙을 얻어 내아에 머물면서 현감 부인의 병시중을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씨 부인의 병간호와 최현감의 시중에 정성을 다하였다.

자색과 부덕을 겸비하였으며, 성실하고 영리한 논개 소녀는 김씨 부인의 감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부군 최경회 현감에게 생명을 오래 유지하여 못할 자신을 대신해서 측실(側室)로 맞이 할 것을 최현감에게 권유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박씨 부인도 최현감의 뛰어난 인품과 재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최현감의 측실이 되라고 권고하면서 돌아갔다. 노년에 숙질(宿疾)로 고생하던 박씨 부인은 서하의 친정에서 사망하고 논개 소녀의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나주 김씨 부인마져 이승을 떠났으니 이제는 세상에 사고무친의 고아가 되어 의지 할 곳이라고는 최현감밖에 없었다.

1591년(宣祖 24)의 봄, 드디어 최현감의 측실이 되어 비로소 부부의 정으로 맺어지는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깨이기 전인 1592년(宣祖 25) 4월 14일 부산포에 가등청정(加藤清正) · 소서행장(小西行長)을 주축으로 왜군의 침략이 시작되어 이른 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생하였다.

최경회 현감은 소수의 관군을 이끌고 전라감사(全羅監司) 이광(李洸)이 영도하는 전라도구원군(全羅道救援軍)에 편성되어 수원의 독성(禿城)까지 진군하였으나 이광은 유능한 장재(將材)인 황진(黃進) · 정담(鄭湛) · 최경회(崔慶會) · 권율(權慄)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급수로(汲水路)가 없는 산성인 독성에 주력 부대를 포진시켰다가 왜군의 예봉에 궤멸되고 말았다. 나주목사(羅州牧使) 권율과 최경회 정담 황진 등이 인솔한 소수의 병력만이 무사하게 귀향할 수 있었다. 뒤이어 조정에서는 권율 목사의 장재를 인정하여 호남도원수(湖南都元帥)를 제수하였으며, 전라감

사도 겸직하게 하였다.

권율 도원수는 병력을 재배치하여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을 진산(珍山) 이치(梨峙)에 김제군수(金堤郡守) 정담을 용담현(龍潭縣)에, 의병장 최경회를 장수(長水)에 배치하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왜군을 방어하게 하였다.

최경회 현감은 장수현(長水縣) 임현내면(任縣內面) 월강리(月岡里) 앞 구릉(丘陵)에 장대를 설치하고 의병 초모(義兵招募)에 힘을 기울려 장수 진안 무주 등지에서 약 5,000명의 장정을 초모할 수 있었고 장대 앞 넓은 들판을 조련장(調練場)으로 이용하여 막강한 군대를 조련하였다.

논개 부인은 민며느리 사건의 속죄를 구실삼아 풍천에 가대를 마련해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김풍헌의 보살핌으로 안주할 수 있었다. 군무의 여가를 틈타 최장군과 같이 신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의병들의 보살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련을 마친 의병장(義兵將) 최경회는 근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인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으로 본부를 옮기고 무주, 금산, 경상도 지례(知禮), 진양, 개령, 산청 등지에서 왜적을 격파 큰 무공을 세웠다.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성일(金誠一)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 今此晋陽之捷 莫非崔慶會外援之力(이번 진양의 승전은 최경회의 외부 원조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선조 임금께서는 무한히 칭찬하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영전 시키고 영지인 진주성(晋州城)에 입성시키고 국토의 서남방을 수여케 하였다.(忠毅公日休堂實記)(月岡祠創建本事)

부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다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가 된 최경회 장군은 수하 의병 중에서 약 3,000명을 휘

하에 이끌고 진주성에 입성하였으며 논개 부인은 수일 후에 몇 사람의 호위 병사와 같이 풍천 마을에서 말안장에 올라 300리 진주길을 떠났다. 지금도 풍천 마을에는 논개가 말탄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고향을 마지막 작별하는 결과가 되었다. 도중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 외가(外家)에서 일박을 하고 다시 노정을 재촉하던 중 산청현(山淸縣) 오부면(梧釜面) 부근에서 왜적의 척후병에 걸려 사로잡히는 경난을 겪었다. 왜병들은 경상우병사의 부인인 것을 알고서 재를 넘어 왜군의 본거지인 창원(昌原) 근방으로 압송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진주성의 중요성을 강조, 섬진강을 지키던 방어사(防禦使)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를 진주성에 입성케 하였다. 또한 왜적을 추적하여 경상도 상주(尙州) 적암(赤巖)까지 진출한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장군에게도 진주성 방어 명령을 내려 진주에 진격 중 때마침 산청현 오부면을 지날 무렵 논개 부인을 모셔가다 왜군에게 부상당한 병졸로부터 왜군에게 논개 부인이 붙들린 것을 알고서 이를 추격, 함안현(咸安縣) 양곡(陽谷)에서 극적으로 구출하는데 성공하여 무사히 진주성에 입성하였다. 여러 장수들과 수인사를 마친 황진 장군은 '진주입성 도중 왜적을 만나 교전하여 이를 섬멸하고 귀중한 전리품을 빼앗았으나 여기가 경상우병사 관할 구역이기에 도리상 최병사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 고 제의하자 최장군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싸워서 뺏은 사람이 차지해야 한다.' 고 서로 양보하자 방어사 김천일 장군이 중재에 나서 전리품을 운반해 오게 하였는데 교자 한 채가 들어오고 교자에서는 논개 부인이 들어있어 최경회 장군은 백배 사죄하고 논개 부인을 인수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논개 부인이 진주성에 입성한 후 2개월도 안되는 6월이 되자 운명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 침략에 나선 가등청정(加藤淸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은 그 때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던 진주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용장 모곤촌육조(毛谷村六助)를 공성장으로 선정하고 20만 병력을 주어 철통같이 진주성을 에워싸고

주야로 쉴새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 때가 1593년 6월 18일이었으며 때마침 장마철에 접어들어 남쪽에서 몰려든 검은 구름은 천지를 어둡게 하면서 놋낮같은 빗줄기를 퍼붓기 시작하였고 지루한 장마로 변하고 말았다.

논개 부인은 낭자군(娘子軍)을 조직하여 치마폭에 돌멩이를 나르고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 오르는 적병에게 퍼붓는 전쟁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장마비에 견디지 못한 성첩의 동남각이 무너진 것이 6월 28일 황진 장군의 영웅적인 싸움으로 적을 막으며 성첩이 다시 보수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일대의 명장 황진 장군은 적의 조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으며, 6월 29일 밤 다시 서남방의 성첩 20여 장(丈)이 무너지면서 왜적이 개미떼처럼 넘어 들어와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잔인한 왜적들은 조선 방어군과 무장하지 않은 백성을 합하여 6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동방의 석학(碩學)이라 존경받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 1836~1906) 선생의 유고《동감강목(東鑑綱目)》제4책(第四冊) 제18하(第十八下) 계사장(癸巳章)에 쓰여진 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倭陷晋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 死之 忠淸兵使黃進 牧使張潤 共入守晋州 一城倚之爲重 親負土石 隨機應變 賊仰防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誘倭將 溺南江中巖石上 抱倭將墮水而死(왜적에게 진주가 함락되자 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복수장 고종후 죽다. 충청병사 황진 목사 장윤과 더불어 진주성에 들어와 지키니 한 성이 모두 의지하더 라. 친히 흙과 돌을 짊어지고 기회를 따라 변화하더라. 적이 올려다 보고 탄환을 쏘아 황진의 이마를 뚫어 죽였다. 최경회의 첩 논개는 왜장을 꾀어 남강 중의 암석 위에 놀다가 왜장을 안고 물에 떨어져 죽었다.

왜장 껴안고 남강물에 떨어져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김천일 고종후 이종인 장윤 등은 남장대(南將臺 : 矗石樓)에 모여 국토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할 것을 협의하고 최경회 장군의 임종시(臨終詩)를 읊으며 차례로 남강물에 뛰어들어 순절하였다. 제장이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矗石樓中三壯士
一盃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

촉석루 중에 있는 우리 삼장사
한잔 술 마시며 웃으면서 강물을 가리키네.
장강물 출렁이며 도도히 흐르는데
파도가 마르지 않으면 우리 혼도 죽지 않으리.

논개 부인은 성이 함락되고 최장군마저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무한히 비분강개 하였다.

성을 왜적들은 살육과 약탈을 일삼다가 7월 7일을 기해 촉석루에서 승전연을 베풀고자 기생을 소집하는 방이 거리에 붙었으니 이를 본 논개 부인이 이것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설욕의 기회라 생각하고 진주 고을 수안 기생(首案妓生)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기안(妓案)에 논개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으니 바로 이 때부터 비장한 각오가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칠석날은 왔고 공성에 참가했던 왜장들이 촉석루에 모여 들었다. 논개 부인은 어여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운명의 연회석에 참석하였다. 《장수지(長水誌)》 건권(乾卷) 절의장(節義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崔公以晋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及城陷 盛粧 誘賊將對舞於 南江危巖之上 因以同墮江 而死後人 其巖曰義妓巖 立祠江上而祭之(최공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하였을 때 논개는 공을 따라 갔더라. 성이 함락함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하고 적장을 꾀어 남강의 위태로 운 바위에서 춤을 추다가 같이 물에 떨어져 죽었다. 뒷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의기암이라이르더라. 강 위에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노라.)

논개 부인은 진주 기생들의 협조를 얻어 공성의 주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승전에 도취하여 방자하고 교만한 게야무라를 홍몽대취 하도록 술을 권한 뒤 추파를 던져 연석에서 빠져나와 남강 기슭에 있는 위태로운 바위까지 유인하는데 성공하였다. 춤을 추며 애교로써 포옹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강물 속으로 밀어 같이 떨어졌으니 10여일간을 쉴새없이 내린 장마비는 남강의 물을 노도와 같이 흐르게 하였으니 홍수에 휘말린 논개 부인과 게야무라는 껴안은 채 한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20살 꽃다운 청춘의 최후가 어찌 비참하지 않으랴.(《全北誌》《湖南誌》《三綱錄》《長水誌》)

1740년(英祖 16, 庚申) 진주병사 남덕하(南德夏)가 의기의 정포(旌褒)를 계청하여 마침내 의기(義妓)의 정포사액(旌褒賜額)이 내려졌으며, 의암 주변에 의기사가 지어지고 의기논개지문이란 정려가 세워졌다. 남강 기슭에 있는 정문 속 송비(頌碑)에 새겨진 송시(頌詩)에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獨峭其巖
特立其女
女非斯巖
焉得死所

巖非斯女
焉得義聲
一江孤巖
萬古芳名

그 바위 홀로 솟아있고
그 여자 우뚝 서 있네.
여자 이 바위 아니었으면
어찌 죽을 곳을 얻었을까?
바위 이 여자 아니었으면
어찌 의롭다는 소리 얻었을까?
한 강 외로히 선 바위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촉석루 옆에 의암 논개 부인의 영정(影幀)을 모시는 의기사(義妓祠)를 세웠으며, 매년 음 6월 29일을 기하여 촉석루에서 심징사 및 제장 졸과 같이 의암 논개 부인의 제향이 집전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장수에는 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가 세워지면서 순절일인 7월 7일을 기해 제향이 거행되었으나 조국 광복(祖國光復)과 더불어 장수읍에 군민들이 의암사(義巖祠)를 세우고 어전 화가 김은호(金殷鎬) 화백이 그린 불후의 명작 영정을 모시게 되자 당시의 부통령(副統領) 함태영(咸台永) 선생께서 친필로 의암사(義巖祠)라 사액(賜額)을 하사 하시와 장수와 진주에 사액 사당 사액 정문을 가진 불세출의 여성이 되었다. 장수의 의암사에서는 제향일을 탄신일인 9월 3일로 바꾸어 매년 엄숙한 제향을 모시고 있다.

전북(全北) 장수군(長水郡) 장계면(長溪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에는

의암 주논개 부인의 생가가 복원되었고 생장유허비(生長遺墟碑)가 세워졌으며, 동상 추모비각(追慕碑閣)이 이건되어 의암 주논개 부인의 유덕을 숭모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96년 봄에 주촌(궐촌) 입구에 정여를 복원했다.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성에 가서 용감하게 싸운 장수 의병들은 성이 함락되면서 약 1천명이 야음을 틈타 진주성을 탈출하여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던 중 최병사와 제장의 죽음과 논개 부인의 장렬한 설욕의 순절을 탐지하고 시체라도 고향 땅으로 같이 돌아가려는 충정에서 남강 하류의 수색 작업을 개시하여 창원 지수목에서 최장군의 시체와 왜장을 껴안은 채 떠내려온 논개 부인의 시신을 한꺼번에 발견하기에 이르러 장장 150리 길을 운상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문중(朱氏門中)과 장사 지낼 것을 타협하였으나 왜적의 추적과 보복이 두려워 주씨문중의 거절로 실의에 빠진 의병들은 삼남대로(三南大路)변 양지 바른 언덕에 자리잡아(현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 31번지) 최경회 장군을 윗쪽에 논개 부인을 아래쪽에 장사지내고 그리웠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근세 조선 말엽의 장수의 석학이신 우재(愚齋) 오덕렴(吳德濂) 선생의 유고(遺稿)《경독재집(耕讀齋集)》의 인물편 최경회장(崔慶會章)에

> 崔慶會 長水縣監 晋州兵使 龍蛇之亂 晋州敗殘長水義兵 收崔兵使義巖屍身運柩 安義縣西上 面芳池里 堂山後麓安葬云.(최경회 장수현감 진주병사의 벼슬에 있었다. 임진 계사의 난리 때에 진주에서 패전하고 살아남은 장수 의병이 최병사와 의암 주논개 부인의 시신을 거두 어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 마을 당산 뒤쪽 골짜기에 묻었다 하더라.)

이러한 기록으로 또는 생존해서 고향에 돌아온 의병들이 후손에게 남겨준 설화는 대를 이어 장수 고을에 전해져 오기에 1975년 오치황(吳致滉) 유기열(劉淇烈)이 고증을 더듬어 발견하고 문화공보부에 보고서로 제출됨으로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현

재 두 분의 산소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투자로 정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순절한 후 382년만에 발견된 두 분의 유택을 살필 때 실로 몸은 죽어도 충절의 영혼은 민몰되지 않음이 여기 증명되었으니 '물결이 마르지 않는한 우리들 혼백도 죽지 않는다.'는 최경회 장군의 임종시는 헛된 것이 아님이 뚜렷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석학 문장의 숭모하는 글

일본의 침략에 항거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대문장가이며 시인인 매천(梅泉) 황현(黃玹) 선생은 의암 주논개 부인의 충절을 칭송하여 다음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産
矗石丹靑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신내 나루에 물까지 향기롭구나
내 얼굴 깨끗이 씻고 의랑에게 절하니
가날픈 체질로서 어찌 사람 죽일 위엄 생겼을까?
남편도 벌써 군대의 행열에 서니
장계 늙은이들 우리 고장에서 태어났다 자랑하네

촉석루 화려한 단청은 나라의 슬픔을 제사 지내고
돌이켜 생각하니 선조 시절 인물도 많았지만
천만년 역사에 제일 빛나는 휘황한 인물되었네.

현대시(現代詩)의 거장 수주(樹洲) 변영로(卞榮魯) 선생은 다음과 같이 읊어 세상 사람의 심금을 애달프게 하였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20세의 일생을 홍모와 같이 져버린 의암 주논개 부인의 삶은 짧았으나 그의 정신은 억천만년을 통하여 한국 사람의 뇌리에 되새겨 질 것이며, 그의 꽃다운 이름은 장수 고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세상이 우러러 보는 선비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평범한 백성까지도 성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 없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겠으나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행실이라 할 것이다. 충(忠) 효(孝) 열(烈)의 세 가지를 인간의 삼원(三元)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행(操行)을 갖추었다면 삼

덕(三德)을 갖추었다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양이 되었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신상의 편안함을 꾀하는 범인(凡人)의 처사에 비교해 보면 그 얼마나 의연하며, 또한 얼마나 고상함인가. 의암 주논개 부인은 삼덕을 갖추고 삼강을 실천하였으며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버리고 순절하면서 국난(國難)을 구하고 국치(國恥)를 설욕하였으며, 왜구(倭寇)의 칼날 아래 죽은 무수한 백성들과 그의 부군인 경상우병사 최경회 장군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한마져 풀었으니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랴.

동양에서 태어난 인류 최고의 성인(聖人) 공부자(孔夫子)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가르쳐 '신체를 죽여서라도 인의를 이룩함' 이 사람이 취하여야 할 도리라 하였으며, 공부자의 도(道)를 가장 충실하게 후세에 전달하여 아성(亞聖)의 칭호로서 존경하는 맹자(孟子)께서는 사생이취의(捨生而取義)를 주장하시어 '생명을 버리더라도 의리를 취하여야 한다.' 고 가르치시니 신체를 죽여서 인의를 이룩하고 생명을 버려서 의리를 취하신 의암 주논개 부인의 거룩하신 순절은 천만년 후세에까지 우리 민족의 사표로, 국가와 민족의 수호신으로 숭앙하여 마땅할 것이다.

4.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42]

주논개(朱論介)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德裕山)의 웅봉(雄蜂)이 잔잔한 파도처럼 펼쳐지고 사방(四方) 팔방(八方)이 우중충한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두메,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 대곡리(大谷里) 주촌(朱村) 마을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백 90여년전 한

---

42) 1970년에 이르러 당시 전북일보사(全北日報社)에서 '명문(名門)의 고향(故鄕)' 이라는 특별기획에 의해 백남혁(白南赫)이 집필한 것이다.

가날픈 여자의 몸으로 우국(憂國)의 단심(丹心) 목숨과 바꾸고 그 충(忠)과 절(節)을 오늘 천세에까지 떨친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낳은 곳이다.

고고(呱呱)한 산새들만의 고향인양 인적(人跡)마저 드문 이 고을 논개의 쌈터는 수백년의 풍상(風霜)이 씻겨가는 동안 그 형적(形迹)조차 찾을 수 없게 거기 그 자리에는 주촌국민학교(朱村國民學校)의 짤름한 교실(教室)이 산날에 걸치듯 서 있을 뿐이다. 논개의 4, 5대조(代祖)가 묻혔다는 학교 뒷산의 그 묘(墓)들도 그 형적조차 가릴 수 없게 완전히 자취를 잃어버린 채이다.

논개는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갑술년(甲戌年)에 일찍 서당(書堂)을 차리고 교학(教學)을 폈던 선비 주달문(朱達文)과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갑술년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의 4갑술(四甲戌)을 등에 업고 태어났다는 논개는 '술(戌)'은 '개' 이고, 또 '낳았다.'는 것은 옛 이 지역 사투리로 '놓았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개를 낳았다.'는 '개를 놓았다.'로 그것이 이두(吏讀)의 한자음(漢字音)을 따 '논개(論介)'로 작명(作名)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의 작명은 '개똥, 쇠똥' 등의 천한 이름을 붙이면 장수(長壽)한다는 관습에 따라 사실상의 천한 이름인 '논개(論介)'란 무남독녀(無男獨女)인 그녀의 장수를 비는 부모들의 의식적(意識的)인 작명이었을 것이다.(이하 생략)

5.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43]

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 주논개(朱論介)

진주(晋州) 남강 위암(危巖) 위에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껴안

43)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上卷)(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전ㅈ, 1983)., 최진성(崔辰聖), 〈영원(永遠)한 호국(護國)의 여인상(女人像) 주논개(朱論介)〉

고 산화되어 임진왜란의 겨레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영혼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주(朱)씨요, 이름은 논개(論介)이다.본관은 신안(新安) 사람으로 의암(義巖)은 사호(賜號)다.

그의 선대는 중국 송 나라 성리학자인 주문공(朱文公) 희(熹)의 후손이 된다. 고려 시대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인 인장(印長)이 가문을 빛냈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승천(勝遷)과 승정원 우승지를 역임한 공(恭)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여 7대조가 금교찰방(金郊察訪) 무현(武賢)에 이르게 된다.

6대조 응표(應杓)는 통덕랑(通德郞)을 증직받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여 경상도 안의현(安義縣) 서상면(西上面) 방지동(芳池洞)으로 이사를 하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 조부의 휘(諱)는 혁(爀)이니, 처음으로 장수현(長水縣) 임내면(任內面) 주촌(朱村)에 이사하게 되었다. 주촌으로 이사온 주혁은 주촌에 서당(書堂)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어 후진 교육에 힘썼다. 부친 달문(達文) 역시 가정 학문을 이어 받아 높은 학문과 덕을 갖추었으며, 후진 육성에 힘을 모아 훈장으로서 생계 유지를 하였다.

어머니는 밀양 박씨로 어머니 또한 부덕을 갖춘 어진 부인이었다.

달문 부부에게는 일찍이 아들 대룡(大龍)이 있었는데, 대룡은 단란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랐으나, 불행하게도 15세란 어린 나이로 병을 앓다가 그만 요절하고 말았다.

달문 부부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또한 후사가 끊김이 더욱 선영에 대한 죄가 됨을 근심한 나머지 서로 상의하여 우리 나라 8대 명산의 하나인 장안산(長安山)으로 들어가 공을 정성껏 올렸다. 천지신명이 그들 부부의 정성에 감명되었는지, 그 보람이 있어 부인의 나이 40 중년에 태기를 얻게 되었다.

그 후 10개월만에 소원했던 아들이 아닌 딸을 분만하게 되었으니, 이 때가 1574년 9월 3일 밤이었다.

달문이 서당에서 이 소식을 아우인 달무(達武)에게 듣고, 우선 사주(四柱)를 짚어 봤다. 몇 번인가 손가락을 꼽아 괘사(卦辭)를 풀어 보면서 〔괴이한 사주로 구나〕 하

고 혼자말로 되씹으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딸을 분만한 부인 박씨는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달문은 실망하고 있는 부인 박씨를 위로하면서, 〔비록 여아를 출생하였으나 사주를 보니,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태어났으니, 사갑술(四甲戌)의 특이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 장차 큰 일을 성취할 것이며, 명성이 높아질 것이나 우리들의 나이가 많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한스러울 뿐이요〕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이었다.

달문은 생년월일이 4갑술이라 4갑술의 〔술(戌)〕 자를 기려 곧 〈개〉를 〈놓다〉(놓다는 낳다의 방언)를 거꾸로 붙여 〔놓은 개〕 곧 〔논개〕라 하고 이두문식(吏讀文式)으로 논개(論介)라 이름지었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틈틈이 아버지로부터 글공부를 하였다. 몹시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도록 재주가 있었다 한다. 그리하여 달문도 아동들 훈학과 더불어 논개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천자(千字), 추구(推句), 사자소학(四字小學) 등을 가르쳤다.

달문은 논개의 비범한 재주에 대하여 기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다.

논개 나이 10세가 되고 보니,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맵시와 고상한 기품을 갖추게 되었다.

이 때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동들은 논개의 미모에 흠모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흠모한 나머지 짓궂은 희롱으로 논개를 곯려주기도 하였다.

논개는 학동들의 지나친 장난을 보다 못한 나머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여 항상 말이 없던 논개였지만 남아의 놀림을 타이르는 풍자시를 한 수 지어 쪽지에 적어 학동들에게 보내었다. 쪽지를 받은 학동들은 서로를 시새우면서 펴보니, 다음과 같은 시귀가 적혀 있었다.

花高人不折

草盛狗難行

높은 곳에 핀 꽃은 더벅머리 총각들이 어찌 꺾을 수 있으랴.

풀밭 무성하면 개도 다니기 어려운 것을…

논개 자신은 높고 높은 곳에 고고하게 핀 꽃에 비하였으며, 학동들은 지조도 없고, 풀밭을 헤매는 천한 개에게 비유하여 풍자하였으니, 학동들은 어찌 창피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 풍자시를 본 학동들은 너무 무색하여 어린 논개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였으며, 희롱을 하였던 과거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했던 것이다.

철부지 열 살의 어린 논개는 이와 같이 총명하여 시재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거 일동이 옛 성현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았으니, 곧 시서(詩書)와 육예(六藝)에 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여 이른 새벽의 아침 문안으로부터 밤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살펴 조금도 소홀한 일이 없었으며, 부모와 밥상을 같이 할 때에도 언제나 시좌(侍坐)하여 끝날 때까지 수저를 드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산딸기 하나 하나, 산나물 한 포기에까지 부모님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을 논개는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겼다.

1587년(선조 20) 겨울에는 아버지가 심한 해소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 논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을 다려 바치고, 또 가래침 그릇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다 드렸으며, 여러 가지로 병구완을 하였으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재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위독하게 되자 어린 논개는 약손가락을 깨물어 아버지 입 안에 선혈을 흘려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논개의 효성도 아랑곳 없이 소생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게 되었다.

논개의 가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 앞이 캄캄하였다.

논개 모녀는 슬픔 속에서도 가례(家禮)를 따라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마치고 눈

물로 나날을 보내니, 인근 마을 사람들이 효녀라고 칭찬하면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초하루 보름의 삭망은 물론이요, 남아라면 시묘를 살아야 하지만 여아이기 때문에 시묘는 못할지언정 매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때로는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달밤이면 당시를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라 그리움에 잠긴 적도 있었으며, 소학의 입교(入敎) 명륜(明倫)을 배우던 꿈도 꾸었다.

논개 모녀는 슬픈 나날을 눈물로 보내게 되었으니,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였다.

달문의 사망이 또한 주씨 일문에 끔직한 화근이 될 줄을 어찌 누가 짐작이나 하였을까? 그러나 달문의 사망이 또한 국가와 겨레를 위하여 국치를 씻어주는 거사를 이루는 계기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논개의 가장 가까운 집안 어른으로는 숙부되는 주달무(朱達武)라는 불량배가 하나 있었다. 주달무는 본시 성품이 거칠고 포악하여 옳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아니한 소인배였다. 더욱 주색 잡기(酒色雜技)로 놀아나는 건달로 행패를 일삼는 위인이었다.

형 달문이 사망하자 좋은 기회라 여기고, 그 당시 지방 토호인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서 가면극을 연출하게 되었으나 논개 모녀는 아무 짬도 모르고 슬픔 속에서만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 이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

달무는 형의 유족에 대한 생활 문제를 꺼내어 유흥비를 조달할 계략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김풍헌에게 논개 모녀의 생활 문제에 대한 딱한 사정을 끄집어 내었다. 교활한 김풍헌은 좋은 기회라 여기고 마음 속으로 기뻐하면서 부랑(浮浪)의 무리인 달무를 이용하여 30세가 된 백치불구(白痴不具)인 자식의 민며느리로 논개를 사들일 것을 계획하였으니, 비리에 야합한 두 사람의 간사한 계획은 쉽게 이루어졌다.

동네 앞 상토 서마지기의 논문서와 엽전 3백량과 당백포(唐白布) 세 필에 아들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받았으나, 김풍헌의 집을 떠난 주달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색잡기로 그만 낭비하고 말았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김풍헌은 달무를 불러다가 심하게 추궁을 하며, 또 불이 나게 재촉하였다. 심한 추궁과 재촉에 못이겨 주달무는 하는 수 없이 형수 박씨 부인 앞에 김풍헌의 백치불구인 아들의 사주단자를 내던지고 그만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김풍헌은 일이 잘된 줄만 알고 황도길일(黃道吉日)을 가려 혼인 날짜를 받아 주씨가에 통고하게 되었다.

박씨 부인과 논개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김풍헌 집에서 혼인 날짜를 통고하여 왔기에 처음에는 어리둘절하다가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여 내용을 알아 보니 다름 아닌 숙부인 달무의 소행이었다.

논개 모녀는 숙부가 한 일이고 또 지방 토호인 김풍헌의 세력과 재력에 맞서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논개는 당시 엄격하였던 봉건주의적인 사회 풍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숙부와 김풍헌의 비리적인 야합으로 자신을 인간의 제물로 삼으려는 부당함을 비판하고 불의에 용감하게 항거하기 위하여 모친과 상의한 결과 가장 힘없는 자의 항거 수단인 도피를 생각하였다.

논개는 남몰래 짐을 챙겨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났다. 60명이 모여야 재를 넘을 수 있다는 육십령재를 밤새도록 넘어 경상도 안의현 서하면 봉정 마을에 있는 박씨 부인의 친정인 외가로 가서 피신하게 되었으니 논개는 어릴적부터 남달리 사리의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때 김풍헌은 논개 모녀가 서하 외가로 피신한 줄도 모르고 노비들을 주촌 마을에 보내어 논개를 가마에 태워 오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지난 밤에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다는 하인들의 말을 들은 김풍헌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이 연놈들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노발대발 하다가 마침내 장수 현감에게 솟장(訴狀)을 올렸다. 내용인즉 혼사비와 사주단자를 받

고 도망간 박씨와 논개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관가에서는 솟장을 받고 즉시 나졸을 보내어 논개 모녀를 체포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봉정 마을에서 논개 모녀는 체포되어 압송되었다.

1588년(선조 21) 8월 삼복의 무더위 속에 장수 관아 소선루(笑仙樓) 앞 뜰에는 박씨 부인과 논개가 힘없이 죄인의 몸이 되어 엎드려 있었으며, 김풍헌이 데리고 온 여러 증인들을 상대로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는 동헌(東軒)에 높이 앉아 사건의 내용을 하나 하나 심문하고 있었다.

심문을 끝마친 최현감은 논개 모녀가 사실 무고하였으며 주달무와 김풍헌의 못된 간계임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주달무는 피신하여 종적을 감추어 버렸으므로 주달무 대신 김풍헌의 재산을 축낸 것과 내용을 모르고나마 사주단자를 받은 죄로 논개 어머니에게 5년간 현관아의 노비속공을 하도록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최경회는 전라도 화순 출생이며, 호를 일휴당(日休堂) 또는 삼계(三溪)라 하며, 본관은 해주 사람이다. 양응정(梁應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다음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30세 되던 해에 생원(生員), 진사(進士) 양 소과에 합격하였고, 36세 때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내직에 있다가 장수현감으로 부임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논개는 어린 마음이나마 어머니에 대하여 5년간의 노비속공의 유죄 판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관가에 항거할 수는 없고 또 항거해 보았자 별 도리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명관으로 현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최경회 현감에게 딱한 모녀의 사정을 올려 사건을 해결해 보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어머니 대신 자신이 노비속공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당돌하게도 최현감에게 '어머니께서는 늙고 또 병약해서 도저히 5년간이나 노비속공할 수 없으니, 어머니 대신 노비속공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고 또 눈물로 애원하였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과 같이 청춘이 만리같은 꽃다운 나이에 관

아의 계집종까지 되려는 뜨거운 효심이 최현감을 감동케 하여 최현감은 논개 모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니 늙은 어머니를 구출한 논개의 효심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그리고, 반대로 솟장을 올린 김풍헌에게는 간교한 계략으로 죄없는 사람을 무고(誣告)해서는 안된다고 엄하게 꾸짖었다.

그 때 최현감 부인인 나주 김씨는 내아(內衙)에서 이 송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던 중 무죄 방면된 논개 모녀를 내아로 청하여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 몹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논개에 대하여 첫 인상이 좋았을 뿐 아니라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와 고운 마음씨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

나주 김씨는 본래 자녀가 없고 여흥 민씨에게 2남 2녀를 두었으며, 또 후실에서 1남을 두었다. 여흥 민씨와의 사이에 갈등도 있고 하여 비밀히 부군을 따라 장수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병약함을 생각하고 언제나 병석에만 누워있는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래서 논개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도와 줄 것을 간청하엿으며, 곧 이어 부군에게 승낙을 받아 시종하도록 말하니 이로 인하여 김씨 부인 시중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논개는 현청의 생활을 하면서 최현감 부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바른 정신을 갖고 최현감을 받들어 모시고 또 병약한 현감 부인 김씨의 시중과 병간호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최현감 부부는 논개의 총명하고, 어여쁜 맵씨에다가 모든 행실이 바름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친자식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거두어 기르며 사랑하게 되었다.

인격이 훌륭하고 애국심이 강했던 최현감은 틈틈이 논개에게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와 나라 및 겨레의 얼을 가르쳐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 현숙했던 김씨 부인도 항시 일거일동에 이르기까지 아녀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범절 및 행실과 생활을 가르쳐 논개는 어느 사대부(士大夫) 규수 못지

않게 어엿한 처녀로 자라 인생관이 뚜렷하게 확립되어 애국적인 거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밑받침이 다져지기에 이르렀다.

김씨 부인은 논개의 일거일동의 몸가짐이나 교양이 보통 여자와는 달리 뛰어남을 알게 되었으며, 또 총명함이 보통을 지나며, 그 자색과 부도(婦道)를 갖춘 사람됨을 알게 되자 마음 속으로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김씨 부인은 부군에게 논개의 사람됨을 말하고 소실로 맞아들일 것을 권유하였다.

논개의 어머니 박씨 부인도 고질적인 병은 차도가 없고 논개의 앞 말을 근심하던 차에 최현감 부인의 말을 듣고보니, 최현감 부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였으며, 또 최현감의 뛰어난 임품에 감복되어 소실이 되어 최현감의 하는 일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고 논개 문제를 부탁하고 친정인 안의현 봉정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박씨 부인은 별세하게 되었다. 어머니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논개는 어머니의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받고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사고무친이 된 논개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잘 모시라고 당부한 유언에 따라 최현감을 모시는 것만이 올바른 일이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한편 김씨 부인은 부군과 논개가 다같이 자기의 뜻을 받아들여 인륜대사에 뜻을 같이 하므로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동안 가정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일도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가쁜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김씨 부인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마음이 초조하여져서 고향 땅에 가서 시체라도 묻히는 것이 소원이라 하면서 논개에게 모든 일을 부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인자하던 김씨 부인마져 이승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논개는 자연 최현감을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논개는 최현감의 소실이 되어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부부의 정은 매우 다정다감했다.

최현감은 그 후 무장(茂長)현감으로 임명되어 무장으로 떠나게 되자 논개도 부군을 따라 무장으로 가게 되었다.

최현감은 무장현감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1590년 12월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 가게 되었다. 최현감은 상중이라 논개와 동반할 수 없어 논개를 그의 당숙에게 의탁시키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갔었다.

1592년 4월 16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친 상중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던 중, 고경명(高敬命)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최경회는 무장으로 가서 관군과 의병을 통솔하여 전라감사 이광(李洸)이 지휘하는 구원군에 함류하여 수원 독성(禿城)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감사는 병법을 모르는 문관이었다.

그 때 병술에 능숙한 황진(黃進) · 최경회 · 정담(鄭湛) 등은 이감사에게 여러 차례 병법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접전한 결과 왜적의 날카로운 공격에 패전하고 말았다.

다만 나주목사 권율(權慄)과 앞에 말한 황진 · 최경회 · 정담 등이 지휘하던 소수의 병사들만이 무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광이 패전했다는 보고를 듣고 권율의 장장(將材)를 인정하여 호남도원수로 제수하였다.

도원수 권율은 동복현감 황진을 진산(珍山) 이치(梨峙)에, 김제군수 정담을 용담에, 무장현감(의병장) 최경회를 연고지인 장수에 배체하였다.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장이 되어 연고지인 장수에 도착하니, 장수현민들이 최경회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본래 선정을 하였으므로 최경회 의병장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현민들이 술과 소를 잡고 환영하였으며 쉽게 의병을 모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장수군 계내면 월강리와 송천리 중간에 있는 현 월강사(月岡祠)에 장대(將臺)를 설치하고, 장대 앞 넓은 들을 조련장(調練場)으로 이용하여 의병 조련에 온갖 힘을 다하였다.

논개는 그동안 부군의 소식이 몹시 궁금하던 차에 부군이 장수로 와서 의병을 모

집한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달려가 부군을 만나게 되었다.

전란으로 인하여 생사를 몰랐던 논개와 최의병장이 다시 만나게 되자 서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풍헌은 논개가 최경회 장군의 소실이 되어 고향에 있게 되자 과거 민며느리 사건에 대한 속죄를 구실로 풍천(신내)에 가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해 주었다.

논개는 과거 원수였던 김풍헌이었으나 도리어 김풍헌의 덕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었으며, 최장군도 군무에 바빴지만 여가를 틈타서 논개와 동거하였고, 논개 역시 부군의 조련하는 일을 정성껏 도왔다. 비록 전란이었으나, 최의병장은 낭만과 여유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짐작해낼 수 있다.

조련을 마친 의병장 최경회는 무주 적성산성으로 본진을 옮기고, 무주 · 금산 · 지례 · 진양 · 개평 등지에서 왜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

이 전공의 소식을 들은 경상감사 김성일이 올린 장계에 의하여 1593년(선조 26) 정월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요직을 맡게 되었다. 최병사는 진주에 주둔하라는 명령을 받고, 장수의 의병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갔었다.

논개는 부군인 최병사와 동반할 뜻을 가졌으나, 나중에 전쟁터에 동반하는 것은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분부를 따라 풍천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논개는 이 전란 중에 안일하게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다.

논개는 부군을 돕기 위해 의병 몇 사람의 호위를 받아 풍천 마을 앞에 있는 바위에서 말안장(논개 말탄 바위라 함)에 올랐다. 이 때 풍천 마을 어른들과 친구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았으며,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말탄 논개의 늘름한 기상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민며느리 사건으로 모녀가 남몰래 어두움 속에 넘던 60령재를 이젠 의병의 호위를 받아 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회가 깊지 않았으랴?

그리고 선대가 살던 고향인 서상면과 또 민며느리 사건 때 일시적이나마 외가에 피신하였다가 관가에 잡혀간 몸이 되었던 서하면 봉정 마을을 앞을 지날 때는 그 곳에서 한 많은 일생을 눈물로 보내다가 '최현감의 소실이 되어 최현감을 정성껏 모시라.'는 유언을 남가고 친정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안의읍과 함양을 지나 진주로 가던 도중 산청군(山淸郡) 오봉면(梧峰面)을 지날 때 일이다.

뜻밖에 왜적의 척후병을 만나게 되었다. 왜적들은 논개를 포위하였다. 논개는 왜적들에게 항거하였으나, 형세가 이롭지 못하여 왜적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왜적들은 논개의 거동을 보고 보통 사람의 여염집 여자가 아님을 알고 조사한 결과 경상우병사 최경회의 소실임을 알게 되자 큰 수확을 올렸다 하여 기뻐하였다.

왜병들은 왜적의 본거지인 창원 근방으로 재를 넘어 논개를 호송하게 되었다.논개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진주성의 중요함을 알고 섬진강을 방어하던 방어사(防禦使) 김천일(金千鎰) ·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를 진주성에 입성하도록 하였으며, 왜적을 추격하여 상주 적암까지 진출한 충청병사 황진도 진주로 합류하던 중, 산청군 오봉면을 지나게 되었는데 때마침 논개를 호위하던 부상병을 만나게 되었다.

황진병사는 논개가 왜적들에게 잡혀 왜적의 본거지로 호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왜적을 추적하여 함안군 양곡에서 극적으로 왜적을 격파시키고, 무사히 논개를 구출하였다.

황진병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진주성에 합류한 여러 장수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최병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주로 오던 중, 함안 양곡에서 적을 만나게 되어 왜적과 일전을 하여 적병을 전멸시키고, 값비싼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장부의 도리상 그 전지가 경상우병사 관내라 최병사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최병사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싸워 이긴 사람이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아무리 경상우병사 관내라 할지라도 황병사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 하여 서로 양보하는 바람에 쉽게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김천일 장군이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 두 병사가 서로 인심이 좋아 서로 양보하니 내가 해결을 해주겠오. 우선 전리품을 가져 오시오,' 하였던 바 전리품으로 교자한 채가 운반되어 교자문을 열고 보니, 이는 다름 아닌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던 논개였다.

논개가 상긋 미소를 지으면서 교자에서 나오니, 최병사는 어찌 반가웠던지 황병사에게 백배 사죄하고 인수를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논개는 진주성에 들어간 뒤 부군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최병사도 한시도 쉴 사이 없이 군무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2개월 채 못되어 운명의 결전의 날을 맞게 되었다.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 침략에 나섰던 가도기오마사(加藤清正)는 그 때까지 함락 시키지 못했던 진주성을 함락 시키기 위해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공성장(攻城將)으로 임명하고 선봉대 5만 병력을 주어 6월 20일 철통같이 진주성을 에워싸고 주야로 쉴새없이 공격하였다.

이 때 논개는 낭자군(娘子軍, 一名 士女團)을 조직하였다. 논개는 여장대신 남장을 하고 맨 앞장을 섰다. 성중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논개는 낭자군을 몇 군데로 나눠 활약하도록 지휘하였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싸움터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낭자군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큰 돌을 깨고 치마폭에 돌을 나르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어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 오르는 왜병들에게 퍼부었다. 또, 횃불을 묶고 던지고, 부상병들을 치료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식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낭자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병들에 못지 않게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때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여 성첩의 동남각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이 날이 6월 28일이었다. 황병사의 영웅적인 싸움으로 적을 막고, 또 성첩이 보수되었으나, 불행하

게도 일대의 명장 황진장군은 이마에 조총을 맞고 전사하였다.

6월 29일 밤, 다시 서남방의 성첩이 20장(丈) 무너져 왜적이 개미떼처럼 올라와 드디어 진주성이 함락되었다.

《동감강목(東鑑綱目)》 등의 여러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倭陷晋州 兵使崔慶會 倡義使金千鎰 復讐將高從厚 死亡, 忠淸兵使黃進 與牧使張潤 共入守 晋州 一城倚之, 爲親負土石 隨機應變 賊仰放丸 穿進右額死… 慶會妾論介 誘倭將 南江中巖石上 抱倭將 隨水 而死

(왜적에게 진주가 빠지니 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복수장 고종후, 충청병사 황진은목사 장윤과 더불어 진주성을 지키니, 한 성이 모두 의지 하니라. 친히 돌과 흙을 지고 기 회에 따라 변하더라 적이 올려보고 탄환을 쏘아 황진의 오른쪽 이마를 뚫어 죽었다. …최 경회의 첩 논개는 왜장을 꾀어 남강 가운데의 암석 위에 올라가 왜장을 안고 물에 덜어져 죽었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최경회 · 김천일 · 고종후 · 장윤 등은 남장대(南將臺 · 矗石樓)에 모였다.

왜적들은 진주성 안으로 가득히 몰려와 총을 쏘면서 의병장들이 있는 촉석루로 공격해 오는 것이었다. 때는 한낮이 지난 시간이었다. 명장인 이종인은 동문편에서 칼을 휘두르며 촉석루쪽으로 향하면서 왜병들을 무찌르고 전진하였으나, 워낙 적의 세력이 강대하므로 어지하는 수가 없었다. 적병들은 계속하여 진주성으로 들어왔다. 왜적들은 몹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었다. 작년에 패한 원한을 풀기 위하여 병사와 의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 수는 6만에 달했으며 가축도 남기지 않고 도살하였다. 이 싸움은 임진왜란 중 최대의 격전지며 우리 민족의 애국 정신을 발휘한 빛나는 싸움이었다. 촉석루로 후퇴하

여 모였던 최경회 · 김천일 · 고종후 등은 왜적의 피박을 당하게 되자 막하 장수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비분하여 물었다. '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미 죽기를 각오한 것이다.' 김천일은 아무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김천일과 최경회 · 고종후의 세 장수는 북쪽을 향하여 임금에게 내 번 절하고, 최경회 장군이 죽음에 임하는 시를 읊으면서 장마로 흙탕물이 굽이치면서 도도히 흐르는 남강으로 뛰어 들었다.

김해부사 이종인은 적을 만나는 대로 무찔러 죽이면서 남강까지 싸우면서 내려왔다. 힘이 뛰어난 이종인이었으나, 마침내 대세는 어찌할 수 없었다. 좌우편 겨드랑이에 포로로 사로잡은 왜장 한 놈씩을 껴언고, '김해부사 이종인은 이 곳에서 왜장 두 놈을 껴안고 죽는다.' 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남강에 몸을 던졌다.

전라의병장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최경회와 김천일과 함께 순절하였다.

무심한 남강물은 한 많은 의열의 용장과 선비들을 한 숨에 삼킨 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도도히 홀러만 가고 있었다.

이 때 논개는 부군 최병사의 향방을 잃고, 또 성이 함락되자 집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부군 최경회는 김천일 · 고종후와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는 비보를 듣게 되자 맥이 풀리고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 너무도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 슬픔도 눈물도 고스란히 밤을 지새웠다.

진주성도 함락되고, 한 평생을 의탁하려던 부군 최경회 장군마져 죽어버렸으니, 논개의 앞에는 아무 희망도 보람도 없고 슬픔과 통분만 남아 가슴을 에이는 것이었다.

'나도 죽어야지.'

'부군 최경회 장군의 영혼을 따라야지.'

'죽어도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그렇다. 왜장 몇 놈을 죽이고 죽어야 한다.'

무섭고 울분에 싸인 심장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만 죽을 수는 없다. 나라를 짓밟고 남편을 빼앗아간 원수, 왜놈을 죽여서 원수를 갚고 죽으리라!'

논개는 입술을 깨물고 연약한 두 주먹을 꼭 쥐어 보았다.

'왜장 창정을 꼭 죽여 원한을 풀어야지.'

논개는 최경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눈물이 쏟아졌다. 나라를 위한 눈물이요, 최경회를 추모하는 서럼움에 쏟아지는 눈물이었다.

거리에는 그렇게도 들끓러대던 소리도 뜸하고 적병들의 승리의 말발굽 소리만이 요란하다.

논개는 남복으로 가장하고 집을 나서 큰 길로 나서보니 온통 거리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사도 아닌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죽여서 쌓아놓은 시체더미가 그득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아니도 있고 강보에 싸인 젖먹이도 있었다.

'이 잔인 무도한 놈들, 하늘이 그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논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왜병들은 진주성을 함락한 후 서슬이 퍼렇게 되어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다가 7월 7일 칠석날을 맞아 진주성 함락의 승전연(勝戰宴)을 베풀고자 기생들을 소집한다는 방을 거리에 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논개는 바로 이것이 나라와 부군 최경회 장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논개는 수안기생(首案妓生)을 불러 자신을 기적부에 '장수 기생 논개' 라고 올리게 한 다음 남색 은조사 치마에 옥색 깨끼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고 경대 앞에 앉아 분장을 하였다.

밀화장도(密花粧刀)도 속깊이 간직하고 한얀 손수건도 몸에 지녔다. 그리고, 함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옥가락지를 전부 꺼내어 손가락에 맞는대로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었다. 최경회 장군이 소실로 맞아들일 때 해준 반지를 두 손으로 꼭 쥐

면서 원수를 꼭 갚아드리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젠 왜장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다.

진주성 함락에 공을 세운 왜장들이 촉석루 승전연 연회석에 모여들었다. 논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촉석루에 당도하여 운명의 연회석에 참석하여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수지 절의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崔公次晋州兵使 當壬辰亂時 論介隨去 乃城陷 盛粧誘敵將舞 於南江危巖之上 因以墮江 而死 後人鐫其巖曰義妓巖 立祠江上而祭之(최공이 진주병사로서 임진란을 당하였을 때 논 개는 공을 따라 갔었다. 성이 함락한에 이르러 어여쁘게 치장을 하고, 적장을 꾀어 남강의 위태로운 바위에서 서로 춤을 추다가 같이 떨어져 죽었었다. 뒷사람이 그 바위를 새겨 의 기암이라 이르더라. 사당을 강위에 세워 제사지내도다.)

논개는 진주 기생들의 도움을 얻어 진주성 함락에 공을 세운 장수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에게 가까이 대할 계책을 세웠다. 싸움에 이겨 방자하고 교만한 게야무라는 7척여의 위장부(偉丈夫)로서 떡벌어진 가슴에 일본도를 짚고 드높이 호걸웃음을 껄껄 웃어댔다. 이 로구스케란 자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귀전통치(貴田統治)라고 부르고 있다.

로구스케의 유래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고, 소박하며 겸허한 인품과 뛰아나게 강한 힘은 천하에 이름이 높았다. 그리고, 일본에서 검객으로 이름 높은 장주 사람, 길강일미재(吉岡一味齋)의 제자였다. 그 뒤에 일미재는 검객 경극내장(京極內匠)이란 자에게 시기와 암투로 인하여 암살 당하게 되었다.

로구스케는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비밀히 경극내장의 뒤를 미행하다가 기어코 경극내장을 찔러 죽이어 선생인 일미재의 원수를 갚고 일미재의 딸과, 혼인을 하여

훌륭한 사무라이가 된 거이다. 그 후 가등청정의 부하가 되어 조선을 치러 나와 1592년 7월 진주성 공략에서 솔선분투하여 충운최후(忠運最後)를 마쳤는데 '언산관현서원(彦山觀現誓願)의 조력(助力)' 의 이야기는 일본 역사상에 너무도 유명하며 영언산(英彦山)이 있는 한 영구불멸할 것이라 한다.

논개는 위엄이 있고 호걸스러운 로구스케를 가등청정으로 착각하고 '저 자가 우리의 원수 가등청정이로구나.' 하고 미소를 띄워 호감을 사도록 하였다.

논개는 로구스케에게 권주가를 하면서 술을 권하였다. 로구스케는 논개의 미모에 반하여 논가이, 논가이 하면서 호걸스러운 웃음을 웃으면서 주는대로 술잔을 받았다.

논개는 이젠 권주가 대신 진주성이 함락된 한을 시에 붙여 낭송했다. 논개가 읊은 낭낭한 소리는 마치 구슬을 굴리는 소리와 같았다. 논개의 시 낭송 소리에 로구스케는 매혹되었다. 논개는 더욱 추파를 던져 로구스케의 혼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로구스케는 흥이 올라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논개의 계략에 말려든 로구스케는 주흥이 거나하여 일어서면서 큰 손으로 논개의 보드라운 손을 덥석 쥐었다.

논개는 무의식 중에 손을 홱 뿌리쳤다. 원수에게 대한 무언의 분노요, 항거였다. 적개심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그 순간 '무슨 수모를 받아도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개는 적장을 돌아보면서 미안한 듯 상긋 웃으면서 살짝 손을 내밀었다. 손을 뿌리쳤다가 다시 웃으면서 내민 손에 로구스케는 완전 사로잡히고 말았다.

논개는 로구스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다시 목창을 가다듬고 계면조 가곡을 노래하였다.

역수한파(易水寒波) 저문 날에, 형경(荊卿)의 거동보소,
일검비가(一劒悲歌)에 장사일거불부환(壯士一去不復還)이라.
지금(至今)이 협객유한(狹客遺恨)이 가실 줄이 있으랴.

로구스케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면서도 이 장엄하고 고운 노래 소리에 더욱 주흥이 도도하여졌다.

이 노래의 뜻은 논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연 나라를 침략하고 진 나라에서 연 나라로 망명한 번어기(樊於期)의 목을 보내라는 협박을 받고 진시황을 찔러 죽이려고 형가(荊軻)라는 연 나라 자객이 연 나라의 지도와 번어기의 목을 함에 담은 뒤 가슴에 비수를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역강 찬물결을 건너가는 모습을 노래한 시조이다.

논개는 검객이 아닌 한 낭자이지만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는 심정은 형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논개는 로구스케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기 위해 또 한 곡조를 불렀다. 이 곡조는 우조(羽調) 지름이었다.

초강(楚江) 어부(漁夫)들아 고기 낚아 삶지 마라.
굴원(屈原) 충혼(忠魂)이 어복(魚腹) 속에 들었나니.
아무리 솥에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이 번 노래 곡조는 간장을 송두리째 녹이고 말았다.

논개는 로구스케의 귀에 대고 시원한 강가에로 가자고 소근거리면서 눈치를 하였다. 로구스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논개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누각 아래로 내려왔다. 아장들도 환호성과 손뼉을 치면서 뒤따랐다.

논개와 로구스케는 춤을 추면서 논개의 눈치따라 남강가로 내려왔다.

강을 향하여 놀기 좋은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이 바로 위암이다. 왜장은 위암을 가리키면서 '물가라 시원해 좋구나 이 바위에서 놀아볼까?' 논개는 말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논개는 팔을 늘여 승무춤에서 원무춤을 추웠다. 적장을 껴안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로구스케도 신명이 나서 논개를 껴안고 춤을 추면서 넘실거렸다.

논개는 발끝을 바윗돌가로 슬쩍 돌면서 적장을 바싹 껴안았다. 그리고, 로구스케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었다. 그 찰나였다. 논개는 온 힘을 다하여 로구스케를 왈칵 떠다 밀었다. 그 순간 로구스케는 취한 중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떴다. 논개는 또 있는 힘을 다하여 몸으로 로구스케를 떠밀어 위안 아래로 함께 떨어졌다.

왜장들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우루루 ㅉ아가 보았으나, 로구스케와 논개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적장들은 취기가 사라지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여일간을 내린 장마로 남강물은 홍수로 홀렀다. 이 홍수에 휘말려 껴안은 채 한없이 흘러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열아홉살 갓피어난 한 송이 단심의 꽃봉오리 논개의 최후는 장엄하였다.

그 후 장수군민들은 논개의 충정을 추모하여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를 세웠다. 그 때의 현감 정주석은 글을 지어 찬양하였으니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 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以下略)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 때는 구차스럽게 살지 않음이 쉬운 것이 아니니, 열사도 어 려운데 일개 여자가 대의를 분별하고 죽는 것을 근원으로 돌가는 것같이 보았으니, 어 찌 그리 빛나며, 당일을 상상해 보며 위엄한 기운이 사무쳐 해와 별같이 빛나니 어찌그리 장할소녀. 산에 신령스러운 버섯이 있고, 물에는 맛좋은 물이 솟는 샘이 있어 군자 도 가상하여 말하니 항차 사람에 이름에 있어서랴. …)

최 경상우병사를 따라 진주성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수 의병들은 진주성이 함락되자 어두운 밤을 틈타서 진주성을 탈출한 1천여명이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전 중 최 병사와 여러 장수들의 순절함과 논개의 장렬한 죽음을 전해 듣고 시체라도 찾아 고향땅으로 같이 돌아가게 하려는 충정에서 남강 하류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논개가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껴안고 죽은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었기 때문이었다.

또 최경회 병사의 시체도 찾아내어 운구 작업을 벌였다. 장장 1백50리의 길을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 문중과 장사지낼 것을 협의하였으나 주씨 문중으로부터 거절당하여 삼남 대로변 양지 바른 언덕에 주논개 의랑을 아래쪽에 묘를 마련하였다. 이 곳을 사람들은 주장군묘라고 구전하고 있다.

전쟁으로 고생하고 패전하여 힘을 잃고, 장군과 논개를 잃은 의병들은 힘없이 민재와 육십령재를 다시 넘어 고향땅으로 돌아왔다.

후세 사람들이 논개의 충렬을 찬양한 글이 많은데 몇 편을 소개한다.

한말 대시인 매천 황현의 시에는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威
蒿砧己自使編行
矗石丹靑祭國殤
進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시내 어구에 물도 향기로와
깨끗이 얼굴 씻고 의랑 앞에 절하네

갸날픈 몸 무슨 힘으로 왜장을 죽였을까?
남편도 이미 종군한 몸 되었더라.
장계 노인들은 내고장 출신이라 자랑하고
촉석루 화려한 집 나라 슬픔을 제사하네.
거슬러 흘러가면 임란 때 인물도 많았건만
천만년 뒤에도 그 이름 찬란하리.

현대 시인 변영로(卞榮魯)는 일제 탄압에서도 논개의 절의를 찬양하였으니,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렬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홀러!
아리땁던 그 아미(娥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같은 입술
'죽음' 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홀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논개의 몸은 비록 갔지만 그 높고 높은 정기는 겨레 의 가슴 속에 꽃이 되어 그 향기 영원하리라.

진주시 남강상에 사액 정려(賜額旌閭)인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 있으며, 또 의기사(義妓祠)가 있어 해마다 의암 주논개의 충혼을 제사지낸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장수읍 남산에 의암사가 건립되어 영정을 모시게 되었으며,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이 의암사라는 친필 현판을 내렸다. 매년 9월 9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애국 충정을 기리는 의암 주논개 추모 행사를 다채롭게 거행하고 있다.

의암 주논개 생장지인 장수군 계내면 주촌국민학교에는 논개 동상이 있다.

6. 《전북신서(全北新書)》[44]

충절(忠節)의 꽃으로 진 주논개(朱論介)

---

44) 《거룩한 분노(憤怒)는 횃불이되어》((전북신서(全北新書) 4, 1986,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社團法人全北愛鄕運動本部)), p.121-128., 홍석영(洪石影). 〈충절의 꽃으로 진 주논개(朱論介)〉

주논개(朱論介)는 1574년(宣祖 7년) 장수군(長水郡) 임내면(任內面) 주촌(朱村)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조부는 혁(爀)으로 이 때부터 주촌(朱村)으로 뿌리 박아 옮겨 살게 되었는데 그는 마을에 서당을 마련하여 훈장(訓長)이 되었고 그녀 아버지는 달문(達文)으로 학덕을 갖춘 훈장으로 생계 유지를 하였다.

달문 부부는 일찍이 아들 대룡(大龍)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15세에 요절하였으므로 장안산(長安山)에 들어가 치성을 드린 결과 나이 40에 아들이 아닌 딸 논개(論介)를 만득(晩得)하였다.

이 때가 마침 갑술년(甲戌年),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즉 4갑술(甲戌)인 1574년 9월 3일 밤이었다.

도무지 특이한 사주인지라 달문은 갑술의 〔술〕자를 기려 (戌은 개띠) 곧 〔개를 놓다(개를 낳다)〕를 거꾸로 〔놓은 개〕라 하고 이를 이두식으로 논개(論介)라 하였다.

그녀는 총명하고 아버지 밑에서 천자(千字), 추구(推句), 사자(四字), 소학(小學) 등을 배웠는데 10세 때에는 같은 학동(學童)인 남자 아이들의 장난을 꾸짖어 다음과 같이 한시를 지었다 한다.

〔높은 곳에 핀 꽃을 어이 꺾으랴
풀밭 무성하면 개도 다니기 어려운 것을…〕
(花高人不折 草盛狗難行)

자신을 고고하게 핀 꽃으로 비유하고 학동을 천한 개로 빗대어 깨우친 것이었다.

1587년(宣祖 20) 겨울 아버지가 심한 해소병으로 병석에 눕게 되자 그녀는 효심을 다해 간호했으나 끝내는 타계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그녀 일가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때에 그녀의 가장 가까운 집안 어른으로 숙부인 주달무(朱達武)라는 불량배가 있었

다. 그는 주색잡기로 놀아난 건달이었는데 그가 유흥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방의 토호 김풍헌(金風憲)을 찾아가 짐짓 형의 유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체하며 김풍헌의 백치 불구인 자식의 민며느리로 논개를 사들일 것을 상의하여 쉽게 흥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당사자인 논개 모녀 몰래 마을 앞 상토(上土) 세마지기의 논문서와 엽전 3백량, 당백포(唐白布) 세필에 김풍헌 아들의 사주단자를 얻어간 주달무는 그 돈을 모조리 탕진할 때까지 주촌 마을에 얼씬도 아니했다.

끝내 김풍헌의 추궁에 견디지 못한 주달무는 형수 박씨 부인 앞에 사주단자를 내던지고서 행방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김풍헌은 혼인 날짜를 택해 통고해 왔다.

논개 모녀는 숙부가 한 일이고 또 김풍헌의 세도와 맞싸울 형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앉아 당할 수만도 없는 일이기에 비밀히 모녀가 짐을 싸들고 밤에 험한 재를 넘어 박씨 부인의 친정 마을인 안의현(安義縣) 서하면(西下面)의 용정 마을로 피신했다.

이에 가마와 시종을 주촌(朱村) 마을에 보내어 논개를 데려오게 했던 김풍헌이 모녀가 도망친 것을 알고 마침내 장수현감에게 솟장(訴狀)을 올렸다.

이리하여 1588년(宣祖 21) 8월 삼복 더위 속에 논개의 모녀는 장수 관아 소선루(笑仙樓) 앞에 끌려와 엎드리게 되었다.

당시의 장수현감은 최경회(崔慶會)였다. 그는 전남 화순(和順) 출신으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생으로 36세에 문과에 급제 장수현감으로 와 있었다.

최경회는 사건의 경위를 듣고 딱한 사정을 알았으나 어쩔 수 없이 박씨 부인에게 5년간의 노비속공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논개가 그 어머니 대신 그 죄업을 치르겠노라고 간청하니 최경회는 그 효심에 감격하여 그들 모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김풍헌에게는 죄없는 사람을 무고(誣告)하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었다.

때에 현감 최경회의 부인인 나주 김씨는 본시 자녀가 없던 터에 몹시 병약한 몸이었던 탓으로 논개의 총명함을 알고 부군의 승낙을 받아 논개에게 자기를 도와줄 것

을 간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논개는 현청에 들어가 김씨 부인의 시종을 들게 되었다.

최견감 부부는 논개(論介)의 아리따운 자태와 바른 행실을 어여삐 보고 친자식처럼 귀여워했다.[45]

마침내 논개는 현감 최경회의 소실이 되었고 그녀의 친정 어머니 박씨 부인은 얼마 있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현감의 부인 역시 병세가 심해지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논개에게 각별히 최현감을 모시도록 당부하였다. 이윽고 최현감은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옮기니 논개도 따라갔다.

1590년 12월 최현감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자 상중에 소실을 동반할 수가 없어 혼자 떠나니 논개는 장수에 처져 있게 되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최경회는 상중으로 집을 지키고 있던 중 고경명(高敬命)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의병으로 일으키게 되었다.

그는 무장으로 가서 관군과 의병을 통솔 전라감사 이광(李洸)이 지휘하는 구원군에 합류하여 수원 독산성(禿山城)에까지 진격하였다.

그 때 병술에 능한 황진(黃進) 최경회 정담(鄭湛) 등은 이감사에게 여러 차례 병법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모하게 접전한 결과 왜적의 날카로운 공격에 패전하고 말았다.

그 후 최경회는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이 되어 연고지인 장수에 도착하게 되니 현민들이 뜨겁게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장수군 계내면 월강리와 송천리 중간에 있는 지금의 월강사(月岡祠)에 장대를 설치하고 장대의 넓은 들을 조련장(調練場)으로 이용 의병 훈련에 온갖 힘을 다했다.

논개(論介)는 그간 부군의 소식이 궁금하던 터에 만나게 되어 즉시 달려가 극진히 모셨다.

---

45) 장수군(長水郡), 《삼절(三節)의 고장》, 1982.

조련을 마친 최경회는 무주 적상산성(赤裳山城)으로 본진을 옮기고 무주, 금산, 구례, 진양, 개평 등지에서 왜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

이 전공의 소식을 듣은 경상감사 김성일(金誠一)의 장계에 의하여 1593년(宣祖 26) 4월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의 요직을 받으면서 진주(晋州) 주둔의 명을 받고 장수 의병들을 거느리고 진주성에 입성하게 되었다.[46]

논개는 부군인 최병사와 동반할 뜻이었으나 전쟁터라 군의 기강 문제도 있고 하여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충천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논개는 전란 중에 안일하게 있을 수만 없다고 여겨 부군을 돕는 뜻으로 몇 사람의 호위를 받아 풍천 마을 앞에 있는 바위에서 말안장(그 후 논개 말탄 바위란 전설을 남김)에 올랐다.

이에 풍천 마을 남녀가 뜨겁게 전송했는데 그녀는 과거 민며느리 사건으로 모녀가 밤중에 도망치던 60령재를 이제는 의병의 호위를 받으며 의연히 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의읍과 함양을 지나 진주로 가던 길에 산청군(山淸郡) 오봉면(梧峰面)을 지날 때였다. 뜻밖에 왜병의 척후병을 만나게 되었다. 왜적들은 곧 논개를 포위하여 사세부득이 포로로 잡힌 몸이 되었다.

왜적들은 논개의 행색을 보고 의심하다가 경상우수사의 소실임을 알게 되자 큰 수확이라 기뻐하고 그의 본진이 있는 창원 근방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뜻밖에 충청병사 황진(黃進)이 진주로 합류하기 위해 산청군 오봉면을 지나다가 논개를 호송하던 부상병을 만나 논개의 소식을 들었다.

이에 황진이 곧 왜적을 추격하여 함안군(咸安郡) 양곡(陽谷)에서 극적으로 왜적을 격파하고 논개를 구출하였다.

진주성에 이른 황병사가 최병사에게 '함안 양곡에서 왜적과 싸워 전멸시키고 값비싼 전리품(戰利品)을 얻게 되었는데 장 부의 도리상 그 전지(戰地)가 경상우병사

---

46) 충의공(忠毅公), 《일휴당사실기(日休堂事實記)》, 월강사(月岡祠) 창건본사(創建本事).

관할이라 최병사에게 양도할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에 최병사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싸워 이긴 사람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 고 양보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김천일(金千鎰) 장군이 중재에 나서 '두 병사가 서로 인심(人心)이 좋아 서로 양보하니 내가 해결해 주겠소. 우선 전리품을 가져 오시오' 하였다.

그러나전리품으로 교자 한채가 운반되었고 문을 열고 보니 다름 아닌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던 논개 부인이 그 안에서 나왔다. 최병사는 어찌나 반가웠던지 황병사에게 백배 사례하고 인수받았다.[47]

논개는 진주성으로 들어가 살면서 더욱 극진히 부군을 보살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못되어 운명의 날을 맞게 되었으니 왜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이 모곡촌(毛谷村六助)을 공성장(攻城將)으로 임명하고 선봉대 5만 병력을 투입, 드디어 6월 20일 진주성을 주야로 공격하였다.

이 때 논개는 낭자군(娘子軍 : 일명 士女團)을 조직 남장을 하고 선봉에 섰다. 그녀는 부녀자들을 독려, 치마폭에 돌맹이를 나르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들에게 퍼붓는 전쟁에 밤낮을 가리질 않았다.

그러나 장마비에 못견딘 성첩의 동남각이 무너진 것이 6월 28일 황진 장군의 영웅적인 싸움으로 적을 막으면서 성첩이 보수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일대의 명장 황진은 적의 조총탄이 이마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6월 29일 밤 다시 서남방의 성첩 20길이 무너지면서 왜적이 개미떼처럼 넘어 들어와 성은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다.[48]

이리하여 왜적에게 진주가 함락되니 병사 최경회, 창의사 김천일, 고종후(高從厚), 장윤 등은 남장대(南將臺)에 모였다.

왜적들은 진주성으로 몰려와 총을 쏘면서 의병장들이 있는 남장대(南將臺-矗石

---

47) 정비석(鄭飛石), 소설《논개(論介)》
48) 전병순(田炳淳), 소설《의랑 논개(義娘論介)》

樓)에 곡격해 왔다. 이에 명장 이종인이 동문편에서 칼을 휘두르며 전진하였으나 워낙 중과부적이라 어쩔 수 없었다.

왜적의 막다른 핍박을 당하게 되자 막하 장수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김천일이 '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미 죽기를 각오한 것이다.' 라고 태연자약하였다.

곧 김천일(金千鎰), 최경회, 고종후 세 장수는 북쪽을 향하여 임금에게 네 번 절하고 최경회 장군이 죽음에 임하는 시를 읊으면서 장마로 흙탕물이 굽이치는 남강(南江)에 몸을 던졌다.

이 때 논개는 부군 최병사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터에 성이 함락되자 집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부군이 이미 순절했다는 소식을 뒤이어 들으니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깜깜한 절망과 왜적에 대한 끓어 오르는 분노만이 남았다.

'나도 죽어 지아비의 영혼에 따라 가야지. 허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어. 왜장 몇놈을 죽여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왜적은 진주성을 함ㄹ한 후 서슬이 퍼렇게 되어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다가 7월 7일 칠석날을 맞아 진주성 함락의 승전연(勝戰宴)을 베풀게 되어 이에 기생들을 소집한다는 방을 거리에 붙였다.

이를 본 논개는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복수의 기회라 여기고 진주의 수안기생(首案妓生)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기안(妓案)에 제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논개는 화려한 옷으로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였다.

밀화장도(密花粧刀)를 속깊이 간직하고 함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옥가락지를 전부 꺼내어 손가락에 맞는대로 모두 끼었다.

이윽고 연회장에는 왜장들이 모두 모여 들었다. 논개는 뜨겁게 닳아진 가슴으로 연회석 상좌에 앉은 모곡촌(毛谷村六助)을 가등청정(加藤清正)으로 착각 그 곁에 앉아 일부러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논개는 권주가를 부르면서 그에게 마냥 술을 권하니 그렇잖아도 논개의 미색에 홀딱 빠져 있던 그는 호걸스레 웃으며 술을 주는대로 받아 마셨다.

논개는 시를 읊었고 적장 모곡천은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논개는 춤을 추면서 그에게 넌지시 눈짓을 해 연회석을 빠져 나와 남강가로 유인했다. 거기에는 꽤 넓은 반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훗날 의암(義巖)이라 불리운 바위이다.

'물가라 시원해 좋구나. 이 바위에서 놀까?' 왜장은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듯 했고 논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춤을 추게 되었다. 이에 논개는 발끝을 바윗가로 돌리면서 적장을 바싹 껴안았다. 빠지지 않도록 짐짓 옥반지로 옥죄인 두 손을 꽉 끼었다.

그리고 적장 모곡촌을 향하여 득의의 웃음을 지으면서 몸을 크게 솟구쳤다. 순간이었다. 논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적장을 왈칵 떠다 밀었다. 그리하여 두 남녀는 한 덩어리로 얽혀 남강 물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왜장들은 물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우루루 쯔아가 보았으나 모곡촌과 논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적장들은 비로소 사건을 깨닫고 낯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다.

그러나 속수무책인 채 장마로 불어난 도도한 남강의 흐름을 망연히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1593년(宣祖 26) 7월 7일 이리하여 주논개(朱論介)는 19세의 파릇한 나이로 종교보다 깊은 분노와 사랑보다 강한 강한 정렬과 강남꽃보다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으로 순절(殉節)했던 것이다.

최경회 우병사를 따라 전주성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수 의병들은 진주성이 함락되자 어두운 밤을 틈타서 진주성을 탈출한 1천여명이 부근 산간에 숨어 유격전을 벌이던 중 최병사와 여러 장수들의 순절함과 논개의 장렬한 죽음을 전해듣고 시체라도 찾아 고향땅으로 돌아가려는 충정에서 남강 하류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논개가 적장 모곡촌을 껴안고 죽은 시체를 발견하였다.

또한 최병사의 시체도 찾아내어 곧 운구하였다. 장장 1백50리의 길을 운구하여

안의현 서상면 방지리에 이르러 주씨 문중과 장사지낼 것을 협의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삼남 대로변 양지 바른 언덕에 주논개 의랑(義娘)의 묘를 아랫 쪽에 마련하였다.

그 후 장수군민들은 논개의 충정을 추모하여 촉석의기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生長鄕竪名碑)를 세우고 현감 정주석이 글을 지어 한양하였다.

또한 진주시 남강 위에 사액 정려(賜額旌閭)인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 있고 의기사(義妓祠)가 있어 해마다 의기 주논개의 충혼을 제사지낸다. 그러나 그녀는 기생(妓生)이 아니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장수군(청) 남(강)쪽에 의암사(義巖祠)가 건립되어 영정을 모시게 되었으며 함태영(咸台永) 부통령이 의암사라는 친필 현판을 내렸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애국충정을 기리는 의암 주논개 추모행사를 다채롭게 거행하고 있다.

장수군 계내면 주촌국민학교(초등학교)에는 주논개의 동상도 서 있고 그 생가에 유허비가 있다.

의암(義巖)이란 예문관에서 하사한 사호(賜號)이다.[49]

후세 사람들로 논개의 충렬을 찬양한 글이 많은데 매천(梅泉) 황현(黃玹)과 변영로(卞榮魯)의 시가 그 중 하나이다.

7. 의암별제(義巖別祭)[50]

---

49) 최진성(崔辰聖), 〔주논개(朱論介)〕, 《전북인물지(全北人物誌)》 상권(上卷).

50) 이 내용은,· 리명길, 〈의기 논개(義妓論介)의 사적 고찰(史蹟考察)〉《진주문화 14집》(진주문화원, 1992, 진주), pp.9-118. 三. 의암 논개의 포상, '3. 의암별제'를 전재(全載)한 것이다. 원문(原文)은 정현석(鄭顯奭), 《교방제보(敎坊諸譜)》, 가운데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歌舞)'에서 전재하였다.

진주목사(晋州牧使)로 부임한 정현석(鄭顯奭)[51]은 고종(高宗) 5년(1868) 의기사(義妓祠)를 중건(重建)하고 '의암별제(義巖別祭)'를 신설하여 진주에 기생 문화(妓生文化)를 진작시키고 경상우도(慶尙右道) 안의 놀이패 춤군 등을 총동원시켜 전국에서 맨 처음 오늘날의 각 지방에서 행하는 '지방문화제(地方文化祭)'의 원형이 되는 '진주향토문화제(晋州鄕土文化祭)'의 기틀을 닦고 제사와 축창(祝唱) 그리고 노래와 춤과 연극 등을 포함한 종합 예술제를 3일간에 걸쳐 행사를 개최시켜 놓았다.

여태까지 진주 사람들이 논개 순국 후에 기생들을 시켜 하루만에 지내던 논개 제사(論介祭祀)를 새롭게 제사 절차를 갖추게 하고, 글을 아는 기생으로 제사의 집행과 축문을 읽게 하고 논개의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의식 절차를 갖추게 하였다.

이를 위해 교방(敎坊)을 설치하고, 정현석이 지은 《교방제보(敎坊諸譜)》의 기록에 맞추어 노래와 춤을 교육시켜서 논개 제사의 의식(儀式)을 갖추어 놓았다.

《교방제보》는 '의암별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장수(長水) 기생 노은개(魯隱介)는 절도사(節度使) 최경회(崔慶會)의 소실 자리를 맡고 진주 병영에 있을 때 임진왜란을 만나 진주성이 함락되고 6만의 군(軍)과 민(民)이 함께 전사하니, 기녀 논개(論介)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촉석루 아래 물 속 바위 위에 홀로 앉았으니 왜장 중에서 가장 사나운 괴수 하나가 논개 있는 바위 위에 훌쩍 뛰어 오르니 논개는 웃음으로 맞이하여 희롱 끝에 마침내 왜장의 허리를 끌어 안고 물 속에 떨어졌다. 그 후 왜군들은 곧 군대를 거두어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조정에서는 영(令)을 내려 의기

---

51) 정현석의 호는 박원(璞園)이고,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벼슬은 해백(海伯)에 이르렀다. 그는 고종(高宗) 4년(1867) 진주목사로 도임하여 동 7년(1870) 전임(轉任)되었다. 진주목사를 재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문장(文章)과 명필(名筆)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다. 특히 국악지음자(國樂知音者)인 동시에 국악이론가(國樂理論家)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횡성군(橫城郡)에서 살았다.

(義妓) 논개의 사당을 세워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내가 진주에 부임한 다음 해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의논하여 의기사(義妓祠)를 중건(重建)하고 아울러 의암별제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유월 중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되, 제관은 진주 기생 중에서 뽑아 제례 의식 절차(祭禮儀式節次)를 예습시켜 의식에 실례가 없도록 하여 해 마다 상제를 지내도록 하였더니 제사를 마친 다음 날 밤 꿈에 두 여인이 한 부인을 부축하여 내 앞에 나타나 서거늘 '너는 누구냐?' 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노은개라 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도 전에 해 마다 남강에서 빨래하던 처녀가 빠져 죽었던 것이 이로부터 이 환란이 없어졌다. 읍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별제의 효력이라고 했다. 노은개(魯隱介)는 속칭 논개(論介)라 한다.

長水妓魯隱介 克節度使小房 在晋州兵營 當任焚城陷六萬竝抗 妓凝粧盛飾獨坐於矗石樓下江中巖上 倭將氈點者 超入巖上 妓笑迎而戲抱倭酋之腰 落於江中 自是倭捲兵而居後 因朝令建義妓祠 春秋行祭 余莅晋之年 與兵使議重建其祠 設義巖別祭 六月中擇日行事祭官幷選妓差出 肄習節次 毋敢失儀 歲以爲常祭之翌夜 夢有二女挾一婦入來 立於前 問誰也. 答云 魯隱介 因忽不見 亦異事也. 南江漂女 每歲溺沒自是年 無此患 邑人以爲別祭之效也. 魯隱介俗稱論介.

《진양속지(晋陽續誌)》에 정현석은 정묘(丁卯 : 고종 4년, 1867)에 와서 경오(庚午 : 고종 7년, 1870)에 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민폐를 고친 기록에서 목사로 부임한 다음 해인 고종(高宗) 5년(1868)에 병사와 의논하여 '의기사' 를 중건하고 6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하여 논개 제사를 지내면서 '의암별제' 라는 굿판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논개 제사를 위하여 기생들을 제관으로 뽑아서 실수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글을 읽을 줄 아는 기생을 집례관(執禮官)으로 쓰고 있다.

유월 중에 좋은 날을 가려서 미리 5일전에 제관을 뽑아 차첩(差帖)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재계케 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은 노기(老妓) 중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는다.

당상집례, 당하집례를 뽑는데 약간 문리(文理)를 통한 사람이라야 홀기(笏記)를 읽을 수 있다.

대축, 전사관, 찬자(동 · 서창 두 사람), 알자, 사준, 봉작, 준작, 봉향, 봉로, 노래하는 사람 8인, 춤 추는 사람 12인, 당상악공 6인, 당하악공 6인.

六月初擇吉日 先期五日 出祭官差帖使之三日致齋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老妓有望) 堂上執禮(稍解文理者讀笏記) 大祝 典祀官 贊者(東西謁) 謁者 司罇奉爵罇爵 奉香 奉爐 歌者八人 舞者十二人 堂上樂工六名 堂下樂工六名

정현석의 진주에서의 업적을 살펴 보면 진양속지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첫째 1천6십여냥의 돈을 신연쇄가(新延刷價)로 경감시켜 주었고, 둘째 1천4백여냥의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의 폐단을 고치는데 쓰고 있다. 또 진주의 기생들을 위하여서도 첫째 '의기사' 를 중건했고, 둘째 교방이라는 기생들의 학습소를 설치하였고, 셋째 '의암별제' 를 새로 창설하여 진주의 향토문화제로서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논개는) 최경회의 소실이다.' 라고도 쓰고 있었다.

특히 '의암별제' 의 제사 의식(祭祀儀式)에서 사용한 '의기논개' 를 추모하고 찬양한 시조와 노래는 우리말과 한자가 혼용된 일상 용어로서 여캐까지의 한시 구투를 벗어나고 있음이 특이하다 하겠다.

논개에 대한 기생들이 부른 시가(詩歌)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있음

으로 절차와 노래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영신곡을 아뢴 다음 악을 맞춘다. 초헌관이 세 번 향을 향로에 집어 얹는다. 당상악의 연주에 맞추어 가자(노래하는 사람)는 상향악장을 계면조로 부른다.

무진년(戊辰年 : 해에 따라 부름) 유월일(六月日)에
단을 모아 분향(焚香)하여
삼백명의 여자 기생들이
정성(精誠)으로 치제(致祭)하니
논낭자(論娘子) 충혼의백(忠魂義魄)이 내리실까 하노라.

춤추는 사람이 상향무(上香舞)를 춤춘다. 노래 부를 때는 당상악이 반주하고, 춤출 때는 당하악이 함께 반주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는다.

奏迎神曲 樂止 三上香 樂作堂上樂作 歌者奏 上香樂章曰界面調
舞者舞(歌時堂上樂作 舞時堂下竝作) 行初獻禮 讀祝文曰

맵고 매운 영혼이여	烈烈維靈
산천의 정기로다.	山川毓精
빙옥같이 맑은 자태	氷玉姿潔
상설같은 곧은 마음	霜雪懷情
임진년의 난리 만나	昔値龍刼
왜적에게 무너진 성	島夷陷城

육만의 군민들이	六萬義族
한 구덕에 묻힐 적에	長平一坑
낭자의 충성심이	娘兮忠胆
죽음 앞에 겁낼손가.	矢不偸生
백척 높은 바위 끝에	百尺危巖
홀로 서서 맞은 웃음	獨立笑迎
왜놈새끼 무찌를 제	殲厥蠻醜
털끝 같이 목숨 바쳐	鴻毛死輕
이 충열 힘 입어서	賴是女烈
나라 강상 다시 밝아	綱常復明
천추에 매운 절개	千秋芳節
만고에 향기롭다.	萬古香名
돌에 새겨 높이 드러내	刻珉褒揚
사당 지어 제 지내니	建祠承嘗
유월달 한 여름에	六月維夏
좋은 날 때를 가려	日吉辰良
삼백 미녀 분장하여	三百粉粧
제청에 치성할 쩨	薦祼齋誠
구슬픈 젓대소리	簫管咽咽
제수도 푸짐하다.	籩豆盈盈
임이여 내리셔서	神其來思
맑은 술잔 드옵소서.	庶歆泂觴

헌관이 절하자 악이 이루어지면서 노래 하는 사람은 초헌악장을 계면중창

으로 노래한다.

獻官拜 樂作 歌者奏初獻樂章曰 界面中唱

촉석루(矗石樓) 밝은 달이
논낭자(論娘子)의 넋이로다.
향국(向國)한 일편단심(一片丹心)
천만년(千萬年) 비치오니
아마도 여중충의(女中忠義)는
이 뿐인가 하노라.

악이 시작되면 무자는 춤을 춘 다음 악을 멈추고 아헌례를 행한다. 헌관이 절하자 악이 시작되면 노래하는 사람은 아헌악장을 계면삼창으로 부른다.

樂作 舞者舞 樂止 行亞獻禮 獻官拜 樂作 歌者奏 亞獻樂章曰 界面三唱

맑고 맑은 남강수(南江水)야
임진(壬辰) 일을 네 알리라.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이
몇 몇이나 빠졌난고.
아마도 여중장부(女中丈夫)난
논낭자(論娘子)-가 하노라.

춤추는 사람이 춤춘 다음 악이 멈춘다. 다음은 종헌례를 행한다. 헌관이 절하면 악이 시작되고, 노래하는 사람은 종헌악장을 우락조로 부른다.

舞者舞 樂止 行三獻禮 獻官拜 樂作 歌者奏 三獻樂章曰 羽樂調

해동국(海東國) 삼천리(三千里)에
허다(許多)한 바위로다.
풍마우세(風磨雨洗)하면 어느 돌이 안 변(變)하리
그 중(中)에 일편의암(一片義巖)은
만고불변(萬古不變)하리라.

춤추는 사람이 춤을 춘 다음 악이 멈춘다. 다시 악이 시작되면 노래하는 사람은 의암별곡을 처사가조로 부른다.

舞者舞 樂止 樂作 歌者奏 義巖別曲曰 處士歌調

촉석루(矗石樓)에 올라 앉아
고금사(古今事)를 생각하니
의암(義巖)의 높은 절개(節慨)
천추(千秋)에 기절(奇節)하다.
아동방예의국(我東方禮義國)
삼강오륜(三綱五倫) 분명하여
절의(節義)를 숭상(崇尙)하니
충신의사(忠臣義士) 허다(許多)하다.
예로부터 진양성(晋陽城)이
번화가려(繁華佳麗) 제일(第一)이라
비봉산(飛鳳山)은 아미(蛾眉)같고
청천강(菁川江)은 금대(襟帶)되어

산천(山川)의 맑은 기운
논낭자(論娘子)로 태어나서
빙옥(氷玉)같은 자질(資質)이오
상설(霜雪)같은 마음이라.
천생(天生)에 고운 몸이
노류장화(路柳墻花) 같을 손가.
시운(時運)이 불행(不幸)하여
임진년(壬辰年)을 당(當)하오니
늠름충절(凜凜忠節) 삼장사(三壯士)는
일배소지(一盃笑地) 남강수(南江水)라
불상(不詳)하다 육만인(六萬人)이
일일병명(一日並命) 하단말가
이 때에 논낭자(論娘子)가
충분(忠憤)이 격동(激動)하여
위국(爲國)하여 순국(殉國)할 일
일편심(一片心)에 결단(決斷)하고
녹의홍상(綠衣紅裳) 검극(劍戟) 삼아
장대(將臺)같은 바위 위에
올라 앉아 기다리니
금수(禽獸)같은 적장(賊將) 놈이
앞에 와서 범수(犯手)한다.
옥수(玉手)로 부여잡고
만경청파(萬頃淸波) 떨어지니
천지(天地)가 암참(黯慘)하고
귀신(鬼神)이 우는도다.

만고(萬古)에 빛난 강상(綱常)
일녀자(一女子)가 붙잡으니
그 충성(忠誠) 그 의기(意氣)가
여중열사(女中烈士) 이 아닌가
남강(南江) 명월(明月) 밝은 빛이
화용옥모(花容玉貌) 다시 본 듯
반야(半夜)에 풍우(風雨) 소리
슬프고 처량(凄凉)하다.
비(碑) 세워서 기록(記錄)하고
사당(祠堂) 지어 제사(祭祀)하니
의암(義巖)의 높은 이름
천만년(千萬年)에 전(傳)하리라.
성외성내(城外城內) 여기(女妓)들이
모두 모여 치성(致誠)할 제
관현가무(管絃歌舞) 찬란하고
화과향촉(花果香燭) 장(壯)할시고
태평성사(太平盛事) 이 아닌가
국태민안(國泰民安) 하오리라.

악이 연주되면 제관 이하 참제한 모든 기생들도 함께 춤춘 다음 악이 멈추고, 변두를 거둔다. 헌관 이하 집사들이 일제히 절하고 물러나면 제사는 끝난 다음 음복례와 아울러 여흥가무가 어우러진다.

樂作 自祭官以下 參班諸妓皆舞 撤籩豆 獻官以下諸執事拜出 祭訖 饋娛餘

촉석루 유월달에 제단 모아 분향할 제　　矗石榴月薦芬香
단장한 수백 미녀 모두 와서 치성하고　　數百粉粧齊致誠
찬란한 새 악부는 진양성에 가득하니　　滿設晋陽新樂府
의암의 높은 이름 천추에 전하리다.　　千秋不絶義巖名

또 정현석은 국악(國樂)의 노래와 춤(歌舞)에도 조예가 깊은 듯하다.

교방가요의 여흥가무(餘興歌舞)에 열거된 아박무(牙拍舞), 향발무(響鈸舞), 황창무(黃倡舞), 처용가무(處容歌舞), 승무(僧舞)와 창가(唱歌)에 춘향가, 심청가, 포박타령, 매화타령, 토끼타령, 화용도(華容道)와 놀이로서 잡희(雜戱), 사당(舍黨), 풍각(風角), 초란(焦爛), 산대(山臺), 꼭두각시(郭禿), 취승(醉僧) 그 외 잡요(雜謠)로서의 산타령(山打鈴), 저타령(杵打鈴), 그리고 단가(短歌) 등은 지금에는 소실되어 재현이 필요한 것이 많다. 위의 기록에서 경상도의 5광대(廣大)의 발상지인 진주 오광대의 구체적인 명칭이 빠져 있음이 아쉽다.

정현석에 의하여 창설된 '의암별제'는 선비 뿐만 아니라 서민 대중(庶衆)의 놀이로서 논개의 의열에 대한 선양(宣揚)과 교육의 장(場)으로 만든 공헌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의기사'의 논개 제사에는 '옛날에는 기생들이 무리를 지어 모임을 갖고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 와는 달리 지금도 퇴기가 제관이 되고 있으나 춘추 제향이 아니고 현재는 7월 7석(夕)에 한번만 지내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암별제'는 잃어져 버린 문화재가 되었던 터에 현재 진주의 성계옥씨에 의하여 《진주의암별제지(晋州義巖別祭誌)》가 번역되고 편저되어 출간되었고, 이어서 1992년 여름에 의암별제의 재현을 달성하였다.

논개에 관한 금석문

1. 의암(義巖)[52]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앞 바위 면에 '의암(義巖)'이라 새겨진 두 글자는 곧 정대융(鄭大隆)의 글씨이다.[53]

정대융(鄭大隆)의 자(字)는 여준(汝準)이다. 대영(大榮)의 아우인데 문장(文章)과 글씨로 세상 사람들이 추존(推尊)한 바 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원한으로 돌아가시자 남쪽으로 내려와 거주(居住)하게 되었다. 의기사(義妓祠) 앞 바위 면(面)의 '의암(義巖)' 두 글자는 곧 그가 쓴 것이다. 뒤에(그에게) 좌승지(左承旨)가 증직되었다.

鄭大隆 字汝準 大榮之弟 文章筆法 爲世所推 性至孝痛 先考寃歿 衰經南下仍居焉. 義妓祠前 巖面義巖二字 卽其筆也. 後贈左承旨.[54]

---

52) 논개의 순국 사실을 알려주는 맨 처음의 금석문이다. 이 금석문은 진주 촉석루 아래 그녀가 거사(擧事)한 남강(南江) 가의 바위에 새겨진 '義巖'이란 한문(漢文) 전서체(篆書體)의 글씨이다. 이 글씨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여져 새겨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이 '의암'이라는 글자 바로 옆에 '을사(乙巳)'라 새겨져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 '선조(宣祖) 38년(1605)'에 이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53) 이 '의암'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식(鄭栻)의 문집(文集) '가장(家狀)'을 보면, '의기 논개의 순국한 곳(義妓論介殉國之址)'이라 써 나무로 된 비(碑)를 세웠다고 한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무로 만들어져 세워있던 비(碑)의 자리에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의 비석과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이 세워졌다고 한다.

54) 《진양현속지(晋陽縣續誌)》 권이(卷二), 인물조(人物條)를 보면, 정대융은 아버지 정문부가 초(楚) 회왕(懷王)에 대해 지은 시(詩)로 인조(仁祖) 2년(1624) 1월 이괄(李适)의 난(亂)에 연루되어 무고(誣告)로 죽게 되자 형 정대영과 함께 진주(晋州)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고

2.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 55)

류어우(柳於于) 몽인(夢寅) 야담(野談)에서 말하기를 논개는 진주 관기(官妓)였

한다. 한편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 가운데 '어우선생년보(於于先生年譜)'를 보면, 이 '의암'이라는 글씨는 정서 의병(義兵)을 이르킨 의병장(義兵將) 정문부(鄭文孚)의 차자(次子)인데 그는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에 뛰어났다고 한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면 '의암(義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지게 된 것은 인조(仁祖) 2년(1624) 1월 이후가 된다. 현재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금석문은 1625년 그녀의 순국 32년 뒤에 진주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정대융(鄭大隆)이 글씨를 쓴 것을 세겼다고 하며, 논개의 순국 사실을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하게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신빙성(信憑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정문부는 명종(明宗) 20년(1565) 부사(府使) 신(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자허(子虛)이고, 호는 농포(農圃)이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그는 선조 21년(1588)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뒤 곧이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한 뒤 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회령(會寧)의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 적에게 투항하자 그는 산 속으로 숨었다가 민관(民官)을 수습하여 의병 대장(義兵大將)이 되어 경성(鏡城)을 수복하고 회령으로 진격하여 두 왕자(王子)를 왜적(倭賊)에게 넘겨준 반란군과 국경인의 숙부(叔父) 세필(世弼)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이듬해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되었다가 그 뒤 길주목사(吉州牧使)가 되었다. 인조(仁祖) 2년(1624) 그는 자신이 지은 초회왕(楚懷王)에 관한 시(詩)가 이괄(李适)의 난과 연루가 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뒤에 함북(咸北) 지방민들의 송원(訟寃)에 의해 신원(伸寃)되었다. 그의 저서로 《농포집(農圃集)》이 전해 오고 있다.

55) 이 금석문은 논개가 순국한지 129년(1722)이 되던 해 4월 진주 남강 가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 안에 세워져 있는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석이 세워진 것은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95년(九十五年) 임인(壬寅) 4월(四月)일(日) 입(立)'이라는 비문 맨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드시 조선 경종(景宗) 2년(1722)이다. '숭정(崇禎)'은 중국 명(明)나라의 연호(年號)이다. 이 금석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논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앞의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따라 최진한(崔鎭漢)은 진주의 사인(士人)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나머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종 2년 4월 민관(民官)이 함께 재화(財貨)를 모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식(鄭栻, 1683-1746)이 비문을 짓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곧 '의암사적비명(義巖事蹟碑銘)'이다. 이 비문에는 《어우야담》의 논개 순국 사실을 전제한 뒤 '이 내용은 당시의 실록(實錄)에서 나왔으므로 지금 비문을 새김에 있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대로 비에 옮겨 새긴다.'고 되어 있다. 이 비문을 지은 정식은 '의암(義巖)'이라는 글씨를 쓴 정대융의 종손(從孫)이다.

다. 그 때는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에 김천일(金千鎰) 등 창의(倡義) 장수(將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일본군(日本軍)과 항쟁(抗爭)하였다. 성이 무너지고 군사가 흩어지니 백성이 다 죽었다.

논개는 치장(治粧) 성복(盛服)을 하고 촉석루 아래 큰 바위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길이나 되는 강심(江深)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다. 왜군의 무리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한 왜인(倭人)이 바로 들어갔다. 논개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왜장이 달래어 끌어내려 하자 논개는 앞으로 걸어나아가 왜장을 끌어안고 몸을 날려 강심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관기의 몸으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자를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어찌 논개 하나에 그치랴. 다 그 이름을 잊었으니 저 관기들을 음란(淫亂)한 창녀(娼女)라고 하여 정렬(貞烈)이라 칭송(稱頌)함이 옳지 않다고 하나 죽음에 가기를 옛집에 돌아가듯 하였으니 썩지 아니하였고 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성스럽게 되어 가는 중의 하나이다. 참기 어려우나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적을 따르지 않는 것도 타의 아닌 충(忠)이니 그 기특함과 슬픔이다.

이 글은 당시 실록(實錄)에서 발췌(拔萃)하였으니 오늘의 비석(碑石)에 새긴 말 가운데 중첩(重疊)됨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에 그대로 새겨서 잇고자 하노라.

그 바위 홀로 섰고	獨峭其巖
그 여자 우뚝 섰네	特立其女
여자가 이 바위 아니면	女非斯巖
어찌 죽을 곳을 찾았으리	焉得死所
바위가 이 여자 아니었으면	巖非斯女
어찌 의로운 소리 들을소냐	焉帶義聲
한결같이 흐르는 강과 외로운 바위	一江孤巖

만고에 꽃다운 이름 얻었네　　萬古芳名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95년(九十五年) 임인(壬寅) 4월(四月)일(日) 입(立)

柳於于夢寅野談曰論介者晋州名妓也. 當萬曆癸巳之歲金千鎰倡義之士入於晋州 以抗倭及城陷軍散人民俱死 論介凝粧艷服立于矗石樓下峭巖之前 其下萬丈 直入波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以誘引之 論介遂遂抱之其倭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 官妓之遇倭 不見辱而死者不可勝記 非止一論介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染 亦聖化中一物 不忍背國從賊無他忠而已 猗歟哀哉之. 此出於當時實錄 則至於刻碑之辭 不必爲疊床之語故 仍以刻之係之以銘 銘曰

獨峭其巖
特立其女
女非斯巖
焉得死所
巖非斯女
焉帶義聲
一江孤巖
萬古芳名

崇禎 紀元後 九十五年 壬寅 四月 日 立

3.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56]

국난(國難)을 당하였음에도 구차스럽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절개(節槪)를 굽히지도 않는 것은 열사(烈士)에게도 어려운 일일진대 한갓 여자로서 대의(大義)를 판단(判斷)하였으니 그 어찌 열렬(烈烈)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건대 늠름한 열기(熱氣)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그 어찌 장엄(莊嚴)치 아니 한가. 산에는 영지(靈芝)가 있고 물에는 예천(醴泉)이 있는 것도 군자(君子)들이 칭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이름과 절개가 천성(天性)에 근원(根源)해서 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퍼져 있는 경우에서랴. 부끄럽게도 나는 육순(六旬)의 보잘것 없는 선비로 끝내 덕업(德業)을 이룬 공(功)이 없지만 매양 이 사람같은 훌륭한 공과 의로운 충렬(忠烈)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일으켜 항상 깊이 감동(感動)하고 감개(感慨)하였다. 지금 의기(義妓)의 이름을 세워 후세(後世)에 전하면서 늘 그녀의 영향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삼가 글로 적어 두려 하노라.

疾風板蕩 不苟不易 烈士所難而一女子 辨別大義 視死如歸 何其烈也 想像當日 凜然烈氣 炳如日星 何其壯也 山有靈芝 水有醴泉 君子稱尙 況人之名乎 節源於天性 布人耳目者乎 愧余六旬腐儒 無成己之功 每於如斯人 豊功義烈 艷服起敬 尋常感慨 今於義妓竪名傳後 以生平趨走下風之願 謹以書記識

56)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는 헌종(憲宗) 12년(1846) 논개의 출생지(出生地)를 기념(記念)하기 위해 장수현(長水縣)에서 세운 것으로 당시 장수 현감(長水縣監) 정주석(鄭胄錫)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이 비문이 세워지게 된 년대는 《호남삼강록》이 편찬 간행된 7년 뒤의 일이다. 그리고 이 비문은 당시 장수 현감 정주석이 《호남절의록》이나 《호남삼강록》의 내용과 장수 지역에 그동안 전해 오던 이야기를 근거(根據)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崇禎紀元後四丙午季秋上

知縣西原 鄭胄錫 謹識

子幼學 基永 謹書

碑有司 密城 朴吉仁

4.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 논개에 관한 비석[57]

의랑 논개의 비

하나인 것이 동시에 둘일 수 없는 것이면서 민족의 가슴팍에 살아 있는 논개의 이름은 백(百)도 천(千)도 만(萬)도 넘는다. 마지막 시각(時刻)까지 원수(怨讐)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추었고 그를 껴안고 죽어간 입술이 앵도보담 붉고 서리맺힌 누썹은 반달보다 고왔던 것은 한갖 기생(妓生)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가슴에 영원토록 남을 처녀의 자태(姿態)였으며 만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위대한 여왕(女王)으로서이다. 민족 역사(歷史)의 산과 들에 높고 낮은 권세(權勢)의 왕(王)들 무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相關)이 없으면서 한 줄기 푸른물과 한 덩이 하얀 바위가 삼백예순 해를 지날수록 민족의 가슴 깊이 한결 푸르고 고운 까닭이라. 그녀를 사랑하고 숭모(崇慕)하는 듯이랴.

썩은 벼슬아치들이 외람(猥濫)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민족을 고달피고 나라를 망친 허물과 포독(暴毒)한 오랑캐의 무리가 어진 민족을 노략하므로 식어진 어미의 젖꼭지에 매달려 애기들을 울린 저주(詛呪)를 넘어 죽어서 오히려 사는 이치(理

57) 이 비석은 논개가 순국한지 361년이 지나 1954년 의기창열회(義妓暢烈會)에서 진주 촉석루 서편(西便)에 있는 의기사(義妓祠) 정원(庭園)에다 세운 것이다. 이 비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진주에서 처음으로 논개가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 태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개의 순국 사실을 만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위대한 여왕(女王)으로 추앙 찬양한 점이다.

致)와 하나를 바쳐 모두를 얻는 도리(道理)를 증명(證明)한 그녀를 보면 그만이다. 피란 매양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어 무고(無故)히 흘러진 그 옛날 민족의 피는 어즈버 진주성터의 풀거름이 되고 말아도 불로한 처녀 논개의 푸른 머리카락을 빗겨 남가람의 천추로 푸르러 구비치며 흐름을 보라.

애오라지 민족의 처녀에게 드리ㄱ은 민족의 사랑만을 강물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에 아아 어느날 조국의 다사로운 금잔듸 밭으로 물옷 벗어 들고 거닐어 오실 당신을 위하여 돌하나 세운다.

단기 4287년 갑오 10월 29일
의기창열회 삼가 세움
글 지은이설창수
글씨쓴 이오재봉
일 주장김진숙 . 임한산 . 박봉래
돌일 한 이박지문

* 부기(附記)

의랑(義娘) 논개가 나신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대곡 주촌리이니 성(姓)은 주씨(朱氏)이다.

장수군 장수면 큰 길가에 있는 논개 비각(碑閣)은 장수현감 정주석(鄭胄錫)이 세운 비석을 미일전쟁(美日戰爭) 때에 일본 경찰이 땅에 묻었던 것인데 을유년(乙酉年) 팔월(八月) 해방 뒤에 장수군민의 힘으로 파서 모신 것이다.

임진왜란 당년 오월초(五月初) 초사흣날 서울을 빼앗기고 유월(六月) 열 사흘날에는 평양(平讓)이 떨어졌으니 진주통판 김시민 등의 사수(死守) 분전(奮戰) 아래 진주성만이 홀연한 호남의 뚝이 되었다. 다음 해 선조 26년 계사(癸巳) 6월에 6만

왜병(倭兵)이 아연 진주성을 세겹으로 둘러싸니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등 삼장사(三壯士)를 비롯한 결사의거(決死義擧)의 장병(將兵) 육천(六千)이 밤낮 여드레 동안 꼬박 혈투(血鬪)했으나 6월 29일 드디어 진주성은 무너지다. 순국자의 피에 물들어 흐르는 남강은 불그레하고 한 마리의 개와 닭 소와 말이 성할이 없이 학살(虐殺)당한 성민(城民)의 죽음으로 고랑과 샘들이 모조리 메꾸어졌다. 날이 새며 적들에 만흥(滿興)은 더욱 도도하여 촉석루 위에 버려진 잔치가 한창 난만(爛漫)할 뿐이다.

이 때 다락 밑 강 언덕에 외딴 넙적 바위 위에 서는 한 사람의 꽃다운 여인 홀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 만취(滿醉)한 적장(敵將) 모곡촌(毛谷村) 일설(一說) 석종노(石宗老)가 달려 내려 가더니 여인과 더불어 얼싸안고 환장처럼 즐기는 것이었다. 마침내 여인은 적장을 껴안고 떨어지고 만다. 그에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 뽀듯이 반지를 끼고 있었으나 이 분이 곧 의기 논개이다.

이 비를 세운 뜻은 안해인 계사년 논개 의랑 순국하신 육갑(六甲)을 기념하여 비롯된 것이다.

5. '의암주논개낭생장지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地事蹟不忘碑)'[58]

의암(義巖)의 부친(父親) 신안(新安) 주달문(朱達文)은 본향(本鄕) 계내면(溪內

58) 이 비석은 1960년 논개의 출생과 생장지인 주촌(朱村) 마을 입구에 세워졌다. 이 사적불망비(事蹟不忘碑)에는 논개의 출생지, 출생 마을 주촌(朱村)의 유래(由來),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 최경회(崔慶會) 현감과의 관계로 진주성(晋州城) 싸움에 가담한 동기(動機)와 성(城)이 함락(陷落)되고 그 처절했던 상황(狀況), 기생(妓生)으로 가장(假裝)하여 적의 승전연(勝戰宴)에 들어가 왜장을 껴안고 순국(殉國)한 사실 등이 소상(昭詳)하게 정립(定立)되어 있다.

面) 동남방(東南方) 백화산(白華山) 북록(北麓)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승지(勝地)를 택하여 모옥(茅屋)을 결구(結構)하고 산수의낙(樂)과 한학(漢學)을 숭고(崇高)하니 사방(四方) 인사(人士) 부급종사(부급從事)하야 소거(小居) 수년에 일촌(一村)을 가성(可成)하니 세인(世人)이 주선생(朱先生)의 촌이라 칭하야 주촌(朱村)이라 하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9월에 일녀(一女)를 탄생하매 선생이 애지(愛知)하야 사주(四柱)를 기록하니 4갑술(四甲戌)이라. 즉석에서 '産(논)' '狗(개)'의 천명(天命)으로 한자(漢字) '論介(논개)'라 명명하였다. 논개 13세 병술(丙戌) 춘(春)에 부친을 결별(訣別)하고 18세 신묘(辛卯) 춘(春)에 본현감(本縣監) 최경회(崔慶會)의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진주(晋州)에 부임(赴任) 수행(隨行)하였다.

계사(癸巳) 6월 왜적의 침입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어 제장(諸將)이 전몰(戰歿)하니 성중(城中)이 어육(魚肉)이라 7월 7일 촉석루와 남강상(南江上)에 왜적의 전승연(戰勝宴)의 난자 강개분의(慷慨奮義)하여 자천위기(自薦危機)하고 왜장 입화종무(立花宗茂)의 취사광(醉辭狂)함을 기회로 장재라. 예비된 10지(十指)의 지환(指環)과 만장의 열기로 남강심류(南江深流)에 견포수락(肩布遂落)하야 만고불구(萬古不拘)의 대의(大義)를 수립(樹立)함을 항가에 구가 영전하는 구감(龜鑑)으로 자(玆)에 입석(立石) 기념하였다.

단기 4293년 12월 일

장수교육감 김상근 근립

장천인 이재순 근기

성주인 이상렬 근서

6.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59]

이 곳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논개의 출생지이다. 논개의 성(姓)은 주씨(朱氏)이고, 호는 의암(義巖)이며, 의암이라는 호는 그녀가 순국(殉國)한 후 나라에서 내린 것이다. 그녀가 일찌기 장수현감(長水縣監) 최경회(崔慶會)를 모시는 몸이었다. 최경회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우도(全羅右道)의 의병장(義兵將)으로 큰 공을 세워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사(慶尙右道兵馬使)가 되어 진주성으로 전임(轉任)하였다. 이 때에 논개도 그를 따라 진주로 이주(移住)하였다.

그 해 6월에 왜군이 큰 세력을 휘몰아 진주성을 공격해 오자 격전(激戰) 끝에 최경회는 전사(戰死)하고 성마저 함락되는 비극(悲劇)이 일어났다. 진주성에 입성(入城)한 왜군은 7월 7석(七夕)날 남강 가 촉석루에서 승전 축하연(祝賀宴)을 열었다. 이 때 논개는 나라에 충절을 다하고 최경회의 원수(怨讐)를 갚기를 맹세(盟誓)하고 왜군 연회(宴會)에 들어가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강가 바위로 유인(誘引)하여 그를 끌어안고 푸른 강물에 투신(投身)하여 순국(殉國)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는 그녀의 의거(義擧) 장소(場所)인 강가 바위 위에 비석(碑石)과 사당(祠堂)을 세워 그녀의 충절(忠節)을 기리게 되었다. 가날픈 여자의 몸으로 충절을 다한 논개의 순국 정신(殉國精神)은 만고(萬古)에 빛날 것이다.

1982년 10월 일

지은이 장수군수 박청준

쓴이일송 한태석

---

59) 이 비석은 1982년 논개의 생가(生家) 빈터에 세워졌다. 그녀의 생가(生家)가 허허로운 쑥대밭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생가터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7. '주논개생가사적비(朱論介生家事蹟碑)' [60]

여기 주촌(朱村) 마을은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부친 주달문(朱達文)과 모친 밀양 박씨(密陽朴氏) 사이에 태어난 곳으로 이백여평(二百餘坪)의 생가터에는 우물과 유허비(遺墟碑)가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랑생가지사적불망비(朱論介娘生家地事蹟不忘碑)'가 있었다.

군민(郡民)의 숙원(宿願)인 생가(生家) 복원(復元)은 4백여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다가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특별하신 배려로 1986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되었다. 원 생가터는 대곡 저수지(大谷貯水池) 시설로 수몰(水沒)됨으로 같은 마을 둘레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輿望)에 따라 남쪽으로 삼백여미터 떨어진 곳에 부지(敷地) 8천3백40평을 마련 복원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의암 주논개의 충절이 선양(宣揚)되고 후세에 그 거룩한 얼이 전승(傳承)되어 길이 숭모(崇慕)하게 되었다.

1987년 8월 일

장수군수 하광선(河廣善) 찬(撰)
광주(廣州) 이규진(李圭鎭) 서(書)

---

60) 이 비석은 1987년 그녀의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하고 세운 것이다. 이 비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백여년동안 허허로운 쑥대밭으로 방치(放置)되어 있던 생가터가 저수지(貯水池) 시설로 수몰(水沒)되면서 그 터가 영원히 소멸(消滅)될 위기에 이르자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풀기 위하여 마을 가까이에 새터를 잡아 생가 복원을 하고 생가사적비(生家事蹟碑)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8.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

1996년 6월 주촌 마을 입구에 '의암신안주씨논개지여(義巖新安朱氏論介之閭)'가 복원되었다. 이 정여(旌閭)의 기(記)에는 옛 기록에 정려가 주촌 마을 입구에 서 있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져 없어지게 되어 그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할 수 없었기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논개(論介)에 관한 시문(詩文)

박기정 편역
(문학박사, 시조시인)

시문

1.
촉석루에서 회고하다
矗石懷古*

바다 동쪽 오랑캐를 바라본 지 그 오랜 세월,
붉은 누각은 높고 멀리 산과 언덕을 베었네.
예날의 그 물결 위엔 꽃같은 가인의 춤이 어리고,
단청 동자기둥엔 장사의 노래 길이 남았네.
전쟁터의 그 봄바람은 초목을 휘감고,
쓸쓸한 성의 밤비에 물안개 불어나네.
지금도 사당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남아있는 듯,
삼경에 촛불 켜고 강신술을 올리네.

蠻海東瞻日月多　　朱樓迢遞枕山阿
花潭舊照佳人舞　　畵棟長留壯士歌
戰地春風回艸木　　荒城夜雨漲煙波
只今遺廟英靈在　　銀燭三更酹酒過

---

* 출처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卷一. 이 시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이 그의 나이 19세 때 장인(丈人) 홍화보(洪和輔)의 청에 따라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을 지었는데, 그 때 지은 것이다. 그가 촉석루에 오라 논개(論介)를 회고하며 읊은 것으로 기문(記文)의 내용을 곁들여 살펴 보면 시의 감리가 저절로 전달될 것이다.

2.
촉석루 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

지난 세상 묻고자 하나 강물만 동으로 흐르고,
저물어가는 모래톱에 갈매기만 외롭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은 목숨을 던지지만,
시절이 평화로울 때 시인은 누각에 의지했다.
붉게 떨어지는 바위 꽃은 장한 혈기로 뭉쳤고,
푸르른 강풀에는 의로운 기생의 수심이 서렸네.
태평한 성대에는 책이 묵고 검이 녹스나니,
큰 목소리 한 곡조로 마음껏 놀아보세.

往塵欲問水東流　　只見沙鷗立暮洲
世亂忠臣踏死地　　時平騷客倚高樓
巖花紅落鍾雷血　　江草青留義妓愁
聖代居然書劍老　　浩歌一曲恣遨遊

---

* 출처 許濬, 《濂湖文集》, 卷一. 시인 염호(濂湖) 허회(許濬, 1758~1829)는 명승지 촉석루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촉석루는 누각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곳을 찾은 시인들은 자연히 거기서 의암을 만나게 되고, 논개의 절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촉석루에 오른 유객 중에 의암을 노래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그만큼 의암에서의 논개의 절행은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국운(國運)의 존폐(存廢)를 눈 앞에 둔 한 여인의 충절 정신(忠節精神)이 마침내붉은 꽃으로 강물을 물들였고, 그 절의의 대가로써 오늘 이 시인은 태평 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며 감회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암 논개는 분명 장한 혈기(血氣)로 뭉쳐진 한 떨기 붉은 꽃이다. 그래서 그는 초개(草芥)같이 푸른 강물 위에 꽃잎을 날렸던 것이다. 푸른 물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미래의 상징(象徵)이요, 강물을 물들인 붉은 꽃잎은 우리들 마음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논개의 충절 정신임을 시인은 칭송(稱誦)하고 있는 것이다.

3.
의기사당
義妓祠*

봄 산초 가을 계수나무는 강가에 허허롭고,
한밤중 바람에 환패소리 쓸쓸하다.
이후로 논개영혼 의지할 곳 있도록,
붉은 기둥 한 칸집 성가운데 세웠네.

春椒秋桂野汀空　　環佩凄然半夜風
從此精靈依有所　　一間朱棟起城中

---

* 출처 李止淵, 《希谷集》, 卷一. 이 시는 희곡(希谷) 이지연(李止淵, 1777~1841, 자는 景進, 본관은 全州)의 작품으로, 그가 경상감사(慶尙監司) 재임시에 의기사를 중축하고 논개의 충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말기, 곧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국가 위난(國家危難)의 시기였다. 불법적(不法的)이고 강제적(强制的)으로 치러진 1905년의 을사조약(乙巳條約, 5條約)과 1910년의 국치(國恥)로 우리는 국권(國權)을 빼앗기는 치욕(恥辱)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우리의 의사(義士)와 지사(志士)들은 곳 곳에서 일본 요인들과 친일 매국노(親日賣國奴)들을 암살(暗殺)하기도 하고, 신문지상(新聞紙上)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여론(輿論)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사(儒士)들은 농민들과 지방군과 합세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국에서 무력 항일 투쟁(武力抗日鬪爭)을 벌이는가 하면, 우국(憂國)의 시(詩)를 남기고 자결(自決)한 애국 지사(愛國志士)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일부 선비들은 입신(立身)에 뜻을 버리고 초야(草野)에 숨어버리거나, 일부 선비들은 일제(日帝)의 식민 통치(植民統治)에 울분을 참지 못해 충열(忠烈)로 순국(殉國)한 조상의 유적지를 찾아 오늘의 시국(時局)을 통분하며 한(恨)을 삭히기도 하였다.

4.
촉석루현판의 운을 따라
矗石樓次板上韻*

전 세상 말하려하니 분한 눈물 흘러,
힘없이 고개 돌려 옛 강가 바라본다.
이 금수강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던가,
비바람에 황량한 장사누각 뿐이구나.
대독으로 호령하던 일 옛 꿈인 듯 희미하고,
왜놈들 날뛰니 새로 걱정 생기네.
의기암 강가엔 물결만이 분노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속절없이 노니는가.

欲說前塵憤淚類　　悄然回首古汀洲
江山繡錯誰家物　　風雨荒凉壯士樓
大纛號令迷舊夢　　小酋橫突釀新愁
娼妓岩畔波猶怒　　我輩何心汗漫遊

---

* 출처 金昌淑, 《心山遺稿》, 卷一.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자는 文佐, 호는 心山, 본관은 義城이다. 그는 성주(星州) 출신 유학자(儒學者)이며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이다. 일찍이 진주성 전투에서 의연(毅然)히 순국한 삼장사와 논개의 절의는 어디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나라를 빼앗긴 이 시점에서 김창숙은 충절의 혼(魂)이 서린 촉석루와 의암을 찾아 순국의 정신을 되새긴다. 그는 오늘의 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의암 논개의 충절 정신에서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암가의 강 물결이 분노하고 있다고 노래하였던 것

5.
촉석루에 올라
登矗石樓*

십년만에 다시 찾은 촉석루,
긴 강만 외로이 성을 안고 흐르네.
적막한 옛 언덕에는 부질없는 산새들이요,
아득하게 긴 세상 한서린 갈매기네.
삼장사의 석잔술은 송백의 절개요,
논개 충절의 바위는 가을의 눈서리네.
상녀의 정화곡을 듣자니,
아득히 놀던 옛 일 그립네.

十載重尋矗石樓　　長江獨自擁城流
古邱寂寞啼山鳥　　浩劫蒼茫恨岸鷗
壯士三杯松栢節　　義妓一石雪霜秋
忍聽商女庭花曲　　往事蒼茫憶舊遊

---

* 출처 崔秉軾, 《玉澗集》, 卷一. 최병식(崔秉軾, 1867~1928)의 자는 맹거(孟車), 호는 옥간(玉澗),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그는 조선 말의 학자로서 경북 합천(陜川)에 살던 선비로 10년 전에 촉석루를 찾았던 일을 회고하며 그 날의 감회와 함께 논개의 절의를 노래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수난당한 민족적 울분이나 한맺힌 망국적(亡國的) 비애감(悲哀感)보다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촉석루에 서린 삼장사와 의암에 얽힌 논개의 충절 정신을 기리는 조금은 소극적(消極的)인 역사 의식(歷史意識)을 노래하고 있다. 최병식은 삼장사를 송백(松栢)의 절개에, 그리고 의암을 가을의 눈서리에 기탁(寄託)하여 그들의 순국(殉國)을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촉석루와 의암은 삼장사와 논개의 유적지인 동시에 충절과 의열의 한 장(場)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의암에서
義巖*

형세의 빼어남이 남쪽고을에서 으뜸인데,
의로운 여인의 자취가 이 강가에 남았구나.
천 년의 슬픈 원한 강물결도 흐느끼고,
만고의 아름다운 이름 바위에 까지 남았구나.
적막한 외로운 성 구름은 산골에 흩어있고,
쓸쓸히 지는 낙엽, 달은 가을을 머금었네.
바람을 맞고 이렇게 우뚝 섯자니 마음이 저려와,
어렴풋이 먼 데 푸른산 보며 나루에서 눈물짓네.

---

* 출처 鄭栻 ,《明庵集》, 卷一. 정식(鄭栻, 1683~1746)은 조선(朝鮮) 숙종(肅宗) · 영조대(英祖代)의 학자인데 그의 자는 경보(敬甫), 호는 명암(明庵),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그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형(大亨)의 손자로 일찍이 과거(科擧)를 보러 나갔다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김지순(金之純)이 쓴 척화소(斥和疏)를 읽고 당세에 영리(榮利)를 구하지 않기로 결심 항상 패랭이를 쓰고 명산(名山)을 유람(遊覽)하다 만년에는 두류산(頭流山) 속에 암자(庵子)를 짓고 여생을 마친 사람이다. 한 때 그는 진주의 여러 선비들과 함께 논개의 포상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순국 사실에 관한 전거(典據, 柳夢寅의《於于野談》)를 수집하여 당시 집권 세력과 가까운 경상우 병마사(慶尙右兵馬使) 최진한(崔鎭漢)에게 제공(1721, 景宗 원년)한 사람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정문부(鄭文孚)의 종증손(從曾孫)이자 친명배청파(親明排淸派)의 인물로서 국운이 명척청화(明斥淸和)로 기울어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전국 명산대천(名山大川)을 행운 유수(行雲流水)하다 오늘 남강변 의암에 서고 보니 그 날의 절행(節行)에 새삼 감개(感慨)가 무량(無量)하였다. 조선의 한 가녀린 여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바위에서 왜장을 안고 남강물에 몸을 던져 순국한지 어언 천 년(千年)이 흘렀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과 거룩한 정신은 아직도 이 남강물과 의암에 새겨져 오늘에 남아 전하고 있음에 감격한 것이다.

形勝南州第一區　　義妓我遺躅此汀洲
千年哀怨江波咽　　萬古芳名石面留
寂寂孤城雲銷峽　　蕭蕭墜葉月籠秋
臨風最是傷心處　　翠黛依俙泣渡頭

7.
논개암에서
論介巖*

(序詩) : 본 시의 배경, 진주 남강 위에 서있는 촉석루와 의암의 장엄한 서경, 거기에 서린 충성스런 영혼을 기림.

남강물은 만길이나 깊고,
강바위는 천길이나 높구나.
그 위에 백척의 높은 누각 있어,

---

* 출처 朴致馥, 《晩醒先生文集》, 卷三. 박치복(朴致馥, 1824~1894)의 호는 만성(晩醒),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이 시는 서시(序詩)에서 촉석루에 서린 충열들의 영혼을 기림, 둘째 시에서는 논개의 절의를 찬양, 셋째 시는 총 70구로, 출생에서 사후까지 논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려낸 한편의 서사시이다. 셋째 시는 다시 4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논개의 출생 · 성장과 성품, 제2부는 진주성 전투의 참혹함, 제3부는 논개 절의의 결행과 왜장의 죽음, 제4부는 논개 정신의 영원함 등 네 부분으로 되어있는 장시(長詩)이다. 의암의 절행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시편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압권(壓卷)이라 할 수 있다.

각 시 편의 구구절절(句句節節)에 배어있는 의암(義巖) 논개의 삶은 시인에게 실재(實在)하는 역사로 인식되어 진솔(眞率)한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셋째 시의 4부에서 보이는 대동강(大洞江) 가의 의기(義妓)는 임진왜란 때 평양성(平壤城) 전투에서 김경서(金景瑞, 金應瑞)를 도와 왜장(倭將) 소서비(小西飛)를 꼬여서 죽임으로써 결정적인 공을 세운 계월향(桂月香)을 말한다. 김응서(1564~1624)는 임진년(壬辰年) 평양 방위전에서 수탄장(水灘將)으로 대동강을 건너는 적병을 막았으며, 계서년(癸巳年)에는 이여송(李如松)의 명군(明軍)과 함께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하여 공을 세운 무장(武將)이다.

임진왜란사(壬辰倭亂史)에서 여인으로서 공을 세운 자가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관기(官妓)로서 왜적을 만나 욕(辱)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죽은 자를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유몽인(柳夢寅)은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말한 바 있다. 위의 시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하나의 여인 계월향의 절의도 의암 논개와 더불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두 여인을 함께 칭송하고 있다.

장사들의 충혼이 머리카락 솟게 하네.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上有百尺高樓　　壯士忠魂髮衝冠

(둘째 시) : 여인의 몸으로 왜장을 죽인 절행(絶行), 그로 인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했음을 칭송함.

살아서 욕됨이 미치지 않고자 하더니,
미천한 몸이 진실로 욕을 보게 되었네.
왜장 하나 죽인 일들이라 말하지만,
현인들은 오직 왜적 하나 만이라고 하지 않네.
작은 여인이 왜장하나 죽인 것이,
왜적들의 자만스런 웃음 그치게 했네.

生不欲被汚　　鱗介誠爲辱
等是死殲一倭酋　　尙賢已莫道壹倭
少人殲壹倭　　倭且休堪笑

(셋째 시) : 내용상 본장에 해당되는 장시. 4부로 구성.

제1부 : 창루의 풍경과 기녀가 된 논개의 운명, 그리고 천성적(天性的)인 그녀의 정량(貞諒)한 기품(氣稟)을 묘사함.

여인들이 노래하며 걸어다니니,

오고가는 발길에 강둑 풀이 노랗구나.
구름은 둥실 떠 오동나무 꽃을 어루고,
요염한 여인이 창문으로 고개 미네.
집집마다 천자의 아들 돈쓰듯,
노래와 웃음, 다투어 봄을 간지럽히네.
첩(논개)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에 떨어져,
몸은 창루 가에 맡겨졌네.
꽃다운 나이 열여섯인데,
다만 우뚝한 자태 가련하구나.
천성은 본디 곧고 미뻐서,
내치고 싶어도 결코 버릴 수 없다네.

步出閨閣曲　　井井黃蘗塢
英英刺桐花　　冶豔當囪戶
千家錢樹子　　歌笑爭春妍
妾生墮髦毿　　寄身娼樓邊
芳年屬破瓜　　多姿最可憐
天性苦貞諒　　欲罷不能忘

제2부 :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으로 도성(都城)이 도륙(屠戮)을 당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위태롭고, 진주성(晋州城)도 왜적의 침공으로 6만의 성민(城民)이 같은 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일을묘사함.

나라의 운명이 임진 · 계사년의 간난 속에서,
천한 오랑캐(왜구)에게 오래토록 짓밟혔네.

관리들 사로잡혀 욕을 당하고,
종묘와 도성도 송두리째 타버렸네.
날 저물어 기둥에 의지하며 생각에 잠긴데,
긴 칼 끝에 초생달 모아드네.
고립된 성의 담장이 무너지니,
견고한 진주성도 지킬수가 없구나.
슬프다 ! 육만의 성민들이여,
관민이 한 날에 죽음을 맞았네.

天步戾辰巳　　醜虜長蹂躪
衣冠辱俘據　　廟都隨灰燼
日夕倚柱念　　蛾眉攢脩劍
孤城乏儲胥　　坐失金湯險
哀哀六萬人　　同日爲猿鶴

제3부 :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적이 촉석루(矗石樓)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논개(論介)가 그 자리에 들어가 왜장(倭將)을 유인 함께 바위 아래 강물로 뛰어드는 장면을 묘사함.

탐욕한 왜장은 걸상에 의탁한 채,
술에 흠뻑 취해 방자히 지껄이며 기롱한다.
미련스레 껄껄웃으며 짐승처럼 나대더니,
끌어내어 매질하며 제멋대로 음탕하다.
단칼에 죽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욕되게 목숨을 마친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오.
꾀를 내고 곧 일어나서,
기쁘게 그를 따라 춤을 추네.
높은 누각은 시 읊기에 좋지 못하나,
강가의 바위는 크고 넓어 믿을만 하단다.
손을 끌고 가면서 원하여 말하기를,
어두워질 때까지 노릴자 하더라.
어리석은 왜놈은 이미 정신이 녹아서,
그 말 따라 응락을 하였네.
위험한 바위는 절벽 깎아 만들었나,
위에는 겨우 소반하나 놓을만 한데,
아래로는 천 길 못이 있네.
흐르는 물결 힐끗보니 맑고 잔잔한데,
섬뜩한 무서운 생각에 와락 끌어 안긴다.
몸을 가까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그 허리를 얽어 끌어 안는다.
힘을 써 갑자기 발을 날리니,
만길 떨어져 풍덩 소리났네.

頑酋據胡牀　　縱酒恣讙謔
駭渠牡牡性　　挑撻肆淫黷
一劍諒非難　　經瀆竟何益
作計乃爾立　　忻然隨俯仰
高樓正不韻　　江石洵訏廣
願言攜手去　　徜徜窮●旭

癡奴魂已銷　　隨語聲應諾
危巖陡戍削　　上可容盤礴
下有千仞潭　　流渫澹淸漣
强忍嚴閃意　　近身稍向前
緊緊抱其腰　　用力儵擧趾
溳溳萬丈下　　————

제4부 : 논개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논개와 계월향(桂月香)의 절의(節義)를 읊음.

나와 너 함께 죽었으니,
추한 뼈는 상어와 악어의 먹이되고,
아름다운 넋은 용궁으로 모셨네.
용궁은 바다에 통한다 하니,
멀리 대동강(패강)과도 통하겠네.
대동강에도 의로운 기생이 있어,
왜놈의 배를 칼로 찔렀다네.
빛나는 강물 얕은 듯 깊은,
대동강은 서북으로 흐르네.
당대에 빼어난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어,
어여쁜 절개 !그 이름, 영원하리라.

————　　吾與爾共死
醜骨餌鮫鰐　　香魂侍龍宮
龍宮達于海　　遙與浿江通

浿上有義妓　　剚刃奴腹中
菁江淺如泓　　浿水西北流
絶代兩佳人　　姱節名不休

8.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

푸른 강물은 빛나는 그날의 치마빛이런가
강위 피는 꽃은 숨쉬는 그녀의 넋이런가
강밑에 잠겨있는 그 뼈나마 거두어
천년토록 우리들 곁에 모셔두자

江水羅裙碧　　江花魂氣遲

---

* 출처 金澤榮,《滄江集》, 卷二, 김영택(金澤榮, 1850~1927)의 자는 우림(于霖), 호는 창강(滄江), 본관은 화개(花開)이다. 그는 학자 · 시인으로 개성(開城) 출신이다. 창강은 1891년(고종 28)에 진사(進士)가 되어 관직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사직하고 국가의 장래를 통탄하다가 1908년 중국(中國)으로 망명(亡命)하였다. 그는 이 시의 서두(序頭)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진주(晋州)에 논개(論介)라는 기생(妓生)이 있었는데 선조(宣祖) 임금 계사년(癸巳年) 난리에 왜병(倭兵)의 장수(將帥)가 진주를 함락시키고는 기생들을 불러 앞 강가 큰 바위 위에서 놀다가 술에 취하자, 논개가 적장(賊將)을 안고 강물에 빠져 함께 죽었다. 이에 나는 그 사당(祠堂)을 찾았노라'

그는 이 시에서 진주 의기 논개가 왜장을 안고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절의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강 언덕에 피는 꽃은 논개의 넋이요, 그의 정신은 천 년(千年)토록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논개는 한국 여인(韓國女人)의 충절(忠節)의 상징(象徵)이며, 그래서 오늘의 한국 여인들도 모두 미인(美人)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에서는 시인의 감회와 심경(心境)을 읊은 것으로,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心情)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澤榮,《韶濩堂詩集》卷二 : 김택영은 이 시의 머리에 '진주(晋州)에 논개(論介)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선조조 계사년(癸巳年) 난리에 일본 장수(將帥)가 진주성을 함락한 뒤 기생들을 불러 앞 강가 큰 바위 위에서 놀다가 술에 취하사 논개가 적장을 안고 강물에 빠져 함께 죽었다. 나는 이에 그 사당을 찾았노라. (晋州妓有曰論介者 宣廟癸巳 日本將陷晋 招妓游前 江大石上 酒酣 妓抱將落江俱死 余旣訪其祠)고 붙였다.

願收江裏骨　　千歲傍要離

외로운 바위에는 봄바람 스치고
쓸쓸한 사당엔 이끼만 무성하다
오늘 강가를 거니는 여인들은
물에 비친 그 모습 곧 미인일세

孤石春風厲　荒祠蘚色滋
至今江上女　照水正蛾眉

얼마나 아름다왔으랴 춤추는 그대 모습
얼마나 고왔으랴 그대의 머리단장
내 이제 와 그대의 서린 원한 물어보니
강물만 소리없이 흐르고 흐르네

愛娘眞珠舞　愛娘錦纏頭
我來問芳怨　江水無聲流

9.
의기를 노래하다
義妓歌*

풍천나루의 강물은 아직도 향기로우니,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씻고 의로운 논개에게 절하노라.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떻게 적장을 죽였던가?
죽음을 각오한 채 거룩한 뜻을 단행했네.
장계의 연로자들은 고향사람이라 자랑스러하고,
촉석루에서는 단청하고 순국함을 제사지낸다.
화려한 왕조 돌아보면 인물이 많았다 하지만,
기생이었어도 오랜 세월 그 이름 한결같이 빛나리.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鬚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産　　矗石丹靑祭國殤

---

* 출처 黃玹, 『梅泉集』, 卷三. 황현(黃玹, 1855~1910)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그는 학자 · 우국 지사(憂國志士)로 1885년(고종 22) 생원시(生員試)에 장원(壯元)했으나 시국(時局)의 혼란함을 개탄(慨歎)하고 은퇴하여 향리(鄕里)에서 지냈다. 매천(梅泉)이 우국(憂國)의 심회(心懷)를 안고 찾은 곳이 바로 논개의 생장지(生長地)인 장수 풍천 땅이다. 그는 이 곳에서 논개의 충열에 큰 감화를 받는다. 시인은 풍천에 들러 몸을 정갈하게 하고 논개를 향해 경건(敬虔)히 배향(拜向)을 하고 선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한 목숨 아까와 하지 않고 기꺼이 나라에 바치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감복(感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논개의 장한 죽음은 장수 온 고을의 자랑이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빛이 되어 그 이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 후 매천은 결국 1910년(융희 4) 경술년(庚戌年)의 국치(國恥)에 통분하여 절명시(絶命詩) 4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楓川渡口水猶香　　濯我鬢眉拜義娘
蕙質何由能殺賊　　藁砧已自使編行
長溪父老誇鄉産　　矗石丹靑祭國殤
追想穆陵人物盛　　千秋妓籍一輝光

10.
의기암에서
義妓巖*

한여인이 의롭게 죽었으니,
곰과 물고기의 덕이라 하겠네.
밝게 빛나는 청정한 자태여 !
늠름하고 결백한 지조여 !
왜장 한 놈 죽였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네.
한 작은 여인이라 말하지 마라,
만 장부의 팔뚝처럼 떨쳤다네.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갈지 못하니,
천년의 의암 언제나 남아있네.

女子死於義　　熊魚判容易
濯濯氷玉姿　　凜凜霜雪志
莫謂一倭死　　萬膽同日墜
莫謂一女小　　能奮萬夫臂
江流石不磨　　留得千載義

---

* 출처 安鍾彰,《希齋集》, 卷一. 안종창(安鍾彰, 1865~1918)의 자는 치행(致行), 호는 희재(希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논개의 절의시(節義詩)로서 시국의 위태로움에 직면하여 잠자는 우리 민족 정기(民族精氣)를 일깨우려 하였다. 그는 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논개의 표상(表象)을 청정(淸淨)한 자태(姿態), 늠름한 지조(志操)라고 했으며, 그것은 바로 웅어(熊魚)의 덕행(德行)이라고 찬양한다. 비록 그녀는 목숨을 왜장 하나와 맞 바꾸었다고 하나, 그녀로 인하여 모든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니,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이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그녀의 조국에 대한 충절 정신은 천 년 만 년 민족과 함께 길이 남을 것이라고 그는 칭송하고 있다.

11.
의기암에서
義妓巖*

기특하고 아름답도다! 이 나라 역사 위에,
기녀로서 의암이 있었다네.
괘씸하구나! 고기 씹는 작자들,
나라 버리고서 무엇을 그리 탐하느냐?
의기사는 바위 위 언덕에 높은데,
남강물은 의암 아래로 흐르네.
지금의 탐욕스런 부자들아,
의암의 충절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가!

奇絶靑邱史　　娼家有義巖
咄哉肉食子　　負國尙何鐫
祠高巖上岸　　水咽岩下潭
卽今封豕食　　此義少人傷

---

* 출처 金昌淑, 前揭書, 卷一.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의 호는 심산(心山)이다. 그는 유학자로 논개의 충절을 칭송 쇠락해 가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그는 1909년 명성학교(星明學校)를 창립, 육영 사업(育英事業)에 종사하고, 을사오적매국성토문(乙巳五賊賣國聲討文) 상소 사건(上疏事件)으로 옥고(獄苦)를 치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해외로 망명, 전국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한국 독립을 호소한 유림단진정서(儒林團陳情書)를 휴대하고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우송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암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상 충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칭송하면서, 그녀의 정신을 되살려 독립 정신(獨立精神)을 고취시키자고 외치고 있다. 나라가 존망지추(存亡之秋)의 위기에 있는데도 고기로 배를 채우고 사는 매국적(賣國的) 무리들에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다.

12.
고시조(古時調)*

矗石樓 欄干밧긔 南江水碧 白鷗飛라
슬푸다 一片石은 貞忠孤魂을 실엇고나
西風에 蓋드러 위로할제 눈물겨워 ᄒᆞ노라

---

* 출처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 4162, 亞細亞文化社, 1992. (4162는 시조집의 歌番임) 이 시조는 안문영(安玟英, 1816~?, 자는 聖武, 호는 周翁)의 개인 가집(歌集)인 『금옥총부(金玉叢部)』에 실려 있어 작자가 안민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서민(庶民) 출신으로 운취가 있어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명리(名利)를 좇지 아니하는 고결한 성품을 지녔다. 또한 운유(雲遊)을 일삼고 시를 잘했으며 음율에도 정통한 조선 후기의 가객이었으니, 그가 영남(嶺南)의 명승지인 진주 촉석루를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촉석루 높은 곳에서 남강의 푸른 물 위를 나는 흰 갈매기를 따라 어느덧 의암(義巖, 一片石)에 머무른다. 저 일편석이 바로 나라를 위해 순사한 정충 고혼(貞忠孤魂) 논개를 실은 바위임에 시인은 그의 충절 정신에 감격하며 술잔을 들고 있다. 시인은 지금 왜장을 안고 남강물에 뛰어들기까지의 논개의 외로운 심정을 어떤 형태로든 위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안민영의 가집 『금옥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 앞 시조의 사연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진주의 촉석루 밖 남강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위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임진년 왜란 때에 왜장이 진주부 관기인 논개와 함께 이 바위 위에 올라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술이 반쯤 취하자 논개가 왜장에게 춤을 추자고 청하니 왜장은 기꺼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었다. 그러다 논개가 왜장의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묘당(廟堂)을 세우고 그의 충열(忠烈)을 표하였다.' (晋州矗石樓外 南江中 有一大巖 上可以坐百人 壬辰之倭亂 倭將 與府妓論介登此巖 飮酒而樂 酒至半請倭將對舞 倭將欣然而起舞 論介抱倭腰 投江而死以 此故 立廟以表忠烈) 安玟英, 『金玉叢部』138.

(가)*

말고 말근 江南水야 壬辰 이를 네 알니라
忠信과 義士덜이 몃몃치나　저난고
아마도 女中丈夫난 論娘子가 ᄒᆞ노라

(나)**

矗石樓 발근 달이 論娘子의 넉시로다
向國한 一片丹心 千萬年에 비취오니
아마도 女中 忠義난 이　인가 ᄒᆞ노라

---

*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조로 조선조(朝鮮朝) 고종대(高宗代) 정현석(鄭顯奭)이 편찬한 시조집인 『교방가요초(敎坊歌謠抄)』(1872년)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다. (가)와 (나)의 시조에서는 시인이 논개를 의기(義妓)라 하지 않고 '논낭자(論娘子)'라 칭하고 있는데 이는 논개의 충의정신과 함께 그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다. 시인은 그러면서도 그를 '여중장부(女中丈夫)' 또는 '여중충의(女中忠義)'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갓 가녀린 여성으로서의 논개가 아닌 장부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절행(節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요, 예우(禮遇)라 하겠다. 출처 沈載完, 《校本歷代時調全書》 984, 世宗文化社, 1972. (984는 歌番임)이다. 진주(晋州) 남강(南江)이라는 배경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배출된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을 칭송하면서도 그 가운데 특히 논개의 충의 정신을 제일로 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박을수, 전게서, 4163. (나)는 (가)와 같은 성격의 노래이다. 시인은 특히 1행과 2행에서 논개(論娘子)의 충절을 촉석루와 이 강토를 비춰주는 달에 비유(譬喩)함으로써 오직 한 마음으로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세련된 은유(隱喩)를 사용하여 시상(詩想)을 한껏 높여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화채비결(花寨秘訣)***

論介ㄴ 우리 祖上 桂月香은 우리 先生
殺身成仁 그 忠節은 千萬年에 빗나도다
우리도 뎌를 模範ᄒᆞ야 視死如歸

*** 박을수, 전게서, 4754. 이 시조는 〈대한매일신보〉(제969호, 1918년 12월 4일자) '사조(詞藻)'란에 발표되었다. 시인은 이 시조에서 논개와 계월향을 같이 노래하고 있다. 논개와 계월향은 기녀이면서도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킨 인물들이다. 계월향은 임진왜란 당시 평양(平壤)의 기생(妓生)으로 평안도 방어사(平安道防禦使) 김응서(金應瑞, 景瑞)를 오라비라고 속여 함께 평양성으로 들어가 왜장(倭將) 소서비(小西飛)를 죽이게 도와주고 적(賊)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신도 김응서로 하여금 죽이게 한 충절의 여인이다. 그런데 본 시조의 초·중장에서는 논개를 '우리 조상(祖上)'으로 계월향을 '우리 선생(先生)'으로 나란히 대접하면서, 그들의 살신 충절(殺身忠節)이 우리의 역사 위에 영원히 빛날 것임을 칭송하고 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우리들도 오늘의 이 시국에 즈음하여 논개와 계월향의 충절 정신을 본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말고 보국(輔國)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조시(時調詩)를 통하여 논개와 계월향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인물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려는 수난(受難)의 시대에 다시 살아나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민족 정신(民族精神)을 일깨움으로써 참 조상으로 또는 참 선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13.
촉석루(矗石樓)*

矗石樓 돌아드니 論介 적이 어느 때냐?
悠悠한 南江물은 예보던물 아니러든
한숨만 그젠듯하여 차마禁치 못하네.

高樓에 비낀 별은 그때 별과 다르다만
義岩이 서있는데 물결만이 굽이친다
고기배 無心하여라 魂낚는 듯 하고녀.

살아서 못다한 恨 대(竹)가되어 솟단말가?
잎잎이 눈물이요 마디마디 마음이라
실바람 지날때마다 울음소리 같아라

---

* 출처 이상 · 정태진 편,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회, 1946. 논개가 순국한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인은 '논개 적'을 회고하고 있다. 참혹(慘酷)한 역사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남강물은 이미 그 때의 물이 아니요, 촉석루에 비취는 별은 그 때의 별이 아니지만 그가 순국의 절의를 단행한 그 바위(義巖)는 지금도 그 때의 역사를 말해주듯 묵묵히 서 있어 시인으로 하여금 세월의 무상(無常)함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오직 남강변의 대나무만이 논개의 충절을 기리며 논개의 혼(魂)으로 남아서 한서린 울음을 운다고 하였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정절(貞節)과 충절(忠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시문(詩文)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도 자연(自然)도 세월 앞에서는 허무(虛無)한 존재(存在),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오직 한점 부끄럼없이 살다간 참된 인간의 모습이요, 정신인 것이다. 그래서 맹자(孟子)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고 사람을 둘러보아 부끄럼이 없음(仰不愧於天 俯不 於人)'(『孟子』盡心章句 上)이 군자(君子)의 도(道)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세 시인들은 논개를 여장부(女丈夫)로 칭송했던 것이다.

14.
촉석루(矗石樓)*

헐린 城廓을 둘러 강물은 흐르고 흐르고
나루에 빈 배 한 채 몇몇 날로 매였는지
갈밭속 해질 무렵에 기러기떼 오른다.

흰 모래 깔린 벌에 대숲은 푸르른데
무너진 흙담 안에 祠堂은 벽이 없고
비바람 추녀에 들어 窓살 마자 삭는다.

욱쓸어진 古木을 돌아 다락에 올라서면
옷빠는 안악네는 끼리끼리 모여앉아
蒼蒼한 傳說을 띄워 물과 함께 보낸다.

---

* 출처 김상옥, 《초적》, 수향서헌, 1947. 이 시조는 역사의 사적으로서 촉석루와 황량(荒凉)한 남강변의 배경을 들어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각 연(聯)이 감정의 격정적(激情的) 분출(噴出)이나 관념적(觀念的) 지향(指向)이 없이 현실적 상황을 통하여 그저 역사의 장(章)에 있었던 한 사건 쯤으로 무리없이 읊은 한 편의 서정시(敍情詩)이다. 소극적 회고시(消極的懷古詩)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논개가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충절 여인(忠節女人)인데 그에 대한 후세인의 보답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흙담', '벽없는 사당' 등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시인은 엄숙한 그 역사적 사실은 다만 오늘날의 '옛 이야기'로 남아 후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라고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15.
진주의기사영송신곡(晋州義妓祠迎送神曲)*

계실젠 진주기생 떠러지니 나랏「넉」이
남강물 푸른빗이 그제부터 더「지터」라
오실제 길뭇지마소「핏줄」절로 당긔리.

「례」맛고 문다드니 물넘어는 산들이라
이강산 못「잇」기야 죽어살어 달르릿가
돗단배 어이섯는고 님이신 듯 하여라.

---

* 출처 정인보,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시인은 시조의 제 1연에서 진주 기생으로서의 논개를 나라의 넋(민족의 정신)으로 승화(昇華)시켜 놓고 있다. 시인은 그 이유를 남강에 왜장을 안고 떨어졌다는 그 숭고(崇高)한 순국(殉國)의 정신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했다. 따라서 논개 사후 400여년이 흐른 지금도 후손들은 그의 충혼(忠魂)이 서린 〈의기사〉를 찾고, 그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군(檀君)이래 삼국인(三國人)이나, 고려인(高麗人)이나, 조선인(朝鮮人)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한 핏줄'로 이어진 운명적 존재(運命的存在)이기 때문이리라. 제2연에서는 논개야말로 죽어서까지도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혼(愛國魂)으로 남아 있음을 칭송하고 있다. 시인은 논개의 거룩한 충절 정신을 돗단배의 이미지에 실어 예리(銳利)한 감성(感性)으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다.

16.
촉석루(矗石樓)*

늙어 누운 나무 병들어 쓰러진 나무
깎아 선 벼랑 끝에 가을바람 울고 가고
빈 다락 석양(夕陽)하늘에 낡을대로 낡았다.

두어 두어도 百年을 못하는 목숨들이
한 나라 홍망(興亡)에 걸려 싸워 죽은 자리
모래는 희기만 하고 대수풀은 푸르고

흔적도 없는 성(城)터는 차라리 서럽지 않다
창연한 전설(傳說)을 지니고 외로 남은 의암(義巖)
저무는 강(江)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는다.

---

* 출처 이호우,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이 시조에서 보이는 '빈 다락 석양하늘', '싸워 죽은 자리', '흔적 없는 성터', '외로 남은 의암' 등의 공간적 배경(空間的背景) 속에서 역사가 할퀴고 간 빈 자리가 유난히 우리의 가슴을 처연(悽然)하게 만든다. 그만큼 당시 전란(戰亂)의 참혹(慘酷)함과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논개의 순국(殉國)이 후세인들에게 영원한 애국충절(愛國忠節)의 표본(標本)으로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남강에서*

진주를 하나로 잇는 진양교가 누워 있다
오늘도 봄바람 타고 이 난간을 짚고 서면
왜인의 시린 칼날이 콧등에 와 닿는다.

남강은 산 역사의 강 꽃은 져도 푸르러 오고
저 물결 멎는다 해도 그의 넋은 백사(白沙)로 남아
임진년 덜 씻긴 한을 헹궈내고 있을 거다.

강안(江岸)에 길로 자란 푸른 대밭, 푸른 노래
논개, 우닐던 자리 대나무로 앉은 뜻은
우리네 앉을 자리를 바로 일러 줌일 게다.

---

* 출처 원용문, 《남강물에 촉석루 비치고》, 1981. 이 시조에서 시인은 주로 '난간을 짚고서면', '남강은 산 역사의 강', '그의 넋은 백사', '논개 우닐던 자리' 들을 통해 회고적 서정성(抒情性)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인의 시린 칼날'이라든지, '임진년 덜 씻긴 한'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앉을 자리' 들의 구절(句節)을 통해 우리의 역사 위에 지을 수 없는 민족적 한(民族的恨)으로 남아있는 임진왜란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歷史意識)을 던져주고 있다.

18.
논개 사당의 백일홍*

유월에 서리 맺는 여인의 매운 한을
삼단 같은 머리 풀어 밤마다 울어 예더니
백날을 소지 올리는 불꽃이, 불꽃이 인다.

그 불씨 하나 벼랑을 물들이고
하늘도 물이 들어 구천으로 번지면
백날을 밝히던 횃불 대들보를 그을렀다.

이 외에도 박종옥의 〈촉석루에서 - 의기 논개의 비각을 읽고〉 등이 있다.**

---

* 출처《時調文學》제9호, 1976 겨울. 이 시의 제1연에서는 '유월의 서리', '삼단 같은 머리', '백날을 소지 올리는 불꽃' 들의 시각적 이미지들이 백일홍에 비겨서 '왜적에 대한 분노와 순국의 애국적 충절 정신' 이라는 주제(主題) 아래에서 유기적(有機的)으로 통일(統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삼단 같은 머리' 의 시각적 이미지는 직유(直喩)와 결합되어 시적(詩的) 이미지의 조성(造成)에 기여(寄與)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제2연에서 시인은 '그 불씨 하나 벼랑을 물들이고' 에서와 같이 색체적(色彩的)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하늘도 물이 들어 구천으로 번지면' 에서와 같이 회화적(繪畵的)인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불씨~' 에서는 은유(隱喩)가 시각적(視覺的) 이미지와 결합되어 표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백날을 붉게 피어있다는 백일홍의 이미지를 통해 논개 사당에 서린 그의 정신의 신성함과 영원함이라는 주제를 나타냄으로써 부분적(部分的) 이미지와 전체적(全體的) 주제(主題)의 조화(調和)를 잘 살리고 있다. 이처럼 현대 시조를 통해서 나타난 논개의 충절 정신은 시인의 고도의 표현.기법(表現技法)에 힘입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애국 정신과 살신 보국(殺身輔國)의 한 표본으로 영원히 칭송될 것이다.

** 박종옥, 『상원시조집』, (고려문화사, 1948.)과 박병순의 〈촉석루〉
『월간문학』제31호, 1971 · 5. 등의 작품이 있다.

시조와 시

19.

논 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깁고
불붓는 情熱은
사라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홀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엇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홀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홀러라[1)]

20.

날과밤으로 흐르고흐르는 南江은 가지 안슴니다.

바람과비에 우두커니 섯는 矗石樓는 살가튼光陰을따라서 다름질침니다.

論介여 나에게 우름과우슴을 同時에주는 사랑하는論介여

그대는 朝鮮의무덤가운데 피엿든 조흔꽃의하나이다. 그레서 그향기는 썩지안는다.

나는 詩人으로 그대의愛人이되얏노라

그내는어데잇너뇨 죽지안한그대가 이세상에는업고나

나는 黃金의칼에베혀진 꽃과가티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當年을回想한다.

술향기에목마친 고요한노래는 獄에무친 썩은칼을 울린다.

춤추는소매를 안고도는 무서운찬바람은 鬼神나라의꽃숩풀을 거쳐서 떠러지는해를 얼ㄴ다.

단얄핀 그대의마음은 비록沈着하얏지만 떨리는것보다도 더욱무서웠다.

---

1) 이 시는 수주(樹柱) 변영로(卞榮魯)의 것인데 논개의 거룩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라 하겠다.

아름답고無毒한 그대의눈은 비록우섯지만 우는거보다도 더욱쉬엇다.

붉은듯하다가 푸르고 푸른듯하다가 희여지며 가늘게떨니는 그대의 입설은 우슴의 朝雲이냐 우름의暮雨이냐 새벽달의秘密이냐 이슬꽃의象徵이냐

삐비가튼 그대의손에 꺽기우지못한 落花臺의남은 꽃은 부끄럼에醉하야 얼골이붉엇다.

玉가튼 그대의발꿈치에 밟히운 江언덕의 묵은이끼는 驕矜에넘쳐서 푸른 紗籠으로 지기의題名을 가리엇다.

……〈중략〉……

容恕하여요 論介여 金石가튼 숙은언약을 져버린것은 그대가아니오 나임니다.

容恕하여요 論介여 쓸쓸하고호젓한 잠ㅅ자리에 외로히누어서 끼친恨에 울고잇는 것은 내가아니오 그대임니다

나의가슴에 '사랑'의글ㅅ자가 黃金의로색여서 그대의祠堂에 記念碑를세운들 그대에게 무슨위로가 되오릿가

나의노래에 '눈물'의曲調를 烙印으로찍어서 그대의祠堂에 祭鍾을울닌대도 나에게 무슨贖罪가 되오릿가

나는 다만 그대의遺言대로 그대에게다 하지못한사랑을 永遠히 다른女子에게 주지 아니할뿐임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가티 이즐수가업는 盟誓임니다.

容恕하여요 論介여 그대가容恕하면 나의罪는 神에게 懺悔를아니한대도 사라지것슴니다

千秋에 죽지안는 論介여

하루도 살ㅅ업는 論介여

그대를사랑하는 나의마음이 얼마나 질거우며 얼마나 슬프것는가

나는 우슴이제워서 눈물이되고 눈물이제워서 우슴이됩니다.

容恕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論介여[2)]

21.

살보살에게도 나라 있나니

나라 앞에서

나라 보살이 되었나니

의병 3천의 일 해내었나니

남강 홀러[3)]

22.

너는 새벽의 강을 건넜지

어두운 日常의 울안을 뒤집고

흐르는 물줄기로

세상의 곤혹을 속시원히

닦아내면서

달아나는 실뱀같은 길을 따라

낯선 마을 앞을

---

2) 이 시는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의 시로 논개를 추모하는 정을 읊은 작품이다.

3) 이 시는 고은(高銀) 것으로 한 아녀자(兒女子)이자 기녀(妓女)의 신분으로 몸을 희생시킨 의미를 조국애9祖國愛)의 차원에서 논개를 노래한 작품이다.

옷고름 같이 풀어져 내리는 붉은 설움
질끈 매어 달고
봅이 와도
돌아올 수 없는
미류나무 가지 끝
먼 나라로 가면
질경이 풀꽃은
저무는 발길을 비쳐 줄까.
강 건너 오는 바람이
네 약한 심장을 들어 올려
벼랑 끝에 밀어 부친다면
어두운 너와의 거리
말끔히 지우기라도 하듯
진흙길에 쌓여
이내 불타는 눈송이들
가슴에 안고
뜨거운 울음
돌로 흙으로 눌러 앉히고
끝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깊은 강을 건넜지.
그리움은
내 가슴에 부딪쳐 와서
지울 수 없는
血痕으로 맺히고
너는 시들지 않는 꽃

새파란 강의 깊이 속에서
네 모습을 길어올린다.[4]

23.

오오! 이 마지막 밤이여!
어서 나를 몰아가다오
나의 성, 나의 사람, 시민 장군이시여!
異邦의 사나이를 껴안은 채
두 몸이 한 몸 되어
최후의 길에 올랐습니다.

……〈중략〉……

서투른 기교로
때로는 분노를 억제하며
지체 높은 이들의 시중을 들지만
그것은 참다운 내가 아니어라
뚫을 수 없는 그물에 걸려
우리 안에 갇힌 수인(囚人)같은 것
그것은 참다운 나는 아니어라.(제4장)

……〈중략〉……

---

4) 이 시는 임종성(林鍾成)이 지었는데 논개의 행적이나 모습을 이미화한 작품이다.

밤과 밤을 잇는 몽롱한 순간들이
하나 하나 항거의 아픔으로 꽃이 되어
그의 가슴 안에 피어나게 하리니
이 몸 미천한 女人일지나
근심 안에 도사린 그 등불을
어느 바람에도 꺼지지 않도록
이 머리카락들을 바람에 배앗길지어나
저 외람된 왜병의 무리를 향하여
마디 마디 맺힌 恨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풀어가리니.(제6장)[5]

24.

……〈전략〉……

진주 기생 논개의
절개가 높다느니 굳세다느니

---

5) 이 시는 모윤숙(毛允淑)이 74세의 나이에 지은 서사시(敍事詩)로 《현대시학(現代詩學)》에 13회에 걸쳐 발표한 것이다. 이 시는 서시(序詩) 외에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2,300행에 이른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는 임진왜란 당시를 전후한 당쟁(黨爭)과 탐학(貪虐)의 혼란한 조선의 생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전개되는 전란의 소용돌이를 묘사한 뒤, 제7장부터 제13장 끝까지 1 · 2차 진주성 싸움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김시민(金時敏) 장군의 활약상, 논개의 충의로운 행적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장수 노비 논개의
충절이 푸르다느니 붉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들로
달콤하고 매끄러운 그러나 독 묻은 말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처라리 철없는 오늘을
나는 웁니다.

……〈중략〉……

사랑의 사람 그대여, 그대 죽음은
사랑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군색하고 어슬픈 20세기의 숨결,
넝마처럼 까발기고 군침 흘리며
색감 고운 비단 속에 숨어 낄길거리는 프리 섹스,
낮도깨비 수작만 같은 이력서 위에
높이 앉은 높은 콧대,
콧대 하나로 지워버리는 性의 이름,
돈 놓고 돈 따먹는 시집가기, 장가들기,
이런 저런, 또 어떤 오늘날 수작으로는
가늠할 길 도무지 없는
그대 그 사랑은,
죽음의 손으로 쟁기질하여
매운 혼으로 씨를 물어
한 잎 한 잎 울창한 그리움으로
짙게 서 있는

늘 푸른 사랑의 숲입니다.

……〈중략〉……

그 사랑의 숲은
제 앞가림의 나날로 깊어져 가는,
심장은 식어가고 피는 얼어붙은
이 시대 냉병의 한 가운데서
다시금 더운피 용솟음치게 하고,
머리만 남고 가슴은 퇴화된
이 날의 얼음장 밑에서
불씨를 다스리고 있습니다.(제11장)

……〈하략〉……[6]

---

6) 이 시는 정동주(鄭東柱)의 작품으로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7,000행에 이른다. 서시격의 제1장과 종결 부분의 11장을 제외하고 크게 3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논개의 조부모 시절과 논개의 탄생, 그리고 논개의 어린 시절을 거쳐 장수 관아(官衙)의 급수 노비가 되기 전까지의 내용이고, 제6장에서 제8장까지는 장수 관아의 급수 노비에서 최경회의 후실(後室)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장에서 제10장까지는 1·2차 진주성 전투의 전말과 논개가 기생(妓生)으로 가장(假裝)해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껴안고 진주(晋州)의 남강(南江)에 투신(投身)하기가지의 과정이라 하겠다.

가사(歌辭)

논개(論介) 충렬가(忠烈歌)[7]

전라도 장수(長水)고을 주진사댁(朱進士宅) 외동따님
삼천리 우리강토 왜적에게 짓밟힐때
오장모곡촌(毛谷村) 거짓안고 남강(南江)투신 논개열사(烈士)
우뚝선 촉석루(矗石樓)에 의암충혼(義巖忠魂) 서려있네
아버지 주달문(朱達文)공 어머니 밀양박씨
덕유산(德裕山) 정기받아 충신열사(忠臣烈士) 태어날제
신기할사 생년월일 생시까지 갑술(甲戌)이라
사갑술에 맞추어서 그이름 논개로다
아버지를 여인후에 삼촌달무(三寸達武) 횡포보소
김풍헌의 바보아들 논개배필 삼겠다네
돈받고 사성(四星)받아 투전하고 청누가니
박씨부인 기절초풍 모녀가 피신했네
김풍헌의 거동보소 동헌(東軒)에 송사할제
붙잡혀온 논개를 장수현감 최경회(崔慶會)님

---

7) 소고당(紹古堂) 고단(高煓)의 작품으로, 《소고당가사집(紹古堂歌辭集)》(삼성출판사, 1991, 全州)에 실려 있다. 고단은 1922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평화리 죽심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자는 효덕(孝德)이고, 소고당(紹古堂)은 그녀의 호이다. 그녀는 55세의 늦은 나이에 규방가사(閨房歌辭)를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그녀가 논개의 생가지를 방문한 뒤 지은 것으로, 논개가 모곡촌육조의 허리를 안고서 진주 남강에 투신하면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이룬 충렬을 기린 가사이다. '거룩할사 순국열사 살신성인 단장추모 등의 주제어를 보아 이 가사의 충효 의식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무죄판결 내린후에 병든부인 간청으로
그부인이 세상뜨니 후실로 마지했네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싸움 처절할제
순국하신 부군(夫君)원수 나라원수 갚으려고
열손가락 마디마디 옥가락지 낀손으로
적장안고 투신하여 살신성인 하였구나
열아홉살 꽃봉오리 피다말고 낙하로다
푸른남강 붉은마음 단장추모(斷腸追慕) 겹겹쌓여
계내면(溪內面) 주촌(朱村)마을 아씨생가(生家) 복원하니
충(忠)과열(烈) 꽃피운얼 거기고이 머무소서
어허! 님가신지 사백년이 심쿠려
거룩할사 순국열사 어이펴서 칭송하리
고운님 애국단심 온겨레의 자랑일레
횃불되신 님의넋 길이길이 빛나리라

병인(丙寅, 1986) 지월(至月)

민요(民謠)

1.

순창 기생(淳昌妓生) 의암(義巖)이는
우리 나라 건지려고
왜장(倭將) 청정(淸正) 목을 안고
진주(晋州) 남강(南江) 떨어졌네[8)]

2.

네 놈이 왜장(倭將) 청정(淸正)이 아니냐?
내 놈이 안동(安東) 삼십리(三十里) 안에
들어오면 들어만 오면
내 칼에 맞아 죽으리라.[9)]

---

8) 고정옥(高晶玉), 《조선민요연구(朝鮮民謠硏究)》(首善社, 1949), p.231. 여기서 보면, '논개'라는 이름대신 '의암(義巖)'이라 부르고 있으며, 논개의 출신(出身)을 '장수(長水)'가 아닌 '순창(淳昌)'이라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기록에 의하면, 대개 그녀는 '진주 관기(晋州官妓)'라든가 아니면 '장수 관기(長水官妓)'로 표현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순창 기생(淳昌妓生)'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그녀가 진주 남강에서 안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왜장이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가 아닌 가등청정(加藤淸正)이라는 것이다.

9) 김소운(金素雲), 《언문조선구전민요집(諺文朝鮮口傳民謠集)》(第一書房, 東京, 1933), p.618. 이 민요는 당시 경성(京城)의 '맹윤영(孟允永)'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의인(義人)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을 보고 외쳤다는 노래'라는 해설이 있다. 한편 임동권(任東權), 《한국민요집(韓國民謠集) 1》(集文堂, 서울, 1961), p.318.에도 이와 같은 민요가 있는데, 이는 예천 지방(醴泉地方)에서 채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네 놈이 왜장 대장 가등청정(加藤淸正) 아니더냐?
네 놈이 진주 삼십리 성 틀밖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내 칼에 목을 날려 죽으리라.[10]

4.

진주 기생 이애미가
만백성을 살릴려고
왜놈 천지 목을 안고
진주 남강 떨어졌네[11]

5.

진주이라 촉석루
지애미란 기생이
왜장 청정의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빠져 죽었네.[12]

6.

진주 기생 의앰이가
진주 기생 의앰이가

---

10) 리명길, 《전게서》, p.88.
11) 임동권(任東權), 《전게서》, p.318.
12) 임동권(任東權), 《상게서》, p.779. 정읍 지방에서 채록된 것으로 되어 있음.

만인간을 섬기라고
꽃과 같은 저 시절에
왜장 청장 목을 안고
진주 남강 떨어질 때
어찌 아니 한심한가
우리 나라 충신동이[13]

7.

네 놈이 왜놈 대장 가등청정 아니더냐
네 놈이 진주 삼십리 성틀밖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내 칼에 목을 날려 죽으리라
진주 기생 이애미는 왜놈 청정 몸을 안고
남강 물에 떨어졌네 우리 집에 서방님은
나를 하나 못성겨서 자는 듯이 누웠구나.

쾌지나 칭칭나네
살랑수 어-이 수레받게 어-이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죽여주자 죽여주자 왜놈들을 죽여주자
목을 쳐라 목을 쳐라 가등청정 목을 쳐라.[14]

---

13) 박순호(朴順浩),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5-5, 전라북도 정주시 · 정읍군편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1987), p.684. 정읍군 감곡면 민요 20, 진주 기생.
14) 리명길, 《전게서》, pp.88-89.

자 료 편

오 병 무 편역

〈논문1〉

전라우의병(全羅右義兵)과 최경회(崔慶會) 일가(一家)의 의병 운동(義兵運動)

조 원 래
(順天大學校 敎授, 文學博士)

Ⅰ. 서언(序言)

이순신(李舜臣)이 형덕승(玄德升)에게 보낸 글에서, '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라 하였듯이 임진왜란시(壬辰倭亂時) 전라도(全羅道)는 국력 회복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전국 각처(各處)의 전장(戰場)에 군량을 공급하는 기지(基地)가 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육상(陸上)과 해상(海上)의 주공전선(主攻戰線)에서 전국(戰局)을 주도(主導)해 나간 것도 전라도(全羅道)의 관(官)·의병(義兵)이었다. 특히 의병전(義兵戰)에 있어서는 난초(亂初)부터 종전(終戰)에 이르기까지 지역성(地域性)을 초월하여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 호남 의병(湖南義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호남 의병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제 그에 대한 이해(理解)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3대 의병장(三大義兵將)으로 알려져 온 최경회(崔慶會)와 그 휘하(麾下) 전라우의병(全羅右義

兵)에 대한 활동상(活動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전라우의병의 활동 전모(全貌)를 살펴 보면서 최경회(崔慶會) 일가(一家)의 의병 운동(義兵運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檢討)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봉자료(基本資料)에서부터 오는 한계성으로 인하여[1] 오류(誤謬)도 없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成果)에 훨씬 미치지 못한 작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 더 보완(補完) · 가필(加筆)될 것으로 믿어진다.

---

1) 필자(筆者)가 처음에 본고(本稿)의 작성(作成)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은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최씨육의록(崔氏六義錄)》과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가 있었던 것 때문이었다. 전자(前者) 1책(冊)은 순조(純祖) 4년(1804)에 최경회(崔慶會)의 7대손(代孫) 최용석(崔勇錫) 등이 간행(刊行)한 것이며, 후자(後者) 1책은 철종(哲宗) 12년(1861)에 최경회의 방손(傍孫) 최익수(崔翼秀) 등이 간출(刊出)한 것으로서 최근에 해주최씨(海州崔氏) 영랑장공파문중(領郎將公派門中)에서 양자(兩者)를 합책(合冊)하여 국역(國譯)으로 재간(再刊)한 바 있다. 그런데 가승류(家乘類)의 기록들이 그렇게 인시되고 있긴 하지만, 위의 양서(兩書) 역시 사실(史實)과는 거리를 둔 오류(誤謬)의 기사(記事)가 적지 않은 자료임을 밝혀 둔다.

Ⅱ. 전라우의병(全羅右義兵)의 성군(成軍)과 최경회(崔慶會)

임란기(壬亂期) 호남 의병(湖南義兵)의 활동은 김천일(金千鎰)이 주도한 나주 의병(羅州義兵)과 전라좌도(全羅左道) 사림(士林)이 주축이 되어 고경명(高敬命)을 맹주(盟主)허 한 담양 의병(潭陽義兵)의 봉기(蜂起)에서부터 시작된다. 고경명과 김천일은 도내(道內)에 알려진 중망(重望)있는 명사(名士)들로서 그들이 의병 운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였으나 그 시기(時期)와 방법상 양자간(兩者間)의 견해에 차이를 보임으로써[2] 그들의 의병 활동은 각기 분리되고 말았다. 따라서 먼저 기병(起兵)한 나주 의병은 급히 북상 진군(北上進軍)하여 기내(畿內) 일원(一圓)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담양 의병은 전자(前者)에 비하여 거병(擧兵)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6천여 대군(大軍)을 모아 뒤늦게 북상중(北上中) 금산성(錦山城)에서 왜병(倭兵)과 접전(接戰)하였다. 그러나 7월 10일, 금산성 전투의 패전(敗戰)으로 하여 고경명 휘하의 의병은 지도층의 핵심 인물들을 잃고 와해(瓦解)되기에 이르렀다.

---

2) 임진년(壬辰年) 5월초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 이광(李洸)이 인솔한 전라도 관군(全羅道官軍)이 관찰사(觀察使)의 실책으로 인하여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서 무작정 해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김천일은 고경명에게 보낸 글을 통하여 이광의 죄(罪)를 성토한 다음 바로 의병을 일으키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고경명은 관찰사가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점을 들어 그를 비난하기 전에 좀더 격려하며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양인(兩人)의 견해가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의병 활동 역시 각기 분리되고 말았다.(趙湲來, 《壬辰義兵將 金千鎰研究》, 學文社, 1982, pp.39-45. 參照)

3) 전라좌도(全羅左道) · 우도(右道)에서 일어난 의병(義兵)이란 뜻이다. 당시 전라도의 해정 구획(行政區劃)이 제도적(制度的)으로 조(左) · 우도(右道)가 분리(分離)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편의상 관례적(慣例的)으로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주(羅州)가 전라우도(全羅右道)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담양(潭陽)이 좌도(左道)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 기인(起因)하여 나주 의병(羅州義兵)을 '전라우도의병(全羅右道義兵)', 담양에서 일어난 의병을 '전라좌도의병(全羅左道의병(義兵)' 이라 칭한 것도 사실이다. (《亂中雜錄》, 壬辰上 5월 26일 條 參照) 따라서 본고에서 취급한 '전라좌(全羅左) · 우의병(右義兵)' 의 명호(名號) 역시 기병지(起兵地) 또는 소모지(召募地)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내의 자위(自衛)를 감당할만한 군사조차 없게 되자 위 양자(兩者)의 뒤를 잇는 전라좌(全羅左) · 우(右) 의병[3]이 다시 봉기하였으니 보성(寶城)의 임계영(任啓英) 군(軍)과 화순(和順) · 능주(綾州)를 중심으로 일어난 최경회(崔慶會) 군(軍)이 그것이다. 전라좌의병은 보성의 임계영 · 박광전(朴光前), 장흥(長興)의 문위세(文緯世) 등 좌도 남부 지역(左道南部地域) 사림의 주동에 의한 것으로 금산 패보(敗報)에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모병(募兵) 활동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아 뒤늦게 거병한 것으로 보인다.[4] 이들은 임진년(壬辰年) 7월 20일 군사 7백여 명을 모아 보성관문(寶城官門)에서 임계영을 좌의병장(左義兵將)으로 추대하고 양향관(糧餉官)에 문위세(文緯世), 참모관(參謀官)에 박근효(朴根孝), 종사관(從事官)에 정사제(鄭思悌) 등의 부서(部署) 조직(組織)을 갖춘 다음 '호(虎)' 자(字)로 장표(章標)를 삼아 '전라좌의병(全羅左義兵)' 이라 칭하였다.[5] 이후 좌의병은 보성을 출발하여 장흥(長興) · 낙안(樂安) · 순천(順天) · 구례(求禮)를 거쳐 남원(南原)에 이르기까지 좌도 열읍(左道列邑)을 돌며 군세(軍勢)를 더하게 된다.

한편 우리의 관심 대상인 전라우의병(全羅右義兵)의 성군(成軍) 과정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좌의병(左義兵)과는 달리 우의병(右義兵)의 주역(主役)들은 고경명 휘하의 담양 의진(義陣)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많았다. 즉 이들은 금산성 전투 이후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규합(糾合)하여 재기(再起)의 기치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전라우의병의 집결(集結) · 기병지(起兵地)가 광주(光州)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거의 기반(擧義基盤)은 화순과 능주 지역이었고, 창의(倡義) 주역들 역시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었다.[6] 특히 최경회군(崔慶會軍)의 의병 활동이 전

---

4) 《난중잡록(亂中雜錄)》, 임진상(壬辰上) 7월 조(條)의 임계영(任啓英) 등이 발(發)한 격문(檄文) 내용 참조.

5) 《삼도실기(三島實記)》 권(卷) 2, 부록(附錄) 참조.

6)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권(卷) 1, 〈충의공최일휴당동순(忠毅公崔日休堂同殉) · 동창제공사실(同倡諸公事實)〉에 오른 26명의 인사들 가운데 화순 · 능주 출신이 11명을 찾이하고 있는 사실들로서도 그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개되기까지 능주 출신 진사(進士) 문홍헌(文弘獻)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찾이하고 있었다.[7]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홍헌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우의병의 성군(成軍)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본관(本貫)을 남평(南平)에 두고 명종(明宗) 6년(1515) 능주(綾州) 교촌리(校村里)에서 진사(進士) 검(儉)의 아들로 태어나 자(字)를 여징(汝徵), 호(號)를 경암(敬庵)이라 하였다. 8세 때부터 벌써 향교(鄕校)에 취학하여 글을 익혔으며, 장성해서는 이이(李珥) 문하(門下)에 들어가 수학(修學)한 후 선조(宣祖) 15년(1582) 진사시(進士試)에 급제(及第)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도학(道學)과 현인(賢人)을 숭상하였으니, 특히 기묘명현(己卯名賢) 조광조(趙光祖)를 흠모하고 그 원사(寃死)를 심히 애통해 하였다. 예컨대 선조 3년(1570) 조광조의 서원(書院) 건립시(建立時) 그 부지가 마련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건사토(建祠土)를 내놓고 노비(奴婢)까지 헌납한 것으로도[8] 그와 같은 일면(一面)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면모를 지닌 문홍헌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동향인(同鄕人) 구희(具喜)·박혁기(朴赫起)·노희상(盧希尙) 등과 더불어 향병(鄕兵) 3백여명을 모아 담양회맹(潭陽會盟)에 참여하여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금산성에까지 진군(進軍)하였다. 금산에 당도한 후 고경명의 요청에 따라모율관(募栗官)의 임무를 띠고 출진(出陣)하던 중 환진(還陣)하지 못한 채 동복(同福)에 이르러 금산 패함(錦山敗陷)과 함

---

7) 문홍헌(文弘獻)이 최경회에게 보낸 글 가운데 '起事者弘獻 而成事者足下 始功者弘獻 終功者足下'(《경암실기(敬庵實記)》 권(卷)1, 〈여최부사경회서(與崔府使慶會書)〉라고 한 것으로나 그의 위국충절(爲國忠節)을 추모(追仰)한 후인(後人)들이 '凡召募之檄 軍壽之運 皆出於文弘獻之手 然則崔慶會之墨衰倡義 殺身成仁 一則文弘獻 二則文弘獻'(《同上書》 권(卷)4, 숙종(肅宗) 31년(年) 을유(乙酉) 진사조황등(進士曹滉等) 〈청증정소(請贈旌疏)〉)라고까지 극찬한 것에서도 그의 위치를 유추(類推)할 수 있다.

8) '追慕靜庵先生之寃爲著哀 先生之賦以寓其欽仰之誠 及宣祖卽位之三年庚午 建靜庵先生書院 以爲妥靈之所 而無地立祠 公許基建祠 又許奴婢一雙 好賢之誠至矣.'(《경암실기(敬庵實記)》 권(卷)2, 〈행장(行狀)〉)

9) '一日高霽峰謂文公曰 軍中絶餉 此將奈何 募粟之事 一時爲急 而非君莫能爲也. 君可徧歷列郡募聚軍粮 公卽日辭退 募粟遠近 行到同福縣 未及還陣 錦山敗陷 霽峰被殺'(《同上書》 권(卷)3, 인조(仁祖) 26년(年) 무자(戊子) '進士梁渭南等〈上巡相請啓薦書〉)

께 고경명의 순절 비보(殉節悲報)를 들었다.[9] 그러나 그는 바로 재거(再擧)할 것을 결심하고 봉친(奉親)은 물론 가사(家事) 일체를 아우 홍유(弘猷)에게 맡긴 뒤, 때마침 내간중(內艱中)이던 화순의 최경회를 찾아가 주장(主將)이 되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최경회는 곧 아우 홍유의 빙부(聘父)였을 뿐 아니라 문홍헌이 평소에 존경하던 향린(鄕隣)의 명사(名士)였으니 그의 충분(忠憤)에 감동한 최경회가 상중(喪中)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섬으로써 재창거병(再倡擧兵)의 방안(方案)이 논의될 수 있었다.[10]

그 뒤 화순·능주 등지를 중심으로 하여 병력 8백여명을 모집, 최경회를 맹주(盟主)로 추대하고 7월 26일 광주에서 기고(旗鼓)를 세워 '골(鶻)' 자로 장표(章標)를 삼아 '우의병(右義兵)' 이라 칭한 것이다.[11] 전라우의병이 거병시(擧兵時) 갖춘 의병 조직에 대하여는 보강되는 과정에서 전부장(前部將)에 송대창(宋大昌), 후부장(後部將)에 허일(許鎰), 좌부장(左部將)에 고득뢰(高得賚), 우부장(右部將)에 권극평(權克平) 등을 임명하고 문홍헌을 참모로 하여[12] 조직적인 의병 활동을 편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에 추대된 최경회는 문과(文科) 출신이었음에도 무재(武才)가 있어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하였기 때문에[13]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

10) 이 때 문홍헌과 함께 최경회를 방문하는 등 동심합력(同心合力)한 인사(人士)로서는 능주 동향인 구희(具喜)가 있었으나 그는 기대승(奇大升) 문하에서 수학한 최경회의 동문 후학(同門後學)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것이다.

11) '左義兵陣中士子等 召聚散卒八百餘名 推前府使和順崔慶會盟主 七月二十六日 建旗鼓于光州 以鶻字爲章標 由右道收兵向南原 因稱右義兵'《난중잡록(亂中雜錄)》 임진상(壬辰上) 7월(七月))

12)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창의서록(倡義敍錄)〉.

13) 최경회가 문무(文武)를 겸비(兼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선조 7년 그가 경직(京職)에 있을 때 문신(文臣) 2품관(二品官) 이하(以下)가 모여 시사(試射)한 가운데서 1등(一等)을 찾이한 것(《선조실록(宣祖實錄)》 권(卷)8, 7년(七年) 갑술(甲戌) 5월(五月) 을해(乙亥) 조(條)) 이랄지, 또 지방관(地方官) 재임시(在任時) 왜침(倭侵)에 대비하여 병서(兵書)를 강(講)하고 군사 훈련(軍事訓鍊)을 시킬 수 있었던 사실. 59세 때의 용루시과(龍樓試科)에서도 여전히 무술이 뛰어나 거듭 가자(加資)된 사실(《同上書》〈년보(年譜)〉 참

있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환갑(還甲)을 맞은 노령(老齡)에도 불구하고 문쇠(墨衰)로 기병(起兵)하기까지에는 그 밖의 또다른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니 이제 거의(擧義) 전 그에 대한 인물의 성격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그는 중종(中宗) 27년(1532) 화순현(和順縣) 삼천리(三川里)에서 부친(父親) 천부(天符)와 모부인(母夫人) 순창 임씨(淳昌林氏)의 3남(三男)으로 태어났다. 그는 본관(本貫)을 해주(海州)에 두고 자(字)를 선우(善遇), 호(號)를 일휴당(日休堂) 또는 삼계(三溪)라 하였다. 어려서는 가학(家學)을 익혔고, 16세에 교수(敎授) 김원(金遠)의 딸인 나주 김씨(羅州金氏)와 결혼한 후 그 이듬해부터 송천(松川) 양응정(梁應鼎)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송천은 기묘명현(己卯名賢) 양팽손(梁彭孫)의 아들로서 생원시(生員試)에 장원(壯元)한 뒤 문과(文科)를 거쳐 문과 중시(文科重試)에도 장원 급제함으로써 당대에 문명(文名)을 떨친 호남(湖南)의 인물이었다. 그는 문인 최경회의 위인(爲人)과 기절(氣節)을 평하여 '위인(爲人)의 성품(性品)이 항직(伉直)하니 난리를 당한다 해도 의연(毅然)히 대처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다.' 라고 하여 병서(兵書)를 권독(勸讀)하는 등[14] 최경회의 부난거의(赴難擧義)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26세가 되던 해에는 광주(光州)의 기대승(奇大升)을 찾아가 사사(師事)하면서 그와 두터운 학연(學緣)을 맺었다. 그는 최경회보다 5년 년상(年上)에 지나지 않았으나 젊은 나이에 성리학(性理學)의 깊은 경지(境地)를 열어 놓아 이미 그 학명(學名)이 자자하였고, 이무렵 고경명과 호남의 소장명유(少壯名儒)들이 그의 문하를 출입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때 최경회가 그로부터 받은 학문적 사상적 영향

---

14) 《송천집(松川集)》 권(卷)5, 부록(附錄)의 행장(行狀)에서는 '崔兵使慶會亦門人也. 先生每稱其氣節曰 臨亂不苟者必此人也. 勸讀兵學 盖先見如此.' 라 하였고,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의 〈년보(年譜)〉 무신기사(戊申記事)에서는 '梁先生甚歎異之曰 此大器當晩成 又曰 爲人伉直臨亂不苟者必此人.' 이라 하였다.

15) 그는 기대승(奇大升)의 영령 앞에 바친 제문(祭文)에서 '那意蒼心 在道漠漠 棄我小子 奄觀大化 嗚呼哀哉 未喪之文 將誰繼也 未墜之道 將誰紹也' 라고 하여 마치 자신들의 학문이 끊기고 꺼져버릴 듯 절망적인 심회를 토로한 점으로 보아서 그렇게 이해된다.

또한 매우 강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15]

그 후 30세에 사마시(司馬試)에 응하여 생원(生員) 진사(進士) 양과(兩科)에 급제하였으며, 선조 즉위년(1567) 마침내 식년문과(式年文科)에서 을과(乙科) 제1인(第一人)으로 급제하였으니[16] 그의 나이 36세 때의 일이다. 뒤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해에는 백형(伯兄) 경운(慶雲)도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고, 중형(仲兄) 경장(慶長)은 그로부터 3년전에 이미 무과에 올라 있었다. 즉 일가(一家)의 3형제가 모두 등과(登科)한 영예를 누렸으니 이같은 예(例)가 인근(隣近)에서는 좀처럼 있기 어려운 일이었다.

문과에 급제한 최경회가 관로(官路)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의 일이었다. 종6품관(從六品官)인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에서 출발하여 담양 부사(潭陽府使)에 이르러 관직(官職)에서 물러나기까지 전후 17년간에 걸친 그의 관력(官歷)을 보면 다음 〈표(表)〉와 같다.

〈표(表)〉 최경회의 관력

임직년(任職年)	관직명(官職名)	특기(特記)
선조(宣祖) 7(1574, 43세)	성균관 전적→사헌부 감찰 →형조 좌랑→옥구현감	옥구읍민 입비
선조 10(1577, 46세)	장수현감(長水縣監)	장수읍민 입비
선조 12(1579, 48세)	무장현감(茂長縣監) 무장읍민 입비	治績之最' 官吏로 陞進,
선조 15(1582, 51세)	영암군수(靈巖郡守)	영암읍민 입비
선조 17(1584, 53세)	호조 정랑→형조 정랑 →영해 부사(寧海府使)	영해읍민 建生祠
선조 20(1587, 56세)	사도시정→담양 부사(潭陽府使	담양읍민 입비
⊙ 선조 23(1590, 59세) 12월	모친상으로 사직 귀가	

※ 이 표는《일휴당실기》의 〈년보〉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그의 관직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직(京職) 재임 기간이 3년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대부분의 재관 경력(在官經歷)을 지방 수령직(守令職)으로 보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 그의 성격이 경직(硬直)된 중관 관계(官界) 질서(秩序)에 적응하지 못한 반면에 일반의 민인(民人)을 상대로 하는 치민 행정(治民행정)에 그만큼 친근 · 익숙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지방관을 거쳐 간 곳마다 예외없이 현지 읍민(邑民)들이 송덕(頌德) · 선정비(善政碑)를 세워 그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해 부사(寧海府使) 재임시의 예에서 보듯이 읍인(邑人)들이 그의 상(像)을 그려 생사당(生祠堂)까지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다는 사실들이 그것을 뒷받침하여 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련하여 그가 지닌 관인정신(官人精神), 혹은 유자(儒者) 선비로서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그가 지은 글 가운데 '송죽국쟁장설(松竹菊爭長說)' 이란 것이 있다. 이 글은 송(松) · 죽(竹) · 국(菊)이 각기 지닌 기절(氣節)과 특장(特長)에 대하여 그 3자(三者)가 논쟁하는 내용이지만, 그 문의(文意)는 실없는 명분과 허세에 가득찬 그릇된 사류 풍조(士類風潮)를 비판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최경회는 '대인 선생(大人先生)' 의 말을 빌어 '진실로 귀한 것은 스스로의 본분(本分)을 지키는 일 뿐'[17]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그가 지닌 평소의 소신(所信)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의 재관시(在官時) 행의(行誼)나 향후(向後)에 보는 의병 운동의 정신적 기저(基底)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다.

〈표〉에서 본 것처럼 최경회가 모상(母喪)을 당하여 관직을 떠난 것은 선조(宣祖) 23년 12월, 임진왜란을 불과 1년여 남겨 놓았을 때의 일이거니와 왜란을 맞았을 때

---

16)《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선조(宣祖) 즉위년(卽位年) 정묘(丁卯) 조(條). 그런데《일휴당실기》의 〈년보〉 정묘(丁卯) 조에서는 '登文科第一' 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乙科第一' 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 같다.

17) '傍有大人先生… 之曰…所貴者 自守而已' (《일휴당실기》)(遺稿)

는 환갑(還甲)을 수개월 앞둔 노령(老齡)에 접어 들고 있었다. 김천일(金千鎰)과 고경명(高敬命)이 처음 의병을 일으킬 당시 그에게도 동창(同倡)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18] 고경명은 금산에 진군한 후에도 글을 통하여 그에게 참전할 것을 청해 왔다. 이 때 그는 자신이 직접 참전하지 못한 대신 조카 홍재(弘載)에게 의병 수백을 인솔케 하여 금산성 전투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현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고경명이 순절(殉節)하고 전투가 끝난 상태였다.[19] 기대승 문하의 동학(同學)이었던 고경명의 전사(戰死)와 금산성함(錦山城陷)에 대한 소식이야말로 최경회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모상중(母喪中) 시묘(侍墓)로 인한 기력쇠잔(氣力衰殘)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묵쇠의병(墨衰義兵)을 결심케 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평소 그에게는 왜적에 대한 적개심(敵愾心)이 따로 남아 있었다. 일찍이 중형(仲兄)이 울산 군수(蔚山郡守)로 있을 때 경내(境內)에 나타난 왜선(倭船) 한척을 포획하지 못했다 하여 충군(充軍)당한[20] 치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그는 문홍헌의 래청(來請)이 있었을 때, 부모에 대한 효(孝)를 나라에 대한 충(忠)으로 바꿔 모든 것을 바칠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백형(伯兄) 경운(慶雲) · 중형(仲兄) 경장(慶長)과 힘을 합하여 향리(鄕里)에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하고 모병에 나섬으로써 전라우의병의 맹주(盟主)가 된 것이었다.[21]

이렇게 성군한 전라좌의병과 전라우의병은 사전에 서로 약속한 바는 없었지만 양진(兩陣)이 후일 남원(南原)에서 합류(合流)한 이후 시종(始終)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호남 의병(湖南義兵)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

18) 김천일은 그에게 치서(馳書)하여 함께 거병(擧兵)할 것을 청하였다.(《건재집(健齋集)》〈년보(年譜)〉 만력(萬曆 20년 임진(壬辰) 조 참조)

19) '高公敬命擧義錦山 贈日休堂書曰…先生時居母喪 氣力柴毁 自不能衝冒矢石 先使侄持平弘載率鄕兵五百 往從錦山之役 高公旣敗 勢無可爲…' (《일휴당실기》〈창의서록(倡義敍錄)〉)

20) 《同上書》 유고(遺稿) 〈걸체영해부부사소(乞遞寧海府府使疏)〉.

21) 文弘獻等收散亡卒 來請公爲義兵將 先生自惟雙親俱歿 一身許國捨經從權 移孝爲忠亦一道也. …與伯氏進士慶雲 仲氏掌樂正慶長 設廳募義以助兵勢(《同上書》 倡義錄序)

Ⅲ. 전라우의병(全羅右義兵)의 활동과 제2차(第二次) 진주성 전투(晋州城戰鬪)

1. 좌우연합의병(左右聯合義兵)의 활동과 전공(戰功)

전라우의병을 이끌고 남원(南原)에 당도(當到)한 최경회는 그 곳에서 전첨사(前僉使) 고득뢰(高得賚)를 부장(副將)으로 삼고 6·7백의 군사를 증원(增員), 군세(軍勢)를 보강(補强)한 뒤 전라좌의병과 기각지세(角之勢)를 이루어 장수(長水)에 진주(進駐)하였다.[22] 그 후 다시 남원에 되돌아와 유둔(留屯)하기까지, 양군은 장수를 토적 활동(討賊活動)의 거점(據點)으로 하여 무주(茂州)·진안(鎭安)·장수·금산(錦山) 간을 왕래하면서 왜병(倭兵)과의 접전을 계속하고 있었다.[23] 이 지역은 유곡요해처(幽谷要害處)였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왜군(倭軍)의 소굴이 되어 있어 원활한 작전을 펴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곳이다. 더욱이 좌우양군의 병력 규모가 각각 천(千)을 넘어가면서 병량(兵糧) 해결의 난제(難題)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무렵 좌의병의 격문에 '이제 막 적을 치기 위해서 최경회군(崔慶會軍)과 더불어 협력하여 합동작전(合同作戰)을 대비하는 조치가 급한데 필요한 병량이 없으니…… 비록 잡다한 징발로 하여 민간(民間)에 많은 고통이 있음을 알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24]임을 강조하여 군량 지원을 호소한 것에서도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우의병 역시 군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전 지역에서의 공출(供出)을 강제(强制)함으로써 일부의 불만이 노출된 예도 없지 않았다.[25]

---

22) 全羅右義兵將崔慶會由潭陽淳昌 左義兵任啓英由求禮會南原 慶會以本府前僉使高得賚爲副將 南原士民募義者 幾至六七百 兩軍因到長水留屯(《난중잡록(亂中雜錄)》 壬辰下 8月 9日 條)

23) 《쇄미록(鎖尾錄)》 상(上), 임진(壬辰) 8月 23日-9月 21日 條 및 《난중잡록》 임진하(壬辰下 9月 22日 條 參照.

24) …方向賊所 與崔兵協力偕作 而調度方急 軍無見糧……今雖責出 非一途民間困竭 而一息尙存 不容少懈(《난중잡록》 임진하 8월의 記事)

이와 같은 실정에서 좌우 의병은 미비한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불리한 회전(會戰)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전법(戰法)이란, 대체로 주진(主陣)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되 훈련된 소수의 병력을 수시로 운용하여 주로 기습적인 유격전(遊擊戰)을 펴 전과(戰果)를 거두고 있었다.[26] 특히 무주 · 금산 일원(一圓)에서 수차에 걸쳐 전승(戰勝)을 올린 최경회군은 산곡간(山谷間)의 지형 지세를 작전에 활용, 매복을 통한 기습 공격에 의해 왜병을 참획(斬獲)한 예가 많았다. 그는 야간에 볏짚뭇을 병사로 위장하여 적의 시환(矢丸)을 무수히 허비(虛費)케 하는 의병술(擬兵術)을 구사하기도 하고, 지형에 따라 장사진(長蛇陣) · 어관진(魚貫陣) 등 능통한 진법(陣法)을 구사하기도 하여 왜군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27]

한편 이 지역은 영남우도(嶺南右道)로 통하는 요충 지대로서 영남 지방의 왜군이 개령(開寧) · 금산(金山) · 지례(知禮)로 통하거나 거창(居昌)을 통하여 침략(侵略) · 퇴둔(退遁)을 되풀이 한 곳이었다. 특히 8월에 있은 제2차 금산전(錦山戰) 이후, 적은 금산성으로부터 성주(星州) · 개령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무주 일원의 왜병 역시 같은 방향으로 퇴군(退軍)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치(梨峙) · 웅치전(熊峙戰)에서 입은 그들의 전력 손상(戰力損傷)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일대에서 집요하게 펼친 전라좌우의병의 강력한 의병전(義兵戰)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전국(戰局)의 추이(推移)에 따라 전라도의 적세(賊勢)는 그만큼 약화되고

---

25) 《쇄미록》 상, 임진 8월 초6일 조에 '右義兵將也. 不計殘縣支供之難能 而發怒滅帖 不食官供少不如意 屢加嚴杖 下吏閔苦 殆不堪支云云' 라 한 것이 그것이다.

26) 작전 지역(作戰地域)이 주로 험조(險沮)한 산간(山間)이었다는 점에서도 소규모전(小規模戰)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동성이 원활한 소수의 병력이 운용되었으니, '義兵副將高得賚 領兵四十餘 來駐于此' (《쇄미록》 상, 임진 9월 초3일 조)라 한 것이나 '義兵三十餘人 先爲追逐 移時接戰' (同上, 9월 초9일 조)이라 한 것들로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기습 혹은 매복전이 효과적이었으니, '各抄自募精銳百餘人 入送賊境 日日探候動止 或潛入夜驚 或設伏要害 五度交戰 雖未多斬 而中箭目斃者無數 一不見敗 賊亦畏怯' (同上, 9월 21일 조)이라 하여 대체로 승야기습(乘夜奇襲), 또는 매복전(埋伏戰)에 의해 전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왁인할 수 있다.

27) 《일휴당실기》 창의서록 참조.

상대적으로 영남 지방은 더욱 치성(熾盛)해지자, 영남의병장(嶺南義兵將) 김면(金沔)과 우도관찰사(右道觀察使) 김성일(金誠一)로부터 전라좌우의병장에게 경상도로 래원(來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우의병진(右義兵陣)의 일부에서는, '지금 적세(賊勢)가 사방에 뻗혀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있는 영남을 구원하겠는가?' 라고 하여 영남 부원(赴援)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경회는 그들의 의사(意思)를 일축하고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이다. 의병장이 되어 어찌 원근(遠近)을 헤아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라 하여 영남 출병(出兵)을 결의(決意)하였고,[28] 좌의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하여 전라우의병은 10월초 영우 지방(嶺右地方)에 진군하여 제1차 진주성전(晋州城戰)의 외원(外援)으로 참전하였으며, 좌의병의 경우 진주성전에는 참전하지 않았으나 우의병의 뒤를 이어 곧바로 영남 지방에 래원(來援)하였다. 우의병장 최경회는 당시 산음(山陰)에 머물고 있었던 우도관찰사(右道觀察使) 김성일과 의논한 끝에 우의병군(右義兵軍)을 진주 살천창(薩川倉)에 주둔시켰다.[29] 이들은 진주성전(晋州城戰)의 외원 임무(外援任務)를 띠고 단성(丹城)으로부터 살천(薩川)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함으로써 그 인근까지 적병이 래박(來迫)하였지만 그 지역은 범접(犯接)치 못하였다.[30] 물론 여기에서 직접적인 전과(戰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원(外援)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간접적인 전과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진주 수성군(守城軍)에게 지쳐 준 심리적 효과를 빼놓을 수도 없겠지만 주위 일원의 민심을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단성의 피난민들이 '전라도 대군이 본현(本縣)에 와 있고 또 합천(陜川)의 군사가 계속 이어 올 것이니 잠시

---

28) '遂爲赴援之計 諸將進曰 目今賊勢四衝 何必棄湖南 而遠救嶺右乎. 先生怒曰 君等是何言也. 湖南我國之地 嶺右我國之地也. 以義爲將 豈計遠近 而不救乎. 遂點閱部伍 (同上)

29) 湖南義兵將前府使崔慶會 率軍千餘 來會山陰 問於何舍兵 公曰 晋州薩川倉何如 崔應曰諾(《용사일기(龍蛇日記)》, p. 189., 부산대(釜山大) 한일문화연구소(韓日文化研究所) 간, 1960)

30) 適全羅兵 自丹城向薩川 賊到縣境望見之…是日焚蕩于薩川近處 湖南兵已 據不得犯.(《同上》 p.191)

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31]라고 하여 전라우의병(全羅右義兵)에게 의지해 그만큼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남 지방에 래원(來援)한 전라도 의병이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들이 펼친 주공 전선(主攻戰線)은 성주(星州)·개령(開寧) 지역의 수복전(收復戰)이었다. 영남의병장(嶺南義兵將) 김면(金沔)·정인홍군(鄭仁弘軍)과 합세하여 성주와 개령간을 오르내리며 계속 편친 공격 끝에, 계사년(癸巳年) 2월 마침내 그 지역을 수복하는 커다란 전공(戰功)을 세우게 된다.

성주·개령 일대는 계원강(桂元綱)과 모리휘원(毛利輝元) 휘하의 왜군 주력 부대가 일찍부터 웅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2차 금산성 전투 이후 양호(兩湖) 지방으로부터 이입(移入)한 군사까지 가세되어 더욱 강력한 군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전라좌우의병이 래원함으로써 영남 의병의 전의(戰意)를 북돋아 그들에게 회복의 의지를 갖게 해주었으니 영남의병장 정인홍이 영우(嶺右) 일원(一圓)에 돌린 아래와 같은 통문(通文)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 인홍(仁弘) 등은 어리석게도 격동된 바 충동만으로 스스로의 힘을 헤아리지 못한 채 창의 모병(倡義募兵)으로 회복을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킨지 반년에 겨우 한 구역만을 지켜 아직도 영남(嶺南)에 유둔(留屯)한 적을 능히 토멸(討滅)하지 못하였으니 그 비분전고(悲憤轉苦)함에 마음이 타드는 듯하다. 이제 임계영(任啓英)과 최경회(崔慶會) 양진(兩陣)이 적을 치는데는 처음부터 피차(彼此)가 따로 없다고 하여 정병(精兵) 수천을 인솔해와 영남에 주둔하여 인홍 등과 더불어 성주 개령의 적을 함께 공격하고자 하니 그 열렬

---

31) 丹城避亂 士女 登山看望曰 全羅大軍 留在本縣 又有陜川兵繼至庶幾須臾緩死云.(《난중잡록》 壬辰下, 10월.

32) 仁弘等愚衷所激 不自揆度 倡義聚兵 以圖恢復 提軍半歲 僅守一區 尙未能討殘留屯之賊 悲憤轉苦如焚灼 今者任崔二軍 以討賊初無彼此 率精兵數千 來駐近地 欲與仁弘等共擊星開之賊 烈烈義氣 聳動瞻聆 實天贊國家恢復疆宇之兆也.(《난중잡록》 壬辰下 10월)

> 한 의기(義氣)는 보고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실로 이 나라를 도와 강토가 회복되려는 징조이다.[32]

통문의 내용과 같이 전라좌우의병은 영남 의병과 연합 전선(聯合戰線)을 구축하여 개령과 성주성(星州城) 수복전(收復戰)에 임하였다. 임진년 10월 하순(下旬)부터 11월 중순(中旬)까지는 주로 좌우의병과 김면군(金沔軍)이 연합하여 개령 공격전을 전개하였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좌우의병이 분리되면서 우의병은 김면군과 함께 개령에서, 좌의병은 정인홍군과 더불어 성주에서 수복전을 펴기 시작하였다.

11월 중순부터 쉼없이 계속된 성주성 전투에서는 왜장 촌상경친(村上景親)이 중상9重傷)을 당하면서부터 적세(賊勢)가 크게 꺾이고 말았다. 이 때 전라좌의병은 정인홍군 및 그 밖의 군과 함께 날짜를 기약하여 총공세를 펴기로 약속하였으나 정인홍군 등 모두가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도 의병 독전(獨戰)으로 공격을 감행한 결과 적을 대파하는 전과를 올렸다.[33] 이 전투 이후 적장 계원강(桂元綱)은 잔여병을 이끌고 성주성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령 공격전에서도 전라도 의병이 모리휘원군(毛利輝元軍) 2백여명을 살약(殺掠)하고 피로인(被虜人) 4백여명을 구해냄으로써 막대한 타격을 입은 모리휘원군도 결국 그 곳에서 철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34] 따라서 오랜동안 왜군의 거점(據點)이 되어 있었던 성주·개령 일대가 전라도 의병의 용전(勇戰)으로 하여 수복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라좌우의병에 대하여 영남이 의지하는 바가 매우 컸으니 당시 영남 지방의 선비들은 좌우의병장의 전공(戰功)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33) 任啓英大破倭人於星州 初任啓英崔慶會與星州開寧賊 累戰不克…啓英進至星州城下挑戰 賊出精騎邀擊 義兵射倒先導數騎 餘兵驚走入城 倭將墮壕重傷 賊衆恐動 義兵聞之氣倍 啓英遂與鄭仁弘 及官軍諸將 刻期約戰十四庚午 啓英如期出兵 而仁弘等皆負約不至 賊背城出陣 啓英獨以其兵戰 副將張潤先登突馳 戰久馬疲 遂捨馬步鬪 勇氣愈日暮賊兵大敗 積尸如丘 流血遍野.(《선묘중흥지(宣廟中興誌)》 권3, 23면,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 1513-3)

34) 《同上》, 40면 참조.

> 의병장 정인홍과 김면의 군사가 감히 홀로 당하지 못하여 전라좌우의병에게 구원을 청함에 두 의병장이 군사를 이끌고 거창(居昌) · 합천(陜川) 등지에 달려와서 거년(去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 개월 동안 혹은 산성에 둔을 쳐서 진주의 적을 쯔는데 협력하였고, 혹은 요로(要路)를 지키면서 성주 · 개령을 나누어 공격하며 날마다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달마다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적이 움직이지 못하여 영남의 6 · 7개읍이 온전히 살게 되었으니 두 장수의 공이 이것으로 보아도 큰 것을 알 수 있다.[35]

따라서 한 때 정부의 명에 따라 전라좌우의병이 영남 지방에서 철병(撤兵)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반대하는 선비들의 상소(上疏)는 매우 완강하였다. 경상우도 관찰사(慶尙右道觀察使) 김성일(金誠一) 역시 전라도 의병이 철수하게 되면 결국 영남 지방이 적에게 먹히고 말 것임을 지적하여 그대로 현지에 머물게 해줄 것을 간청함으로써 철병을 중지시켰던 것이다.[36]

당초에 조정으로부터 그같은 철병령(撤兵令)이 있었던 것도 실은 곽재우(郭再祐) · 최경회 · 임계영군이 가장 뛰어난 의병이라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급히 근왕(勤王)케 하자는 비변사(備邊司)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37] 특히 최경회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호남 일도(湖南一道)와 영우 지방(嶺右地方)이 보존된 것은 다 그의 힘이라고 격찬할 정도였다.[38] 그리하여 그에게는 김면의 뒤를 잇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직이 제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朝廷大臣)들 간에서 그를 경상감

---

35) 義將鄭仁弘金沔之兵 不敢獨當 竭誠哀號 救援於兩義兵 兩將提兵 馳入居昌陜川等邑 自上年至於今 數月之間 或屯山城 助逐晋州之賊 或守要路 分攻星州開寧 無日不戰 無月不捷 故賊不敢動 嶺南六七邑 賴以安堵 兩將之功 於是爲大(《난중잡록》 계사(癸巳) 정월)

36) 慶尙右巡察使啓曰…朝議欲招兩義兵勤王云云 兩將聞奇 不遑啓處 卽欲上去矣 本道陷沒之餘 僅存者五六殘邑 凶賊四面充斥 必欲呑滅乃已…朝廷十分參許留兩將于本道 以固保障 詮次喜啓云云 體察使亦枚擧馳啓 朝廷停招兩義將(《同上》)

37) 備邊司啓曰 各道義兵之中 郭再祐崔慶會任啓英所率之軍 以有可觀 此三人 方在慶尙道 令急急整率勤王(《선조실록》 권36, 26년 계사(癸巳) 3월 갑술(甲戌)조)

사(慶尙監司)로 추천할만큼[39] 신임(新任)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전라도 의병이 영남 지방에서 물러가리라는 소문이 있었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여기 저기 숨는 자들이 잇달았으며 노유(老幼)할 것 없이 벌써부터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40] 전라도 의병이 영남 지방의 방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하였음을 잘 설명해 준다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영남 지방에 출병(出兵)한 후 성주 · 개령 수복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도 간과(看過)할 수 없다. 작전 기간이 동한9冬寒)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빙우중(氷雨中)에 매복하고 상설간(霜雪間)에 전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만연하여 희생자가 속출하였으며, 전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군사들 가운데 도망자가 늘어가는 등 악전고투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41]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군사를 되돌림이 없이 4개월간에 걸친 불퇴(不退)의 공격으로 끝내 성주 · 개령 지역을 회복(恢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상도에 주둔한 왜군의 주력을 격퇴함으로써 오랜동안 그들의 근거지가 되어 온 이 지역을 수복하였으니 이후 영남 지방에서의 전세(戰勢)를 바꿔놓을 만큼 중용한 전공(戰功)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8) 《선조실록》 권36, 26년 계사 3월 갑술조의 사헌부(司憲府) 계언(啓言)에 '崔慶會以義兵將領率精兵 把截知禮居昌兩間要衝 湖南一道 嶺南右界 尙今保存 皆其力也.' 라고 하였으며, 《동상서》 권37, 4월 을사(乙巳)조의 비변사 계언에서도 '義兵將崔慶會 雖非武臣屢立戰功 聲名極盛' 이라 하였다.

39) 《선조실록》 권38, 26년 계사 5월 기사(己巳)조의 대신(大臣) 계언에서 '慶尙監司金人物溫雅 在平時方面則司也. 今則軍務措處 十倍平時 苟非才望特異 謀慮出衆者 恐不堪 此重奇 崔慶會新膺兵使之命 此人凝重有智略 可合監司 其代李時言郭再祐 可以爲之' 라고 하여 감사직에 합당한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40) '嶺南數邑之民 聞兩將之去 撤家藏入巖穴者相繼 携老幼四方者相望 潰散之勢已成' (《난중잡록》 계사(癸巳) 정월)

41) '自去年秋冬之間 兩軍深入嶺南賊藪 埋伏於凍雨之中 曝露於霜雪之地 躬冒矢石 幾死復生者數矣. 自此之後 疫癘蔓 死亡連仍 諸軍不堪防戍之苦 逃亡者過半 留陣者疲困' (《同上》)

2. 제2차 진주성 전투와 전라도 의병

진주성(晋州城)은 임진년(壬辰年) 10월에 왜장 장곡천수일(長谷川秀一)을 중심으로 한 약 3만의 왜군이 총공세를 폈으나 목사(牧使) 김시민(金時敏) 이하 조선군의 용전분투(勇戰奮鬪)로 하여 크게 퇴패한 일이 있었던 곳이다. 풍신수길은 이를 항상 불만으로 여겨 기회만 있으면 대병(大兵)을 투입하여 진주성을 공략(攻掠)함으로써 실추(失墜)된 그들의 위신을 되찾고 패사(敗死)한 고혼(孤魂)의 원한을 풀겠다고 벼르고 있었다.[42] 진주성 공략의 목적은 물론 전년(前年)의 패전을 설욕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진주가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要衝地)란 점에서 그 곳을 장악하게 되면 전라도의 곡창(穀倉)을 차지할 수 있다는데에 그 저의(底意)가 있었던 것이다.[43] 그렇게 함으로써 확고한 남방 보급 기지(南方補給基地)를 확보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도 일대의 왜군은 전열(戰列)을 정비한 다음 대군(大軍)을 발하여 함안(咸安)에 집결 여기에서 의령(宜寧)과 반성(班城)의 양로(兩路)를 따라 계사년(癸巳年) 6월 19일 진주성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영남 지방에는 관군(官軍) · 명군(明軍) · 의병(義兵) 등 조선측의 주력 부대(主力部隊)가 일대에 포진(布陣)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수성 태세(守城態勢)를 갖추기는 커녕 오히려 대부분이 방관(傍觀) · 퇴군(退軍)의 행동을 보인 가운데 영남 의병마저 승산이 없는 회전(會戰)임을 내세워 수성전(守城戰)을 거부하고 물러갔다.[44] 유독(唯獨) 전라도 의병만이 진주성 방위의 당위성(當爲性)을 강조

---

42) 이경석(李炯錫),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 중권(中卷), pp.723-724. 참조

43) '海平府院君尹根壽馳啓曰…大概彼賊掠晋州一則關白之令 本如是云 一則粮倉 要槍全羅道之粮 路經晋州 故攻之云.' (《선조실록》 권 40, 26년 계사 7월 갑자 조)

44) 곽재우(郭再祐)는 수성전(守城戰)을 반대하여 '權者能用兵 智者善料賊 苟能用兵 可以制勝 不善料賊 終必 事 今賊兵盛勢 有天下莫能當之勢 三里孤城 可以能守' (《난중잡록》 임진상(壬辰上) 6월 15일 조)

하며[45] 이 전투에 임할 준비에 나섰으니 이 때 입성(入城)한 전라도 의병의 면모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군(金千鎰軍) 3백을 위시하여 전라우의병장(全羅右義兵將) 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직에 있던 최경회군(崔慶會軍) 5백, 복수의병장(復讐義兵將) 고종후군(高從厚軍) 4백, 좌의병부장(左義兵副將) 장윤군(張潤軍) 3백, 적개의병부장(敵愾義兵副將) 이잠군(李潛軍) 3백, 태인의병장(泰仁義兵將) 민여운군(閔汝雲軍) 2백, 그밖에 이계연(李繼璉)·강희열(姜希悅)·고득뢰(高得賚)·강희보(姜希輔)·오유(吳宥) 등이 모두 각기(各己)의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였다.[46] 김천일·최경회 등은 먼저 성중의 창곡(倉穀)을 해아려 본 후 넉넉한 병량(兵糧)임을 확인한 다음 즉시 부군(分軍)하여 각 부서(部署)를 편성하였다. 김천일과 최경회를 도절제(都節制)로 하되 김천일은 의병을, 최경회는 관병(官兵)을 통솔케 하였으며, 황진(黃進)을 순성장(巡城將)으로 삼고 각군의 방수 구역(防守區域)을 획정(劃定)한 뒤 계엄하(戒嚴下)에 대변(大變)을 기다리고 있었다.[47]

이렇게 하여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주야간(九晝夜間)에 걸친 진주성 혈전(血戰)이 이루어진 것이다. 10만의 대병(大兵)으로 밀어 닥친 왜군에 대항하여 이에 맞선 수성 병력(守城兵力)은 1만5천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48] 따라서 우세한 화력(火力)과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집요한 공격을 계속하였던 적의 공격 양상(攻擊樣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철저하였다.[49]

---

45)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賊謀難測 兵攻晋州之說 其可信乎 國家以湖南根本 而晋邇湖南 實爲脣齒 晋則無無湖南 或欲空城避賊 以決其心者非許也.'라 한 것이 그것이다.

46)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7, 26년 계사 6월 조 참조.

47) '金千鎰等料檢城中 倉穀甚富 謂諸將曰 此足以共守矣. 卽日分軍 金千鎰崔慶會爲都節制 千鎰統義兵 慶會統官兵 黃進爲巡城將 諸道官義兵地分守 戒嚴待變' (《同上》)

48) 조원래(趙湲來), 《임진의병장(壬辰義兵將) 김천일(金千鎰) 연구(硏究)》(학문사, 1982), pp.76-77. 참조.

49) 《同上》, pp.79-80. 참조.

① 성서북(城西北)의 전면(前面)에 있었던 참호(塹壕)를 끊고 그 것을 육지(陸地)로 만들어 그들의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② 굴진 작업(掘進作業)을 하여 성벽의 초석(礎石)을 파냄으로써 성책(城柵)을 무너뜨리는 공격 전법(攻擊戰法)을 구사하였다.

③ 구갑차(龜甲車)란 특수 장비까지 동원하였으니 이것은 튼튼한 나무 궤를 사륜차(四輪車) 위에 올려놓고 수명의 병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전진후퇴(前進後退)를 임의로 할 수 잇는 것으로서 그정상부(頂上部)가 구갑(龜甲)처럼 생긴 것이었다. 혹은 대목궤(大木机)를 만들어 수혁(獸革)이나 생우피(生牛皮)로 뒤를 덮고 이것을 병사들이 머리에 이고 지고 하여 성벽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철환(鐵丸)과 궁시(弓矢)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하는 동시에 내화성(耐火性)을 이용하여 성벽에 접근, 철정(鐵挺)을 사용하여 성벽의 돌을 뽑아 결국은 성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였다.

④ 성동문(城東門)밖에 토산(土山)을 쌓고 망루(望樓)를 가설(架設)하여 성중(城中)을 굽어보며 조총(鳥銃)과 대화포(大火砲)를 마음대로 쏘아댔다.

⑤ 병력이 월등한 점을 이용하여 2차, 3차 신예 부대(新銳部隊)를 계속 투입, 교대로 공격해 왔다.

이와 같이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적의 공격 전술 이 외에도 그들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데에는 장마비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 게속 쏟아지는 비는 축성(築城)이 오래된 고성(古城)의 여기 저기를 도궤(倒潰)시키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적의 공세에 대처하여 다만 죽음으로써 성을 지키려 하였던 것이 곧 수성군(守城軍)의 최후 결의였다. 대목(大木)과 거석(巨石)을 투하(投下)하고 섶에 불을 붙여 내려던지므로써 접근해 오는 적병을 저지하였으며, 적이 토산(土山)을 쌓으면 성내(城內)에서도 토산을 쌓았다. 이 때에 성중의 사민(士民)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합력하여 부상자를 간호하고 밥을 지어 군사들을 먹이면서 화살을 날라

싸움을 돕기도 하였다. 장마비 때문에 성이 무너지면서 이를 다시 쌓았으나 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궁시(弓矢)의 활력(活力)까지 감퇴되면서 끝내 성이 함락된 날은 화살도 다하고 창검(槍劍)도 그 날(刃)이 다해버린 뒤였다.[50]

이처럼 처절을 극한 진주성 혈전의 주역이 전라도 의병이었고, 이들의 지도자가 김천일과 최경회였으니, 성함 직전(城陷直前)까지도 이들이 열망(熱望)했던 최대의 소원은 원군(援軍)을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입성 이후 관군 · 명군(明軍) 측에 거듭 래원(來援)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아무도 이에 응해주는 자가 없었다. 하루는 양인(兩人)이 성루(城樓)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많은 원군(援軍)이 온다.' 하고 외쳤는데 성중의 장졸(將卒)이 크게 기뻐하면서 바라보니 백리 시야(百里視野)에 가득한 것이 모두 적병들이었다 한다.[51] 고대(苦待)하던 원군의 꿈도 사라진 최후의 날, 동문쪽의 성벽과 치첩(雉堞)이 무너지면서 왜병들이 개미떼처럼 성벽을 넘어왔다. 이어서 서북문까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수성군은 흩어져 일면(一面) 싸우면서 일면 후퇴하여 모두 촉석루(矗石樓) 쪽에 모여들었다.

이 때 삼장사(三壯士)로 알려진 최경회 · 김천일 · 고종후 등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서사시(誓死詩) 일구(一句)를 남겼으니, 이것은 바로 최경회의 소작(所作)으로서 '촉석루에 삼장사 한 잔 술 들어 긴 강물 가리키며 웃음짓네. 남강물 도도히 흐르는데 저 물결 마르지 않으면 우리 혼도 죽지 안으리.' 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52] 마지막 시(詩)를 남긴 뒤 의병 제장(義兵諸將)은 북향재배(北向再拜)하고 병기(兵器)를 먼저 강물에 던진 다음, 그들 자신도 모두 강물에 몸을 날려 장렬한 순국(殉國)의 길을 택하였다. 성함 직전(城陷直前) 수성전(守城戰)이 실패로 끝난 것을 알게 된 최경회의 경우에는 조카 홍우(弘宇)에게 그의 유품(遺品)을 전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집안에서 다시 거병(擧兵)할 것을 당부하였으니 죽음을 앞에 둔 상황

---

50) 《동상》, p.80. 참조.

51) '一日慶會千鎰 登樓望曰 援兵大至 衆皆大喜 鳴鼓爭望 則遠近百里皆賊兵矣.(《연려실기술》 권16, 〈진주성함명병철환(晋州城陷明兵撤還)〉)

52) 《일휴당실기》 〈창의서록(倡義敍錄)〉

에서도 의병장의 구국혼(救國魂)은 사라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더할 수 없이 희생을 치루었으나 진주성은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반면에 왜군은 일단 진주성을 공함(攻陷)하여 그들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다음, 7월에는 전라도 고부 경내(古阜境內)에까지 깊숙히 침략해 들어갔다. 그러나 진주성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그로 인한 전력상의 차질로 인하여 사실상 호남 공략(湖南攻略)의 2차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결국 실패로 끝난 셈이었다.[53]

전라도 의병이 주축을 이루어 수성전을 편 제2차 진주성 전투의 패인(敗因)에 대하여는 전후(戰後)에 많은 시비 논란(是非論難)이 있었다. 유성룡(柳成龍) 같은 경우에는 수성군에게 책임을 돌린 가운데 특히 창의사 김천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 천일(千鎰)이 거느린 군사들은 다 서울의 시정(市井)에서 모집한 무리들이며, 천일 또한 병법(兵法)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고집이 너무 지나쳤다. 게다가 평소에 서예원(徐禮元, 당시 晋州牧使)을 미워하여 주(主)와 객(客)이 서로 시기했으므로 호령이 어긋나고 틀려서 이 때문에 크게 패하게 된 것이다.[54]

위와 같은 유성룡의 소언(所言)을 따른다면 의병장 김천일은 공은 커녕 오히려 화(禍)를 불러들여 패전을 자초(自招)한 인물로 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항복(李恒福) 같은 이는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 남이 이를 수 없는 '삼난(三難)'을 이룬 인물이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 삼난이란 첫째 진주성이 위급에 처하였을

---

53) 조원래, 《전게서》 p.83.

54) '千鎰所率皆京城市井召募之徒 千鎰又不知兵事 而自用太甚 且素惡徐禮元 主客相猜號令乖違 是以甚敗' (《징비록(懲毖錄)》 권2, 계사 6월 기사(記事))

때 홀로 인병(引兵)하여 가장 먼저 입성한 것, 둘째 관군 제장(官軍諸將)이 성을 버리고 떠나면서 위험을 피하라 하였을 때 그들을 꾸짖고 사수(死守)를 결심한 것, 셋째 성함(城陷)의 날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피할 것을 권하였으나 견좌불기(堅坐不起)한 채 부자(父子)가 함께 조용히 순의(殉義)의 길을 택한 것이라 하였다.[55]

유성룡의 평이 지나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것은 동서 당색(東西黨色)의 차이에 기인(起因)한 것으로 생각되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 하겠다. 관군이 버리고 간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성을 원지(遠地)에서 온 의병이 스스로 입성하여 혈전 끝에 사절(死節)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유성룡의 소언(所言)이 부당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함(城陷)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방간(攻防間)의 병력차(兵力差)가 현격하였다는 사실에서 진주성전을 기피해 달아난 제군(諸軍)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에 관련하여 의병장 변사정(邊士貞)의 증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선조(宣祖)에게 올린 상소(上疏)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다.

> 이 때 만일 한 주장(主將)이 감독 명령하여 합병 전진(合兵前進)함으로써 혹은 근교(近郊)에서 지원하고, 혹은 산상(山上)에서 횃불을 밝히고, 혹은 요해지(要害地)에 매복하여 구원의 형세를 보였다면 반드시 성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장(諸將)이 모두 많은 군사를 거느려 가까이 주둔해 있으면서도 관망(觀望)하고 두려워 하여 피함으로써 부원(赴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주성이 위협을 당한지 7·8일이 지나서도 군사를 보내어 도우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56]

---

55) 조원래, 《전게서》, p.91. 참조.

56) '當此時若一主將 督令合兵前進 或觀兵近郊 或耀火山上 或設伏要害 以示救援之形 則必不至易毁城 而諸將等 皆重兵駐近地 觀望畏避 不卽赴援 晋城困急已 至七八日 無一人送寸兵以援' (《난중잡록》 계사년 9월 기사)

이렇게 보면 일부의 뜻잇는 군사만으로 진주성을 지키리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관군은 영남 의병인 곽재우군에게 진주를 지원하라 하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 또 곽재우는 자결(自決)할지언정 진주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였으니[57] 일정(一定)한 질서도 군율(軍律)도 없는 상태 그것이었다. 특히 곽재우는 진주 수성전에 대하여는 황진(黃進)이 진주성에 들어가려 할 때 '진주는 고성(孤城)이라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또 공은 충청절도사(忠淸節度使)인데 진주를 지키다가 죽는 일은 그 직임(職任)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58] 즉 그는 황진의 진주 입성까지 만류하엿던 것이다.

따라서 영남 의병과 전라도 의병간에 성격차(性格差)가 있었음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물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만의 예가 되는 것이지만 향사(鄕士)라는 책임 구역의 문제로 보면 진주성 방위는 우선 영남 의병의 소관(所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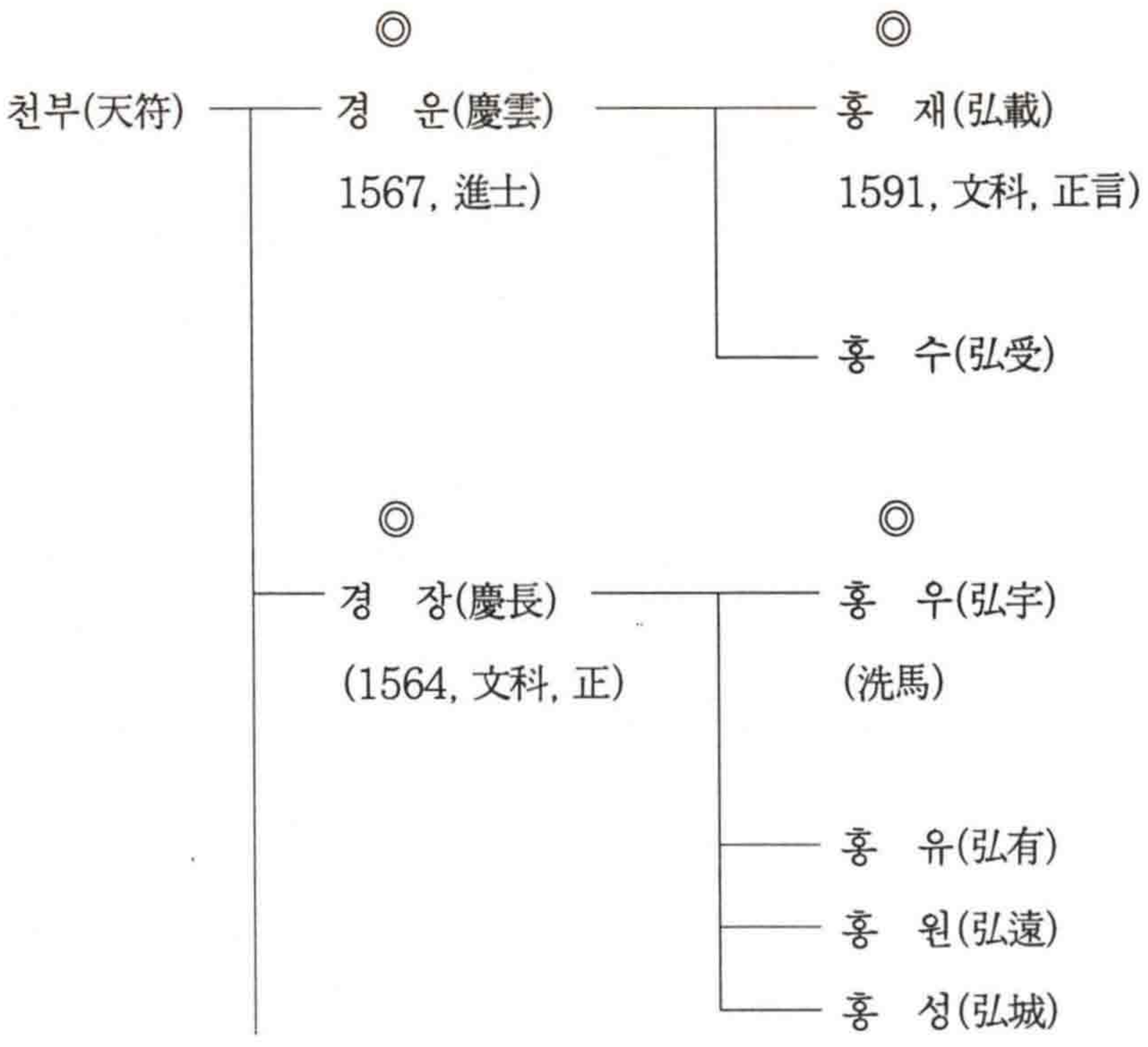
57) 순변사(巡邊使) 이분(李汾)이 곽재우 의병으로 하여금 진주성을 지원하도록 권유하였을 때 그는 '一身死生 固不足惜 百戰軍卒 何忍棄之 吾寧自決 不入城也.' (《난중잡록》 계사년 6월 15일 조)라 하여 어던 경우에도 입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58) '將赴晋州 郭再祐止進曰 晋州孤城不可守 且公建忠淸節 守晋而死非職也.' (《연여실기술》 권17, 〈임진제장(壬辰諸將)〉 황진(黃進) 조)

Ⅳ. 최씨 일가(崔氏一家)의 의병 운동(義兵運動)과 주논개(朱論介)

진주성에서 최경회의 유명(遺命)을 받고 화순(和順)에 돌아온 최홍우(崔弘宇)는 백부(伯父) 경운(慶雲)과 부친 경장(慶長)을 위시한 일가(一家)의 형제들에게 계부(季父)의 유지(遺志)와 함께 그의 최후를 전하였다. 비보(悲報)에 접한 그들은 형제자질(兄弟子姪)이 모두 국치(國恥)와 가수(家讐)에 대한 복수(復讐)를 결의한 뒤 그 해 8월 전라우의병의 뒤를 이어 계기의병(繼起義兵)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일가가 펼친 의병 활동에 대하여 살펴 볼 차례이지만 그에 앞서 드들의 가계(家系)를 통한 기본 사항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표(表)〉 최경회(崔慶會) 일가(一家)의 가계(家系)



◎
경 회(慶會)
(1567, 文科, 兵使)

◎
홍 기(弘器)
(1589, 進士, 直長)
홍 식(弘式)
(天)
홍 적(弘積)
(1591, 武科, 奉事)

위의 〈표〉에서 ◎표로 지시된 이들이 바로 화순(和順)의 최씨 문중(崔氏門中)에서 칭하는 '6의(六義)', 즉 의병 활동에 참여한 6인의 인사들이며 최경회 3형제와 그들의 장자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눈에 띄는 것은 일가에서 대(大)·소(小)·무과(武科)의 급제자가 6명씩이나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6의' 가운데 그같은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경회 3형제가 모두 등과(登科)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임란중(壬亂中) 현재의 화순군 행정관 내에서 창의(倡義)한 인사 26명 중 3명의 문과 급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최씨 일가의 사람들이었다.[59] 단 한 명의 문과 급제자 내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실정으로 보면 벽향(僻鄕)의 일가(一家)에서 3명씩이나 대과(大科)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향중(鄕中)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가 어더하였을까에 대하여 짐작이 가는 것이다.

진사(進士) 최경운(崔慶雲)의 행적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논급(論及)하겠지만 그는 3형제 문중의 가장(家長)으로서 임진란(壬辰亂)이 일어나자 고경명(高敬命)·박광옥(朴光玉) 등에게 치서(馳書)하고 의병청(義兵廳)을 향리(鄕里)에 설치, 병마

59) 1789년간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란중 화순(和順, 6명)·능주(綾州, 17명)·동복(同福, 3명)에서 창의(倡義)한 인사는 모두 2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 문과 급제자(文科及第者)는 3명으로 최경회·최경장·최홍재가 바로 그들이다.

(兵馬)를 모았으며 가재(家財)를 털어 군량(軍糧)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長子) 홍재를 고경명 의진(義陣)에 파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제(季弟) 최경회를 기복의병장(起復義兵將)으로, 그리고 중제(仲弟) 최경장으로 하여금 계기의병(繼起義兵)을 일으키게 한 것 등이다. 그의 근도(勤導)에 의한 것이었다.[60] 즉 그는 곧 최씨 일가의 의병 운동 지도자(義兵運動指導者)였던 셈이다.

최경장이 아우의 뒤를 이어 다시 의기(義旗)를 세웠을 때는 65세의 만년(晩年)에 이르렀고, 그는 또 평소 허약한 몸의 소유자로서 전형적인 문관형(文官型)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61] 그러나 그는 아들 홍우(弘宇)로부터 아우의 유품(遺品)인 언월도(偃月刀)를 전해 받았을 때, '내 아우의 정충(精忠)과 장렬(壯烈)한 의기(義氣)가 정녕 이 칼에 서린 듯하다.'[62]라고 호곡(號哭)하면서 죽기를 맹서(盟誓)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9일 그는 전라우의병의 잔병(殘兵)과 함께 군사 수백을 수합(收合)하여 '계의(繼義)'를 장표(章標)로 삼아 거병(擧兵)하였으니 최경회의 뒤를 이은 기병(起兵)이었다. 이 때 조정(朝廷)에서는 그의 충의(忠義)를 가상(嘉尙)하여 '계의장(繼義將)'의 호와 그 인신(印信)까지 사(賜)하는 조치를 내렸다.[63] 그는 조정으로부터의 사호(賜號)가 있기 전에 올린 상소에서 그가 거의(擧義)하게 된 충정(衷情)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

60) '遂抵書於高霽峰敬命朴懷齋光玉 設義兵廳於三川 傳檄道內 曉諭鄕邑 數月間募衆數千人戰馬三百匹 傾家資備軍糧 使子弘載領付於高霽峰幕 高公已死 其幕下文弘獻等收餘卒 來請公季弟慶會起復登壇 公勸起赴義 及晋州之陷 公又勸諭中弟慶長繼起義兵'(《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권2하, 〈일도순절제공사실(一道殉節諸公事實)〉)

61) 최경장 스스로가 올린 소장(疏章)에서, '嗚呼臣之壯也. 猶不如人犬馬之年過六十霜露 所侵筋力已竭 將何以任 士友之責 雪公私之痛乎.'(《최씨육의록(崔氏六義錄)》 하, 죽계공유고(竹溪公遺稿), 〈거의시소(擧義時疏)〉)라고 한 것에서 그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62) '公拊劒大哭曰 吾弟精忠壯烈若留帶 面'(《同上》 중, 죽계공사실(竹溪公事實), 원록(原錄)

63) 《선조실록》에서는 '備邊司啓曰 義兵將崔慶長收合亡弟(慶會死於晋州之戰)之卒 誓死討賊 忠義嘉尙 朝廷旣賜繼義將之號 須有印信 可以統率其下'(《同書》 권43, 26년 계사 10월 병술 조)라고 하였고, 《난중잡록》에서는 '全羅右義兵及復讐兵士子等 收合殘兵數百 共推前提督 和順崔慶長爲將 慶長慶會之兄也. 以繼義爲章標'(《同書》 계사하, 8월 22일 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 볼잘 것 없는 여생(餘生)이니 한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며, 일가(一家)의 형제가 국은(國恩)을 입은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욕을 당하면 마땅히 신하가 죽는 것이 그 직분9職分)일진대 어찌 거사(擧事)함에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을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신하된 자로서 취할 구국(救國)의 도리란 한 식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조금도 머뭇거려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불초 용렬함도 생각하지 않고 외람되이 의병장(義兵將)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64]

최경장의 이와 같은 위국충정(爲國衷情)에 대하여는 당시 조정에서도 크게 칭탄(稱嘆)해 마지 않았다.[65] 그러나 그의 충분(忠奮)에도 불구하고 진주성 패함(敗陷) 직후의 전국(戰局)은 의병 활동이 매우 어렵게 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졸들의 전의(戰意)가 약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관에서도 백방으로 의병 활동 자체를 저해(沮害)하고 있었으니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최경장의 소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66] 그러나 부장(副將) 선의문(宣義問)과 종사관(從事官) 김윤명(金允明) 그밖에 백이신(白而臣) · 변공의(卞公毅) · 고언장(高彦章)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옥과(玉果)에 설진(設陣)한 뒤, 지난 날 전라우의병이 진군(進軍)했던 진로(進路)를 따라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부족한 군량을 충당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쏟은 사림(士林)의 활약도 없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광(靈光)의 진사(進士) 이굉중(李宏中)과 강항(姜沆) 등의 노력이었으니 그들은 사재(私財)로 출자(出資)하여

---

64) '第蒲柳餘生所欠一死 一家兄弟食祿衣衣已三十年矣. 主辱臣死乃其職分 而成敗利鈍又何足較況臣子委質循國之義 一息尙存不容少懈 以玆之故不揆淺劣謬膺將領'(《최씨육의》 하, 죽게공유고, 〈거의시소〉

65) '繼義將前正崔慶長 從事官儒學洪涵等上疏入啓傳曰 省爾等之疏 討賊之誠至矣. 予嘉焉. 爾等益勵此志 以立殊勳 國家報功之典 必不後矣. 爾等知悉.'(《선조실록》, 권43, 26년 계사 10월 정유 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선조(宣祖)도 그를 크게 가상(嘉賞)하고 격려하였던 것이다.

66) 최경장이 〈거의시소(擧義時疏)〉에서 '所可慮者 喪亂之餘 衆心離散 州縣之官 又多牽制 軍情沮撓 整頓末由'(註 6과 同)라고 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어염(魚鹽)을 팔아 병량 조달(兵糧調達)의 방안을 강구하엿던 것이다.[67]

옥과(玉果)에서 출진(出陣)한 게기의병군(繼起義兵軍)은 남원(南原)으로 향하면서 왜군을 추격, 이후 함양(咸陽)을 거쳐 곤양(昆陽) · 사천(泗川) 등지에서 유격전(遊擊戰)을 펴 왜병을 격퇴한 뒤 고성(固城) 견내량(見乃梁)을 지키고 있었다. 그 후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지시에 따라 구례(求禮)의 석주관(石柱關)으로 이진(移陣)하여 방어전에 임하던 중, 전국의 의병을 김덕령군(金德齡軍)에게 통합시킨다는 조령(朝令)이 내려짐으로써 그 해 12월 최경장의 의병도 거기에 귀속되고 말았다.[68] 그러나 거병 이후 파병(罷兵)하기까지 서사 토적(誓死討賊)의 일념(一念)으로 일관한 최경장과 그 자질(子姪)들의 충의만은 결코 낮게 평가될 일이 아니었다.

한편 최씨 3형제 일가에서 각기 장자의 위치에 있었던 홍재 · 홍우 · 홍기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단편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활동상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최경장의 장자 홍재는 화순의 최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의병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담양회맹(潭陽會盟)에서부터 종군(從軍)하지는 않았으나 집안에서 모집한 의병을 인솔하고 금산성(錦山城)까지 진군한 전력(戰歷)을 갖고 있었다. 이어 전라우의병이 일어나자 계부(季父) 최경회 막하의 군관(軍官)으로 참전하여 금산(錦山) · 무주(茂州) 등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다음 2차 진주성 전투시에는 호서 지방(湖西地方)에 파견, 모병(募兵) · 모량(募糧) 활동에 종사했던 관계로 성함(城陷) 당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진주성의 원한을 잊을 수 없었던 그는 전란이 종식9終熄)될 때까지 의병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중부(仲父)가 계기의병(繼起義兵)을 일으켰을 때는 운량 책임(運糧責任)을 맡아 온갖 어려움을 다 하였고,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에는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서 초유사(招諭使)의 명을 받아 멀리서 의병 소모(召募)에 진력하였다.

---

67) 《최씨육의록》 상, 죽계공사실, 〈상계의장서(上繼義將書)〉 참조.
68) 김정상(金正祥), 《호남절의사(湖南節義史)》(壬辰六周甲紀念出版會, 1953), p.147.

그러나 정유년(丁酉年) 10월, 부친과 아우 홍수(弘受)가 오성산 전투(烏城山戰鬪)에서 전사(戰死)하는, 또 한번의 비극을 당하였을 때 그는 즉시 향리에 돌아왔지만 이미 왜병이 물러간 뒤였다. 그는 최씨 일가의 종자(宗子)로서 집안의 자질중(子姪中) 유일한 문과 출신(文科出身)이었을 뿐 아니라 가문의 유풍(儒風)과 절의(節義)를 난후(亂後)에도 변함없이 실천한 인물이었다. 일예(一例)로서 광해군(光海君)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당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있었던 그는 항소(抗疏)를 통하여 정론(正論)을 굽히지 않고 간흉(奸凶)의 패륜(悖倫)을 극론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권간(權奸)의 미움을 사 멀리 울산(蔚山)에 축출당함으로써 그 곳에서 득병(得病) · 절사(節死)하였다.[69] 이러한 행의(行誼)는 바로 그의 평소 기절(氣節)의 일면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최경장의 장자 홍우는 전라우의병진에 참진(參陣)한 이후 항상 계부(季父) 최경회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보좌하여 금산 · 무주 · 개령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계부의 뒤를 이어 다시 부친이 의병을 일으키자 스스로 군관의 임무를 맡아 군기(軍器)를 수합(收合)하는 등 시종 부친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후에 계의병군(繼義兵軍)이 김덕령 부대(金德齡部隊)에 합군(合軍)하게 되자 향리에 돌아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학문에만 전력하여 '고사(高士)'란 칭송을 들었다. 당시 조정으로부터 그에게 세마(洗馬) · 별제(別提) 등의 관직이 거듭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여 나아가지 않았으니, 그것은 국치(國恥)와 집안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뒷날 이괄(李适)의 난(亂) 때에 고순후(高循厚)와 함께 군사와 군량을 모아 태인(泰仁)까지 진군하였다가 평란(平亂)의 소식을 듣고 되돌아온 예도 있었다.[70]

최경회의 장자 홍기 역시 종형(從兄) 홍재 · 홍우와 더불어 부친을 따라 우의병진에 종군하여 금산 · 무주 · 개령 등 호령간(湖嶺間)을 전전(轉戰)하며 많은 전공을

---

69) 이상 최홍재에 관한 내용은 《최씨육의록》 중 〈죽은공사실〉 참조
70) 이상 최홍우에 관한 내용은 《同上書》 〈인재공사실(忍齋公事實)〉 참조

세웠다. 그는 진주 수성전이 한창일 때 홍재와 함께 부친의 명을 좇차 양호 지방(兩湖地方)에 파견되어 군량 마련에 힘쓰던 중 성함(城陷)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가 계의병진에 소속하여 토적 활동을 계속한 것은 물론이다. 정유재란시에는 명군(明軍)의 힘을 빌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방량관(放糧官)이 되어 명군의 작전에 협찬(協贊), 직산 전승(稷山戰勝)에서의 공이 컸다고 한다.[71]

이상은 최경회의 진주성전(晋州城戰) 이후 최씨 일가의 동향을《최씨육의록(崔氏六義錄)》의 기사를 토대로 하여 소개한 것이지만 최경회가의 의병 운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유재란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정유재란시 호남 지방은 전란전반기(戰亂前半期)의 사정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임진란시에는 8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전라도만 보전되고 있었지만 정유재침시(丁酉再侵時)에는 도내 전역(道內全域)이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전세 회복9戰勢恢復)의 남방기지(南方基地)였다는 점에서 '전라도(全羅道)를 빠짐없이 공략(攻略)하라.'[72]고 지령한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재침작전(再侵作戰)과도 관계있었다.

따라서 당시 전라도 일대에는 왜군이 깊숙히 내침(內侵)해 있었으니 도진의홍(島津義弘)이 지휘하던 부대가 순창(淳昌)·담양(潭陽)으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져 주둔하고 있었다. 창평(昌平)·광주(光州)·옥과(玉果)·동복(同福)·화순(和順) 지역은 특히 적의 소굴화하였고, 이들 왜적들은 스스로 살약(殺掠)을 금하는 등 회유책을 쓰며 패(牌)를 발급하여 항복을 종용하니 부역(附逆)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었다. 이 때 동복의 생원(生員) 김모(金某)는 그 지역의 책임자인 왜장에게 바친 글에서, '누구나 부리면 똑같은 백성이요, 누구나 섬기면 똑같은 임금이니 원컨대 수하(手下)의 일호(一戶)가 되어 성인(聖人)의 백성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여 부역(附逆)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심지어 그는 왜를 극찬하는 시(詩)까지 지어 올릴 정

---

71) 이상 최홍기에 관한 내용은《동상서》〈사촌공사실(沙村公事實)〉참조
72) 이경석,《임진전란사》중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p.946.

도이었다.[73]

예(例)와 같이 이 무렵의 실정은 사림간(士林間)에도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일찍부터 멀리 피난해버린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순의 노유(老儒) 최경운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그는 장자 홍재마저 초유사(招諭使)로 나가고 없는 가운데 계자(季子) 홍수와 함께 향리의 여졸(餘卒)과 집안의 가동(家僮)을 인솔하여 현지의 오성산성(烏城山城)을 지키며 결사의 항전을 펴고 있었다. 그는 백발이 된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야(晝夜)에 걸친 결전(決戰)으로 최후까지 저항하였다. 결국 패함에 이르러 왜병에게 사로잡혔으나 끝내 굽히지 않고 부자가 함께 순절하였으니 정유년(丁酉年) 10월 7일의 일이었다.[74]

이렇게 하여 화순의 해주 최씨 일가(海州崔氏一家)가 임진년(壬辰年) 이후 계속해 온 의병 운동은 최경운 부자의 장렬한 순의(殉義)에서 그 마지막이자 절정(絶頂)을 맞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경운의 활동은 널리 알려지지도 못하던 중 정조(正祖) 때 명장(名將)들의 고적(古蹟)을 그려 바치라는 조명(朝命)이 있자 '오성산최경운전망유허도(烏城山崔慶雲戰亡遺墟圖)'[75]가 그려지고 화순에 삼충사(三忠祠)가 세워지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씨육의록》에 관한 일단의 의문이 있다. '육의'의 선정 기준(選定基準)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성산 전투에서 부친과 함께 전사한 최경운의 계자 홍수가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경회의 3자였던 홍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무과 급제자(武科及第者)란 점에서 부친에 뒤지지 않을 무재(武才)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그 역시 의병 활동에 관계하였을 것이 분

---

73) 義弘等賊 自淳昌潭陽 四散屯守 如昌平光州玉果同福綾州和順 賊兵尤多 嚴禁殺掠 給牌招降 趨附日衆 至於開始交易 沿途邑之賊皆如此 同福生員金遇秋呈本縣倭將書云 何使非民 何使非君 願受一 廛 爲聖人岷 以詩尾付曰 杖劍渡東海 將軍王佐才 殺人如不耆 四海盡歸來 其後事定 士林罪附倭 (《난중잡록》 정유 9월 15일 조)

74) 《최씨육의록》 상, 삼천공사실(三川公事實), 〈원록(原錄)〉 및 〈청삼충사우사액급포증소략(請三忠祠宇賜額及褒贈疏略)〉 참조.

75) 주 60 참조.

명한데 웬일인지《최씨육의록》은 그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회가의 의병 운동을 논의함에 있어 끝으로 주논개(朱論介)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육의일열(六義一烈)'의 '일열(一烈)'로 일컬어지는 최경회의 부실(副室)이었을 뿐 아니라 '육의' 선비들의 절의(節義)에 못지 않게 높은 의열(義烈)을 펼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최경회의 장수 현감(長水縣監) 재임시(在任時) 그와 인연을 맺은 주씨(朱氏)는 선조(宣祖) 7년(1574) 장수현(長水縣) 계내면(溪內面)에서 진사(進士) 주달문(朱達文)의 독녀(獨女)로 태어났던, 엄연한 선비 집안의 여인이었다. 부친상(父親喪)을 겪은 후부터 가세(家勢)가 기울어 숙부댁(叔父宅)에 의탁해 살아오던 중 혼사(婚事)로 인한 송사(訟事)에 관련, 현감 최경회와 그의 부인 나주 김씨(羅州金氏)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병약(病弱)한 김씨 부인의 청에 따라 최경회의 부실이 되었으나 관직의 변동과 모친상(母親喪) 등으로 하여 함께 기거(寄居)하지 못한 채 주씨는 그대로 장수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씨의 거주지였던 장수는 전라우의병의 초기 활동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어 있었으니 그 무렵 양인(兩人)의 긴밀한 접촉이 있었을 것은 물론이지만, 의병전에 몸을 던진 사대부(士大夫)와 그를 따르는 여인의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씨로서는 향후에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때 이미 작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2차 진주성 전투가 있기 전 최경회가 일시 장수에 돌아와 주씨로 하여금 영남의 합포(合浦)로 뒤쫓아 오게 하였다는 설(說)[76]에서도 그와 같은 추측과 유관(有關)한 그들의 어떤 결의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해 준다. 분명한 것은 진주성함(晋州城陷) 당시 주씨가 현지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때 의곡사(義谷寺) 입구(入口)의 여염집에서 최경회의 순절(殉節) 소식을 들은 주씨는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다.[77] 마침내 선조 26년 7월 7일, 진주성남(晋州城南) 촉석루(矗石樓)에서는 진주의 기녀(妓女)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왜군의 승전연(勝戰宴)이 베풀어지고 있었다.

---

76) 김상조(金相朝), 《회소재문고(回少齋文藁)》, 제3집, p.20., 1982.

이 때 주씨는 소복(素服)으로 단장하고 루에 올라 '나도 기녀(妓女)이다.' 하고 연석(宴席)에 뛰어들어 술에 취한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남강변의 '위암(危巖)' 으로 유인(誘引)하였다. 여기에서 그를 끌어 안고 급류(急流)의 강물에 몸을 날렸으니 지금의 '의암(義巖)' 이 바로 그 곳이다.

이와 같은 주논개의 의거(義擧)는 임진왜란 중 조선 여인이 보여준 의기(義氣)와 절행(節行)의 극치였다. 그것은 곧 한 여인의 열행(烈行)이나 단순한 복수(復讐)의 유형(類型)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나라를 위한 의(義)와 지아비에 대한 열(烈)이 함께 실천된 거룩한 순절(殉節)이었다. 이 또한 최씨 일가에서 이룬 의병 운동의 또 다른 일예로 이해되어야 좋을 것 같다.

---

77)) 동상(同上)

Ⅴ. 결어(結語)

성군 배경(成軍背景)이나 거의 맥락(擧義脈絡)으로 볼 때, 전라우의병은 고경명 휘하 담양회맹의병(潭陽會盟義兵)의 활동을 계승한 호남 의병의 한 줄기였다. 이를 기복(起復)으로 인병(引兵)한 최경회가 진주성 혈전에서 순절하기까지, 그는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하여 의병전을 주도(主導)한 대표적인 의병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초 우의병의 설군(設軍)이 문홍헌(文弘獻)의 수창(首倡)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전라우의병은 좌의병과 함께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어 12개월간에 걸친 의병 활동에서 무주·금산 일원의 왜병을 유격전으로 구수(驅遂)하였고, 영우 지방(嶺右地方)에 부원(赴援)한 후에는 개령·성주성 전투에서 기공(奇功)을 세움으로써 오랫동안 적의 근거지가 되어왔던 이 지역을 수복한 주역(主役)이 되었다. 따라서 임진의병사상(壬辰義兵史上) 전라좌우의병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의 전공이 밝혀진 이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화순 해주 최씨 일가에서 펼친 의병 운동은 본질적으로 유가(儒家)의 사림(士林)이 실천한 충의 이념의 발현인 동시에 국난 극복 운동의 일환이었다. 최경회의 순의(殉義)를 계기로 하여 형제 자질이 함께 분기(憤起), 계기적(繼起的) 복수의병(復讐義兵)의 형태로 발전되어 정유재란시 최경운 부자가 순절하기까지 부절(不絶)의 의병 정신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종래 일부에서 잘못 보아온 주논개(朱論介)는 의기(義妓)아닌, 최경회가의 의열녀(義烈女)로서 그가 보여준 의암(義巖)의 절행(節行)이야말로 최씨 일가가 이룬 의병 운동의 다른 일형태(一形態)로 이해되어서 좋을 것이다.

〈논문2〉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 문학적 이해

임 채 용
순천대학교 교수

1. 머리말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말로 전하는 문학(文學)이다. 그런데 구비 문학은 기록 문학(記錄文學)만큼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학은 글로 된 것이라야 한다는 관습(慣習)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기도 했었고, 민속학(民俗學)의 소관(所關)이라고 하면서 그 쪽으로 밀어 두기도 했다. 구비 문학을 통해 문학 일반의 본질(本質), 존재 양상(存在樣相), 기능(機能) 등에 관한 이해를 가다듬고 이론(理論)을 반성(反省)하자는 것이 구비 문학을 문학으로 연구하면서 노리는 바인데,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國內外)를 막론하고 나날이 축적(蓄積)되고 있다.

구비 문학이 기록 문학에 수용(受容)되어 변모(變貌)된 양상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마땅히 관심(關心)을 가져야 한다. 구비 문학이 기록에 올라 전하는 자료(資料)도 구비 문학 연구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구전(口傳)되고 있는 설화(說話), 민요(民謠), 무가(巫歌), 민속극(民俗劇) 등은 구비 문학 연구가 아니면 수집(蒐集)하고 정리(整理)하며 해석(解釋)하고 평가(評價)할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學者)는 이 세 가지 영역(領域)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구전되고 있는 자료를 특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구비 문학 연구는 자료 조사를 무엇보다도 긴요(緊要)한 과제(課題)로 삼는다. 자료를 조사해야 비로소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구비 문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연구해야 할 과제도 발견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비 문학 연구가 시작된 시기(時期)부터 지금까지가 전래(傳來)된 자료를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고, 앞으로의 사정(事情)은 불투명(不透明)하다는 점을 고려(考慮)한다면 자료 수집의 의의(意義)는 그만큼 더 커진다.

의암(義巖) 논개(論介)는 목숨을 바쳐 충절(忠節)을 지킨 그 값진 죽음으로 인해 시대를 넘어 겨레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人物)이라 할 수 있다. 의암 논개를 주인공(主人公)으로 하여 구전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경남(慶南) 진주(晉州)와 전북(全北) 장수(長水)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散在)해 있는 여러 기념물(記念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代表的)인 것만 하더라도 진주성(晉州城) 촉석루(矗石樓) 경내(境內)에 건립(建立)되어 있는 '의기논개지문(義妓論介之門)'(光海君 12년)과 '의기사적비명(義妓事蹟碑銘)'(景宗 2년), 그리고 '의기사(義妓祠)'(純祖 24년)를 비롯하여 장수에 건립되어 있는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憲宗 12년), '의암사(義巖祠)'(1956년), '의암주논개랑생장향사적불망비(義巖朱論介娘生長鄕事蹟不忘碑)'(1960년),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1980), '의암주논개유허비(義巖朱論介遺墟碑)' 등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장수군에서는 해마다 군민(郡民)의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을 위한 대축제(大祝祭)의 장(場)으로 '의암제(義巖祭)'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같은 여러 기념물에 못지 않게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는 이야기 또한 의암 논개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상(歷史上)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까닭에 그만큼 역사적 성향(性向)

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本稿)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에 근거(根據)해서 논개의 신분에 대해서 재고(再考)해 보고자 한다.

2. 구비 문학적 이해

전설(傳說)의 형성(形成)은 사실(事實)과 사실의 과장(誇張)이나 와전(訛傳)에 의한 전설적 전환(轉換)이 함께 이야기되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 그 자체가 곧 전설은 아니다. 아무리 생애(生涯) 자체가 특이(特異)해서 널리 관심을 끄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실의 과장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전설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전설로의 전환이 납득(納得)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승적(傳承的)인 유형(類型)도 받아들이고 작품 구조(作品構造)로서의 유기적(有機的)인 질서(秩序)도 갖추어야 하며, 창조자(創造者)와 수용자(需用者)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제기(提起)할 수 있는 폭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실은 그것대로 기억(記憶)된다고 해도 사실에 구애(拘碍)되지 않는 전설적(傳說的) 창작(創作)이 쉽사리 가능(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의암 논개의 전설에 대해서 구조적(構造的) 이해(理解)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구조적 이해란 이야기 한 편이 그 나름으로 지니고 있는 전승적인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며, 나아가 작품 구조로서의 유기적(有機的) 질서(秩序)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의암 논개의 전설 역시 구비 서사문학(敍事文學)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작품 전개(展開)의 시간적(時間的) 순서(順序)에 따른 구조, 다시 말해서 순차적(順次的) 구조가 존재(存在)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로부터 출발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와 『우리 고장의 전설』(함양문화원)에서 조사된 자료 8편과 곽정식(郭正植) 교수가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13편의 자료

등 모두 지금까지 조사된 논개의 전설 21편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는 곽 교수의 자료편에 의거(依據)했다.

(가) 논개 아버지 주달문은 주촌 마을 훈장(訓長)이었다.

① 논개의 아버님되시는 분은 학자(學者)로서 달문이라는 분이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촌으로 넘어가 훈장으로 살게 되었다. 마을에서 훈장 어른한테 주촌 마을 사람들이 살림집도 지어주고 대우를 했다.〔의암 논개(1)〕

② 원래 논개의 아버지는 주촌 마을 진사 어른, 그 당시 훈장으로 이름은 달문이다.〔의암 논개(4)〕

③ 논개 아버님은 달문이란 분으로 훈장이었다.〔의암 논개(6)〕

④ 아버지가 가난한 선비로서 훈장을 하고 계셨다.〔의기 논개〕

⑤ 논개 부인은 아버지가 주달문, 진사 주달문이고, 작은 아버지는 주달무, 풍향 주씨다.〔최경회장군〕

(나) 부모가 외아들을 잃고(또는 아들이 없어) 절에서 지내며 기도한 끝에 논개를 얻었다.

① 대룡(大龍)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잘생기고 똑똑했으나 도중에 요절하게 되었다.〔의암 논개(1)〕

② 논개 앞에 대룡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으로 중간에 죽었다. 부부는 영각사(靈覺寺)라는 절에 들어가 불공을 빌어 무남독녀 논개를 낳았다.〔의암 논개(4)〕

③ 아버지가 아들을 못낳았다. 무남독녀 딸 한 분만 낳고서 일찍 돌아가셨다.〔최경회 장군〕

(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물이 좋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① 신안 주씨 15대 조부 용일이라는 분의 묘소인 고사리골이란 곳이 명당

이라 논개가 태어난 연고도 그것으로 인해 인물이다.〔의암 논개(2)〕

② 영리해서 훈장 어른이 출타했을 때에는 대신으로 글을 가르쳤다. 또한 부친이 병이 들어 앓아 누웠을 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봉양했다.〔의암 논개(4)〕

③ 한문을 하는데 재주가 아주 좋았고, 또한 인물이 썩 잘났었다. 인물이 안좋았으면 왜놈 장수를 유인했겠는가.〔의암 논개(6)〕

(라)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자 숙부 주달무가 돈을 받고 팔았다.

① 논개의 삼촌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은 주달무로 형님이 돌아가시자 사는 게 어려워서 어딘가 돈을 받고 팔았다.〔의암 논개(1)〕

② 논개를 삼촌이 주막에다 팔았다.〔의암 논개(2)〕

③ 놈팽이 삼촌이 있었는데 부자이자 병신인 김풍헌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의암 논개(4)〕

④ 성년(成年)할 무렵에 모녀와 주정뱅이 삼촌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없는 부자 늙은이한테 상의도 안하고 팔았다.〔의기 논개〕

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논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작은 아버지에게 맡겼다. 작은 아버지는 조카딸을 장수군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의 면장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민며느리로 보냈는데 그 면장 아들이 불구자였다. 그것을 알고 논개 어머니하고 논개는 도망을 쳤다.〔최경회 장군〕

(마) 장수 현감 충의공 최경희의 구원을 받았고, 뒤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① 삼촌이 논개를 최풍헌의 민며느리로 팔자 논개 모녀가 그것을 알고 피난을 하자 최풍헌이 최경희 현감에게 소장을 냈다. 최현감이 모녀를 불러놓고 재판을 했는데, 삼촌이 돈을 받고 판 것을 알고서 죄가 없다하고 무죄 방면을 하였으나 오갈데가 없었다. 딱한 처지를 안 최현감이 자기 집에서 거처케 했고, 현감 부인이 깊은 병으로 오래 살 가망이 없자 논개에게 영감하고 후사를 부탁하였 다.〔의암 논개(1)〕

② 장수 현감 충의공 최경희에게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고 해결되자 논개를 빼어왔다. 삼촌이 또 괴롭힐 것 같아 최현감 밑에 살게 하였다. 관아에 들어가 현숙하고 점잖은 부인들께 예의범절을 배웠고, 엄격한 관아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었다. 부인 여흥 민씨가 병 중에 논개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권하자 최현감이 후실로 삼았다. 현재 사당에서는 6월 29일 충의공 제사 때 논개도 같이 지내는데 후실로 생각하고 있다.〔의암 논개(2)〕

③ 최경희 장군과 논개 부인은 송사 사건으로 인연이 되었다. 논개가 형편이 어려워 오갈데가 없으니까 관아에서 지냈는데 정실 부인이 건강치 못해 부실로 들어갔다. 최현감 정실 부인 눈에 들었다면 인물이 훌륭했다고 보여진다.〔의암 논개(3)〕

④ 논개 모녀가 함양 외가로 도망가자 김풍헌이가 관에 고소를 했다. 장수 현감이 재판을 하고 논개 모친을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논개가 모친 대신 종노릇 하겠다고 나섰다. 현감이 그 녀의 효성에 감동해서 방면하였다. 그 뒤 현감 부부가 친자식같이 보살폈는데 현감 부인이 병이 들자 논개를 불러 후사를 부탁하고 그 뒤 현감과 부부가 되었다.〔의암 논개(4)〕

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기울자 잘사는 남의 집에 살았다. 진주성이 무너지기 전에 삼장사 중 한 분이 의병장으로 전라도에서 오셨다. 그 때 논개도 같이 따라왔다. 진주성에서 돌아가신 최장군 후처라고 알고 있다.〔의암 논개(6)〕

⑥ 그 때는 결혼하기로 돈을 건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다. 젊은 딸이 노인한테 팔려가 후처 노릇하기가 억울하니까 관가에 호소를 했는데, 저쪽에서 논개를 산 사람이 관가에 고소를 해버렸다. 그 때 최경회 현감이 담당했는데 정리상 소지가 없는 일이라고 구제해 주었다. 최경회도 나이가 들고 본처가 노병이 있어, 모녀를 관가에서 기식시키며 병간도 하고 수종을 하게 했는데 처녀가 가정 교육이 잘되어 있는 것을 알

았다. 그래서 병들어 있던 최경회 본부인이 후처로 추천했다.〔의기 논개〕

⑦ 도망간 모녀를 면장인 김통이 고발하니까 잡혀왔다. 그 당시 재판장은 최경회 현감이었는데 조사해 보니 죄가 없어 석방했는데 거기서 인연이 맺어졌다. 논개 부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종을 들고 하다가 그 뒤에 난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그 분이 같이 참전을 하셨다.〔최경회 장군〕

(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경희 장군을 따라 진주에 갔다.

① 최경회는 왜란이 일어나자 시묘살이로 거병을 못하다가 장수 의병들이 나서서 의병 대장으로 모셨다. 그러다가 직함을 받고 진주로 건너 갔다. 그 뒤에 논개 부인이 따라갔다.〔의암 논개(1)〕

② 최장군이 의병장으로 경남 진주로 지원하기 위해 떠났다. 논개 부인도 물론 따라가려고 했지만 최장군이 아녀자가 어찌 따라올 수 있겠느냐 했다. 그러나 논개 부인은 특별한 정신을 가지신 분으로 "그래도 나는 간다"하고 단신에 뒤에 쫓아갔다.〔의암 논개(3)〕

③ 임진년에 난리가 나자 장수에서도 의병을 모았다. 그 때 장수에서 현감하던 최경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 시묘살이에 들어갔는데, 장수 의병들이 그 분을 모셔 훈련도 시키고 공을 세우자 절도사라는 벼슬을 제수받아 진주로 가게 되었다. 최장군은 그 뒤 성이 장마에 무너지자 전사하였다.〔의암 논개(4)〕

④ 임진란 때 왜놈들이 진주성을 보름동안 포위를 해 군관민 의병들이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당해낼 수 없었다. 그 때 삼장사라고 하는 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전라도 의병장으로 진주성에 참전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이리로 올 적에 논개 부인도 같이 따라왔다.〔의암 논개(5)〕

⑤ 원수를 갚을라고 천한 인자기생으로 꾸며 장수기생이라 하며 기생(귀

생)대신으로 들어가서 독한 술에 취한 왜장을 안고 의암 바위 밑으로 가 떨어졌다.〔의암 논개(6)〕

⑥ 임진왜란이 나자 최경회는 진주성에 병사로 발령을 받아 나갔고, 그 무렵 논개는 최경회 장군을 뒤쫓아 갔는데 성이 함락되었다.〔의기 논개〕

(사) 최경회 장군(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기생으로 사칭하고 왜놈들 승전 잔치에 나가서 순국했다.

① 최경회가 진주성 전투에서 역부족으로 왜놈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남강에 투신해 자결했다. 그 뒤 논개는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기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남강 의암으로 왜장을 유인해 같이 죽었다.〔의암 논개(1)〕

② 논개의 기생 명칭은 서방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생에 뛰어든 것이지 원래 기생이 아니다.〔의암 논개(2)〕

③ 왜장들이 승전연을 할 때 기생만 모이라 했기 때문에 기생이란 신분이 아니면 참여를 못했다. 그러나 의암 논개 부인은 승전연에 원수를 갚기 위해 참여를 했고 결국 왜장과 같이 투강했다.〔의암 논개(3)〕

④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마침 기생들은 술잔치에 참가하라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수안기생에게 찾아가 짐짓 장수기생이라 속이고 이름을 올려 왜놈들 술잔치에 나갔다. 마침내 왜놈 장수를 유인해 물에 빠트려 죽이고 논개도 죽었다.〔의암 논개(4)〕

⑤ 최병사가 돌아가신 날 왜놈들이 촉석루(예전에는 남장대)에서 크게 잔치를 벌렸다. 논개 부인이 원수를 갚으려고 기생으로 꾸며 잔치에 참여해서 왜장 게야무라 로꾸스께라는 자를 유인해 술을 잔뜩 먹여 물 속에 밀어 넣었다. 남편 원수 갚는다고 의암 부인이 그랬는데 그가 바로 나라의 원수이기도 하다.〔의암 논개(5)〕

⑥ 최경회를 따라온 것은 틀림없다. 장수에 있다가, 이 분이 가야무라 로구스께라는 왜놈 장수하고 의암 바위에서 죽었다. 왜놈 장수는 일본 야

사에도 나오는 인물로 가등청정의 부하 중 힘이 제일 센자로 당시 힘이라면 일가견이 있는지라 왜란시 가등청정을 죽였다고 오인할 정도였다.〔논개(2)〕

⑦ 비통에 젖어 논개는 복수를 결심하였다. 점령군이 진주성에서 전승 축하연을 하려고 시중드는 관기를 모은다는 광고를 붙였다. 관기의 명부에 논개가 없으니 임실 관기라 속이고 지위가 높은 대장에게 접근해서 술을 많이 먹여 남강 가운데 의암 바위로 유인해 안고 뛰어 내렸다.〔의기 논개〕

⑧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까지 갔는데 최장군이 돌아가시자, 나중에는 기적에 올려 기생으로 가장해서 왜장들의 승전연에 참여하여 왜장을 자진해서 끌어안고 죽었다. 최경회 장군 원수도 갚고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최경회 장군〕

위의 단락(段落) 분석(分析)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름 아닌 일대기(一代記) 형식(形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논개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成人)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생애(生涯)의 전과정을 나타내는 시간이 작품의 전개적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각 단락의 성격(性格)을 요약(要約)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단락(가)는 논개의 부친이 훈장(訓長)으로 초대(招待)를 받아 이주(移住)하게 되었다거나 진사(進士)였다거나 하여, 혈통(血統)이 훌륭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단락(나)는 논개의 부모가 장성(長成)한 아들을 잃고 후사(後嗣)를 잇기 위해 기도(祈禱)했으나 딸을 낳게 되었다고 했다. 단락 (다)는 논개가 어려서부터 용모(容貌)가 아름다왔을 뿐만 아니라 글 공부를 통해서 그 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고, 조상(祖上) 산소가 명당(明堂)이었다고 하는 그럴듯한 근거(根據)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이는 논개가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卓越)한 능력을 타고 났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락 (라)는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어린 논개가 불량한 숙부에 의

해서 인신매매(人身賣買)를 당하게 되고, 이를 피해 외가(外家)로 도망했다가 재판(裁判)에 회부(會付)되는 등 논개에게 밀어닥친 뜻밖의 고난(苦難)을 보여준다. 단락 (마)는 의지(依支)할 곳 없는 어린 논개를 최경희가 구출 양육자(養育者)로 하여 불의(不義)의 고난을 극복(克復)해 간다는 것이며, 단락 (바)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전란(戰亂)으로 인해서 다시 논개가 고난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최경회를 따라 진주성(晉州城)으로 갔다는 것이다. 끝으로 단락 (사)는 논개가 죽음을 각오(覺悟)한 끝에 남편의 원수(怨讐)를 갚는다는 것인데, 이는 논개의 순국(殉國)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지란(危機之亂)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충절(忠節) 의식(意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단락 분석의 결과는 조동일 교수의 논문 「영웅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에 나오는 구조(構造)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고귀(高貴)한 혈통(血統)을 지닌 인물(人物)이다.

(나) 비정상적(非正常的)으로 잉태(孕胎)되거나 출생(出生)했다.

(다)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卓越)한 능력(能力)을 타고 났다.

(라) 어려서 기아(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마) 구출 양육자(養育者)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바) 자라서 다시 위험(危險)에 부딪쳤다.

(사) 위기(危機)를 투쟁(鬪爭)으로 극복(克復)해서 승리자(勝利者)가 되었다.

의암 논개 전설은 임진왜란 때 왜장(倭將)을 끌어안고 진주(晉州) 남강(南江)에 투신(投身)한 것을 계기(契機)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논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남강에 투신할 때의 논개는 나이 어린 부녀자(婦女子)에 지나지 않았다. 지체 높은 분들에게 흔하게 있는 문집(文集)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간단한 행장(行狀)이나 자신의 생각을 담은 짤막한 서간문(書簡文) 하나 남아 있지 않다. 따

라서 꾸며낸 이야기는 모두 허황(虛荒)된 것이라 하고 굳이 믿을 수 있는 문헌(文獻)만을 고집한다면, 논개같은 인물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논개라는 인물을 역사적(歷史的)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이야기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암 논개 전설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다른 한 측면은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전설적(傳說的) 전환(轉換)을 겪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의암 논개 전설의 형성(形成)과 발전(發展), 또는 쇠퇴(衰退)에 관해 일정한 범위에서의 추론(推論)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암 논개 전설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전승 과정에서의 변이(變移)에 작용한 현실적(現實的) 요구(要求)는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전설 형성의 처음 단계는 사실과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에 의한 전설적 전환이 함께 이야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실제 사건(實際事件)이라고 할 논개의 남강 투신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였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처음 이를 목격한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 동안 실제 사건이 화제(話題)가 되었고, 그 후 실제 사건에 과장이나 와전이 더해져서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논개가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때에 저술되었던 유몽인(柳夢寅, 1551-1623)의 『어우야담(於于野)』「효열편(孝烈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사실 이야기와 사실의 과장이나 와전에 의한 전설적 전환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 준다.

논개(論介)는 진주(晉州)의 관기(官妓)였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의 때를 당하여 김천일(金千鎰)이 창의(倡義)한 군사들이 진주에 들어와 웅거(雄據)하며, 왜병(倭兵)과 항쟁(抗爭)하다가 급기야 성이 함락(陷落)되어 군사는 패(敗)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이 때) 논개는 분단장을 하고 곱게 옷을 차려입은 뒤 촉석루(矗石樓)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서 있었으니, 아

래는 만 길 낭떠러지로 물결 중심에까지 뻗어 있었다. 모든 왜병들이 보고서 기뻐하면서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는데, 홀로 한 왜놈이 뛰어난 모양으로 곧장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웃으면서 그를 맞이하고 왜장을 유혹(誘惑)하여 이끌었다. 논개는 드디어 그의 허리를 안아 일으키며 바로 못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임진년의 난에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辱)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자를 모두 기록(記錄)할 수 없으니, 논개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다수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저 관기란 자는 모두 음란(淫亂)한 창기(娼妓)이다. (따라서) 가히 정조(貞操)나 절개(節槪)를 지킨다고 일컬을 수 없으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고 적에게 더렵혀지지 않았다. 그 또한 성군(聖君)의 덕화(德化)를 입은 한 인물(人物)로서 감히 나라를 배반(背反)하고 적을 좇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딴 마음이 없었으니 (오직) 충(忠)만 있을 따름이었다.(論介者 晉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師 入據(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敗(散)人民俱死 論介凝 粧靚服 立于矗石樓下峭巖之賞峯(上) 其下萬丈直(卽)入波(江)心 群倭見而悅之 (皆)莫敢近 獨一倭 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以)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腰(倭) 直投于潭俱死 壬辰之亂 官妓之遇倭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 而多失其名 彼官妓 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肯(忍)背國從賊 無他 忠已而矣.(倚歟哀哉)

이같은 이야기는 류몽인이 현지 사람들에게서 직접 채록(採錄)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전설적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섞여 있다고 보여진다.

류몽인은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 선조(宣祖) 26년 윤(閏) 11월에 설치된 무군사(撫軍司)의 관원(官員)이 됨으로써 그 자신이 직접 삼남 지방(三南地方)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에는 세자(世子, 당시 光海君)를 따라 진주

(晉州) · 금산(錦山)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부(名簿)를 작성하고 그 유가족(遺家族)들에게 면역첩(免役牒)과 식량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그가 무군사의 관원으로서 군사의 모집과 훈련 및 보급 문제 뿐만 아니라 전몰가족(戰歿家族)을 조사 위문(慰問)하는 일까지 하였다면, 이같은 기회에 논개가 왜장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남강에 투신 하였다는 사실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같은 해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使)에 임명(任命)되었던 것이니, 이 기회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투(戰鬪)가 치열(熾熱)했을 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軍民)이 무참히 살육(殺戮)당하고 왜병들의 약탈(掠奪)로 거의 초토화(焦土化)된 진주성에 들러 저간의 사정을 직접 견문(見聞)했을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류몽인이 『어우야담』에 기록한 이야기는 진주성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歷史的事實)이라고 하는 것은 의암 논개가 왜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다는 실제 사건을 말한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충격적(衝擊的)이어서,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전달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입에서 입을 거쳐 계속 전승(傳承)되기 위해서는 전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설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럴 만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의 입장에서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분 문제(身分問題)이다.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단계에서는 논개의 신분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으나, 전설적 전환을 거쳐 전승을 담당해야 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논개의 예사롭지 않은 죽음과 함께 신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논개가 기생이라고 하는 점은 백성의 입장에서 매우 흥미(興味)있는 일이었으며, 이 때 논개가 진주 사람이 아니고 외래인(外來人)이었다는 사실은 신분에 관한 한 보다 광범위(廣範圍)한 상상력(想像力)을 자극(刺戟)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란(戰亂)의 와중(渦中)에서 진주 사람이 아닌 논개에 대해 그 신분을 진주성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남강 투신 사건 이후에 새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아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制限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개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한계(限界)를 지닌 문제였으며, 결국 기생으로 알려진 신분은 일면적(一面的) 의의(意義)를 지니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설적 이야기는 기생이라는 미천(微賤)한 신분의 논개가 끝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나라와 겨레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관기를 정렬(貞烈)로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사대부(士大夫)들의 일반적인 생각일텐데, 류몽인이 이를 비판하고 충(忠)이라 칭한 것은 아마도 진주성민들의 의식을 반영(反影)한 것인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전설적 전환을 거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전란이 남긴 상흔(傷痕) 속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 진주성민들에게 일종의 위안(慰安)인 동시에 새로운 결의(決意)를 다지는 이야기였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류몽인의 『어우야담』 전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나) 김천일이 창의한 군사들과 계사년(1593년)에 진주를 근거지로 왜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다) 논개는 분단장을 하고 곱게 차려 입은 뒤 촉석류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왜병들은 바라보고 기뻐했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라) 왜장 하나가 의기 양양하게 앞으로 내달아 오자, 논개는 웃으면서 왜장을 유혹하여 이끌었다.

(마) 논개는 드디어 왜장의 허리를 끌어 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바) 임진란에 관기로서 왜적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기록하기 어려우며, 그 이름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다.

(사) 관기는 모두 음란한 창기들이라고 하여 정렬로 일컫기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녀 또한 성군의 덕화를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에 따르지 않았으니 다른 마음없이 충(忠)만 있을 따름이었다. 기이하고도 애통한 일이로다.

논개 설화는 두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바, (가)에서 (마)까지는 논개의 일화(逸話)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敍事體)이며, (바)에서 (아)까지는 이러한 서사체에 대한 작가의 논평(論評)이다.

논개 일화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논개의 인물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가)에서 (마)까지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순 구조의 에피소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에피소드는 논개라는 특정 인물이나 에피소드 그 자체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수단(手段)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의미 단락은 논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녀가 대신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焦點)을 맞추어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서사체에 대한 작가의 논평이 (바)에서 (아)까지이다. 작가의 논평은 관기라는 신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행위와 국난(國難) 속에서 가져야 할 이상적(理想的)인 행위를 준거(準據)로 논개라는 특정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논개 설화는 기본적으로 ① '관기/정열'의 대립적 의미 체계를 통해 신분과 신분적 행위 간의 관계를 규범화(規範化) 하고, ② 그런 규범화된 행위의 궁극적(窮極的)인 목표를 '열(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행동의 실

천(實踐)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여 신분 질서와 충렬(忠烈)의 이데올로기를 강화(强化)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각(視覺)에서 그 기록자(記錄者) 류몽인은 논개 설화를 「창기편(娼妓篇)」이 아니라, 「효열편(孝烈篇)」에 수록(收錄)하고 있다. 그는 관기는 관기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行動樣式)이 있다는 전제(前提) 아래서 관기 논개의 행위를 창기(娼妓) 신분의 상징적(象徵的) 인물로서의 행위로 다루는 것이 아닌, '열(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한 사람의 모범적(模範的) 행위 그 자체로 다루고 있다. 그는 인간의 행위는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행위를 지배하면서 초신분적(超身分的)인 절대 가치(絶對價值)를 지닌 것으로 '충렬'의 행위를 설정하여 인식(認識)하고 있다.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생장지(生長地)로 알려진 장수(長水)가 전승 지역으로 편입(編入)되면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顚하겠는데, 논개의 생장지를 장수와 관련시킨 문헌 기록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다. 순조(純祖) 원년(元年, 1800)에 간행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서 "기생 논개는 장수인(長水人)인데 최경희가 좋아하였으며,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고 한데 이어, 헌종(憲宗) 5년(1839)에 간행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서는 "논개는 장수의 관기인데 진주병사 최경희가 사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헌종 12년(1846)에는 논개의 생장지를 기념하기 위해 장수에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를 건립하였으며, 고종(高宗) 9년(1872)에 간행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중 「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의 절의편(節義篇, 義妓論介條)에는 "의기 논개는 본현(本縣)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사람으로서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녀를 좋아하였다. 최공(崔公)이 진주병사로 임진란을 당했을 때 논개가 따라갔다"고 하였다.

이같은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의암 논개 전설 형성은 논개의 신분을 관

기로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는 문헌 설화와는 다른 방향에서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논개의 생장지인 장수 지역 사람들이 새로 전승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개의 후손들은 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의암 논개의 전설 형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암 논개 이야기는 역사적(歷史的)으로 실재(實在)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논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논개의 성격이나 행적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소견(所見)을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며 때로는 논란(論難)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어떤 근거나 제약 조건(制約條件)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 지역 사람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암 논개와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동일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정서적으로는 거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를 찾고 되도록이면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3. 사회적 이해 및 마무리

일반적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는 창조자와 수용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순간을 떠나서 또는 그 둘의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자와 수용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둘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이자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논개 설화는 류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이르러서 문자로 정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구비 전승되고 있다. 문헌 설화로서의 논개 설화는 논개라는 기생의 행위를 실례로 들면서 동시대 인간 행위의 평가 기준으로 신분과 '열(烈)'을 설정하고 신분 질서와 충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그 기록

자 류몽인은, 인간의 행위가 신분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초신분적인 절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충렬'의 행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개 설화는 여성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정열의 준거틀로서 규범화하고 충렬을 그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한 교훈적인 설화이다.

논개 설화의 의미화 과정은 허구(虛構)의 실사화(實事化)와 허구의 허구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열과 정절, 충렬과 민족 의식(民族意識)을 주제화 하여 수직적(垂直的) 남녀 관계, 신분 질서 체계, 소박한 감정적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논개 설화의 예술 형상화 과정은 논개라는 인물과 그녀의 행위에 동시적인 초점을 둠으로써 역사와 문학, 경험과 허구 간의 중간 영역인 전기적(傳奇的) 문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물 전설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창조자와 수용자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면서 이야기하기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인물 전설은 크게 보아 이야기 집단에 따라 달라지고, 자세히 살피면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인물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논쟁(論爭)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립에서 구체화(具體化)하는 것으로 인물을 평가(評價)하는 입장(立場)과 기준(基準)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集團)과 집단, 개인(個人)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그 성격(性格)이나 배경(背景)을 살펴보는 것이 사회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암 논개 전설의 경우, 대체로 그 논쟁은 기생이냐 아니냐 하는 신분 문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마저도 이념(理念)이나 가치관(價値觀)과는 상관없이 거의 지역적(地域的) 차이(差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의암 논개 전설은 신안 주씨(新安朱氏)라고 하는 한 가문(家門)의 선조(先祖) 이야기로 이룩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안 주씨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 의암 논개 이야기는 적장(賊將)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의거(義擧)를 목격(目擊)한 진주성민(晉州城民)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때 진주성민들은 논개의 후손인 신안 주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는 과정에서 의암 논개의 후손이라 할 사람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投身)했다는 사건 자체는 후손이나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다같이 훌륭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견해가 일치(一致)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의암 논개 전설이 계층(階層)을 초월(超越)해서 강한 침투력(浸透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도 결국은 이와 같이 일치된 인식과 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암 논개의 후손들이 창조자나 수용자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사정은 사뭇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후손의 입장과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개는 결코 기생이 아니었다"며 '신안주씨종친회(新安朱氏宗親會)'와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들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 촉석루에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께(毛谷村六助)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구한 주논개 부인의 신분과 얼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안주씨종친회는 "임란의 최대 격전지(激戰地)였던 진주성내 의기사(義妓祠와)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 내용에 논개 부인의 신분을 잘못 명기(明記)한 부분이 있다"며 사적지(事蹟地) 옆에 이를 바로 잡는 안내문(案內文)을 세워줄 것을 진주시(晉州市)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논개 부인은 당시 군사령관격(軍司令官格)인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최경회(崔慶會) 장군의 후실(後室)로 1593년 6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성이 함락된 후

왜장(倭將)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 들어 민족 정기를(民族精氣) 일깨운 열사(烈士)였다"며 "사적(事蹟) 자체는 못고친다 하더라도 역사(歷史)를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암 논개 전설은 정렬(貞烈)과 충의(忠義)라는 사회 논리적(社會論理的) 의미로 널리 이야기되는 한편으로 신분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자기 조상의 지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道理)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사람들의 심리(心理)는 자기 조상에 대해 지체(肢體)를 높이려는 것이 예사인데, 의암 논개의 경우, 지체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미천하다고 할 기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는 강한 전승력을 발휘하여 이제는 논개를 기생이라고 하는 이전의 이야기까지 기생 아닌 것으로 바꿔놓게 하였다. 그동안 사당(祠堂)을 세우고 생가(生家)를 복원(復元)하고, 또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大祝祭)의 장(場)으로 해마다 '의암제(義巖祭)'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등 '논개님' 이라 지칭(指稱)하는 장수 지역 사람들이 의암 논개에 대해 쏟고 있는 정성을 보더라도 그들이 기생 아닌 논개 이야기의 성립에 어느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논개의 고향인 전북 장수에서 '주논개얼선양회' 등을 주도하며 20여년간 논개 사적 연구를 해온 향토사학자 고두영(高斗永) 씨는 "선조(宣祖) 때 유학자(儒學者) 류몽인의 설화집 『어우야담』에 논개 부인이 기생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순국(殉國)할 때 기생 복장(妓生服裝)을 한 것은 진주성 함락 후 왜군의 살육 행위(殺戮行爲)를 보고 울분 끝에 왜장을 죽이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僞裝), 왜군의 술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의 성립에는 신안 주씨 후손 못지 않게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役割)이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사정은 앞서 구비 문

학적(口碑文學的) 이해(理解)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안 주씨 후손과 장수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의암 논개의 신분이 기생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자, 애초에 의암 논개 이야기의 발생지(發生地)라고 할 진주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전설 따위 구전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허황(虛荒)된 것이라고 하면서 문헌 기록만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까지도 과거에 논개를 기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논개가 스스로 왜장들의 승전연(勝戰宴)에 참석하기 위하여 택했던 위장 신분(僞裝身分)이었다고 이해하는 한편, 의암 논개는 결코 기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의암 논개 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분을 문제삼아 새삼스러운 논쟁을 벌이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의암 논개의 구비 문학적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 점은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위 논고는 곽정식 교수(경성대)의 논문 「의암 논개 전설의 연구」와 민병욱 교수(부산대)의 논문 「논개 설화의 극적 형상화 구조와 의미 구조」를 참고로 하였다.

논개(論介)에 관한 논저 목록(論著目錄)

오병무 편

〈고문헌(古文獻)〉

1.《경종실록(景宗實錄)》 권9, 원년 2월 을미(乙未)조,
2.《경종실록(景宗實錄)》 권10, 2년 11월 기해(己亥) 조.
3.《경종실록(景宗實錄)》 권14, 4년 2월 무오(戊午) 조
4.《선조실록(宣祖實錄)》 권33, 25년 12월 신묘(辛卯) 조
5.《선조실록(宣祖實錄)》 권45, 26년 윤11월 병신(丙申) 조
6.《선조실록(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병자(丙子) 조
7.《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6월 조
8.《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권 26, 25년 10월조
9.《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82책, 영조(英祖) 14년 12월 6일 조
10.《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919책, 영조 16년 8월 21일 조
11.《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164책, 순조(純祖) 23년 4월 18일 조
12.《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172책, 순조 23년 11월 10일 조
13.《영조실록(英祖實錄)》 권6, 원년 6월 을해(乙亥) 조
14.《진양속지(晋陽續誌)》 권2, 인물(人物) 조

14.《진양속지(晋陽續誌)》권2, 인물(人物) 조

15. 오두인(吳斗寅),《양곡집(陽谷集)》권3, '의암기'

16. 유몽인(柳夢寅),《어우야담(於于野談)》

17. 정식(鄭),《명암집(明庵集)》권6, 부록 가장편

18. 조동원,《韓國金石文大系》권1,〈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

19.《충렬실록(忠烈實錄)》권1, 청증직소(請贈職疏)

20.《충렬실록(忠烈實錄)》권1, 청증직정위차설재실계(請贈職定位次設齋室啓)

21.《충렬실록(忠烈實錄)》권1, 비부(批附)

22.《충렬실록(忠烈實錄)》권1, 비변사관문(備邊司關文)

23.《충렬실록(忠烈實錄)》권1, 신보비변사문(申報備邊司文)

24.《충렬실록(忠烈實錄)》권2, 양사우수개선보비변사장(兩祠宇修改先報備邊司狀)

25.《충렬실록(忠烈實錄)》권2, 절목편(節目篇)

27.《대동기문(大東奇聞)》

28.《청구야담(靑丘野談)》

29.《호남절의록》권1,

30.《호남삼강록》권1, 충신 몽포편(忠臣蒙褒篇)

31.《호남읍지》제9책,〈장수현읍지〉

32. 박태무(朴泰茂),《서계집(西溪集)》,〈의기전(義妓傳)〉

33. 정약용(丁若鏞),《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권, 시문집, 기(記), '진주의기사기(晋州義妓祠記)'

34. 정약용(丁若鏞),《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1권, '열부론(烈婦論)'

35. 이지연(李止淵),《희곡집(希谷集)》, 의기사(義妓祠) 편

36. 성계옥(成季玉)편,《진주의암별제지(晋州義巖別祭誌)》

한시(漢詩)

1. 허 희(許 熙), 《염호문집(濂湖文集) 권1

2. 최병식(崔秉軾), 《옥간집(玉澗集)》 권1, 〈등촉석루(登矗石樓)〉

3. 김창숙(金昌淑), 《심산유고(心山遺稿)》 권1, 〈촉석루차판상운(矗石樓次板上韻)〉., 〈의기암(義妓巖)〉

4. 정 식(鄭栻), 《명암집(明庵集)》 권1, 〈의암(義巖)〉

5. 박치복(朴致馥), 《환성선생문집(晩醒先生文集)》 권3, 〈의개암(論介巖)〉

6. 김택영(金澤榮), 《소만당시집(韶漫堂詩集)》 권2, 〈의기가(義妓歌)〉

7. 황 현(黃 玹), 《매천집(梅泉集), 권3, 〈의기가(義妓歌)〉

8. 안종창(安鍾彰), 《희재집(希齋集)》 권1, 〈의기암(義妓巖)〉

9. 안문영(安玟英), 《금옥총부(金玉叢部)》, 〈촉석루(矗石樓) 난간(欄干)밧긔〉

10. 《교방가요초(敎坊歌謠抄)》, 〈말고말근 강남수(江南水)야〉.,〈촉석루(矗石樓) 발근달이〉

11. 『大韓每日申報』 제969호, 〈화채비결(花寨秘訣)〉

12. 김상옥(金相沃), 《초적(草笛)》, 〈촉석루(矗石樓)〉

13. 정인보(鄭寅普), 《담원시조(澹園時調)》, 〈진주의기사영송신곡(晋州義妓祠迎送神曲)〉

14. 장두한(張斗翰), 《아름다운 강산(江山)》, 〈촉석루(矗石樓)〉

15. 박종옥(朴宗玉), 《상원시조집(桑園時調集)》, 〈촉석루(矗石樓)에서〉

16. 이호우(李鎬雨), 《이호우시조집(爾豪愚時調集)》, 〈촉석루(矗石樓)〉

17. 박병순, 《월간문학(月刊文學)》, 제31호, 〈촉석루〉

18. 김정희(金貞姬), 《시조문학》, 제9호, 〈논개 사당의 백일홍〉

19. 원용문(元容文), 《남강물에 촉석루 비치고》, 〈남강에서〉

〈논문(論文)〉

1. 강대민(姜大敏), 〈논개(論介)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2. 고두영(高斗永), 〈논개(論介) 출생(出生)에 대한 소고(溯考)《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 서울, 1997)

3. 곽정식(郭正植), 〈의암 논개 전설의 연구〉《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4. 김무조(金戊祚), 〈通過儀禮로 본 論介의 生涯〉《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5. 김정주, 〈진양성과 임진왜란(하)〉《한양(漢陽)》, (東京, 1962년 7월호)

6. 김철범(金喆凡), 〈漢詩文을 통해 본 논개 사적의 문학적 演變〉《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7. 리명길, 〈의기 논개의 사적 고찰〉《진주문화 14》, 1992.

8. 민병욱, 〈논개 설화의 극적 형상화 구조와 의미 구조〉《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9. 박경수(朴庚守), 〈논개 引喩詩의 樣相과 意味〉《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10. 박기정, 〈시문(詩文)에 나타난 논개(論介)의 충절정신(忠節精神)〉《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 서울, 1997)

11. 배호길, 〈진주 촉석루와 주논개〉《한양(漢陽)》, (東京, 1965년 3월호)

12. 오병무, 〈논개(論介)의 가계(家系)에 대하여〉《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 서울, 1997)

13. 오병무,〈문헌(文獻)에 나타난 논개〉《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 서울, 1997)

14. 유승주(柳承宙), 〈진주성의 의기 논개고〉《한국사학논총》, 1987.

15. 임채용, 〈논개의 전설에 대한 구비 문학적 이해〉《논개의 생애와 충절》(장수문화원, 서울, 1997)

16. 장세호, 〈논개의 義理精神〉《논개 사적의 역사적 의미》(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부산, 1996)

17. 장지연, 《일사유사(逸士遺事)》

〈시(詩)〉

1. 변영로(卞榮魯), 〈논개(論介)〉(《신생활(新生活)》 제3호, 서울, 1922.4.)

2. 한용운(韓龍雲), 〈논개(論介)의 애인(愛人)이 되야서 그의 묘(廟)에〉《임의 침묵(沈默)》(1926, 서울)

3. 모윤숙(毛允淑), 《논개(論介)》(光明出版社, 서울, 1974)

4. 정동주(鄭東柱), 《논개》(創作과 批評社, 서울, 1985)

5. 고은(高銀), 〈논개(論介)〉《만인보(萬人譜)》(創作社, 서울, 1986)

6. 임종성(林鍾成), 〈논개에게〉《현대문학(現代文學) 제190호》(서울, 1986, 5)

〈소설(小說)〉

1. 박종화(朴鍾和), 《논개(論介)》

2. 정한숙(鄭漢淑), 《논개(論介)》

3. 전병순(田炳順), 《논개(論介)》

4. 정비석(鄭飛石), 《진주기(晋州妓) 논개(論介)》

5. 김성한(金聲翰), 《임진왜란(壬辰倭亂)》

논개에 관한 구비 전설(口碑傳說)

1.

장계(長溪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六十嶺)을 넘기 전 4킬로미터 지점 오른쪽에 무룡궁(舞龍宮) 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가 뚫렸다. 이 길을 따라 4킬로미터 쯤 가면 충절(忠節)의 여신(女神)이라 불리는 논개(論介)가 탄생한 마을 주촌(朱村) 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곡천(大谷川)에 '대룡쏘(大龍沼)'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4백수십여 년 전 주촌 마을 주씨(朱氏) 집안에 기이한 일이 일러났다.

어느 날 밤 주씨의 안주인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한데다 용호상박(龍虎相搏)하는 얼굴 형상(形相)을 하고서는 바로 윗목으로 서너 발 걸어가서 사방을 응시하는 꼴이 범상(凡常)하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부인은 겁에 질려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주씨는 용상(龍狀)을 한 아이 이름을 '대룡(大龍)'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문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서 비범한 아이를 구경 오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주씨 부부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다. 이런 사실이 관아(官衙)에 알려지게 되면 나라를 망칠 역적(逆賊)이 생겼다고 멸문지화(滅門之化)를 당할까 두려워 견디지 못했다. 부부는 몇 날 몇 일 궁리 끝에 하를 입기 전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구석에 있던 다듬독으로 눌러서 아이를 죽인 뒤 밤중에 마을 근처에 있는 쏘(沼)에다 던져버렸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주씨가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 산 너머 하늘이 어둠을 뚫고 훤히 열리더니 날개가 돋친 용마(龍馬)가 괴상한 소리로 으르릉대며 하늘 위를 날면서 주씨 집 상공을 한 바퀴 돌아 대룡이를 던진 쏘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아차! 큰 죄를 지었구나. 장수(將帥)가 될 아이를 죽인게 아닌가 하고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집에 와서도 주씨 부부는 여러 날 참회(懺悔)의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이루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주씨가 잠을 자는데 홍안백발(紅顔白髮) 노인(老人)이 현몽(現夢)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조상(祖上)인데 나의 집(幽宅)이 장군대좌(將軍大坐)라서 그 기운으로 대호군(大護軍)을 낳게 하여 얼마 안가 불어닥칠 나라의 환난(患亂)을 평정(平靜)케 하려고 용상(龍狀)의 장수(將帥)를 보냈더니 네가 무지몽매(無知蒙昧)해서 큰 인물을 잃었구나! 그러나 나의 기운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여장수(女將帥)를 보내리라. 그러니 이번만은 우(愚)를 범하지 말고 고히 기르면 사고(事故)로 가문(家門)과 조산을 빛내고 나라에 보답할 것이며, 미천한 이름으로 귀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라.' 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꿈을 깨어보니 너무나 생시(生時)같은 꿈이었다. 주씨 부부는 조상이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胎氣)가 있었다. 부부는 뱃속의 아이를 소중히 여겨 태교(胎敎)에 열중하였다. 열달 후 갑술년(甲戌年) 갑술월(甲戌月) 갑술일(甲戌日) 갑술시(甲戌時)에 딸 아이를 출산하였다. 학자인 주씨는 순간 꿈에 현몽한 일, 생시가 사갑술(四甲戌)이라는 것들이 모두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술(戌)'은

'개', 이 곳 방언(方言)에 '낳다'를 '놓다'로 하기에 '개를 낳았'으니 '논개'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이 분이 훗날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나라가 초토화(焦土化) 되었을 때 진주성(晋州城) 싸움에 혜성(彗星)처럼 나타나 남강(南江) 가 의암(義巖)에서 왜장(倭將)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 살신성충(殺身成忠)한 여장수(女將帥) 논개(論介)라고 한다.

만일 논개의 오빠 대룡이 살았었다면 임진란은 초전(初戰)부터 조국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라 세인들이 안타까워 했다는 것이다. 장안산(長安山) 준령에 자리한 장군대좌혈(將軍大坐穴) 주씨 선산은 지금도 명당(明堂)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며, 대룡쏘는 흔적만 남아 있다 전해지고 있다.

2.

옛날부터 이 곳은 원래 산골이라서, 주로 사람들은 산을 의지해서 살았지요. 그 때만 해도 저 그 우리 농촌(農村)에 삶이라 카는 것이 산을 위주로 해서 살았잖습니까?(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산에서 땔감 가주오고 나물, 아이 저거 풀도 비와서 논에나 밭에나 거름을 해서 그래 가지고 모도 심거 먹고 있는데, (예, 그랬지요.) 그런데요 우쪽 산 너머가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금선골', 거문고 금(琴)자 신선 선(仙)자 '금선골'이라 카는 곳인데, 거기서 이 곳 방지(芳池) 마을 사람들 하고 전라도(全羅道) 장수(長水) 주촌(朱村) 사람들 하고 서로 만나고 자주 그랬대요. 그러다 본께 서로가 사정을 잘 알고 지냈지요.

그런데 주촌 마을에는 훈장(訓長)이 없어서 애들한테 글도 못 가르치고. 방지 마을에는 글하는 이가 많으니께, 훈장 어른이 필요하다, 그렇께 한 사람을 모시겠다. 그래 논개(論介) 아버님 되시는 분은 요게 학자(學者)로서 달문(達文)이라는 그 분은 요기서 태어나시고 원래 서하 박씨(西下朴氏)하고 결혼(結婚)을 이루었거든요.

그래 초청(招請)을 받아가지고 주촌으로 넘어가 훈장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듣는이 : 그러니까 이 곳이 논개 할머니하고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이께는 마을에서 훈장 어른한테 주촌 마을 사람들이 살림집도 지어 주고 그래 마 대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어른에게 아들이 하나 계시는 데, 다 큰 아들이 '큰 대(大)' 자 '용 용(龍)' 자 '대룡' 이라 카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마 잘생기고 똑똑했더라고, 그런데 그만 도중에 요절(夭折)하게 되었답디다.

그래 도중에 다 키와 가주고 아들이 죽고 난께 그만 세상이 싫어졌던가 봐요. 세상이 그만 싫고 뭐 뜻이 없어가지고 속세(俗世)를 떠나가지고 요 넘어 덕유산(德裕山) 영각사(靈覺寺)라는 절 속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렁께 거서 부부(夫婦)가 기도(祈禱)하고. 뭐, 심부름같은 걸 하면서 그냥 지내는데, 그러다가 부부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태몽(胎夢)을. 그래서 다시 절을 내려와 가지고 장수 주촌으로, 전에 살던 데로 다시 내려 왔지요. 내려 왔는데, 내려 와서 논개를 낳게 되었더랍니다. 9월 3일날이 그 어른 논개 할머님의 생신일(生辰日)입니다. 그런데 뭐 전해 오는 얘기로는 사갑술(四甲戌), 갑술(甲戌)이 네 개가 겹쳤대요. 갑술년 잡술월 갑술일 갑술시, 그 래서 개 술(戌)자니께 개를 논다, 이 쪽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방언(方言)에 '낳는 걸' '논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 '개를 논다', '개를 났다.' 고 카는 것은 요것은 갖다가 옛날에 명(命) 길어라고 그 참말로 어린 아이에게 아명(兒名)을 지어 줄 적에 무엇에 비유해서 '판바우' 니 '시렁' 이니 지어주었는데, 그래서 아명을 '논개' 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 논개는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하고 인물도 참 좋았다고, 제가 어려서 들은 말로는 우리 신안(新安) 주씨 (朱氏) 15대 조부(祖父)되시는 용 용(龍)자 한 일(一)자 어른의 묘소(墓所)가 저 산 너머 '고사리골' 이라 카는 곳에 있는데, 지금도 가 보면 거 있어요, 그 자리가 명당(明堂)이라 캅디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논개가 태어났다고 그래 뭐 인물이라 카는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일찍 그만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던가 봐요. 그래 노니께 사는 기 어렵잖았겠어요?

사는 기 어렵고 그렁께 그 때 주달무(朱達武)라는 이가, 삼촌(三寸)이 한 분 있었는데, 논개의 삼촌이 형님이 돌아가시고 한께, 인제 주달무라는 동생이 사는 기 어렵고 하니께 어디다가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논개를 최풍헌(崔風憲)에게, 장계(長溪)에 아즉도 그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 뭐, 민…, 민며느리라고 하는 걸로, 그래 노니께 고마 논개 모녀가 그걸 알고 밤을 도와 가지고 자기 외가집으로 피난을 해 버렸어요. 요 송계(松溪) 서하 송계이거든요. 그래 모녀가 피난을 와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인제 최풍헌이 논개 모녀를 고발하는, 최경회 현감(崔慶會縣監 : 장수현감)한테 솟장(疏章)을 냈다고 그래요. 관(官)에다가 고소를 했던 거지요. 그래 요새처럼 죄인들을 잡아 다가 넘겨주는 그런기 옛날에도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렁께 안의현감(安義縣監)이 논개 모녀를 붙잡아 가지고는 장수현감한테로 넘겼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경회 현감이 논개 모녀를 불러놓고 재판(裁判)을 해 보닌께, 그 삼촌이라 카는 주달무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너들 모녀는 죄가 없다 하고 무죄 방면(無罪放免)해서 인제 내보냈는데, 그런데 인제 논개 모녀는 어데 돌아갈 곳도 없고, 또 뭐 살아갈 일도 막연했던가 봐요. 그래 이 모녀들이 이왕 내 보내주니까 우리 살길도 마련해 주라고 떼를 쓰닌께 처지가 딱한 걸 알고 최현감이 논개 모녀를 관아(官衙)에서 아니, 내아(內衙)에서 살게, 침방엘 앉혔다 캐요. 공방 침방 뭐 방이 일곱나가 있다 캐요. 이렇게 해서 논개하고 최경회 현감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데요. 거기에 인제 그 침방이란 데 머물고 있으면서 최경회 부인의 눈에 들었던 모양같애요.

논개가 원래 총명(聰明)하고 인물도 좋았다고 했은께 그랬는데, 그 후에 최현감의 부인한테는 깊은 병(病)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오래 더 살 가망이 없어 가주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 인제 마 논개를 앉혀 놓고 부인이 부탁을 했다고 합디다. 그때는 인제 논개도 다 큰 처녀가 되었응께, 그래 가주고 현감 부인은 인제 먼저 최경회 영감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몸도 병이 들고, 인제 명도 얼마 안 남았응께 논개가 어떻냐고, 그래야만 눈을 감겠다고. 그래 가주고는 논개를 불러 앉혀놓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영감하고 후사(後嗣)를 부탁했던가 봅니다.

그렁께 뭐 부실(副室)이라 할 것 같으면, 본부인(本婦人)이 살아 있을 때 같이 살았다 할 것 같으면 부실이 되는기고,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을 버리고 난 연후에 드갔다 카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이 부실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본부인께서 청을 내가지고 그 뒤를 머 후사를 부탁한 거니까 후실이 아이겠습니까? 예예, 그렇지요.

(그러면 최경회 현감하고 논개 할머니가 부부 인연을 어디서 맺었는지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최현감이 장수에 3-4년 있따가 담양 · 영해 등지로 근무지를 옮겨다닌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회를 따라서 같이 다닌 것으로, 우리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부부(夫婦)로 인연(因緣)을 맺고 얼마 안 있다가 최경회 영감이 모친 상(母親喪)을 당해 가지고 그래 인제 벼슬을 그만 두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같이 화순(和順)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그 때 최경회 영감은 논개를 장수로 보냈던가 봅디다.

그러다가 왜란(倭亂)이 일어났응께 처음에는 시묘살이 때문에 거병을 못하고 있다가, 장수 의병(義兵)들이 모두 나서 가지고 최경회 영감을 저들 장수로 그렁께 의병대장으로 모셨답디다. 원래 최장군이 장수 현감으로 있었응께, 그 때 인심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수군민들이 선정비(善政碑)도 세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장군이 다시 장수로 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경상, 저거 마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라 카는 직함(職銜)을 받고 진주(晋州)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의병장으로 가시면서 그 논개, 그 부인마저 데리고 갈라카는 데리고 갈 예정이었는데, 같이 가지를 못하고 먼저 떠나셨더라 캐요. 그래 가지고 먼저 떠나시고 그 뒤에 논개 부인께서 가마를 태워 가지고 가다가 산청(山淸) 오부(梧釜)에서 왜놈들 한테 붙들렸다 카는 일화(逸話)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최경회 장군 다음에 황진(黃進) 장군이라 카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가시다가 그걸 보고 왜놈들을 보고 잡아다가 이 어른을 모시고 갔다 캐요.

그래 가지고 인제 진주에서 진주성에 들어가 가지고 왜놈들 하고 싸우는데, 그 날

이 계사년(癸巳年) 6월 29일이었다 캐요. 그 해 장마가 져가지고 성이 진주성이 그만 무너져서 왜병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최경회 장군이 다른 장수들 하고 의논해서 그만 성이 무너지고 한께, 비가 장마가 나서 그 바람에 진주성이 한쪽에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래 노니께 힘으로 인제 더 이상 왜놈들을 당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뭐 김천일(金千鎰) 장군하고 황진 장군하고 삼장사(三壯士)가 물에 남강(南江) 물에 그만 투신(投身)해서 죽었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죽을 때 최경회 장군께서는 조복(朝服)을 벗어가지고 그 때 조카가 같이 의병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조카한테 관복(官服)을 벗어주면서 고향에 돌아가 형님께, 최경회 장군한테는 형님이 두 분 계셨다 캅디다. 그래 형님께 전하라고 했지요, 관복을.

그래 지금도 화순에는 혼백(魂魄)만 모신 묘소가 최경회 장군 가묘가 있습니다. 그렁께 그 자손들이 여게, 장수에 사는 오치황(吳治皇)씨란 분이 여러 번 이 곳을 드나들면서 논개 할머님 묘소를 찾아내고, 그걸로 해 가주고 그 우에 나란하게 있는 무덤이 최경회 장군 묘소라는 걸 알아내고부텀은 그 후손들께서 일년에 두어 차례 이리로 차를 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최장군이 자결한 후에 논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노이께 인제 논개가 남편이, 최영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벼르고, 뭐 손구락에다가 가락찌를 모두 열 손구락 모두 찌고 왜놈 장수를 유인해 가지고 거 끌고 의암 바우, 남강 가에 있는 그 바우 우로 가서 떨어져서 왜장하고 같이, 그 원수를 갚고 그래 죽었다는 얘기 아입니까? 뭐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논개 할머니를 기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기생(妓生)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증(確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소문이 기생이라고 나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시시하고 묻어버리고 마 족보(族譜)까지 그 사람들 우에 웃대 어른들까지 들어 없애 비릿다 카는 얘기가 있지요. (아따, 훈장의 딸인 데다가 나이 어려서 관아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배웠을낀데, 뭐 기생이 그리 쉽게 되는기가? 또 최영감하고 부부가 되었다 카는데 어째서 기쟁이 될 수 있겠나?) 맞

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잘 모르고 쉽게 하는 소리지요.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로 볼 것 같으면 왜 놈들이 우리 조선 여자들이 얼매나 무서운 줄을 잘 알았다고 봅니다. 그렁께 기생들, 진주 관아에 속해 있는 기생들을 모두 저들 승전(勝戰)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방(榜)을 붙였다고 하지요. 일반 여염집 여자들이 아이고, 관기(官妓)들을 불러서 인제 잔치를 했던거지요. 그렁께 논개도 인제 기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남편 원수를 갚겠다고, 그 왜놈들 잔치에 나갔던 거 아입니까? 지금도 그 의아미 바우라는 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은 진짜 신분이 아니고 가짜, 위장 신분이란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소리는 그런 말은 공연히 사랑방에서 하는 참 이야기꾼이라 칼까요. 사랑방에 그 이야기꾼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좀 지나친 과장된 이야기를 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 분을 정숙(貞淑)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줌 싼 얘기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아입니까? 사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15.

(조사) 곽정식, 김영숙, 김점순

3.

논개가 거… 거시기로 본다커면 전해나온 말로 보면은, 논개를 저 삼촌이 갖다가 주막(酒幕)에다가 논개를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논개 저거 어머니허고 장수 현감하신 '경(慶)자' '회(會)자' 충의공 어른에게 그 사연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 갖고 그 해결을 지어주고 그 논개를 빼어왔어. 그러니까 저거 어머니께서 말하자면, 논개

어머니께서 또 딜고 나가서 살면 그 저거 논개 삼촌이 괴롭게 한다고 괴롭게 할 것이니, 그 그래서 그 모녀가 그 충의공 할아버님 밑 에서 살았답디다. 그 논개 키우기 위해서.

그래 가주고 인자 거시기 경자 회자 할아버님의 시방 여흥 민씨(驪興閔氏) 그 양반이 병중에 뉘어 계실 적에 거시기를 수발을 거시기가 다 했어요, 논개 모녀이. 그래 갖고 그 양반이 여흥 민씨 그 양반이 돌아가실랴면서, "다른 사람을 구허지 말고 이 사람이 착실하고 침착해여, 그러니 그냥 논개를 아내로 맞이십시요." 그래 가지고 맞아들였다는 거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께 인제 여흥 민씨 부인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께 첩(妾)으로 안 봐요. 후실(後室)로 생각허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요. 누가 그런 말 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 단순히 참 왜장(倭將) 청정(淸正)의 목을 안고 떨어지실랴고, 아주 참 너거 따문에 우리 서방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내라도 폭포수를 허것다는 결심으로 기생(妓生)에 뛰어들어 갖고 거시기 하신 것이지, 어려서부터 기생이 아니거든요. 그 어른의 논개 할머님의 그 선고(先考)가 달(達)자 문(文)자라고 해가주고 훈장(訓長)을 하셨다 그래요.

그라고 충의공(忠毅公) 어른의 관아(官衙)에 들어가 가주고 현숙(賢淑)하신, 그 참 아주 점잖아신 부인들깨서 그 예의 범절(禮儀凡節)을 배왔고, 또 엄격한 관아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었고, 그라고 또 착실허고 침착해여,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느냐. 그런 무슨 아주 위급한 상항이 안 벌어지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개 그 할머니께서 기생(妓生)으로 명칭이 돌아간 것은 단지 그 놈, 서방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생에 뛰어든 것이지, 원래 기생은 아니거든요.

(할아버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는 참 그 친정은 인제 출가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집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인제 여자의 생명이 있고 없고인데, 그래 저는 인제 궁금한 것이 최씨 집안에서 후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던 일입니다.) 예, 그래요. 후실로 생각을 허고 해마다 지사를 지내지요.

거시기 여기라도 시방 여 사당에도 그 논개 할머니를 개묘(假墓)를 뫼시고 지사(祭祀)를 같이 잡숩니다. 시월 시사(時祀)를 가묘(家廟)에서 잡숩고, 여기 시방 사당(祠堂)에서는 6월 29일날 충의공 제사 때 논개 할머니도 지사를 같이 지냅니다. 여기서는 거시기 첩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후실로 생각을 허고 여기 사당에서 같이 제사 때면 같이. 그게 마누라가 세 양반이라 카는 뜻이 거든 그 양반이. (예?) 마누라가 셋이나 ㄷ께, 그래서 그 세 양반 을 다. 네 양반을 충의공 할아버지까지 네 양반을 다 뫼시고 참 뫼진(?)이라도 올리고 제사를 6월 29일날 제사를 잡수십니다. 시방 가묘 밑에 마을 옆에다가 나라에서 사당을 지어주고, 저기 한천면 금전촌에 시방 가묘가 있거든. 거시기 충의공 어른의 진짜 묘소는 시방 경남 함양에 있어요. 여는 혼백만 모셔다 가묘를 맨들었어요. 그런 일이 그 사당을 그 저수지 따문에 뜯기게 되었어요.

(충의사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당을 뜯어다가 여로(이 곳 茶智里를 가리킴) 옮ㄱ습니다. 옮기고 시방 충의공 할아버님의 사업을 충의사를 시방 저 동면에다가 시방 새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가주고 충분히 말씀을 대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보) 최영준, 전남 화순읍 다지리, 87세, 농업, 남, 1995. 8. 4.

(조사) 곽정식, 최정식, 민경록

4.

의암 논개 부인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요는 제일 잘 아는 데가 장수예요, 장수. 그럼 장수에서 주장하는 말 들으면 그건 틀림없는, 틀림없어요. 여기는 멀잖습니까? 여그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다 그 쪽 사람들 얘기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멀리 있으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지요. 그러니 장수(長水) 함양(咸陽) 그 쪽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제일 자세한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충의공 최경회 장군하고 논개 부인하고는 인연이, 그러니까 송사 사건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인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되아가지고, 그 저, 형편이 어려워서 올데 갈 데 없으니까 관아에, 그러니까 내아에 충의공 내아에 가서 그 물을 길러 나르고, 하인 비슷하게 가서 있은 거 아입니까? 그렇게 가서 쭉 있다 보니 인자 어디 장수도 가고 어디 담양(潭陽)도 가고 늘 이렇게 다니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다니고, 인자 정실 부인께서는 인자 몸이 건강치를 못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인자 내중에 성숙, 십칠팔세 그 무렵에야 아 그 부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입니까?

아 우리가 과거(過去)에 옛날에 어르신들. 저의 부모님도 열네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우리 선고나 열네살 때, 그 당시에는 열네살, 열다섯살, 거의 그렇게 결혼 안 했습니까?그러고 제 누님도 열여덟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최근이지요. 뭐, 옛날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당시 몇 백 년 전 아입니까? 그 당시에야 뭐 처음에는 시중 들고 다닌 분이지.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야 함양(咸陽)에 그 논개 부인 모친되시는 박씨 부인께서 충의공을 모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충의공을 좇았고, 그래 또 충의공 부인되신 분이 몸이 병약하고 해서 응, 어떻게 모실 수도 없고 하니까 응, 상의(相議)를 해서 논개를 부실(副室)로 맞아들이시요, 최현감 보고 말씀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인자 그럭저럭 지냈겠지요. 최현감 정실 부인 눈에 들었다면 그건 인물이 아주 훌륭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다 저러다 최현감이 모친상(母親喪)을, 최장군께서 모친상을 당하게 되니까 최장군 혼자 고향에 오셨고, 논개를 다리고 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 논개 부인은 그곳에서 머무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곳에서는 잘 모르지요. 최현감이 장수에 있으면서 논개와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초에 알 수가 없었은거지요. 그렇지만 최장군이 장수에서 3년간인가 현감으로 계셨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은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선정(善政)을 했기 때문에, 또 인자 백성들도 숭배(崇拜)했을 것이고,

또 인자 논개와 인연도 있었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좀 달랐겠지요. 그래서 왜란(倭亂)이 일어나고 장수 의병들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장수 월강 평야(月岡平野)에다 장대(將臺), 훈련장(訓鍊場) 말입니다, 장대를 설치하고 훈련을 시키게 되었고, 장수 의병들이 모두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 의병장 최 아무개가 장수에 의병장으로 왔다 하니까고 당연히 논개도 안 찾아 보겠습니까, 최 장군을?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틀림 없는 사실이오. 최 장군이 인자 경남 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떠나실 적에 논개 부인도 물론 인자 따라 갈란다 했겠지만 못 따라 오게 안 했습니까? 아녀자가 어찌 따라올 수 있느냐 했어도 이 분은 논개 부인은 그 아주 특별한 정신을 가지신 분 아입니까? 그 결과로 봐서. 그래도 나는 간다, 단신(單身)으로 뒤에 안 좇아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인 데, 틀림없이 그 분은 최장군 부실인 것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인자 기생(妓生)이냐 아니냐? 그것은 물론 그것은 전설과 마찬가지로 승전연(勝戰宴)에 참여할 때게 기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 놈들이 왜장들이 여자들을 다 모으려고 한 것 이 아니고, 왜장들이 숭전연을 할 때게 기생을 모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할라만 기생 아이면 못 가니까 기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갔을 거 아입니까? 의암(義巖) 부인도 그 승전연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분이 가만 숨어 있었든지, 아이면 성 내에서 같이 싸왔든지 기생들도 그 당시 숭전연에 참여를 했고, 의암 논개 부인도 참여를 했다, 그것은 인 정이 돼요.

인자 그렇게 해서 투강(投江)을 했다. 이거 다 진주 성민한테서 나온 얘기 아이겠어요? 평상 지방민이 다 그렇게 얘길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께 기생으로 가장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진주민들은 진주성민들은 그 당시 진주성민들은 기생으로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한 것이 당연한 소리고, 인자 우리 원칙으로 이 분은 기생이 아니었고 한다는 것은 인자 내중에서 이 분은 충의공 참 부실이었고, 참 장수 출신이었고, 장계 출신이었고, 기생이 아니었고, 장수의 양가(良家)의 그 참 집안 규수(閨秀)였다. 그냥 그렇게 틀림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 조리가 맞아요. 그것이 그래 그 얘기가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상 관기 명단에 등재했다 할지라도 가장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자 그 당시 가장(假裝)해서 들어갔든지 어쨌든지 진주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인자 뭐 냐 기생이었다 주장하는 것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옳아요. 또 기생이었기 때문에 설마 양반도 아이고 일반 선비도 아이고 기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라를 휩쓸고 했다 해서 그래서 진주 성민들이 그렇게 추앙(推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은 말이오. 일반 그 어떤 분의 그 부실(副室)이 해서 그 남편으로 해서 죽었다면 우리 진주 성민들이 이렇게 받들것냐, 개인의 문제이지, 그 말이 옳아요. 진주서 주장하는 것도 옳은데, 인자 그 기생이란 말은 옳은데, 진주서 그 말은 옳은데, 장수 사람이 그 장수에서 인자 남편 최경회를 따라서 온 기생이 아니고 양가(良家)집 딸인데 그건 자기들은 모르고 좌우간 진주 기생이라고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잘못이다. 아, 이것을 알아보니깐 과거 내력(來歷)을 보니깐 이렇게 되얏다, 이렇게 이것이 나와야 할건데 끝내 그것은 주장을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다. 저 생각에는 그래요. 진주에서 주장하는 말이.

(제보) 최재양, 전남 화순읍 향청리 46번지, 65세, 남, 1995. 8. 4.

(조사) 곽정식, 최정식, 민경록

5.

지가 12살 때 이리로(朱村)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移徙)를 와 가지고 이 마을에서 여태 살았는데, 그래 마을 어른들한테서 들은 얘긴데, 원래 논개님은 이 마을 진사(進士) 어른, 그 당시 훈장(訓長)이지오. 이름이 달(達)자 문(文)자라고, 그 어른이 처음에는 조리 보이는 산 너머가 바로 경상남도 함양(咸陽) 땅인데 여리로 오기 전에 거서 살았다고 그럽디다. 그래 여리로 오셔 가지고 훈장을 하고 지내는데 그

어른의 따님으로, 그래 달문이란 분의 따님으로 태어났는데, 그 앞에 대룡(大龍)이라 카는 아들이 하나 있었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열다섯살이나 돼 갖고 그 무슨 병(病)인지 뭘로 중간에 죽었답디다. 그래서 그만 그 훈장 어른 내외 분이 절로 들어가 가주고 저 너메 영각사(靈覺寺)라 카는 절이 있어요. 거서 그래 불공(佛供)을 빌어가 가주고 논개(論介)님을 낳았다 그럽디다. 그러이 논개님이 무남독녀(無男獨女)라고 그러지요, 그래 태어났답니다.

태어날 때 그 뭐 사주(四柱)같은 걸 따져 보니까, 갑술(甲戌)이 네 낱이 겹쳤더래요. 그래서 띠가 개띠니께 개를 났다고 논개, 그 훈장 어른이 이름을 그래 지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논개님은 어릴 때부터 훈장, 아버님이 훈장이니까 훈장 어른한테서 글을 한문(漢文)을 배우는데, 그렇게 영리했다고 그럽디다. 논개님이 얼매나 영리했던지 훈장 어른이 출타해 가주고 집에 안 계실 땐 대신으로 글을 가리치고 그랬데요. 그랬는데 그만 그 훈장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고, 아, 참, 부친이 병이 들어가 가지고 앓고 누어 있을 때도 논개님은 그 때 아주 어릴 땐데도 아주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했다고 그래요. 그래 뭐 피를 내서, 그 어린 손가락에서 피를 내가주고, 왜 그런 얘기 안 많습니까?

그래 고만 훈장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래 되니께 논개님은 모녀가 남아서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어릴 땐데, 삼촌되는 이가 아주 놈팽이 겉은 삼촌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삼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삼촌이 김풍헌(金風憲)이란 사람한테 재산이 많은 부자(富者)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돈을 많이 받고 팔았다고, 그런께 그 부자, 김풍헌이 부자가 돈을 많이 주고, 논개님이 인물이 아주 좋았다고 하니까, 영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런데 김풍헌의 아들은 본래 곰배팔이고 좀 뭐 어디가 모잘랐다고 그러지요. 하여튼 그러이 논개님 모녀가 그걸 알고는 요 건너편 산 너메 함양으로 거가 외가(外家) 곳인데요, 그곳으로 도망을 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뭐 김풍헌이 가만 안 있었다 캐요. 논개님 모녀를 걸어서 관(官)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이 처음엔 논개님 모녀가 붙잡혀 와 가지고 재판(裁判)을 하는데, 그 때 이 장수현감(長水縣監)이 있었는데, 그 현감이 재판을 해 가지고 논개 모친을 머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그러자 이 어린 논개님이 울면서 앞으로 나오더이만, 현감 어른이 떡 앉아 있는 데로 앞으로 나오더이만, 어린 논개가 손으로 요래 싹싹 빌면서, 자기 모친을 대신해서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살게 해 달라고 그래 나섰다 캐요. 그러다 보이께 현감 양반이 그만 어린 논개님의 효성에 감동(感動)이 되가주고 방면(放免)을 그 풀어주고, 그래서 논개님 모녀가 현감 하고 현감 부인한테 마음에 쏙 들었던가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이 현감 부인께서 그래 뭐 논개님이 아주 어리지만 서도 총명(聰明)하고 영리하고, 또 그 뭐 인물도 아주 훌륭했다거든요. 그래 친자식같이 보살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해가 있다가 인제 논개님이 나가 몇 살 더 먹었지요, 그 새에 현감 부인께서 병이 들어가주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께 논개님을 불러서 손을 꼭 지고는 후사(後嗣)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 두 분이 부부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인자 왜놈들이 쳐들어 와 인자 난리가 났잖아요, 임진년(壬辰年)에? 그래 난리가 나고 본께 여기 장수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가주고 의병(義兵)을 모았는데, 최(崔),…그 뭐 전에 여기 현감하던 어른 (최경회 장군요) 예. 최경회(崔慶會) 장군 그 분을 장수현감 시절에 논개님 모녀를 거두어 주신 어른이신데, 그런데 그 분이 그 때는 고향이 화순(和順)이신데, 거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셔 가주고 상복(喪服)을 입고 시묘(侍墓)살이에 들어갔는데, 여 장수 의병들이 그 어른을 모셔서 장수(將帥)로, 의병 장수로 모셨답디다.

쁘래 노이께 그 어른이 여기로 장수로 다시 와가주고 의병들을 훈련(訓練)시킨다고, 그래다가 무슨 큰 공(功)을 세우셨던가 봐요. 그 공을 세와서 그 공으로 그 저 절도사(節度使)라든가 하는 벼실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진주(晋州)로 가게 되었답니다. 진주로 가 가주고 최 장군은 그 진주에 성(城)이 장마에 무너져서 죽고, 그

만 그러자 논개님은 왜놈들을 남편을 죽인 원수니께 이놈들을 한 놈이라도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 쓰것다고 벼르는데, 그 거기에 방이 하나 붙었대요. 기생(妓生)들을 저놈들 술잔치에 참가하라는 그런 기방(妓房)에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수안 기생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이름을 나는 장수 기생이다, 그래 논개 이름을 올려달라고, 기생으로, 그리 부탁을 해 가주고 그래 칠월(七月) 칠석(七夕)날 왜놈들 술잔치에 나갔다고 그러지요. 열 손가락에다가 전부 가락찌를 찌고 그래야지 나중에 깍찌를 끼도 손이 안 빠진께,

그리 해 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왜놈들 장수,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 인제 그 놈을 유인(誘引)해 바우 우로 자꾸 유인해 가주고 물에 빠뜨려 죽고 논개님도 죽고, 그래 남편 원수를 갚고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그 논개님을, 여기 참배(參拜)하로 생가(生家)를 참배하로 오는 사람들 중에, 일요일이나 공휴일같은 땐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중에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보면 술을 묵고, 벌써 여 들어오기 전에 술을 묵어 가주고 얼굴이 벌겋게 해 가주고 취해서는 술을 가주고 와서 술을 요 앞에 놓고 "술 한 잔 따라라, 이 기생아 술 따라라." 하면서 그래는 걸 보면, "그런 행동할라거든 다시는 여 오지 마소, 어데 논개님이 기생이가." 하고 막 욕을 해줍니다.

(제보) 이선옥,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논개생가, 65세, 여, 1995. 8. 12.

(조사) 곽정식, 최정식, 민경확

6.

요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밑에 바우가 의암(義巖) 바웁니다. 저기 저 (손으로 가리키면서) 관(官)에서 써붙인 걸 보면은 틀렸어요. 관에서 한 기 틀린 거고. 거 보면 위태로을 위(危)자, 그래서 본시 의암(義巖)이라 카기 전에 위암(危巖)이라 했

다고 캤는데, 그기 틀린 겁니다. 옛날에는 본시 부암, 뜰 부(浮)자 부암(浮巖)이라고 그리 불렀어요. 지가 올해 일흔넷인데 여기 진주(晋州)서 나갖고 여서 이 장사를 한 오십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가마이 생각해보면 사실이 그렇기 밖에 될 수 없는기 왠고 하니, 저 간판에 보면 저 물 가운데 들어 있는 바우가 이리로 이 큰 바우 한테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고 안 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러이까 위암(危巖)이 아이라 부암(浮巖)이라 캐야 맞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바우가 사실은 이 쪽에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이고, 우짜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오르면 이 쪽 바우하고 저 바우하고 자연 새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또 날이 가물아 가지고 물이 줄면 반대로 이 쪽 저 쪽 새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저 부암이 밑에 바닥에는 이 큰바우에 붙어 있어요. 그래 바우가 서로 벌어졌다 좁아졌다 카니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우가 이리로 붙었다 떨어졌다 카고 그래 쌌지요. 그래 이 바우를 부암이라고 불러 왔는데, 그 저 임진란(壬辰亂) 때 왜놈들이 여 진주성(晋州城)을 보름 동안 이나 포위(包圍)를 해 가지고 여 성민(城民)들 하고 의병(義兵)들하고 관군(官軍)들 하고 마 이래 가주고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당해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때 삼장사(三壯士)라고 세 장수가 술 한 잔씩을 하고 죽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 중에 최병사(崔兵使)라고 하는 분이 기셨어요. 전라도의병장(全羅道義兵將)으로 여기 진주성에 참전(參戰)을 하신 분인데. 그 어른이 여리로 올 적에 논개 부인(論介婦人)도 같이 따라 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최장군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때도 뭐 북향재배(北向再拜), 임금님한테 고(告)하고 그래 여 남강(南江) 물에 떨어져 죽었데요. 그래 되니까 논개 부인은 인자 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 별르고 있었는데, 그 때가 6월 29일날이었지요, 그 최병사가 돌아가신 날이.

그런데 이 왜놈들이 이자 이겼다고 마 크게 잔치를 벌이는데, 여 인근에 있는 기생(妓生)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 여… 우에 가면 촉석루(矗石樓), 본시는 촉석루를

남장대(南將臺), 남장대 말고도 북장대(北將臺), 서장대(西將臺)가 또 있어요. 그래 남장대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바깥에는 촉석루라고 써붙이 놨지만, 안에는 아직도 남장대라고 그래 해 놨어요. 나중 가시다가 한 번 보소만. 그래 여 남장대에서 칠월(七月) 칠석(七夕)날 승리(勝利)한 기념(記念)으로다가 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그 자리에 기생으로 꾸며가지고, 그래야지 원수를 갚을 거 아입니까? (본래는 기생이 아닌데 ?) 예, 기생이 아이지요. 그렁께 거짓으로, 원수를 갚을라고, 원수를 갚아야 된께 꾸몄지요.

그래서 논개 부인이 또 여서 응, 왜장 그 이름이 털 모(毛)자, 골 곡(谷)자,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 마알 촌(村)자, 도울 조(助)자, 그 왜놈들 말로는 게야무라 로꾸스께라 카는 놈을 머 참 열 손구락에다가 옥가락찌를 전부 찌고서는 인자 여리 부암(浮巖) 바우 우로 유인(誘引)을 해서 술로 잔뜩 믹여서는 춤을 추자면서 자꾸 유인을 해가지고, 그 왜놈 장수(將帥)란 거는 인자 술이 잔뜩 취해 갖고 인사불성이 됐는 거지. 연약한 아녀자가 안 그라먼 그 놈을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 고만 이 물속에다가 밀어넣었어요. 인자 그렁께 남편 원수 갚는다고 의암 부인이 그랬는데, 그기 바로 나라 원수 아입니까? 젊은 나이에 그 저, 충렬(忠烈)을 바치신 거지. 요새 같으먼 어림도 없을꺼 아입니까? 전부 지 몸 하나만 생각한께. 여 와서도 아나 어른이나 논개, 논개 해 쌌는데 그러만 안 되지요.

(의암 부인께서 투신 하시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 잘 모르지요. 이 강이 지금은 물이 많이 줄었읍니다만, 물이 많이 찰 때는 여리 저 의자 있는 뚝까지 물이 올라 와요. 그래 해마다 한 해에도 여러 사람이 죽어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 저 어디 해명(咸陽) 어디 산소가 있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보) 허덕환, 경남 진주시 촉석루 매점, 74세, 남, 1995. 10. 7.

(조사) 곽정식, 김영숙.

7.

여 진주(晋州)에서 나서 진주에서 컸응께, 요 머 요 밑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의아미(義巖) 그 논개님 잘 알지, 잘 아는데, 이 어른이 전라도(全羅道)에 기셨거든응. 전라도 장수(長水)라 카는 데 장수 그 가면 응 장계(長溪), 장계에서 나셨어요. 신안 주씬(新安朱氏) 데 그렁께 주자(朱子) 모두 주자 후손 아입니꺼?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 다.) 그래 그 아버님이 달무(達武)라 카는 분이 기셨는데, 이 어른이 훈장(訓長) 어른이었던 거요. 그라이까 인자 그 머 의아미 부인이 어렸을 때게 훈장 어른한테서 글을 마캉 동네 아들하고 같이 배우는데, 응, 이 어른이 아주 총명했다 말입니다. 그 때는 한문(漢文)을 배왔다 아입니까? 한문을 하는데, 그 재주가 그러키 좋았다오 그럽디다.

그리고 이 어른이 아주 그 인물이 썩 잘 났지요. 인자 그러이까 나중에 요 의아미바우(義巖)에서 왜놈 장수(將帥)를 유인(誘引)해 가주고 막 물 속에 안 빠졌습니까? 으이 인물이 안 좋았이면 어째 왜놈 장수를 유인했겠나 말입니다. 그러이 여 사당(祠堂)에도 가보면 알 깁니다만 논개님 인물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고만 즈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그러이 막 집안이 기울러진 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어른이 그 남의 집 인자 좀 잘 사는 집에 가서는 응 저 머 식모(食母) 비슷하기 그 심부름같은 것을 하면서 살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여기 이 진주성(晋州城)이 무너지기 전에 삼장사(三壯士)라 카는 분, 그렁 깨 해마다 6월 말에 요 사당에서 지사(祭祀)를 뫼십니다. 그 최 장군(崔將軍)이라 카는 분이 인자 의병장(義兵將)이 돼 가지고 전라도에서 여리로 왔거든요. 그러이까 이 어른도 여리로 오셨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얘, 그 저 논개 어른이 그 때 같이 따라 오셨단 말입니더. (그럼 최장군하고 논개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까?) 이 어른이 그 저 전라도에서 오셨응께 그러이까 잘 몰리는 기지. 잘 몰르긴 하지만 여서 이 진주성에서 돌아가 신 최장군 후처라고 그렇기 모도 알고

있습니더. 그러이까 이 어른께서 남편을 따라서 여리로 오신거지요.

그래 그 당시로 말하자면, 여리 진주성을 왜 놈들이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지 나가게 둘러쌌다 말입니더 그래 인자 성 안에 여 의병들하고 여 백성들하고 6만명이 인자 그 왜놈들을 막아낼끼라고 보름 동안을 싸왔다 아입니까? 그런데 그 머 6만명이 왜놈 10만명하고 싸우는 긴데 고만 6월 29일날 그믐날 성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래 노이까 왜장 청 정이 승전잔치를 벌린다고, 요 바로 촉석루 다락 우에서 열었는데, 그러자이 이 어른이 원수 갚틀라고 기생 대신으로 들어가서, 기생이 본시 아인데, 기생이, 그 저, 본시 기생이 천한 기 아입니더. 귀할 귀자, 똑 높은 사람한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귀타, 그기 예전에 신라 때 이 전부가 마 그래 할라카지 머 일하고 달코 그래 여자 들이 안할라 쿤께네 천한 사람으로 말로 지으라, 그래서 인자 기생이라고 됐커요. 원래 귀할 귀자 귀생, 높은 자리에 똑 장관들 한테 노는 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인자 기생을 꾸며서 장수 기생이라고, 기생 대신으로 들어가서 왜장을 안고 여 의아미 바우라고 안 있습니까? 술로 아주 독한 술로 한 병 가지고 인자 그 가서 먹자고 이래 가지고 믹여놓고 믹여 놓고 마 고만 목을 안고 그 의아미 바우 밑으로 가 떨어졌단 말입니더. 그래 인제 약조를 해 놨지 응. 버꿈(거품)이 올라오거들랑 응 씨이(쇠) 도리깨를 가이고 있다가 무조건 막 들이 보리타작 하드끼… 막 패고, 붉은 피가 올라오거들랑 하지 마라. 이래 놨는데, 막 버꿈이 올라 오는 걸 가주고 붉은 피가 올라오는 긴 중 알고 타작하드끼 마 뚜드려 팼응께. 자기는 떠올라오는 긴데 (누구요?) 으이, 이 어른 말입니더. 저 놈은 독한 술을 먹어논께 우찌 된 중도 모르고, 몰랐거든요. 뭐 이게 물인 중도 모르고. 그래 고만 자기도 이 어른도 열반하셨지, 그같이. 역사가 여 보면, 촉석루 여 안으로 마캉 다 써붙이 놨지. 지가 여서 나서 여서만 쭉 살아 왔는데 올해 90살입니더.

(아, 그런데도 참 건강하십니다, 할아버님.) 예, 귀가 좀 안들리고. 그래 여 모도 보만, 여 뭐, 이기 뭐 운제 지었니 이래 씨부리싸도 요기 을해 육백 구십 몇 년입니

다, 이 집(손으로 촉석루를 가리키면서) 이, 이 집이 그 안에 개조한 지가 대동아전쟁 때 싹불로 질러버렸어. 허물어졌어. 요 한사 십 한 칠년 됐습니다, 개조한 지가. 모도 맘대로 씨부리싸만 말짱 헛소리 씨부리, 가만 듣고 앉았으만.

(제보) 주차홍, 경남 진주시 본성동, 90세, 남, 1995. 10. 7.
(조사) 곽정식, 김영숙.

8.

할머니가, 논개 할머니가 애당초 진주로 올 때게(때에) 김천일 장군하고 그래 진주로 넘어 왔단 말이제. 넘어 와 가지고서, 그래 인자, 전장을 안, 전쟁이 안 났는가? 났는데 김천일 장군이 이제 전장을 하고 그마 힘에 부대껴(부치어) 갖고 인자 자기가 넘어져 인자 죽어 삐리고 나니깐, 너무 기가 맥히거든. 기가 맥히니깐 이 할머니께서, 논개 할머니께서 참 전장을 할끼라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하니간, 치매에다가 돌을 싸 가지고서 여어기 성 우에서 인자 요 밑으로 내려다 보고 던지고 물을 끼여(끓여) 가지고서, 인자 그 성에 올라올라고 쿠는 사람(왜병)을 못 올라오도록 말이지 인자 지가 물을 끼여서 붓고 이래 쌓다가 가마히 생각해 본께네, 마. 이래 갖고도 도저히 안 되는 기다 싶어서 그래 인자 여여(여기에) 호국사(護國寺) 절이 있어. 여게, 여 뒤에 그 있는데, 호국사 절로 인자 가 가지로 빌더라.

아무래도 이래 갖고 안 되겠은께, 우리가 어쨌든, 어쨌든간에 작당을 해 가지고서 저 사람들로 갖다가 이길 방법을 찾아 보자. 그래 갖고 인자 호국사 절하고 저어(저기) 가몬 의곡사(의곡사) 절이 있거든. 그래 의곡사절 하고 두 군데 (곳) 댕기면서(다니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호국사 절에 다 말을 그래 놓고 의곡사 절로 들저가 가지고 마 그냥 입으로 해서는 안 된께 술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을 좀 하도록 어떻기 해 보자고 그래 인자 주위 사람을 시켜 갖

고 술로 인자 안주를 맨들어(만들어) 결국 말하자몬 소주로 만들었는 기라. 그래 가지고 인자 안주를 조끔 맨들어 가지고, 그거로 인자 이리로 가지고 온기라. 가지고 올 때에 숨어서 숨어서 그 밤에 인자 소주고 안주고 대기를 해서 그래 놓고 저 김천일 장군하고 올 적에 군사들이 인자 밑에 있은께 신하들이 안 있는가베? (예, 예.)

그 사람들이 인자 서이서(셋이) 살아갔고 있었거든. 그래 인자 그 사람들 셋하고 이 할머니하고 같이 작당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걸, 작당하고 댕기다가 그래 인자 결국은 대장을 내가 이용하게 될 때는 당신네들 옆에서 그걸 잘 좀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걸, 그 약속을 하고 그래 하던 날 하리 저녁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요기서 내가 인자 술을 한 잔 묵게 된다는 그 긴피(기피)를 알았단 말이제. 그래 인자 이 논개 할머니께서 알고는 그날 인자 그 당시에 인자 가 그 일본 병사들이 와서 인자 가 와서 술을 먹고 모두 인자 앉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리 할 때게 이 할머니가 여어가(여기가-조그마한 석산(石山) 이라.

이 자리가. 인자 저기는 추석루고. 그래 석산 요서(여기서) 요거 요거 시방, 꽃나무 있는 저쯤 서 가지고서 술을 묵고. 한참 재미나게 놀고 술이 근 반쯤 되어 갈 때게 그때 인자가 거어 나타나 서 갖고서, 기생을 인자 가장(가장)을 해 갖고, 그 그 원래 기생 노릇한 것도 아이고, 가장해 가지고 인자 나타나 갖고 그래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래 그 일본 그 눔이, 장군이 인자가, "어이, 그 놈은 내가 장군 임자다." 요리 채리보니깐 뜻밖에 웬 미녀가 나타나니껜 깜짝 놀란 기라. 그래서, "저기 웬 사람이냐고 ?" 이리 물은께, 그래 이 할머니가 손을 쳐서 그 사람 보고. 말은 통하지 않은께 그런께 저 웬 사람이냐고? 이리 물은께, 그래 이 할머니가 손을 쳐서 그 사람 보고. 말은 통하지 않은께 그런께 저 웬 사람 이냐고 가 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생이단 말이야.

그런께 얼마라도 당신들하고 놀 수가 있으니까 그런께네 장군님하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자 그 신하 사람이 그걸 갖고 인자 그 인자 대장한테 인자 전해 줬단 말이지. 그런깨, "아, 그라먼 좋다,"고 그란께, "아무도 필요 없고 그 대장만 좀

보자."고 말이지, 그래 갖고 그 분이 나타나니깐 이리 오라고 그런 거로, "거 꺼정은 (거기까지는) 내가 갈 수 없고 이리 오라고. 내가 이얘기가 있다고." 그래 갖고 인자 온 거를, "내하고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자."말이지 그란 께네, "어디로 갔으면 좋것느냐 ?" 고 그런께, 요 밑에 인자 바우를 가리키면서 그래 인자 이 문이, 오른손 편으로 요리 가면 그 문이 하나 있어. 그래 인 자 그 문을 인자 지수문(지수문) 이라고 그래 손가락으로 가르킨다고 거어.

그래 지수문 그런께 인자, "그 문으로 내려가서 그 바우에 가서 우리가 한 잔 먹자." 그런깨 인자 여어(여기) 세 사람을 시겨 놓기는 좌우간 거기다 음석을 채리놓고 준비를 해 왔단 말이제. 그러면, "만약 술을 먹고서 권커니 잣커니 먹고 있다가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안고 떨어질 때는 당신네들 서이는 이 바우굼턱에서 (틈에서) 숨어갖고 있다가 딱 떨어지거든, 팍 솟아 올라오니깐 솟아 을라오며는, 당시에는 이 쪽편에서는(왜군측이) 군사들이 많으니깐 연해 (금방) 건질란지도 모르니깐 무조건하고 세 사람이서 내가 팡 빠지거든 바오 새 틈서기 (틈에) 찌이 (끼어)갖고 있다가 연해 나타나갖고서 창을 갖고 쑤시란 말이야. 솟아 올라오는 사람을 창을 갖고 자꾸 내리 쑤셔대라." 쿤께네 죽이란 말이재.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대차 풍 빠지니까 푹 솟아 오르니까 창을 가지고 냅다 쑤신 기라. 쑤시고 난께 쑤신 자리서 그마 이 세 사람이서 그마 같이 떨어졌거든. 안 떨어지고 보니 이 군사들한테 죽을 끼거든. 그러니깐 같이 인자 그 세 사람 역시도, 죽고 내나 할매도 돌아가시고 그래 인자가 뭐슥한 기라. 그래 역사적으로 봐서는 인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자 보지는 안했지만도 그 역사적으로 대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래 인자 그리.

(제보) 이은정, 경남 진주시 촉석루 논개사당, 65세, 여, 1980. 8. 12.

(조사) 정상박, 김현수

9.

관기(官妓)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거는 관기가 아이다. 그 뭐 장수(長水)에 있던 사람인데 최경회(崔慶會) 씨가 자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 혼장의 딸이다. 가난한 선비의 딸을 최경회 선생이 소첩(少妾)을 두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관기다, 여는 관기라고 돼 있십니다. 그래 의기 사적비(義妓事蹟碑)라고 비가 있어요. 거(거기) 보면 늙은 관기 애나 딱 붙이 놓고 있입니다. 우리가 관기가 아이고, 그기 중요한 거는 아이지요.

우쨌건 최경회씨로 딸아온 거는 틀림없어요. 장수에 있다가, 이 분이 요게 와시가지고 가야무라 로구스께(毛谷村六助) 왜놈 장수하고 의암 바위에서 죽었는데, 그때까지 의암이 아니지요. 죽었는데, 저 분이 같이 죽은 대상은 해방 후에 상당한 시간까지도 가등청정(加藤清正)이라고 되어 있십니다. 지방에서는, 가등의 목을 안고, 노래가 있고, 이 뭐가 있는데, 다 가등의 목을 안고 이리 되었는데, 이게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일본 역사하고 모두 이(두 손바닥을 겹치면서) 비춰 볼 때 가등청정이는 분명히 일본에 가서 구마모도 성도 쌓고 뭐, 저 뒤에 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었다고 쿨라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꾸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것은 누냐 ? 가야무라로구스께다. 가등청정이의 부하 중에 힘이 제일 셉니다. 전국역사대회 나가 가지고 아주 힘으로써 당연히 일등이 될 텐데, 가등청정의 부하라서 져 됐다고 이리 돼 있입니다. 가등청정의 부하가 돼 가 있어요. 풍신수길이가 내 부하가 되라고 했을 때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내하고 씨름해 가지고 이기면 말이지, 부하가 되어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풍신수길(豊臣秀吉)도 자기 역사(歷史)를 하나 안 내것어요? 그러는데, 다 집어던지고 가등청정이 부하 옆에 뭐 넘이 볼.때는 그리 힘이 강한 역사(力士)도 아닌데, 져 줬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가등청정이 부하가 되었다. 이런 이얘기가 즈그 야사(野史)에 있십니다.

그렇다 쿠며는 가야무라 로구스께가 얼매나 힘이 센 인재였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진주 성민(城民)이 높은 고개나 이런 데서 싸우는 걸 봤을 때 그 당시는 힘세고 (두손을 벌리면서) 긴 칼 들고 말 잘 타고하는 그기 영웅이니까, 그걸 보고는 저 놈이 가등청정이다. 가등청정이가 제일 세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제일 센 놈이 누냐? 그 당시에 보몬 가등청정이다. 죽은 놈이 누냐? 내나 그 놈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등청정이 틀림없이 죽었다. 요 (가슴을 가리키면서) 명패 써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쭉 나오다가 일본 역사에 그거는 가야무라 로구스께 이리 돼 가지고 지금은 뭐, 이 쭈서도(이 쪽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가야무라 로구스께라고 돼 있습니다.

(제보) 박세제, 경남 진주시 본성동 496번지, 64세, 남, 1980. 8. 20.

(조사) 류종목

10.

진주 삼장사의 한 분인, 세 장수 최경회, 경사 경(慶), 모을 회(會). 그 분에 대한, 그이가 진주 함락할 때 장수 한 분 아니었읍니까? 의기 논개(義妓論介)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최경회의 후첩니다, (예, 그런 기록 이 있습니까?) 아, 있지요. 최장사의 후처였다. (논개와 최병사와의 로맨스같은 것도 있겠지요? 들으신 것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임란이 나기 전에 최경회가 전북 무주죠. 무슨 고을이라고 했더라 운봉. 운봉은 남원 고을이 이라더거든 운봉의 영장으로 있었습니다. 영장도 있었고 현감으로도 있었어. 원래 논개는, 주논개요. 성이 주씨요, 붉을 주(朱)자 주씬데,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선비로서 훈장을 하고 계셨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 논개.

그런디 성년할 무렵에. 어머니하고 모녀가, 그런디 삼촌이 하나 있었는디 술주정뱅이여. 그런데 어느 부자한테, 아들이 없는 부자한테, 부자 늙은이한테 돈을 받고 팔았어. 상의도 안하고 어느 부자 늙은이한테 돈을 받고 상의도 안하고 팔았어. 그

러고는 들통이 나니까 행방불명되었어. 때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하고 돈을 건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디, 젊은 딸을 노인한테 팔려가 후처 노릇하기가 억울하니까 관가에 호소를 했어. 관가에 호소 가,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발악하고 안 가니까 저쪽에서 산 사람이 관가에 호소를 해 버렸어,

그래 그 땐가 현감으로, 그 때 그 일을 최경회가 담당했어. 맡았어. 그러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때의 풍습으로 해서는 삼촌이 되았건 누가 되았건 돈울 받고 매매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더라면, 정리상 소지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구지해 줬어. 구지해 줬는데 그때 최경회도 상당히 나이도 느즈막하고 본처가 노병으로, 신음으로 동헌에, 관가(官家)지, 기식을 하면서 모녀가 병간도 하고 주종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처녀가 가정 교육이 잘 되었단 말야. (논개 말씀입니까?) 논개가.

그래서 병들어 있던 최경회 본부인이 후처로 추천한 거여. 자기 대신 그렇게 해갖고 인연을 맺었어. 그렇고 손도 없고 그런게 손을 볼 모양으로. 그러자 임진왜란이, 그러자 최경회는 병사로서 발령이 나갔고 진주성, 그래 인자 일본이 예전에 대패한 일이 있었거든. 그렇지. 그 앞에 설욕전을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 때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리 남원쪽으로 그리고 여러날 견고한 수성을 하니까, 부득이하니까 삼장사(三壯士)라고 하는 이들이 촉석루에서 그랬는디, 그 무렵에 최경회 장군을 뒤좇아 갔어요. 성 안에 있는, 함락이 되어 버렸단 말여. 비통해 젖어 있고, 논개 그래서 의기 복수, '한 사람이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점령군이 진주성에서 전승 축하연을 하게 되었어.

축하연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잔치니까, 술따르고 시종할 수 있는 관기를 광고로 붙였어. 하여간 왜장한테 접근해야 무엇인가 복수의 실마리가, 왜장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생이 아니면서, 기적에다 기생 명부에다 등록했어. 관기 그전 명부를 보니까 논개라는 것은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없으니까, 너는 관기가 아니다." "아니 나는 진주 관기가 아니라, 북쪽 전북 임실 관기다." 지명은 확실히 모르겠는

데, 진안 논개사당이 있다고 그러던데, 인자 관기라 해서 기생으로 되어가지고 축하연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지라, 좀 지위가 높으고 지위가 같은 대장한테 접근을 했어. 미모도 좋고 그랑께, 하루 내에 술을 적장 하나를 같이 콤비가 되어갖고 늦께까지, 지금도 가면 성 밑에 가서 남강가운데 사람 하나가 폭 건너 뛸 만 한 바위가 있는지라, 의암(義巖)이라고.

거기에, 그리 유인을 했어. 거기서 한번 놀자고. 의암, 바위 암자(巖) 의로울 의(義) 술에 만취되어가지고, 또 논개의 미모에 혹해 갖고 자기 독차지 여기로 그렇게 접근을 했고, 마음 놓고 갔단 말여. 어울려서 춤춤뎃기 하다가 싹 안고 물구비치는 장마에, 아까 물이 불어 갖고 탕류가 도도히 흐르는데, 꽉 잡고 뛰어 내렸어. 그래서 저 복수를 했어. 인자 그래서 의기라는 말이 있지만, 그 때 기생으로 형상을 해 가지고, 역사적, 지금 그 적장이 개아므다아르고(毛谷村六助)라고. 그 때 총 지휘장 풍신수길이가 그 소식을 듣고는 개아므다 집을 모곡촌육조라 파문을 해 버렸어. '무장이 말여 계집애 가깝게 지내다가 개죽음을 했다." 해가지고 모곡촌가(毛谷村家)를 파문이지.

일본놈의 사무라이 계급에서 평민화시켜 버렸단 말여. 그건 아주 무사계급이라 하면, 사무라이의 무사계급이라면 해방 후 모곡촌의 몇 대 손인가는 몰라도 자기 후손들은, 그 집은 역사가 그 불명예스런 시체를 못 찾아갖고 물론 논개 시체도 남강가에 모래 한 줌을 담아다가 지고 가묘에다 썼다. 가문의 전통은 우리들 생각과는 틀려. 외면으로 보는 것은 틀려. 그런데 그 최경회 장군이, 그이가 출신이 삼천리 출신이고, 석 삼(三)자, 내 천(川)자, 그 형님들도 역시 여기서 왜병들한테 순직했어. (그 집안이 충절 집안이네요. 그 집안 후손들이 계십니까?) 있지. (어디?) 삼천리도 있고,

그래서 오성산이라고 한게, 북면 오성산에 가면, 그 때가 정유재란 때라고 하는데, 임란 초란 때는 화순이 점령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수군 때문에 요쪽 남쪽은 발을 못 디뎠거든. 그래갖고 나중에는 복수해 갖고, 이순신 장군을

원균이 모함을, 죄인이 되고, 첩자가 있어가지고 일단 파직시 되고 백의종군하게 되는데, 죄인이 되고 첩자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백의종군하게 되는데. 그 틈에 요 진주로, 남으로, 화순으로, 그때는 화순읍으로 형님의 형님 두 분 있었는데, 화순서 의병을 모집해서 500명 모집해서 항전을 했어. 오성산에서. 산성은 아니지만 산세가 험난해 항쟁을 하다가 역부족해서 순절했죠.

능구 한천이라는 데 가면 최경회 장군 사우(사우)가 있습니다. 문공부에서 재산 1억을 들여가지고 세울려고 하고 있지요. (능주 한천에다 사우를 세우신 근거가 있나요?) 후손이 거가 살아. 그래갖고 원래 유림들이 자발적으로 사당을 지어놨어요. (원래 최장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후손들이 거기가 살아서.) 예.

(제보) 조용조, 전남 화순읍 연양 2리, 60세, 남, 1984. 7. 24.

(조사) 김균태. 강현모, 박회봉

11.

진주는, 진주 생기고 이놈들(임란 때의 왜병을 뜻함)은 진주에 상륙해 가지고 성을 절딴내삐고 난 뒤에 삼장사(三壯士) 가마이 생각해 보이끼로 저 놈 뭐 총칼 뭐 여 창칼 겨와 창이라고 생긴 것 가지고는 당할 도리가 없거덩. 삼장사 서이 다 안죽었는가베 최경애, 김천일, 그 또 누고? … 삼장사, 서치. 서이 일배다 소지, 장강수라, 술 한 잔쓱 먹고,

"저, 그러마, 우리 저 강에 가 빠져 죽자."

진주 남강 말이지.

"빠져 죽자."

이대로 젊은 놈이 죽기는 원통하고 '일배는 소지 정강수라' 카고 그마 서이 다 삼장사 물에 빠져 죽어삐린다. 그런 뒤, 그런 뒤 천일의 첩이 누군고 아니라. 그 뭐시

고 진주 기생 이해 밍, 이해밍, 논개라 말이라. 이름이 논개지. 이 논개가, 논개가 가마이 생각 해 보이, 저거 가장 저놈들 땜에 죽어삐릿네, 그래 그 때 한 아백이 하고 뭐시 하고 두 놈이 그래 진주를 점령을 해 가지고, 신실을 하고 있단 말이라. 그래 논개가 그 놈들을 한테(한 곳에)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참 저 놈들 마음 좋게 해가지고, 술 믹이가지고 춤을 추민성 뺑뺑이를 디리 돌면서, 이얌 바우 위에다가 바우 위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춤을 출 때 우짜노 하마, 열 손가락에다 가락지를 전부 끼 가지고. 한 아백이 하고, 김천일이 하고, 아이 한 아백이 하고 뭐시 둘이 양쪽 손에, 이래 저 손가락 넣고 니 손가락 넣고, 양 쪽에 사람이 안 있능가. 저는 가운데 섰고, 한 아백이하고, 왜장 또 한 놈하고 그래 술을 잔뜩 먹이 가지고. 뺑뺑이를 디리 돌다 뒤로 장작배기, 이암 바우 위에서 그마 뒤로 장작배기했단 말이지. 이 놈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 아백이랑, 놈은 물을 헤치고 일어 날라카네. 마 내가 죽어도 못 놓겠다. 그마 뒤로 자빠져삣어.

그래 내재짜로 마 자빠져서, 그 놈이 죽어져삐리께로, 그 밑 이하는 뭐 어 째 절딴 나삐리는 기제. 그 뭐 김득령이 절딴 내삐고 고마 그러구러 평죽이를 고때 김득령이 저거 왜장 청정이 대장 말이지. 대장 그 놈은 봉시시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삐릿어. 판이 기울어졌다 말이지. 거 목숨 살라꼬 일본으로 돌아가삐리고.

(제보) 김재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77세, 남, 1980. 12. 2.

(조사) 최정여, 강은해, 박종섭, 임갑랑.

12. 의암 논개 묘소

이 두 개 무덤이 아래 우로 나란이 있었는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표 시가, 표석도 없었고, 이 동네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인제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치욕의 묘라 카는 정도로 우리 집안에서는 전설이 돼서 전해 내려온 게지요. 이 어른이 신

안(신안) 주씨(주씨)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 한다.) 그런데 옛날 왜란 때 이 분을 갖다가 장수의병들이 시신을 모시고 오다가 이곳에 주씨가 살았었기에 주씨들 너의들 받아라 카니께 받을 텍이 있습니까? (이 동네에 주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족들이 주씨들이 옛날에는 남 못지 않게 이삼십호 살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처음 함안 박씨들이 여기에 터를 잡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함안 조씨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또 신안 주씨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 이 주씨들한테 받아라 카니께 주씨들이 안 받으니깨 욕을 하면서 요 산 (손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언덕배기에, 요기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옛날에는 길이었어요. 시신을 운구해 가다가 진주서 시신을 가지고 이리 일단 이리로 와 가지고 고향으로 갈라 카다가 그 무슨 형편이 안 되가지고, 아래 우로 내외간이니까 이곳에다가 자기들이 묻고 갔다캅디다. (왜 주씨들이 많이 살면서도 시신을 안받겠다고 했을까요?)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서도, 솔직이 전쟁에서 뭐 사실은 공을 세우신 분이거나 우짜거나 간에 거에(임란을 뜻함) 참전한 것이 후사가 두려워 가지고 집안에서 받지를 안했다고 그래요. 후일이 두려워서 보복이라도 있을까, 요게 살고 계시는 분의 바로 따님이라도 되면 하지마는 떠나고 없는 사람들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자기 할아버지 때는 요기 살았지마는 그후에는 여기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기생 소리와 노래에도 아주 그 뭐 진주 기생 의아미니, 그 소리 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치아도(쳐다도) 보지 않고, 우리 집안에 치욕이라고, 이래 가지고 는 그 뭐 호적, 아이 호적이란다, (손을 내저으면서) 족보도 없앴다고 하거든요. 그래 받아라 못 받겠다, 받아라 못 받겠다 해 쌌다가 급하니께 그만 욕을 하면서 저거들이 요 길가에다가 묻고 요 뒤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민재를 넘어서 가버렸다고 해요. 요게 앞에 (손으로 멀리 산을 가리키며) 저게 저 뒤에 산이 높이 안 솟아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 뒤에 본다면 그리로 해서요, 저 뒤에 산이 요렇게 (동작을 하면서 설명한다.) 주름이 가운데 끊겼지요. 그리로 해서요, 거기가 새미기라 카는데, 그 뒤에 가

다가 은피라 카면서 저 뒤에 또 잘록한 산이 안 있습니까. 바로 건너면 바로 함양읍입니아. 그것이 옛날에 한양길 천리길에 요게 한양길 가는 길입니다, 바로 요 골짜기가. 요리 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육십령을 넘어서, 그러니까 바로 길 옆에 묻은 거지요. 원래 오부 해서 산청 생초로 와가지고, 생초를 널비라 캤거든요, 수동으로 와가지고 거 유림 쪽으로 바로 건너 가지고 유림이 바로 거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래 유림이라 카는 데로 해가지고 요리 (손으로 가리키면서) 함양 한들이라는 데로 지나서 저 (손으로가리키면서) 고개를 넘어서 와야지요. (묻는 이 : 최장군의 경우는 화순으로 운구해야 했을텐데요?) 거, 화순이 고향이라 카는 것만 알았지, 거 연 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시신을 운구해 온 사람들이 장수 의병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래 노니까 연고를 잘 몰랐지요. 그래서 이 분(논개)을 모시고 올 목적으로 같이 모시고 왔다 캅디다. (묻는 이 : 그럼 그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논개 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전에는 이 묘소가 누구 묘손지 확실히는 몰랐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15대 종손이신데, 그 어른까지는 알고 지냈습니다. 그 분이 인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정도로 알켜 주시더라고. 제가 어릴 땐 이 근처,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쪽에 큰 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탑시기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쪽으로는 풀이 덮어서, 나무가 꽉 우거졌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이 근처에는 잘 오지도 않았지요. 그런께 그냥 버려진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옛날부 터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치욕의 무덤이 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오래 전 부텀 들었다고, 그렇게 전설이 돼 오고 있었지요.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29.

(조사) 곽정식, 김영숙, 김점순.

13. 의암 논개 조상 산소(1)

우리 고종이 요 밑에 (손으로 바리키면서) 선곡이라카는 동네에 살아요. 그 쪽에서 이 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넘어서 이리로 내려 와요. 그 요서는(여기서는) 전설이 그러커든요. 그 묘소 때문에 논개 할머니가 났다고. 고 달리 물어본께 모른다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묘소 때문에 논개가 났다고 카는 그 묘소 어디 있소 하닌께, 바로 가리쳐 주지 않습디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마캉 그리 알고 있어요. 이 묘소는 우리 신안 주씨 15대 조부 용(용)자 일(일)자 어른의 묘소인데, 이 묘터가 명당이라카데요. 좌 청룡 우 백호가 아입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그런데 백호가 좋아서 여자가 기린다고. 백호가 좋아 가지고 여자가 인물이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을에서는 이 묘소 때문에 논개가 태어났다고 그리키 전해질 정도로 이 묘소가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쪽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에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나무가 아주 울창 했는데, 밭갈아 먹는다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 묘소 때문에 나중 자손 중에서 인물이 난다고, (묻는 이 : 뭐 장수같은 거 말입니까?) 예, 인물이 태어난다고 그랬던가 봐요. 그렇께 논개가 태어났다고 하는 얘길 들었어요.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29.

(조사) 곽정식, 김영숙, 김점순.

14. 의암 논개 조상 산소(2)

요 마을 우로 (손으로 북쪽 산 밑을 가리키면서) 저거 저 산 밑에 그 논개 님한테 몇 대조 할아버님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 조상님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께 그 조상님 산소 때문에 논개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 처녀적에 듣고 컸어

요. 산소 터가 묘터가 아주 좋아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뭐 그거 청룡이 좋답디다. 청룡이 좋다 보니께 청룡은 물이잖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래 물이 좋아가지고, 산소 그 옆으로 방 죽이 있는데, 그리로 물이 좋아가지고 논개님이 태어나셨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논개님하고 물은 인연이 아주 깊다고 그래요. 그거 진주 남강에 가가주고 왜놈 장수를 강물에 미끌어 넣어서 죽여가주고 남편 원수를 갚은 것도 그렇고, 또 여로 (손으로 저수지 한 복판을 가리키면서) 논개님 생가가 있었는데 생가 마을이 땜이 들어선 거나, 저 아래 물이 짚은 곳이 바로 생가 마을이었어요, 주촌리라고. 그래 수몰이 되가지고 거시기 장수군에서 여로 (손으로 가리키면서) 옮겼지요. 여 땜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개님 생가터가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첫딸 낳고 그 아가 3살 때 학교가 섰으니께 지금부터 38년이나 39년쯤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장수군에서 그 생가를 요리로 옮기면서 이래 지었습니다. 또 화순에도 논개님 사당이 저거 그 (의암사?) 예, 사당이 있었는데 그거도 여처럼 수몰이 되가지고 그 자리가 좋아서 저수지가 들어섰답디다. (예, 우리도 직접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당을 옮긴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께 논개님하고 물하고는 인연이 아주 짚은 거지요. 그런 기 다아 그 조상님 산소가 물이 좋아서 논개님이 태어났다 그러는 걸 우리 처녀 적에 들었어요.

(제보) 이선옥, 전북 장수군 계내면 대곡리 논개사당, 65세, 여, 1995. 8. 12.

(조사) 곽정식, 최정식, 민경록.

15. 의암 논개 生家

요 (손으로 가리키면서) 집이 전부텀 내려오는 고대로 (동작을 하면서 설 명한다) 요게 옮겨놓은 겁니다, 전에는 저 아래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 지 픈 곳에 마틀이 있었는데 주촌이라 카는 마을이, 그게 있던 생가를 땜이 들 어서면서 수몰이 돼가지

고 장수군에서 요리로 (손으로 가리키면서) 옮겼어요. 옮기면서 도로도 내고, 이 도로는 의아미 논개님 생가 때문에 닦은 거지요. 그런데 옛날부텀 마을에서 생가가 비어 있었응께 논개님은 자손이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응께,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생가에서 밤이 되면 말달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밤마다 생가 안에서 말달리는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럼 장수가 말을타고 달리는 소리같은거 말입니까?)예, 그래 밤마다 말달리는 소리가 자꾸 나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랬데요. 그래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살았다고 해요. 고걸 고대로 요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옮긴거지요.

(제보) 주규상,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방지마을, 65세, 농업, 남, 1995. 7. 29.

(조사) 곽정식, 김영숙, 김점순.

16. 진주성 싸움

옛날 임진왜란에 일본 사람이 와서 뒤벼리 덤을 저리 막았다 말이지. 남강 물로. 남강물 하류로 올라가 뒤벼리 덤을 막은께, 물이 바치서 이리 올라 오거덩. 그때 침조산하(침조신하 하니 민무반(민무반) 이라. 백성이 반할 뜻이 없는 기라. 응. 정신이, 죽을까 싶어서 그거ㅂ에 없는 기거덩. 그래서 삼장사(三壯士) 그 어른들이 전장을 하다가 그 어른들이 저 서장대(西將台) 몬당 서(꼭대기에서) 저 어른들이, 세 어른이 절사(節死)를 했거덩, 그래서 삼장사라. 아, 서장대라. 서쪽 장수대라. 그래서 그래서 인자 왜적이 모두 막 들어와 가지고 풍악를 치고 야단을 쌓는 머리 말이야, 야단을 쌓는 머리, 그만 논개(論介) 저 양반이 말이지, 우째도 이 전장을 막아야 되것다 싶어서, 거 어서 마 기생질로 하고 어리광대짓을 하고 난리로 지이고 고마 이래 쌓다가 이래 쌓다가 왜장하고 고마 거머쥐고 술로 한 잔 부우 주고 묵고 난리로 지어쌓는 머리, 놀러 가기로 어디 가는고 하이 의암(義巖) 바우 저 지금 의암 바우

라. 바구 우로 건너가자, 그때는 배가 요리 지내 댕기는(다니는) 기라. (의암 바위쪽 강을 가리키면서) 요새로 그래 건네와 가지고 거서 노름을 하고 놀다가 (손가락을 보이며) 손에다 까락지를 요리 찌었어. 열 손가락에 가락찌를 딱 찌고 이리 가락찌를 찌고 왜장을 딱 안고 물에 떨어진 기라. 그런께 물에 떨어져도 솟거덩. 솟은께 뒤에서 쇠돌로 채에 가 패서 말이여, 고래 가지고 안 죽었나? 참 만구충절이제.

(제보) 김서경,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천전경로당, 72세, 남, 1980. 8. 11. (조사) 정상박, 성재옥, 김현수.

17. 최경회 장군

그분이 아주 어렸을 적에 총명하시고 한시를 지을 정도로 문장력이 그 시 가 나옵니다만, 그런 한시를 짓고, 어렸을 때도 전쟁놀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란디 첫째 생김새가 아주 거인이 키가 장대같고 그렇게 하면서도 글을 잘했어. 삼형제 중에서 글을 잘해서 삼형제 중에서 문과에 제 1위로 합격을 했다. 출생은 1532년 임진년에 태어나서 임진년에 돌아가셨다.

이 분의 선조는 최충의, 고려 때 해동공자의 16세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 그 분이 글을 배우기는 성천 양은경 선생, 고봉 기대승 선생, 기대승 선 생에게 글을 배웠어.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성균관 전적으로 옥구 무주지구 현감하시다가 호조정랑, 형조정랑, 영해부사까지 역임하시다가 담양군수까지 지내셨어. 58세 때 장자 중진사선생 박함의 천거를 해서 그 양반 관직에 계시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중이다. 그 당시는 마- 그 부모가, 관직에 있다가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직을 그만 둬. 집에 돌아오시고,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임란이 일어났단 말여, 임란이 일어나서 고향이 화순 삼천린데, 거기서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했어요. 자기 형님도 상의해 가지고 같이 의병청을, 의병청을요. 의병청-. 그래 가지고 모두 의병

을 모집해 가지고 해서, 군량미 군량을 모집해서 자기 출전시켜 가지고, 고경명 장군 금산 전투에 참가했어요. 그래 인자 참가시켰는디, 고경명 장군이 전사를 했어요. (조사자 : 그때의 최경회 장군의 직책은 어느 정도?) 그 당시 직 책은 그 당시는 집안에서 상중에 계신 수재 중에 있는 것이죠. 딴 일은 그만 두고 전투는 참가 안하고 인자 와가지고 일단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보내 주고, 다음에 고경명 장군이 돌아가시니까 인자 그 밑에 고경명 장군 휘하에 있던 분들이 최경회 장군을 의병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의병장으로 인자 추대해서 나갔습니다. 이 임진년 7월달에 나갔습니다. 인자 주민을 편성을 해가지고, 5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화순을 출발해서 진군을 해서 남원, 임실, 장수, 진안, 진격해가지고 진주성을 공격해서 적을 무찔렀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자 장수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훈련을, 의병을 장대를 설치해서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장대요?) 응, 장대, 지휘소지. 거기서 있으면서 인자 그 무주 이런데 금산 이런데 있는 적을 전멸하면서 왜장으로부터 이 칼, 왜놈이 갖고 있는, 왜장이 갖고 있는 완월도 칼을 노획을 하고, 공민왕이 그린 청산백운도를 왜장이 갖고 있었는데 탈취했어. 현재는 칼만 있고 요것은 없는데, 청산백운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탈취해서. (이 칼이 어디 보관되어요?)사당에요. 사당에 가면 보관되어 있어, 고사정이라고 하는데, 최유상씨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화순읍 삼천리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공을 세우고 거기서 호남일대의 적을 무찌르고 있었잖았습니까? 이러고 있는 차에 경상도, 어째 경상도도 그 당시 조정(朝庭)도 선생, 경상도,

"최경회 장군한테 영남을 지원해 줘라."

영남을 요청받고, 어- 영남으로 갔어요. 영남으로 갔어. 영남에 갔는데 그 분의 정신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 당시 왜 호남을 버리고 영남으로 가느냐, 호남을 지켜야지 왜 영남으로 가느냐, 호남은 일단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영남도 우리 땅, 호남도 우리 땅 그런데,

"나라를 삼천리를 수호하는 데 영남찾고 호남찾고 뭐 할 것 있느냐? 국토를 수호

하는 데는 원근이 없다."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영남으로 가서 영남 일대의 모든 적을 완전 히 무찔렀어요. 그래서 진주성 1차전 거기에 참가해서, 진주에서 김시민 장 군은 성 중에 있고, 외각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진주 1차전 때 적을 무찔렀 어.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이여. 그래서 조정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어. 이것을 '제1차전의 승리는 최경회 장군의, 영호남의 보존은 최경회의 공이다.' 그래서 그 당시 선조께서 아주 특별특진을 시켰습니다. 특별명령을 내려서 숭진을 시켜서, '경상병마 절도사' 여기에 현역으로, 정식으로 됐어요. 그전까지는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시다가, 그 전공을 칭찬을 해서 병마절도사라는 현직으로 임명을 했지요. 인자 정식 장군으로써 활약하시다가, 거기서 쭉 하시다가 경상도 함안이라든지 삼천 화춘(陜川山淸) 참여해서 전부 전공을 세우고, 2차전에 참가해서 김천일 장군, 황진, 김시민 장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주성을 지키다가, 사수하다 결과적으로 중과부적으로 성은 함락되고, 이분들은 적의 군사가 아니라 투신, 남강에 투신해서 순절했다. 남강에 투신해서 투신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종적으로 그 당시 음력으로 했으니까 6월 29일날 최후일각까지 싸우다 남은 것이, 물론 장졸들 일부가 남았겠지만, 마- 거의 다 죽고난 분이 장군으로선 김천일 장군, 조병호 장군, 최경회 장군, 고병희 장군은 고경명 장군의 아들이지, 최경회 장군을 안으로 불러 들이고 최경회 장군은 인제 그 세 분이 남아서 촉석루에 올라가지고, 인자 가지고 간 한 잔 술을 나누면서 시를 읊은 것이 있어요.

촉석루중 삼장사 일배지장강수

장강지수 유도도 역불갈혜 혼불사

이런 시를 남겼어요. 즉, '촉석루 가는데 세 장사는 한 잔 술에 장강을 가 르키고 있노라. 이 장강에, 도도히 흐르는 장강은 말여, 우리 혼과 같이, 장 강의 혼과 같이,

우리 혼 역시 죽지 않으리라.' 그 뜻이여, 얼른 내가 말씀하면 우리 혼이 장당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 혼도 남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를 남기시고 전사적(전사적)으로 순절(순절) 하셨죠. 병마절도사라는 직인을 안고 돌아가셨어. 나중에 사후 120년 후에 발견되었어. 그 직인. 그래서 아 그 당시의 병마절도사의 직에 있을 때 순직했다는 것이, 선조께서 재인식하시고 그 분을 다시 증직을 내리셨어. 증이조판서, 내중에 좌찬성 정이품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증직까지 내리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그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과 관련은 에- 그분 이 장수현감으로 계실 적에, (장수요?) 예, 전라도 장수, 장수현감 으로 계실 적에 그분이 장수 뭣이, 논개 부인 논개께서 아시다시피 자기 아버지가 주달문, 진사 주달문이고, 작은 아버지는 주달무 주씨지. 풍향 주씨.

그래서 논개 부인이, 그래 이 저-, 아-, 달문씨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어, 딸 한 분만 낳았단 말이여. 무남독녀 그분만 낳으셨는데 일찍이 돌아 가셨어. 돌아가시니까 논개가 어리죠, 그러니 아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맡겨 놨어. 맡기니까 작은 아버지가 조카 딸을 에- , 그 면, 장수군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의 지금 말하자면 면장되는 직위에 있는 분한테 민며느리로 보냈단 말이여. 민며느리로 팔았단 말여 보낼라 했고, 그래서 그 면장 아들이 뭐냐면 완전불구자, 불구자였단 말이여. 에- 그렁께 인자 그 분들이 그것을 알고, 논개 어머니하고 논개 두 분은 알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쳐버리니까 김통이라는 분이 고발을 했어요. 면장이 고발을 하니까 잡혀 왔어. 재판을 그 당시에는 현감이 하거떤. 재판장을 최경회가 하니까, 전부 다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거든. 그런께 석방을 했지. 그래가지고 인연이 거기서 맺여졌어. 인자 그 논개 부인이 그분의 은혜, 최경회 장군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에- 시종을 들고 하다가 그 뒤에 난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그분이 같이 참전을 하셨어. 최경회 장군을 따라 진주까지 가아, 가지고, 그 인자- 그 장군을 하다가 최경회 장군이 돌아가시니까 그 분이 내중에는 기적에 올려가지고 의기로 가장해서 기적에 올려가지고, 인자 왜장들의 숭전연에 참여하여 거기

서 왜장을 자진해 끌어 안고, 그 뜻을 최경회장군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원수를 갚기, 인자 그런 것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최경회 장군과 이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의기 논개 있잖아요? 자기가 기생이 아닌데.) 기생이 아녀, 기적(기적)에 올렸지, (진주성에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장이 축하연하기 위해서 기생을 모을 때요 기생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기생이라고 자청해서 올려가지고, 접근해가지고 ?) 기생이라는 것은 기적에 올려야 하거든, 그 명단에 올려야 하니까 올렸어. 올려가지고 인자 그래서 기적에 올리니까 관기(관기) 관기라고 하는데 실은 기생이 아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절하시고, 순절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후손들이 진주에 가서 초혼(招魂)을 해서 혼맞이를 해서, 묘소를 한천면 금전리에 썼는데, 지금 그후에 인자 그 왜냐하면, 인자 말하자면 진주 그 장수 의병들이 최경회 장군을, 부하 의병들이 최경회 장군의 생각해서 사당을 세웠어. 전사하고, 논개 부인이 적진에서 사망하고 순절하고 하니까 그 사신(死身)을 장수 의병들이 이양을 해가지고 능주로 해서, 경상도 함양, 경남 함양 문당리 장기부락 여기다가 매장을 했다. 현재 참 그것이 남아 있어요. 나도 거기까지 가 보았는데, 거가 묘가 봤는디, 그래서 그 함양에는 논개 논개 묘도 있고 논개 묘도 있고. 최장군 묘도 있고, 거가 있단 말이여. (조사자 : 실제 몸은요?) 또 혼백만 모셔 와가지고, 한천면은 여가 혼백(魂魄)만 모셔 왔고 성한묘라 해서 논개 부인을 연구하는 데 전문가여, 그러니 그 분이 연구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추적하고 과거의 궤적을 발굴하고 이런 결과고 묘가 두 분 것이었다. 완전한 진의가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한다면 그 묘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그 분 것이고, 하나는 논개 부인이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요. 묘가 현재 그곳에 있다. 마-, 그후로 그 분이 전사해서, 그분이 그럼 어떻해서 왜장에게서 뺏은 왼월도 칼이 현재 남아 있느냐? 후방에서 사망했으면 없어졌을 것인데, 에 그 인자 그 임직에 종군하는 분이 조카 최홍이라고 있지요. 종군을 했어요. 쭉 종군을 하다가, 어, 최경회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분이 입던 관복, 청산백운도(靑山白雲刀) 라는,

"너는 고향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전하라."

아버지가 중형인데,

"그러면 다시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켜서 적을 무찌를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자기 조카에게 칼과 청산백운도, 그래서 그 최경회, 홍이라는 최경회 장군의 조카 그 분이 가지고 왔어. 방법은 초헌장 내지(招魂葬內地)에다 묵고 그리고 인자 칼 그것만 현재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자 자기 중형 최경장, 이분이 최경회 장군의 중형인데 유언을 하거늘, 칼을 가져 왔기 때문에 다시 자기 동생이 전사 했다는 말을 듣고 의병을 다시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이 분이 또 경상도 사천, 고성, 남원, 구례, 함양을 진격을 해가지고 십여 전투에서 사천여 명의 적을 사살했다. 그때 하다가 이 분은 나이가 많아. 많애. 최경회 장군, 그 당시 61세 최고령자여, 의병 중에서는 최고령자여. 김덕령 장군, 고경명 장군, 김천일 장군- 다 그분들은 전부 50대이지만 이 분은 60대. 그 양반 형님이니까, 이 분은 65세지. 최경장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 당시는 66세면 굉장히 노인이거든. 그 분이 동생 전사 소식을, '기병하시라.' 는 유언을 받고 다시 의병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이 분도 다 전투하다가 당시 김덕령 장군이 (청취 불능) 이 분이 장군(청취 불능) 하기 때문에, 이 분한테 모든 병력을 인계하고 이 양반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은 연관되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중에 다시 정유재란 때 왜병 들이 화순까지 들어 왔어. 화순까지 삼천명의 왜병이 화순에, 화순을 왜그 러냐면 자기들로 해서는 왜놈들로 해서는 적이란 말여. 적장 출신(청취 불 능) 그분의 제일 큰 형이 분이 73세 노령인데, 제가 그 화순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장형 또 의병을 일으켜서 삼주야를 싸우다가 삼천(三川)은 해당될 것이여. 일일이 싸우지는 않지만, 아- 일본군 삼천하고 대전해서 되겠읍니까? 뭐 3일간 버티다가 왜놈들한테 전사했어요. 현재 전사했다는 비가 남아 있어, 모든 책임을 맡았죠. 그런데 대장 완월도가

자루가 없이 쇠만 남아 있어. 왜 쇠만남아 있느냐고, 이제 그 6 · 25 때 공산당들이 뺏어다가 쇠창을 해 버렸단 말여. 그래서 완전히 베려 버렸단 말여. 다시 찾아다가 보존하고 있 는데, 그것은 칼은 쇠만 있어.

(제보) 최인규, 전남 화순읍 사회과장실, 45세, 남, 1984. 7. 26.
(조사) 최래곡, 김균태, 박회봉.

18. 최경회 공의 철인

전설이면서 이거 근거없는 거 아닙니다. 아닌 긴데, 임진 계사년 때 진주 에서 삼장사(三壯士) 최경회라는 분이 계셨지요. 그 분이 우리 역사에 보며는 물에 투신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놈들은 최경회의 목을 베서 나고야(名古屋)로 가져갔다. 나고야 가져가서 풍신수길이 뵈이고 또 경도(京都)에 일본, 소위 말하자면 즈그(자기네) 천황이라 쿠는 데 거 있는데 경도로 목을 보내 가지고 소위 효수를 했다, 그런 게 왜놈들 역사에 그런 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사년 후에 15년쯤 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가 영조 때로 알 고 있옵니다, 영조 28년이라고 (남강 쪽을 가리키면서) 그때 이 강 안에서 어부가 강 안에 뭐이 있는 거로 보고는 꺼내 보니까 철인(鐵印)이다 말이지. 철인. 쇠로 만든 도장인데, 그 도장을 왕을 주었는데 왕이 그거로 우연히 보니까 경산우도절도사 직인 (慶尙右道節度使鐵印)이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면에는 만력(萬曆) 13년인가 내가 똑똑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돼있을 껍니다. 그러니까 계사년이 그때 전쟁 때가 만력시대거든요. 그런데 또 최경회씨가 경상우도병사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시 진주목사가 영보왕에게 철인과 함께 상부를 하면서 이게가 계사년에 빠져 죽은 최경회의 도장일 게다. 이래 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회가 어디 물에 빠져 죽었다고 역사상에 있읍니까? 그랬더 니 왕이

아주 거 참 충신은 죽어도 도장은 강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감격을 가지시고 그 철인에다가 그런께나, 거 철인에다가 넣는 철인함을 갖다 쇠로 만들고 또 이거는 누구인이다 쿠는 거로 은을 가지고 새겨서 그거로 진주 본령으로 내려 보냈어요. 이거는 진주의 보물이니까, 진주에 보내라 하고. 그 해부터는 머 취제문을 바꿨답니다. 제사 지낼 때 거 나라서 내라 보내는 취제문을 바꿨답니다.

그 인을 도장을, 찾은 그것을 연유해 가지고 그 뒤에 역사상 할 수 있는 가지요. 그랬는데 진주 본령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뒤에 보관한 곳에 불이 났어요. 불이나 가지고 타 버린 일이 있어도 그때 두번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이 도장을 그래도 잿더미 속에서 나오고, 안 없어지고 나오고, 또 두번째 탔을 때 병사도 타 죽어 버렸어요.

타서 죽었는데 그래 인자 재건공사로 한다고 하다가 흙 안에서 발굴되었어 요. 그래 나왔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요. 없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 철인이 간 곳이 없는 기라요. 칠으면 그거 뭐 국보, 보물 아니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그 철인을 보관을 했다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옵니다. 틀림없는 전설이면서 사실입니다.

(제보) 박세제, 경남 진주시 본성동 496번지, 64세, 남, 1980. 8. 12.

(조사) 류종목.

19. 최경회공 묘소

그러니까 여기 저 (손으로 멀리 가리키면서) 한천면에 있는 충의공 최장군 의 묘소는 확실히 초혼장이 맞습니다. 그 유품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충의공 그 어른께서 자결하기로 결심하시고 조복을 벗어서 조카에게 전했다고 그러지요 응. 작년에 시제 때게 갔더니만 관에서, 여기 군청 공보실에서 했것지요. 입간판

을 (동작을 하면서 설명한다) 세워 놨더구만요.

저그 함양에 진짜 묘소가 발견되었다고.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이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분 묘소에는 그까지는 설명을 헐 필요가 없는데 인자 관에서들 표시를 해 놨는데 혼동이 되거든요. 우리는 예, 알지만요. 외부 분들은 혼동이 안 되겠습니까 ?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응. 일부에서는 인정을 한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것이 함양 가서 묘소가 있다는 것을. 장수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장수, 오치황씨라고 그 선생께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응, 장수에서는 그걸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응, 성역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충의공 묘소 응, 그 오치황씨 말씀에 의해서 응. 그 일부 문중에서 충의공 묘소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 함양에도. 그 난 내가 그때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어요. 그 뒤에 말을 듣고 이건 현 단계로서는 확실치 않다, 표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전설로 이런 말이 있다는 그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표시를 할지라도 응, 그 뭐 틀림없는 것으로 해서 자 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저 의견은 그래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묘가 장수 오치황 선생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 같아요. 틀림없는 거 같은데 제가 인제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요지가 묘 관계입니까, 딴 뭐 무슨 관곕니까 ?

(묻는 이 : 이곳 최씨 문중에서는 함양 방지에 있다고 하는 충의공 묘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묘소가 그래서 두 곳에 있는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지는 전란 시에야 그 도저히 실지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지금같으면 발전이 되앗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진주에 뭐 한 시간이면 가버리니깐 문제가 아인데, 옛날에야 도저히 뭐 몇 날 일주일을 걸려야 걸어가고, 에- 그런데 뭐 알수가 없지요. 다른 분들을 보면 전부가 초혼장을 했어요. 시신을 시체를 모두 못찾았어요. 다른 분들 모두 보면 예를 보면, 고종후 장군은 그

후손들이 진양군인가 그 많이 사는데 최근에사 그 신도비를 안 세웠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확인한다.) 참례를 못했습니다만, 그 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간 그 묘가 없다고 그래요. 초혼장을 했다고 그래요, 고종후 장군 바로 그 후손들이. 물론 고종후 장군 당시에는 후손이 없겠지요 으이. 그 후로 후손이 나왔겠는데, 거기에는 시신이 없었는데, 시신이 없다.

인자 장수 오치황씨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증조부께서 지은 문집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의암, 논개부인 묘가 틀림이 없다고 하면 최장군 묘도 이것이 틀림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저 후손의 입장에서는 고걸로 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그 함양이라든지 그 전문고고학자들 뵈옵고, 항의가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발굴했으면 쓰것어요. 발굴해 봤으면 싶어요. 발굴해서 발굴하면은 뭐인가가 나오지 않느냐 ?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당시 장군이 니깐 뭐인가가 매장했을 때게 단순히 시신만 매장했을 턱이 없고 그토록 매장했다고 하면은 뭐인가가 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굴해서 전문가들이 이건 틀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초혼장이 있는대로 합쳐, 이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가 75년도에 났거든요. 75년도에 현지에 좇아가서 알아봤어요. 좌우간 내려온 전설이 논개묘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로 봐서 논개묘다. 근거없는 그 말을 지어서 그렇게 전설이 나올 리는 없고, 마- 그건 논개 의암부인의 묘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절에 최장군 묘도 있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뭐이냐 하면, 동시에 돌아가셨다 하면 그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체가 일주일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수 의병들이 일주일간을 그 기달려서 시신을 인양을 해서 같이 운구를 했느냐 그것이 아무래도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인자 그 발굴을 해 보면 좌우간 틀림없이 나는 알 수가 있다. 발굴을 해 보면 뭐인가가 나올 거다. 그래 그것이 묘를 발굴할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래 저는 인자 그 함양서 성역화사업을 한다고 할 때게 발굴을 헌 줄로 알았는데 그 의암부인 묘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그래 봉분만 크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잘못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남의 일에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 봐야, 물론 전설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뭐인가가 흔적이 있다고 나는 봐요. 유골도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뼈를 보더라도 좌우간 그 당시에 장군이고 했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분이라고요, 그 저 문헌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장을 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제 물론 표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응-, 장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장수에 의암사 그 사당을 정화를 안 해 놨습니까?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아주 좋게. 그래서 의암사 뒤에 좋은 자리가, 좋아요. 그 자리가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의암, 충의공 그 두 분을 거기다가 모실려고 계획을. 그래서 이장을 할라고 함양군과 상의를 하니까, 함양군수가 그때서야 안된다, 우리가 할란다 해서 인자 그렇게 되야 버린거요. 그렇찮았으면 함양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함양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장수에서 가져갈라 한다 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 의암 묘만 거기다가 정화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충의공 최경회 장군 묘는 그 관에서는 일체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함양군 당국에서는 인정을 안해요. 논개 묘만 인정을 하고 있지. 이건 우리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확실히 이 묘가 긴지 아인지 알 수가 없고 하니까 간여 안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일부 후손들이 그 조곰 그 묘 봉분을 조곰 손을 대고 해 왔어요. 비석, 비석이 아이라 상석도 맨들라 놓고 그래 왔어요. 그런 정도요. 우리가 시방 확실히 믿는 것도 아이고 안 믿는 것도 아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곳(화순)에 있는 무덤은 초혼장이 확실하고 그 유품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 함양 묘가 큰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중에 실묘(實墓)가 틀림없다고 한다면 이장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보) 최재양, 전남 화순읍 향청리 46번지, 65세, 남, 1995. 8. 4.

(조사) 곽정식, 최정식, 민경록.

—부 록—

원 본 (原本)

好邑誌之纂輯務修邑誌之實行其庶幾乎哉

旃蒙赤奮若仲春下澣

前弘文館副正字經筵 卷進宴都廳正三品通政大

夫月城后人靑蓮子李主白謹序

處乎柳川橫其前淸澈可鑑華山創其東芙蓉
沛飛流于峭壁銀河倒瀉于晴空蒼松翠竹簇立洞天臥
者倒者其趣可愛況數百年來詩人文士風詠于斯講習
乎此者興學堂也登斯堂也則一以思天下之才發育而
振興之登庸于淸朝瓊琚玉珮假以鳴國家之盛一以思
事業了債之後退處乎江湖之間風乎雩浴乎沂脫却塵
世之念以終餘年不亦樂哉是所謂三奇也然則世間之
立志乎名敎者必興起乎五院三節之事歸而篤志則無
以愧古人之心蹟有志乎山水者必周覽乎三奇之景歸
以著文則亦不下於古人之作矣嗚呼玆邑之士友無徒

是三節者乎悲夫三節之家子孫零落香火不傳人去亭
空只見斜陽逝水滔々不休有時乎文章才子之歌于斯
興于斯良有以也造物之賦人何若是薄也可謂長使後
辨像太極之動而生陽靜而生陰者動靜臺也一切榮辱
置之度外逍遙自適于林泉之上坐享湖山之勝景此非
古處士盤桓之所乎身有窮達而道無窮達時有屈伸而
樂無屈伸立天地而舒泰溯瀟洛之遺風究孔顔之眞趣
怡々然自得於心而獨樂其樂者自樂亭也宜富貴者當之
可以忘其貴貪鄙者登之可以激其廉此非有道修鍊之

玆鄕當蟠龍蛇之運雲隨雨轉于晉陽負沉于江中香魂磅礴往來無定其貞心孤節可謂女中君子矣至以一介微身當壬辰年間陪衛聖廟位牌自任以網常之重使一域人民俱免玉石之歎其踐履眞工可以勵後學之碌碌完然令人心驚而膽裂蒼茫歲月姓名難分寂寞無聞矣至於天川面墮淚碑至今石壁上血痕濃厚雖形容難盡千載之下路指點千載之下形容風彩悅若自擊世間忘義之輩風而雨而磨之不得是所謂三節也三節之中亦有一節也可記古人必誌而記之述而稱之邑名赫々乎千秋之下民義昭々於一代之上況兼

媛之閭遺賢逸士之卓蔵文章道學之表世氏名官爵之
區別并々有條畧々有序及其山川之險夷道路之遠近
物產之出入戶結之多小樓臺亭榭之臚列談博精詳奚
讓於成周大司徒掌天下土地之圖以周知風俗之效哉
今不必支離枚擧然其中事蹟優異風景絶勝者則若夫
滄溪月岡道巖以至龍巖鴨溪諸書院配享先生或以
勷業自持或以道學自飭高風素節載在國乘聞于百世
儘東方名儒碩鄉也是以本鄉士林仰其德慕其道而不
忘歲事春秋享祀必恭何圖事與時遷遺址獨存其遺
風餘烈可以激懦懶血羞貪鄙也繼之以義妓論介生長

長水誌序

夫邑誌者有邑之關鍵人民之標石也故輿地之圖郡國之誌代有述作見聞由是而益博知識由玆而漸遠然法久弊生邑誌之無聞每由乎士氣之孤陋可勝歎哉余以天涯孤踪淪落于玆邑者荏苒光陰于今三載自忘中有志士友柳在殷金琡權諸益持一冊而來示余曰此長水邑誌也恐遂堙沒不得更修補編纂欲藏之名山大川以圖永久子其序焉余喟然而歎曰夫地靈秘藏必待其人而著事業成就必隨時而作信不誣矣於是乎把玩考閱則郡名之改革位置之所在忠臣孝子之祠烈婦賢

同　城谷悅咸　溝沃水長

論

杜廷蘭介本縣官妓音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壬亂城陷崔公殉節敵設宴于盤石樓論介往挑其歡乘彼醉睿抱投樓下南江而死建祠　命旌自官每年致祭

杜廷蘭社陵入縣監思順子武萬户龍已亂激厲義氣與金堤郡守鄭湛助防將白光彦等卽赴能濟之役同心力戰努力盡竟殉節招魂葬有丹書鐵券享玉山祠

湖南誌　卷之二

長水邑誌

節義

忠僕丁敬孫

貫昌原時以校僕狩當壬辰之亂人着殿服伏地矢死穴獨敬孫守直聖廟抱五聖位板奉後來之兵憑信無敢犯乎亂平蒙天長盖伊時湖南列聖廟獨全故有此褒賞之典其危忠邑鄕校行入·兵燹之中惟本縣前人也去壬戌秋林募財修輯忠僕本縣儒碑閣

義妓論介

仕縣內楓川人忠毅公慶會莅本縣時所睠也崔公以晋州兵使當壬辰之亂時論介隨去及城陷盛其粧奩誘敵將對舞於南江危巖之上因以同墜江而死後人鑄其巖曰義妓論介之祭

大東奇聞

論介抱將於峭岩

論介、는 晋州妓也、라 壬辰亂、에 判官金時敏、이 以數千殘軍、으로 能退數十萬大敵、하야 城中、이 得保、타 丁酉再亂、에 牧使徐元禮、와 倡義使金千鎰所領兵、이 幾至六萬、하니 比前爲十倍、타 人皆謂守城無慮、호더 論介獨憂、하니 千鎰、이 問其由、한대 論介對曰前者則兵雖少、나 將相、이 相愛、하야 號令出一、하니 此爲得勝之本、이오 今雖兵多、나 軍無統率、하고 將不知兵、하고 兵不習將、하니 是以爲憂、로라 千鎰、이 以爲妖言、이라하야 欲斬、한대 左右勸解得止、하다 及城陷、에 軍民將校盡被屠戮、이라 論介凝粧盛服、하고 立於矗石樓下峭岩之顚、하니 敵將、이 見而狎之、어늘 論介抱其腰、하고 投死潭水、하니 後人、이 名其岩曰義妓岩、이라하고 立祠樓傍、하고

府邑野談

梅泉集

處望店坐橋頭恨煞長亭樹寒蟬晩不休

楓川渡口水猶香躍我頹眉拜義娘蕙質何由能殺賊葉砧已

物盛千秋妓籍一輝光

義妓論介碑

道中聞寧齋捐館已在六月十八日愕然下涕

移淩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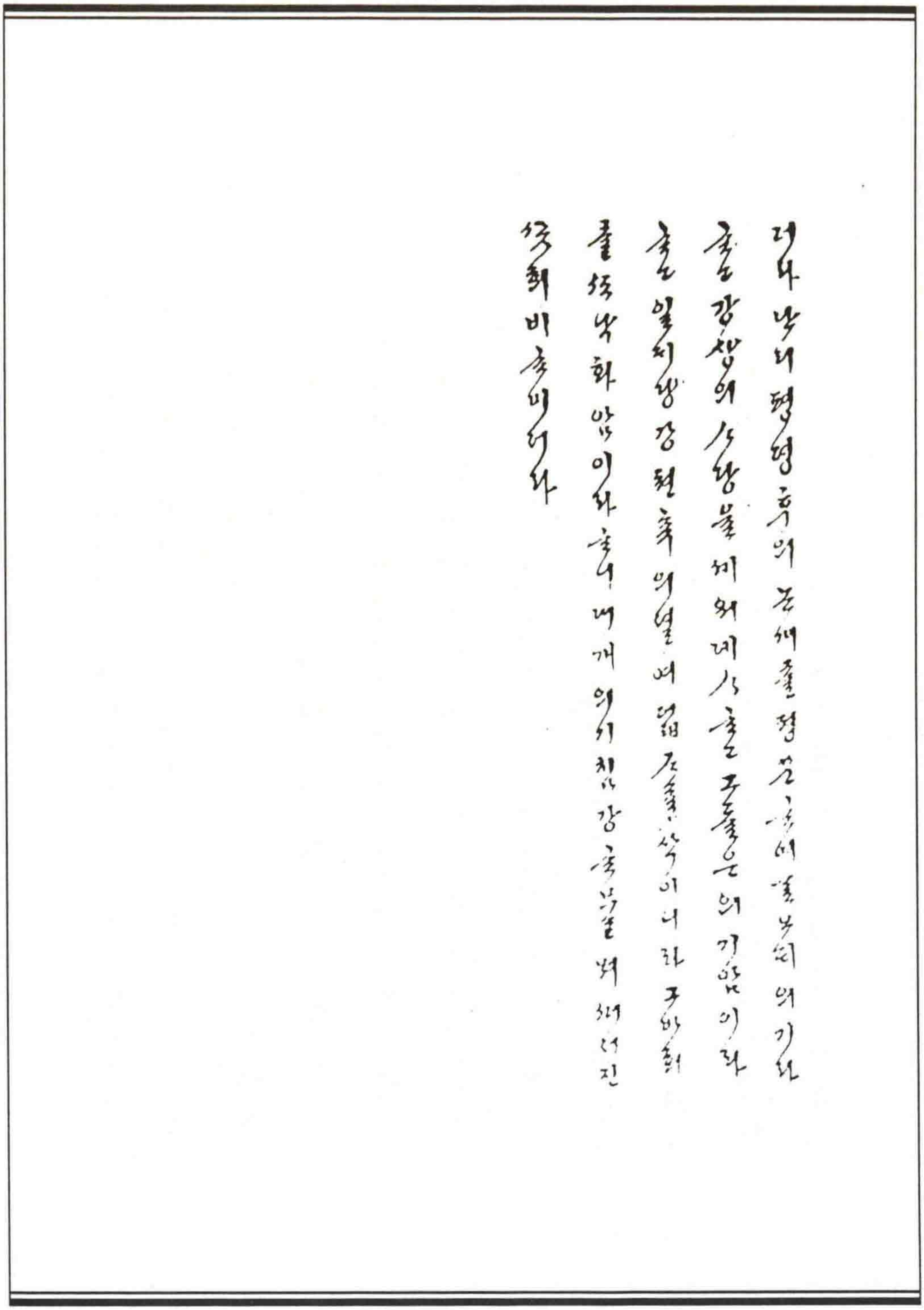
嗚呼先生文章經濟爲世所推重而其所以自處者又如此其高潔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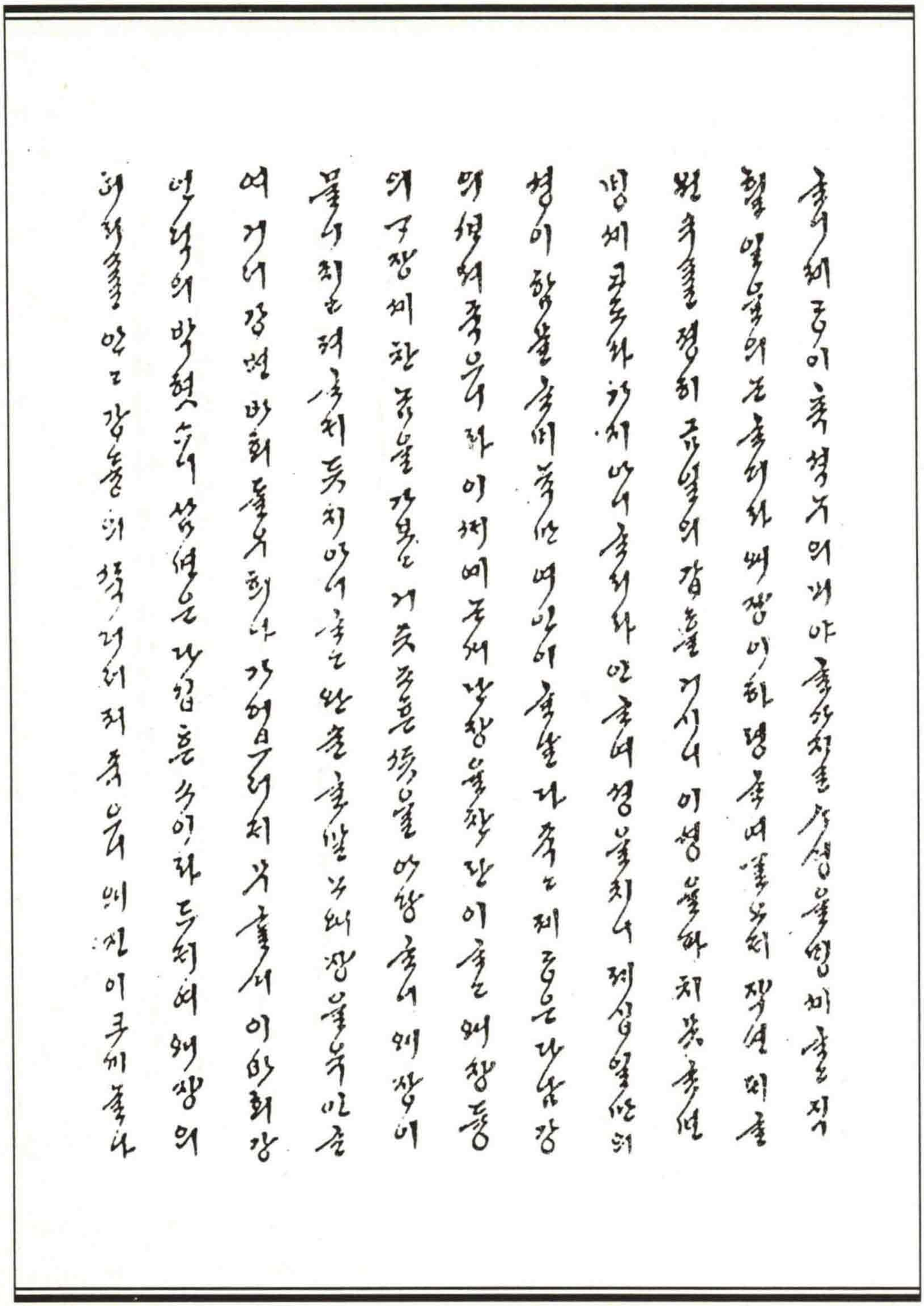
富齋學士忽云亡熱淚無從落我衰人物眇然誰復有星高

漆永相望史家記卒名山古遠客招魂江水長尚記容顏似紅

王六年一別瘴烟鄉

哭安正言秉澤





之感省墓有猛虎來導之異旌閭
林致榮平澤人安逸戶長英廟戊申朴再
申以繼論說以舉兵附賊之意致榮言于
夢慕兵禦賊亂靖錄揚武二等勳
論介長水官妓晉州兵使崔慶會之所愛也壬辰城陷
後倭將與論介大宴于矗石樓論介乘其倭將之大
醉抱而同投樓下而歿因立碑於其州自官旌閭
祭旌閭於本縣長水
靈圭義僧將俗姓朴號騎虛公州板峙人傳襲西山指
學壬辰亂率其門徒及義僧數百赴高靈幕前命幕
(湖南三綱錄)

立祠和順加 贈左贊成
同於南江淺灘中見其有清瀅之氣搜得一印即公殉
節時抱而投江者也兵使馳 啓封進 上親製古印
銘序 命鑄銅匣匣上刻銘序令本鎮立閣藏之 親
製祭文 致祭彰烈及廢忠祠 贈謚忠毅皐葬于綾
州俞判書家基撰墓表權瞿咸禩製謚狀 伯兄進士慶
烏城仲兄 贈承旨慶長 癸巳以子宗佐將子直長弘
器丁酉從兄 贈總兵戰捷稷山倅持平弘載 丁酉爲招諭
使慕義開城倅洗馬弘宇 癸巳以子宗佐將子直長弘
受丁酉同殉烏城從孫繼憲丙子倡義從曾孫鳴
海丙子倡義 癸五代孫庶 戊申倡義庶
睦資○ 妓論介長水人公所眄也隨入晋州及城陷盛
其塗賊墜江澤誘賊將二人對舞南江危巖上兩
賊墜死後人鐫其巖曰義巖立碑 手拔二
和順

登城南譙樓口占一絶曰矗石樓中三壯士
長江水長江之水流滔滔不竭兮魂不死
及本縣邑誌 英廟致祭文有曰魂兮不死
此是 先王朝公案則三壯士即二十九日
而金誠一則以時疫癸巳四月二十九日死
忠而嶺南人以金誠一詩書其名揭板又欲立碑於樓前
謂金誠一詩語乃咨趙宗道李櫓為三壯士以其詩
任所趙宗道殉節於黃石山城李櫓不知所終以此為
三壯士而偷詩懸
恝其無蒼甚矣
北向四拜曰孤城受圍外援不至勢
窮力迫一死以報手持印節從容赴水而死
宗道祭文曰崔公左為倭奴所忌憚事聞
天將稱義倭奴忌憚可謂名動三國 贈吏曹判書
旋聞
致祭享于晉州彰烈祠立祠綾州 上下教曰
賜額褒忠

砲破扳屋賊又退時曠日持久將士飢疲兵氣不揚公
諭以忠義激勵士卒城守益固二十八日巡城將徐禮
元不謹踐更賊潛來鑿城公扳釰將斬禮元士皆震慄
無不力戰二十九日天大雨城東隅崩圮賊緣蟻附而上
城中皆以短兵搏戰賊乃退賊之精銳又自西北門大
呼闌入或言于公曰突圍而出以圖後功可也公扼腕
厲聲曰我受國厚恩任此方面城存我存城亾我亾
遂脫朝衣一襲及茂朱戰所奪寶釰畫軸付其侄弘宇
歸傳于仲兄曰我凡聞我死必繼起以此為識我死之
後以此衣裹葬遂一向督戰矢盡力窮與金公高公共

行長所謂都元帥金命元曰彼方悉兵再擧其鋒不可
當莫若先自空城以快其意公與倡義使諸公議曰晋
陽實湖嶺咽喉今若棄而不守是無湖南不如固守遂
與金公千鎰忠清兵使黃公進復讐義兵將高公從厚
同入城中督畫方畧部署諸將為死守計二十一日賊
大至圍城三匝城中按兵不動翌曉賊進迫城下砲丸
如雨城中亦并發砲射戮力拒戰賊乃退是夜又逼東
門鼓譟而進進城中血戰賊又退又於東門外築土為阜
俯瞰城中公令善砲者放大砲中破賊阜賊又建大木
於城外設板屋於其上放火城中屋比遝燔火公又放大

發輕騎并行逐之賊先鋒已踰牛旨峙乘勝追北走者
相踐積屍盈野公又親率勇士設伏路左賊將一人従
數十騎來公持蒲一發應弦而倒遂奪劒及畫軸劒則
盡則高麗恭愍王所畫青山白雲圖也自此其一也
所向無前晉州開寧屯賊聞風潰散慶尚監司金誠一
狀聞于　朝曰今此晉州之捷莫非崔慶會外援之力
上大加歎賞下　敎曰嶺南右界湖南一道迄今保全
皆此人之功特　拜慶尚右兵使癸巳六月清正欲報
前敗合兵數十萬直向晉州時游擊沈惟敬在賊酋平

從爲堤
使侄弘
弘獻芽
辱臣死
近嚮應
全州南
水民以
全州界
寡不敵
報曰錦
噪閭無
遁去即

載領赴高霽峯
收散亾餘卒來
義兵將公曰此
之日也遂墨縗
義士雲集將直
原有蹂躪湖南
公遺愛牛酒迎
乃留屯抄輕騎
且前且鬪賊連
設伏林藪邀擊
後賊衆大潰居
山城中烏飛鵲
人烟公知賊兵

湖南節義錄

忠毅公崔日休堂海州人文憲公冲後
崔慶會字善遇號三溪又號月
贈領議政天符子　嘉靖壬辰生自幼儀形岐嶷髣髴
軒豁受業於梁松川應鼎門下深造淵源之
學嘗作松竹菊爭長說行於世辛酉司馬兩試
丁卯文科歷歷華顯連　除四邑皆有異績寧海民為
之圖形立生祠以　殁庭試藝高等再加賞資思菴朴
公淳以才全文武可任閫寄　薦于　筵席庚寅冬遭內
艱哀毁盡禮壬辰　大駕西狩公以身居草土不得扈

金玏馳啓曰臣初聞晋州急兒寺城節次及京外將士軍
人死亡之數走人探問則本州軍二千四名本道兵使軍
二十名忠清兵使宣九十七名倡義使金千鎰軍六十名
義兵將金士豪軍五十名敵愾副將李薌宣五十名彪義兵
崔年一兵三十名慈義代將鄭元漠宣十一名靈光義兵沈文信
軍十二名合義兵將姜姬悅軍五十名方義大將姜姬蒲軍十
名玄雄軍代將丁忠訓軍二十名蔡義代將丁雲湖軍十名云
此則大略止此數續續入城者亦甚多而城
陷之時脫出者未知幾何如當入之類或墜城或浮水而得脫
者亦多多兵使崔慶會今過四日尚未聞去處極為痛悶本道賊
勢無著手處賊抱四境殘卒盡窩雖李郭當之恐無所為云

(實錄26年7月癸酉·22册·47上a)

○政院
啓曰兩南保障專在晉州一城晉州將至陷
而經旬被圍孤無外援血戰力竭終至陷
之地自上慶以來守城死亡之多未有甚於此言之氣塞恨
得同日而語而死意謂自 上特下悲傷惻怛之教以慰忠義之冤
視而死意謂自 上特下悲傷惻怛之教以慰忠義之冤
意於策應也目今事勢岌岌無可著手處惟感動人心激礪士
氣庶收萬一之効伏願 聖上特命詞臣製一哀慟教書吊死
問孤之外景宣養賜以資冥冥之感泣且為日後義勇之勸其
中金千鎰崔慶會初不待朝廷命令奮興義旅高從厚復父讐
敵王憤俱甘心殺身尤不容不加優異之擧

登第爲晉陽縣令敎命之下死馬蹟在後痛恨不得從死收葬父母誓死從雲與人書親筆未報國恥未雪何以生爲只要殺一死分明耳

俄承朝命領寺奴爲義兵將轉鬪至晉州城將受圍千鎰貽書勸出外不從高敬兄敬命薛弟從從厚戰于矣始不離與從厚同死鬪出外不從高敬兄敬命薛弟從從厚戰于矣始不離與從厚同

赴水死○洪川壽宇會元府尹應鼎之子居羅州師事成渾見時事不平棄擧業遊居不出亂初募兵數百從金千鎰起八莫行朝擢拜工曹佐郎遂從千鎰至晉持千鎰書乞救於劉綎綎氣懾慌縱敷服

俊亂次後凡諸將之行軍有法身先士卒有古名將風者皆推重爲
首而不得究其才而死朝野莫不追惜贈右贊成○李宗仁號果毅
倫有飛將之稱少時任俠不羈與黃進友善以義烈相許約同死生
竟如其志忘軀追贈兵曹判書○金俊民以勇力雄與李宗仁俱成光
戰著名以門地早不得早顯嚴南亂功俊民尤最贈判書○張
潤順天人也登武科自少元倭不肯下千謁求官爲鉢浦萬戶見將
使即解去以此沉滯累年常以射稱爲事亂初從任啓英起兵爲副
將號令公明士卒樂附啓英悉以兵事委之及入晉城徐禮元爲敎
使當欲脫出人心憤惋金千鎰啓曰聞以潤通敎使城中始堅守志所
守地賊不敢犯潤死而軍無所恃城陷矣贈兵曹參判○崔慶會字
善遇居綾城登文科未知名亂初守慶家居總高敬命起義兵時前
任寶縣監任啓英亦起兵慶會領左道義兵啓英領右道義兵湖南
既定二將俱赴幾嚴南事西勦賊逾年累著忠不少衰卒益同爲統帥同處出令一無嫌異
事精敏號令嚴明人皆倚恃與千鎰同爲晉城○高敬命字
城陷與幕士文弘獻等同赴水死贈左贊成○高孝友字

音芙州著地異知人言則晉州遠
者而崇禎庚午童稚亦知而益莫奉屬壬辰
顧惜公理不外蠻夷之在人心不可誣者有
示外蠻知之在人心不可誣者有
先走一不肯城而詐請棄避以此朝廷尤
其謂必死之臣勇將偕同死於一城此
士盡若音城者是故使之完聚而復合憂謀也
音城自是無事若音城者矣其後用間而丟亨奔臣賊
元又安敢自拔北軍皆免散不
諸將相救查按具奏又多也之者論所
者此金令元等所能誣哉況朝廷
西制白中出金令元等若發行長
去介長興千經等皆非同
誠治有異績為人羸弱多疾在軍
堅貞忠誠奮慨故能使衆臨敵得
代孫勇健善射嚴重忠信氣節過人從通信使入日本見賊情必動
捐囊貲購一雙歸曰不久賊來當用此網為同福縣監兵
探兵馳屬為路躡出沒音勇能仁之敗退於別部獨全軍以還湖
守之建功為第一初至音州受出差千蓋將必為千守音戰于外可也進曰吾已與倡義公約不可負也自
請兵使北千守音戰于外可也進曰吾已與倡義公約不可負也自

陷賊大肆屠殺禮元及判官成汝拱亦不免諸將領皆死舍
馳馬巷戰左右突擊賊衆披靡終日追逐尤匈皆不中竟不
城中士女奔波至江投死流屍塞江大約死者六七萬壯士得脫者
數三人賊夷城郭焚家舍一城為墟城被圍九日晝夜大小百餘戰
敗之餘義烈之著無如晉城者游擊吳宗道自烹城闉變馳下以來陷
賊死者相當而衆寡不敵外救不至諸將力盡而死自倭變以來陷
山遇風雨之異謂接伴官曰晉城被圍今八日今明日不降則賊必
退矣果以是日被陷宗道為文祭金千鎰紋述悲切國人傳之我朝自
代遠未有城過大敵固內大城高不過三丈池塹上無襍樹下有坑塹
城本墨石疎築城中艱時辟足迴士不過數千人賊以十萬攻之
漸世以皆以軍門之令入保必殺之地當此之時千鎰則近之矣殺自古忠
義之士與城致死至於暴骨千里而不免者皆千鎰抗言止之千
則張則其勢可知也而所千鎰之賊衆等從月而城中
已暴我典會守城七日而力盡
糧迭休即其形勢會守城士衆黃進李宗仁
非戰守之失明冠軍勇武故能指
麾敗賊衆殺傷相當元帥亦至九
棄城而去元帥亦至本營元帥
鎰等從之皆

大鐵鎚鏖城李宗仁獨發矢矢必穿甲賊兵多死城上東蠭蒲攻
火投下燒其擴擴中賊盡藏是夜更犯北門宗仁奔救力戰殺退還
至兩守西城則禮元代守不覺賊潜来掘城城將崩賊方進迫宗仁
力戰却之又射殺賊將一人賊曳屍而退翌日又犯東北城大戰宗
仁又大戰却之黃進巡到俯視城下曰賊屍平斬堆殆千餘人矣有
以行賞及死城中洶懼徐禮元代領其衆禮元蛇奪脫笠詭爲降泣
九死惟宗仁東西應敵二十九日崔慶會以警動軍情將斬而止代以張潤潤名亞於進而又中
宗仁與親兵捨弓矢持刀槍搏戰格之賊死者積如丘賊乃退賊知
西北門倡義使所守處兵弱乃聚大兵一力仰攻倡義軍不能支賊
遂登城耀兵守陴軍散入於矗石樓禮元先走匿千益與慶會高從
厚等列坐廳上曰此吾輩死所也使酌酒来持酒者已走余以
投江以死李宗仁轉鬪至南江左右挾兩賊大呼投江曰金海府使
至宗仁死於此進士文弘獻正守吳玭奉高敬兄等皆從死城既

日賊於東門外作土山屋其上俯瞰城中士女竭力助築一夜而畢遂對放玄字銃破土屋賊乃退又豎日夜進退大戰達曙乃止賊又作木樓裏以牛皮各自負戴以防丸矢專力毀城城上射矢如雨滾下大石以破之賊又於東門外上作板屋多放火入城內城內草屋一時延燒黃進又木於東門外上作板屋多放火入城內城內草屋一時延燒黃進又對建木設板放銃賊乃止咎禮元畏怵顛倒不能治事金千鎰以張潤爲假牧使以鎭之時天大雨弓箙皆解軍士宿食無暇漸至困勞賊則募萬衆迭進生兵鼓勇呼聲如雷投書城中曰大國之兵已投降爾國敢拒乎城中以書答之曰我國有死而已況天兵三十萬今方進擊爾等當碾盡矣賊憤詈示之曰唐兵已退矣千鎰每登高望之方有兵氣天兵方來援矣軍人大歡俄而寂然千鎰謂慶會等賊並築五臺於東西兩門上結竹爲柵放丸如雨城中死者甚衆又作大櫃以藏兵下爲四輪車賊數十人着鐵甲擁鐵楯推車薄城以

統官兵黃進為巡城將。諸道官義兵。晝地分守。戒嚴待變。天將劉綎
遣裨將來視守備。且諭以外援。城中信之。○命遞都元帥金命元。以
權慄為議政府右參贊。代為都元帥。使即軍中交代。以李廷馣為全州
觀察使。洪世恭為全州府尹。○倭賊留晉州。金千鎰崔慶會
等。死之。時晉州報急。李如松在京城。傳令列屯諸將。劉綎吳惟忠駱
尚志等。進兵救之。諸將畏賊勢大。不敢進。賊悉諸屯兵。號三十萬。直
向晉州。焚掠宣寧諸縣。烟焰漲天。大搆樓與李寬。退次咸陽。仍入南原
郭再祐棄鼎峙。退次雲峯。以拒外
援。圍住本城。百匝彌漫。四面數百里。洪季男等。登高望見。旋旗敝天
呼聲振地。晉城在圍中。如大海
孤舟。危在朝夕。○初。賊兵始犯晉城。分兵薄縣
城中。以為城南矗石樓臨江險絕。賊必不犯。惟於西北鑿壕儲水。只
有東邊一路。為受敵地。至是賊決濠填土。作為大路。又直掘城底。遷
出牆臺大石。城上矢石亂下。賊冒死登。必毀乃已。翌日三戰三退。
其夜四退。翌日又如是。先有矢相當。城內外死者不記其數。又翌

言吾亦奈何劉鉉移書清正責其背盟諭以禍福清正不答於是元
帥傳令官義兵將進保晉州倡義使金千鎰領兵五百義兵復讐將高從厚領
兵四百副將張潤領兵三百義兵將李継連領兵百餘義兵將閔汝雲領兵二百
僉節制使李継善領兵三百義兵將李継信領兵三百義兵將姜希悅高得
宗仁等先在巡中與教諭徐禮元方議守備金羅兵使宣居怡永川
郡守洪季男領兵隨到以為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金千鎰抗言
不從居怡季男即出陣雲峰孝純使郭赴往慶尚兵使金海府使李
曰惟擇者能用兵智者能料敵今賊兵盛鋭有天下莫能當之勢三
島孤城何以保守吾寧在外尚救不可入城左巡察使金玏叱之曰
君不從大將奈軍律何再拓曰與身死不足惜百戰軍豈
李寔即今再拓守鎮諱金千鎰等料檢城中倉穀甚富擧
是以共守矣即日分軍金千鎰崔慶會尚詡節制千鎰統義兵慶會

倭將合兵
攻晉州倡義使金千鎰等入城固守清正平義智秀兵向晉州騙三
十萬宋經略移書檄諭既以令倭南下取歸王子自任而
賊猶屯據嶺搶不已倘須還入賊營分明曉諭不然我將移咨兵部
重究不恕日本攻打晉州之意彼因去歲
於此被殺甚多且船隻盡為毀燒指水軍是以忿狠不平況貴國兵
使屢殺日本割草之兵彼將聞之關白關白開白曰倫等亦進攻晉州打
破城池以洩前忿行長謂我言晉洲民可避其鋒彼見城空人盡即
撤東回已而惟敬還自賊營亦言行長力止清正而終不回聽故行
長不從軍行然此兵止於晉洲無他變矣金命元與韓孝純見惟敬
力請止其兵惟敬曰吾已力爭行長止之行長意亦然而前約已
成終不可回今無他策但令諸將空城步避為得計而朝鮮不從吾

擐為四輪車賊數十人各穿鐵甲擁擐而進以鐵錐鑿城時金海府使李宗仁聲力冠于軍中宗仁連殪五賊餘皆遁走城中之人束火灌油而投之倭因皆燒死初更賊更犯新北門宗仁與其手下力戰殺退二十八日曉明宗仁逆到所守城陴則其夜徐禮元不謹警夜賊潛來登城城子嶺頓宗仁大怒責之賊進迫城下城中殊死力戰賊死者甚衆賊貪一人中丸而死羣賊曳尸而去黃進俯視城中曰今日之戰賊死者多至千餘有一賊潛伏城下仰放鐵丸橫中木板跳擲而中進左額時黃進猥潤最稱力戰為諸將首一城倚以為重進中丸而死(或云中丸云不退時城中洶懼二十九日以徐禮元代進為巡城將禮元畏怯脫甲騎馬湧逆而行兵使崔慶會以禮元舊動軍情將斬之而止以張潤代將未幾潤亦中丸而死末時東門城子因雨頹落衆賊蟻附以上宗仁與其親兵捨其弓矢直用捨刀相對持戰格殺死者積堆如山賊仍以退去又於西北門高麗突進倡義使軍潰散皆聚於蟲石樓賊乃登城揮劍踴躍徐禮元先走諸軍一時潰散宗仁中丸而死左右扶起千鎰勿使退避千鎰堅坐不起顧曰我當死於此遂與其子參乾相抱投江而死賊屠夷本城作為平地城中死者六萬餘人

(實錄26年7月戊辰·22册·40上b)

退三更更進五更始退先是城中聞賊將至以為城南盡石南
江最險絕賊必不敢犯惟西北可以鑿塹遂鑿為溝水其
下只有東邊為受敵之地至是賊鑿決其溝負土填
塞作為大路二十三日三戰三退其夜又四戰四退賊乘夜一
時大呼聲振天地城中亂射死者不記其數二十四日賊五六
千添兵而來陣於馬峴又有五六百添兵陣於東邊二十五日
賊於東門外填土為陵因作土屋俯視城中故先如雨忠清兵
使黃進亦於城內對築高陵自昏達夜進者盡脫衣笠親自負石
城中男女感激涕泣竭力助築一夜而畢於是放玄宇銃筒中
破賊室賊即改是日三進三退又四戰四退二十六日賊作木
楯裹以生皮各自負戴以防丸矢來毀城子城中以大石落下
射矢如雨賊乃退賊又建二大木於東門外上設板屋多放火
於城內城內草屋一時延燒烟焰漲天牧使徐禮元畏惧顏色
金千鎰以義兵副將張潤為假牧使時天大雨弓矢皆解兵力
已困賊以書投城中曰大國之兵亦且投降你 國敢為抗拒
乎城中以書呑之曰我 國死戰而已況 天兵三十萬今方
追擊汝等盡勦無遺賊褰脣切之曰 唐將已盡退矣是日三
戰三退其夜又四戰四退二十七日賊築五臺於東西兩門之
外結竹為棚俯臨城中放丸如雨城中死者三百餘名又作大

時受報甚意倡義
使金千鎰領兵三百以六月二十四日馳入晋州忠清兵使黃
進領兵七百慶尚右兵使崔慶會領兵五百義兵將李継薇領兵四百義兵三百義兵將閔汝雲領兵二百先
兵將邊士禎還其副將領兵三百義兵將閔汝雲領兵二百先
已来會與本州牧使徐徼元及金後民李宗仁等方議守城七
月十九日全羅兵使宣居祐及洪季男等領兵来會以為賊衆
我寡不如退守内面金千鎰抗言止之居祐季男等出陣于雲
峯二十一日賊二百餘騎出設於東北山上二十二日辰時賊
五百餘騎登北山列陣耀兵城中按兵不動巳時大衆逼至分
為二起一起陣於鄉校前路初一交戰
城中射中三十餘人賊斂兵而退初昏更進大戰良久至二更

○備邊司 啓曰前以李光岳爲
慶尙右兵使今聞京賊退歸此言若然則忠淸以上似爲息肩
而嶺南一道最爲要緊選將委任不可不十分擇伏聞光岳
才氣別無大異於人而粹起行間咸望未著義兵將崔慶會館
非武臣屢立戰功聲名極盛才亦可堪且其所率湖南義兵既
與相熟事定之間可以仍帶 上從之

(實錄26年4月乙巳·21册·692上b)

○大臣 啓曰
慶尙監司金玏人物溫雅在平時方面則可也今則軍務措處十倍平
時尙非才望特異謀慮出衆者恐不堪此重寄崔慶會新爲兵使之
命此人凝重有智略可合監司其代李時言事再祐可以爲之

(實錄26年5月己巳·21册·706下b)

司憲府 啓曰宣州牧使許昕當此喪亂之餘爲字牧之官所當視民如傷撫摩煦嘔之不暇而徵斂無藝至督非産之物追及徃年怨讟盈路靡所告訴至籲 關下哀此窮民非不知告是者豈特清蠹一事而已至於諸罪而冒昧其罪來訴如

丁酉公之伯兄進士三川公(諱慶)殉節於烏城公(諱)
奏設義兵應於和順先使其子起義錦山又使參
衰從戎又使仲弟繼義為將而又自倭寇
墓率鄉兵五百以守烏城山城師未圍聚賊忽
戰一晝夜無衆寡不敵為賊所執罵不絕口而死
公弘兒持平公弘載洗馬公弘宇皆以子弟童官會於
兵統義兵陣中多有戰功而持平公赴義錦山招諭使
南洗馬公脫圍晉陽傳檄繼起直長公隨往
(日休堂集·丁酉 12月 33張)

曰君等是何言也胡南我國之地纔若幾國之一也幾為恃豈計遠近而不救乎遂點閱部伍義軍之丁壯者摠一萬餘人原野則以為雲鶴翼而行山谷則以長蛇貫而進正亡奇人軍威大振。

(日休堂集・壬辰年 9月22日 19張)

許讓強弩射之正中其顙顧公賞勇前進棄其圖與
圖即恭慇至所畫而以至寶名於我國者也劒即佩
雖雄神劒而此其一也自此之後軍聲大振所向無
前

(日休堂集・壬辰年 8月15日 15張)

元月二十二日 孤日錄
忽遣將陣客舍西軒左右義兵將自茂朱領寨來陣
任兵陣廣寒樓冬十月二日慶尚

去其後錦山賊悉擧大軍直向全州先生謂諸將曰此
處地形道狹山阻賊必長蛇陣而進矣吾我諸將分
如此設伏將一人抱蛇旗伏於山頭觀勢指揮擊斷腰中
此亦兵家之一策也諸將聽令而退果於日午賊兵大
至一時義軍忽起山頭鼓角動天矢石如雨我高彼下
不能相當賊陣中斷伏兵四起前後衝突賊不得首尾
相連走者相踐賊屍如山乘勝長驅日亡襲擊餘賊
走即整軽騎追之行逐之則完鋒已踰半晷崎矣又後
更設有一賊將從數十騎被水銀鎧戴黃金兜背負
白雲圖手持天八偃月刀乘白馬馳來出於二百步

○八月

遂由長水抄出精銳五百餘騎與諸將迎擊于全州界果遇茂朱留屯之賊即於是夜來薄吹馬人坐其後黑霧滿天賊乃大驚或放鳥銃或張鼓喊時夜將半霧勢稍霽矣光之將盡日亦昇明乃使勇士百餘人騎濟州追意馬揮鎗舞劒直衝賊陣中矢石不休息以待其敗意防禦無策賊乃大敗遁伏富安曰倭軍渡海後驕傲日甚一日斥候最可畏一字師命騎往視井塞竈夷惟有恭馬之處而已俄有被髮人來自茂朱賊陣曰賊夜錦山賊捲旗曳甲而至相與遁

○完
坐使陣中壯士先致書於左永使琴公交晉州判官金
公紅衣將郭公之幕即發單令遂為赴援之計諸將進
曰國家賊勢四徵何必棄湖南而遠救嶺右乎先
(日休堂集·壬辰年 10月 19張)

以助兵勢馳奏 行在傳檄列邑遠近響應軍聲復振
旬月之間兵至五千糧餉亦幾六七百斛遂登壇誓衆
前部將則宋判官大昌左部將則高霽中得賓後部將
則許縣監鑑 右部將則巖經歷克平也以子侄爲幕佐
以進士文弘獻爲參謀立贊字爲讀曰全羅右義兵將
大敦路聞直向京畿時本道監司權公慄移關使義兵
進拒錦茂諸賊
右巡察使遣僉正趙宗道請援于全羅左右義兵及諸
將右義兵自南原向咸陽山陰之路崔兵使因向雲峯

(日休堂集·壬辰年 7月26日 14張)

○先生時居母喪氣力衰敗自不能衝冒矢石先
徳侄持平弘載寧鄉兵五百往從錦山之役高公既敗
勢無可爲其幕下士文弘獻等收散亡卒來請公爲義
兵將先生自惟雙親俱發一身許國豈終經從權移孝爲
忠亦一道遂以是年七月哭辭几遊墨衰登壇誓曰
右義兵與宿氏進士慶雲仲氏聿樂正慶長設厭義

主兄與谷城(鄭大民)進熊淵設伏處、點閱卒伍有無、而囚坐川邊、使漁人網得氷魚錦鯉、膾炙而食、余亦叅焉、谷城先設小酌、主兄因下血不飮、余獨與谷城連飮、秋露五杯而罷、盤有西果·紫蟹·炙鷄而已、主兄與谷城還、而余在後、又使漁人捕魚、欲觀其妙、而漁人擧網、圍回水中盤石、以長木搖之、則氷魚長可半尺、驚奔觸網、連得四鱗、貫鰓以柳、送于衙內主嫂前。

(瑣尾錄·第一 壬辰 9月 23日)

更聞之、則錦賊昨昨遁去、還踰沃川・良山縣之路、歷永
同・黃澗向金山云、此道則可無虞矣、其喜可知、但兇徒自六月今至四朔、久穴錦・茂兩邑、使
不得隻影不返、而終來好還、痛憤痛憤、然茂賊則淳昌・長水兩邑精兵、非但防守甚固、各抄自
募精銳百餘人、入送賊境、日日探侯動止、或潛入夜驚、或設伏要害、五度交戰、雖未多斬、而
中箭自斃者無數、一不見敗、賊亦畏怯、不敢出向安城之路、生還錦山者、僅五分之一云、錦賊
則防禦使及左右諸將、領諸邑大軍、至於四度接戰、皆見敗潰、多殺將士、竟無一效、痛腕奈何
奈何

(塡尾錄・第一 壬辰 9月 21日)

左義將任季英領兵、亦昨日入縣、
右義將方在客館中、多設鹿角、勢不容衆、故昨日入宿鄕校、今則移陣于東面民家、人吏鮮少、
左右奔潰、不堪其苦、而隨之以捶扑、官人皆欲走避、而戶長李玉成、諄諄開諭、故姑留應使
云云、且右義將崔也、不計殘縣支供之難能、而發怒減帖、不食官供、小不如意、屢加嚴杖、下
吏悶苦、殆不堪支云云

(瑣尾錄・第一 壬辰 9月 6日)

因留孫家、義兵副將高得賚、領兵四十餘、來駐于此、主兄與淳昌徒見其寓(金禮悶)

(鎖尾錄・第一 壬辰 9月 13日)

(李贇) (金禮國)主兄與淳昌、各歸新戍處、余亦還來、適日暮、入宿縣舘、右義將及僧義兵等、歸陣于鎭安、來見客舍前後階下、人馬不潔之物遍滿、而墻外嚴設鹿角、墻內列立防牌、猶且恐怛不己、官門四隅、亦設伏兵、拒賊窟二日程外、而畏怯尙如此、況敢望兇賊之面乎、眞可笑也、非但此也、自處如奉命之臣、日日早朝受三班人吏之禮、夕則奉直宿人吏省記、凡百之具、責辦於此縣、而少不如意、輒加捶楚、上下皆困、不勝其苦、尤可笑也」

(瑣尾錄・第一 壬辰 9月 18日)

且夕聞(黃澗・永同)黃・永之賊三百餘人、來入錦山云、前聞忠左道列邑、時無賊屯、而今聞自黃・永來賊至於三百餘云、其間傳言之虛實、不可信也、但錦・茂之賊、其數不多、而尙留不退、必有所以、吾意則以爲、敢據兩邑、至死不去者、欲待自京下來之賊、更犯完城也、諸將畏怯退縮、玩愒時月、不急討滅、恐貽後悔也。

(瑣尾錄・第一 壬辰 9月 10日)

因留(德男)孫家、別無賊之聲息、且右義將入縣已久、尙無進陣于賊界、日與軍官射幡、多
鹿角木、設柵官家前後、唯恐賊之來犯、欲爲久駐之計、可笑、錦·茂兩邑距縣二日程、而其間
要害、官軍設伏、幾至四五處、而退縮遠地、唯費粮糜、不欲進擊、尤可笑也、名爲義兵、而官伐
軍潰走作罪者、咸來聚會、欲免其罰、至於左水使軍、厭其水戰、托身義兵、來赴者亦多、退坐
安地、日食官糜、其爲自身之計、則可謂得矣、非但此也、貢辦之物、皆徵於官家、如此殘縣、其
何能支、又明日左道(任季英)義將、自龍城當到云、以此大副將外、其以下皆滅供饋爾

(崔慶會)

(塡尾錄·第一 壬辰 9月 14日)

(瑣尾錄·第一 壬辰 9月 初1日)

數萬兵、分定諸將、今二十日、自完山發行、己到礪山、待北軍聚、直向京城云、前府使高敬命・兵使崔遠、聞巡察兵敗、己調
崔慶會・金千鎰等、奮忠擧義、檄告列邑、則或前朝官・或儒生等、各率壯奴應募者多、己於今月十二日間、會於參禮驛前、將向上路云、必與兵使爲犄角之勢也、巡察之僞師、皆由於兵多、將拙不能御衆、使人心不服、衆情不一、故一人退步、諸軍幷散、今此高而順(敬命)之兵、初非威勒、皆自赴義、衆心齊一、各自奮勵、必成大功、跋足以待
聞廿七日、錦山之戰、海南倅邊應井陣
處、賊先入、諸軍一時發射、而賊不顧濟進、亂砲如厭、諸陣不救盡潰、邊應井・魚得浚及前奉

(瑣尾錄・第一 壬辰 8月 29日)

因留孫家、以朝雨、故主兄不往陣處、且見助防將陪吏私通、前日高(敬命)義將時、有一僧、願入義徒、汲水炊飯爲任、而及其赴戰之日、交通倭賊、指示大將殺害、因致大敗、伏之人言內、此僧與賊相通、導引賊徒、諸山搜覓、殺害人民、擄掠財帛、寶城倅九日之戰、其郡貢生、所佩印信、脅欲殺害奪取之計、其兇惡甚於倭賊、人皆痛憤、欲食其肉、而寶城守倘然得捕推招、則首末盡露、即械送防禦使追云云、此僧言內、錦賊大概乏食、生稻刈食、連命云云、此僧名性澤、而人言殺倭三十不如殺此一僧云、可快可快、且去十九日

(瑣尾錄·第一 壬辰 8月 26日)

然錦·茂之賊、尙據兩邑、以一道之兵力、久不能討滅、若自京遣還
之賊、投入合勢、則以善潰偸生之卒、當窮寇衝突之際、安保其不敗乎、深恐湖南一路、亦入塗
炭之中也、且聞前潭陽府使崔慶会、亦以義將、率兵來駐龍城、不久來會、諸將入討云、若然則
庶可望矣。

(瑣尾錄·第一 壬辰 8月 13日)

在留孫家、與主兄同宿、主兄獨在無聊、使之挽留耳、且右道義兵大將崔慶會·副將高
得蹼及從事官·軍官上下並二百五十人入縣、軍則不在屯數、且李浩然率射軍五十名、更入茂
朱要路、設伏、俟其賊出、射斬計料、且聞昨日茂朱賊相戰、罷來後、南原人落傷、因伏山上、窺
見、則賊之不傷者數人、走入其穴、請兵數百餘名、來見戰處、路中賊屍十一駄載去、被傷扶去
者亦多云

(瑣尾錄·第一 壬辰 8月 23日)

平朝、主兄與淳昌倅(金礒岡)、往茂朱境於角峙伏兵處、殺牛饋士、更與義兵諸軍約束、精抄射夫、設伏要路事進去、食頃、於角候望軍馳告內、倭賊無數出來、各建紅白旗云云、即令諸處候望軍、一時吹角、賊等即時退立圍聚、所着白衣解脫、或着背・或着紅・或着廣大、方欲衝突之計、我軍峰峰促角、鼓噪並進、賊等退歸之際、前日入送淳昌・長水兩邑精兵、賊之歸路、先鋪菱鐵、散處埋伏、俟其賊還、一時發射、亦放火炮、進退相戰、中箭斃者甚多、棄其乘馬・環刀、驚惶北走、亂踏菱鐵、流血滿路、淳昌人斬二級、奪其馬三匹・環刀三柄而來、賊頭一級、則此縣人方斬之際、爲淳昌人所奪云云、可謂少快矣、是日若非兩倅率兵進去、則於角伏兵、必不堅守退走、則安城倉必來焚蕩矣、多幸多幸、李浩然計其出來賊數、則騎步並五十七名云

(瑣尾錄・第一 壬辰 8月 22日)

然錦·茂之賊、尙據兩邑、以一道之兵力、久不能討滅、若自京遣還之賊、投入合勢、則以薉潰偸生之卒、當窮寇衝突之際、安保其不敗乎、深恐湖南一路、亦入塗炭之中也、且聞前潭陽府使崔慶会、亦以義將、率兵來駐龍城、不久來會、諸將入討云、若然則庶可望矣。

(瑣尾錄·第一 壬辰 8月 13日)

在留孫家、與主兄同宿、主兄獨在無聊、使之挽留耳、且右道義兵大將崔慶會·副將高得賚及從事官·軍官上下並二百五十名、更入茂朱要路、設伏、竢其賊出、射斬計料、且聞昨日茂朱賊相戰、罷來後、南原人落傷、因伏山上、窺見、則賊之不傷者數人、走入其穴、請兵數百餘名、來見戰處、路中賊屍十一駄載去、被傷扶去者亦多云

(瑣尾錄·第一 壬辰 8月 23日)

李浩然等、前日潛入茂朱、採觀賊勢、伺隙要射、而適逢賊徒數十、以刈草事、持牛馬出來、刈草還時、先於過路、多鋪菱鐵、潛伏路傍草間、衆、見賊之還、約以口作鳥聲爲號、而聞其聲、一時並起、先射馳馬者、中兩矢而墜落、縣正兵自應希、先入斬頭、其餘人進退相射、賊多踐菱鐵、亦多中箭、顚仆走還其穴、不中箭者、僅數三人、而其中箭者、雖生還、一人或中數三矢、必多死矣、牛二·馬二奪來云云、庶可少快矣、淳昌人亦以此、昨日潛入云云。

(瑣尾錄·第一 壬辰 8月 11日)

昨昨此邊諸將、自龍潭松峴進兵、 寶城郡守督兵先進、 中路伏兵倭相
逢、諸將皆潰退、而寶城·南平獨馳進追逐、諸賊擁驅而出、寶城還馳而來、南平落馬、爲賊所
殺、不勝驚嘆驚嘆、不與彼邊諸將約束、而先自輕進、爲賊所敗、 反助賊勢、 人皆咎寶城之輕
率、而惜南平之被死也、我軍亦多死傷、而其間曲折、時未詳知矣、南平倅姓名韓楯、而主兄之
馬借騎而往、其時之戰、獨騎此馬而馳、被死之後、其馬走還我陣、此縣都訓導、以探候事、適
進去、率來云云、可憐可憐

(瑣尾錄·第一 壬辰 8月 11日)

昨日、食早紅柿、見
時物、思老母、寧不悲哉、入此山中、路傍人參、往來時手自採取、栗古又生枯木、僧採摘來、作
羹而食、又使負來其木、置之幕下、乔見發生所栖、階下當歸滿生、可知此山之高峻、而洞壑深
遂也。

(瑣尾錄·第一 壬辰 8月初 4日)

一聞鎭安地中臺寺、賊人掠之時、法堂主佛、
擧長木擠墜卓下、肩背碎破、掇去坐褥及腹中所藏之物云、佛之不靈可知、自身尙不得救、況
且濟拔衆生之命乎、寺僧誑惑愚氓曰、自經亂之後、連日瑞氣放光云、尤可笑也。

(瑣尾錄·第一 壬辰 8月初 6日)

龍潭大路來到此縣地境、聞伏兵候望人等呼唱之聲、畏縮退去、留宿山間、
實云、故主兄昨日還到天蚤前陣處、以遏橫衝之勢耳、錦山·茂朱兩邑留屯之賊不過三百餘、
而一道諸將畏怯退縮、環守四境、莫敢先入、使賊橫行兩邑之間、無所忌憚、焚蕩人家、殺掠民
財、久駐不去、恣意行兇、愾歎奈何、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29日)

聞茂朱衙屬、避入七(泣)峯山、而賊探入其山、諸人墜落岩下、或死或傷、而窒內亦
墜下之時、適掛木枝、得免其死云、可謂幸矣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29日)

我軍則不知、恐其留在、不得進探去留、昨日始聞其空、寶城・南平及鎭安太守馳入、則果無一人、川邊結幕千餘間、而容舍窓戶、盡爲浮取、不忍見之云。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21日)

鎭安守令都訓導辛齡・鄕吏白鶴天等、潛入賊中、間諜聞見、則前日投入賊中、親近使喚者龍潭記官高忠國・書員安厚根・廉武弼等相逢言內、熊峙之戰、倭賊中斃者七十餘名、其他逢箭致傷擔曳者亦多云、又曰、熊峙接戰時、乘白馬倭將、馳越木柵次、中此縣伏兵所捕捉少兒推問、則乃茂朱人、而窺覘此處虛實者也、即斬梟示云、且少兒言內、錦山・茂朱留屯之賊、欲示衆多之勢、夜往晝還、循環不輟、而其實則錦山只三同、茂朱一同半留在、而去二十七日、賊廿七名自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21日)

聞賊搜山之
時、例以二三人登上高峰、擧旗發聲、或十人或十五六人、持杖亂擊林藪、如獵人驅雉、若無人聲則放過、如有聲則窮探云、元仲成避隱龍水菴、而賊來探其山、竄伏於藤蔓之密處、賊擊林而過去、僅得免焉云云、

(塡尾錄・第一 壬辰 7月初 12日)

作日茂朱人被擄於賊者、潛來縣長溪南面、行止荒唐、爲里人所捉、推問則曰、十九日、倭賊使我潛入長水地、伏兵及結陣處、探知來報、後即時擧兵直向云、故實城・南平・求禮三邑太守、領軍設伏於長溪北面松古介事、即發向、而主兄亦率本縣軍、即馳進天鼈面熊淵選伏兵云云、且鎭安之賊、去十七日踏錦山、而

昨昨賊己人鎭安、焚蕩
近縣山林、官人村民多數捉去、昨日賊騎馬四人・步行十名、來覘縣界、此邑侯望人、呼說賊
來、則賊放炮三聲、而後還向鎭安云云、助防將及寶城・南平兩邑太守、率軍來宿此縣、早朝與
主兄結陣於縣境十餘里地云、其後之奇未聞、但此縣諸軍盡逃、主兄無軍獨進云、是可悶慮
悶慮。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8日)

初九日、在谷中、宿澗邊、早朝、奴注叱同・僧能引、以探問賊奇事、定送於烽燧處、夕還報、賊無
犯來、而但作日縣界德安院院主家來焚、而還向鎭安云云、是日驟雨累至、終日着笠帽簑衣、
蹲坐石上而終夕、苦難形言、且前日聞石墜落聲、驚恐顚倒者、曾聞賊、例登高峰放砲、則竄伏
林藪者、嬰兒・犬馬必驚動、兒啼・犬吠・馬鳴、則尋聲就捕云故也。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9日)

昨昨、官中所儲軍粮及官廳雜
米、盡爲分給軍民等、民家有穀處、亦爲焚之、恐賊見粮久留也、東面巫女家、儲穀甚優、故亦
令衙火、庫家火二晝夜不滅云云、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4日)

自錦
山、歷茂朱龍潭、至鎭安・長水、其間山路陜側、要害回曲處甚多、而若埋伏數百射手於險阻
處、多設疑兵於山嶺林藪、則彼雖衆、必不輕進、而諸將無一人建一策禦敵之計、而聞其聲而
先自退遁、不勝痛憤痛憤、錦山射夫二人、自兵敗退散時、伏於路下草間、坡後騎馬兩賊射殺、
獲騎其馬、馳獻于巡察、巡察即優給賞賚云、彼二人一心、射賊於衆賊之中、奪馬而還、若數三
猛將、各厲其心、各率二三十夫、伏於要害、齊聲其射、則賊必弃還其穴、而何暇侵犯他境乎、
到處先潰、如入無人、其輕侮長驅、固其所矣、痛哉痛哉。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2)

賊先文于龍潭、其文不可解矣、大概稱觀察使·按撫使撫育居民爲名、而實誑誘愚民耳、賊已陷龍潭·茂朱云、今明當到此縣、凡事預爲措備、官中之物、亦爲埋土斗。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1日)

縣戶長李玉成、率陪牌五人、來衛衙屬事、尋到山中、即令還送伏兵越嶺處、凡賊候奇望聞則馳報、俾無蒼黃之患也、若賊入縣、則更踪一嶺、深藏

(瑣尾錄·第一 壬辰 7月初 1日)

今月十六日、主兄(李贄)領義兵行到鎭安、七八人逃還、囚其父
母妻孥鄭族、則還現者多、非但此邑、列郡之兵、逃散者極多、南原之兵、結陣於參禮、而一時散
去、淳昌之卒、中道而叛、結爲一陣、他邑上去單、驅入其陣、掠奪軍器軍粮、至於長城守白守
宗、亦爲所迫、僅以避免云、乘其人心之厭去、欲擧不義之事、而兇魁之叔侄、淳昌倅誘引出陣、
潛伏射士、中路射殺、餘衆盡散云、雖未詳知、而人言如此、痛哉、其後散卒稍集防禦、由大路而
直上、(李洸)巡察自龍安渡江、由忠淸內路而上、皆此月二十日、自本道離發云、

(瑣尾錄·第一 壬辰南行日錄)

六月十三日、前水使李繼·鄭起服、定爲助防將、來鎭此縣東六十峴、峴乃安陰地界、而恐賊蹤
此而來犯也、前者伏兵將前僉使南應吉來禦、而恐其不支、以秩高武臣來助、軍官十六員、此縣
軍及任實·鎭安軍並一千餘名、分守三處、以遏橫衝、

(瑣尾錄·第一 壬辰南行日錄)

十九日、(李贄)主兄領兵赴巡察之徵、到縣界德安院、(李洸)聞賊去十七日陷智禮縣、來犯本道茂朱境釜項伏兵處、伏兵金州人等潰散、來者甚多、不得已還縣、途人採問、則答通內、賊十六日縣境茂豊倉釜項近處三處伏兵所來犯、且戰且退、結陣於倉前、賊還歸智禮後、時無聲息云云、竊聞賊、釜項洞上來時、茂朱縣監望見先走、諸軍一時潰散、張義賢在他處伏兵所、領軍馳進、則賊已退無及云、釜項至險之地、而若埋伏林藪要險處射之、則賊必退走、救死之不暇、而縣監先退示弱、賊必輕侮、不久有長驅之患、可勝痛哉。

(瑣尾錄・第一 壬辰南行日錄)

衙屬亦有遠避計、先埋不關之物於衙中、後埋衣服於縣司板下、今至一月、昨昨衙中埋物、還堀見之、則爲半盡濕、見縣司之物、則土乾如舊、衙中卑下、水濕故也、吾衣服若干、亦在縣司之中耳、或腐毁難用、又

(瑣尾錄・第一 壬辰南行日錄)

死未時東門城子囚兩頹落賊蟻附而上宗仁與親
兵舍弓矢直用槍刀相對搏戰死者積堆如山賊因
以退去又於西北門高聲突進倡義使軍潰散皆聚
於蠶石樓賊乃登城揮劒踊躍禮元先走諸軍潰散
宗仁中丸而兎左右扶起千鎰勸使退避千鎰堅坐
不動顧曰我當兎於此遂與其子象乾相抱投江而
死賊屠本城作爲平地城中兎者六萬餘人後監司
金玏令沙斤察訪金瀞驗視則城中積屍僅千餘自
蠶石樓至南江北岸積屍相枕自菁州江至武峯五
里之間死者塞江而下云

更賊更犯北門宗仁與其手下力戰殺退二十八日
黎明宗仁還到所守城陣則其夜禮元不謹警夜賊
潛來鑿城城子將頹宗仁大怒責之賊進迫城下城
中殊死力戰賊死甚衆賊酋一人中丸死羣賊曳屍
而去黃進俯視城下日今日之戰殺過千餘有一賊
潛伏城下仰放鐵丸橫中木板挑擲而中進左額時
黃進張潤最稱力戰爲諸將首一城倚以爲重進既
中丸而死城中悄懼二十九日以禮元代進爲巡城
將禮元畏惧脫笠騎馬泣涕而行兵使崔慶會以禮
元驚動軍中將斬而止以張潤代將未幾潤亦中丸

鎰以義兵將張潤爲假牧使將天大雨弓矢皆解兵
力已困賊以書投城中曰大國之兵亦且投鋒爾國
敢爲抗拒乎城中以書答之曰我固死戰而已況天
兵三十萬今乃追擊汝等盡勦無遺賊褰臂扣之曰
虜兵已盡退矣是日三戰三退其夜又四戰四退二
十七日賊築五阜於東西兩門之外結竹爲柵俯臨
城中放火砲雨城中死者三百餘名又作木櫃爲四
輪車賊數十人各穿鐵甲擁櫃以進以鐵錐鑿城時
金海府使李宗仁瞥力冠于軍中連殪五賊餘皆遁
走城中之人束火灌油而投之櫃中之倭皆燒死初

數二十四日賊五六千添兵而來陣於馬峴又有五百添兵陣於東邊二十五日賊於東門外塡土爲山因作土屋俯視城中放丸如雨忠淸兵使黃進亦於城內對築高阜自昏達夜進脫衣笠親自負土城中男女感激涕泣竭力助築一夜而畢於是發玄字筒中破賊窟賊旋爲改造是日又三戰三退夜四戰四退二十六日賊作木櫃裹以生皮各自負戴以防丸矢來毁城子城中以大石滾下射矢如雨賊乃退賊又連二大木於東門外上設板屋多放火於城內草屋一時延燒烟焰漲天牧使徐禮元畏懼顚倒金千

二百餘騎出沒于東北山上二十二日辰時賊五百餘騎登北山列陣耀兵城中拔兵不動巳時大衆繼至分爲二起一起陣于開慶院山腰一起陣于鄕校前路初一交鋒城中射殺二十餘人賊斂兵而退初昏更進大戰良久至二更退三更更進五更始退先是城中聞賊將至以鑿爲城南鑿石南江最爲險絶賊必不敢犯惟西北可以鑿濠爲濠儲水其下只有東邊爲受賊之地至是賊鑿決其濠待其乾涸負土塡塞作爲大路二十三日三戰三退其夜又四戰四退賊乘夜一時大呼聲震天地城中亂射死者不能其

終不回奈何無他策只欲晉州諸將空城少避而不
從吾言奈何時邊報甚急倡義使金千鎰領兵三百
以十四日馳入晉州忠清兵使黃進領兵七百慶尙
右兵使崔慶會領兵五百復讎將高從厚領兵四百
義兵將張潤領兵三百義兵將李繼璉領兵四百義
兵將邊士貞遣其副將李潛領兵三百義兵將閔汝
雲領兵二百先已來會本州牧使徐禮元及金海府
使李宗仁等方議守城十九日巡羅兵使宣居怡及
洪季男等來會以爲賊衆我寡不如退守內面金千
鎰抗言止之居怡季男等出陣于雲峯二十一日賊

倭彼將領聞之關伯關伯曰爾等亦可進攻晉州打
破城池以洩前怨行長見本府而言令晉州之民可
避其鋒彼見城空卽撤東回而已惟敬還自賊營隨
行逼使李楡悅稱淸正力主此事言於秀吉期於必
陷晉州而後已行長力止之不聽故是行也秀家行
長三盛吉繼等不從義智在應從之中亦止不行行
長送游擊于梁山把手爲別曰我力止淸正猶不回
然止於晉州而已保無他憂也金命元與巡察使韓
孝純見惟敬曰晉州事急願盡力救之惟敬曰與行
長終日終夜戀戀言之行長之意亦然但其黨已盛

癸巳六月十五日賊酋淸正合諸酋兵聲言三十萬
或云七八萬發自釜山東萊水陸俱進直向晋州時
劉總兵綏與吳遊擊惟忠在大邱駱參將尙志宋遊
擊大斌在南原王遊擊必迪在尙州沈游擊惟敬方
在平行長倭營中與賊講和宋經畧應昌時在京城
移文惟敬責之曰爾旣以令倭下海取歸　王子爲
言而賊猶此屯住搶掠不已爾須還八賊營分明開
諭不然我將移咨兵部重究不恕惟敬傳帖于都元
帥金命元曰日本攻打晋州之計彼因去歲於此被
挫甚多是以忿恨不平況貴國兵累殺日本倡

白沙記事

聲猺華夏伏願上樑後百靈長護一區永學堂
宇巍然並節義而不朽邁豆儼若庶朋蠲之有
臨肆寓師慕之誠永作觀感之地

多至於十餘人則一國之內死義者豈止此六人而已其中必有余未及知者矣今只以此六人并錄於編中而他死義之士或有遺焉則雖曰余未及知其不敏之罪將與蔽賢者同一歸矣今吾只舉湖南義士余所詳知者以爲是書其意不過如此而已客釋然而退因記其語跋于尾以誌余編纂是書之意云

萬曆紀元戊午孟秋竹山安邦俊敬書

不公一道人物尚未能詳知況於遠地其何能得其毁譽之眞乎此余所以不敢不謹非有一毫私意於其間而去彼取此也至如宋東萊(呂祖謙)之君臣義重父子恩輕金義州(浦名)之國恥未雪壯心成灰劉助防(克良)之義不退生甘心死綏邊海南(南海縣名)之涕泣數日躑死重峯李金海(金悌男)之腹挾兩賊大呼投江李兵使(相男)之冒入圍城同死天兵其精忠壯節人無間然者則余之景慕豈在於十餘人之下哉客曰然則子何不以此六人并錄於編中乎余曰不然十室之邑必有忠信夫以湖南一道義士之

余者曰此編所錄有關世教誠爲可嘉抑壬辰丁酉之亂吾湖南文武士夫死於凶鋒者不可勝數而子只取崔兵使以下十餘人何也余曰不然彼文武士夫之死於兇鋒者豈盡皆明白死義之徒乎若死義之跡不甚明白則不可吹竽渾眞於其問也盖此十餘人之外或不無明白死義之人而余未及知者則吾將以俟夫後之君子而續筆焉客曰亂後死義者固不止湖南子只以湖南義士編爲一書而他死義之士則不得與焉亦有意乎余曰不然余病廢杜門聞見不廣人之爲言亦或

姜吳以下詳載晉州敘事
嗚呼往在丁未年間嘗拜月汀先生於門下終日
陪話月汀曰湖南古稱多節義之士壬辰之亂死
義者幾人高招討金倡義外吾未之有聞也余以
崔兵使以下十餘人言行事蹟一一陳列月汀大
加歎服曰子爲我記其事蹟爲一通以來吾當作
序跋附于編末以圖不朽也余唯唯而退悤悤沉
埋荏苒十餘年未及就稿而月汀遽捐館舍矣余
惴其志之未遂痛傷特甚獨處溪堂追思月汀之
言仍編集是書名之曰湖南義錄書既成客有難

姜恭事希悅居光陽縣壬辰募兵討賊號義將晉
州守城將多謀避希悅獨領兵馳進城陷力戰而死
吳奉事宥居寶城郡壬辰亂屬元帥幕下最見義重
高臨陂起兵再三牒報元帥請爲副將晉州城陷力
戰而死
吳正宇玭居光州以氣義自許常歎服高門忠孝及
高臨陂起兵玭從事幕下及晉州城陷與臨陂同赴
水死
金麟渾居珍原縣河西先生從弟也有膽氣高臨陂
起兵麟渾慫慂幕下晉州城陷與臨陂同赴水死

爲別將戰功最多授主簿之職癸巳五月立之患重疾留咸陽地僅得蘇六月聞晉州事急罔晝夜馳進則賊已逼城立之躍馬突圍擇笠大呼曰我是崔某城中開門納之及城陷奴泣請曰某處水淺可以潛身得渡立之曰汝但速出歸報一家遂與崔兵使同赴水死噫立之在家則田畝間一布衣在軍則不過一褊裨耳雖從死可也臨危不避死而無悔非其素定能若是乎子姿早殁諸孫尚未成長世無好善者至今數十年埋沒無傳誠可痛惜今於此記其一二以俟他日知言者云

推崔兵使慶會爲盟主汝徵因參謀幕下軍中諸事
非汝徵不能辦人皆歎服癸巳六月義兵諸將自咸
安入晉州城崔兵使謂汝徵曰君輩徒死無益不如
直還本道以謀再擧汝徵以爲旣與同事義不獨生
遂入城城陷與崔兵使同赴水死賊退本縣士子再
三陳疏請旌其閭監司守令置諸壽常迄未褒奬典
凡有血氣孰不憤惋寃後諸生相與私採衆論配享
崔兵使祠宇
崔主簿希立字立之號孝菴居南平縣少有膽勇以
義氣自負壬辰變從高招討錦山敗後又屬崔兵使

服猶不肯出兵及還賊逼城會元同行數人皆遁走
會元泣曰臨危苟免使主將獨陷死地其可乎自南
江入城一軍皆驚會元生長水邊自少善泅游及城
陷力可以免而會元義不獨生遂與金公同赴水死
丁酉之變會元妻李氏八僧達山避兵遇賊拔佩刀
自剄而死

文進士弘獻字汝徵居綾城孝友之行信誠之操爲
儕輩所許時湖南士類分黨角立互相詆排惟汝徵
持論和平是以京鄉語及南中人物必以汝徵爲巨
擘壬辰之變與若干同志從高招討軍錦山敗後又

隨後從行公馳進與安秀才琰同力救高公遂爲賊
所殺事聞　贈司諫院司諫　旌門
梁佐郎山璹字會元己卯名流弘文館校理彭孫之
孫府尹應鼎之第三子也居羅州嘗出入牛溪先生
門下見時事日非遂絶意科業卜居州南三鄉里去
本家百餘里每省親必徒步習勞壬辰會元募得精
兵數百人推金公千鎰爲盟主入江華會元自江華
晝伏夜行奔問　行在特命除工曹佐郎朝臣有勸
留仕者會元固辭而還癸巳金公守晉州城使會元
請救於　天將會元辭氣慷慨言淚俱發　天將歎

意於仕進人勸之仕則曰吾非不欲仕不可以力致
蠅營狗苟非余本心其恬於勢利如此時人莫知其
賢屛居田間十餘年壬辰公與列邑多士會潭陽府
推高公敬命爲盟主公因從事幕下俱赴錦山公謂
諸將曰錦山之賊其衆數萬以我爲合決難抵當吾
意莫如與諸軍并力分據險要待賊驕惰選精銳四
合擊之可也公一目眇容貌不揚幕下諸壯士皆侮
之不用其計遂進兵軍濟之日公與高公異處意高
公已脫與諸將士同時走還及聞高公未出遽策馬
入奴叩馬泣諫公不聽以劒斫奴奴不得已釋馬銜

江華元瑞遂詣招討軍中欲因以尋毋元瑞時未知名慕下諸生皆高談大言蔑視之元瑞惟日隨行逐隊而已及軍敗諸生一時散走元瑞獨不去請高公且退叟圖後擧高公曰我當止死君可速出凝然不動元瑞扶高公上馬高公不聞騎馬隨地馬逸元瑞以其所乘馬授高公而元瑞步從千後賊既逼高公勸元瑞避走元瑞不肯及柳學諭彭老至元瑞與柳公同力救高公遂與同死事聞 贈掌樂僉正 旌門

柳學諭彭老字君壽居玉果縣性至孝登文科後無

南前野彌滿數十里之間公與福男望見賊屯相與
抵掌大笑曰捐身報國此其時矣遂揮兵直進鳴螺
吹角了無怖憂之色楊摠兵爲之感動嘆曰東國男
子此惟二人而已及城陷公與福男及諸將士奮劒
斫賊力盡而死
安秀才瑛字元瑞已卯名流弘文舘校理處順之曾
孫李判書後白之外孫也居南原府事親至孝壬辰
元瑞方在南原庄上毋夫人李氏在京第遭難相失
元瑞聞避亂士女多在江華欲往問李氏去處賊兵
四合道路不通元瑞晝夜號泣會高招討起兵將入

登武科陞堂上丁酉閒山之濱賊分三道長驅八南
原各鎭列邑望風奔散閫帥諸將不知所去時公以
助防將留全州李兵使福男駐順天聞南原圍急皆
倍道亟進相遇於淳昌公謂福男曰晉州天險之地
兵且數萬而見陷於旬日之內今此南原形勢不如
晉州楊總兵只有三千兵馬我國諸將無一人來援
不出數日城必陷矣豈可使天兵獨死於我國之事
乎福男起而執其手曰公言正合我意遂與公令軍
中曰願從者留不願者去軍中壯士林士美等願從
者百餘人於是自蛟龍山下直入城中賊陣雲集城

常武夫視之沉滯累年惟事射獵壬辰亂作公以守
城將留本府會任眞寶啓英起兵請公爲副將公號
令嚴明信賞必罰與士卒同甘苦乃悉以兵事委公
癸巳領兵入晉州城時徐禮元爲牧使巧詐無常人
心不服及賊至又稱病求出城軍皆憤怒倡義使與
諸將相議以公權代禮元啓聞于　朝於是城中各
厲心力有固守必死之志公遂與忠淸道兵使黃公
進金海府使李公宗仁等協力防守賊不敢逼未幾
公與黃兵使相繼中丸城遂陷事聞　贈兵曹參判
金助防敬老居南原府少時嘗從擧子業中年投筆

等若干人終日力戰公丸中于脚猶憤激亂射賊大
敗而走伏屍數里許我軍則無一死傷者由是湖南
得全以功陞忠淸兵使癸巳領兵入晉州城與義兵
副將張公潤金海府使李公宗仁等協力防守賊不
敢逼未幾公與張公潤相繼中丸城遂陷事聞贈
右贊成旌門
張副將潤居順天府自少亢倨登武科不以干謁爲
事人或勸之仕則曰以仕爲急者必受制於人每事
不得自由與獄中囚拘何異嘗爲鉢浦萬戶見忤於
水使卽日解印去其志槩如此而人無知者皆以尋

敗公乘勝追擊中丸而死人皆痛惜
黃兵使進居南原府少有大志不拘小節人皆以豪
俠目之登武科庚寅以通信使裨將往日本一行皆
以所得銀兩貿貨賣公獨以空價買寶劒兩口一行
問其故公曰此賊不久渡海其時吾當用此劒人皆
笑之壬辰公為同福縣監每衙罷環甲馳馬輒十數
里而止及亂作公卽與列邑官兵分據險要以截賊
自嶺而湖者一日賊數千餘騎至熊峙公先登突出
射殺前鋒數十賊敗走俄而賊又大擧至梨峴鏖九
如雨聲震天地諸將皆退縮公獨與郭大奇孔時儁

合道路不通公不如與我同事招募義兵公然之遂同行下嶺南有一人素不悅公者亦來屬幕下公不辭而還治任將入　行朝會任眞實啓英起兵張公潤爲副將公因從其軍爲別將每出戰公必着紅衣先登突擊賊畏之見紅衣輒不敢出一軍恃以無恐張副將常戒曰國家所恃惟在義兵義兵所恃惟在於公公勿輕敵終成大功公曰丈夫豈惜死乎死於國事吾志也星州之戰賊兵無慮千餘人我軍僅數百衆寡不敵皆退縮公奮臂大呼曰見賊而走何謂義兵卽挺身前突賊陣於是諸軍皆還集力戰賊大

謂洗曰君父播越臣子國當挺身赴難公握重兵作
藩翰今日罷兵有何意乎遂瞋目按劒洗驚惶失措
謝曰吾未之思耳此後惟公指揮洗還全州乃傳令
列邑收聚諸軍直向京城公自請爲先鋒龍仁之戰
洗托以違令杖公重傷公歎曰寧爲賊所殺遂突陣
而死人皆憤惋
蘇別將尚眞居寶城郡少從事武藝數奇不成一名
平生所爲未嘗有一毫非義壬辰公聞健川軍敗卽
以單騎入京勤王至全州參禮逢金公誠一聞京城
失守公伏地痛哭欲追及於　行朝金公曰賊兵四

慷慨尙氣義好善疾惡人皆敬憚時鄭賊汝立附托
時輩勢焰熏灼一道文武之士皆欲結知爭趨其門
公所居與鄭賊甚邇鄭賊再三請見公不往鄭賊含
之公爲珍海固城二縣宰鄭賊輒唆臺官駁遞之公
終不動己丑爲北靑判官時重峯趙先生以言事謫
配吉州凡所經州縣知舊守令率多畏禍蓄縮莫敢
出見至府界公盛備酒饌待之極敬重峯曰吾與公
未嘗一面今何至此耶公曰中心所激不得不爾因
言鄭賊再三請見連駁二縣之事及逆變起人始服
其先見壬辰公丁內艱家居聞李洸罷兵馳到公州

前瞋目謂舜臣曰賊已破嶺南乘勝長驅其勢必水
陸并進公何持重至此無意出戰乎舜色俱厲舜臣
氣懾不敢違公遂自請爲先鋒直擣外洋賊大至諸
將皆退走公大呼曰諸將任意進退今日吾得死所
矣衝冒突進撞破賊船不知其數賊敗走後賊又連
日大至輒爲公所敗公乘勝追擊中丸而死是時賊
勢鴟張人莫敢嬰其鋒敢以舟師擊賊公實倡首自
此諸將皆爭先赴敵舜臣之聞山大捷皆公首事之
試之功也事聞　贈節度使　旌門
白僉使光彥居泰仁縣少有勇力登武科陞堂上性

晉州城城陷與幕下士文弘處置同赴水死事聞
贈左贊成錄用子孫賜退後鄉人立祠以忠烈祠
賜額旌門
鄭萬戶運居靈巖郡自少慷慨有俠氣每以伏節死
義自許登武科嘗爲居山察訪監司陪行信任人作
弊公杖之監司不悅公卽棄官歸未幾爲熊川縣監
見忤於監司又卽日解印去俄除濟州判官又以忤
牧使見罷歸舟不以一駒自隨其剛果淸高皆類此
由是沉滯累年壬辰公爲鹿島萬戶亂作左水使李
公舜臣以戰艦屯于水營前洋不敢進戰公按劒而

湖南義錄

霽峯高先生父子倡義金先生父子兩家事蹟非但國人知之至於流入中朝名聞天下又有傳信文字已盛行于世故今於此編闕而不敘後之覽是書者此意不可不知也

崔兵使慶會字善遇居綾城縣登文科壬辰公丁內艱家居及高招討敗死諸將士又推公爲盟主時任眞寶啓英亦起兵任領左道諸軍所謂左義兵也公於是俱領軍入嶺南公領右道諸軍所謂右義兵也公處事精敏號令嚴明人情皆以公爲恃癸巳領兵入

隱峰野史別錄 終

此冊余得之坊間。魯魚不可讀。乃就朝川氏所藏校正。庶乎無謬誤。然尚有可疑者。不敢妄改。竢後之明者。

嘉永三年庚戌清和月 渡邊勒識

多又未免吹竽混眞之議焉。余於是時年踰弱冠出入義旅聞知備詳。故得丙申年間粗敘首末以圖不朽。而顧拙於語荒詞。意不通暢。此得鰲城日記參互考證。則與余所錄大略相符。謹因其文。更加刪潤。名之曰晉州敘事。凡我同志。勿以人廢言。如有所聞。續爲添補。使精忠壯節。不至於泯泯無傳。此余區區之願也。

癸卯孟冬既望牛山病叟安邦俊書于季冬上澣興陽縣鄕校開刊

隙必里。更另金一
南休兵爲善。清正然之。卽令撤回。是夜林遇華。
東遁還。遇華博通書籍。兼有膽略。其事軍中諸將皆
重之。每在轅訪焉。乙未冬。余見遇華於光陽縣。問當
時事。遇華陳述不差一二。繼之以湖至於鳴咽。余甚
義之。約以他日相遇。未數年病逝云。余聞晉陽之圍。
殆將一旬。內守雖固。外援不至。力盡然後見陷。不屈。
且是役也。賊攻過當。不得已渡江而西。則其敝遮湖南
之□□□□□□□□巡遠之匹也。噫。諸將士。明
白死義者不一二。而忠臣列傳。及諸公記事。闕遺者

咸集於蠶石。賊遂闌入。於是象乾梁山璹弘獻扶慶會吳玭金獜渾高敬元扶從厚北向再拜。赴南向而放。山璹素善泅游。千鎰曰。汝可以免。努力更圖。滅此仇賊。山璹義不獨生。遂與同放。宗仁希悅。宵潛等十餘人。奮劒斫賊。賊抵死乃已。最後宗仁。轉鬪至南江。左右臂各挾一賊。大呼赴水曰。金海府使李宗仁。死於此云。七月初二日。賊發向湖南。前鋒將六毛里鹿加未等一軍至河東。一軍至石柱。有一賊酋。爲清正謀曰。攻城十日。精銳挫甚。不可以此得志。湖

隔此里、更另金
大捷。忽有一賊仰而放丸中進左額而死。
于麻田中。時黃進張潤李宗仁金俊民吳宥李潛姜
希輔姜希悅等。皆稱力戰而進之忠烈智勇爲諸將
最。一城甚倚重焉。及其死也莫不洶懼。二十九日。以
禮元代進。爲巡城將。禮元脫笠而騎。垂涕而行。慶會
怒將斬之。而止。卽以張潤代之。未幾潤亦中丸而死。
時東門城子。因雨頹圮。羣賊蟻附而上。宗仁等與其
親兵。捨弓矢持短兵搏戰。賊死盡。賊乃退。賊之精
銳。又自西北門揮劒踊躍而至。禮元先走。諸軍大潰。

豐臣秀家再拜云。城中答書曰。我固戰死而已。而況天兵三十萬。今方追擊。汝等盡勦無遺。賊乃退。賊又作大櫃。置四輪車上。鋭卒數十各穿堅爲牀而放之。又進等放火箭毀柵。而入兵已盡退去矣。遂築五阜於東西兩門外。結竹爲牢。甲。推挽而進。以鐵錐鑿城。進等束火灌油而投之。櫃賊盡死。賊乃退。二十八日。進等覺之。殊死戰。賊首一人中丸而死。賊尸亦千餘人。進臨城俯視曰。今日之戰。賊尸盈塹。可謂

隱岐男女金
身自負石男女皆感泣助役一夜而成遂用大炮中
破賊窟賊乃退賊又作木櫃被以獸革負戴而毀城
進以大石滾下雜以射炮賊乃退賊又於東門外建
二大木上設板屋放火城中屋比延燄烟焰漲空進
亦設板屋半餉而成遂用大炮中破賊窟賊乃退時
天大雨城一隅頹圮賊大喊闌入金俊民力戰死之
賊乃退賊投書城中其略曰萬民入城一時屠殺可
慘將帥一人送其邦餘安在城中可也如欲講和
則脫笠三押書尾曰六月二十七日羽柴備前宰相

九如雨。城中拒之甚力。賊乃退。姜希輔曰。
不可不遣死士求救於官軍。令其幕下林遇華縋城
而出行未及五里。爲賊所擒。自後賊來輒縛遇華置
于前列以示之。是夜賊又逼東門。大噪登城。聲震天
地。進等血戰。賊乃退。禮元顚倒。處事失指。千鎰慶會
議。以張潤權攝州事。城中懽喜。義氣自倍。一日賊自
西北隅大噪而來。守陣者皆走。城幾陷沒。進奮劒大
呼曰。今日吾得死所矣。於是諸軍還集。亂射。賊乃退。
賊又於東門外。造山數仞。俯而攻之。進亦對築高阜。

隙。出里。多另金
等。賚書乞師於劉綎。書乃從厚所撰。言旨激烈。綎繼
以山璹辭氣慷慨。感動於人。綎讀未訖。不覺斂衽改
容。然終無出師之意。涵於歸路。棄山璹走。山璹泣曰。
臨危苟免。使主將獨陷於地。非義也。遂軍騎入城。一
軍皆驚。二十一日辰時。賊俯瞰而去。已時。又數百餘騎。登北山列陣耀兵。俄而
大軍繼至。圍城三匝。不放一丸。城中亦按兵不動。賊
乃退。自聞慶院至馬峴。大陣凡三處。其餘小陣。星羅
碁布。不可勝數。二十二日。賊進薄城下。自朝至晡。鐵

使鄭起龍討來。審城池曰。南有大江。北有深池。實天作之地。且劉總兵欲爲外援。自大丘動兵。前鋒已到咸陽。遣我輩先諭云。二十日。沈惟敬移帖來。其略卽向來所諭。空城避鋒之意也。是日吳宥李潛與本州武士鄭國祥等。出城覘賊。前鋒已入州境。二將遇賊。去不復還。必是亾走。而走國祥等還報曰。二將各斬數賊而來。城中鼓譟。或有拔劍而起。俄而二將皆義士也。吾當急赴援。舞者大將數曰。一城之龍還。始千鎰自咸安來也。遣梁山士璹洪涵卽與鄭起

踊躍思奮。時千鎰軍五百。慶會軍六百。黃進軍七百。張潤李潛軍各三百。繼璉汝雲希輔希悅等軍各二百餘。合諸守令兵。及本州兵民。避亂士女。凡六七萬人。李贇傳令從厚出與居怡季男等。合勢爲外援。城中將士。亦多勸之。從厚皆不從。於是分城而守。城南巉石孤險絶。賊不可犯。惟東西北三面。受敵可虞。令義兵守之。黃進李宗仁張潤各率數十人隨賊所薄往來相救。幕下諸生親持酒食巡城餉士。約束既定。城中之人皆以死自誓。十九日。天將與尚州牧

目、毗之曰。義兵諸將。今方會輕易棄城者、
恒怯人也。遂不敢違。十八日。全羅兵使宣居怡。助防
將洪季男等來。謂曰。寡固不可敵衆。卽還出陣于雲
峰。時奮義兵將姜希悅以元帥令兼助防將。帶數邑、
軍兵守求禮石柱、梁道。聞之奮然曰。官軍謀避尚不
可。況義兵乎。遂疾馳而來。敵愾氣益急遣其副將李潛行。偏裨皆
曰。大賊將至。規避者衆。獨就死地乎。潛不聽。遂促兵進。方
男之出也。城中之人無有固志。及聞希悅等至。莫不

陰山里ヨリ另ニ金
使金千鎰。右義兵將慶尚道右兵使崔慶會。忠清兵
使黃進。巨濟縣令金俊民。海美縣監鄭名世。左義兵
副將泗川縣監張潤。復讎義兵將高從厚。及ヒ其副將
吳宥。熊義兵將李繼璉。飛義兵將閔汝雲。彪義兵副
將姜希輔等。各領レ兵ヲ來會。及ヒ入レ城。諸將幕下ノ士。無レ可
用者。聽レ其出去。凡數十人。惟鎰幕下子象乾。及ヒ梁佐
郎山璹。慶會幕下文進士弘獻。從厚幕下吳字玭。金
內禁獜渾。高參奉敬元等。五六人不レ去。時ニ金海府使
李宗仁已ニ入レ城。議レ守禦。牧使徐禮元不レ肯。宗仁張テ

還。都元帥金命元。巡察使韓孝純謂曰。晉州
老爺力救之。惟敬曰。彼因去歲失志於此。是以
銳意再擧。今無他策。只令諸將一如行長所
時官軍義兵。俱在咸安等地。倡義使金千鎰。
曰。賊謀謂諸將言可也
湖南。迭爲脣齒。若棄之去。
南。莫若並力堅守。以遏賊勢。諸將不應。巡邊使李薲。
紅衣義兵將郭再佑。自丹城徑入山邑。左義兵將任
啓英。自泗川直還湖南。守令諸將亦多散去。獨倡義

隙此里。又另金
加。失信。外國若復執迷兵難遂寢。必發鳥尾福船樓
船。拍槽。龍槽沙船。艙船。銅鉸小艄。海舡八喇唬八漿
等。船。裝載百萬邀截海崖斷汝。歸路。絕汝糧餉。不待
決戰。爾將自斃。島嶼片甲不還矣。且關伯與汝原是
比肩。爾等被彼牢籠。俱聽驅使。關伯既慕天朝而納
貢。汝等向晉州而復圍。今日進退之間。利害所關
非細。三思自審。免悔噬臍。賊不聽。沈惟敬力說行長
使止之。行長曰。今日之舉。吾無所預。惟清正主此
議。開喻百端。不知。先自空城。快其情而已。及惟敬

念至誠深可嘉賞故天朝所遣百萬兵盡止鴨緑江頭大將李某統兵二萬駐王京郭總兵某統兵二萬駐遼東吳副總某及他諸將領兵分布平壤開城者又十餘萬俱按不動恐一交鋒便爽約議和失我堂堂天朝覆載度量不意汝等歸意不決復攻晉州頓兵日久背前約云洩舊忿夫朝鮮八道士女橫罹荼毒者枕藉遍野懸首盈竿亦云慘極雲復何顏面目之城何必以小嫌介意而失大信於中國哉晉州敎事 十九

及今尚且易慮改心撤兵東返則我輩必不舉兵相

正閏千秀吉請復攻晋州仍擊湖南秀吉許之六月
十四日清正合諸酋兵數十萬發自東萊直向晋州
時劉總兵綏吳游擊惟忠在大丘駱參將必迪在尚州沈游擊惟敬在南原王游擊
賊酋平行長所宋經略應昌在京城劉綏移書清正
曰日出毁我屬國兵禍結上皇赫怒特命節鉞分遣
虎臣意圖盡戮長鯨永清東海誦因沈惟敬往回面
講日出遂能傾心解甲納款乞盟盡行退還引類歸
國又從釜山遣小西飛驒守久大夫叩天朝俟命

晉州敘事

萬曆二十一年。癸巳六月。倭賊陷晉州。守城諸將皆
效之。先是壬辰夏。賊分路水陸。謀寇湖南。一路至晉州城。爲判官金
山島。爲水使李舜臣所破。一路至開
時敏所拒。皆不得志。由是賊常忿恨。是年春。天將與
賊連和。京外諸賊。俱集嶺南。於是兵勢大熾。賊酋清

陰史里 李氏

亥、疏有曰竊算宇宙以來慍于群小者未有甚於賤臣其言誠可悲而其情誠可痛也。愚每讀至此未嘗不掩而歎繼之以流涕也。後之人其有感於斯而與我同一悲痛者乎。今於編末。憤筆書之。

二

之釣乎聖人疾沒世而名不稱設使先生
而欤三代以下猶恐不好名而況先生乃
物取舍魚袋之判只以求吾心之所安以
已初不爲名者乎且世所謂學問者果何
一行動遵禮法忠孝大節無愧于古人者不
行之士而從事記誦只資口耳高談性命靜言庸違
者乃可謂學問乎此尤無倫無理不滿一笑眞所謂
得其惡言不足怒者蚍蜉大樹之撼多見其不知量
也噫此可爲智者道難與俗人言也余嘗觀先生丁

陰崖里支另金

爲ヲ乙羣小ノ所ト陷ル也。而先生則自レ釋テ禍ヲ以來。十六年之間ノ曾テ不レ得ニ一日ヲモ安フ於ニ朝廷之上ニ。蓽蓽羅織。無レ所レ不レ至。或ハ廢棄シ田野ニ。或ハ竄ニ逐シ嶺外ニ。必欲ス殺シテ之ヲ而後已ム。至或謂フニ先生之ヌ爲ニ釣ヲ名ヲ也。節之後ニ。呶呶ス者猶不レ止。或廢棄シ田野ニ。或竄ニ逐シ嶺外ニ。必欲ス殺シテ之ヲ而後已ム。至或謂フニ先生之ヌ爲ニ釣ヲ名ヲ也。後乃變ニ其說ヲ曰。趙某不レ過キニ一忠臣ニ而止ニ耳。其學問則空疎無レ足レ取ニ者。噫自レ有テ宇宙ニ以來。曾テ見ニ有リ一人釣テ名ヲ而死ス者ニ乎。夫所レ謂ハ釣ル名ヲ者ハ以下其舍テ小利ヲ以レ取中ニ大利ヲ也。今先生之死ス也。父子膏レ血塗レ于草野ニ。三孤子子。凍餓流離ノ人間。禍酷可レ謂レ慘ト矣。先生於レ死ス有テ何ノ所レ利ス而謂フ

所誤激怒以致寇賊未入境必先殺先生擧一世人人無不歸咎於先生矣然則先生之容於時一攸留名於後使天下後世知我國有如此人物以扶植吾東方萬古綱常撑柱無窮也歟噫自古聖賢皐夔伊呂以後上下數千載之間無一人見容於世者其始也猶未嘗不一時顯重於世而終不容於世者則初不足爲先生今日恨也然彼古今之所謂

隙地里另鈔

之效地ニ一時幸會ニ僅ニ能ク成ス功ヲ若シ夫レ孤軍無レ繼ヲ地ヲ驅テ二疲兵ヲ擣ニ虎穴ヲ一ニ摧ニ陷ス堅城ヲ一ニ蕩ニ腥塵ヲ一則亦唯先生已ノミ料レ敵ヲ制レ勝ヲ古人ノ所レ難ス而先生能レ之ヲ一時文武名人ノ素負レ材望ヲ而笑ニ□先生ヲ者ノミ舉不レ免□其後ヲ矣ノミ然則向キ之謂フ先生ヲ非ト人ニ材ニ者ノミ果ノ是耶非耶ノミ土亭嘗テ以ニ適用之材ヲ一ト土亭ノ先識ノミ可レ謂フ度ニ越シ常情ヲ一ニ眞ニ知レ人者ト矣ノミ抑又思レ之ヲ當テ先生請テ斬ル倭使ヲ一之日ニ使ノ上ト朝廷果メ能ク主ニ用メ其策ヲ一而卒ヘ之ヲ平酋大舉メ入テ寇ス以致ニ壬癸之變ヲ一則凡レ平日仇疾先生ヲ者ノミ咸攘レ臂テ大言シ以爲ニ國家爲ニ狂漢ノ

必內相貳諸國必同憤疾天兵整飭水軍羅絡東南
多方撓之平首立國日淺不免左右顧慮必
動此所謂上兵伐謀不戰而屈人兵者就令能來必
不能大擧深入宗社滔天之禍決不至是烈
當時滿朝卿相不及韋布之士無一慮及於此先事
而言若合符契者唯先生一人而已及乎變作之後
廟堂之上環顧錯愕面無人色八路聞帥列鎭諸將
投鼠山海之間靦面偷生唯擁慄李廷馣李
時敏或以嬰險全城或以蒙衝卻賊皆以主待客置

陰世里。手另餘
聞趙某疏中大詆。令公云。此疏若達則必得重罪。巡
察乃遣腹心。吏韓從。托稱檢督舟師。禁士子登舟。以
沮尼之。陪疏儒生全承業。洞知其情。乃示以疏本實。
無關涉。巡察語。從乃許登舟。而士子金止男等。疏章。
則以直斥其擁兵自衛。沮壞義旅之罪。故竟不得達。
至是又多方沮撓如此。軍中莫不憤惋。
愚竊嘗思之。丁亥辛卯數年。先生伏閤控章。大略以
爲請勿通信日本。斬其使送于天朝。移檄琉球南洋
諸國。諭以源氏舊臣民。喻以利害。激以忠義。則倭奴

中興之望。公從行、士卒。亦必內顧、而搖。豈能安レ心ヲ行乎。不如同討二錦賊一後、并レ力ヲ勤レ王。亦未レ晚也。謁更諫。咸謂、兩將和調。乃能濟レ事。今與二巡察一構隙事將不レ利。且國家、區域。盡爲二賊據一。只有二兩湖尚完一莫レ如レ上。乃計之得也。重峰先滅レ此賊一然後治レ兵ヲ西上。乃還二公州一。又與二巡察一議レ事。只欲レ沮レ重峰行而實無レ意於同レ事也。將士之還レ家ニ治レ任ヲ者。皆被二巡察所一レ囚。只有七百、義士。願從二重峰一同レ死生ヲ者而已。重峰初破レ賊。即抗レ疏ヲ千行朝二論レ事。世獻又說二巡察一曰。今

隙必里、又另金
定議不可留此爲賊再據之資。悉焚其穀而去。重峰
乃還則軍中只餘糲米數斛而已。計無奈何。遂許諸
軍各還其家。治禦冬之衣。將以未寒前決意勤王。行
到溫陽則巡察恐入行朝。盡發其沮撓之狀。乃使重
峰幕下士。張德益等說曰。吾始與公相驩也。今有細
人之言。與公有隙。吾亦覺悟。今已悔恨。且西原之戰。
已知公爲國之忠勇。今則矢與公死生以之。願故人
釋此小嫌。期成大功。今聞錦山之賊。自招討戰敗之
後。益復猖獗。將有侵軼兩湖之勢。若然則國家更無

軍者。千六百人。乃以八月一日。直擣清州。進薄西門外。與僧將靈圭合勢。終日力戰。賊勢窮蹙。城忽有騶雨從西北來。天地晦冥。戰士寒慄。乃嘆曰。古人云成敗在天。信然。乃鳴金小退。是夜賊遁去。有一女。自賊中來告曰。賊徒望見軍容。莫不失色。曰此義兵冒矢直前。少無摧挫之氣。不可與爭鋒。乃燎火樹旗。爲疑兵。盡燒其屍。已空營宵遁矣。重峰乃請防禦使李沃。以米粟數萬石。分賑窮民。牛馬數百頭。分授各里。以備耕種之具。沃恥其無功。乃曰。已與巡察

隙地里史另錄

州ニ力テ言フニ君臣大義ヲ巡察不ルヲ得ヒ勉從ス數日之
者近シ千人安宗道之子世獻素悖戾無シ行亂ノ
我國人ヲ前剪去リ頭髮作メ倭形トシ以要スレ功重峰倡言スル
獻怨之ヲ乃說テ巡察ニ曰公擁シ一道ノ兵馬ヲ而曾テ無ニ
趙某則奮起シ於放逐之中ニ先テ公ニ著ケ鞭ヲ趙若得レバ
治ス公ノ逗遛之罪ヲ竊ニ爲レ公ノ危ムレ之ヲ巡察然トシ其言ヲ
邑ヲ囚繫シ應レ募人ノ父母妻子ヲ又使ヲ青陽縣監任
百餘人ヲ劫ス義旅ヲ囚ニ公州ノ獄ニ純不レ從フ以レ此ヲ既ニ
散ス重峰貽リ書ニ巡察ニ大責ムレ之ヲ因テ往キ湖右ニ招ス募不ルヲ

希壽遣達于行朝。時海原爲左議政。海原乃宗挺之
妻從兄也。宗挺移書海原曰。本道監司。若自行朝除
送則旬月之間未易出來。道内守令中。惟光州牧使
權慓有膽略。此外無出其右者。時人心潰亂。内外洶
洶。皆以爲國事無復可爲。土賊處處蜂屯。聞趙重峰
起兵於湖右。金健齋起兵於湖西。李舜臣鄭運以舟
師大捷於閑山。人心始定。五月二十一日。重峰
召募義旅。應者雲集。而巡察使及列邑守令。
以爲不利於官軍。多方沮撓。重峰乃往見巡察于公

隙此里卒另金
動搖若有一卒逃者。領將以下皆斬。遂與參謀官前
萬戶林大壽馳到錦江大言責洗泰仁居武人白光
彦方在草土中聞變帶長劒馳進謂洗君父播越則
爲臣子者。挺身赴難可也。公聞道路之言以爲已未
及矣。令各陣罷兵是何意也。設使眞言公其事之乎。
發劒而前。洗流涕謝罪。卽令諸軍還聚。軍已潰散無
可奈何。與權慄白光彦等。同下全州。以謀再擧於是
長城居前王子師傅鄭雲龍光州居進士朴宗挺生
員柳思敬等抗疏陳李洗逗遛不臣之狀。令武人朴

隱墻洞ニ黑田勘解由。釜山。羅守。忠清道。富田民部少輔。小川早隆景。黃海道。森昔慶尚道。毛利耀元。全羅道。木村常陸守。蜂須賀阿波守。政守江原道。加藤主計頭。咸鏡道。小西攝津守平行長。平義智。平調信。玄蘇等。平安道。時全羅監司李洸。領精兵七萬陣ニ錦江ニ聞訛言遂傳令各陣ニ曰。矣其罷陣於是諸軍一時散還。相與歡呼鼓舞曰。新王卽位監司亦將被召上去矣其時光州牧使權慄。陣板時見諸軍退還。令其軍曰。各陣雖罷吾軍不可

陣ス于另ノ金一
其餘ノ臣僚モ亦相繼テ而逃ル其時ノ氣象ノ舉ヒ此レ可レ想フ於レ是賊
分テ兵ヲ列ス陣ヲ但後守。浦後守。何
石田治部少輔三成陣ス于明禮防洞。大谷刑部少輔吉
絳陣ス于墨寺洞。增田右尉門尉吉盛陣ス于鑄子
馬守陣ス于好賢坊洞。加藤遠江守陣ス于長興庫洞。備前國
羽柴宰相豐前守守利陣ス于鄭士龍家。富川
守喜多左京亮花房助兵衛江原兵庫守
頭陣ス于京陵洞。長盤紀伊守陣ス于西學洞。明石
水閣洞花房志摩助陣ス于桂林君。富家川

福等同〻護王子是日上命招城内外居民普老等慰
撫之因問曰予有何失人心而至於此耶汝等無隱
悉陳諸老伏地流涕曰時運所致聖上豈有失人心
之事乎但鄭徹以清名直節久在謫中請速放還初
二日上留松京是日有邏卒直入上前大呼曰李德
馨爲王上變色良久謂左右曰李德馨其如是乎俄
而德馨至官吏急告曰李德馨來到門外矣上大驚
與諸大臣及德馨相持痛哭初三日賊自東大門入
城是日上進駐平壤史官金善餘焚史草乘夜逃走

陰崖里又另鉉一

院君俞泓以爲人君當危難鎭靜是務不可先臣民搖動上書極言上曰當用卿言既而忠州敗報至二日海原自海州入京翌日上離京海原因陪駕至東坡館上引見曰卿兄弟勿離予效生死以之因解佩囊賜之先是數年前都下有京畿監司莫知其意於樵童牧相與呼唱而行人士聞之皆曰大月末日兩以京畿監司直領加聖體三十日晦乃大月末日也五月初一日上留松京卽命放還鄭徹有知卿素有忠孝大節可急赴平壤與俞泓李恆

迂下ルニ嶺右ニ通自ル京直下メ至ルニ嶺界ニ路塞テ不レ得レ達而還賊
乘レ勝長驅列邑望レ風奔潰無一處交レ鋒賊
鎰軍遮截鳥嶺玄蘇移レ書誘我曰
送ルニ李德馨ニ則約レ與ニ和好而退廟堂大喜即
至ルニ嶺界ニ申砬敗ル於德馨遂奔還時訛言騰播或以爲
三輔自ニ嶺東巳入ル都城ニ或以爲鄭汝立爲レ王吉三峰
爲ルニ政丞ニ或以爲鄭汝立爲レ王吉三峰
入リ日本ニ請レ倭而來中外洶洶上疑其爲ニ逆賊一決レ意西
行自ニ三内貿ニ白金繩鞋諸物ニ都下益騷動殆空杞城府

隙必里、手另金一
顧錯愕。面無人色。到此地頭。重峰之言。庶幾歎服而
西崖無言及之。惟曰。叔獻眞聖人也。吾輩當不免矣。平時叔獻請備十萬兵。吾意以爲迂而
萬古罪人。到今有大悔。咄咄不已。上思海原特召之日。
祖止之。到於是申砬李鎰不得已。括出市井年少。
再三問其至此。其令誠一多急下嶺南禦賊。
不知操弓者數千人。馳而南下。上大怒曰。
所誤。國事至此。其令誠一惶恐。
即日發程。上不勝憤怒。後數日。令禁府都事李通還
拿致闕下。時誠一自湖西。由金州南原雲峰。

差ニ韓應寅一別ニ具ス奏聞ヲ後南邊將吏奏ニ我國與レ倭通一而
天朝大臣有レ欲レ問ニ罪ヲ我國者與ニ重峰一
其先爲ス奏聞ヲ故ヲ天朝大加ニ褒奬ヲ仍賜ニ銀
聞ニ諸臣將一尹海原謫ニ配洪原一上念ニ海原請奏ス即日放
還復有ニ言者一量ニ移海州一於レ是西崖海原諸公皆得ニ銀
絹ヲ蓋奏聞ノ一事專出ニ於重峰一而西崖海原無ニ一言推
讓ニ反以爲ニ自得一大臣無ニ廉恥一如レ此國安得レ不レ亡乎明
年壬辰夏四月平酋大擧入寇十三日
翌朝進陷ニ東萊一府使宋象賢死レ之廟堂罔レ知ニ所レ爲相

隱岐里、又另金
然其言因大脩城池器械時朝廷疑賊來
未還前分遣各道助防諸將預爲防備之策又信使
還廟堂偏信誠一之言悉罷防備諸事二
臣及備邊諸宰臣論奏變有否西崖所對如前餘皆
不言自上遂定議奏聞令黃廷彧草奏本詳載賊情
西崖力請刪去通信一款以諱之順付於賀節使金
應南報于禮部應南曰如此大事順付似爲未安且
通信一款不及於奏本中何也西崖曰通信日本自
古有之雖不奏聞於義何害然終當別具奏聞矣續

兩書。極言大明之不可犯。辭語痛切。誠一之得名善使。其以此也。然答宣慰對馬兩書。非眞答乃擬作也。大言誇張。反爲之善使。不許宣慰對馬兩書爲擬作。大言誇張。反爲之善使。有目者無不洞見其心。而當時滿朝諸臣。徒知偏黨。識者皆以爲文人諸名士。不知兵事。反不如一武夫黃進相與監司權

唾罵之。四月重峰自沃川。遣子完堵。遣平安道兵馬使李浚濠完城。豫脩戰守之備。徵。延安府使申格書。勸以發見書大笑曰。黃海道平安道。豈有賊來之理乎。權公見書。皆以妖妄目之。歸語汝爺。愼勿復出此言。申公

陰必里ニ安ラ另ニ金ヲ
允吉カ所ノレ帶ル軍官黃進ニ不ノレ勝ヘ憤怒ニ於ニ衆中ニ揚テレ臂ヲ大言メ曰ク
人ヲシテ黃許之愚劣ヲ賊情尚能知ルレ之ヲ況ヤ以ニ誠一ヲ
有ンニ不ノレ知之理ニ乎ヲ此不ノレ過ノレ書ニ契中ノ多ク有ニ下犯ニ上國ニ不ノレ道之
語ニ上而無ニ一恐レ其得レ罪ヲ巧ニ爲如レ是之言ヲ受ニ來ス故ニ誠
寧ロ陷ニ於不ノレ知之地ニ其心ヲ罔レ測矣ヲ欲ニ上疏ヲ請ヲ斬ニ而爲ニ人ノ
所ニ止抑益誠一之蠹ニ日本ニ也ヲ與ニ黃允吉許ニ國分ニ
寺被ニ辱答ニ客難論ヲ觀光論拜ヲ庭下堂上ヲ副ニ官請樂入
都出都倭人禮單志等ノ七書ヲ往復論難ヲ其ニ答ニ玄蘇ニ前
後書ヲ力爭ニ閣下方物入ニ朝六字ヲ答ニ宣慰使ニ對馬島主ニ

脩ニ隣盟ヲ一也ト云云。此書初ニ有ニ閣下方物入朝等ノ語一。允吉
等貽ニ書ヲ一玄蘇ニ一。請ニ改ト六字ヲ一。則蘇卽馳啓ス。改ム閣下方物、四
字ヲ一。朝ニ二字則不レ許ト曰。以ニ此ヲ一朝ニ字非ニ特ニ貴國ニ一也。
允吉箴ニ以ニ其言ヲ一爲レ信。惟誠一不ニ以ニ爲レ然ト。與ニ玄蘇
往復論難。蘇猶不レ聽。明年辛卯黃允吉等與ニ玄蘇
義智平調信等偕來。玄蘇義智由ニ鳥嶺ヲ一調信。由ニ
竹嶺ヲ一分ニ二路ヲ一入レ京。允吉箴及ニ一行ヲ一上下大小人。皆以
爲ニ賊物ト一。廟堂以ニ誠一ヲ爲ニ善使ト一。陞ニ堂上ニ一。悉罷ニ防備諸事ヲ一。

隱此里史品錄
可海原尹公斗壽以爲奏聞然後可遣西崖主論以
黃允吉爲上使金誠一爲副使許筬爲書狀官回謝
越明年庚寅春黃允吉金誠一許筬等自釜山越海
三月而入日本國都入國都五月而始見平酋傳國
書□四日而出都出都二十日而答書至其書曰將
一超直入大明國易吾朝風俗於四百餘州施帝都
有遠慮無近憂者乎遠邦小島在海中後進輩者不
可容也予入大明之日將士卒望軍營則彌可

發因被拿鞫以此推之其
可想矣是歲九月平酋遣
對馬島倭橘康光來求和
通信使我國以年年入寇
賊倭信三甫羅緊時要羅
義智等押來獻之曰前日
知且刷還舊歲被虜人孔
使上命二品以上議可否
於是朝廷動色相賀以爲
南邊自此無憂議遣通信

太元等百餘人誑誘我國
侵犯皆此輩所爲非我所
使惟韓興李公山甫以爲不

隱岐里、乎另金
大源遂欤之一船陷沒、惟鹿島、水卒孫大
其夜賊不知所去、絶無形影、朝野震驚、卽
左右助防將益平、秀吉殺君篡立、乘其威勢、欲取路
我國侵犯大明、先以沙火同爲嚮導、遣若干船嘗我
國兵力之强弱也、時寶城郡守柳春發與賊對陣之
際、春發托以猝得狂疾、夜則食飮晝則全廢、人知其
爲佯狂、監司聞之、欲試其眞僞、移開于本郡曰、郡守
柳春發因晝夜馳進、監司始知其詐、卽聞于朝、春
赴任、自備邊司入啓、移授靈光郡守、除朝辭急急

柄ヲ驕蹇慢レ上。其志將ニ欲レ何ヲ爲ト一等、語ヲ訖ニ栗谷ニ使ニ栗谷ヲ不レ得レ接ヲ跡ヲ於朝。甲申正月。栗谷卒ス後當途ノ者。惟務ニ逢迎ニ偏黨ス。又陷ニ於逆賊術中ニ。以ニ王非子孫推刷ヲ爲ニ能事ト一。八道ノ人心大ニ叛キ怨極ツテ呼フ天ヨ。西南沿海ノ鮑人ヲ爲ニ守令ノ所レ侵。或逃テ入ニ日本ニ如ニ康津ニ沙火同ノ者。處處有レ之。朝廷不レ以爲ニ憂ト。後五年丁亥春三月。日本ノ賊十六艘。自ニ嶺南外洋ニ直ニ到リ興陽ニ損ニ竹島ヲ一。各鎭列邑ノ舟師。結ニ陣于相望處ニ。恇怯退縮。惟鹿島ノ萬戶李汝諄ノ進戰爲ニ賊ノ所レ圍。力竭勢窮。舉レ旗招ニ授諸將ニ皆不レ救。

事之時。經席勸勉。當以聖學爲先。而軍旅非急務。公有何所見。而不與吾輩相議經畧。自陳達若是耶。栗谷曰。俗儒何知時勢。笑而不答。鵝溪曰。而見成龍誤矣。叔獻字珥豈無所見。餘皆默然。栗谷顧謂之曰。諸君何以定其可否。東岡曰。此非吾輩所敢論也。不知古人以爲何如。鵝溪曰。肅夫宇字顯可謂謹愼君子也。相與戲笑而罷。未幾癸未年。北邊有胡亂。廟堂大臣不知所爲。栗谷以兵曹判書擔當規畫。僅得事定。當時朝臣。庶幾覺悟而尚不知悔。又以專擅國

壬辰録

萬曆壬辰。夏四月。日本賊大舉入寇。先是十年前。栗谷李先生珥。與鵝溪李山海。東崗金宇顒。西崖柳成龍諸公同入經筵。栗谷啓曰。國勢不振久矣。前頭之禍。不可不慮。請養兵十萬。都城二萬。諸道各一萬。以備緩急。不然而恬嬉度日。玩惕成習。一朝變起。不免驅市民而戰。則大事去矣。左右無一人贊揚。西崖至謂栗谷曰。方今太平無好謀沮之。及退。西崖謂栗谷曰。方今太平無

※ 이 책은 국고와 지방비 보조에 의해 간행되었음.

논개실기(論介實記)

인쇄 1997년 12월 20일
발행 1997년 12월 30일

편저자 오 병 무
발행인 김 진 영
발행처 장수문화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전화 : (0656)351-5349

인쇄처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전화 : 735-7202, 738-6270
FAX : 735-7202